

동아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대한중국학회 ·
부경대학교 글로벌차이나연구소

2021년도 대한중국학회 춘계학술대회

“디아스포라와 다문화주의”



동아대학교 공자아카데미



大韓中國學會
Korean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

【일 시】	2021년 5월 15일 (토) 13:00~18:00
【장 소】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C25-224강의실)
【주 최】	동아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대한중국학회 · 부경대학교 글로벌차이나연구소
【주 관】	대한중국학회 · 부경대학교 글로벌차이나연구소

목 차

- 식순안내 3
- 오시는길 7

【특별분과】

1. 도쿄 화교·화인의 현지 정착 실태에 관한 연구 / 김혜련 9
2. 동남아시아 화교: 디아스포라, 중화성, 초국적 비즈니스 / 박재수 25
3. 국제이주와 초국가 디아스포라 현상의 재조명
— 중국의 華僑華人을 중심으로 / 전형권 39
4. 중한 이중언어화자의 언어혼용 실태연구
— 동일 주제의 담화분석을 중심으로 / 이은주·김창경 67

【어학분과 I】

1. 전주(轉注)의 재고찰 / 곽현숙 79
2. (新)HSK6급 독해1영역의 문제유형 분석과 교수법 고찰 — 불필요한 성분, 동사의 오류, 성어활용의 적절성, 문맥상 논리적으로 모순된 문제 유형 위주로 / 한승 87
3. 《诗经》中“AA型”叠词的韩日译注对比
——以《诗经谚解》和《新译汉文大系·诗经》为中心 / 韩一·金炫兑 99
4. 온라인 기반 중국어 교수법 개발 연구
— 원어민을 활용한 블렌디드 수업 설계에 관하여 / 한희창 107

【어학분과II】

1. 額濟納漢簡의 隸書體 考察 / 홍영희 115
2. 現代漢語新興程度副詞“巨”的認知語義演化機制分析 / 陳依諾·明洋洋 125
3. 화행분석을 통한 『支那语集成』의 인물 간 권력 차이 고찰 / 서나진 139
4. 对韩国学生汉语声调的教学初步探索——以韩国高中学生为例 / 徐泽方 153
5. 汉韩“同形同义”成语比较研究——以新HSK6级真题为核心 / 李浩彬·金正勋 163

【문학분과】

1. 魯迅과 瞿秋白의 共同雜文에 대한 美學적 검토 / 조현국	173
2. 魯迅(魯迅)의 『古小說鈎沉』輯佚과 六朝小說 研究 — 장빙린(章炳麟)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이영섭 · 양영애	185
3. 샤오판홍(小粉紅)과 혐오의 네트워크 / 김태연	197
4. 集體記憶 · 文化創傷——從‘返校’系列談台灣의 白色恐怖敘事 / 李淑娟	211
5. 혐의와 증여 서사 / 유미경	223
6. 论高丽、朝鮮文人對“以詩爲詞”技法的受容 / 康慧振	231

【사회과학분과】

1. 別樣게임사절단과 이과쿠라사절단이 경험한 유럽 各國의 海洋文明 / 조세현	243
2. The effects of community urbanization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leisure time physical activity in Chinese adults: a multilevel study / Chen Nan	255
3. 魯西南地區彩禮價格影響因素分析 / 王彥迪 · 李丹	265

식 순 안 내

제1부 개회식 (13:00~14:00)

▶ 개회식 (OCEAN ROOM) 

13:00~14:00

- 사회 : 박민수 (대한중국학회 수석총무이사, 부산외대)


 **zoom** ID : 510-843-4975

□ 등 록 13:00~13:30

□ 개 회 식 13:30~14:00


- 개 회 사 김영기 (대한중국학회 회장)
- 환 영 사 문철주 (동아대 공자아카데미 원장)
- 축 사 장영수 (부경대 총장)
이중희 (부경대 글로벌차이나연구소 소장)
- 윤리교육 전체 학회 회원 대상 연구윤리교육
이용길 (대한중국학회 연구윤리위원장)

제2부 학술발표회 (14:00~17:30)

▶ 특별분과 - 온라인 발표 

14:00~17:30

- 사회 : 리 단 (부경대)

 **zoom** ID : 880-139-0907 PWD : 7050


- 1. 도쿄 화교·화인의 현지 정착 실태에 관한 연구
 - 발표 : 김혜련 (한성대)
 - 토론 : 리 단 (부경대)
- 2. 동남아시아 화교: 디아스포라, 중화성, 초국적 비즈니스
 - 발표 : 박재수 (배재대)
 - 토론 : 김형근 (신라대)
- 3. 국제이주와 초국가 디아스포라 현상의 재조명
 - 발표 : 전형권 (전남교육청)
 - 토론 : 황명호 (부경대)
- 4. 중·한 이중언어화자의 언어혼용 실태연구
 - 발표 : 이은주 (부경대) · 김창경 (부경대)
 - 토론 : 김정훈 (부산외대)

▶ 중국어학분과 I - 현장 발표 (C25-224)

14:00~17:30

■ 사회 : 김정필 (경상국립대)

- 1. 전주(轉注)의 재고찰
 - 발표 : 곽현숙 (경성대)
 - 토론 : 김현태 (부경대)
- 2. 新HSK 6급 독해1영역의 문제유형 분석과 교수법 고찰
 - 발표 : 한 승 (단국대)
 - 토론 : 이길연 (창신대)
- 3. 《诗经》中“AA型”叠词的韩日译注对比
——以《诗经译解》和《新译汉文大系·诗经》为中心
 - 발표 : 韩 一 (부경대) · 金炫兑 (부경대)
 - 토론 : 김령경 (江西师范高专)
- 4. 온라인 기반 중국어 교수법 개발 연구
 - 발표 : 한희창 (한양대)
 - 토론 : 이소현 (부산외대)

▶ 중국어학분과II - 온라인 발표 


14:00~17:30

■ 사회 : 최종식 (부경대)



ID : 333-637-8442 PWD : 444Hsq

- 1. 額濟納漢簡의 隸書體 考察
 - 발표 : 홍영희 (강릉원주대)
 - 토론 : 신세리 (한국외대)

▶ 중국사회과학분과 – 온라인 발표 

14:00~17:30

■ 사회 : 손상범 (영남대)



ID : 863-9885-1481 PWD : 012502

- 1. 벨링게임사절단과 이와쿠라사절단이 경험한 유럽 각국의 해양문명
 - 발표 : 조세현 (부경대)
 - 토론 : 김형렬 (동의대)
- 2. 지역 사회 도시화 수준과 개인적 특성이 중국인 여가시간 신체활동에 미친 효과 연구 - 다수준 분석을 중심으로
 - 발표 : 진 남 (고신대)
 - 토론 : 예동근 (부경대)
- 3. 鲁西南地区彩礼价格影响因素分析
 - 발표 : 王彦迪 (부경대) · 李 丹 (부경대)
 - 토론 : 진 남 (고신대)

제3부 폐회식
(17:30~18:00)

▶ 폐회식 (C25-224)

17:30~18:00

■ 사회 : 박민수 (대한중국학회 수석총무이사, 부산외대)



ID : 510-843-4975

- 폐 회 식 17:30~18:00
 - 우수논문상 시상 문철주 (동아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원장)
 - 폐 회 사 김영기 (대한중국학회 회장)

오시는 길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인문사회과학대학 (인문사회경영관)

(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 캠퍼스 주소

- (48513)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 (051)629-4114, FAX (051)629-5119

◆ 지하철 이용 노선안내

- 1호선 :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학교로 노포동 → 서면(환승) → 경성대,부경대역 3번 출구
- 1호선 : 부산역에서 학교로 부산역 → 서면(환승) → 경성대,부경대역 3번 출구
- 2호선 :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학교로 사상 → 서면 → 경성대,부경대역 3번 출구

【특별분과】 발표 ①

도쿄 화교·화인의 현지 정착 실태에 관한 연구

김혜련*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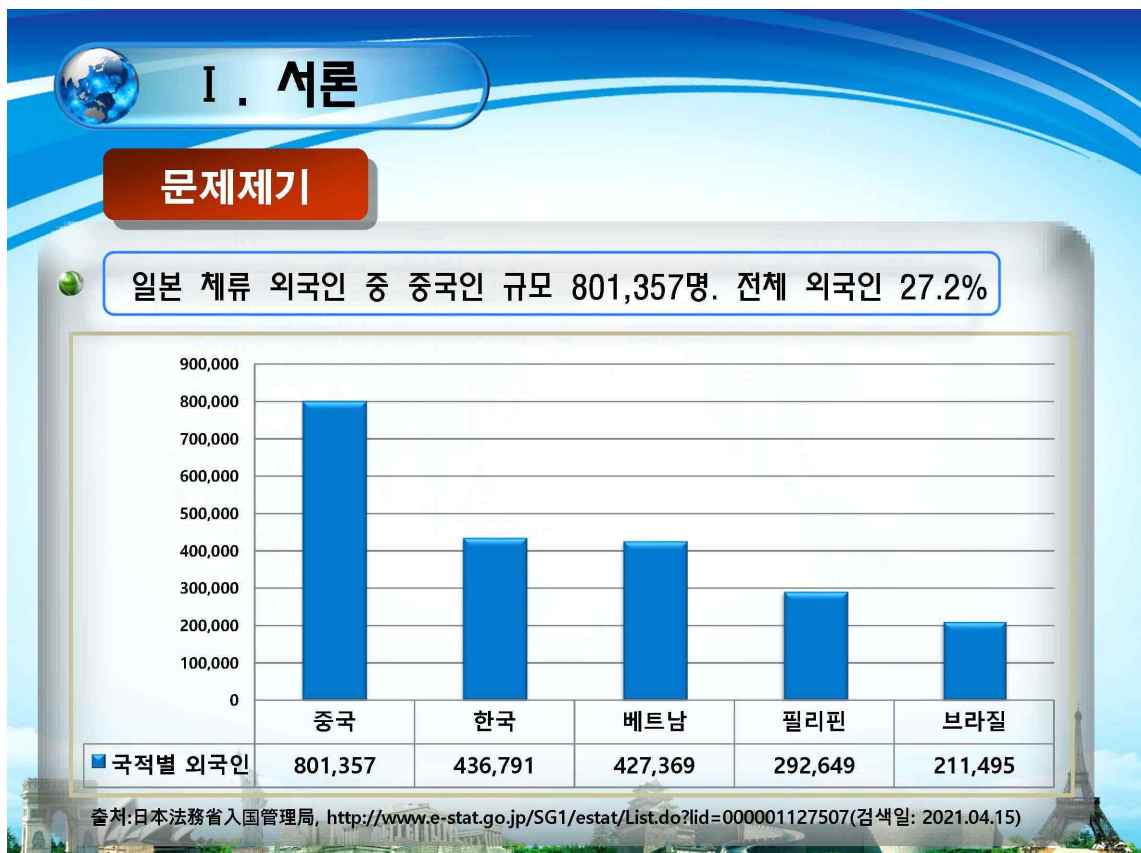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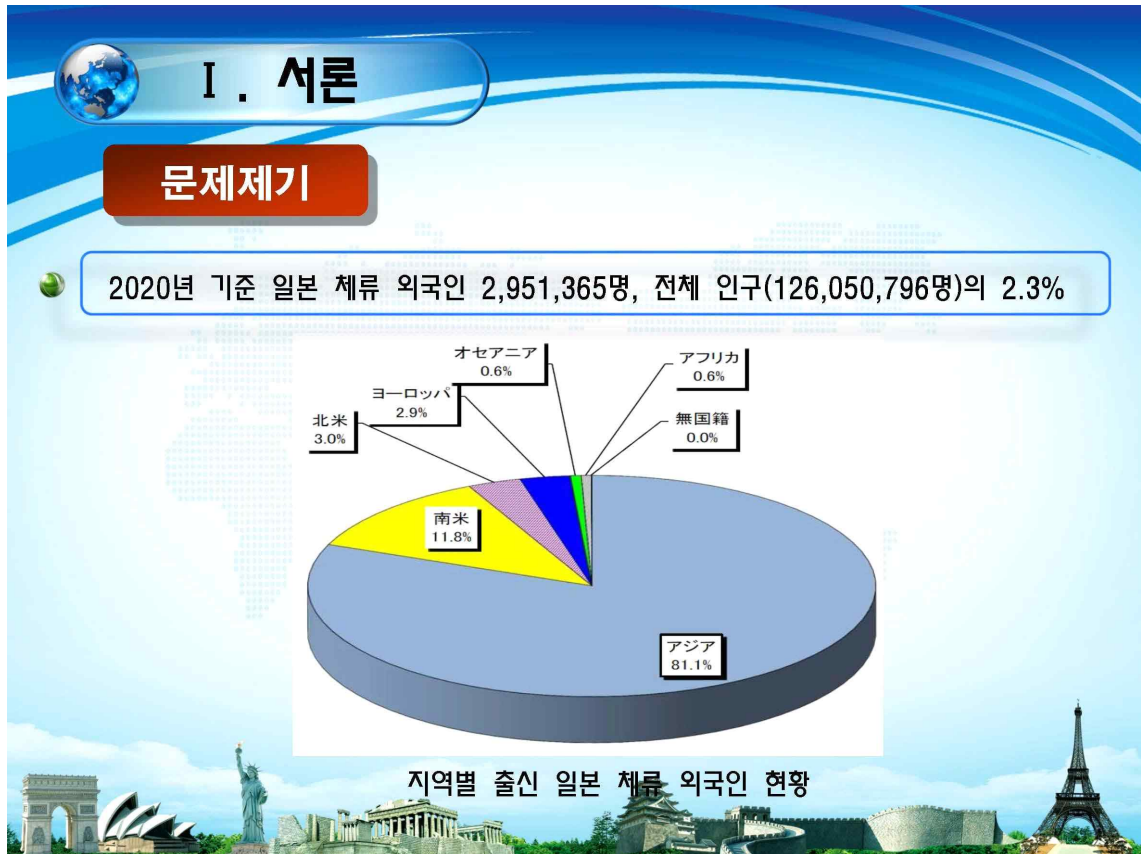
1. 서론
2. 일본 화교·화인사회 특징
3. 도쿄의 다문화공간: 이케부쿠로 차이나타운
4. 도쿄의 화교·화인 민족공동체
5.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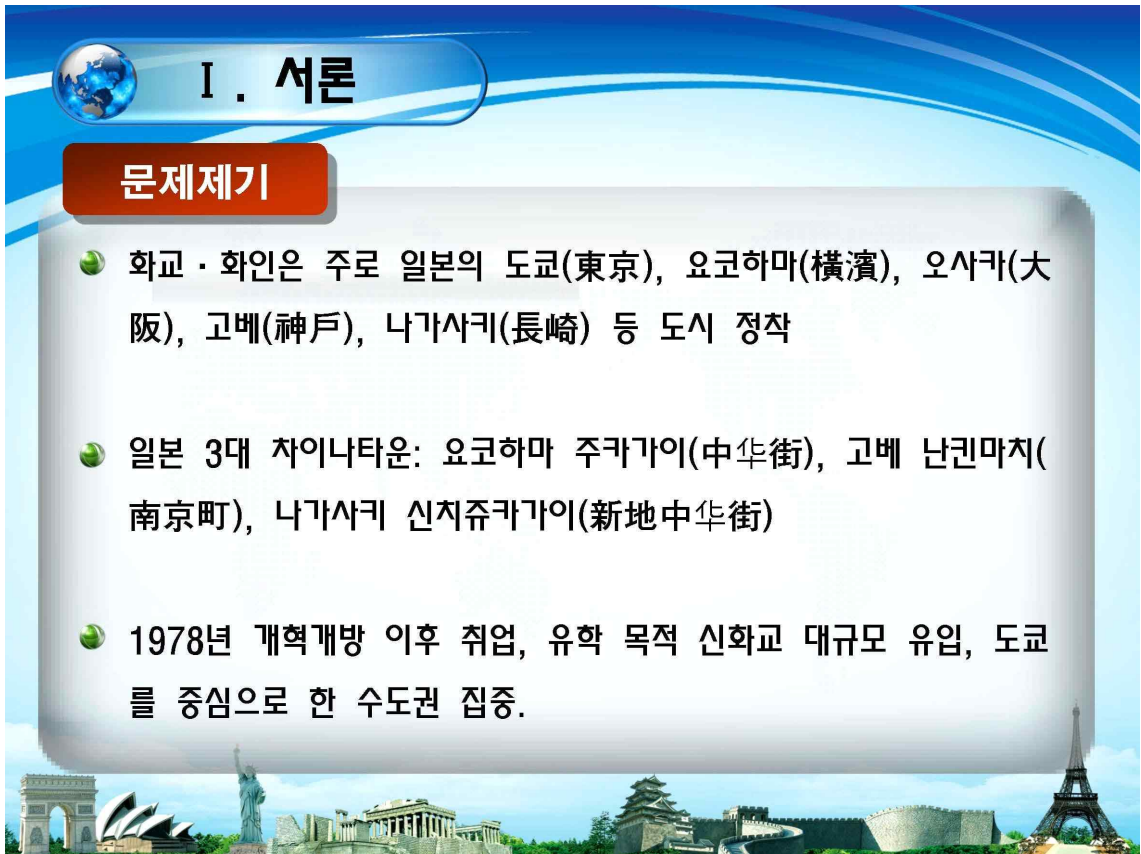
I. 서론

문제제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해 세계화 주춤
- 이민 수용국 체류 외국인 감소 추세.
- 2020년 기준 일본 체류 외국인 2,951,365명. 51만 명 감소
- 중국계 이주민 화교·화인은 가장 큰 이주민 집단

* 한성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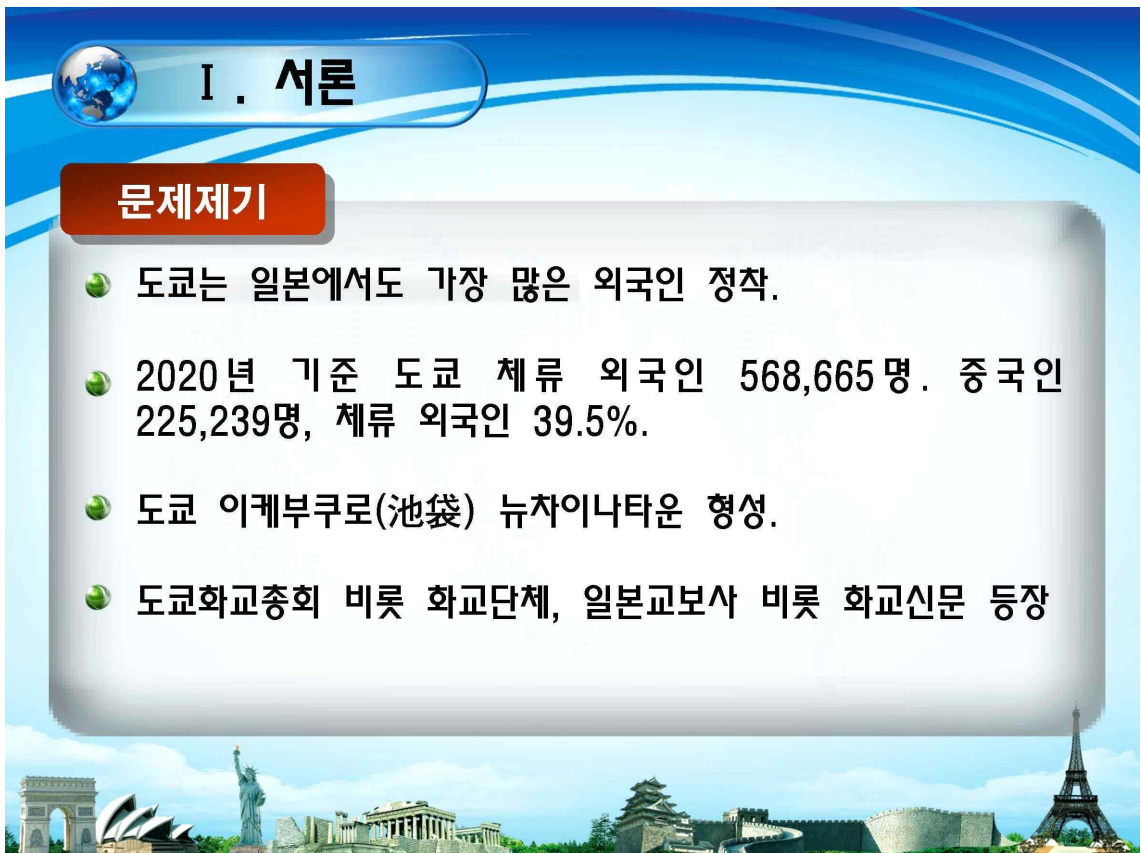




I . 서론

문제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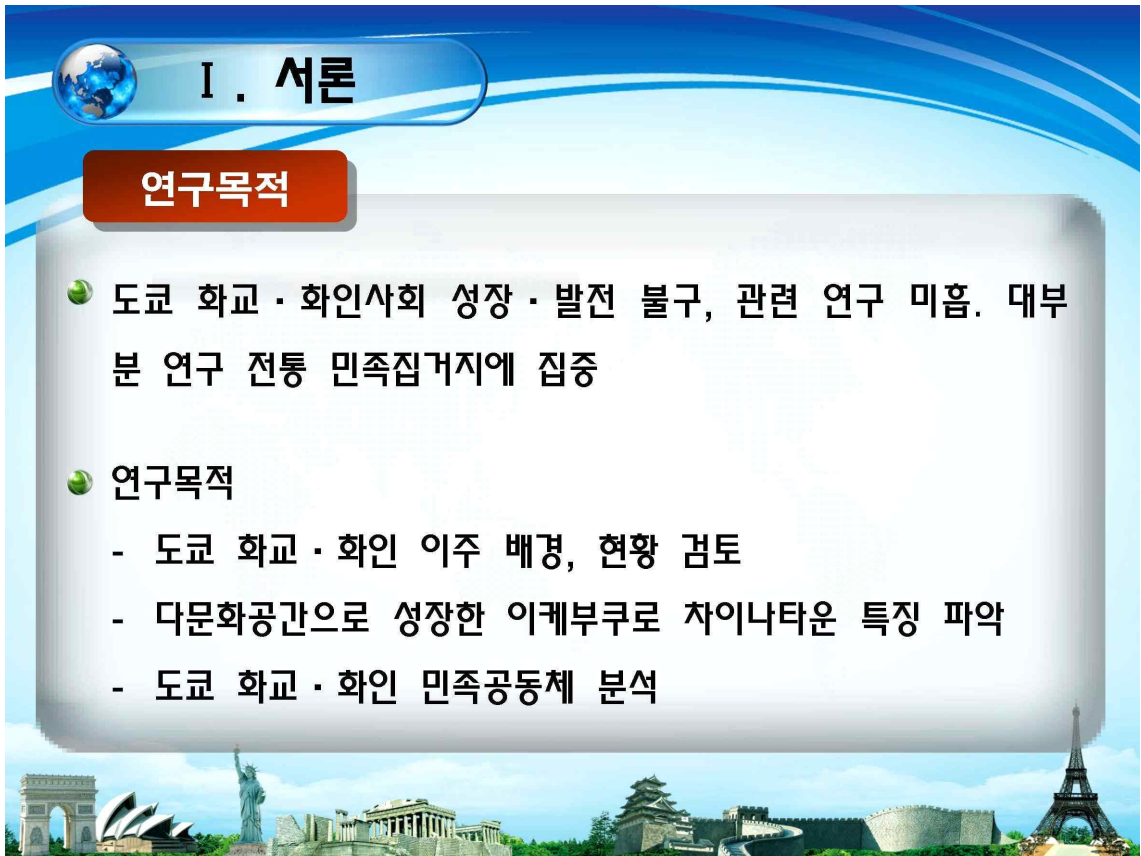
- 화교 · 화인은 주로 일본의 도쿄(東京), 요코하마(橫濱), 오사카(大阪), 고베(神戸), 나가사키(長崎) 등 도시 정착
- 일본 3대 차이나타운: 요코하마 주카가이(中华街), 고베 난킨마치(南京町), 나가사키 신지쥬카가이(新地中华街)
-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취업, 유학 목적 신화교 대규모 유입,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중.



I . 서론

문제제기

- 도쿄는 일본에서도 가장 많은 외국인 정착.
- 2020년 기준 도쿄 체류 외국인 568,665명. 중국인 225,239명, 체류 외국인 39.5%.
- 도쿄 이케부쿠로(池袋) 뉴차이나타운 형성.
- 도쿄화교총회 비롯 화교단체, 일본교보사 비롯 화교신문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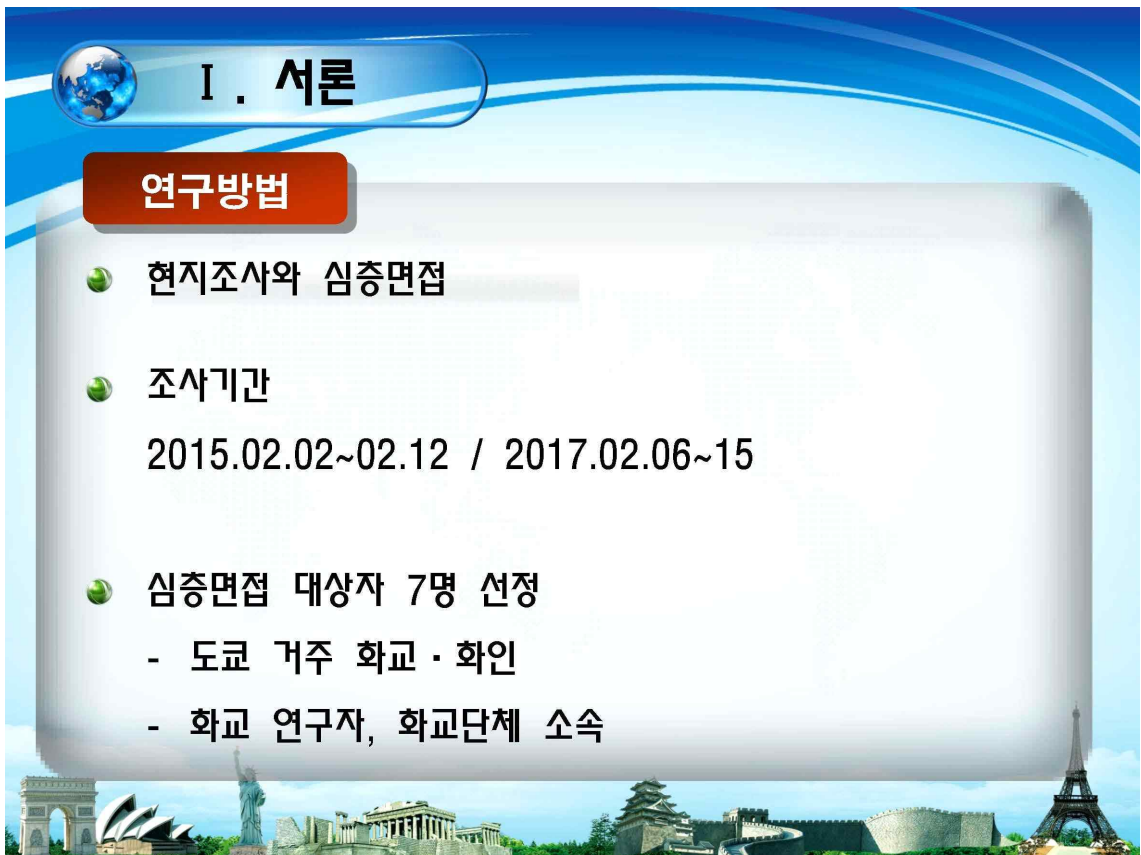


I. 서론

연구목적

- 도쿄 화교 · 화인사회 성장 · 발전 불구, 관련 연구 미흡. 대부분 연구 전통 민족집거지에 집중
- 연구목적
 - 도쿄 화교 · 화인 이주 배경, 현황 검토
 - 다문화공간으로 성장한 이케부쿠로 차이나타운 특징 파악
 - 도쿄 화교 · 화인 민족공동체 분석

The slide features a blue header with a globe icon and a red box for the section title. The background is a light blue gradient with a collage of world landmarks at the bottom, including the Arc de Triomphe, Sydney Opera House, Statue of Liberty, Parthenon, Japanese Castle, and Eiffel Tower.



I. 서론

연구방법

- 현지조사와 심층면접
- 조사기간
2015.02.02~02.12 / 2017.02.06~15
- 심층면접 대상자 7명 선정
 - 도쿄 거주 화교 · 화인
 - 화교 연구자, 화교단체 소속

The slide features a blue header with a globe icon and a red box for the section title. The background is a light blue gradient with a collage of world landmarks at the bottom, including the Arc de Triomphe, Sydney Opera House, Statue of Liberty, Parthenon, Japanese Castle, and Eiffel Tower.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번	참여자	국적	연령	거주지	이민세대	직업
참여자 1	천○○(陈○○)	일본	40대	도쿄	이민 2세대	대학교 교수
참여자 2	리○○(李○○)	중국	50대	도쿄	이민 1세대	회사원
참여자 3	왕○○(王○○)	중국	50대	도쿄	이민 1세대	가정주부
참여자 4	오○○(吴○○)	중국	20대	도쿄	이민 1세대	유학생
참여자 5	천○시(陈○○)	일본	60대	도쿄	이민 2세대	화교단체 부회장
참여자 6	한○○(韩○○)	중국	30대	도쿄	이민 1세대	회사원
참여자 7	장○(张○)	중국	20대	도쿄	이민 1세대	부동산 중개업

II. 일본 화교·화인사회 특징

1. 일본 최대 이주민 집단

- 대규모 중국계 이주민 일본 이주는 19세기 중반부터 본격화. 특히 1978년 이후 폭발적 증가
- 중국 송출요인
 - 개혁개방 이후 중국 유학 붐 재개
 - 1984년 『자비출국유학에 관한 잠행 규정(关于自费出国留学的暂行规定)』
 - 1986년 『공민 출입국 관리법(公民出境入境管理法)』 발표, 개인 출입국 허용됨.

II . 일본 화교 · 화인사회 특징

1. 일본 최대 이주민 집단

- 일본 흡수요인
 - 저출산, 고령화로 해외 노동력 유입 및 유학생 유치 절실
 - 1983년 “유학생 10만 명 계획” 발표
 - 2008년 “유학생 30만 명 계획” 발표
 - 유학생 일본 취직 장려
- 2007년 재일코리안 초과, 일본 최대 이주민 집단으로 성장

II . 일본 화교 · 화인사회 특징

1. 일본 최대 이주민 집단

일본 체류 중국인 규모 변화 추이(2011~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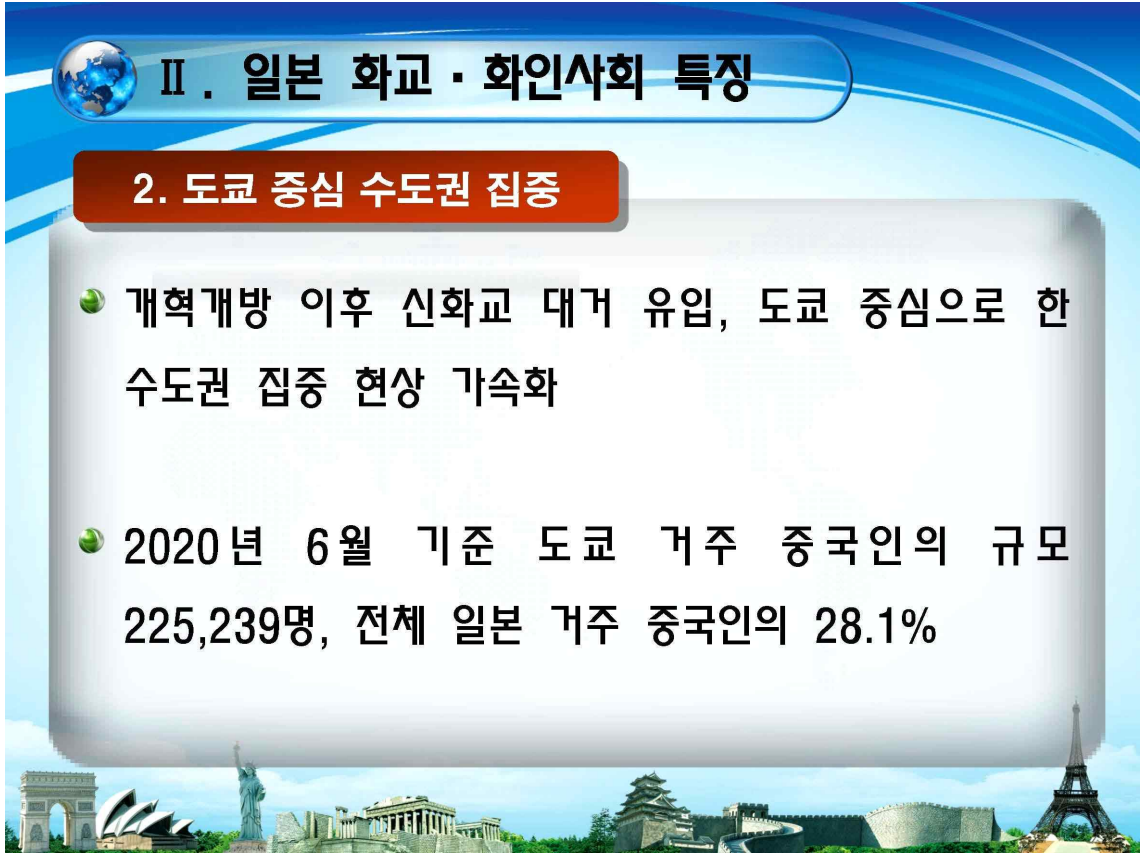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일본 체류 중국인	674,879	683,452	699,154	721,097	785,982	830,385	878,010	933,680	1,044,27	801,357

출처: 일본 법무성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정리, "在留外国人統計," <https://www.e-stat.go.jp/>(검색일: 2021.04.15.)

II. 일본 화교·화인사회 특징

2. 도쿄 중심 수도권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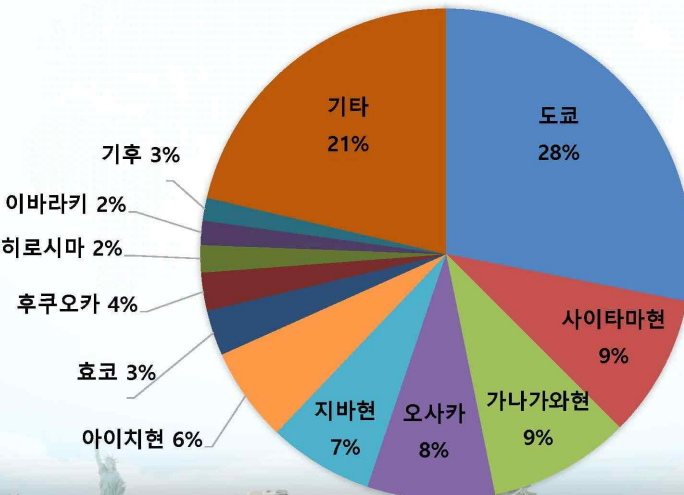
- 개혁개방 이후 신화교 대거 유입, 도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중 현상 가속화
- 2020년 6월 기준 도쿄 거주 중국인의 규모 225,239명, 전체 일본 거주 중국인의 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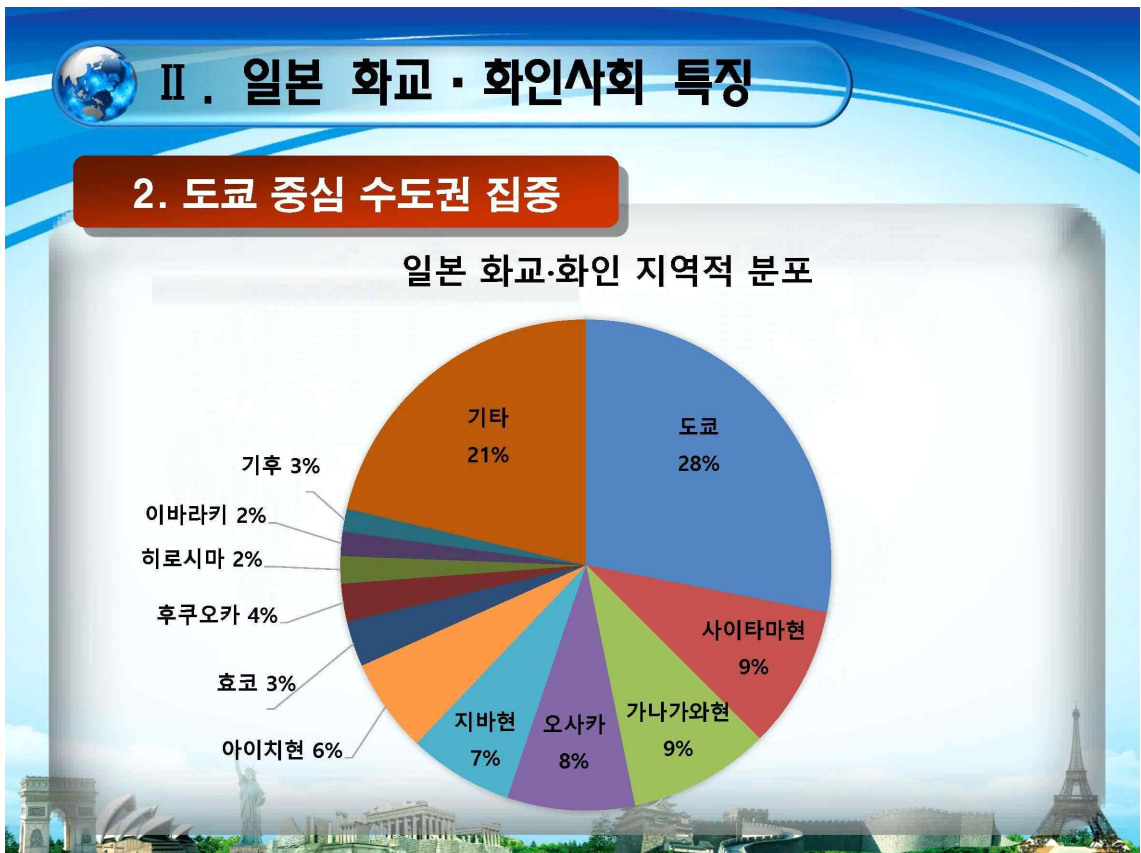
II. 일본 화교·화인사회 특징

2. 도쿄 중심 수도권 집중

일본 화교·화인 지역적 분포



지역	비율 (%)
도쿄	28%
기타	21%
사이타마현	9%
가나가와현	9%
오사카	8%
아이치현	6%
지바현	7%
후쿠오카	4%
효코	3%
기후	3%
히로시마	2%
이바라키	2%



II . 일본 화교 · 화인사회 특징

2. 도쿄 중심 수도권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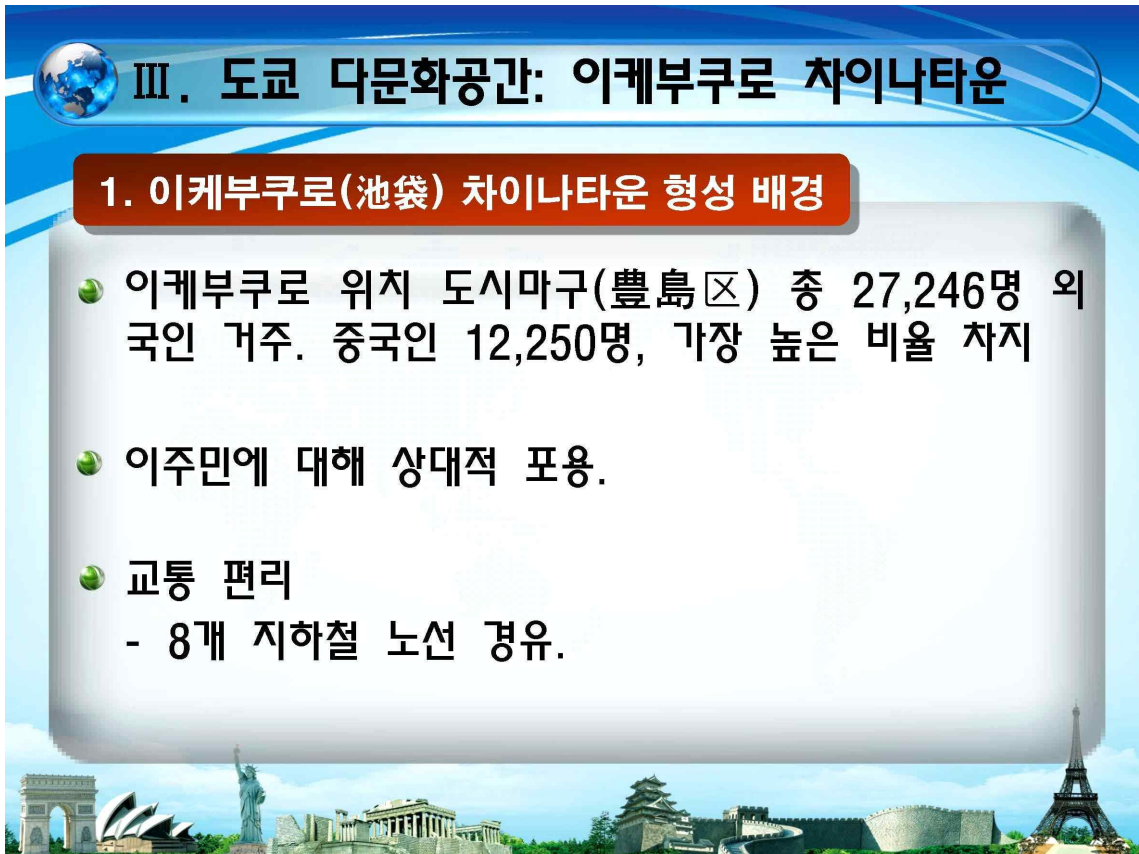
도쿄 화교 · 화인사회의 변화

시기구분	정체기 (제2차세계대전 이후~ 1978년)	폭증기 (1979~1988년)	안정기 (1989년~현재)
출신지역	대만 + 삼강(三江) 지역 출신	상해, 복건 출신	흑룡강, 길림, 요녕 등 동북지역 출신
거주형태	분산	이케부쿠로, 신주쿠를 중심으로 집거지 형성	정주화
화교 · 화인	구화교	구화교+신화교	신화교

II . 일본 화교 · 화인사회 특징

3. “산바도우(三把刀)” 에서 “삼고(三高)” 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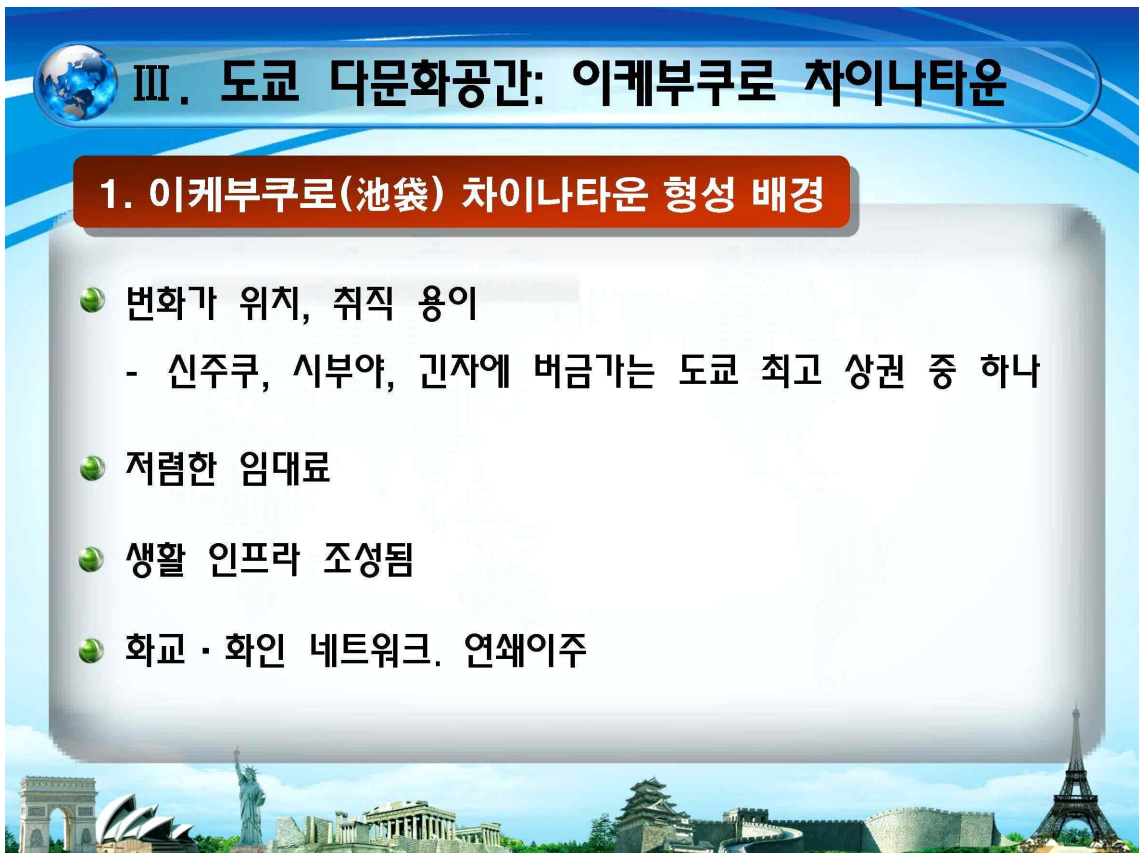
- 구화교
 - 이발소, 양복점, 중식당 비롯 “산바도우(三把刀)” 업종 종사. 취약한 경제적 지위
- 신화교
 - 三高 : 고헌력(高学历), 고기술(高技术), 고인맥(高人脉)
 - 교수 1,325명 / 고도전문직 10,098명
 - 경영·관리직 14,330명 / 연구직 345명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업무 종사자 94,105명
 - 중국 유학생 119,302명



Ⅲ. 도쿄 다문화공간: 이케부쿠로 차이나타운

1. 이케부쿠로(池袋) 차이나타운 형성 배경


- 이케부쿠로 위치 도시마구(豊島区) 총 27,246명 외 국인 거주. 중국인 12,250명, 가장 높은 비율 차지
- 이주민에 대해 상대적 포용.
- 교통 편리
 - 8개 지하철 노선 경유.



Ⅲ. 도쿄 다문화공간: 이케부쿠로 차이나타운

1. 이케부쿠로(池袋) 차이나타운 형성 배경



- 변화가 위치, 취직 용이
 - 신주쿠, 시부야, 긴자에 버금가는 도쿄 최고 상권 중 하나
- 저렴한 임대료
- 생활 인프라 조성됨
- 화교·화인 네트워크, 연쇄이주



Ⅲ. 도쿄 다문화공간: 이케부쿠로 차이나타운

2. 이케부쿠로(池袋) 차이나타운 특징


- 화교신문사, 여행사, 식당, 식자재 가게, 중국 마트, 서점, PC방 등 300여 개 화교·화인 운영 가게 집중
- 신화교에 의해 조성된 민족집거지
 - 상해·복건·흑룡강·길림·요녕 등 출신지역 다양
 - 요코하마 비릇 전통 민족집거지에 비해 역사 짧음



Ⅲ. 도쿄 다문화공간: 이케부쿠로 차이나타운

2. 이케부쿠로(池袋) 차이나타운 특징

- 전통 민족집거지와 달리, 파이러우(牌樓) 비릇 중국식 건축 조성되지 않음
- 치열한 경쟁, 느슨한 네트워크 구축





IV. 도쿄의 학교 · 학인 민족공동체

1. 민족교육의 장: 도쿄중화학교

일본 학교학교 현황

학교명칭	위치	학제	설립시간
도쿄중화학교 (东京中华学校)	도쿄 (东京都千代田区 5-14)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929년
요코하마중화학원 (横浜中华学院)	요코하마 (横浜市中山区山手町 142)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898년
요코하마야마테중화학교 (横浜山手中华学校)	요코하마 (横浜市中山区山手町 43)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1898년
오사카중화학교 (大阪中华学校)	오사카 (大阪市浪速区敷津东1-8-13)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1946년
고베중화동문학교 (神戸中华同文学校)	고베 (神戸市中央区中山手道 6-9)	초등학교, 중학교	1899년

IV. 도쿄의 학교 · 학인 민족공동체

1. 민족교육의 장: 도쿄중화학교

- 도쿄 지요다구(千代田区) 위치 대만계 학교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설립
- 중국어, 일본어, 영어 3중언어교육 병행



IV. 도쿄의 화교 · 학인 민족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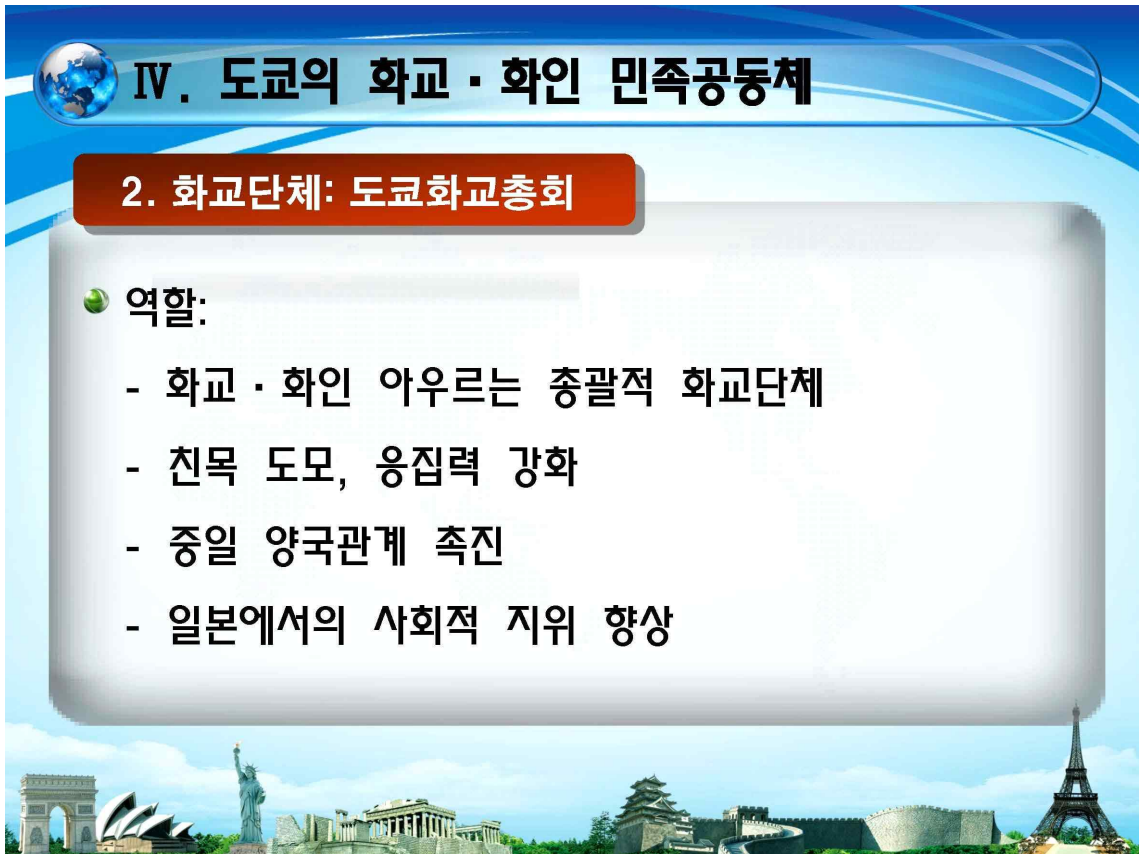
2. 화교단체: 도쿄화교총회

일본 대표적 화교단체

유형	학연	업연	지연	종합적
대표단체	학인교수회	일본중화 총상회	일본호남 동향회	도쿄화교총회
설립시간	2003년	1999년	1990년	1946년

IV. 도쿄의 화교 · 학인 민족공동체

2. 화교단체: 도쿄화교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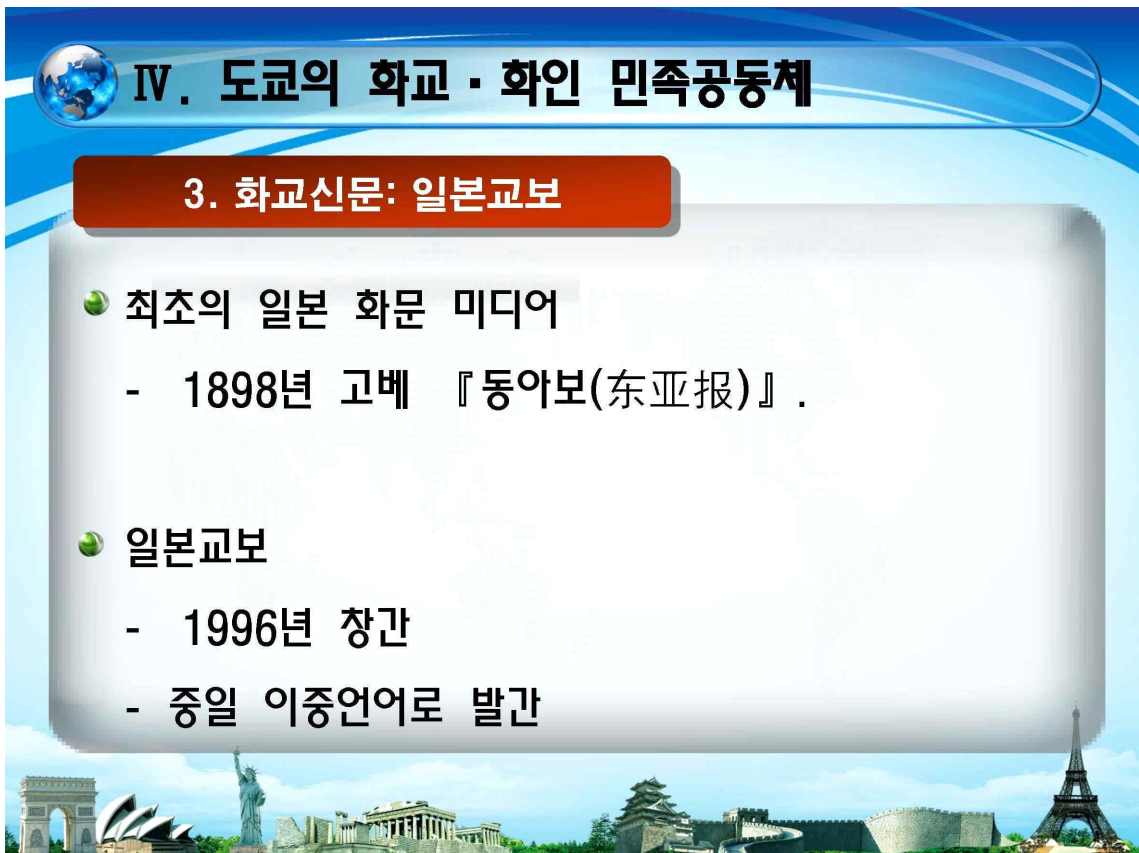


IV. 도쿄의 화교·화인 민족공동체

2. 화교단체: 도쿄화교총회

● 역할:

- 화교·화인 아우르는 총괄적 화교단체
- 친목 도모, 응집력 강화
- 중일 양국관계 촉진
- 일본에서의 사회적 지위 향상



IV. 도쿄의 화교·화인 민족공동체

3. 화교신문: 일본교보

● 최초의 일본 화문 미디어


- 1898년 고베 『동아보(东亚报)』 .


● 일본교보

- 1996년 창간
- 중일 이중언어로 발간

IV. 도쿄의 화교 · 화인 민족공동체

3. 화교신문: 일본교보




결론

결론

- 도쿄 화교 · 화인사회
 - 구화교, 신화교, 중국계, 대만계 공존
 - 신화교가 주요한 구성원으로 성장
- 모국어, 전통문화, 민족정체성 유지
- 뉴차이나타운 형성
- 화교학교, 화교단체, 화교신문을 통해 민족공동체 형성



【특별분과】 발표 ②

동남아시아 화교: 디아스포라, 중화성, 초국적 비즈니스
Overseas Chinese in Southeast Asia
: Diaspora, Chineseness, Transnational Business

박재수*

【목 차】

- I. 서론
- II. 화교 : 디아스포라
- III. 연구방법 (기준)
- IV. 동남아시아 화교의 중화성과 초국적 비즈니스
- V. 결론

I. 서 론

해외거주중국인은 세계 168개국에 8,700여만 명 정도이고 이중 90%가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중국국무원, 2007). 다만 이 수치는 현지국에 오랜 기간 정착하면서 동화 과정을 경험한 화교 수를 감안한 것이 아니라 중국정부의 포괄적인 정의로서 해외거주중국인의 규모이다. 최근에 이주한 뉴커머(newcomer)까지 포함한 것이다. 그렇다면 디아스포라 연구에서 산정되는 화교의 수는 얼마나 될까. 보통 오랜 정착기간 동안 이주와 정착과정을 거쳐 왔던 이들을 화교로 파악하며 그 범위에서 약 4,000만명 이상으로 추산한다(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그리고 73% 이상이 동남아시아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북미는 두 번째임). 물론 최근에 미국, 캐나다를 비롯하여 호주, 뉴질랜드로 이동이 느는 중이어서 차후에 이주 및 정착기간이 오래된 이후에 디아스포라 관련 연구가 진행된다면 지금의 화교 수보다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즉 화교는 최근의 이주자보다 역사적으로 오래된 이주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정착과정의 어려움과 극복, 현지인으로서 및 중국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정체성, 성공적인 비즈니스 성과에 관심이 있어왔다. 특히 현재 화교 자본은 약 3조 달러에 달하고 동남아시아 경제의 70%를 차지하는데 그 성장과정에서 현지인에게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중국에 다가서기도 하는 한편 글로벌스탠다드를 준수하는 역동성도 보였다.

본 연구는 오랜 이주역사를 지닌 동남아시아 화교의 중화성(中華性, 중국문화 friendly)과 초국적 주의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국제 이주과정에서 나타나듯이 현지국과 출신국 간의 관계에

* 배재대학교 교수

서 이주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현지동화, 출신국 지향성 등의 이슈가 부각된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화교의 이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 경험이 다양한 만큼 공통적인 특징의 일반화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에 다른 이유로 다양한 나라에서 살고 있어서 매우 이질적인 정착 과정과 생활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현지문화의 동화, 중국문화의 표출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유연하게 혼재되어서 화교사회는 이렇다라고 결론짓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과도하게 동질적이지도 않고 이질적이지도 않은 상태로 화교사회를 정의하곤 한다. 환언하면 명나라 시기 정화의 원정이후부터 본격화된 화교의 디아스포라를 감안해 볼 때, 동남아시아 각국으로 이주하는 배경이 다르고 정착기간 동안 변화해 오면서 현지국의 조건들이 서로 겹쳐져서 복합적인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현지인으로서, 중국인으로서 유연한 문화 요소를 모두 포함하기도 한다.

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 화교사회의 성공을 논할 때 최근의 연구자들은 현지문화보다 중국문화에서 가져온 개인중심적 사고, 교육열,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지적한다. 항상 자신이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개인중심(모험심, 진취성)과 세계 트렌드를 흡수하기 위한 유학 등의 교육열, 그리고 화교연대를 형성하는 국제네트워크(차이나타운, 화상대회)의 구심점에 관한 것이다. 물론 현지국 및 글로벌적인 정치경제적 변화를 흡수하는 기본적 행동은 당연히 한다. 중국 문화에 익숙하게 행동하면서 실리적으로 현지국 및 글로벌 변화를 흡수하는 동질성과 이질성의 양면을 지닌 가운데 중화성과 초국적주의의 균형은 화교사회에서 존속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II. 화교 : 디아스포라

1. 디아스포라에서 화교

디아스포라는 원래 유대인 민족이 해외로 흩어진 역사적 사건과 공동체 문화의 결속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수의 민족에서 디아스포라가 확인되면서 좀 더 넓은 의미, 즉 ‘고향을 떠나 항구적으로 해외에 자리 잡은 민족 또는 집단의 이주(移住) 또는 산재(散在)’로 정의한다. 가장 큰 규모의 디아스포라는 독일계가 2010년 기준으로 약 9,500만 명이며 아일랜드계가 7,000만 명으로 2위¹⁾, 그리고 중국계가 3위이다. (<표1>) 아일랜드계의 1/2과 독일계의 4/5는 현재 미국에 살고 있으며, 약 2%미만의 미국 원주민을 제외하면 98%이상이 이주자인 것이다. 미국의 독일계와 아일랜드계는 3위의 중국인 디아스포라보다 규모가 매우 크다.

<표1> 2010년 디아스포라 규모 15개국 순위

순위	디아스포라	확산(천명)	주요사건
1	독일	95,000	미국 경제적발전으로 유인(1840년대 부터)
2	아일랜드	70,000	대기근 이후(1845년~) 북미 및 남미로 이민
3	중국	40,300	정화의 원정(1405년~, 동남아정착시작), 19세기 청 혼란기
4	영국	38,000	1600년대 초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이민
5	멕시코	35,000	1982년 멕시코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미국으로 이주

1) 2012년 아일랜드 인구가 약 640만 명 정도인데 디아스포라는 7,000만 명

6	남아프리카	30,600	식민기 이주유럽인 재이동 등(아프리카인과 백인갈등)
7	러시아	28,500	구소련의 붕괴, 구소련 구성 14개국 거주 러시아인
8	인도	21,900	1830년대부터 계약노동자이주, 독립후 서구산업국가 이주
9(공동)	이탈리아	20,000	제2차 세계대전 이후(1945~)
9(공동)	폴란드	20,000	18세기폴란드분할(주변국에 분할), 1990년대 서유럽노동
9(공동)	우크라이나	20,000	19세기말 20세기 사회불안정(1,2차대전), 정치/경제적이민
12	나이지리아	17,000	1960년영국식민지 독립 이후 내전으로 사회불안정
13	레바논	14,000	1980년대 레바논 내전이후(페니키아상인의 후손)
14	이스라엘(유대인)	13,500	기원전 중동전역 확산, 유대-로마전쟁(132년)
15	필리핀	9500	1965년 미국 이민법 개방 이후, 필리핀 노동 이주 정책

한편 중국인 디아스포라는 동남아에서 아메리카, 유럽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으며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다음으로 역사가 긴 역사를 지닌다. 유대인들은 농토를 소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상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화교는 동남아시아 진출 초기부터 장사나 무역을 업으로 하였던 차이도 있다.

2. 화교 : 디아스포라 패턴

역사적이고 전형적인 패턴에서 화교의 디아스포라 현상을 논하자면 출신국 중국에서 상인으로 이주하거나, 노동자로서 이주하는 형태가 있으며, 정착화교가 새로운 국가로 다시 이주하는 형태가 있다.

첫 번째는 거주국에 비즈니스를 구축하면서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상인 또는 무역업자 패턴이다. 주로 남자들이 거주국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난 후에 가족을 이주시키는 형태를 보인다. 비즈니스가 번창하면 할수록 중국인 특성은 더욱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주로 19세기 이전에 동남아시아로 이주한 화교들의 공통적인 패턴으로 화상(華商)의 전형이다. 둘째는 1840년대에서 1920년대까지 미국과 호주로 이주한 노동자 패턴이다. 특히 1862년 미국에서 흑인노예가 해방되자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인을 대체노동력으로 데려왔다. 화교 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이며 이들을 쿨리(苦力, coolie)라고 부르며 화교와 연관하여 화공(華工)으로 지칭한다. 더구나 영국은 싱가포르, 페낭, 말라카와 같은 나라를 식민지로 건설하면서 개발에 필요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쿨리들을 데리고 왔으며, 그 밖에 포르투갈, 네덜란드, 스페인 등도 쿨리를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박정동, 2008). 셋째는 1950년대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외거주의 중국인 자손들이 또 다른 외국으로 이주하는 패턴이다. 대표적으로 동남아시아 화교는 서유럽으로 많이 이주하였다. 중국 본토 외 국가에서 거주하는 중국인 2, 3세는 현지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다수인데, 동남아시아에 오랜기간 정착하여 현지 동화가 진전된 화교 자손과 서유럽 등으로 이주한 화교 자손들은 ‘화인(華人)’로 불린다²⁾. 이외에 1911년 청왕조가 무너지면서 지식인들의 해외이주 패턴도 존재한다.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동남아시아로 다수의 선생들이 이주하였으며 중국인 문화와 중국식 교육을 전파하기도 하였다.

다만 화상, 화공, 화인(화예 포함)에 관한 분류는 중국식 버전으로 구분된 것으로 보편화된 분류

2) 화인 가운데 중국계 사회에 참여하지 않은 현지 국적자를 ‘화예(華裔)’로 분류하는 최근엔 화예를 제외한 화인만을 화교라 칭함.

법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상술한 지식인들의 디아스포라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통역관이나 병사들이 현지에 정착하여 상인으로 변모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교는 현지국에 정착하면서 중간상인으로서 활동한 경우가 많았으며 근대에 이주한 화교들은 식당, 가게, 소규모 무역 등의 스몰비즈니스에서 대기업까지 직업을 확장시켰다. 간혹 화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가족의 배경에 비즈니스는 존재한다. 그래서 화교 자녀는 어릴 때부터 가족의 비즈니스 분위기를 익히는 게 당연하다. 더구나 현재 화교가 거주하는 국가는 현대적인 비즈니스와 스몰비즈니스 개발에 도움이 되는 부유하고 도시가 잘 발달된 곳이다.

3. 화교의 디아스포라 이슈로서 초국적주의와 중화성

초국적주의(transnationalism)는 국제적 이주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주자들의 출신(태생) 사회 및 정착 사회에 연결되는 다각적인 사회화 과정”으로 정의된다. 그래서 초국적주의는 출신국가 부동화와 정착국가 동화작용(dissimilation/assimilation)에 주목한다. 물론 완전한 부동화와 동화를 주장하지 않는다. 디아스포라와 출신국가 간의 상호작용은 당연한 것이며 디아스포라 사회의 건설과정 또한 관심사이다. 일례로 차이나타운은 잘 구축된 중국문화가 내재된 사회로서 중국인 이주자의 진입경로이면서 고향에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장소이다. 그 이유는 차이나타운은 내부구성원과 외부인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중국인이 이주한 모든 국가에 차이나타운이 정착된 것은 아니지만 대신에 중국인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건설하고 현지국과 출신국의 연결고리 역할을 자처한다. 그래서 중국인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현지국 문화에 동화되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중국문화에 친근한 중화성을 지향한다. 디아스포라는 현지국과 출신국 간의 문화적 균형을 만들어가는 만큼 배타적 과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일례로 미국으로 이주해 온 유대인, 독일인, 아일랜드인, 이탈리아인은 정착과정에서 정치적 투쟁과 현지시민이 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미국인이 되었다. 영국계는 이주 주류라서 미국인의 정체성에서 중심을 잡았고 독일계는 영국계와 더불어 초기에 이주하였고 영국계와 큰 차이를 지니지 않아서 미국인 정체성에 동화된 데 비해 아일랜드계나 동유럽의 유대인들이 많았던 폴란드계나 러시아계, 그리고 이탈리아계는 디아스포라공동체를 오랫동안 유지했다. 이탈리아계는 약 5세대까지 내려왔지만 아직도 100만 명 가까이 이탈리아어를 구사한다. 중국인 디아스포라도 마찬가지이다. 간혹 중국문화에 친근한 중화성과 중국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향성에 혼동을 겪지만 중국문화에 익숙한 현지국 시민으로서 화교의 정체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화교사회와 초국적주의, 중화성 이슈는 현지국 시민이면서 중국문화에 친근한 화교사회의 위치화와 그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인 것이다.

Ⅲ. 연구방법 (기준)

1. 동남아시아 화교의 디아스포라와 중화성

중국인 디아스포라가 많이 발생하였던 청나라 때는 근대화 혼란과 자연재해 등으로 이주를 가속화시켰다. 하지만 국가를 넘어서는 활동의 시작으로 화교의 의미있는 시작은 명나라 때 정화의

원정(1405-1431)이다. 당시 항해에 필요한 선박수리와 물품조달을 위한 정착지로서 말라카를 활용하였고 동남아시아 화교의 규모 있는 정착의 시작이 되었다.

이후 가장 극적인 변화는 유럽의 식민지가 확장되던 16세기 이후이다. 당시 중국 상인은 Manila, Batavia, Malacca의 식민지 항구 뿐 아니라 식민지가 아닌 Siam, West Java, Cambodia까지 거래를 확장한다. 유럽 제국은 중국인을 중간 상인으로 활용하였으며 이에 부응한 결과로 중국인의 유입은 지속되었다. 중국 상인의 정착이 이어지고 본국의 가족을 데리고 오거나 중국 여성들 또는 현지 여성들과 결혼하면서 중국인 사회는 더욱 확장되어 갔다. 물론 상인뿐 아니라 보르네오에 광부로 건너온 객가(Hakka)도 있었고 그들을 포함하여 결혼을 통한 필리핀의 메스티조, 인도네시아의 브라나칸과 바바 등의 혼혈 사회도 형성된다. 하지만 청왕조의 몰락 등 근현대 혼란기인 1850년에서 1950년대까지 중국인의 거대한 이주가 시작되면서 중국인 공동체(Hokkien, Cantonese, Teochew, Hakka, Hainanese)는 다양해진다. 지연, 혈연, 업연 등을 기본으로 언어 또는 동향집단, 친족집단, 비밀결사집단 등의 중국인 공동체이다. 더불어서 동남아시아에 천후신앙³⁾이 유입·확산되고 중화성과 중국 민족주의의 고무를 위해 근대적인 중국인 학교가 설립된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두드러진 성과를 꼽는다면 경제적 성공이다. 식민시절부터 중국인의 비즈니스는 동남아시아에서 중요하였으며 대규모 비즈니스로 성장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가족중심의 소기업으로 성장한다.

2차 세계대전 후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식민지에서 독립하며 그 유산으로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그래서 국가 구축의 기본과정으로서 시민권 이슈가 부상하였고 중국인의 시민권도 도전받게 된다. 인도네시아는 1960년대 정치적 혼란으로 시민권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필리핀은 1970년대까지 중국인 거주자에게 시민권을 거부하거나, 베트남 전쟁 등으로 획득이 쉽지 않았다. 한편 태국은 20세기 초에 현지에서 태어난 중국인에게 시민권을 주고, 캄보디아는 중국과의 우호관계 속에서 1950년대에 시민권 부여, 말레이시아는 자연스럽게 중국인의 시민권이 허용된다. 동남아시아 각국의 상황 및 중국과의 관계에 의해서 시민권을 획득하는 과정이 어렵거나 용이한 상황이 나타났다.

한편 시민권 문제와 관련하여 이어지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원주민 우선주의, 즉 인도네시아의 프리부미(pribumi), 말레이시아의 신경제정책에서 원주민에게 비즈니스, 직업, 교육 기회의 우선을 제도화하는 움직임이 연속된다. 중국인과 원주민 간의 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한 정치적 이슈가 만들어진다. 일례로 조인트벤처 설립시 프리부미가 50%이상의 기업소유권을 갖도록 한 인도네시아, 원주민과 중국인 사이의 경제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신경제정책(1971)이 발효되었지만 중국인은 조인트벤처 협력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국가기간산업 제조분야에서 우위를 만들어갔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는 중국인 학교, 중국인 매체, 중국인 조직을 폐쇄하거나 감소시키는 등 중국인 문화를 약화시키는 정책도 추진한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자유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동남아시아 국가의 포용적 정책이 부상하면서 중국문화와 중화성은 회복되어왔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화교의 중화성은 오랜 역사를 통해 희석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20세기 대규모 이주는 중국인의 문화와 가족중심의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중국인의 정체성이 지속되는 조건을 형성해왔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동남아시아 국가는 원주민 우선 정책으로 화교사회와 중국문화를 다소 약화시켰지만 근래의 자유주의 물결을 타고 중화성이 회복되고 있다. 다만 동향의 배경, 현지 정착과정, 공동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중국계의 중화성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특성의 스

3) 天后(Tianhou) : 바다와 물을 다스리는 신으로 마조, 관우, 관음을 모심, 불교와 동교 및 민속이 융합된 것.

팩트럼이 존재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2. 동남아시아 화교의 디아스포라와 초국적주의

초국적주의는 국가 중심에서 디아스포라를 해석하는가, 아니면 국제 관계 측면에서 디아스포라를 해석하는가의 두 가지 초점이 거론된다. 전자는 글로벌화와 이주에 관한 국가의 대응이고 후자는 이주자 권리의 획득 행동을 의미한다. 전자는 중국정부가 화교와 협력의 방법을 찾는 것이라면 후자는 화교의 고향과 정착지 간에 다각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동남아시아 화교의 초국적주의는 후자에 가깝다.

전후의 글로벌 및 동남아시아 경제의 변화는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부흥과 1980년대 이래 중국경제의 성장으로 귀결된다. 특히 이들 국가의 성장배경은 화교가 중심이 되었던 국제적인 투자와 기술이전이다. 결과는 자본, 기술, 상품 그리고 화교의 초국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가족, 혈연 및 동향 기반의 초국적 비즈니스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동남아시아 화교의 對중국투자는 중국정부의 정책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화교사회의 초국적네트워크를 중국본토로 확장한 것이다. 對중국투자는 동남아시아 화교협회의 후원을 받거나 또 다른 화교자본의 연결을 의미한다.

IV. 동남아시아 화교의 중화성과 초국적 비즈니스

1. 동남아시아 화교의 위상(비즈니스 관점에서)

<표2> 동남아시아 주요기업(상장사) 분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상장사 수	15	12	9	9	7
시가총액(백만달러)	841.8	1022.5	912.3	849	627.9
순자산(억달러)	2896.7	6807.2	2491	1043.2	786.6

동남아시아 화교 자본은 1조5000억 달러(전세계 약 3조 달러)에 달한다. 화교기업이 동남아시아 상장사의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화상 500대 기업 중 3분의1이 분포되어 있다. 태국의 화교 인구는 10%에 불과하지만 제조업의 90%, 상업의 80%, 철강업과 운수업의 70%, 방적업의 60%를 화교 자본이 지배한다. 전체 인구의 1.3%가 화교인 필리핀은 경제의 60%를 화교 자본이 장악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전체 인구의 약 77%가 화교다. 이들이 상장기업의 80%가량을 점유해 ‘화교의 나라’로 불린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인구 4%에 불과한 화교가 경제의 80%를 지배하고 있다(한국경제, 2019). 동남아시아 주요화교기업은 홍콩 시사주간지 아주주간이 발표한 글로벌 화교기업 톱 1000 순위(2016년 기준)에 잘 나와 있다. (<표2>) 여기에 포함된 동남아 화교기업은 모두 52곳이다. 말레이시아가 1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싱가포르(12곳), 태국(9곳), 필리핀(9곳), 인도네시아(7곳)가 그 뒤를 이었다. 인도네시아 BCA은행(43위), 싱가포르 화교은행(OCBC·46위), 말레이시아 퍼블릭은

행(74위), 필리핀 SM그룹(77위), 태국 타이맥주(79위) 등이 대표적이다(아주주간, 2017).

2. 동남아시아 화교의 중화성

1) 동남아시아 화교의 중화성을 보는 시각

동남아시아 화교의 중화성은 중국의 정책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중국문화의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다. 중국계 혈통으로서 중국과 중국문화를 자랑스러워하지만 중국의 정책에 대한 동조는 아니다. 일례로 거주국과 중국과의 관계 여하에 의해서 정착 환경이나 비즈니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러운 것이다. 화교의 중화성은 유연하다는 표현이 맞을 수 있다. 그 유연성도 동남아시아의 화교사회마다 다르다. 이주와 정착의 역사적 배경도 다르고 중국문화에 대한 지향성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2) 동남아시아 국가별 상황

(1)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화교는 동중국해에서 국제무역을 하던 한족들의 이주부터 그 역사를 볼 수 있다. 명나라 때부터 말레이 반도와 주변 섬들로 주로 푸젠성 출신 중국인들이 이주했으며 청나라를 피해 남방 푸젠인들과 객가인이 말레이로 이주한다. 1600년대에 청나라가 광둥성 이외의 해상통행금지를 계기로 이주하였기 때문이다. 오랜 정착으로 인하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현지동화가 높은 곳이 인도네시아이며 태생여부에 따라 별도의 명칭이 있을 정도이다. 화교 중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난 화교는 프라나칸(peramakan)이라고 하며 중국에서 태어난 화교는 토폭(totok)이라고 한다. 아무래도 중국태생화교의 중화성이 큰 편이다. 한편 1998년 5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학살 사건으로 현지 동화의 불완전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연령층에 따라 다르지만 고령층은 보통 중국의 발전을 자기 일처럼 기뻐할 정도의 중화성을 지니고 있다. 통상적으로 인도네시아 화교는 전체인구의 3%이다.

(2)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화교는 15세기부터 해상무역 활동을 통하여 이주정착이 시작되었으며 20세기에 아편 전쟁과 경제난으로 가속되었다. 또한 20세기 말 말레이화교와 중국여성과의 결혼이 빈번하여 화교사회는 커졌다. 화교사회의 전성기는 1950년대였는데 화교 학교는 300여 개에 달하기도 했다. 현재 화교는 말레이인 다음의 22%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정치경제적인 진출도 가능할 정도로 현지사회에 융화되어 있다. 중화성 측면에서 보면 예전부터 화교자본이 대만에서 나오다 보니 중국보다 친근하게 생각하는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중국경제의 성장과 협력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과거보다 중국에 대한 친밀도는 높아진 편이다.

(3) 싱가포르

한때 말레이시아 연방이었던 싱가포르는 중국계가 74%이다. 19세기에 영국이 말레이시아 지역을

지배하면서 싱가포르 지역도 영국의 지배를 받았다. 싱가포르의 대다수 인구는 1819년에 싱가포르가 영국의 무역항으로 설치되었을 때 정착하였던 자바인, 페라나칸, 중국인, 인도인 등 이민자의 후손이다. 중화성을 보면 영국과 일본의 식민지배로 서구의 영향을 받았지만 아직도 유교적 관습과 문화들이 남아있는 등 중국계의 정체성과 문화를 고수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싱가포르가 중국과 대만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만큼 어느 한쪽에 치우친 중화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4) 태국

태국은 인구의 14%가 화교이다. 13세기 중반부터 말레이반도의 해상무역에 의하여 중국인의 이주가 시작되었다. 16세기 광둥, 복건의 해적이 태국 남부의 빠따니를 거주지로 삼기도 했다. 본격적인 이주는 중국 남부지역의 인구증가와 기근으로 인한 것이다. 20세기 초반에 태국 정부가 화교의 유입을 장려하면서 태국 말을 하고 태국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태국인이라고 말하는 동화정책을 폈다. 그 연유로 태국 사회에 동화되는 화교들이 많았고 중화성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약한 편이다. 화교의 정치경제적인 입지가 현지인에 비해 차별받지 않고 있으며 화교 후손들이 태국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는 등 화교는 태국인이고 태국에 대한 조국애를 지니고 있다.

(5) 필리핀

필리핀의 화교는 전체인구 중 1.3%정도이다. 에스파냐의 필리핀 지배 초기인 1560~70년 대에 중국과 교역하기 위해 중국인 상인과 선박이 필요했으며 중국인들을 마닐라로 대거 유입되었다. 하지만 중국인 사회가 커지면서 에스파냐인과 갈등으로 화교 2만5천명 학살(1603년), 이후 복건인 재이주 정착으로 3만명 회복, 화교와 에스파냐인 재 갈등으로 2만명 학살(1639년)로 험난한 이주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필리핀은 오스트로네시아인,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아랍, 스페인, 미국 등 다양한 민족이 정착하면서 혼혈화가 많이 진행되었다. 그래서 화교도 중국식 문화보다는 필리핀식 혼합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본인들은 필리핀인의 정체성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비록 도교 사원 등 화교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문화가 존재하지만 필리핀 화교의 중화성은 뚜렷하지 않다.

3) 동남아시아 화교의 중화성 이슈

<표3> 동남아시아 화교의 중화성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현지동화 vs. 중화성	동화=중화성	동화<중화성	동화<중화성	동화>중화성	동화>중화성
과거 방향성	중립	친 대만	친 대만	태국인지향	필리핀인지향
현재 방향성	중립	중립	중립	동화 보합	동화 보합

동남아시아 화교의 중화성은 정착국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친숙함이 다르게 나타난다. 태국과 필리핀 화교는 중화성이 약한 편이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중화성과 중국의 전통을 존중한다. (<표3>) 비록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지향성은 현지국의 갈등을 피하고 비즈니스를 통한 가족 및 혈족의 안전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중국경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중화성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다. 다만 중화성을 바라보는 화교와 중국정부 간의 차이는 존재한다. 화교에 대한 중국의 큰 그림은 ‘중국인 정체성을 지닌 화교’ 즉 중국정부의

정책에 대한 내적인 갈등은 있을 수 있다(Kau, 2020).

3. 동남아시아 화교의 초국적 비즈니스

1) 동남아시아 화교의 밤부네트워크

국가 간 강약의 차이는 있으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화교사회는 상호 연결되어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화교의 비즈니스네트워크를 상징하는 밤부네트워크(bamboo network)가 특징적이다. 주로 홍콩, 마카오, 타이페이, 마닐라, 자카르타,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호치민 등 대도시에서 활동하는 가족소유 기업이 중화경제권에 연결된 형태로서 동남아시아 화교공동체에 의해 움직이는 비즈니스의 연계를 말한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선도적인 비즈니스에 진출해 있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경제에 연결되는 특징을 보인다. 최근에 밤부네트워크 내의 기업이 컨글로머리트(conglomerate)로 규모화되면서 성격이 달라졌는데 대부분 가족소유 중소기업의 활동이 많았으나 양질의 글로벌비즈니스로 확대되는 초국적비즈니스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2) 밤부네트워크의 확장

원래 대나무는 중국에서 대상(大商)을 일컫는 말로 상인의 기개는 대나무 줄기이며 결단력은 대나무 마디로 비유한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화상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동남아 국가의 동향 조직에 의존하는데 머물렀다. 그러다 1970년대 동남아의 화상 네트워크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연대가 형성됐고 1980년대부터 홍콩과 대만, 동남아에 거주하던 화교가 북미와 유럽으로 이민 가면서 화교 네트워크가 북미주와 유럽, 동남아시아를 잇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한편 실체가 뚜렷해진 것은 지난 1991년 싱가포르의 리관유(李光耀) 전총리의 제안으로 태동된 세계화상대회(世界華商大會 World Chinese Entrepreneurs Convention) 발족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화교의 국제적 네트워크가 확장되었다. 세계화상대회는 화교기업인들의 경영능력을 과시하고, 상호협력분야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와 협력분야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초기에는 화교 간 친교를 위주로 한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지만 이제는 각국 나라들이 자국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화교 자본을 유치하는 장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리키장, 소정현, 2016).

3) 초국적비즈니스 사례

Economist(2001)에 소개된 말레이시아 화교 로버트콕의 초국적비즈니스와 밤부네트워크의 역할을 볼 수 있다.

Kuok은 사업초기의 삶의 목적은 그의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다. 1950년대와 60년대 말레이시아에서 채분, 팜오일, 설탕시장에 진입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지금 제조업에서 자산, 호텔에서 미디어까지 영역을 넓혔다. 그는 아들, 조카, 그리고 사위에 의해 경영되는 제국을 지휘하고 있다. 사업본부는 인도네시아,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걸쳐 있으며, 모든 산업을 모든 지역에 펼쳐놓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의 유교주의 경영스타일은 전설적이다. 이들 화교는 시장

조사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빠르게 움직인다. 정보는 다른 화교의 “bamboo network” 또는 지역적인 정치인들에게 획득하며, 계약이 아닌 신뢰로서 비즈니스를 한다. 정치적인 보호와 거래 자로서의 감각을 반영하면서 한 번에 하나의 거래를 한다. 몇십년 동안 기업문화는 굉장한 결과를 생산했다. 만약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거래관계는 지속되었을 것이다. 비록 이 시기에 많은 위기를 접해왔으나 화교경제의 규모는 정체되었다. 그러나 일부 화교기업은 분권화된 가족 비즈니스를 설치하도록 최적화했으며, 더욱이 그 팽창은 외부자본조달을 필요로 했다. 이것은 가족 통제의 희석과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 대부분 화교기업은 이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그들 비즈니스의 전체적인 관점이다.

로버트귀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점은 비즈니스 영토를 넓히더라도 가족보호가 우선이고 거주국과 중국이라는 변수를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조건으로서 대응의 영역으로 본다. 가족이 무너지면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믿음이 깔려있다.

또 하나의 사례로서 對중국투자의 창구역할(밤부네트워크로서)을 하였던 태국의 다닌 체라바농 회장의 C.P그룹(Charoen Pokphand Group)을 들 수 있다.

태국 CP그룹은 종자수입상으로 시작하여 사업 영역을 양계, 가축 사료로 넓혔다. 다닌은 1969년 가업을 이어받았고 1972년 처음 인도네시아 투자를 시작으로 이듬해 일본에 닭고기를 수출했다. 1980년대 새우양식으로 명성을 확보하고 축산물 및 해산물의 식재료와 사료 부문에서 세계 최대 생산자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다. CP그룹 사업의 다각화 계기는 1979년 중국 진출이다. 중국 최초의 해외투자자이자, 선전특별경제구역에 처음 등록된 외국인 기업이 바로 CP그룹이다. 주력인 사료사업을 중국에서 시작한 CP그룹은 중국에 연착륙했다. 개혁개방 초기 중국 정부 역시 해외 중국계 사업가들의 투자가 필요했고, 동남아시아 화인들은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다. 또 문 열린 대륙시장으로 향하는, 현지 파트너가 필요했던 글로벌 기업들은 CP를 먼저 찾아왔다. CP와 창업자 가족이 중국 정부와 구축한 긴밀한 관계 그리고 견고하게 다져진 중국시장 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CP는 중국에서 대규모 농축산업장 운영, 혼다 오토바이와 하이네켄 맥주의 라이선스 생산, 상하이 브랜드몰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업 덕분에 중국 사업장에서 일으키는 매출은 급성장했다.

C.P그룹은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터키, 포르투갈, 필리핀 등에 진출해 있으며 중국투자의 통로 역할을 해왔다. 가족이 핵심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기업간 상호지분소유를 통해 그룹을 통제한다(Weidenbaum, 1998). 장남 수과깃이 CP푸드와 리테일을, 셋째 수과차이가 그룹 회장을 맡아 통신 디지털 부문을 이끌고 있다. 이들 자녀인 4세대도 경영일선에 참여하는 등 가족경영의 변화는 없다(고영경, 2021).

4. 시사점

1) 유연한 초국적비즈니스

중화성, 초국적주의 그리고 중국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동남아시아 국가에 이주한 화교의 역사와 인구 구성, 현지정부의 화교친화성,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화교의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정체성에 대한 결론은 여전히 복잡하다.

그래서 중국인 디아스포라의 가장 큰 특징인 비즈니스를 대하는 자세에서 중심을 잡아보고자 한다. 비즈니스는 국경과 민족의 경계가 없을 정도로 글로벌화 되어 있으면서 화교에게 가족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비즈니스가 없으면 가족도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는 일상이며 원천이다. 어릴 때부터 비즈니스를 배우고 취직보다 창업을 우선한다고 할 정도다. 흥미롭게도 화교는 혼돈 그 자체를 사업기회로 인식하고 조정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있는데, “우리는 혼돈의 시장에서 성공한다”라는 태도가 그렇다. 이것은 환경을 활용하는 역량을 의미하며 현지국과 중국의 관계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기준의 준비를 의미하기도 한다. 일례로 중국의 개혁개방이 시작된 이래로 화교단체는 시민으로서 현지국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동남아 네트워크를 존중하고 중국본토 고향의 사회간접시설 개선을 지원하거나 자연환경재해의 극복을 도와주면서도 정기적인 교류와 초국적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준비가 해당된다. 특히 화교기업은 모든 산업을 모든 지역에 펼쳐 놓기도 하며 화교 네트워크는 동남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 뻗어 있는 만큼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자신들이 정착한 나라, 혹은 중국 본토로 돌아와 사업을 펼치며 유연한 중화성인 것이다.

2) 화교사회 중심의 밤부네트워크

중국의 경제적 부상 뒤에 동남아시아 화교가 있다는 말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1979년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대중 외국인 투자가 본격화된 후 2005년 말까지 중국의 누적 외자 유치액은 6224억 달러에 달했다. 이 중 화교 주도 자본이 4170억 달러로 전체 투자의 67%를 차지했다. 1981년 말까지 중국에 설립된 48개 합자회사 중 화교(홍콩·마카오 포함)가 세운 합자회사가 28곳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CP그룹(正大, 정다그룹)의 다닌 치아라와논드 회장은 1994년까지 중국 대륙에만 40억 달러를 투자했다. 필리핀 SM그룹은 중국 샤먼·청두·충칭·쑤저우 등 도시에서 SM시티 등과 같은 대형 쇼핑몰을 운영하는 등 대륙 투자는 이어졌다. 중국의 경제성장기에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전체 대비 화교자본의 비중이 30%까지 내려갔으나 중국국무원외교부는 2010년대 후반까지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화교자본의 비중을 60%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약 3조 달러의 화교자본에 대한 정책적 연결을 지속하고 있어서 개혁개방 초기 투자, 현재까지 이어온 對중국투자관계, 중국 정부의 화교기업가에 대한 환대 등을 근거로 삼아 혹은 밤부네트워크를 중국 중심의 확장된 국제경제라고 말한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화교의 유연한 중화성과 국제비즈니스 관계의 초국적주의 성향을 감안해볼 때, 조상들의 나라에 심리적으로 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성장하는 중국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의미 이상의 정책적 속성을 단정하기 쉽지 않다. 동남아시아 화교의 가치는 초국적으로 연결된 가족경영 비즈니스이며 가족결속의 연장선으로서 밤부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확대해석은 제한적이다. 일례로 동남아시아 화교자본의 투자처는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등 중국경제에 독립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태국의 CP그룹은 2018년 11월 미국 미디어그룹 메리디스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세계적 경제잡지인 포춘을 인수했고, 필리핀의 화교기업 졸리비는 2019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커피전문점 커피빈의 새 주인이 되었다.

따라서 밤부네트워크는 중국본토에 대한 초기투자과 지속에서 동남아시아 화교의 중화성이 작용된 것이 사실인 만큼 글로벌시대의 밤부네트워크는 중국경제에 연결되어 있으면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화교경제로 보편 되겠다.

V. 결 론

동남아시아의 화교공동체는 동일업종이나 혈연집단, 동향집단에 따라 가족 또는 지역 연합을 조직한 역사적 사실이다. 하지만 속성을 보면 이질적이다. 즉 디아스포라는 지역 및 국가마다 다양한 이주 과정과 정착을 보여주는데 동남아시아 국가마다 진출 시기와 형태도 다르고 현지사회와의 동화과정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세대를 거쳐 오면서 태국과 필리핀처럼 현지사회에 동화되어 중화성이 약한 경우도 있고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중국과의 거리감 정도에 따라 중화성이 조정받기도 한다. 더구나 생존에 직결되는 비즈니스의 영속성과 가족의 존속을 위한 유연한 시민권이 대변하듯이 유연한 중화성도 보여 진다. 즉 현지국과 중국에 절대적인 가치를 둘 수 없다는 것이다. 동남아시아 화교에게 현지국과 중국은 변함없는 비즈니스 파트너이다.

이러한 동남아시아 화교의 중화성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가정도 있다. 그 이유는 과거처럼 상인 및 노동자로 이주하였던 패턴을 벗어나서 현대적인 해외이주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형적이고 현대적인 국제 이주과정은 탐험가, 여행자, 사업가, 노동자, 유학생, 결혼으로 현지국에 정착하는 형태이다. 과거는 보통 본국과의 빈번한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오래된 디아스포라는 현지에 동화되었지만 작금의 디아스포라는 고국과 어떻게 연계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관심이 많다(Sahoo, 2015). 현대적인 디아스포라는 인재의 유출과 유입 구조가 아니라 상호 관계의 정립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기존의 화교사회와 뉴커머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지속된다면 중화성과 초국적주의 균형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과 현지국 간의 상호관계를 만드는 뉴커머들의 성향이 무엇이고 어떠한지에 따라 화교사회가 지향하는 균형의 변화는 있을 것이다.

일례로 최근에 이주한 뉴커머들은 과거의 조직에 참여하기보다 좀 더 현실적인 연합을 만든다. 과거처럼 중국에서 불가피하게 이주하거나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 만큼 현지 정착보다는 중국과의 연계에 중점을 둔다. 유학생과 전문가 그룹의 이동이 잦아지면서 과거처럼 동향이나 혈연집단 중심의 연합을 넘어서 현지 사회의 적응과 중국에 연계하는 방향을 지닌다. 여기에 중국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중국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중국정부는 기존의 화교사회의 참여를 기대하지만 유연한 중화성이 필요한 화교에게 갈등 구조이다. 현지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화교들의 비즈니스 또는 밤부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동남아시아 화교기업에게 세계경제와 중국경제에 대한 균형적 시각은 중요하다. 보편적인 기업가정신의 이론에서 보아도 기업가는 환경불확실성이 크다면, 비즈니스창출을 유보하거나 경쟁적 비즈니스 개발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확실한 환경 하에서도 극심한 경쟁 때문에 비즈니스개발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과감한 결정력이 나올 수 없다. 기업가는 불확실성을 적정히 이용하고자 할 뿐인데 중국의 대외적인 관계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조건이라면 새로운 네트워크에 대한 참여에 고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화교는 현지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유연한 중화성을 보이고 화교사회 중심의 밤부네트워크와 초국적비즈니스를 통한 글로벌 기회의 발굴, 그리고 새로운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의 역할 평가를 통해 또 다른 균형을 찾아가지 않을까 한다.

【참고문헌】

- 고영경, 세계의 부엌을 만든 태국의 CP그룹, 주간경향 1422호, 2021.04.12.
- 리키장·소정현, 화교 네트워크 글로벌차이나밀거름, 해피우먼 전북, 2016.04.15.
- 박정동, '세계 경제의 핵 화교' ② 明代 교역 통해 화교 급성장, 중앙일보, 2008.09.22.
- 아주주간, [차이나리포트] “중국대신 동남아로” 4200만 화교 경제권에 주목하라, 2017.03.30.
- 월간 ANDA, 동양의 유대인 화교, 2017.5월호.
- 한국경제, 華商, 동남아 경제 70% 장악' 일대일로' 타고 글로벌 진격, 2019.07.29.
- Brennan Kau, *Chinese Diaspora Revisits Its Identity and Relationship to Beijing*, Fair Observer, 2020.03.16
- Dudley L Poston, Jr and Juyin Helen Wong, “The Chinese diaspora: The current distribution of the overseas Chinese population,” *Chinese Journal of Sociology*, Vol.2(3), pp.348-373, 2016.
- Murry Weidenbaum, The Bamboo Network: Asia’s Family-Run Conglomerates, *First Quarter*, Issue 10, 1998.
- Sadananda Sahoo, *A Tale of Two giant Diasporas: How Chinese Diaspora outperformed their Indian Counterparts?*, CRFDT(Global Research Forum on Diaspora and Transnationalism), 2015.

【특별분과】 발표 ③

국제이주와 초국가 디아스포라 현상의 재조명*
 — 중국의 華僑·華人을 중심으로

전형권**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국제이주와 디아스포라 현상의 설명틀
1) 국제이주, 초국가주의, 디아스포라
2) 국제이주의 유형과 설명틀
3) 디아스포라 현상의 설명틀
3. 세계 화인·화교 디아스포라의 쟁점과 정책 과제
1) 화인·화교 디아스포라의 이주배경과 특성
2) 초국가주의와 화인·화교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3) 중국의 화인·화교정책과 과제
4. 맺으며

1. 들어가는 말

1980년대 중반이후 초국가적인 인류의 흐름이 확산되면서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른 바 ‘탈영토화된 민족’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대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의 통계에 따르면, 오늘날 세계 인구의 3%에 해당하는 1억 9천 2백만여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출신지를 떠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¹⁾ 이는 세계에서 35명 중 1명이 이주자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다양한 이주동기와 유형분류를 무시한다면 이들은 자신이 살아왔던 땅을 떠나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이산민들이다. 이들 이산민을 학문적으로 새롭게 개념화 한 것이 바로 ‘디아스포라(diaspora)’이다.

같은 민족이면서 수많은 국적과 언어로 갈리고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바빌론 유수 이후 유대인의 삶에서 비롯되었지만, 현재적 삶의 기원은 사실 근대 국민국가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세계 곳곳에 흩어진 각국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삶에 대해 근대

* 이 글은 필자가 기존에 발표한 국제이주, 화교, 디아스포라 관련 개별 논문들을 토대로, 국제이주의 전 과정에서 화인 및 화교 행위자가 보여준 디아스포라적 성격과 초국가적 네트워크 발전과정을 재조명하고자 작성한 것임을 밝힘

** 재외동포연구원 연구위원,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정치학박사 (jhkjr@hanmail.net)

1) 이주송출국, 수용국별 이주자에 대한 통계는 다음의 국제노동기구 데이터베이스 참조.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nternational Labour Migration Data Base (ILM) <http://www.abetech.org/ilm/english/ilmstat/table03.asp>

적 해석체계를 넘어 세계사적이고 보편적인 인구이동의 지평 속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근대에서 탈근대 담론으로의 무게중심 전환과 함께, 이미 사회와 학계에서는 이들 디아스포라에 대한 새로운 존재론적, 인식론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국민국가의 틀 속에 불박인 정체성이 아니라, 탈영토화의 다중정체성을 지닌 초국가적 행위자인 디아스포라의 존재양식과 인식론적 문제에 관해 2000년 들어 많은 학문적 연구가 있어 왔다.

공교롭게도 민족주의가 쇠퇴하고 세계화와 초국가주의 현상이 확산되는 21세기 들어서부터 ‘민족’ 혹은 ‘종족’의식과 공동체적 속성을 기반으로 성립한 ‘디아스포라’ 개념은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한 때 잊혀질 뻔 했던 ‘디아스포라’ 개념이 다시 학문적으로 소환된 것은, 국제이주의 증가에 따른 초국가주의와 네트워크, 그리고 다문화사회 담론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초강대국인 미국을 거점으로 전 세계에 걸친 그물망을 조직한 유태인을 비롯해 ‘바닷물이 닿은 곳에는 화교가 있다’는 말처럼 전 세계에 걸쳐 수천만의 화상 네트워크를 구축한 화인공동체, 그리고 뒤늦게 시작했지만 2000년 들어 전 세계 한인들을 하나의 연결망으로 묶으려는 한민족네트워크 사업들이 바로 초국가주의와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²⁾. 이들 사례처럼 해외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집단들이 모국과 거주국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이로써 과거 지역적으로 분산 고립되었던 역사적 형태로서 ‘디아스포라’의 삶은, 초국가주의 시대 들어 전 세계적 수준에서 경제적·문화적인 활동의 범위와 가능성을 확대시켜나가고 있음은 자명한 현실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화교·화인네트워크는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 타 사례들에 비해 초국가주의와 네트워크 담론에 풍부한 설명력을 줄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동남아를 중심으로 점차 북미 등 세계 각국으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화교, 화인 네트워크는 전 세계에 걸친 화교경제문화권이라는 종족블럭을 형성해가고 있다. 이들 성공적 발전양상을 연구해 온 기존의 연구물들은 대부분 그들이 정착한 거주국 내부의 강한 종족블럭 혹은 이들 공동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사회문화적 특성에 주목하여, 화교경제권이 이룩한 거시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성공을 일반화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다 보니 초국가적 변화과정에서 화교 행위자와 구조적 요인 간의 동학은 물론, 구조와 행위자를 포함한 네트워크 등 관계론적 설명이 미흡한 점이 노정되었다.

이 연구는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를 설명하는 초국가주의 입장에서 화교·화인 디아스포라를 연구한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디아스포라 민족공동체(한인, 화인, 유태인디아스포라)에 관한 논의가 주로 정적이고 모국중심의 당위적 담론에서 출발했다면, 이 연구는 이들 공동체가 사회변화에 따라 어떻게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스스로를 변용해왔는지를 분석하며, 새로운 디아스포라 민족공동체의 재편성이 발생하고 있는 초민족적·탈영토적 공간담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대체로 화교 경제권의 거시적 성과나 영향력에 집중하거나, 화교 개인 혹은 종족집단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주목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연구자는 네트워크라는 관계적 쟁점에 주목하여, 초국가주의 환경 하에서 이러한 네트워크가 어떻게 발전해왔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초국가주의와 디아스포라 담론이 내장한 쟁점과 문제의식을 토대로 ‘우리 안의 디아스포라’로 자리잡고 있는 한국 내 화교를 포함한 여러 종족집단에 대한 다문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2) 임채완·전형권, 『제외한인과 글로벌네트워크』, 한울아카데미, 2006 참고.

2. 국제이주와 디아스포라 현상의 설명틀

1) 국제이주, 초국가주의, 디아스포라

(1) 세계화 시대 국제이주의 설명틀: ‘초국가주의’와 ‘디아스포라’

국제이주, 즉 국제적 차원의 인구이동이 일어나는 계기나 과정, 그 성격에 대한 논의는 디아스포라(diasporas) 현상에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주제이면서, 동시에, 세계 모든 지역에서 중심적인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끊임없이 이동해왔다. 국제이주(international migration)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오래 전부터 미지의 영토 개척, 유목, 식민지 점령, 무역상인, 노예, 계약노동, 난민 등 다양한 배경 속에서 개인, 가족 혹은 집단 단위로 강제적 또는 자발적 이주의 역사를 되풀이 해 왔다. 근대적 국민국가 형성 이후 인간은 국경을 넘나들며 재배치, 재정착, 재이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보다 높은 임금과 생활여건 등 해외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떠나는 노동이주자들이 국제이주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국경을 넘은 이러한 이주는 분명 더 나은 삶의 질, 기회, 안전 등의 필요에 의해 이뤄졌다(Crawford & Campbell, 2012 참조). 바우만(Bauman)에 따르면,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는 일종의 디아스포라의 집합체’(Bauman, 2011, p.428)로 보아도 무방하다. 특히 ‘이주의 시대’라 불리는 오늘날에는 가치관, 관점, 행동의 세계화로 물리적 심리적 이민이 더 용이해지고 있다(Castles & Miller, 2009). 국제노동기구(ILO)는 직업과 개인의 안전을 위해 국경을 가로지르는 이주자들의 숫자는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 제공에 대한 세계화의 실패에 따라 앞으로 수 십년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³⁾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이루어진 국제이민의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패턴은 그 이전 시기의 패턴과 비교할 때 현저히 구별된다. 역사적으로 국제적인 이민은, 태어난 모국의 경제, 종교, 혹은 정치적 속박 하에서 다른 나라로 향한 항구적이고, 단방향적이고 일회성 이동이었다. 하지만 세계화 이후 국제이민은 다변적이고 쌍방향적이며 지속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이를 보인다.

국제이주에 관한 고전적 개념들은 지구적인 이주의 속성의 본질을 단순히 포착할 수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새로운 이민의 지리학, 사회적 행위, 경제활동과 변화하는 문화적 정체성의 복잡한 성격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분석틀이 필요하다. 이들 새로운 발전양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 20년간 ‘초이주(transmigration)’와 ‘디아스포라(diaspora)’라는 두 가지 관련된 개념적 틀이 대두되었다. ‘초이주(transmigration)’와 ‘디아스포라(diaspora)’는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의 개념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톨리안(Tololyan, 1996)이 지적했듯이, 디아스포라는 자본의 운동, 이질적 문화의 도입, 다원적 사회의 형성, 이중적 충성, 그리고 초국적 기업의 다중적인 소속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초국적 운동을 구성하는 힘이자 현상과 관계가 있다.⁴⁾

세계화 현상과 국제이주 및 디아스포라의 증가는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양자는 역설적이게도 공존한다. 세계화는 변화된 초국가적 사회영역을 창출하고 디아스포라에 대하여 기회구

3) 국제이주기구 홈페이지(<http://www.ilo.org>) 참조.

4) Laurence J. C., 『Space, Place, and Transnationalism, The Chinese Diaspora: Space, Place, Mobility, and Identity』,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 2003.

조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코헨(Robin Cohen)에 따르면, 세계화가 디아스포라에 미치는 기회구조는 크게 세계시장에서 모국의 경제적 거래의 촉진자, 자유로운 국제적 이주증가와 네트워크 발전, 다문화·다종족·다언어적 글로벌 시티의 출현과 이주노동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양면적인 정체성 형성 및 사회적 정체성의 탈영토화를 들 수 있다.⁵⁾ 이를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⁶⁾

첫째, 초지역성이다. 초국가적 이주자인 디아스포라는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가로 질러 사는 초이주자들(transmigrant)⁷⁾가 된다. 그들은 이주를 하지만 그들이 이동했던 국가에서 가족적,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 혹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다. 모국과 거주국 사이의 이른 바 초국가적 사회영역(transnational social fields)를 창출하며 자신이 속한 공간과 인간관계 개념의 변화를 수반한다. 기존의 특정한 종족 중심의 공동체의식이나 지역성에 변화까지 일어나게 된다. 초국가적 사회영역은 민족국가 권력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민족국가의 경계를 초월한다. 이는 경쟁적인 문화적 경계, 유연한 시민권, 그리고 인구·자본·상품·기술 및 정보의 집약된 흐름을 지닌 공간이다. 이들은 모두 이주자들과 그들의 장소기반(place-based)을 가진 사회적 네트워크와 고유의 방식으로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둘째, 탈영토화된 다중 정체성이다. 디아스포라의 증가는 근대적 영토공간에 정박한(anchored) 정체성을 벗어나게 해 준다. 이들은 국제적 이동 성향을 갖고 있으며 노동과 거주지가 가변적이다. 따라서 국민국가에 비해 가변적이고 탈영토화된 정체성을 갖는다. 세계주의와 국지주의 내지는 종족주의가 동시에 출몰하는 오늘 날, 양면적인 유형의 디아스포라 사회조직체는 이러한 외부 기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Cohen, 1997:157)

셋째, 초국적 기업과 네트워크이다. 초국가적 영역에 걸쳐 막강한 자본을 보유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초국적 기업은 정치적인 영향력이 크고 광범위하다. 유대계나 화교계의 초국적 기업의 사례가 보여주듯, 이들은 정부의 금융흐름 통제, 무역제재, 생산규제의 시도를 피하려는 각종 효과적인 수단들을 장악하고 있어 사실상 일국의 주권을 상당부분 훼손시킬 수도 있다.(Peter, 2001)

초국적 사회구성에 관한 설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네트워크'이다. 카스텔즈(M Castels, 2000:6-12)가 간파했듯이, 21세기는 누구나 이러한 네트워크와 연결되어야만 생존이 가능해진 네트워크 사회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구성원들은 통신, 방문, 학술, 문화 등의 교류와 무역투자 등 다양한 경제적 거래를 증진시켜나간다. 이러한 네트워크 공동체는 기존의 영토국가 중심의 국제질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민족협력의 '근대적' 형태라는 특성을 보이지만, 다른 한편 이 공동체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개별국가의 영토범위를 넘어서서 교류협력의 새로운 틀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탈영토적이고 탈국가적이며 탈근대적 형태라고 볼 수 있다.⁷⁾

(2)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국제이주 설명틀: 디아마이그레이션(diamigration)⁸⁾

그런가 하면 디지털 혁명으로 가시화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의 이민은 여러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르다. 가상공간이나 실제공간에서나 글로벌 연결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민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가속화 되고있다. 지리적 거리, 언어장벽,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이동제한이 과거

5) Robin Cohen, 『Global Diasporas: An introduction』, London:UCL Press, 1997. p.157.

6) 전형권, 「초국가주의 관점에서 본 화교 디아스포라와 네트워크」, 『大韓政治學會報』, 제13집 2호, 大韓政治學會, 2005, pp.99-102. 요약

7) 전형권, 위의 글

어느 때 보다 줄어들고 있다 (see Schmidt & Cohen, 2013). 정보통신 기술의 초국가적인 발달과 교통발달로 전례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게 된 것이다(Oiarzabal & Reips, 2012). 이러한 기술혁신은 전 세계 이동성을 촉진하고 전통적인 의미의 일상이란 개념을 바꾸며 이민과 디아스포라에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⁸⁾

기술, 정보의 발달은 의사소통 체계를 혁명적으로 바꾸었고 진보기술과 소셜 미디어는 신규 이민자와 디아스포라 구성원이 지역민과, 본국의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상호 접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늘날의 이민자들은 본국과 호스트 국가간 초국가적 유연성, 자원 이동성, 네트워크를 증대시키는 유연성 있는 디아마이그레이션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이전의 이민과 명확히 구분되는 새로운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2, 3 개 지역에서 이뤄지는 이민형태에서 초국가적인 연결성은 핵심 요소였다. 박홍재는 뉴질랜드의 한국인 커뮤니티의 사례를 통해 현대 이민(migration)과 디아스포라에 대한 통합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디아마이그레이션(Diamigration)’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디아스포라와 마이그레이션의 합성어라 할 수 있는 이 용어는 한 민족 집단의 개인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여 고향을 떠난 후 고향과의 가상적, 물리적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들이 이민국에서 어떤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지는 관계없다. 이런 이민의 경우 좀더 다양하고 유연하며 이동성이 용이하고 자유로운 한편 내재적으로 선진기술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박홍재는 디아마이그레이션의 특징으로서, 경제외적인 선택(non-economic choice), ‘안전한’ 이주정착(연착륙), 이중존재감(자유로운 소속감), ‘유동성’있는 문화동화, 정체성 형성, 재이민 고려 등을 들고 있다.⁹⁾

2) 국제이주의 유형과 설명틀

(1) 국제이주의 유형

국제이주(international migration), 즉 국제적 차원의 인구 이동 혹은 이주가 일어나는 계기나 과정, 그 성격에 대한 논의는 디아스포라 현상에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주제이다.

국제이주 현상을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물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이주는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어디로 이주하는가? 둘째, 이주를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이주자들이 이주 후 유입국에 어떻게 정착하는가?

대부분의 디아스포라 연구에 있어 국제노동력의 이동 현상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된다. 왜냐하면 근대적 자본주의 체제의 성립과 지구적 자본주의의 확산에 있어 이들 노동력의 이주가 매우 중요한 분석적 함의를 갖기 때문이다.¹⁰⁾

지난 30년 동안 이루어진 국제노동력의 이동을 비롯한 국제이주의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패턴은 그 이전시기의 패턴과 비교할 때 현저히 구별된다. 역사적으로 과거 국제이주는 태어난 모국의 경제, 종교, 혹은 정치적 속박 하에서 다른 나라로 향한 단방향성, 일회성 이동이었다. 하지만 1960년 중반 이후 세계는 국제적인 경계를 넘는 다방향의 급격한 인구이동의 증가를 목격하고 있다.¹¹⁾

8) 박홍재, 「디아마이그레이션 : 디지털 시대 국경을 초월한 이민과 디아스포라의 융합적 출현」, 『The 3rd World Humanities Forum 2014자료집』, 2014.

9) 박홍재, 위의 글

10) 전형권, 「국제이주에 대한 이론적 재검토: 디아스포라 현상의 통합모형 접근」, 『한국동북아논총』, 제13권 4호, 한국동북아학회, 2008. pp.261-270.

11) Zlotnik, Hania, "International Migration 1965-96: An Overview,"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4(

최근까지 보여주고 있는 국제 이주의 유형은 크게 합법적 노동 이주, 불법적(미등록) 노동이주, 피난 이주, 독립적 여성 이주, 단기 숙련노동 이주, 그리고 장기 숙련노동 이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¹²⁾

우선 합법적인 노동이주이다. 아시아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1990년대 중반까지 약 300만 명의 아시아인들이 아시아권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고용되었고, 다른 300만 여명은 걸프지역 등 다른 곳에 고용되었다. 비록 1991년 걸프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아시아인들이 본국으로 송환되었지만, 이러한 흐름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적 위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불법 혹은 미등록(undocumented) 노동 이주이다. 이들은 비자 기간 초과 체류와 계획적인 불법 입국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불법 입국의 조직화로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 독립적인 여성 이주이다. 이제 수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나 여성 이주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는 세계 서비스 경제 속에서 여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됨을 의미한다. 동남 아시아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sex) 산업도 여기에 포함되며, 무역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필리핀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개구혼(mail order bride) 무역이다.

넷째, 숙련된 단기 계약노동자들로서 주로 회계사, 컴퓨터 기술자, 법률가, 학자, 의사, 경영 매니저, 건축 엔지니어 그리고 컨설턴트 등의 이주이다. 일부는 프리랜서이지만 대부분은 다국적기업에서 일한다. 이들은 단기 계약상태에 있다. 이들은 ‘숙련 단기체류자’, ‘체류자(sojourners)’ 혹은 ‘특별거류민(denizen)’으로 불리기도 하며 거주국에서 어떤 특별한 시민권이나 투표권도 없다.

다섯째, 숙련된 장기 노동자들로 앞의 유형과 달리 이들은 장기체류가 가능하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상당수 국가들은 숙련공 이주자들에 대해서는 선호하는 입장이다. 특히 영구적인 사업 이주자들은 투자와 일자리를 제공해주므로 환영받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다섯 가지 유형의 일반적인 이주 그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그들은 집합적으로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의 주제들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 최근의 이주자들은 운송, 통신, 무역, 투자, 문화적 상호 의존성의 증대로 다중의 지역성 및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국제이주의 증가는 유입국과 출신국, 그리고 양국 관계에서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현상을 초래하여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첫째, ‘위로부터의 지구화(globalization from above)’ 인 상품과 자본의 이동이 주로 물질문화를 중심으로 변화를 유도한 반면, ‘아래로부터 지구화(globalization from below)’라 할 수 있는 초국가 이민자들의 유입은 비물질문화의 변화 즉, 새로운 이념과 정체성, 생활양식을 가져온다. 유연한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문화와 종족정체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탈영토화된(deterritorialized) 초국가공동체(transnational communities)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¹³⁾ 둘째, 이주 노동자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면 스스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공간이 만들어지며, 이는 전통적 ‘공동체’개념을 변화시키고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¹⁴⁾ 셋째, 이주 노동자들은 이주 지역에서 노동으로 얻은 수입을 출신국에 송금함으로써 출신국 사회의

3), 1998, pp.469-510.

12) 임채완·전형권, 『재외한인과 글로벌네트워크』, 한울아카데미, 2006, p.44.

13) 이주 노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네트워크는 출신지역 사람들이 사회경제적 기회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활용이 되며, 출신 지역과 이주 지역을 하나의 사회로 엮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다.

14) 새로운 종족관계와의 경험을 통해 이주자들은 새로운 종족정체성을 수용하거나 과거의 종족 정체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변화를 촉진시킨다. 송금은 자본의 투자를 통해 생산을 자극하고 촉진시켜서 그 지역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측면을 갖고 있다. 반면에 송금이 출신지역에 이민 신드롬(migrant syndrome)을 불러일으켜 노동력의 유출과 소비적 문화의 확산을 가져온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¹⁵⁾ 넷째, 국제 이민은 이민자의 국적 허용 내지는 권한 부여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이민 송출국과 유입국 간의 외교적 마찰이나 국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이민을 내보낸 국가의 동포정책이 가시화되는데 이는 때때로 현지인 및 정부와 충돌을 빚는다.¹⁶⁾ 가령, 재일한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문 날인 등 차별적인 정책은 한국정부의 외교적 관여를 불러일으켰으며, 한국 사회 내의 이중국적 논의나 '교포'인정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정부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¹⁷⁾

결국, 국제노동이주는 출신 지역과는 상이한 환경에서 새로운 사회관계를 성립시키고 거주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혼합된 생활양식과 문화를 발전시키며, 가치관과 정체성의 혼란과 변화도 가져온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국제이주는 그것을 둘러싸고 출신국과 현지국 정부의 정책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¹⁸⁾

(2) 국제이주의 설명모형

전 지구적 자본과 노동이동의 관점에서 이민과 디아스포라 현상을 해석함에 있어 국제노동력이동(international labor migration)은 중요한 개념적 틀이다. 이는 자국민의 해외 송출뿐만 아니라, 국제노동 분업 체제 속에서 자국 내로 편입된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바라보는 데도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일찍이 매시 등(Massey, et. al., 1993)은 개인, 가족, 국가, 그리고 세계수준의 분석수준에 따라 신고전경제학, 신이주경제학, 노동시장분절론, 그리고 세계체제론으로 분리하여 이주의 원인을 분석하는 이론들을 소개한 바 있다. 매시 등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국제이론의 원인과 지속성을 연구하는 기존 이론들을 종합하여 분석수준과 분석단위를 기준으로 각 이주이론의 좌표를 설정하자면, <그림1>과 같이 위치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외국인이민자'의 선택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행위자적 접근, 둘째, 그의 선택행위의 배후에 존재하는 '송출국과 유입국의 시장·사회·국가와 그 상호작용의 총합으로서 세계체제'라는 사회구조를 중시하는 구조적 접근, 셋째, 양자의 매개자를 설정함으로써 간극을 극복하려는 관계론적 접근이 그것이다.

① **행위자 중심 이론**: 우선 <좌표 I>은 개인과 가족을 분석단위로 하고, 분석수준 역시 미시적 개인이나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이주의 발생과 지속을 설명한다. 따라서 이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채택하는 행위자 중심 이론으로 분류될 수 있는 바, 이는 이주자들을 합리적 존재로 간주하여, 그들이 신중하게 가능한 대안지를 선택하여 가장 좋은 조건으로 이동한다고 간주한다. 이러한 이론을 흔히 '신고전경제학(neoclassical economics)적 접근'이라 부르는데, 여기에는 균형이론, 비용-편익분석,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신이주경제학 등의 이론이 해당된다.

하지만 이 관점은 '각국 정부의 출입국 제한과 같은 이동장벽(barriers)'을 간과하거나 혹은 합리

15) 주종택, 「자본, 노동, 상품의 이동: 초국가시대의 경제와 문화」, 『제35차 한국 문화인류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003.

16) 이철우, 「초국가시대의 국적과 시민권」 『제35차 한국 문화인류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003.

17) 임채완·전형권, 앞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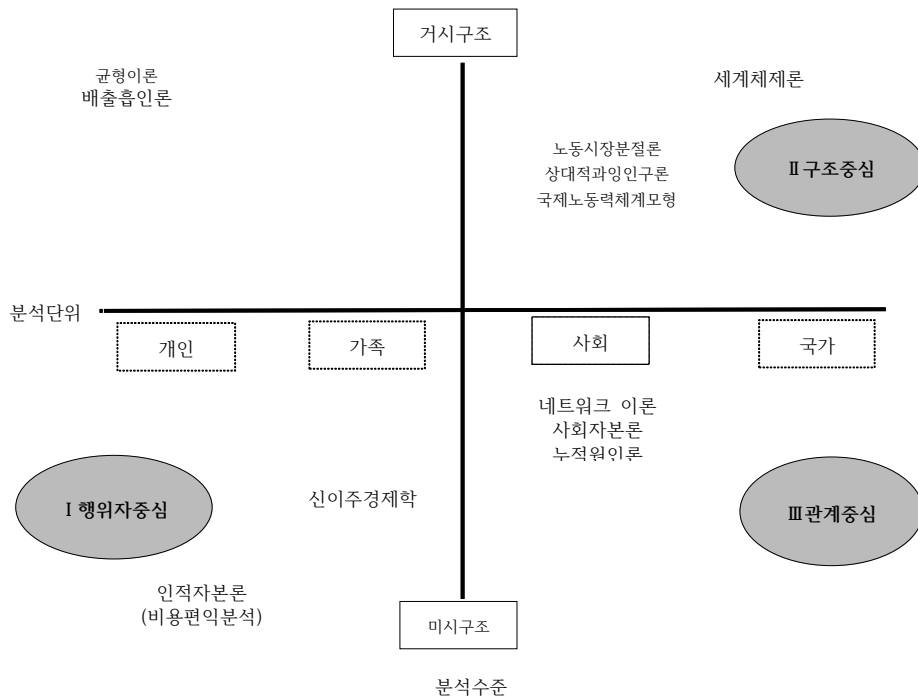
18) 임채완·전형권, 앞의 책.

적인 자유시장 통합과정에서 이를 제거되어야 할 장애물로 간주하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국내차원과 달리 국제노동이동에서는 이주자 못지않게 ‘국가(송출국/유입국)’라는 행위자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이를 간과할 수 있다. 또한 자유이동이 아닌 디아스포라 초기 현상에서 보이는 강제이동이나 강요된 이동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② **구조 중심 이론**: 이와는 반대로 <좌표Ⅱ>는 주로 사회와 국가를 분석단위로 하며 분석수준 역시 국가나 세계체제의 구조적 차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일명 ‘구조론적 관점’으로 불리우는 이러한 이론유형으로는 노동시장분절론, 상대적 과잉인구론, 국제노동력체계모형, 그리고 세계체제론에 걸쳐 있다. 이러한 구조중심의 접근은, ‘이주자’의 개별적 선택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주라는 선택행위의 배후에 존재하는 ‘송출국과 유입국의 시장·사회·국가와 그 상호작용의 총합으로서 세계체제’라는 사회구조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¹⁹⁾

하지만 이상의 구조적 이론은 개별 외국인노동자의 이동동기를 지극히 일반화시켜 행위자의 선택을 구조차원으로 환원시키고, 이동과정은 거의 간과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문제제기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유입국의 구체적 경로와 다양성을 포착하는 개념적 장치가 부족해 여전히 완결된 이론체계로 간주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

③ **관계 중심 이론**: 한편, <좌표Ⅲ>은 행위자와 구조의 상호작용 내지는 이주를 둘러싼 사회적 연결망 등에 주목하여 이주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입장이다. 이는 개인적 요소와 구조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흔히 말하는 ‘이주네트워크’ 이론으로 부를 수 있다.



<그림48> 국제이주의 분석수준과 분석단위

(출처: 기존의 국제이주 관련 이론들을 분석적으로 종합하여 연구자가 구성한 틀임, 전형권, 2008)

아직 내적 완결성은 높지 않으나 관계론적 접근은 위험회피 모형, 상대적 박탈이론, 사회적 연결망이론, 조직결성론, 누적원인이론, 그리고 국제노동력이동 체계이론 등으로 세분화 되는데, 이들은

19) 설동훈,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두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²⁰⁾ 이중에서도 사회적 연결망이론은, 노동력 송출국과 유입국에서 이주노동자와 선행 이주노동자 및 비이주자를 개인적 회원자격 및 사회적 매개자를 통해 연결시키는 연결망을 통해 이동비용과 위험을 낮추고 기대순이익을 증가시켜 국제노동력 이동이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한다.²¹⁾ 여기서 사회적 연결망은 사람들이 국제노동력 이동에 대한 접근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한 형태를 취한다. 우리가 흔히 ‘인맥(人脈), 혹은 ‘네트워크(network)’로 간주하는 이러한 연결망은 일종의 사회적 자본으로서, 사람들 사이의 접촉이라는 행위를 하나의 투자(investment)로 간주한다. 중국의 화교 네트워크가 바로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아울러, 조직결성이론은 유입국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입국규제가 강화되면 노동자들의 해외취업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취업브로커(broker)와 인력충원조직의 결성에 주목한다. 국제노동력이동의 암시장(black market)이 형성되고 노동자의 인권침해사태가 발생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각종 비영리사회단체가 결성되는 현상 등이 여기서 설명된다.²²⁾

지금까지 살펴본 국제이주현상에 대한 분석들은 신고전경제학의 행위자 중심시각이나 세계자본주의체제나 일국의 노동시장분절 등 구조적 요인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으며, 행위자와 구조를 통합하는 관계론적 시각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송출국과 수용국을 둘러싼 거시적 구조와 미시적 구조의 통합을 통해 안정된 국제이주체계가 어떻게 형성되며 작용하는지를 살펴야 한다.²³⁾ 과거와 달리 오늘 날 국제이주는 지구화와 초국가주의의 심화와 더불어 갈수록 보편적이며 안정적인 체계(system)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성격 또한 지속적이고 다방향의 추세로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국제이주에 관한 설명들이 간과하고 있는 한가지 중요한 점은 이주민 정체성의 재구성에 관한 것이다. 즉 처음에는 단순한 이주자(migrants)로 출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훗날 ‘디아스포라(diaspora)’로서 새로운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가? 그리고 현지사회의 적응과정에서 획득한 그들의 정체성은 모국에서 가졌던 민족 정체성과 어떤 차별성을 갖는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이주 과정에서 양산된 이주자들이 갖게 되는 ‘디아스포라’적 성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이 고민하고 있듯이, 이주의 송출국이나 수용국 모두 이주로 인해 발생한 시장경제적 조건의 변화 외에도, 새로운 사회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주자들이 갖는 집단적 정체성과 목소리가 국내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²⁴⁾

3) 디아스포라 현상의 설명틀

(1) 디아스포라의 학문적 정의

20) 이들 세부 이론에 설명은 지면 관계로 생략함

21) Massey, Douglas S., Joaquin Arango, Graeme Hugo, Ali Kouaouci, Adela Pellegrino, and J. Edward Jaylor,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and 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 (3), 1993. pp.460-461.

22) 한국에서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노동자의 국내유입과정에서 개입하는 각종 브로커들의 활동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단체들이 형성됨으로써 외국인노동자가 유입국 사회에서 동원할 수 있는 하나의 ‘사회적 자원’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3) 전형권, 2008.

24) 전형권, 2008.

‘디아스포라(diaspora)’라는 개념은 자발적이든 강요된 이주건 간에 자신들 조국의 밖에 수립된 유대인(Jewish)와 그리스인(Greek)의 두 민족분산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 1990년대에 들어서 학계가 초국적 인종 집단을 특성화하기 위해 사용하면서 부활하였다. 오늘날 학계에서 이 개념은 과거 유대인의 역사적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국제 이주, 망명, 난민, 이주 노동자, 망명자 공동체, 소수민족 공동체, 초국가적 민족 공동체 등을 아울러 지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²⁵⁾ 즉, 같은 민족적인 기원을 지닌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되거나(民族分散), 해외에 흩어져 살고 있으면서 민족에 대한 귀속의식과 동일한 신념체계를 지닌 사람들(種族性, 民族意識)을 지칭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아스포라는 보다 구체적으로 ‘민족디아스포라(ethno-national diaspora)’라 할 수 있다. 셰퍼(G. Sheffer)는 민족디아스포라에 대해, “사회정치적 구성물로서 자발적이거나 강요된 이주의 결과로서 형성되며, 스스로를 동일한 종족적 기원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하나 혹은 몇 개의 거주국(host countries)에서 영원히 소수자로서 살고 있는 민족 구성원들”로 묘사한다.²⁶⁾

윤인진(2004:4-5)과 최인범(Choi, 2003)의 연구에서는 디아스포라 민족공동체의 초기단계를 좁은 의미에서 기원지로부터 민족의 분산, 정치적·경제적, 그리고 기타 압박이나 박해요인에 의한 비자발적 강제 이산, 민족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노력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디아스포라에 대한 추상적인 논의단계도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단계도 변모하고 있다. 즉, 이제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동일 민족에 대한 애착과 연대감을 통한 상호교류와 소통의 초민족화(trans-nationalization), 모국과의 유대 등 사회적 관계의 디아스포라 민족공동체 네트워크로 관심의 초점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디아스포라는 자신들이 정착한 국가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들이 태어난 모국과의 연결은 여전히 지속함으로써 거주국과 모국을 모두 포함하는 ‘초국적 사회(transnational social fields)’ 내에 살게 된다. 이러한 탈경계적인 공간에서 부딪치는 초국적 경험을 통해 그들은 거주국에서의 성공적인 적응과 모국에 대한 헌신적 태도를 동시에 중요시하며 살고 있다. 어떤 면에서 이는 새로운 정체성을 생성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어느 한 곳에 고정시키지 않는 유목적(nomadic) 정체성이기도 하다. 고정된 위치에 불박한 동일성이 아니라 변이를 통해 끊임없이 유동화되는 새로운 장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고정된 정체성 혹은 동일성이 아니라 끊임없는 구성되는 실체이다.

우리가 흔히 디아스포라(diaspora)라고 부르는 민족이산 집단은 주로 정치, 경제적인 이유에서 세계 곳곳에 추방되는 경험을 함으로써 집단적인 외상(trauma)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전형적인 이주집단이다. 고전적 개념으로 볼 때 디아스포라는 분명 보편적인 국제이주자들과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 디아스포라의 개념이 사회과학적으로 모국을 떠난 이산민족 공동체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쓰임에 따라 대부분의 국제이주 현상을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²⁷⁾

하지만 세계화와 경제통합에 따라 급증하는 이들 노동이주를 디아스포라의 유형에 포함시켜 논의할 때 주의해야 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고전적 디아스포라의 개념이 이론적으로 함축하는 ‘집합적 경험’ 혹은 ‘귀환의 신화’와 같은 속성이 실제로 이들 노동이주자들에게 적용된다는 믿음을 버려야

25) 윤인진, 『코리아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p.5.

26) Gabriel Sheffer, 『Diaspora Politics: At home abroa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9-10.

27) 전형권, 2008.

한다는 것이다. 최근 각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상대로 진행한 여러 연구물들이 보여주듯이, 노동이주를 통해 현지에 정착한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한편으로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개별행위자로서 철저히 자연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때문에 노동이주자들이 갖는 디아스포라적 속성과 그렇지 않은 속성을 구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에 등장하는 노동디아스포라를 설명하는 주요한 개념틀로는 세계화(globalization),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탈영토화, 다중정체성, 디아스포라 위치(the place of diaspora) 등의 개념이 될 것이다. 특히 이주자들을 디아스포라의 관점으로부터 초국가적 행위자로서의 관점 전환을 강조하는 일련의 시각들은 노동이주에 대한 연구를 한 차원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초국가주의 시대, ‘디아스포라’ 개념의 유용성과 한계

초국가적 행위자로서 디아스포라 혹은 종족집단에 대한 이같은 접근은 세계정치 연구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과는 분리되면서 새로운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초국가적이고 종족적 차원에서 펼쳐지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이 같은 설명은 기존의 국가중심적인 세계관을 갖는 현실주의의 정치이론이나 규범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정치이론, 혹은 주변부와 중심부의 노동력 이동(혹은 착취)의 현상으로 보는 구조중심적 시각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경이나 국가권력, 국제규범, 세계체제 등 기존의 세계정치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권력이나 규범, 시장구조 등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거나, 초국가적 경계에 걸쳐 활동하는 종족집단(디아스포라)의 이점과 특수성이다. 특히 네트워크를 존재방식으로 삼는 이들 초국가적 행위자들은 기존의 이론적 분석틀로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이해관계 내지는 행동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민국가와 세계화 과정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에 큰 관심이 있다.

영토에 불박힌 국민국가에 비해 탈영토적 자본과 힘을 거느린 디아스포라 집단은 세계화가 양산하는 풍부한 기회요인들을 훨씬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적 이점이 있다. 이들 종족 집단은 일국의 수준에서는 모국과 거주국의 정치경제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수준에서는 초국적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와 시장의 작동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경우에 따라서 디아스포라 자본은 해외시장에서 확보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통해 일개 국민국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²⁸⁾ 국민국가는 이들 디아스포라 자본을 유입하거나 두뇌, 기술을 도입하려는 목적으로 그들에게 매력적인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거나 개방적인 정책 변화의 시그널을 준비하기도 한다.

21세기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시대에 접어들면서 디아스포라 민족공동체의 의미는 종래의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연대조직과 같은 네트워크의 확대된 새로운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버토벡(Vertovec, 1999)의 디아스포라 민족공동체의 개념은 초국가주의 현상에 의한 사람, 기관, 제도를 연결하는 복합적인 관계이자 상호작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초국가주의는 오늘날의 국제 이주자, 특히 그들의 사회경제적 네트워크와 유연한 문화적 정체성을 설명하는 데에 주요한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주체의 공간적 이동성과 그들의 비공간적 네트워크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이들이 본국과 거주국에서의 사회문화적 관계와 어떻게 복잡하게 얽혀있고 뿌리내리고 있는가를 종종 간과해왔음²⁹⁾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8) 전형권, 「초국가주의 관점에서 본 화교 디아스포라와 네트워크」, 『大韓政治學會報』, 제13집 2호, 大韓政治學會, 2005, pp.95-123.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와 정보화의 영향으로 이민, 즉 사람의 이동이 일방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쌍방향으로 공간 범위와 제약을 초월하는 공간 이동의 가상현실 속의 Off-line상의 공간적 의미에서 탈영토화된 개개인들이 민족공동체 네트워크 속에서 재민족화 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의 재민족화나 탈민족화된 민족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이 글로벌시대에는 정서적인 민족논리라는 상상의 공동체, 네트워크상의 가상의 공동체보다는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현실의 공동체’로 점차 이동해 가고 있다.(임채완, 2010)

해외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를 거점으로 모국과 거주국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과거 지역적으로 분산 고립되었던 역사적 형태로서 ‘디아스포라’의 삶은 전 세계적 수준에서 지역적, 경제적, 문화적인 활동의 범위와 가능성을 확대시켜나가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세계 화인·화교 디아스포라의 사례를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3. 세계 화인·화교 디아스포라의 쟁점과 정책 과제

1) 화인·화교 디아스포라의 이주배경과 특성

(1) 화인·화교의 개념 정의³⁰⁾

<표1> 화교, 화인, 화예의 개념 비교(임채완·전형권, 2006)

구분	중국	대만 ³¹⁾
華僑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여전히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재외국민 ³²⁾	해외에 정주하고 있는 대만국적인
華人	外籍華人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한 화교나 화인의 後裔, 즉,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해외 이주민과 그 후예들은 중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되어 화교와 구분 됨 ³³⁾
	海外華人	중국은 아직 혈통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바 중국인 혈통을 지닌 모든 사람들을 넓은 의미에서 ‘華人’ 또는 海外華人이라 부르고 있음 ³⁴⁾
華裔	해외에서 출생한 화교·화인들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로서, 화인이나 해외 화인과 동등하게 사용되기도 함	해외에서 출생한 중국인 후예
歸僑	중국 국적을 회복한 화인,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화인	
華商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華人·華僑를 지칭하는 말	

29) 박경환, 「초국가주의 뿌리 내리기: 초국가주의 논의의 세가지 위협」,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권 1호, 2007.

30) 중국 이외의 나라에 거주하는 중국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호칭으로는 화교, 화인, 화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개념이다. 국적문제, 중국과 대만의 관계, 통계상의 부정확성, 화교와 화인간의 구분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단순히 정의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별한 구분이 필요치 않을 경우, 이 글에서는 편의상 ‘화교’라 통칭하고자 한다.

중국 이외의 나라에 거주하는 중국계 혈통에 대한 호칭은 화교(華僑), 화인(華人), 화예(華裔), 화상(華商) 등 여러 가지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들은 일반적으로 동남아, 북미 지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서로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화교’와 ‘화인’에 관한 중국 공식적인 입장은 위의 <표1>과 같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화교(Overseas Chinese, Alien Chinese)란 일반적으로 중국 본토 이외의 국가나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아직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이민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대만의 입장에서는, 대만 국적을 가진 해외 이민자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이에 반해 화인은 주로 중국 국적이 아니라 거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이민 2, 3세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예를 들면 중국계 미국인,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등이 그것이다.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에 중국에서 태어났던 ‘화교’들의 숫자는 많이 감소되고, 현지에서 태어난 2, 3, 4세 화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들 현지 화인들은 중국이나 현지국에 정확히 부합되지 않는 그들만의 새로운 정체성과 명칭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화교와 화인들을 ‘싱가포르계 화인(新華)’으로 간주하는 것이 그것이다. 한편 화인 가운데 중국 국적을 회복한 사람들이나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화인을 ‘귀교(歸僑)’라 한다. 이 중 중국의 직·간접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류는 ‘화교’와 ‘귀교’로서 초기의 중국 재외동포 정책은 이들을 중심으로 실행되어 왔다.

최근 들어 화상(華商)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화상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화인·화교를 지칭하는 말이다. 화상이란 좁은 의미에서 화인계 특징을 갖고 있는 경제활동 종사자를 가리키는 말이며, 넓은 의미에서 화인 경제계나 비경제계 각종 기관 및 단체 인사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³⁵⁾

가끔 화상 네트워크가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이유는 그것이 오늘날 어느 특정된 지역에만 한정되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개방적 글로벌 사회에서 전체 화인 디아스포라의 연결망을 형성하고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 화교·화인의 이주원인과 역사

중국인들의 해외 이주는 대외 통상이 활발했던 당나라 시기부터 활발해졌다. 개별적이고 우발적 현상이 아닌 일상적인 현상으로서 화교들의 해외 이민이 시작되어 해외에 중국의 문화적 특성을 가진 화교 사회를 형성한 것은 남송(南宋) 시기로 볼 수 있다.³⁶⁾ 이후 명나라 시기, 그리고 식민지 약탈 정책을 추진하던 유럽과 미국 열강에 의해 아시아 지역이 침략을 받고 있던 청나라 말기를 거치면서 해외 화교 사회는 크게 확산된다. 하지만 초기 화교의 경우, 통상(通商)적인 목적으로 해외에 정착한 사람에 비해 식민지 중주국에 의해 미대륙 개척, 동남아시아 및 대양주 개발을 위한 노동력 조달을 위해 중국 남동부 지역에서 끌려갔거나 전란을 피하려고 스스로 탈출한 사람들이 더 많

31) 臺灣僑務委員會. <http://www.ocac.gov.tw/public>

32) 중화인민공화국귀교교권권익보호법, 제2조. <http://www.people.com.cn> [2004.11.21.]

33) 人民網 www.people.com.cn [2004.11.12.]

34) 第六屆華商大會網. http://www.js.cei.gov.cn/huashang/hsdh_h10.htm [2004.11.21.]

35) 第6次世界華商大會. <http://www.js.cei.gov.cn> [2005.07.12.]

36) 손준식, 「華僑經濟圈과 中國의 華僑政策」, 『한민족 공동경제권 형성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해외민족 연구소, 1998.

다.³⁷⁾

화교 이민 발생의 원인은 시대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정치적 도피형으로서 중국의 내란이나 왕조 교체기에 대거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원(元)에 의한 송나라 멸망 후 송나라 유민들의 남양(南洋) 지역으로의 피난, 만주족 입관(入關) 이후 명나라의 유신(遺臣)들의 피난, 태평천국운동과 국민당 정부 초기 내전 시기 발생한 이민 및 신중국 성립 후 국민당원의 해외 이주 등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둘째, 경제적 도피형으로서 토지 점령과 가혹한 세금, 각종 착취와 인구 과잉으로 인해 해외로 나가는 경우이다. 전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해외 이주도 이에 해당된다. 셋째, 식민지 이주형으로서 서구 열강의 침략과 식민지 확장으로 인한 경우이다. 아편전쟁 이후 서구의 경제적 침략하에 중국의 자급자족 자연경제가 파괴되면서 생긴 수많은 농민과 수공업자들이 살길을 찾기 위해 해외로 이주하였고, 또 열강의 식민지 경영과 미국, 호주의 금광 개발을 위해 모집(인신매매)한 중국인 노동자들이 현지에서 정착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넷째, 현지국의 이민 정책 변화 등 흡인 요인에 따른 경우이다. 가령 1862년 미국이 서부 개발을 위해 대륙횡단철도를 부설하면서 중국인 노동자인 ‘화공(華工)’³⁸⁾을 대거 수용하였고 이들 중 다수가 이후 미국에 정착하게 된다.³⁹⁾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캐나다 등의 이민 정책 변화도 모두 중국인의 이민에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국제 이민이 자유화되고 세계시장이 발달하면서 증가하기 시작한 투자 이민을 들 수 있다. 1990년 미국 등의 나라에서 상업 투자 이민 정책을 펼치면서 거액의 자금 보유자와 선진 기술을 갖고 있는 이민층이 이들 나라들에 흘러들게 되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거대한 화인 경제권이 형성되게 된다. 최근 30여년 간 경제개발 추진 정책에 발맞추어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다국적 자본과의 공동 사업, 민간 자본의 사업 확장 지원책 이용, 중국 지역(대만, 홍콩, 중국)의 경제 개방과 지역 경제 통합을 위한 참여(commitment)에 의해 화인계 기업의 상당수는 경제의 다각화, 국제화를 수행하고 성장을 달성하는 데 성공해 왔다.⁴⁰⁾

화교의 해외 이주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면 크게 압박 요인(push factor)과 유인 요인(pull factor)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다.⁴¹⁾ 압박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9세기 인구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북방 주민들의 남하로 중국 남부 연해 지역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경작지가 부족한 상황이 날로 심각해진다. 또한 자급자족의 자연경제가 해체되면서 농업 노동력의 감소로 인해 식량 생산량 제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등 악순환이 나타난다. 또한 전쟁이 빈번히 일어나고, 사회질서가 흐트러지며 백성들의 생활고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해외 이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출구들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농민들의 항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실패하면 배를 타고 외국으로 망명하곤 하였다.⁴²⁾

화교들의 이민을 유인한 요소로는 식민지 개발로 인한 노동력 수요의 증가와 무역의 발달을 꼽을

37) 임채완·전형권, 2006.

38) 화공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필 것이다.

39) 그러나 20년 뒤 여러 이유로 중국인의 이민을 제한하는 ‘排華法案’(Chinese Exclusion Act of 1882)이 통과됨으로서 10년간 중국노동자의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그 후 이 법안은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1943년에 와서야 폐지되었다. 1960년대부터 중국인 입국 제한이 완화되어 1970-80년대 많은 세계 각지의 중국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는 이민열기가 일어났다. 陶潔, 『中國海外移民史略』, 『華人經濟年鑑』, 1994, pp.45-48.

40) 왕샤오핑·박정동, 『화인형 기업경영』, 삼성경제연구소, 2004, pp.21-22.

41) 임채완·전형권, 2006.

42) 그 예로써 태평천국 平南王 黃德滋가 부하들을 데리고 호주로 망명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陶潔, 『中國海外移民史略』, 『華人經濟年鑑』pp.45-48.

수 있다. 해외 경제 발전으로 인한 노동력의 수요는 생활고에 허덕이던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큰 흡인력이었다. 16세기부터 유럽인들이 동남아에서 식민지를 대폭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영국은 싱가포르, 미얀마 등지에 유럽과 동남아,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외무역을 활발히 진행시킨다. 이 과정에서 화상들의 역할이 컸으며, 동남아에서의 광산 개발과 농장 운영을 확대하면서 부족한 노동력을 화인들로 보충하였다.

하지만 중국 화교의 해외 이민을 대내외적으로 합법화시켜 이민 열기를 부채질한 계기가 된 것은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열강들과 체결한 조약이었다. 아편전쟁 이후 서구 열강은 중국과 난징조약 등의 불평등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문호를 개방시키고 화인의 해외 이주를 합법화시킨다. 이는 대규모적인 해외 이민 형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2) 초국가주의와 화인·화교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1) 화교 디아스포라와 정체성의 변화

중국의 화교는 민족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거주지의 정착과 동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민족 집단이다. 화교 및 화인⁴³⁾ 자본은 중국의 성공적인 개혁·개방에 중심 역할을 했다. 화교의 본국에 대한 기여는 무엇보다 경제 분야에서 뚜렷하며, 이는 이들 간의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의 위력에 기인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 발전에 있어 화교의 공헌은 송금, 직접 투자, 기존 화교 상권을 통한 무역 확대, 중국 공무원 무료 연수 등을 통한 국제화 기회 제공 및 차세대 인사와의 연계망 형성 등을 들 수 있다. 화상들의 이러한 연계는 초기에 주로 가족 관계, 동일한 언어, 지역 연고 등을 고리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항공기 등 운송수단의 발달에 따른 교류증대와 통신망의 획기적인 진전으로 인한 인터넷 이용 등이 세계적 수준의 네트워크 구축을 돕고 있는 것이다. 화교 네트워크는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의 유입과 정착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정착 초기 맺는 친근 관계는 현지 정착과 갈등 조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필품을 제공하며, 새로운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데 가시적, 비가시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⁴⁴⁾

전통적 유교문화가 추천하는 가치관을 핵심으로 이의 외연이라고 할 수 있는 연고를 중심으로 한 화인사회는 그 이주시기로부터 전통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왔으며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세계화의 흐름 속에 편승하여 열린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세계적 영역에서 초국가적인 네트워크로 발전해 왔다. 전통적 시대로부터 계승해온 화인사회의 네트워크는 문화적 자원이 비즈니스 영역에까지 동원되어 자원의 절약이나 부족되는 부분의 보충에 활용되었다.⁴⁵⁾ 즉 화인들은 연고단체를 기본단위로 전통적 문화기반을 바탕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신뢰, 명망, 호혜, 체면 등 심리적 요소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왔고, 또한 이러한 시스템이 전반 사회에 효용적으로 작용되면서 네트워크 주체들 사이의 교류관계가 보다 쉽게 이루어졌었다. 따라서 이러한 교류관계는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시

43) 중국 이외의 나라에 거주하는 중국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호칭으로는 화교, 화인, 화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개념이다. 국적문제, 중국과 대만의 관계, 통계상의 부정확성, 화교와 화인간의 구분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단순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화교’라는 개념은 그동안 국적 기준에 관계 없이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중국인 이민자를 총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왔고, 이 개념이 초창기부터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어왔으므로, 이 책에서는 ‘화교’라는 말과 ‘화인’이라는 말을 구별 없이 사용하기로 한다.

44) 임채완·전형권, 2006.

45) 왕샤오핑, 박정동: 화인기업경영, 삼성경제연구소, 2004, p.187.

장개척에서의 정보교류와 상호 협력을 비교적 용이하게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 효과도 배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⁴⁶⁾ 경제사회에서 정보가 부족하면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화인사회 내에서 형성된 네트워크는 바로 이러한 점을 극복하는데 우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것은 물론 화인사회만의 특징이 아니지만, 화인사회 내부의 네트워크가 오늘날 전 세계적인 영역에서 역동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해 오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⁴⁷⁾

화교 사회의 변화를 지켜보면 화교들의 국적 변화, 다원 문화 적응에 의한 가치관 변화 등과 같은 자의적 변화 양상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의 화인에 대한 배타 정책으로 인한 타의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화교는 중국계로 남아있기를 바랄 뿐 중국 국적을 갖겠다는 의지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거주국에 머물고 있는 화교는 그 사회에서 민족적인 성격과 문화에 있어서 중국계와 현지인이라는 위치를 동시에 지니는 이중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화교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화교들의 지위는 몇 차례 변화를 거듭한다. 식민주의의 별초장이 되기 전에 교역을 위해 건너간 중국의 상인은 토착 지배자나 상인으로부터 아라비아, 인도 상인과 동등한 취급을 받아왔지만, 유럽 식민주의가 해당 지역을 계속 지배하게 되면서 초기에는 현지 사회와 식민지 피지배자 사이의 중개자로서 그 지위를 굳힌다. 1880년대 이후에는 유럽 자본이 플랜테이션, 광업, 은행업, 상업에 집중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일부 화인은 신규 노동자로서 중국에서 조달되어 현지에서의 생산 활동에 종사하게 되지만, 기존의 각 업종 부문에서 화인 자본은 식민지 자본과 평등하게 경쟁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현지의 민족주의 색채가 짙어감에 따라 상업 분야에서의 화인 자본과 토착 자본과의 경쟁은 정치적, 민족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

천(Allen J. Chun)에 따르면, 동남아 등지에서 화교들은 토착 다수자의 생계형 농업과 외국 및 일부 국내 엘리트의 보다 상업적이고 산업적인 관심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천민 자본주의(pariah capitalism)’ 속성을 지닌다.⁴⁸⁾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화교들은 현지국은 물론 동남아 지역 수준에서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민족국가의 경제 명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 왔다. 화인에 의한 자본 집중은 본토 주민들의 위기감을 극대화시켰으며, 이에 토착민을 부추기고 화인들의 발전을 견제하는 동화 정책과 민족 차별 정책⁴⁹⁾이 실행되었다. 중국어 학교를 꾸리는 것마저 금지하였으며, 심지어는 종족 마찰로 인한 유혈 사건까지 연이어 발생하기에 이른다.⁵⁰⁾

이에 화교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했는데,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차이나타운 간판은 영어로 ‘Chinese Town’으로 적혀져 있다.⁵¹⁾ 현지화의 성공은 차이나타운의 형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디아스포라 공간 어디에서든지 차이나타운은 흑인들의 할렘 가와는 대조적으로 중산층의 비즈니스 지향적인 장소에 위치한다. 노예무역에 규제된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와 식민주의에 강요된 인도인 디아스포라와는 대조적으로, 중국 화교 디아스포라의 과정은 양육되기보다는 자율적인 것이었다.

46) Wu Wei-ping, 「Transaction Cost, Cultural Values and Chinese Business Networks an Integrated Approach」, 『Chinese Business Network』, edited by Chan Kwok Kwok Bun, Prentice Hall, 2000. p.47.

47) 임채완, 「세계화상네트워크의 성격과 발전현황」, 『한국세계지역학회보』, 한국세계지역학회, 2005.

48) Chun, Allen J. 「Pariah Capitalism and the Overseas Chinese of Southeast Asia: Problems in the Definition of the Problem」,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12, 1989. pp.233-256.

49) 이덕훈, 「복합인종사회 말레이시아의 인종조화와 부미푸트라정책」, 『동남아연구』, 제5권, 1996년 2월, (한남대학교 동남아시아연구소)

50) 臺灣僑務委員會, 『華僑經濟年監(東南亞篇)』, 臺灣僑務委員會, 2004.

51) 이덕훈, 『화교경제의 생성과 발전』, 한남대학교 출판부, 2002.

광범위한 중국인 해외 이주자 공동체인 화교들은 사프란이 정의했던 순수한 디아스포라의 성격들을 구비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화인들은 ‘모국으로 되가지고 올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벌려는’ 동기로 이민을 떠난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화인들은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그들의 문화가 지배적이며 번성하는 모국으로 언제든 귀환할 수 있다. 하지만 모국에 대한 신화(디아스포라 의식)는 몇몇 지역에서는 희박해지고 있다. 이는 정반대의 이유에서 기인한다. 즉, 법적·정치적 무능력이 제거되고 경제적 기회들이 확장된 결과 중국어에 대한 지식과 중국 문화와의 연계가 점차 약해진 곳(미국, 캐나다), 또한 화인 공동체가 지배적이어서 그들의 문화가 제도적인 지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곳, 정치·경제적 조건이 보다 매력적이면서 모국본토의 밖에 있는 화인 공동체를 재창조할 수 있는 곳(싱가포르) 등이 그것이다. 베트남전쟁 이후, 많은 화인들은(아마도 모국의 신화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 ‘모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덜 매력적인 디아스포라 사회로에서 더 매력적인 디아스포라 사회로 이동하였다. 즉, 인도차이나로부터 프랑스 혹은 미국으로 이동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화교들의 화인으로서의 전환 과정이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나타난 신흥 독립국가 내의 정착 과정에서 화교들이 겪은 민족적인 갈등은 거주국 정부에서 펼친 새로운 경제 발전 전략 중 거주국 국적 취득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으로 해결된다. 거주국의 공민, 즉 ‘화인’이 됨으로써 화교들의 경제활동과 현지 국가의 발전 간의 모순이 해결되어 동남아 각국의 화교 경제는 거주국 경제의 일부분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⁵²⁾ 특히 중국 정부의 이중국적 정책 포기, 민족 배타의 아픈 역사와 동화 정책 등 내·외적 요소의 작용도 화교로부터 화인으로서의 중대한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이었다.

이러한 화인의 미묘한 심리적 변화는 바로 국가관, 민족적 관념의 갈등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화인들이 역사적·문화적·경제적 요소들을 복합하여 민족적 소외감을 극복하고 거주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며 경제적 지위로부터 정치적 지위로의 향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국가관을 과감히 변화시킨 결과이다. 화인 자신의 운명과 앞날에 깊이 연관되는 중대한 결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동남아 각국의 화인 경제는 그 내용에서 형식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거주국 경제의 일부분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각국 화인 자본도 거주국 민족자본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게 되었다.

이처럼 ‘화인’이라는 명칭은 혈연을 바탕으로 민족의 동질감을 상실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중국인’이라는 정치적 틀에서 해방되어 거주국 국민으로서 거주국 토착민족들과 함께 평등한 권리를 행사하고 어울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도 그들은 역사적·혈연적·문화적 힘으로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왔으며 그 뒤로 이루어지는 화인 공동체의 형성에 튼튼한 기반이 되었다.⁵³⁾

(2) 초국가적 행위자로서 화교 네트워크의 성격

1970년대 말 중국 개방개혁정책의 실시와 80년대 말 냉전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오늘날 화교는 거대한 민족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그들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고 중국과 대만의 경쟁 속에서 영

52) 이 시기 중국의 이중국적 폐지 정책은 국외 화인들의 현지화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동남아 화인들이 거주국을 조국으로 인식하고 중국을 선조의 고향으로 인식하는 국가관의 변화를 가져왔다.

53) 임채완·전형권, 2006.

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다.

화인 네트워크는 연고 중심의 전통적 네트워크로부터 점차적으로 그 규모를 확대하여 전국 규모의 네트워크로, 더 나아가서는 초국가적 네트워크의 규모로 발전해 왔으며, 오늘날에는 세계화상대회를 비롯해 더욱 글로벌화 된 네트워크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화인 네트워크의 역동성은 국가 내 통합 네트워크, 지역적 초국가 네트워크, 그리고 글로벌 수준의 네트워크로 묘사될 수 있다.⁵⁴⁾

① 국가 내 통합 네트워크: 근대 중국의 해외 이민은 19세기 중반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인한 국가의 실추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주로 동남아 지역에 이주를 시작하면서 본격화된다.⁵⁵⁾ 화교들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정착한 동남아 국가별로 자연스럽게 화인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토착인과 거주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 때문에 그들이 현지에서 생활 기반과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았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은 ‘방(幫)’이라고 불리는 독자적인 상부상조의 조직을 구성하여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동족간 단결을 강화하는 생존공간을 만들어가기 시작한다. 이러한 ‘방’은 오늘날까지 일관되게 화교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생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치적·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自衛)적, 자치적 집단화 조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방’은 집단 구성원 간의 절대적 신뢰를 형성하는 기본 원리를 기반으로 성립된 것이다.

이러한 화교간 유대와 상호 신뢰 형성의 기초는 혈연·지연·업연이라 불리는 삼연과 관계된다. 예를 들면 화인들은 방언(方言)과 지역을 중심으로 상방(商幫)을 결성하였으며, 혈연과 지연을 중심으로 한 종친회(宗親會)와 동향회(同鄉會)는 화상들을 결집시키는 기능을 하였다.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화총상회는 점차 혈연과 지연의 장벽을 뛰어 넘어 화상들의 업연 조직으로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1940년대에는 중화총상회를 중심으로 개별 국가에서 통합 네트워크로 확대, 발전하였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자기 보호, 상부상조의 필요성에 따라 내부적으로 큰 권위를 가지고 운영되어 오면서 화교들의 중요한 근거지로 발전하였다.

② 지역적 초국가 네트워크: 1950년대 동남아 지역 경제 발전과 더불어 화인 기업의 규모도 계속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화상들의 경영 무역 네트워크도 다양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많은 화상 기업들의 투자도 업연을 초월하여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 지사를 설립하면서 영역을 확장하였다. 이 시기 화인 기업은 타기업과의 연합 경영을 추구하였으며, 합자 기업, 연합 경영 기업, 주식 통제(控股) 기업, 다국적기업으로 급속히 발전함으로써 전통적인 ‘파트너제(合夥制)’에서 주식 기업제로 변화, 발전하였다. 한편 1960년대 화교 단체는 국제적 차원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1970년대에는 화교들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화교 단체의 숫자도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⁵⁶⁾ 이러한 배경에서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국가 내 화상 네트워크는 1970년대 들어서서 동남아 지역에서 국가를 초월한 초국가 네트워크로 발전한다.⁵⁷⁾ 화인 단체는 화인 간의 문화 교류 촉진과 함께 화교 경제성장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화인 경제의 활성화와 화상 기업의 개방화·국제화, 그리고

54) 임채완, 「세계화상네트워크의 성격과 발전현황」, 『한국세계지역학회보』, 한국세계지역학회, 2005 참조.

55) 林振淦·張洪川, 「世界華商知多少: 關於海外華人華商的話題」, 『中國工商時報』, 2001.

56) 임채완, 「세계화상네트워크의 성격과 발전현황」, 『한국세계지역학회보』, 한국세계지역학회, 2005 참조.

57) 林振淦, 張洪川, 앞의 글, 2001.09.04.

화인 단체의 급속한 발전 및 광범위한 분포는 지역적 초국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내적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이러한 내적 요인과 함께 이 시기의 국제정치경제적 환경은 화상들의 지역적 초국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외적 요인이 되었다. 그 첫째 요인은 동남아 지역 민족경제의 부흥이다. 둘째 요인은 동남아 국가 화교 정책의 변화인데, 배척과 경시 정책에서 1960년대부터 화교에 대한 제한, 이용, 그리고 보호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셋째 요인은 세계경제 발전에서 동남아 지역 경제 위상의 제고이다. 동남아 국가들의 외향성 경제 발전이 성공을 거두면서 동아시아 경제의 세계적 위상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교 경제의 자본 축적에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화상들이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③ 글로벌 네트워크: 1980년대 이후 홍콩, 대만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던 화교들 중 많은 이들이 북미, 유럽 지역으로 재이주하면서 화교 네트워크는 지역을 초월한 글로벌 네트워크 단계로 그 범위를 확대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부터 화상 네트워크는 국제화에 순응하여 국경과 지역을 초월하는 현대적 경제 네트워크 기능의 강화에 주력하게 된다.⁵⁸⁾

1980년대 초반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중국 정부의 화인 사회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기 시작함에 따라 화교 네트워크는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된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여 설정한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쑤터우(汕頭), 쑤먼(廈門) 등은 지정학적으로 해외 화상의 ‘방’이나 ‘하카(客家)’와 관련된 지역이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 특별 개방 지역 정책은 해외 화상들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추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⁵⁹⁾

1980년대부터 형성한 글로벌 화상 네트워크는 삼연에 근거한 전통 네트워크로부터 학연, 지연 및 종합적, 전문기술적인 네트워크로의 변화 특성을 보여준다.⁶⁰⁾ 이는 세계화, 정보화와 함께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시아 화상 자본과 북미의 첨단 기술을 결합하여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시도도 제기된다.

국가적·초국가적 수준에서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온 화교들은 세계화에 조용하는 보다 개방적이고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했는데, 1991년 리관유(李光耀) 수상의 제안에 따라 결성된 ‘세계 화상대회(世界華商大會)’ 창설이 대표적이다. 이는 날로 심화되는 초국가적 환경에서 세계경제와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활로 개척의 성격을 지닌다. 이 대회는 중국과 동남아를 생산 기지로, 홍콩과 싱가포르를 금융 중심지로, 북미와 유럽, 대양주를 소비 기지로 역할을 분담해서 화상이 지구 경제의 주역이 되겠다는 구상을 바탕으로 창설되었다.⁶¹⁾

이상에서 살폈듯이, 중국의 화교 디아스포라로 구성된 화교 공동체는 1940년대 개별 국가 내에서 통합되었으며, 1970년대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국경을 초월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1980년대 이후 홍콩, 대만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화교들이 급격히 북미, 유럽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이들 지역을

58) 임채완, 「세계화상네트워크의 성격과 발전현황」, 『한국세계지역학회보』, 한국세계지역학회, 2005 참조

59)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개방 초기에 제일 먼저 개방한 4대 경제특별개발구로는 홍콩과 인접해 있는 선전(深圳), 마카오와 인접지인 주하이(珠海), 대만과 바다를 사이 두고 있는 쑤먼(廈門), 그리고 해외 화인들 중 수가 가장 많은 초우쩌우인(潮州人)들의 고향인 쑤터우(汕頭) 등 4개 지역이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이 시기에 이미 화상 경제력에 대한 거시적 안목을 갖고 있었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60) 鄧仕超, 「海外華人網絡的發展與海外華人社會」, <http://www.peopledail.com.cn>.

61) 전형권, 「초국가주의 관점에서 본 화교 디아스포라와 네트워크」, 『大韓政治學會報』, 제13집 2호, 大韓政治學會, 2005. pp.118-119.

연결하는 글로벌 화교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에 걸친 화교 경제권은 더 넓은 영역에서 결집력을 공고히 하게 된 것이다. 특히 세계화상대회를 비롯한 각종 채널은 화상들 간의 연결성을 강화시켰으며 자본 이동의 자유화와 인터넷의 발달에 힘입어 거대한 규모를 이루고 있다.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볼 때, 세계에 걸친 화교 디아스포라의 공간은 타민족에 비해 훨씬 강고하고 네트워크 지향적이다.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것이 화교 사회만의 특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화교 내부의 네트워크가 오늘날 전 세계적인 영역에서 역동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해 오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중국인 디아스포라를 개념화한 맥커운(Mckeown)은 화교 네트워크를 초기의 ‘태양광선(sun’s rays)’ 네트워크와 후기의 ‘거미집(cobweb)’ 네트워크를 구별한다.⁶²⁾ 이는 기존의 중국 국민 상호 간의 수직적 네트워크로부터 점차 동남아 다국 공민 사이의 문화적 네트워크로 깊숙이 자리 매김해 왔던 화교의 경험을 핵심적으로 묘사해 준다. 이러한 화교 네트워크의 본토화 작업은 동남아 각국 경제의 발전과 동남아 지역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화교 디아스포라의 경험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를 결속시킨 문화적 영역의 동질성이다. 특히 ‘화교’ 내지는 ‘화인’이라는 정체성과 중화 민족의 문화적 동질성은 이민 초기로부터 지연(地緣), 혈연(血緣), 업연(業緣)을 내용으로 한 민족 내의 수직적 네트워크가 국경을 초월한 수평적 네트워크로 확대, 변화하는 데 큰 작용을 하였다. 화교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종래의 문화적 동질성은 초국가주의적 사회 영역에 걸친 새로운 정체성, 즉 ‘화인’이라는 관념으로 대체되었고, 이러한 이중적인 정체성은 그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3) 화교 네트워크의 성공 요인과 배경

그렇다면 화교 네트워크가 이토록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무엇보다도 우선 중국 사회에 내재해 있는 유교적 문화 기반과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그들의 연고(緣故) 관념에서 찾을 수 있다. 최초의 화상 기업은 하나의 조직 형태로 일반적으로 가족 기업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 규모가 작고 조직구조가 단순하며 업종도 단일하다.⁶³⁾ 하지만 규모가 확장되면서 대부분 화상 기업들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광범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기적이고 안정된 네트워크 속에서 자금·기술·정보 등을 교환하면서 상호 보완적 역할로 규모를 확장하는 동시에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한다.

화상들은 보다 엄밀하게 구축된 네트워크 속에서 일종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의리나 인정, 연대감을 강조하면서 경제이익과 긴밀히 연계된 상호 의존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화상들은 전통적·문화적 요인을 ‘공동 자원’으로 하여 강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레딩(Redding)은 대만, 홍콩, 동남아 화상 기업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화상들 조직내의 관계 메커니즘(Linkage Mechanism)을 주목하면서, 그것을 ‘약한 조직과 강한 네트워크(Weak Organization and Strong Linkages)’라고 묘사한다.⁶⁴⁾

62) Adam. Mckeown, 「Conceptualizing Chinese Diasporas, 1842 to 1979」,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8(2) 1999. pp.306-337.

63) 레딩(Redding)은 화교기업을 가족기업의 형태로 규명하고 있으며, 문화적 측면에서 화교 네트워크의 가부장적 위계질서, 기회주의, 그리고 융통성 등을 분석하고 있다. Redding, S. Gordon, 『The Spirit of Chinese Capitalism』, Berlin and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0.

64) Redding, S. Gordon, 『The Spirit of Chinese Capitalism』, Berlin, De Gruyter, 1990.

대부분 연구자들이 공감하듯이 연(緣)을 고리로 엮어진 화교 조직이 세계적 수준의 네트워크로 발전하기까지 근본적으로 전통문화의 힘이 컸음을 부정할 수 없다. 전통적으로 법에 의한 관계(法治)보다는 덕(德)에 의한 인간 간의 상호 신뢰를 더 중히 여겨왔던 중국 사회는 도덕적 의무감을 보다 중히 여기고 또한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왔다.⁶⁵⁾

주지하다시피 화교들은 조직과 기업에 걸쳐 친족 관계와 신뢰 관계를 핵심 요소로 하는 지역적, 초지역적인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매개로 상품 거래와 자금 융자를 보다 장기적으로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교적 문화 요인들은 네트워크 내 각 주체들의 교류 확대, 거래 비용의 절감, 시장의 개척, 그리고 경제 효과의 극대화 등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미쳐온 것이다.⁶⁶⁾ 화교들의 연계망은 바로 화교권 전체의 자본 축적과 지속적인 번영을 가능케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의 연계 구조에서 부를 축적한 화상들은 과거 가족 기업을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현대적인 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가족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에서 화상 기업들의 연구 개발(R&D) 네트워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적인 네트워크와 새로운 네트워크를 결합시켜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진화시키고 있다. 특히 화상 네트워크는 홍콩, 대만, 중국, 구미 등의 국가와 연계되어 원료생산-제조-운송-용자-판매 등 경제 과정 전반에 걸쳐 사람과 기업이 하나로 연결된 관계로서, 이는 화상 간의 정밀한 정보 유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을 절감하는 역할도 한다.

결과적으로 화교 사회는 연고를 매개로 행위자들이 전통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신뢰 구축 기반을 형성하였으며,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용하여 경제적 효용성을 창출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유교적 요인만으로 화교 네트워크의 성공 요인을 논한다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 무리가 따르고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화교 네트워크가 효용성을 갖고 더욱 열린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연을 바탕으로 한 공동된 종족 정체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화교 네트워크의 역할은 비단 경제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민초기 이민자들의 유입과 정착을 돕는 데도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차이나타운’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디아스포라 공간은 그 자체가 하나의 네트워크이자 생활공간이다. 이처럼 이민 초기 각국에 형성된 화교들의 관계망은 화교라는 종족 집단의 이민을 선별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일종의 ‘이민 체제(Migration Systems)’⁶⁷⁾로 작동하게 된다.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보와 지원이 필요한데, 이는 현실적으로 가족의 접촉이나 이민자 집단의 네트워크에 의해 얻을 수 있게 된다. 사실 이민 초기부터 화교 사회 내에는 혈연, 지연, 업연이라는 친근 관계를 통해 다양한 조직들이 형성되어 있었다. 역사적으로는 제1차세계대전과 10월혁명으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부족한 국내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모집한 중국 노동자들이 전후 유럽 각지에 정주하였는데, 화교 사회가 발전하여 일정한 규모를 갖춘 ‘당인가(唐人街)’, ‘중국성(中國城)’과 동향·동족 결합으로 이루어진 화교 조직이 출현함에 따라 후발 이민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도 하였다.⁶⁸⁾ 미주, 유럽 등지에 형성된 차이나타운

65) Wu Wei-ping, 「Transaction Cost, Cultural Values and Chinese Business Networks an Integrated Approach」, 『Chinese Business Network』, edited by Chan Kwok Kwok Bun, Prentice Hall, 2000, p.47.

66) Wu Wei-ping, 「Transaction Cost, Cultural Values and Chinese Business Networks an Integrated Approach」, 『Chinese Business Network』, edited by Chan Kwok Kwok Bun, Prentice Hall, 2000, p.47.

67) 포세트는 거시적인 관점의 이민흐름을 관찰하면서, 이주자들로부터 잠재적인 이주자에 이르는 이민시스템 내의 연계망에 주목하고 이 같은 ‘이민체제’를 분석한다. James T. Fawcett, 「Networks, Linkages, and Migration System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XXII(3), 1989, Fall, pp.671-680.

68) 陳澤憲, 「十九世紀盛行的契約華工制」, 『華僑史研究論集』(1),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84, pp.84-87.

은 광범위한 물적, 인적 네트워크의 거점으로서 새로운 이민자 충원과 결속력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화인네트워크 내에서 구성원들은 일단 상대방의 신뢰를 얻어야만 진정한 구성원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 만약 신용을 잃으면 두 번 다시 그 영역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용을 잃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화교 공동체 내부의 신뢰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이처럼 화상 간 네트워크 구축은 단순히 연결망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네트워크 내부에서 경제 정보 획득, 신뢰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 선택 및 확인, 본격적 경제활동 전개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역동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물론 화상 내부의 관시(關係) 지향적 네트워크 구조가 현지국의 행동 양식이나 문화 규범과 조응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함을 부인하기 힘들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 공동체 외부의 공식적 조직과 규범에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현지국에서 경계심 내지는 우려의 목소리를 초래할 가능성은 언제나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중국의 화인·화교정책과 과제

(1) 화인·화교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

사실 화교나 화인에 대한 개념 구분은 중국 정부의 국적 정책이 변화한 데서 비롯되었다. 중국의 해외 교포들에 대한 민족정책은 ‘화교’와 이와는 다른 현지 국적을 취득한 ‘화인’들을 분리하여 시행하기 시작했고, 또 이와는 달리 중국으로 돌아와서 살고있는 ‘귀교’들에 대한 정책은 별도로 설정하는 등 유형별 해외 동포 정책을 체계화했다고 볼 수 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 중국 정부는 이중국적 정책을 포기하고⁶⁹⁾ 자유 선택의 원칙에서 해외 중국계 이민자들이 거주국 국적을 갖는 것을 적극 장려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1955년부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여러 국가들과 이중국적 문제에 관한 조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기도 한다. 그 뒤로 1980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공민의 이중국적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중화인민공화국국적법』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쳐 근대적 의미에서의 ‘화교’는 전통적인 정의대로 ‘해외에 임시 거주하는 중국인’이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공민, 즉 중국 국적을 소유한 사람들’만으로 제한되면서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3,700여 만 해외 화인(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들 중 모국 국적을 유지한 겨우 10%에 달하는 사람들만 근대적 의미에서의 화교로 불리게 된 것이다.

화교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은 시기별로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현지화’와 ‘중화 의식의 계승’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현지화’란 해외 거주국에서 장기적으로 뿌리를 내려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 빨리 그곳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곳의 문화를 익혀 현지의 떳떳한 국민으로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이후에는 중국인 고유의 중화 의식을 발양시켜 중국계 상호 간의 민족적 유대를 공고히 함으로써 그들의 개인적인 안녕은 물론 모구에도 함양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거주국과 모국간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유익한 역할을 할 수

69) 1955년 중국의 주은래 총리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반둥회의(萬隆會議)에서 중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며 동남아 지역의 화인들은 중국의 해외국민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한다. 張從興, “誰是華人” www.transm aix.com/huayuqiao/shcheong/shcheong02.htm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외 교포 정책을 지속시켜 온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지화’ 원칙은 단일 국적 정책 및 귀화 이전 거주국 내의 정치 활동 금지 정책⁷⁰⁾을 통해 구현하였다. 중국 정부는 195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해외 화교들의 이중국적 제도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화교들의 이중국적이 본인들의 장기적인 발전이나 또 거주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역사적인 과제라고 보고, 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해외 화교의 90% 이상이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현지화 — 즉, 화교로부터 화인으로의 변화 — 를 이뤄낼 수 있었다.

중국의 대 화교 정책의 또 하나의 원칙은 화교들의 ‘중화의식’의 지속과 이의 고양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중화의식을 통한 해외 중국계 인구의 대동단결이라고 볼 수 있다. 현지에서의 중국계 학교와 교포 언론매체의 발전에 크게 신경을 썼다. 중국 정부는 해외 교포들의 중화 의식 고양과 발전을 위해 해외의 민족 교육기관을 발전시켜 이를 통한 화문(華文) 교육의 내실화를 꾀했다. 중국은 해외의 중국계 학교를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현지 화교·화인 사회를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간주했다.

중국정부는 화인에 대한 몇 가지 우대정책을 실시해왔는데 무엇보다도 해외화교자본의 국내유입과 화교경제권 구사에 진력을 다하고 있다. 해외화교의 중국투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규정으로는 1990년 8월 국무원 제64호령으로 제정 발표한 ‘화교와 홍콩 마카오 중국동포 투자를 격려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 규정’이 있다. 화교의 중국 내 투자는 특별규정을 적용하는 것 이외에도 국가투자와 관련한 유관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하며 이에 상응하는 외국투자기업의 대우를 누릴 수 있다. 중국의 화인자본에 대한 대표적인 우대조항은 국유화 대상에서 제외, 기업경영 관리의 자주권 보장, 투자자산의 보호 및 합법적 이익의 양도와 거주국으로의 송금보장, 조세 및 금융 우대정책의 실시 등이다.

한편, 중국의 새로운 민족환경에 대응한 귀국 화교들에 대한 정책은 과거의 잘못된 귀교정책을 시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이들에 대한 수용과 보호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귀국 화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또 이들을 사회주의 건설 대열로 적극적으로 동참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은 IT, 엔지니어 등 고급 인력에 한정해 부분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2) 화인·화교공동체의 발전 전망과 과제

그러나 화교들을 중심으로 한 중국계가 글로벌 무대의 주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산적인 과제가 남아있다. 무엇보다 화교들의 인종 문제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생활환경 속에서 자라난 화교들이 예전과 같은 결속력을 지니지 못한다는 예측들이 등장하고 있다. 사실 화교 경제권은 여타의 경제권과는 달리 국가 간의 이해 조정이 아닌 기업 간의 이해 위주로서, 동남아 각국에서는 물론 양안의 첨예한 정치적 갈등 구조 속에서도 정치적 입장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다.

화교 내부의 시선으로 눈을 돌려 보자면, 화교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제약 요인들도 존재한다. 우선 화교 네트워크의 핵심인 지연과 혈연 요소는 화교를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폐쇄적인 사회로 남게 할 우려가 있다. 전통적인 화인 네트워크는 애초부터 규정된 집단 내부

70) 해외 교포들이 거주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체재하나, 귀화이전에는 ‘손님’ 신분이므로 이 상태에서 현지 정치 상황에 지나친 관심이나 직·간접적인 활동 참가를 바람직하게 보지 않았다.

에서만 형성된 자아 보호적 네트워크로서 같은 화인이라 하여도 혈통(姓氏) 혹은 지역적 차이에 따라 상호 배타적인 성향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전통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식민지 체제 내에서도 제2차세계대전 이후의 거주국 민족 차별 정책으로 피해 의식이 큰 화인 세계는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 자체도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폐쇄적 관습은 선진 경제 원리에 친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교들은 서방 기업과의 거래보다는 유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국가나 기업과의 관계에 더 익숙하여 중화권 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대중화 경제권’에 대한 편중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화교 네트워크가 근대적인 사회에서 오히려 비근대적으로서 비추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타민족 집단의 즉자적이고 대응적인 블럭화를 재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문제나 홍콩 문제 등 정치적 이슈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올 경우 화교 경제권의 구심력은 어떠한 도전에 직면할지 예측하기 힘들다. 이념 균열로 인해 중국의 정치적 상황은 여전히 불안한 현실이며,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급속한 중국의 부상은 주변국들이 ‘중국위협론’을 제기하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다. 모국인 중국과 현지 국가와의 관계로 인한 이러한 여러 제약들이 화교 경제권의 현지화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화교권 내부에서 이러한 비경제적 영향력이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좀 더 비정치적이고 시장 의존적인 방향으로 네트워크의 구동축을 가져갈 경우, 이러한 제약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화교 네트워크의 외연적 팽창에 따른 내부 결속 기제의 약화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초국적 행위자로서 화교가 지닌 이중적인 정체성은 화교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 즉 수평적이고 다원적인 구조와 맞물리면서 갈수록 화교 네트워크의 구심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별, 지역별, 세계적 수준의 화교 네트워크는 급속한 변형과 팽창이 수반하는 새로운 내부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4. 맺으며

화교·화인의 사례에서 보듯이,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시대, 전 세계적으로 민족공동체의 양상은 크게 변모하고 있으며 상상의 공동체에서 초국적 글로벌네트워크 공동체인 가상의 공동체로, 그리고 현실 공동체로서 점차 발전하고 있다. 민족의 기억과 인쇄매체(활자)에 의존하는 상상의 공동체는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에 의한 가상의 공동체인 초국적 글로벌 민족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양자간의 괴리는 상당히 크다.

화교·화인 디아스포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민족집단은 상상의 공동체와 가상의 공동체를 벗어나 현실의 공동체에서 재민족화와 탈민족화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크게는 세계화상총회 등 글로벌 경제네트워크에서부터 작게는 각종 민족집단의 협회나 단체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빠른 속도로 새롭게 생성되거나 혹은 소멸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볼 때, 화교·화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준에서 민족집단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대표되는 ‘재민족화’의 흐름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화교·화인들이 초국가적 영역에 구축하는 ‘중족공동체 네트워크’는 분산된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불러일으키고 개인과 민족

의 발전을 일치시키려는 경향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족집단들의 구성원들이 다분히 대립과 분쟁의 소지가 있는 개인의 정치신조, 종교적 색채를 일체 배제하고 경제활동의 연대를 강화하는 상생전략 차원에서 국민국가의 틀을 초월하여 전세계로 확대되는 탈민족화된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국가적 이동과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정보매체를 통한 소통이 가속화되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화교를 비롯한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과거와 같이 다분히 감정적인 상상의 공동체 수준에서 벗어나 수시로 동질의 민족임을 상호 확인하고 증명하는 가상의 민족공동체로 발전해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가상의 민족공동체 발전에는 현실의 공동체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또한 가상의 공동체 발전은 현실의 공동체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 하겠다.

이상의 화교·화인디아스포라 사례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일국의 재외동포 정책이 비록 '민족의 자산화'라는 이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재민족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초국가적 경계에 걸쳐 사는 디아스포라는 현실적으로는 민족과 국가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상당히 우선시되는 탈민족화 된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민족공동체는 내셔널리즘(nationalism)에 호소하는 상상의 공동체⁷¹⁾, 민족간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가상의 공동체, 글로벌 시대 원자화된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현실의 공동체가 혼합되어 있는 구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보다 적합한 재외동포정책 내지는 다문화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각 국의 동포정책이 지지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국의 디아스포라에 대한 존재론적인 성찰이 급선무로 보인다. 즉, 이들은 모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재민족화에 곧바로 화답할 동기가 없을 수 있으며, 초국가적 경계에 걸친 다중성이고 혼종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정체성은 국제이주 이론의 모형의 구조와 행위자적 요인은 물론 관계론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됨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과 관계의 접점을 형성하고 모국과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일련의 노력은 이러한 복합적 요인들을 고려함으로써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의 디아스포라라 할 수 있는 화교·화인의 문제는 우리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국제이주의 송출국에서 본격적인 유입국으로 전환한 지 30년이 되어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국내 거주하는 약 2만 5천 여명의 화교·화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들을 민족화의 스펙트럼 속에서 가두지 말고, 초국가주의의 보편적 흐름 속에서 등장하는 '우리 안의 디아스포라'로 객관화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균형잡힌 정책적 접근이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즉, 글로벌 시대 화교·화인들을 더 이상 근대 국민국가의 틀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로서 이들이 갖는 중층적 정체성의 요소를 살펴 이들이 주변화된 타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보다 포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⁷²⁾ 여전히 한국사회 내에 통합되지 못하고 주변화된 채 '우리 안의 타자'로 살고 있는 한국 내 화교들의 '인정(recognition)'에 대한 요구와 다문화사회로의 조화로운 '통합'을 의도하는 한국 정부의 요구가 적절히 타협할 수 있는 의제들은 이러한 노력 속에서 확장되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71)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Verso, 1991.

72) 전형권·김혜련, 「다문화 시대 한국화교의 사회통합과 인정의 정치」,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2집 1호, 21세기정치학회, 2012. p.353.

【참고문헌】

- 박경환, 「초국가주의 뿌리 내리기: 초국가주의 논의의 세가지 위협」,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권 1호, 2007.
- 박홍재, 「‘디아마이그레이션’: 디지털 시대 국경을 초월한 이민과 디아스포라의 융합적 출현」, 『The 3rd World Humanities Forum 2014자료집』, 2014.
- 설동훈,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손준식, 「華僑經濟圈과 中國의 華僑政策」, 『한민족 공동경제권 형성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해외민족 연구소, 1998.
- 吳元華, 『務實的決策 - 人民行動黨與政府的華文政策研究 1954·1965』, 新加坡: 聯邦出版社, 1999.
- 왕샤오핑·박정동, 『화인형 기업경영』, 삼성경제연구소, 2004.
- 윤인진, 『코리아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 이덕훈, 『화교경제의 생성과 발전』, 한남대학교 출판부, 2002.
- 이덕훈, 「복합인종사회 말레이시아의 인종조화와 부미푸트라정책」, 『동남아연구』, 제5권, 한남대학교 동남아시아연구소, 1996.02,
- 이철우, 「초국가시대의 국적과 시민권」 『제35차 한국 문화인류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003.
- 人民網: www.people.com.cn.
- 林振淦·張洪川, 「世界華商知多少: 關於海外華人華商的話題」, 『中國工商時報』, 2001.
- 임채완, 「세계화상네트워크의 성격과 발전현황」, 『한국세계지역학회보』, 한국세계지역학회, 2005.
- 임채완·전형권, 『재외한인과 글로벌네트워크』, 한울아카데미, 2006.
- 張從興, 「誰是華人」. www.transmaix.com/huayujiao/shcheong/shcheong02.htm
- 전형권, 「초국가주의 관점에서 본 화교 디아스포라와 네트워크」, 『大韓政治學會報』, 제13집 2호, 大韓政治學會, 2005.
- 전형권, 「국제이주에 대한 이론적 재검토: 디아스포라 현상의 통합모형 접근」, 『한국동북아논총』, 제13권 4호, 한국동북아학회, 2008.
- 전형권·김혜련, 「다문화 시대 한국화교의 사회통합과 인정의 정치」,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2집 1호, 21세기 정치학회, 2012.
- 주종택, 「자본, 노동, 상품의 이동: 초국가시대의 경제와 문화」, 『제35차 한국 문화인류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003.
- 景海峰: 『儒學在全球多元文化格局中的定位問題』. <http://www.confucius2000.com/poetry/dydw.htm>.
- 臺灣僑務委員會. <http://www.ocac.gov.tw/public>
- 臺灣僑務委員會, 『華僑經濟年監(東南亞篇)』, 臺灣僑務委員會, 2004.
- 陶潔, 「中國海外移民史略」, 『華人經濟年鑑』, 1994.
- 鄧仕超, 「海外華人網絡的發展與海外華人社會」, <http://www.peopledail.com.cn>.
- 鄭伯堃, 「差序格局與華人組織行爲」, 『本土心理學研究』, 第2輯, 1995.
- 第六屆華商大會網. http://www.js.cei.gov.cn/huashang/hsdh_h10.htm.
- 中華人民共和國歸僑僑權益保護法, 第2條. <http://www.people.com.cn>.
- 陳烈普, 『華僑學與華人學總論』, 台北: 台灣商務印書館, 1987.
- 陳澤憲, 「十九世紀盛行的契約華工制」, 『華僑史研究論集』1,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84.
- 崔貴強, 『新馬華人國家認同的轉向, 1945-1959』, 新加坡: 南洋學會, 1990, 引述李秋1941年4月在『南洋商報』發表的論文『論馬華民族屬性問題』。
- Adam. Mckeown, 「Conceptualizing Chinese Diasporas, 1842 to 1979」,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8 (2) 1999.
-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Verso, 1991.

- Chun, Allen J. 「Pariah Capitalism and the Overseas Chinese of Southeast Asia: Problems in the Definition of the Problem」,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12, 1989.
- Gabriel Sheffer, 『Diaspora Politics: At home abroa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http://www.js.cei.gov.cn/huashang/hsdh_h14.htm
- James T. Fawcett, 「Networks, Linkages, and Migration System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XXII (3), 1989, Fall.
- Kritz, Mary M., and Hania Zlotnik, 「Global Interactions: Migration Systems, Process, and Policies」, 『International Migration Systems: A Global Approach』, edited by Mary M. Kritz, Lin Lean Lim and Hania Zlotnik, Oxford: Clarendon Press, 1992.
- Laurence J. C., 『Space, Place, and Transnationalism, The Chinese Diaspora: Space, Place, Mobility, and Identity』,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 2003.
- Massey, Douglas S., Joaquin Arango, Graeme Hugo, Ali Kouaouci, Adela Pellegrino, and J. Edward Jaylor,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and 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3), 1993.
- Redding, S. Gordon, 『The Spirit of Chinese Capitalism』, Berlin and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0.
- Robin Cohen, 『Global Diasporas: An introduction』, London:UCL Press, 1997.
- Stark, Oded, 『The Migration of Labor』, Cambridge,MA: Basil Blackwell,1991.
- Steven Vertovec, 「Conceiving and researching transnationalism」,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2, No. 2. 1999.
- William Safran, 「Diasporas in modern societies: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Diaspora』, vol.1, no. 1, 1991.
- Wu Wei-ping, 「Transaction Cost, Cultural Values and Chinese Business Networks an Integrated Approach」, 『Chinese Business Network』, edited by Chan Kwok Kwok Bun, Prentice Hall, 2000.
- Zlotnik, Hania, 「International Migration 1965-96: An Overview」,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4 (3), 1998.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nternational Labour Migration Data Base (ILM) <http://www.abetech.org/ilm/english/ilmstat/table03.asp>

【특별분과】 발표 ④

중·한 이중언어화자의 언어혼용 실태연구
 — 동일 주제의 담화분석을 중심으로

이은주* · 김창경**

【목 차】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2. 중·한 이중언어화자의 언어혼용 1) 중·한 이중언어화자의 정의와 특성 2) 중·한 이중언어화자의 언어혼용 3. 연구 설계 1) 대화 주제의 선정과 기준	2) 사전 인터뷰 3) 중·한 이중언어화자의 언어혼용 실태 4. 연구결과 1) 대화 구문의 추출 2) 담화 속의 언어혼용 3) 비언어적 특징 5. 결론
--	--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한 이중언어화자(Cinese-Korean Bilinguals) 일상생활에서의 대화에는 두 가지 언어가 명실상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한 이중언어화자가 실생활에 어떠한 형태로 언어를 사용하는지 그 실태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동시에, 그들의 특징을 분석하여 늘어나고 있는 중·한 이중언어화자 중국어 학습자, 즉 고급 중국어 학습자의 특징을 찾고자 한다. 기존 이중언어교육과 중국어교육에서는 이중언어화자를 두고 진행한 심층적인 학습자 분석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본고는 중국어-한국어의 문장가운데에서 언어혼용의 가능성을 두고 실제적인 상황을 연출하여 이들의 대화를 분석함으로써 이중언어화자의 대화 가운데, 언어사용의 예를 확인하여 이중언어화자를 잠재적인 고급중국어 학습자로 설정하고 그들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중언어화자가 대화상대방의 언어능력을 사전에 인지하였을 때 어떠한 양상으로 각 대화에서 언어혼용의 형태가 달라지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즉, 언어혼용의 가능성을 두고 대화에서 각 언어의 사용량이 어떠한 차이가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는지를 알아보고, 또한, 상대방의 언어능력을 사전에 인지함이 각 언어의 사용량에 어떠한 영향

* 제1저자. 부경대학교 박사과정 (eunju303424@naver.com)

** 교신저자. 부경대학교 교수 (cgkim@pknu.ac.kr)

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중·한 이중언어화자의 경우 그들 자신의 배경과 대화 환경에 따라 그들의 언어 현상에 큰 영향을 받는다. 동시에 이중언어화자가 어떠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화 상대자를 만나는지에 따라 그들의 언어 현상에는 영향을 받는다. 단일언어화자와 다르게 이중언어화자가 고유하게 가지는 언어적, 문화적 혼돈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이후 학습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의 해결 방법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중언어화자의 대화구문 강누데 드러나는 언어 현상을 파악한다면, 그들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언어 학습 방법을 모색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질적연구로써, 중·한 이중언어화자의 언어 현상 중 언어혼용을 파악하기 위해 담화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언어학에서 담화분석은 언어적 소통을 위한 담화사용의 양상을 규명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본 연구에서는 중·한 이중언어화자와 중국어, 한국어 언어능력이 각기 다른 5명을 연구참여자로 삼아, 실제적 대화를 설계하고 그들의 담화를 수집하여 대화문을 추출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자료 조사 방법은 면담, 음성 녹음, 화상 녹음 등이 사용되었다. 자료 수집 방법은 기존의 선행연구를 고찰한 것을 바탕으로 중·한 이중언어화자와 그의 대화상대인 연구참여자 5명을 먼저 면담하고 그들의 언어 현상을 확인하고자 대화를 설계하여 음성녹음과 화상녹음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이중언어화자가 각기 다른 대화상대의 언어능력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면담 시 대화상대의 기본적인 언어능력과 정보를 준 후 '중국 문화'를 주제로 대화할 수 있게 하여 추출된 담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담화분석을 하였다. 각 대화에서 추출된 문장의 수, 이중언어화자의 발화 수, 담화 속의 단어 혼용, 담화기제의 혼용 등의 언어혼용, 담화 가운데 이루어진 비언어적 표현에 집중하여 이중언어화자의 대화의 형태와 언어현상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중·한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이중언어화자의 언어혼용에 대한 특성을 탐구하였다. 둘째, 중·한 이중언어화자의 언어혼용의 실태를 확인하고자 연구를 설계하고 진행하였다. 셋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한 이중언어화자의 언어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중언어학습자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 방법으로서의 가치를 논의하였다.

2. 중·한 이중언어화자의 언어혼용

1) 중·한 이중언어화자의 정의와 특성

Cummins에 의하면 이중언어 능력이란 4-5가지 기본적 언어능력¹⁾을 두 가지 언어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이러한 능력을 겸비한 사람을 일컬어 이중언어 화자(Bilingual)²⁾라고 말한다.

1) Cummins가 1996년에 제시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관련된 언어능력, 조합에 따라 수용능력, 산출능력, 회화능력, 문식능력 그리고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언어능력인 인지적 언어능력을 포함한다.

2) bilingual의 번역한 것으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이중언어자', '이중언어 사용자'등 다른 용어들도 있으나 본 고에서는 '이중언어화자'로 사용한다.

Grosjean.F(2010)에 의하면 이중언어화자들은 살면서 매일 두 개나 그 이상의 언어(혹은 방언)을 쓰는 사람들이라고도 말한다.³⁾ 이중언어 화자를 정의하는 것에 있어 최대의 관점에서는 한 사람이 두 개의 언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하며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언어의 경우를 말하기도 하고(Bloomfield, 1933)⁴⁾, 최소의 관점에서는 모어 외 제 2언어⁵⁾의 최소 언어능력만 갖추고 있어도 이중언어 화자로 분류하여, 한 사람이 두 가지의 언어를 사용 할 경우에는 이중 언어라고 하고, 세 가지 이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중 언어라고 지칭한다.

본 고에서는 두 개의 언어와 문화에 노출이 되어 두 가지 언어권에서 무리 없이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언어·문화적 의사소통 능력과 문해력, 사고력 등을 갖춘 것을 이중언어능력, 또한 이 능력을 사용하여 언어를 구사하는 화자를 이중언어화자로 정의한다. Landry와 Allard(1992)는 두 개의 언어는 충분히 입력(input)할 기회 없이는 습득할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동시에 충분한 출력(Output)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García와 Tores-Guevara(2010:18-189), García와 Li(2014:49)는 교육 환경에 따라 이중언어화자의 언어 사용 특성을 감산적 이중 언어 사용(subtractive bilingualism)과 가산적 이중 언어 사용(additive bilingualism)으로 구별하고 있다. 전자는 학교에서 모국어(home language, minority language)를 쓸 수 없고, 공식 언어만 (official language, majority language)을 사용하는 것이고, 후자는 두 언어 모두 사용되는 것이다. 에 따라, 전자는 'L1(first language)→L2(second language)-L1→L2', 후자는 'L1+L2=L1+L2'로 묘사된다. 여기에서 가산적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화자는 종종 코드 스위칭(code-switching)⁶⁾의 형태의 문장을 구사한다. 한편 Landry와 Allard의 가산적·감산적 이중 언어의 결정 요인에 관한 거시적 모델에서는 언어 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사회적 차원, 사회 심리적 차원, 심리적 차원의 세 가지로 나누고 이들이 작용하여 이중 언어 형태를 만든다고 한다.

한편 Cummins(2007)의 '2언어 발달상의 상호 의존 원칙'에 의하면 두 개의 언어의 힘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이(transfer)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전이가 확인된 영역으로는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 영역을 든다.

1. 개념적 지식의 전이
2. 메타 인지·메타 언어 전략의 전이
3. 의사소통 양태의 전이
4. 특정 언어적 요소의 전이
5. 음운 의식의 전이

L1에서 L2로 전이가 되는 것인지, L2에서 L1으로 전이가 되는 것인지, 동시 양방향의 전이가 되는 것인지에 관한 상관관계를 연구한 실증적인 연구의 수는 방대하나, 그 방향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상호 의존적인 두 언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의 발달양상에서 분명한 전이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전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언어혼용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3) Grosjean.F, "Bilingual:Life and Reality,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4) 블룸필드, 김정우 역, 『언어1』, 나남, 1993, p.23

5) 이중 언어는 제2언어는 태어날 때부터 사용한 모국어(제1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언어(외국어)를 배우게 될 때 그 언어를 제2언어라고 한다.

6) 부호전환 이라고도 하며, 대화에서 하나 이상의 언어를 사용할 때 그것을 교체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중·한 이중언어화자의 언어혼용

언어혼용은 두 종류의 언어를 문맥 속에서 함께 사용하는 형태를 가지는 것이다. 즉, 중국어와 한국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하는 이중언어화자의 특징은 중국어와 한국어의 코드 스위칭이 끊임없이 반복되며 일상생활의 문장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그 예다. 이중언어 사용자의 언어혼용 방식은 심리언어학 (psycholinguistics) 또는 사회 언어학 (sociolinguistics)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이 분분하다. 예를 들어, 심리언어학과 관련하여 이중언어 사용자들은 사회적으로 불이익 위치에 있는 그들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심리적 불안감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되며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고 싶은 자아와 사회에 동화되고 싶은 자아의 이중적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가산적 언어사용 방식을 취하는 모습을 가지려고 하지만 아직 서투른 능력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코드 스위칭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자신의 언어에 대한 자부심 등으로 인하여 가급적 한 언어만을 사용하고자하는 감산적 언어 사용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중언어 사용자의 언어사용 방식을 통해 이중언어화자의 정체성과의 관련성을 연관시키고자 하는 이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William Mackey(1962)는 이중언어 사용을 언어의 현상이 아닌, 언어 사용의 특성이라고 밝히면서 이중언어 사용자의 정체성과 언어사용 방식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곤 한 다는 것이다. 언어는 그 언어가 갖는 독특한 상징적 가치를 갖고 있고, 이중언어화자 혹은 다중 언어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언어의 선택은 단지 하나의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닌 정체성이 드러내는 일이며, 자신의 가치관 삶에 대한 태도 등도 함께 보여주는 활동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언어는 한 인종의 경계가 되고, 역사와 정치적 상황속에서 나와 타인을 구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렇듯, 이중 언어의 사용자의 언어 사용 방식, 즉 감산적 사용 방식과 가산적 사용 방식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정체성 및 삶에 대한 태도를 들여다볼 수 있으며, 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유창성과 독특성은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특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이중언어 사용자의 언어적 특성은 언어발달의 중요 요인인 교육 환경과는 별도로 언어 학습에 대한 태도 및 학습의 방식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언어화자들에게는 언어혼용 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정체성을 띄기 때문에 문화변용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문화변용(accultruation)은 일반적으로 “특정 문화에 속한 사람이 다른 문화를 접할 때 겪게 되는 문화적 변화와 적응의 과정”(Gibson, 2001:19)이라 정의된다. 호미 바바(2002)는 문화적 정체성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구성의 산물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개별 문화는 무엇보다 민족과 국가라는 개념에 기대어 안정성과 확정성, 완결성의 욕망을 드러내지만, 사실 그 자체 내에 언제나 “자신과 불화하는 한계(self-alienating limit)”(Bhabha · Rutherford,1990: 210)를 지니고 있다. 문화란 언제나 모순적이고 적대적인 요소들, 한 마디로 타자적 요소들을 내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이 특정 문화와 그 정체성을 부단한 움직임과 변화 속에 있게 하며, 더 나아가 이질적인 문화와의 교섭과 혼종을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문화의 변용은 특징은 언어 사용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한 특징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 내에서도 관찰될 수 있겠지만, 다른 언어를 사용

하는 집단의 만남에서 훨씬 더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각기 다른 문화 집단의 교섭은 한 쪽이 다른 쪽의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며 다른 쪽을 이해시키려 하는 양태로 종종 일어난다. 때문에 두가지 언어와 문화를 내재하고 있는 중·한 이중언어화자의 문화적 변용과 언어혼용은 그들만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3. 연구의 설계

1) 대화의 선정과 기준

본 연구는 자연스러운 대화의 설계를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추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발화자인 중·한 이중언어화자가 중국어, 한국어 언어능력이 다른 5명과 각각 실제적 대화를 진행하도록 설계하기 위해 가장 먼저 대화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1. 한-중 문화를 담고 대화할 수 있는 주제여야 한다.
2.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도록 연결된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주제여야 한다.
3. 연구 참여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없는 주제여야 한다.
4.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인 언어 배경이 드러날 수 있는 주제여야 한다.
5. 일상의 자유대화와 연관 될 수 있는 주제여야 한다.
6. 5명과의 대화에서 동일한 주제로 대화할 수 있는 주제여야 한다.
7. 개인적 가치관, 세계관에 민감하지 않은 주제여야 한다.

위의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한중문화의 차이'를 대화 주제로 삼았다. 조사는 연구대상자에게 본 실험의 목적 '중국문화에 관한 이해와 설명'에 관한 조사이므로, 사전에 해당 주제에 대해 고찰하도록 한 후 일정한 시간 내의 대화를 진행하게 하였다. 또한 실험을 진행하기 전, 실험 중 녹화, 녹취된 자료는 연구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데이터 또한 수량적으로 처리하여 개인의 이름과 얼굴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알렸다.

각 대화에서 카메라와 녹음기를 사용하여 대화를 추출하기 위한 음성녹음과, 비언어적 표현을 살펴보기 위한 화상녹화를 진행하였다. 발화자인 중·한 이중언어화자는 연구자와 일정 기간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라포르(rapport)를 형성하였으며 연구참여자는 주체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대화 문장 산출의 기준으로는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대화 능력과 담화 내의 언어혼용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 내용의 정확성, 유창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확성은 언어를 수행할 때 최대한 높은 수준의 통제력을 반영해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정확성은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도전적인 구조를 막아 오류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Ellis, 2009). 따라서 학습자가 생산한 언어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발화하거나 작성한 글에서 오류 없이 얼마나 정확한 산출이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정확성 평가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분석되는 기준은 무오류절이다. 정확성을 평가한 연구들은 문어뿐 아니라 구어에서도 무오류

절 수를 비교함으로써 과제가 언어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Rutherford, 2001; Yuan & Ellis, 2003; Oh & Lee, 2012). 본 연구에서는 각 언어로 이루어진 무오류절의 수를 산출하여, 단어가 혼용된 문장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유창성은 학습자가 일정 시간 안에 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때 언어 사용자는 자신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최대한 접사나 구 등으로 어휘화된 체계를 끌어들이야 한다(Ellis, 2009). 구어 유창성 분석을 위해 총 음절 당 유의미한 음절수로 측정하거나(Yuan & Ellis, 2003), 분 당 음절수(Sangarum, 2005; De Jong & Perfetti, 2011), c-unit 당 단어 수(Robinson, 2003), t-unit 당 단어 수(Larsen-Freeman, 2006), 분 당 단어 수(Oh & Lee, 2012)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분당 유의미한 음절수를 기준하여 대화구문을 산출하였으며, 중국어 문장과 한국어 문장, 그리고 중·한 이중언어 혼용문장의 음절 수를 파악하여 유창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2) 사전 인터뷰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한 이중언어화자 강이(가명)는 한국국적으로 선교사인 부모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출생하였다. 중국에서 유년시절을 보냈으며, 현재 부산의 B대학 중국어학과에 재학 중이다. 가정 내에서 아버지와는 대부분의 대화를 한국어로 진행하며, 매주 일요일 교회 내에서 아버지의 설교를 동시통역하기 위해 관련된 이야기를 중국어로 대화한다. 어머니와는 종종 중국어로 대화하며 주변의 중국인 친구들과도 다 같이 만나서 중국어를 사용한다. 오빠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길게 대화를 하지는 못하지만 간단한 단어를 중국어로 전달하며 긴 문장은 한국어로 대화 한다. 언니는 본인과 비슷한 실력의 중국어와 한국어를 구사하는데, 현재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대부분 영상통화나 음성통화 혹은 메신저인 wechat과 카카오톡에서 중·한 이중언어를 사용하며, 종종 언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형태가 나온다고 하였다. 강이 가족의 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언어혼용의 형태가 종종 나타난다.

강이모 : 돼지야, 너희 언니한테 视频来了。

강이 : (전화기를 뺏으며) 언니, 방금 엄마가 이렇게 사람 많은데 开免提了。把你 다 보여주려고 했어.

강이모 : 她来我电。이리 줘. 나 跟她有话说。

강이(통화) : 그랬어? 괜찮아. 家里有谁啊?

강이 : 今天周日嘛。就是有很多人。아, 그리고 내 손님 왔어..... (중국어로 상황 설명)

위의 대화는 연구자가 강이 집에 방문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대화의 일부를 녹음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후 강이와 강이의 언니 사이에서의 대화 역시 중국어와 한국어가 혼용되었으며, 이러한 형태의 언어 현상은 강이의 집에서 종종 일어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의 한·중 언어사용 의식과 동기를 분석하기 위해서 평소 언어생활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한국어로 진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응답은 한국어로 전반적인 진행은 되었지만, 종종 중국어 단어를 사용하여 응답하였다. 사전 인터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언어적 관계망 : 당신이 현재 자주 만나 대화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최근은 코로나19 때문에 이전에 비해 만나 대화하는 사람이 매우 적어졌다고 응답하였다. 이로 인해 주로 대화한 사람은 가족구성원이었다. 동거하고 있는 엄마, 아빠, 오빠와 주로 대화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중 오빠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라고 하였다. 가장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매주 일요일 교회에서 중국어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한다고 하였으며, 주중에는 학교 친구들과 동아리 친구들과 종종 만나며, 대화한다고 하였다.

(2) 중국어 대화 상대방 : 당신이 중국어로 대화하는 사람은 주로 누구이며, 얼마나 자주하십니까?

만나서 대화하는 것으로 한다면, 주말에 교회에서 대화 말고는 평소에는 중국어로만 대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교회 교우들과 wechat과 전화를 통해 중국어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상대방에 따라 상황마다 다르지만 문자 텍스트로도 중국어를 사용하며, wechat의 음성전달기능을 이용하여 음성발화를 한다고 하였다.

(3) 한국어 대화 상대방: 당신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사람은 주로 누구이며, 얼마나 자주하십니까?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인 생활을 위해 한국어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은행업무, 마트에서 장보기 등의 생활 중의 일련의 행동에서 한국어로 대화를 진행하며, 부모님과 대부분의 언어는 한국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4) 한·중 이중언어 대화 상대방: 당신이 한국어와 중국어로 섞어서 대화하는 사람은 주로 누구이며, 얼마나 자주하십니까?

부모님이랑 아주 적은 빈도로 다른 한국인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사사로운 이야기를 할 때 중국어를 사용하거나, 손님 앞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중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언니와는 중국어와 한국어를 혼용해서 종종 사용하는데,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대면하여 대화를 진행하기 보다는 일주일에 3-4일 통화하면서 사용한다고 하였다.

(5) 언어를 사용할 때 한국어와 중국어 중 어떤 언어가 편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언어를 사용할 때 두 언어를 다 사용하게 되는 이유가 편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며 어느 쪽이 더 편하다고 느낀 적이 없다고 하였다. 대화의 대상에 따라 언어를 사용하는 형태가 다른데, 한국어 사용할 수 있는 중국인을 만나게 될 때, 한국어로 시작하는 것이 편할 때도 있고, 대화를 진행하다가 못 알아들을 땐 자연스럽게 중국어로 바뀌어서 사용하는 등 상대를 고려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일상대화에서는 한국어만 할 수 있는 한국인을 많이 마주하기 때문에 한국어가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질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전 인터뷰를 종합하여 봤을 때, 연구 참여자는 중국어사용, 한국어 사용, 이중언어 사용의 구분이 전체적인 대화에서 사용하는 주요언어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평소 생활 가운데의 이중언어 혼용에 대한 인식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주로 가정 내에서의 대화에서와 교회공동체에서의 대화에서 중국어사용이 이루어지며, 일상 생활 속에서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는 한국어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하지만 상대에 따라 언어를 자유롭게 전환하여 사용하며, 이는 연구참여자가 인식하는 것처럼 문장의 전환 뿐만이 아닌 단어의 전환 혹은 음절의 전환 등의 현상이 이루어짐을 발견하였다.

3) 중·한 이중언어화자의 언어혼용 실태

중·한 이중언어화자의 언어혼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이중언어화자가 각기 다른 대화상대의 언어능력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먼저 대화상대의 기본적인 언어능력과 정보를 주었다. 이후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한중문화의 차이'를 주제로 대화할 수 있게 하였다. 모든 대화 가운데 연구자가 준비한 사전질문과 자료를 볼 수 있는 일정한 시간을 준 후 10분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게 하였으며, 충분한 대화구문을 추출하기 위해 대화시간의 한계를 두지 않았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문지는 제공되었으나, 자연스러운 담화를 설계하기 위해 질문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5번의 대화가 똑같은 형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였다. 대화를 위한 질문지는 다음과 같다.

1. 내가 생각하는 중국이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요?
2. 최근에 새롭게 가지게 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있나요?
3. 내가 소개 할 수 있는 중국문화가 있나요?
4. 최근 이슈가 되는 중국문화에 대한 개인적 감상을 말해주세요.
5. 중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와 그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말해주세요.
6. 대화를 통해 더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을 말해주세요.

개인의 주제에 대한 관심도와 사전배경지식에 따라 대화가 다르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대화는 긴장감을 풀 수 있고 편안한 상태에서 대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용한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위와 같은 질문지를 통해 언어혼용, 어휘변용, 문화변용의 사실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긴 문장구문을 추출하였으며, 자연스러운 대화 가운데에서의 어휘와 어절에 주의하였다.

실제로 이루어진 대화는 평균적으로 1회 당 약 30분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는 녹취본을 반복하여 들으며 어휘와 어절에 주의하여 기록하였다.

4. 연구결과

각 대화 상대의 발화의 양과 대화구문의 길이는 달랐지만, 문장구문수와 음절의 총 계수는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담화 당 대화구문의 수는 약 1500개로 나타났다. 1500개의 문장 중 강이의 발화비율은 60.4%로 한 담화 당 800-900문장을 발화하였다. 이는 강이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강이가 발화한 문장 중 가장 긴 어절을 가진 문장은 21어절, 짧은 어절을 지닌 문장은 1어절 이었다. 평균발화길이(MLU)는 어절단위의 평균발화길이는 각 발화 형태수의 합을 총 발화수로 나누면 구할 수 있는데, 강이의 경우 15.6으로 평균적인 성인 여성의 길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화용론적으로 보아췁르대, 주관적인 진술의 내용과, 대화 내용에 대한 수신표현, 대답, 반복, 등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진술이 존재하였음을 미루어 보아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강이가 대화한 상대는 다음과 같다.

- (1) 한국어문화권에서 자란 한국어만 할 수 있는 한국인과의 대화
- (2) 중국어문화권에서 자란 중국어만 할 수 있는 중국인과의 대화
- (3) 한중문화권에서 자란 이중언어화자와의 대화
- (4) 한국에서 일정기간 중국어를 학습한 한국인과의 대화
- (5) 한국에서 일정기간 중국어를 학습한 중국인과의 대화

각 담화를 전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담화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언어적인 발화 특징으로는 어휘, 어미, 문법, 관용표현, 기타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비언어적 표현으로는 제스처, 상호작용, 표정, 태도, 기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의 기준이 되는 발화의 특징과 예시는 다음과 같다.

		발화특징	예시
언어	어휘	중국어어휘와 한국어어휘	-그것 -那
	어미	조사, 담화기제	-랑, -了 -啊
	문법	수동표현, 능동표현	-잡아있었다 (잡혀있었다) -把 -被
	관용표현	상위개념단어사용	토끼 (동물) 兔子 (动物)
	발음	어음의 전이	된소리 발음을 흐림 ㄹ발음에 권설음사용
비언어	제스처	발화내용을 강조	손동작
	상호작용	다시금 확인	고개 움직임
	표정	밝은 표정	웃음, 눈을 크게 뜸
	태도	적극적 태도	몸을 앞으로 기울임
	기타	모르는 단어나 실수에는 웃음	말끝을 흐림

1) 대화구문의 추출

2) 담화속의 언어혼용

3) 비언어적 특징

5. 결론

이중언어화자의 언어혼용은 특정 개념을 설명한다든가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 준다든가, 혹은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루어진다. 즉 의사소통의 필요에 따라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정해진 언어를 의식적으로 선택해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이중언어화자가 대화

의 상대의 언어적 능력을 인식하여 대화 할 때에도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언어의 전이와 혼용은 언어 간의 장벽이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언어화자 내면에는 이들 간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알아볼 수 있었다. 중·한 이중언어화자의 경우 중국어와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대화상대를 만나면, 상대의 언어적 수준에 따라 의사소통의 필요에 따라 중국어와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혼용하여 사용하며, 이는 상대의 언어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더 자주 발견된다. 즉, 개인의 언어에 중국어와 한국어가 함께 들어 있어서 두 언어의 요소를 ‘경계 없이’ 선택해 재조합해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한 이중언어화자는 한 언어를 사용할 때보다 더 풍부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Coyle, Hod, Marsh, (2010)에 따르면 CLIL를 학습에 적용하는데 있어 언어와 언어 사이의 코드 스위칭이 하나의 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두 개의 언어 중 하나의 언어는 수업의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거나 개요작성을 할 때 사용하고, 다른 언어는 수업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두 개의 다른 언어는 구체적인 학습활동에 모두 쓰인다. 중·한 이중언어화자의 언어학습에서는 이러한 코드 스위칭과 같은 언어혼용이 학습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다. 어떤 학습자는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두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여 숙제를 제출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습자는 어떤 특정의 언어, 혹은 자신이 이해하기 편한 언어로 교사에게 설명을 부탁하기도 한다. 이때 언어혼용은 중요한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 중요한 매개도구가 된다.

이중언어화자들은 한 종류의 언어만 사용하지 않는다. 대화를 하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나에 따라 그들의 언어 선택은 달라 질수 있음을 인지 할 수 있다. 즉, 이중언어화자들은 다양한 요소에 따른 언어 선택을 하는데, 대화 상대방의 타입(가족, 학급 친구, 동료, 상관, 친구, 가게 주인, 공무원, 승무원, 이웃), 대화의 주제(가정에서의 문제, 학업, 정치, 환경), 장소 혹은 사회적 상황(집, 길, 교회, 회사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사업적 협상을 할 때),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친척, 이웃, 동료, 상관 혹은 부하직원, 타인)등이 이중언어화자들이 언어를 선택할 때 고려되는 요소들이 될 수 있다(Li, 207:14). 본 연구에서는, 상대가 단일 언어 화자인지, 혹은 같은 이중언어화자 인지여 따라 언어선택은 또 달라 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세계의 학교 대부분에서는 오직 그 나라의 대표 언어로 교육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어로 교육을 제공한다. 이는 대학 교육내의 중국어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일부 원어민 수업 등 원어민 수업을 제외하면 고급 중국어 교과를 개설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매우 적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학의 중국어, 중국관련 학과를 살펴보면, 이중언어화자와 같은 고급중국어 학습의 수요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수요는 국제화의 속도와 다양한 국제 이민가정이 유입의 속도에 맞추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귀화자, 중도학습자 등의 다양한 형태를 띤 고급 중국어 학습자에 대한 교과목 개설과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국내 대학의 고급 중국어 학습자의 대부분은 L1과 L2가 중국어와 한국어인 중·한 이중언어화자이다. 이들의 효과적인 중국어실력의 향상은 일반적인 중국어 학습자와 다른 점이 있다. 이러한 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교육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류상희,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과 이중언어교육 : 일본어에 혼용된 도래어(渡來語)」, 『이중언어학』, 29, 2005, pp.35-61.

- 오미경·박민수, 「부산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전달에서 변용과 창조에 관한 경험적 연구 - 언어혼용과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51, 2013, pp.181-216.
- 남기춘 외, 「한글 전용과 국한 혼용의 언어 심리학적 고찰(Ⅰ)」,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 학술발표 논문집』, 1997.10, pp.469-476.
- 최길성, 「韓민족의 해외 이주와 문화 변용」,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01.01, pp.9-13.
- 채희연, 「서울시 다문화 언어강사를 통해 본 이주자 문화 변용의 능동성과 상호성」,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18.
- 이윤자, 「한국어의 다문화 언어 수용과 변용 연구 - 다문화 접촉과 언어 차용의 관점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38.2, 2016, pp.65-97.
- 권오경, 「언어의 변용」, 『제임스조이스저널』, 5.1, 1999, pp.211-229.
- 임영철, 「이민 커뮤니티의 언어의식」, 『사회언어학』, 14.1, 2006, pp.69-84.
- 박이도, 「중간언어와 교수법」, 『언어연구』, 2, 1998, pp.113-145.
- 이창후, 「양상체계에서의 언어수준 혼용의 문제」, 『철학사상』, 38, 2010, pp.269-303.
- 吳美京, 「2언어 병용화자(L1일본어·L2한국어)의 비언어 사용과 언어혼용의 구조적 특성」, 『일어일문학』, 49, 2011, pp.95-118.

【어학분과 I】 발표 ①

전주(轉注)의 재고찰

곽현숙*

【목 차】

1. 들어가기
2. 허신의 轉注 說
3. 轉注에 대한 諸說
4. 轉注에 대한 私見
5. 나오기



1. 들어가기

한자는 만들어진 원리에 따라 상형(象形)·지사(指事)·회의(會意)·형성(形聲)·전주(轉注)·가차(假借)의 ‘육서(六書)’ 분류법이 통용되고 있는데 이는 후한(後漢) 때 학자인 허신(許慎)에 의해 확립되었다. 그가 한자의 자형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만든 육서를 살펴보면 상형·지사·회의·형성은 한자의 조자(造字) 방법에 해당하는데 이는 다시 독립된 자형으로 만들어진 상형·지사와 자형을 합해서 만든 회의·형성으로 구분되며 전주·가차는 글자의 활용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최초로 육서의 개념이 정립되었던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육서에 대한 설명이 너무 간결하고 모호하다는 것이다. 특히 육서 중에서 가장 말이 많은 전주는 현재까지 전주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가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선행된 전주와 관련된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주의 가장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개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기존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주의 현상이 정말 글자의 활용법으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전주가 조자의 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 육서에서 전주의 위치도 재고찰 하고자 한다.

*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HK연구교수.



2. 허신의 轉注 說

허신은 전주에 대해 <설문해자·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전주란 같은 분류를 한 수(首)에 세워 같은 뜻을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考와 老가 그러하다.
(轉注者, 建類一首, 同意相受, 考老是也。)”



2. 허신의 轉注 說

<설문해자·서>에서 전주자의 예시로 제시한 고(考)와 노(老)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老(로, lǎo)는 ‘늙다(考)’라는 뜻이다. 70살을 늙었다고 한다. 人과 毛와 匕의 뜻을 취하였다. 수염과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것을 말한다.
(老, 考也。七十曰老。从人、毛、匕。言須髮變白也。)”

“考(고, kǎo)는 ‘늙다(老)’라는 뜻이다. 老의 생략형을 취하였으며, 丂는 성부이다.(考, 老也。从老省, 丂聲。)”

⇒ 위의 두 글자를 분석해 보면 고(考)와 노(老)자의 공통점은 첫째, 부수가 같다. 둘째, 뜻이 같다. 셋째, 운모가 같다.



2. 허신의 轉注 說

세 가지 공통점에 의거하여 전주에 대해 다시 살펴보면 전주는 크게 3가지의 갈래로 나누어진다.

- 1) 허신이 말한 '건류일수(建類一首)'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 부수 또는 동일한 부분을 가지는 두 글자에서 서로 전주 현상이 나타남.
- 2) 허신이 말한 '동의상수(同意相受)'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 동의어인 두 글자에서 서로 전주 현상이 나타남.
- 3) 음이 비슷한 두 글자 사이에서 서로 전주 현상이 나타남.

그러나 문제점은 전주에 대한 이 세 가지 견해는 무엇을 선택해도 전주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주의 개념을 설명할 때,

집(緝)과 적(績):사(絲) 부수에 '깃다'라는 뜻으로 호훈하며 음이 비슷함.
개(改)와 경(更):복(攴)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며 '고치다'라는 뜻으로 호훈함.
지(至)와 도(到):지(至)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르다'라는 뜻을 공유함.

등과 같이 위의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견해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거나 세 가지 견해를 적절하게 절충하거나 종합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2. 허신의 轉注 說

한국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전주자 '악(樂)'자를 살펴보면 위의 세 가지 견해도 설명하기가 어렵다.

악(樂)자는 원래 목(木)과 두 개의 요(幺)로 이루어진 악기를 본떠서 만든 글자로 '악기, 음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악'으로 발음한다. 그런데 이 글자는 후에 '즐겁다'라는 뜻의 '락' 발음과 '즐기다, 좋아하다'라는 뜻의 '요' 발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때 '락'과 '요'의 발음은 '악'에서 분화되어 나온 한자음이고, '즐겁다', '즐기다'는 '악기'라는 뜻에서 파생되어 나온 의미이다.

이와 같이 한 글자가 본래의 뜻에서 파생되어 나온 새로운 뜻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인신(引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분화된 한자음은 원래의 한자음과 같거나 비슷한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악(樂)자는 음의 변이가 각각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일어나서 세 한자음의 기원이 같다는 것을 찾기가 어렵다. 게다가 전주자의 사례로 열거된 글자들은 전부 두 글자가 동일한 의미를 갖는 사례인데 악(樂)자는 이와 정 반대로 한 글자가 여러 의미를 갖는 경우이다.



2. 허신의 轉注 說

또 다른 예로 <설문해자·서>에서 가차자에 해당하는 ‘장(長)’과 ‘령(令)’자

앞에서 설명한 인신의 대표적인 예로서 ‘령(令)’자의 아래 부분은 무릎을 꿇고 앉은 사람의 모양이고 윗부분에 대해서는 아래를 향해 벌린 입의 모양이라는 설과 종 모양이라는 설이 있다.

발생과정을 보면 이 글자는 회의자에 속한다. 한편 의미로 보면,

원래 ‘명령하다’를 뜻하는 글자인데 그 의미가 확대되어 ‘시키다’로도 쓰이고 명령을 담당하는 관직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게 되었다.

이렇게 본래의 뜻에서 의미가 확대되어 나오는 것을 ‘인신’이라고 한다.

‘장(長)’자는 머리가 긴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선 모양 혹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춤추는 모양 등으로 본다. 나이가 들고 머리가 길어진 것에서 ‘길다’, ‘나이가 많다’, ‘첫째’ 등의 의미가 나왔고 연장자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 관직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이렇듯 이 두 글자는 인신의 예이지 가차의 예가 아니다.



2. 허신의 轉注 說

또 다른 예로 ‘북(北)’과 ‘배(背)’자를 살펴보면,

배(背)자는 북(北)자에서 나온 글자이다. 북(北)은 원래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서 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로 ‘등, 등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북’으로 발음한다. 이 글자가 이후 원래의 뜻에서 파생된 ‘북쪽’이라는 새로운 뜻이 지배적으로 사용되면서 본래의 ‘등, 등지다’의 뜻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서 원래의 뜻을 살려내기 위해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지는데 뜻의 기원이 되는 북(北)자에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월(月, 肉의 변형된 형태)을 덧붙여서 ‘배(背)’자를 만든 것이다.



3. 轉注에 대한 諸說

견해	예
(1)같은 글자가 각각 다른 모양으로 변형된 것을 전주라는 주장	考와 老, 左와 右, 人과 匕 등
(2)같은 形旁을 가진 글자 중에서 서로 그 뜻이 통용되는 경우가 전주라는 주장	老(耇, 耄, 耄), 冥(暝, 溟, 曠), 등
(3)부수로써 그 부수의 의미와 관련된 글자를 수없이 만들어나가는 것이 전주라는 주장	<설문> 540부수(一~亥)
(4)여러 의미로 통용하던 한 글자에 義符를 첨가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전주라는 주장	齊(재계, 제기, 약제)→齋(재계), 齧(제기), 劑(약제) 등
(5)원래의 글자에 보다 명확한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의부나 성부를 첨가하여 세분된 글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전주라는 주장	人(仙, 佛, 傀), 包(抱, 袍, 泡, 砲), 刃(忍, 認) 등
(6)'호훈(互訓), 즉 여러 글자가 서로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를 전주라고 한다는 주장	初, 哉, 首, 基(의미: 始), 印, 呑, 台, 予(의미: 我), 등
(7)언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전주라는 주장	亡과 無, 屏과 藩 등
(8)한 글자의 발음이 달라지면서 다른 뜻이 파생되는 경우가 전주라는 주장	荷(연꽃→짚어지다) 등
(9)'인신(引伸), 즉 원래의 뜻과 연관된 다른 뜻이 파생되어 한 글자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전주라는 주장	樂(음악, 좋아하다, 즐겁다), 寺(일하다, 사인(寺人:일을 처리하는 사람), 절) 등



4. 轉注에 대한 私見

육서는 한자의 구조에 대한 이론이며 옛 사람들의 한자 구조에 대한 귀납의 결과물이다. 육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형, 지사, 회의, 형성의 네 가지는 한자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명칭으로 이 네 가지는 한자의 조자 원리를 다 망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자 원리는 필요가 없다. 만약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네 항목의 부수적인 것이 되거나 중복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육서의 한 항목으로 특별히 설정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네 개의 항목을 제외한 전주와 가차는 용자(用字)의 개념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전주와 가차는 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 한자의 운용(運用)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두 항목이 용자의 개념이 된다면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응하는 것으로서 상호 보완하는 관계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전주에 대한 해석 또한 가차와의 관련 속에서 함께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필자의 생각으로는 위의 (9)번에 해당하는 견해가 전주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합당하다고 본다



4. 轉注에 대한 私見

전주에 대한 (9)번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假借則一字數用，轉注則一義數文。”

(서개(徐鍇)의 <설문해자계전(說文解字繫傳通釋)>)

“本義外，展轉引伸爲他義，或變音，或不變音，皆爲轉注。其無義而但借其音，或相似之音，則爲假借。”

(강영(江永)의 <여대전서(與戴震書)>)

“天地間有形而後有聲，有形聲而後有意與事，四者文字之體也。意之所通而轉注起焉，聲之所比而假借生焉，二者文字之用也。...其一字而數訓者，有所以通之也。通其所可通則爲轉注，通其所不通則爲假借。”

(주준성(朱駿聲)의 <설문통훈정성·자서(說文通訓定聲·自敘)>)

“保氏果以是立教，則凡形聲之字皆卽轉注之字，六書何以條分? 余故曰轉注者體不改造，引意相受，令長是也。假借者本無其意，依聲託字，朋來是也。凡一意之貫注，固其可通而通之爲轉注；一聲之近似，非其所有而有之爲假借。就本字本訓，而固以展轉引申爲他訓者曰轉注；無展轉引申而別有本字本訓可指名者曰假借。依形作字，觀其體而申其義者轉注也；連綴成文，讀其音而知其意者假借也。假借不易聲而役異形之字，可以悟古人之音語；轉注不易字而有無形之字，可以省後世之俗書。假借數字供一字之用而必有本字；轉注一字具數字之用而不煩造字。”

(주준성(朱駿聲)의 <설문통훈정성·자서(說文通訓定聲·自敘)>)



4. 轉注에 대한 私見

따라서 필자는 육서가 한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편적으로 정리한 개념이라는 점에 바탕을 두어 주준성(朱駿聲) 등의 견해처럼 발음이 같은 다른 글자를 빌려서 활용하는 것은 가차이고, 본의에서 파생된 인신의 개념이 전주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전주는 이집트 고대문자인 히에로글라피, 즉 '성각문자(聖刻文字)'에서도 볼 수 있는데 가령 '일(日)'의 경우 원래 태양의 모습에서 '태양'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후 '하루', '시간', '언제' 등의 의미까지도 나타내는 것과 같다. 문자의 발달 원리에서는 이를 의미의 추상화라고 한다.

즉, 한자의 전주는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문자를 이용하여 그 의미를 확대 발전시켜 쓰는 방법으로 문자의 발달 원리에서는 의미의 추상화와 직접 대응된다고 본다.



5. 나오기

1. 문자는 언어를 기록하는 부호이자 도구로 문자의 가장 큰 기능은 언어의 정확한 표현과 기록을 위해서 문자의 변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가차의나 인신의를 지니고 있는 글자의 다중 배역을 해결하고 문자 고유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적용된 원칙이 바로 전주인 것.
2. 같은 발음의 다른 글자를 빌려서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것이 가차라면 본의에서 이와 관련된 새로운 뜻이 파생되어 전용되는 인신(引伸)이 바로 전주이다.
3. 문자론적 개념인 의미의 추상화 및 전주는 언어학적 개념인 다의(多義)와 대응된다. 다만 전주와 다의가 다른 점은 전주는 문자와 의미 사이의 관계이고, 다의는 음성과 의미 사이의 관계라는 점이다. 그리고 전주가 발생하면 동일한 문자가 그 구별되는 의미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5. 나오기

4. 전주에는 '樂', '川', '寺' 등과 같이 한 글자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取', '兄', '久' 등과 같이 원래의 뜻과 연관된 다른 뜻이 파생되어 원래 글자에 의미를 덧붙여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5. 전주자는 글자가 다 만들어진 후의 표면적인 자형 결구로 보면 형부와 성부로 구성된 형성자와 같다. 그러나 생성의 과정을 관찰하면 전주자는 기존의 글자에 형부를 덧붙인 것이지만, 형성자는 형부와 성부가 동시에 결합되어 형체를 이룬 것이다.

【어학분과 I】 발표 ②

(新)HSK6급 독해1영역의 문제유형 분석과 교수법 고찰

— 불필요한 성분, 동사의 오류, 성어활용의 적절성,
문맥상 논리적으로 모순된 문제 유형 위주로

한 승*

【목 차】

1. 서론
2. 본론
 - 1) 지난 2020년 학습자들의 수업내용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
 - 2) 2021년 학습목표 ⑤~⑧ 문제 유형에 대한 사전 테스트 결과
 - 3) ⑤~⑧ 문제 유형 분석과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안
3. 결론

1. 서론

2020년 2월부터 코로나가 급속도로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몇 개월 내에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는 최초 기대와는 달리 현재는 도대체 언제부터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온라인 수업의 활성화는 불가피하다. 모든 교수자들이 겪어보아서 알겠지만, 온라인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생동감이 떨어져 학습자들의 학습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교수법을 바꾸어야함은 자명한 일이다.

필자가 유튜브에서 보아온 수많은 동영상 콘텐츠 중에 조회 수와 구독자 수가 낮은 영상들은 친필일률적인 내용들로만 구성된 반면, 구독자수가 1~2만명 이상 되는 영상들은 뚜렷한 학습의 방향을 제시했고 기존의 것과 차별화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교수자들이 모두 인기있는 유튜브처럼 재치있는 언어적 표현에 충분한 시각 및 음향효과를 곁들여 생동감이 넘치는 콘텐츠를 만들 수는 없어도, 충분히 학습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업내용을 구성할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학습자들의 요구에 부합한 수업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필자는 1년간 전공 및 교양수업을 하면서 학습자들과 많은 소통을 하였다. 물론 조사집단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필자가 조사한 집단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어학(어법, 독해)수업 시간에 (新)HSK6급에 관한 수업내용을 조금이라도 듣기를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중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新)HSK6급 독해 1영역에 대한 문제 풀이를 원하였다. 그래서 필자는 작년에 어학 수업시간(어

* 단국대학교 자유교양 대학 초빙교수 (tsinghuan@daum.net)

법, 독해)에 먼저 어법 요소와 어휘의 본질, 그리고 문장 구문에 관한 기본적인 특징들을 설명하고, 수업시간에 언급한 내용과 관련 있는 (新)HSK6급 독해1 영역 기출문제들을 제시하여 풀게 하니 학습자들의 학업 성취감과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다. 따라서 필자는 금년에도 예외없이 매 어학 수업 시간에 1/3 정도는 (新)HSK6급 독해1 영역에 대한 문제 풀이를 진행할 것이다.

총 10문제로 구성된 독해1 영역이란 문제 당 4개의 항목이 주어지며, 그 중 문장 내에 오류가 있는 항목을 골라내는 문제 유형이다. 기존의 (旧)HSK에도 독해1부분은 修改病句(문장 내에 틀린 부분 찾기)part였다. (旧)HSK에서는 문법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면, 현행 (新)HSK는 문법과 어휘의 특징은 물론, 문맥관계와 의미기능, 화용기능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新)HSK의 다른 독해 영역은 (旧)HSK보다 난이도가 낮아졌지만, 독해 1영역은 그 난이도가 전보다 훨씬 높아져서 학습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독해 1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담긴 학습자료와 명쾌한 설명은 학습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필자의 조사결과 국내외에 (新)HSK에 관한 몇 편의 연구논문들이 있었다.¹⁾ 기존 논문들에는 (新)HSK에 관한 전반적인 교수학습 내용들이 어느 정도 소개는 되었지만, 학습자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독해 1영역에 대한 구체적이며 일목요연한 분석이 없었다. 그래서 필자는 2020년 말에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2학기 동안의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의 인지구조와 학습상황을 분석한 후, 그들에게 조금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新)HSK 6급 독해 1영역에 관한 논문을 출간하였다.²⁾ 그 논문에서는 학습자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①어법 요소가 중복 사용된 문장 찾기 ②접속사 혹은 개사가 잘못 사용된 문장 찾기 ③관형어, 부사어, 수량보어, 개사구 등의 어순이 잘못된 문장 찾기 ④주어 혹은 목적어, 서술어가 결여된 문장 찾기 등의 유형에 대해 다루었다.

이번에는 난이도가 한층 높은 ⑤불필요한 성분이 들어있거나 꼭 필요한 성분이 누락된 문장 찾기 ⑥동사의 오류가 있는 문장 찾기 ⑦성어가 적절하게 활용되었는지 확인하기 ⑧논리적으로 모순된 문장 찾기 등의 유형에 대해 언급하겠다. 본고에서 언급할 문제 유형들에 대한 설명은 전통문법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다. 반드시 의미론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2. 본론

예나 지금이나 HSK의 급수와 점수는 실제 중국어 능력과 꼭 정비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마도 ‘학습자들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 (旧)HSK의 시험방식 때문일 것이다. 중국어를 전공했거나 중국어를 하나의 스펙으로 삼은 학습자들은 어학 능력의 향상을 위해 학교 수업 외에도 학원 및 현지로 어학연수를 가서 보충수업을 받을 것이다. 사교육의 힘으로 많은 어휘와 어법들을 알게 될 수는 있지만, 과연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어휘와

1) 신혜숙, 「신HSK 6급 독해 문제 분석 및 교육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16.

문정혜, 「새로운 중국어평가방식(新HSK)도입에 따른 문법교육에 대한 소고(小考)」, 『중국과 중국학』, 제17호,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12.09.

문정혜, 「‘新HSK’ 필기평가(6급)에서의 문법교육 一考」, 『중국어문학논집』, 제77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12.12.

韩 晔, 「新HSK6级阅读试题分析及教学策略研究」, 哈尔滨师范大学 硕士论文, 2015.

靳翠巧, 「新HSK6级阅读 (一) 辅导策略研究」, 河北师范大学 硕士论文, 2016.

2) 한 승, 「온택트(Ontact) 시대에 (新)HSK6급 독해1영역을 대비하기 위한 중국어 어법교육의 재고찰(1)」, 『중국언어연구』, 제92집, 한국중국어언어학회, 2021.01.

어법들을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新)HSK는 ‘학습자들이 무엇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³⁾(旧)HSK(고등9~11급)의 최소 요구 어휘량이 8700자 정도였다면, (新)HSK(고등6급)의 최소 요구 어휘량은 5000자이다. 이처럼 汉办(한뻘)에서 (新)HSK의 최소 요구 어휘량을 대폭 감소시킨 이유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많은 어휘와 어법들을 숙지하기보다는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어휘들을 정확히 익히고 활용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최근 시험문제의 난이도는 2010년도와 비교하면 훨씬 높아졌으므로, 생소하고도 난해한 어휘들이 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필수 어휘가 아닌 그들은 학습자들이 정답을 찾는 데에 교란 역할을 할 뿐 정답을 찾는 단서가 되지는 않는다. 정답에 대한 단서는 여전히 필수 어휘들에 있다. 즉,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독해 1영역의 문제들을 분석해 보아도 매우 난해한 어휘들로 구성된 문장이 정답인 경우는 거의 없다. 의외로 간단하고 수월해 보인 어휘로 구성된 문장이 정답인 경우가 많다.

필자가 지난 2020년 학기 초에 500명 정도의 학생들(두 학기 수업 초반에 수강한 학생들의 합산)을 테스트한 결과 10문제 중에, 5문제 이상의 문제를 맞힌 학생들은 52명에 불과했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필수 어휘와 어법의 기본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이를 미루어 보면 HSK는 학습자들이 필수 어휘와 어법들에 대해 이해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필수 도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게다가 많은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에서 취업에 필요한 HSK와 관련된 수업 듣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향후에도 전공 어학 시간에 최소 20분 정도는 HSK에 관한 문제들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수업시간 배운 내용에 대한 확인학습을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학습성과와 만족도를 수시로 체크할 것이다.

1) 지난 2020년 학습자들의 수업내용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

필자는 지난 2020년에 A, B, C 대학의 총 75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에서 교육내용에 관한 선호도에 대해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응답자들은 중문과 학생이거나 중국유학 경험이 있거나 다중 전공을 중국어로 선택한 타과 학생들이었다. 설문 조사 결과는 2020년 6월 말경에 336명의 학습자들의 응답과 2020년 12월 말경에 418명의 학습자들로부터의 응답을 합산한 것이다.

<표1>

어학수업(어법, 독해) 교육내용 선호도 분석			
가장 선호하는 수업유형 및 내용	응답자	가장 선호하지 않는 수업유형 및 내용	응답자
① 어법 및 어휘에 대한 약간의 설명과 발표 및 토론 수업	0	① 어법 및 어휘에 대한 약간의 설명과 발표 및 토론 수업	754
② 다양한 어법 이론에 대한 설명식 강의	53	② 다양한 어법 이론에 대한 설명식 강의	0
③ 실제 회화 혹은 작문에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구문과 어법에 대한 설명식 강의	136	③ 실제 회화 혹은 작문에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구문과 어법에 대한 설명식 강의	0
④ HSK 독해1 영역과 연관된 설명식 어법수업과 문제풀이 연습	565	④ HSK 독해1 영역과 연관된 설명식 어법수업과 문제풀이 연습	0

3) 문정혜, 「새로운 중국어평가방식(新HSK)도입에 따른 문법교육에 대한 소고(小考)」, 『중국과 중국학』, 제17호,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12.09, p.228.

먼저 ①번 수업유형을 가장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니,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교수자가 학습자들을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Zoom수업에서 학습자들의 발표 및 토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④번 수업유형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니, 많은 학습자들은 물론 실생활에 필요한 언어들과 중국 어법의 이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중하기 어려운 온라인 수업에서는 이들에 대한 교육보다는 취업에 필요한 실용적인 수업내용을 듣기를 원한다고 답하였다.

②번 수업유형을 원하는 응답자들은 대부분이 이미 (新)HSK6급 22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거나 중국 거주 경험이 있는 자들이었다. ③번 수업유형을 원하는 응답자들 중에 물론 이미 (新)HSK6급의 고득점을 획득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언어를 배우기를 원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93명의 응답자들은 새로 개편될 HSK 3.0 버전의 고급에서는 작문에 대한 요구사항이 까다로워지고, 구술이 필수 과목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들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요컨대, 위의 설문 조사는 이미 고득점을 획득했거나 중국 유학 경험이 있는 일부 학습자들 외에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新)HSK 6급 수업을 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필자는 독해1 영역에서 학습자들의 구체적인 학습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汉语水平考试6级真题集(HSK기출문제 모음집)』(2014年版)과 『汉语水平考试6级真题集(HSK기출문제 모음집)』(2018年版)에 수록되어 있는 총 10회 분량의 독해1 영역(총 100문제)과 12회 분량의 기출문제(2013~2020)인 독해1 영역(총 120문제)을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 유형들임을 알아내었다.⁴⁾

<독해1영역 문제유형>⁵⁾

-
- ① 어법 요소가 중복 사용된 문장 찾기(10%)
 - ② 접속사 혹은 개사가 잘못 사용된 문장 찾기(15%)
 - ③ 관형어, 부사어, 수량보어, 개사구 등의 어순이 잘못된 문장 찾기(24%)
 - ④ 주어 혹은 목적어 서술어가 결여된 문장 찾기(문장의 주요성분을 모두 갖추었지만, 주어와 목적어가 의미상 호응하지 않은 사례 포함)(12%)
 - ⑤ 불필요한 성분이 들어있거나 꼭 필요한 성분이 누락된 문장 찾기(14%)
 - ⑥ 동사의 오류가 있는 문장 찾기(12%)
 - ⑦ 성어가 적절하게 활용되었는지 확인하기(3%)
 - ⑧ 논리적으로 모순된 문장 찾기(10%)
-

①~④ 문제 유형에 대해서는 지난 1년 동안 충분히 설명하였다. 출제 비중이 비교적 높은 ①~④ 문제 유형은 어법 지식과 어휘의 의미적 특징, 그리고 문제 푸는 요령을 설명하니 학습자들의 만족도는 기대 이상으로 높았다. 한 학기 씩 강의 후 학습 만족도 조사를 하였는데, 532명(2020년 1/2학기 모두 포함)의 학습자들이 응답하였다.

4) 2014년 이전의 기출문제들은 바이두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2014년 汉办(한판)에서 기출문제의 무단 복제를 금지하자, 그 후의 기출문제들은 손쉽게 구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필자는 『汉语水平考试6级真题集(HSK기출문제 모음집)』(2014年版)과 『汉语水平考试6级真题集(HSK기출문제 모음집)』(2018年版)에 수록되어 있는 총 10회 분량의 독해1영역(총 100문제)과 각각 1회 분량의 2013, 2014년도의 기출문제와 2015년 이후 10회 이상 시험에 참가하여 파악한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HSK의 문제 유형을 파악했다. 2014년도 이전의 기출문제와 汉办(한판)에서 집필하여 출판한 기출문제집의 문제들은 본문에 그대로 기재하였지만, 2015년도 이후의 기출문제들은 汉办(한판)의 요청대로 무단 복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유형은 그대로이지만 문장은 약간 변형하였다.

5) %은 문제 유형의 출제 비중이다. 이 비중은 220개의 기출문제의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므로 다소 오차가 있을 수도 있다.

<표2>

학습 후의 만족도	
1학기 동안 HSK 독해 1영역과 연계한 수업에서 가장 만족한 점	응답자
① 어법과 어휘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하고 확인학습을 할 수 있었던 점	191
② 강의의 도움으로 HSK시험에서 점수가 오르게 된 점	164
③ HSK 독해 1영역의 문제에 훨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 점	173
④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음	4

많은 학습자들은 어법과 어휘를 기존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HSK 문제를 푸는 방식을 알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만족감을 보였다. 다만 아직 학습기간이 짧고, 코로나의 두려움으로 인해 아직 시험장에 가지는 못했다고 한 학생들도 제법 많았다. 물론 이번 2021년에도 좀 더 심화된 ①~④ 문제 유형을 준비하여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2) 2021년 학습목표 ⑤~⑧ 문제 유형에 대한 사전 테스트 결과

⑤~⑧ 문제 유형은 매 시험 대략 적게는 2문제에서 많게는 4문제까지 출제되는 유형이다. 2021년 3월에 필자는 총 27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유형별로 2문제씩 총 8문제를 제시하여 테스트 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3>

각 문제 유형	각 유형별로 정답을 맞힌 인원	
	1문제 맞힘	2문제 다 맞힘
⑤ 불필요한 성분이 들어있거나 꼭 필요한 성분이 누락된 문장 찾기	83	32
⑥ 동사의 오류가 있는 문장 찾기	67	29
⑦ 성어가 적절하게 활용되었는지 확인하기	14	1
⑧ 논리적으로 모순된 문장 찾기	25	4

위에 조사대상인 학생들 중에는 이미 6급 210점 이상의 보통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제법 있었고, 240점 이상의 고득점 받은 학생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표(3)을 보면 많은 학습자들이 ⑤~⑧ 문제 유형에 대한 적중률이 비교적 낮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⑤~⑧ 문제 유형은 ①~④ 문제 유형에 비해 오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⑤~⑧ 문제 유형은 전통 어법에 의존한 교육방식이 아닌 의미론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3) ⑤~⑧ 문제 유형 분석과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안⁶⁾

● 불필요한 성분이 들어있거나 꼭 필요한 성분이 누락된 문장 찾기

6) 본 소절에서의 인용문들은 비문이기 때문에 해석하기에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많은 관계로 문장에 대한 해석을 생략하였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와 형용사를 제외한 서술어일 경우, 반드시 주어와 목적어의 성분은 필요하다. 즉, 주어, 목적어, 서술어는 문장의 필수성분이다. 이들 중 단 하나의 성분이라도 누락되면 病句(병문)이 된다. 이들 중 하나의 성분이 누락된 문제 유형은 매 시험마다 꼭 1~2문제 정도 출제된다. 하지만 아래 예문(1)에서처럼 문장의 필수성분인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모두 구비되어 있지만, 목적어 성분이 완전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아래 예문(2)~(5)에서 처럼 문장의 필수성분과 필요한 수식성분 외에 문맥상 적합하지 않은 성분이 첨가되어 문장의 전체 의미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다.

- (1) 『将进酒』是唐代诗人李白的代表作, 题目意译即为“劝酒歌”。(2018.05 기출)
- (2) 豆浆营养非常丰富, 且易于消化吸收, 具有强身健体、防治糖尿病等功效之一。(2020.07 기출)
- (3) 最快乐的事, 莫过于经过一番努力, 正慢慢变成你想要的东西的样子。(2018 기출문제 모음집)
- (4) 他终于说服那家公司, 得到了两个月的免费服务提供。(2013.05 기출)
- (5) 人体免疫细胞能发现并杀死被感染的细胞, 其识别原理一直困惑着人们解决不了。(2018 기출문제 모음집)

예문(1)에서는 앞 절이 病句(병문)이다. 이에 대해 살펴본다면, 주어는『将进酒』이고, 목적어는 ‘李白的代表作(이백의 대표작)’이다. 상식적으로 李白(이백)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한 당조시기의 시인이며 그의 대표작이 단 한 편일 수가 없다. 따라서 목적어 성분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후미에 ‘之一’을 첨가하여 ‘李白的代表作之一(이백의 대표작 중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之一’은 전체 중의 하나를 나타낸다. 문장 내에서 ‘之一’를 사용하려면 예문(1)에서처럼 주어와 목적어는 반드시 의미상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목적어는 전체(상위개념)이고, 주어는 전체 중의 하나(하위개념)이므로, 주어와 목적어를 동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목적어의 후미에 ‘之一’을 첨가해야 한다. 예문(2)에서는 주어인 ‘豆浆(두유)’와 목적어인 ‘功效(효과)’가 의미상 전혀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맨 후미에 있는 ‘之一’를 삭제해야 한다.

‘之一’가 누락된 경우와 불필요한 경우에 관한 문제는 자주 출제되므로 교수자는 관련 예문들을 많이 수집하여 학습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시킬 필요가 있다.

예문(3)에서 세 번째 절을 살펴봤을 때 주어는 비록 표면적으로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문맥상 ‘你’임을 알 수 있고, 서술어는 ‘变成(변하다)’이며, 목적어의 피 수식 성분이 ‘的东西(~의 물건)’와 ‘的样子(~모습)’로 두 개가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的东西’가 불필요한 성분임은 쉽게 알 수 있다.

예문(4)의 주어는 ‘他(그)’이고, 서술어는 ‘得到(얻다)’이며, 목적어는 ‘免费服务(무료 서비스)’이다. 문장 맨 후미에 있는 ‘提供(제공하다)’은 동작의 주체가 ‘公司(회사)’이므로 위 문장의 주어와 전혀 호응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불필요한 성분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예문(5)에서는 뒤 절인 ‘其识别原理一直困惑着人们解决不了’이 病句(병문)이다. 이를 해석하면 ‘그 식별원리는 줄곧 사람들을 곤란케 하여 해결하지 못하게 한다’이다.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분석해 보면 필수성분으로 주어는 ‘其识别原理(그 식별원리)’이고, 서술어는 ‘困惑(곤혹하다)’이며, 목적어는 ‘人们(사람들)’이다. 주어인 ‘识别原理(식별원리)’는 매우 난해하여 사람들을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解

决不了(해결할 수 없다)’는 불필요한 성분으로 삭제해야 한다.

문장 내에 필수성분이 모두 갖추어져 있지만 목적어가 완성되지 못한 경우와 불필요한 성분이 첨가되어 있는 病句(병문)사례는 반드시 출제되는 유형이다. 교수자는 당연히 동일한 유형인 또 다른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들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에게 충분한 연습을 시켜야 한다. 중요한 것은 먼저 학습자들에게 문장에서 필수성분인 주어, 목적어, 서술어 성분과 필요한 수식성분을 찾게 해야 한다. 그리고 문장 전체의 의미에 영향을 끼치는 불필요한 성분을 찾게 하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 불필요한 서술어 성분이 물론 서술어의 위치에 첨가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목적어 후미에 나오게 된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목적어 후미에 첨가되어 있는 성분이 동사일 경우 주어와 호응하는지를 판단하게 해야 하고, 명사일 경우는 서술어에 필요한 성분인지를 판단하게 해야 한다.

● 동사의 오류가 있는 문장 찾기

동사는 인류 언어의 가장 중요한 품사 중 하나이다. 동사는 물론 주체자의 동작의 행위를 나타내는 동작동사의 경우가 가장 많으나, 상태동사, 심리동사, 지각동사, 순간동사 등 매우 다양하다. 동사들의 특징에 대한 연구는 현재 언어학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는 영역 중 하나이다. 동사는 일상 언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타인칭, 독해 2영역에서는 모든 문제에 문맥상 적합한 동사를 고르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독해 1영역에서는 문장 내에서 적합하게 활용되지 못한 동사를 찾는 문제가 매번 꼭 출제된다. 동사(그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타동사)의 본질적 속성은 중심어로서의 핵심성분이 되며, 문장에서 다른 두 개의 성분인 주어와 목적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⁷⁾ 따라서 문장 내에서 동사가 적합하게 활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과 목적어의 호응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6) 在老师的帮助下, 他明确和端正了学习态度。(2020.07 기출)

(7) 我来到了一直向往的海边, 聆听着这里的海声和阳光。(2018.05 기출)

(8) 采取可再生能源代替化石能源已刻不容缓。(2018.07 기출)

(9) 秦始皇兵马俑凝聚了世界各地无数慕名而来的参观者。(2018 기출문제 모음집)

예문(6)의 ‘明确和端正了学习态度’는 ‘V和V了O’식 동목구조이고, 예문(7)의 ‘聆听着这里的海声和阳光’은 ‘V+O1和O2’식 동목구조이다. 예문(6)에서 端正은 주로 态度(태도)와 姿势(자세) 등과 호응하므로 적합한 동사이지만, 明确은 주로 目标(목표)와 方向(방향) 등과 호응하는 동사이므로 적합하지 않아 이를 삭제해야 한다. 예문(7)에서 목적어인 阳光(햇빛)은 시각에 의존해 바라보는 것이므로, 동사인 聆听(듣다)과는 호응하지 않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V和V了O’식 동목구조와 ‘V+O1和O2’식 동목구조로 구성된 문장은 자주 출제되는 형태이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동목구조가 ‘V和V了O’ 식일 경우는 둘 중 한 개의 동사가 적합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동목구조가 ‘V+O1和O2’ 식일 경우는 둘 중 한 개의 목적어가 동사와 호응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교수자는 ‘V和V了O’식 동목구조와 ‘V+O1和O2’식 동목구조로 구성된 문장들을 찾아서 제시하여 학습자에게 동사와 목적어의 호응 관계가 적합한지를 연습시킬 필요가 있다.

7) 金立鑫, 『什么是语言学类型』, 上海外语教育出版社, 2011, pp.116-118.

예문(8)의 목적어인 ‘可再生能源(재생가능한 에너지)’는 선택하여 시행되는 대상이기보다는 선택하여 활용되는 대상에 더 가깝다. 따라서 ‘采取’는 ‘采用’으로 수정해야 한다. 예문(9)의 상황은 세계 각지의 참관자들의 이목을 끄는 것이기 때문에 ‘凝聚(응집하다/맺히다)’⁸⁾를 ‘吸引(이목 및 관심을 끌다)’로 수정해야 한다.

필자가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특히 자주 활용되고 있는 필수 어휘들은 절대로 맹목적으로 암기해서는 안 된다. 필수 어휘들이 내포한 의미적 특징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암기만 하면 비단 위의 문제 유형들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해 2영역인 綜合填空(종합 ()넣기)을 해결하는 데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교수자는 먼저 기출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출제빈도가 비교적 높은 ‘采’로 구성된 동사들(‘采取’, ‘采用’, ‘采纳’)들과 같은 어휘들⁹⁾을 찾아내어 제시한 후, 이들의 차이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凝聚(응집하다/맺히다)’와 ‘吸引(이목 및 관심을 끌다)’과 같은 HSK6급의 필수 동사들도 수집하여 제시한 후, 이들의 정확한 의미적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 성어가 적절하게 활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우리는 성어의 뜻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적합하게 활용되었는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성어의 뜻을 맹목적으로만 암기했을 뿐 그 구체적인 의미적 특징들을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0) 我们餐厅提供便捷的送餐服务, 使您足不出户才可品尽美食。(2018 기출문제 모음집)

(11) 不同的人对同一件作品, 评价也会不相上下。(2020.12 기출)

(12) 每个人, 都与众不同, 有了自己独特的美丽。(2014 기출문제 모음집)

예문(10)의 ‘足不出户’는 ‘집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만약 그 바로 뒤에 ‘才’를 사용하게 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외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예문(10)의 전체적인 의미는 한 요식 업체의 신속한 배달 서비스로 인해 설령 외출하지 않고도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足不出户’의 후미에 있는 부사인 ‘才’는 ‘足不出户’의 의미와 호응할 수 있는 ‘也’로 수정해야 한다. 예문(11)번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는 ‘한 제품에 대한 평가가 사람들마다 상이하다’이다. 不相上下는 ‘능력 혹은 실력의 상하를 가늠할 수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상이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不尽相同’으로 수정해야 한다. 예문(12)

8) ‘凝聚’는 ‘맺히다’와 ‘응집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아래와 같이 활용된다. (출처: 고려대 중한사전)
ex) 荷叶上凝聚着晶莹的露珠. (연잎에 맑고 투명한 이슬방울이 맺혔다.)

ex) 南京长江大桥凝聚着中国工人的高度智慧. (난징의 장강대교는 중국 노동자들의 높은 지혜를 한데 응집한 것이다.)
9) ‘采’로 구성된 동사들인 ‘采取’, ‘采用’, ‘采纳’ 등은 자주 출제되는 것이므로 구분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다. ‘采’는 ‘선택하다’의 의미소를 지녔다. ‘采取’는 ‘선택하여 시행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로, 주로 ‘态度(태도)’, ‘措施(조치)’, ‘政策(정책)’, ‘方法(방법)’ 등의 목적어와 호응한다. ‘采用’은 ‘선택하여 활용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로, 주로 인류가 활용할 수 있는 ‘技术(기술)’, ‘能源(에너지)’ 등과 같은 목적어와 호응한다. ‘采纳’는 ‘선택하여 받아들이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로, 주로 ‘建议(건의)’, ‘意见(의견)’ 등과 같은 목적어와 호응한다.

이 외에 ‘发挥’와 ‘发扬’을 구분하는 문제도 자주 출제된다. ‘发挥’는 ‘내재되어 있는 무엇인가를 겉으로 보인다는 뜻’을 지닌 동사로 그것과 호응하는 목적어들은 주로 ‘능력(能力)’, ‘기예(技艺)’, ‘작용(作用)’ 등이다. ‘发扬’은 ‘알리고 계승하는 뜻’을 지닌 동사로 그것이 지배하는 목적어는 주로 ‘의식(意识/~心)’, ‘전통(传统)’, ‘정신(精神)’ 등이다.

의 ‘与众不同’은 ‘남달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성어이다. 만약 뒤 절의 동사인 ‘有’ 뒤의 동태조사 ‘了’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상태 변화적 의미로 인해 ‘원래 없었던 독특한 매력이 생기게 되다’라는 의미가 되어버리므로 ‘与众不同’의 의미적 특징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마땅히 ‘了’를 ‘着’으로 수정해야 한다.

성어가 적절하게 사용되었거나, 성어와 그 주변 문법요소들이 적절하게 호응하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의 출제빈도는 아직까지 그렇게 높지 않다. 하지만 현재 독해 2영역인 綜合填充(종합 () 넣기)에서는 성어를 고르는 문제가 제법 많이 출제되고 있으며, 독해3,4영역에서도 성어에 의존하여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게다가 향후 바뀌게 될 뉴 버전 HSK 고등급의 독해 영역에서 성어에 관한 문제를 대폭 늘린다는 소문도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어에 대한 학습은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교수자는 HSK 독해영역에서 출제빈도가 높은 성어들과 교수자가 판단하기에 일상생활에서 자주 눈에 띄이는 성어들을 분류하여 학습자들에게 그 성어들의 정확한 의미적 특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학습자들이 숙지한 성어들을 활용하여 짧은 문장이라도 만들 수 있게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

● 논리적으로 모순된 문장 찾기

논리적으로 모순된 문장 찾기는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래의 예문들은 문법적으로는 전혀 오류가 없어 보이고, 부적절하게 사용된 어휘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그냥 지나치기가 쉽다.

- (13) 最近我很疲劳, 今天在家休息, 我巴不得什么都没做。(2020.08 기출)
- (14) 鉴于他有主持的经验, 我们都担心他会把结婚典礼搞砸。(2018.05 기출)
- (15) 人们往往把交往看做一种能力, 却忽略了独处也是一种能力. 不擅交际固然是一种遗憾, 不耐孤独也未尝是一种很严重的缺陷。(2018 기출문제 모음집)
- (16) 菠菜的营养价值丰富, 其含丰富的维生素、纤维素和多种矿物质, 多吃菠菜可以降低免疫力。(2020.04 기출)

예문(13)에서 巴不得(갈망하다)는 미래 시제이므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부정부사인 ‘没’과는 호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제의 호응 관계를 고려해서 ‘不’로 수정해야 한다. 예문(14)은 앞 뒤 절이 완전히 모순되어 있다. 해석해 보면, “그가 사회자의 경험이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그가 결혼식을 망칠까봐 걱정이 된다”이다. 만약 뒤 절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면, 앞 절에서의 서술어인 ‘有’를 ‘没有’로 수정해야, 앞 뒤 절의 논리적 의미가 상충하지 않게 된다.

예문(15)은 이중부정에 관한 문제이다. 맨 마지막 절의 ‘未尝’은 ‘~라고 말할 수 없다’의 의미이므로,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바로 앞 절과 의미상 모순된다. 즉, “不擅交际固然是一种遗憾, 不耐孤独也未尝是一种很严重的缺陷”은 “교제에 능하지 않은 것이 물론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고독함을 견디지 못하는 것도 일종의 심각한 결함이라고 할 수 없다”로 해석된다. 만약 ‘未尝’을 ‘未尝不’로 수정하게 되면, “不耐孤独也未尝不是一种很严重的缺陷”은 “고독함을 견디지 못하는 것도 일종의 심각한 결함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가 되어, 앞 절인 “不擅交际固然是一种遗憾(교제에 능하지 않은 것이 물론 유감스럽기는 하지만)”과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

예문(16)은 표면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예문(16)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시금치의 영양가는 매우 풍부하다. 풍부한 비타민과 섬유소 그리고 각종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그것을 많이 먹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영양가가 풍부한 시금치를 많이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심각한 논리적 모순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맨 마지막 절의 서술어인 ‘降低’를 ‘提高’로 수정해야 한다.

논리적으로 모순된 문장 찾기 유형은 학습자들의 고도의 독해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특정한 문제 푸는 요령으로 대비해서는 안 된다. 학습자들은 장시간을 투자하여 문장 독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교수자는 사용된 어휘와 어법의 부적절함이 표면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논리적 의미가 모순된 문장들을 수집하여 학습자들에게 연습시킬 필요가 있다.

3. 결론

본고는 (新)HSK 6급 독해1 영역의 2단계 논문이다. 물론 조사한 집단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필자가 2020년 설문방식을 통해 조사한 집단군(전체 754명)에 속해 있는 약 65% 정도의 학습자들은 어법이나 독해 수업시간에 (新)HSK 6급 독해1 영역에 관한 수업을 조금이라도 받기를 원했다. 물론 금년(2021년)에는 아직 학습들의 교육내용에 관한 학습 만족도에 대해 작년처럼 완전한 통계를 내지는 못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약 20분 정도의 (新)HSK 6급 독해1 영역에 관한 문제 풀이에 적지 않은 만족감을 보였다.

중국어를 전공했거나, 중국어를 취업의 스펙으로 삼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新)HSK 6급에 도전을 해봤을 것이다. 아마 독해 1영역을 확신을 갖고 풀었지만, 정답을 확인하니 틀렸던 경험도 있었을 것이다. 필자가 작년에 HSK 수업을 하기 전에 설문 조사를 시행했을 때, 많은 학생들은 (新)HSK 6급 독해1 영역을 다 푸는데 가용되는 시간이 부족하고, 설령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풀었다고 해도 정답을 맞힐 확률이 낮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에 정답을 맞힐 확률이 더 높은 독해 2~4영역을 집중해서 푸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였다.

(新)HSK 6급 독해 1영역은 표면적으로는 명확한 오류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오류를 범한 정답인 항목과 반대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오용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정상인 문장들을 섞어놨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여간 부담되는 영역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고득점 받기를 포기하고 단지 6급을 획득하는 데에만 목적을 둔다면 독해 1영역을 포기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독해 1영역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휘와 어법의 올바른 사용이다. (新)HSK 6급 독해1 영역은 학습자들이 구문에서의 어휘와 어법 요소에 오류가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유형이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봄으로써 학습자들이 어휘와 어법 요소에 대한 정확한 특징을 이해하게 되어, 기존에 잘못 숙지했던 어휘와 어법의 특징들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어 어휘와 구문에 대한 정확한 어감을 배양할 수 있게 되어, 회화와 작문을 할 때에도 올바른 중국어 표현을 구사할 수 있으며,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비해 긴 문장들을 읽고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속독 능력도 배양할 수 있다.

2022년 3월부터는 새로운 HSK 3.0 버전으로 개편될 것이다. 새로 개편될 HSK의 고등급(7~9)의

독해는 지문은 현재보다 훨씬 길어질 것이고, 정확한 어휘와 어법 개념을 숙지한 후 이를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만 풀 수 있는 病句(병문)찾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될 확률이 높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新)HSK 6급 독해1 영역을 소홀히 학습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비록 현재까지 ⑤~⑧번의 출제 비중은 ①~④번 문제 유형보다 높지는 않지만, 이 역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향후 개편될 HSK에는 어휘와 어법 요소 그리고 구문의 의미적 특징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폭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新)HSK 6급 독해1 영역은 고득점을 받기 위해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part이다. 조사결과 아쉽게도 현재 학습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강의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예전보다 교수자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온택트 시대를 살아가는 학습자들에게 보다 혁신된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마치 동굴 속에서 손전등 없이 출구를 찾아 헤매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필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2월 말에는 기출문제 150개를 토대로 문제 유형들을 분석하여 학습자들의 독해 1영역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예상대로 많은 학습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번 2차 논문에서는 70개의 기출 문제를 더 추가하여 총 220개의 기출문제를 하나씩 다 분석하여 전통문법에서 탈피한 의미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교수학습 방식에 대해 서술하였다. 학습자들이 (新)HSK 6급 독해1 영역을 보다 수월하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 유형들을 분석하여 관련 구문을 제시하는 방법 외에도 오류가 있어 보이지만 정상적인 항목들에 대한 설명도 끊임없이 할 것이다.¹⁰⁾ 만약 금년도 수업도 필자의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학습자들의 학습 만족도는 틀림없이 높아질 것이다.

온택트 시대에 살아가는 지금,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 하지만 교수자들이 그들의 필요성을 충족시켜 기존과 차별화된 수업을 진행한다면 수업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틀림없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교수자들은 반드시 학습자와 끊임없는 소통을 해야 하고, 강의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아직까지는 아쉽게도 조사할 집단군이 1000명이 안 되어, 학습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완벽한 콘텐츠 제작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필자는 5월 하순경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예정이다. 유튜브에 관련 강의 영상을 탑재하여 조사대상을 넓히면, 조사대상이 지금보다 훨씬 넓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학습자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 바를 알게 되어, 온택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 도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와 효율적인 교수학습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표면적으로 오류가 있어보이지만 정상적인 문장들에 대한 실례와 교수학습 방안에 대해서는 생략하였다. 실제 투고 논문에는 언급할 예정이다.

【어학분과 I】 발표 ③

《诗经》中“AA型”叠词的韩日译注对比

— 以《诗经谚解》和《新译汉文大系·诗经》为中心

韩 一* · 金炫兑**

【目 录】

1. 绪言
2. 先行研究和方法
 - 2.1. 先行研究
 - 2.2. 研究方法
3. “AA型”叠词日韩翻译对比
 - 3.1. “AA型”叠词在《诗经·国风》中的分布概况
 - 3.2. “AA型”叠词的类型
 - 3.3. “AA型”叠词日韩译读的差异
4. 结论

1. 绪言

在中国古典文学史上，经常会提起《诗经》。《诗经》是中国最古的诗歌总集，收录了西周初年至春秋中叶(公元前11世纪到公元前6世纪)的诗歌，总共有311篇，其中6篇只有篇名并无内容。《诗经》最早称为《诗》，汉武帝推崇儒家思想，并把《诗》《书》《礼》《易》《春秋》作为儒家经典，合称为“五经”，始称《诗经》，并流传至今。汉代初期，《诗》学盛行，最早有鲁诗(申培公所传)、齐诗(轅固生所传)、韩诗(韩婴所传)，称为“三家诗”，但都已经失传。现在的《诗经》是指战国末年时，鲁国毛亨和赵国毛萇所辑和注的古文《诗》，也就是“毛诗”。“毛氏对《诗》的注解称作“传”，东汉的郑玄集“三家诗”和“毛诗”四家之学，对《毛传》进行了注解。到了唐代，以加了“郑笺”的毛诗为底本，孔颖达又加了“疏”(正义)，至此的注释系统得以形成，后世对《诗经》的理解皆是以此为基准的。

中国的儒家思想，对邻国的韩国和日本影响深远，《诗经》作为儒家经典之一，也是历代韩国和日本的文人墨客的必读书籍。《诗经》亦是一部文学著作，书中多使用叠字叠词¹⁾的手法，表情抒意。本研究

* 第一作者。釜庆国立大学中国学科博士课程(hanichi_hy@naver.com)。

** 通讯作者。釜庆国立大学中国学科教授(dochtkim@pknu.ac.kr)。

1) 又称作“重言”，是汉语中类叠的修辞手法，叠字是由两个或以上，字形和字意都相同的汉字重叠在一起，组成的词语。

结合《诗经》的特性，着眼于韩日两国对《诗经》的读解问题，从语法上，以《诗经》中“AA型叠词”为研究对象进行调查分析，从语言学的角度探讨韩日两国对《诗经》的读解差异。

关于《诗经》的分类有“四始六义”之说。

四始:《风》《大雅》《小雅》《颂》四篇列首位的诗。

六义:“风”、“雅”、“颂”²⁾、“赋”、“比”、“兴”³⁾

这里的《风》又称《国风》，共160篇。《国风》是带有地方色彩的民间歌谣，被普遍视为《诗经》中的文学精华部分，后人将其与屈原的《离骚》并称为“风骚”。《雅》共105篇，分为《大雅》31篇和《小雅》74篇。《小雅》为宴请宾客之音乐。《大雅》则是国君接受臣下朝拜，陈述劝戒的音乐。《颂》是贵族在家庙中祭祀鬼神、讚美统治者功德的乐曲，在演奏时要配以舞蹈，也可以专指宗庙祭祀用诗歌，又分为《周颂》、《鲁颂》和《商颂》，共40篇。其中《周颂》31篇，《鲁颂》4篇，《商颂》5篇。本研究截取《诗经》以其出现的“AA型”叠词为研究对象，从语法、句法等方面比较分析韩日两国读解《诗经》的异同。本稿就《诗经·国风》中的《周南》(11篇)和《召南》(14篇)中出现的“AA型”叠词进行考察分析。

2. 研究背景和方法

2.1 先行研究

《诗经》，作为儒家经典“五经”，可见其重要的地位。自古以来，对《诗经》的研究从来都没有间断过，在中国，还将对《诗经》的研究统称为“诗经学”。近年来，对《诗经》中的叠词相关的研究层出不穷。景圣琪(2000)，对《诗·秦风·蒹葭》中“苍苍”、“凄凄”、“采采”进行了调查分析，就这三个叠词的所表达的含义，提出其应分别训释为“灰白迷茫貌”、“浸湿流淌貌”、“光彩鲜明貌”，三个叠词分别形容的是蒹葭在不同的时间环境里所呈现出来的三种不同状貌的观点。张富翠·余庆(2007)指出，《诗经》中的叠词不仅体现了其灵活多变的语法功能，而且极大地增强了《诗经》的艺术表现力。并且分析出了叠词的运用，使《诗经》中的人物形象更鲜明，更好地描写事物，有助于更好地表达情感，对诗歌的韵律产生影响，使音韵更和顺，有余音绕梁的功效。姜守阳(2007)，贾娟(2019)分别从《诗经》中叠词的应用和作用方面进行了考查研究。近年来《诗经》中叠词的翻译相关的论文，都是《诗经》中叠词英译相关，没有日韩翻译相关的研究。王纪红(2011)从翻译的美学出发，提出翻译《诗经》中的叠词，需要准确地表达叠词的意美、音美、形美。茆蕾(2012)以《诗经·国风》为例，提出在关联理论下，以最佳关联为准则进行形与意的取舍，在译语文本中既不强化也不弱化原文的关联度，可以帮助译者更好地还原原文。王闽汕(2015)，在处理叠词翻译时，应在求真的基础上求美，除了直译外，还应采用意译或直译意译结合，达成《诗经》对审美的追求。

近年来，《诗经》中叠词的相关研究主要是对叠词本身的应用、作用等方面进行的，鲜有从语言学的角度分析的论文。外国语翻译相关的研究则是以英语为主，《诗经》中叠词而言，韩日翻译相关的研究极少。本研究就从语言学的视角出发，就韩语日语如何翻译注释《诗经》中叠词的问题进行对比和讨论。

多是拟声拟态词。常用在诗歌中，使表达的意象更精准，并能增加诗歌的音韵之美。

2) “风”、“雅”、“颂”是按音乐的不同对《诗经》的分类。

3) “赋”、“比”、“兴”是《诗经》的表现手法。

2.2 研究方法

本稿以《诗经》中出现的叠词为考察对象，对韩中日三国的注解进行比较，主要从语法方面进行比较，以了解韩日两国如何读解《诗经》，以及三国读解上的差异。具体的研究方法如下所示：

1. 主要利用的调查底本(研究资料)：《毛诗郑笺》(中国)、《诗经谚解》(韩国)、《新译汉文大系·诗经》(日本)。

《毛诗郑笺》

在前文已有说明，这里不作多赘述。郑玄兼采齐、鲁、韩三家诗说，融入三礼的观念解诗，把诗与伦理观念结合在一起，是后世读解《诗经》的官方教本。韩国和日本的《诗经》译注书籍也多是以《毛诗郑笺》为底本的。因此，本研究将此书作为中国译注《诗经》调查底本。

《诗经谚解》

谚解是指，在朝鲜时代，将用汉文写成的文章，再用韩语直译注解。本研究使用的《诗经谚解》是韩国中央研究院的电子藏书阁(디지털 장서각)公开数据。

这本《诗经谚解》刊行于朝鲜时代纯祖20年(1820年)，是木板印刷而成的线装本，总共20卷7册。本书是受宣祖(1552~1608)之命，由校正厅于1585年(宣祖18)~1593年(宣祖26)之间对《诗经》进行的谚解，但是未能刊行。《诗经谚解》有多个版本，本研究使用的《诗经谚解》是纯祖20年(1820年)用庚辰新刊内閣藏板刊行而成的。

《新译汉文大系·诗经》

《新译汉文大系》是日本明治书院出版的网罗中国古典的“汉文大系”。对到宋代为止的中国著名的思想、历史、古典作品进行了完整的翻译和注解。《新译汉文大系·诗经》由石川忠久译注，分为上中下三本，分别于1997年、1998年、2000年出版发行。这部书对《诗经》进行了详细的注解，并在原文的基础上附有汉文训读的汉字假名混用文⁴⁾，另外还有日语现代文翻译。这部书是对《诗经》注解全面而准确，因此选为本研究的调查底本。

2. 本稿的调查对象是《诗经·国风》106篇诗歌中出现的“AA型”叠词。先在《诗经·国风》中找出所有“AA型”叠词。再从《毛诗郑笺》中，截取这些叠词的注解。接着从《诗经谚解》、《新译汉文大系·诗经》中分别找出相对应的韩日读解信息(汉文训读和翻译)。本稿将上述信息，整和录入在微软公司的Excel软件中。整和的数据界面如下图所示。

3. 最后根据完成的数据资料，结合词性、语义、句法等分析韩日两国在译注《诗经》中的“AA型”叠词的差异。并得出结论。

4) 書き下し文：训读汉文，用日语的语序加上假名来写成的文章。

<图1> 比较数据

AA叠词	出处	《毛诗郑笺》	《诗经译解》训读文	《诗经译解》翻译	《汉文大系·诗经》	《汉文大系·诗经》翻译
關關	周南·關雎	和聲也。	관관	관관하난	くわんくわんたる	クワン、クワンと鳴く
萋萋	周南·葛覃	茂盛貌。萋萋萋然喻其容色美盛。	저저이어늘	저저하거날	せいせいたり	つややかに繁る。
啾啾	周南·葛覃	和聲之遠聞也。	게게러라	게게 하더라	かいかいたり	チ、チ、チと嘯りあう
莫莫	周南·葛覃	成就之貌。	마마이어늘	마마 하거날	ばくばくたり	こんもりと繁る
采采	周南·卷耳	事采之也。	채채	케머케요	とりとる	つんでもつんでも
誼誼	周南·蠡斯	眾多也。	선선혜니	선선하니	しんしんたり	誼誼(せんせん)とにぎわしい
振振	周南·蠡斯	仁厚也。	진진혜다로	진진홀이맛당하도다	しんしんたり	振振(しんしん)とにぎわしく
薨薨	周南·蠡斯	眾多也。	홍홍혜니	홍홍하니	こうこうたり	薨薨(こうこう)ととびまわる
繩繩	周南·蠡斯	戒填也。	승승혜로다	승승홀이맛당하도다	じょうじょうたり	繩繩(じょうじょう)ととぎれなく
揖揖	周南·蠡斯	會聚也。	집집혜니	집집하니	しふしふたり	揖揖(しゅうしゅう)とむれあつまる
蝻蝻	周南·蠡斯	和集也。	집집혜로다	집집홀이맛당하도다	しふしふたり	蝻蝻(しゅうしゅう)と和み集まりて
天天	周南·桃夭	其少壯也。	요요이여	요요홀이여	えうえうたる	わかわかしく
灼灼	周南·桃夭	華之盛也。	작작	작작한	しゃくしゃくたる	赤々と
蓁蓁	周南·桃夭	至盛貌。有色有德形體至盛也。	진진이로다	진진하도다	しんしんたり	青々としげる
肅肅	周南·兔置	敬也。	숙숙	숙숙한	しゆくしゆくたる	しっかりと
丁丁	周南·兔置	椽杙聲也。	정정이로다	정정히하듯다	たうたうたり	トーントーンと
赳赳	周南·兔置	武貌。	규규	규규한	きうきうたる	たくまし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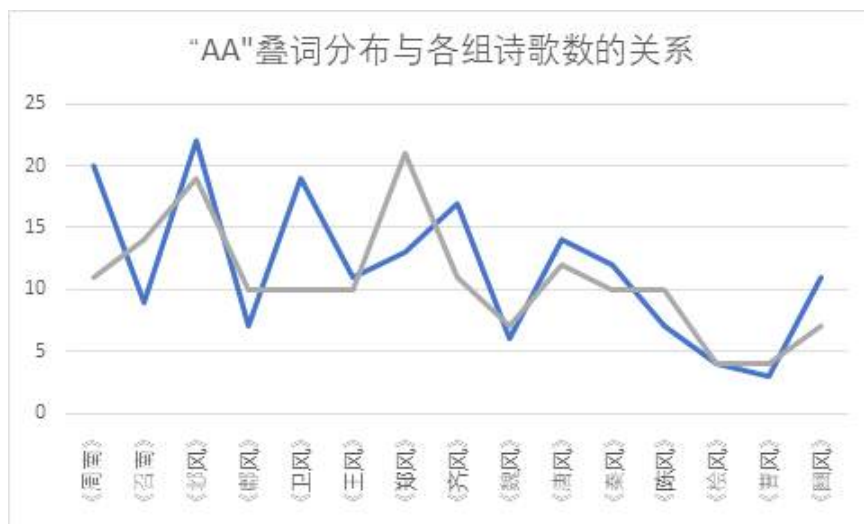
3. “AA型”叠词日韩译注对比

3.1 “AA型”叠词在《诗经·国风》中的分布概况

本研究中，“AA型”叠词，同一篇诗歌中，重复使用的叠词只计算一次⁵⁾。在《诗经·国风》15组，共160篇诗歌中有175个“AA型”叠词。其中，有124个词只出现过1次。而剩下52个次都是在诗歌中出现过2次以上。160篇中使用最多的“AA型”叠词是“悠悠”，一共出现了8次，分别出自《邶风·终风》、《邶风·雄雉》、《邶风·泉水》、《邶风·载驰》、《王风·黍离》、《郑风·子衿》、《唐风·鸛羽》、《秦风·渭阳》。“采采”一词出现了4次，分别是出自：《周南·卷耳》、《周南·芣苢》、《秦风·蒹葭》、《曹风·蜉蝣》。“振振”一词出现了3次，分别是出自：《周南·蠡斯》、《周南·麟之趾》、《召南·殷其雷》。其余重复出现的叠词都只出现了2次。

《诗经·国风》中共有15组诗歌，按组分类，各组诗歌数目和“AA型”叠词出现频率如下图所示。另附上线性图，以分析两者之间的关系。

<图2> “AA型”叠词分布与各组诗歌数的关系。



5) 同一诗歌内出现的“AA型”叠词意思用法读音都相同，因此本研究只计算一次。

由上图可知,虽然“AA型”叠词的数量和各组诗歌数相差不大。也就是说诗歌数量多的组,“AA型”叠词的数量也多,但是也有例外,如<周南>、<卫风>和<郑风>差距比较大。至于造成这种分布的原因,还需要根据诗歌的内容进行更仔细的考察和分析。

3.2 “AA型”叠词的类型

本研究根据注解,将《诗经·国风》中“AA型”叠词分为三类。

- (1) 拟声词
- (2) 拟态词
- (3) 动作重复

拟声词又叫象声词,用来描摹事物的声音。

<周南-關雎>中的“關關”就是一个典型的拟声词。《毛诗郑笺》、《诗经谚解》、《新译汉文大系·诗经》的注解翻译如下:

- 《毛诗郑笺》:和聲也。
- 《诗经谚解》
训读文:관관
翻译:관관하난
- 《新译汉文大系·诗经》
训读文:くわんくわんたる
翻译:クワーン、クワーンと鳴く

拟态词,描摹事物的样态。这类词在《诗经》中也很常见。如<周南-葛覃>中“萋萋”一词

- 《毛诗郑笺》:茂盛貌。葉萋萋然喻其容色美盛。
- 《诗经谚解》
训读文:처처이어늘
翻译:처처하거날
- 《新译汉文大系·诗经》
训读文:せいせいたり
翻译:つややかに繁る

动作重复,这类词在《诗经》中很罕见,但是仍有存在。如<周南-卷耳>中的“采采”。

- 《毛诗郑笺》:事采之也。
- 《诗经谚解》
训读文:채채
翻译:케머케요

- 《新译汉文大系·诗经》
训读文: とりとる
翻译: つんでもつんでも

《诗经·国风》中出现的175例“AA型”叠词都属于以上三种类型。

3.2 “AA型”叠词的中韩译读的差异

韩国和日本都深受中国文化的影响。古代用汉字写的书籍直接传入韩国和日本，但是着两国的语法和中文差别很大。主要的两个特征是动词形容词等体言会在词尾产生变化，并且词与词之间有时候需要助词连结，另外与中文不同，韩语和日语的谓语是放在最后的。所以古人为了读解汉文，韩国出现了吏读，日本则有汉文训读。参考资料中在翻译之外还记有这两种训读文(本稿统称训读文)，并分开讨论。

A. 训读文

- 日语的汉文训读文中，所有拟声拟态词都是“AA+たる”的形式出现，这里的“AA”全部都是汉字的日语音读。而动词重复类的叠词，如〈周南·卷耳〉中的“采采”，则是日语动词“とる”的读音。
- 韩语的训读文中“AA”全部都是汉字的韩语音读。后面的词会根据想表达的情感，还有在句中的位置情况而改变。周南·卷耳〉中的“采采”，是汉字的音读“채채”。

B. 翻译文

- 韩语的训读文中“AA”全部都是汉字的韩语音读。这一点来看不能算是彻底的翻译。后面的词会根据想表达的情感，还有在句中的位置情况而改变。这一点和训读文一致。但是翻译文中的韩语在语法上更符合当时语言习惯。因为是诗歌，在翻译时有更多表达情感的感叹用法加入。
- 日语的翻译文中不再直接使用汉字与其读音，而是用日语固有的表达来翻译替换。从这一点来看，比韩语的翻译更彻底。但是日语的翻译没有完全掌握《诗经》作为诗歌的精髓，在翻译的时候对情感的表达比较欠缺，译文显得平淡寡味。

4. 结论

本稿利用《毛诗郑笺》、《诗经谚解》、《新译汉文大系·诗经》对《诗经·国风》中出现的“AA型”叠词进行了考察探讨，得出的结论如下：

- 《诗经·国风》中出现的“AA型”叠词的数量和各组诗歌数相差不大。并且可知“AA型”叠词的数量随各组诗歌数变化而变化，变化幅度基本一致。〈周南〉、〈卫风〉和〈郑风〉变化差距大的原因还需要结合诗歌内容进行考证。
- 《诗经·国风》中“AA型”叠词分为拟声拟态和动作重复三类。
- 在读解《诗经》时，韩语资料中无论是训读文还是翻译文对“AA型”的叠词全部就汉字音读，根据句子的情感和词在句中位置不同，后接词句不同。而日语资料中，拟声拟态词在训读文全部音读+たる，动

词重复类则使用该动词的日文发音。训读文词后无多余变化。翻译文则主要意译，将“AA型”的叠词译成日语中的固有词汇。整体来说日语的翻译比较平淡。

本研究还在进行之中，本稿的例文仍不够完善，还需要不断改进。

【参考文献】

- 高田真治，《漢詩大系 第一卷 詩經（上）》 集英社（1966）
- 宮武利江，〈漢語オノマトペの日本語における受容と変化—日本語史的観点からの調査から・共同研究中間報告として—〉 《文教大学大学院言語文化研究科紀要》（2015）
- 贾 娟，〈浅析《诗经》中叠词的应用〉，《中国民族博览》，2019(08)
- 姜守阳，〈浅析《诗经》中叠词的作用〉，《辽宁师专学报(社会科学版)》，2007(02)
- 景圣琪，〈《诗·秦风·蒹葭》叠词义辩〉，《苏州大学学报》，2000(04)
- 劉 玲，〈漢語オノマトペの受容に関する研究—AA（ト）型の語の意味変化を中心に—〉 筑波大学博士（言語学）学位請求論文（2004）
- 茆 蕾，〈关联理论框架下《诗经》中叠词的英译研究——以《诗经·国风》为例〉，《长江师范学院学报》，2012(09)
- 石川忠久，《新訳漢文大系 第110卷 詩經（上）》 明治書院(1997)
- 石川忠久，《新訳漢文大系 第110卷 詩經（中）》 明治書院(1998)
- 《毛詩鄭箋 上》汲古書院（1992）
- 王闽汕，〈从美学角度看《诗经》中叠词的翻译〉，《武夷学院学报》，2015(10)
- 王纪红，〈论《诗经》中叠词的英译〉，《怀化学院学报》，2011(01)
- 张富翠·余 庆，〈叠词在《诗经》中的艺术功用〉，《西昌学院学报(社会科学版)》，2007(03)
- 디지털 장서각 http://jsg.aks.ac.kr/dir/view?dataId=JSG_K1-37 (시경언해)
- 中国哲学书电子化计划简体字版:<https://ctext.org/book-of-poetry/zhs>

【어학분과 I】 발표 ④

온라인 기반 중국어 교수법 개발 연구 — 원어민을 활용한 블렌디드 수업 설계에 관하여

한희창*

【목 차】

1. 서론	3. 연구내용
2. 연구대상	4. 참고문헌

1. 서론

2020년 코로나19는 우리의 모든 일상에 큰 변화를 안겨주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교육계는 가상 공간인 온라인상에서 교육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의 교육은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으나, 그 규모와 접근성은 사뭇 다르다. 현재 대학에서 진행되는 전면적인 온라인 수업은 마치 교육의 질이 떨어짐을 감수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선택되어진 방식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으로의 변화가 교육의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한 상황이기엔 현재로서는 그 효율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일정부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온라인 교육으로의 저변 확대는 어떤 의미에서 교육의 무한한 발전을 가능하게 해준다고도 할 수 있다.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접촉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교수법과는 달리 온라인 수업은 기존의 교실 수업이 지니는 폐쇄적이고 주입적인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인터넷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어디에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인터넷기술을 이용한 형태로 개발 발전되었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말 이러닝 보급을 시작으로 엠러닝(모바일러닝)¹⁾, 유러닝(유비쿼터스 러닝)²⁾, CMC기반 언어교수법³⁾,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플립드러닝(flipped learning) 등 다양한 형태의 교수모형으로 발전되어왔다.

코로나 19를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온라인 강좌로 전환되어 수업을 진행했던 지난 1년은 교사나 학생이나 서로의 부족함과 익숙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한 혼란들이 어느 정도 이해되

* 한양대학교(ERICA) 중국학과 부교수 (lizi2002@naver.com)

1) 엠러닝(mobile-learning) 휴대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이동시에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즉, 위치에 제약을 받지 않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전자 학습
 2) 유러닝((Ubiquitous learning) 유비쿼터스 환경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시간, 장소, 환경 등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형태이다.
 3) CMC(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기반 언어학습 - 전자메일, 게시판, 채팅, 토론방, 과제방, 자료실 등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

어지면서 이러닝과 유사한 형태로 강좌가 진행되었으나, 실상은 대부분 오프라인 강좌를 그대로 온라인 상에 옮겨 놓는 형태여서 학습효과가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했다. 우리 모두가 온라인 강좌를 진행해야 하지만 온라인 강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온라인 강좌로서의 콘텐츠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학교현장으로 돌아가 대면 수업이 진행 가능해 진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이전 환경으로 복귀되지는 않을 것이다. 코로나 이전에도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교수법이 개발되어져 왔고,유비쿼터스 환경을 기반으로 한 학습자 중심 학습법의 효과가 다수의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게다가 각 급 학교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온라인 학습 환경을 구축해 왔기에, 상당부분이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어 교육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대면 교육이나 전형적인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에 의존하는 교수방법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교수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학교육에 있어 온라인 환경이 주는 특성을 활용한 블렌디드러닝을 설계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대상

웹 기반 학습이 시작된 2000년 대 이후 활발히 사용되기 시작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의 개념은 초기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혼합을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학습 목표나 내용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다양한 학습방법과 도구, 기술, 학습 전략을 활용하여 학습 환경을 최적화하고 학습 경험과 업무과제의 통합을 시도하는 전략적 학습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⁴⁾

몇 년 전부터 본 연구자는 중국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 현지에 있는 대학생들과 연결시켜주고 문자나 메일 등 CMC기반⁵⁾ 상호작용을 통해 교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에게 중국인 친구가 있다는 점은 그들의 학습에 매우 긍정적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지만, 이 같은 CMC기반 1대1 교류는 일부 실력이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은 마음과 달리 이를 십분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었다.

중국현지에서라면 자신의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배우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1대1 친구 맺기는 전적으로 나의 의지와 실력에만 의지해야 하기에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학생들에게는 매우 빠른 실력향상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듯했다. 중국어를 배우면서 바로 중국인과 소통해 볼 수 있다면 중국어 실력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졌음에도 전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역량에만 의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였다. 때문에 우리 학생들과 중국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좀 더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코로나가 발생하고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모두가 그렇듯이 매우 당황스러운 현실이었으나 그렇게 맞이한 온라인 환경에서 우리는 한국학생과 중국학생이 만날 수 있는 공간과 방법을 찾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우리 학생들이 중국어를 배우는 공간으로 중국학생들을 직접 초대하는 방법을 생각

4) 남정권(2011:17) 재인용

5)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CMC)

하였고, 수업의 한 과정으로 진행된다면 일정부분의 통제가 가능하기에 학습자들이 처음 불편하고 어색한 단계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기존에 1대1 친구 맺기로 교류하던 중국의 모 대학에 의견을 전하여 중국학생들을 초대할 날짜와 시간 참여인원을 공지해서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우리 학생들과 교류하는 방안을 상의하였고, 중국학생들 역시 매우 흥미로워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받아 이를 추진하였다. 중국학생의 입장인원은 한국학생 수와 1:3 또는 1:4의 비율로 요청하였고, 활동시간은 약 40분가량으로 시간은 우리의 수업 중 후반부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대략 2-3주에 한번 정도 활동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공지를 하고 최소 필요인원이 충원되면 활동을 진행하고 최소인원이 충원되지 않는 경우 진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이렇게 해서 지난 학기 총 19명의 중국인 학생이 우리학교 초급(24명) 및 중급(29명) 중국어 강좌에 최소 1회에서 최대 4회 가량 입장하여 한국학생들과 교류하였다.

3. 연구내용

초급 과정은 6-8명의 중국학생이 입장하도록 계획하였고, 중급과정은 7-9명의 중국학생이 입장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초급 과정은 4회차 활동을 진행하였고, 중급과정은 총 3회 활동을 진행하였다.

먼저 사전에 검토해야 할 몇 가지 항목들이 있었는데 이는 해외, 특히 중국학생들이 입장 가능하도록 세팅하는 것이며, 팀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국학생들이 입장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줌에서 오디오 유형에 전화가 선택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컴퓨터 오디오만 설정해야 한다. 학교에서 줌을 세팅해 줄 때는 전화와 오디오를 모두 사용하도록 세팅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해외 접속이 어렵다.

소그룹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소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상호 이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국학생들은 이름을 한국어 중국어로 변경하고, 중국학생들은 중국어와 병음자모로 변경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자는 참가자가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미리 세팅해 두어야 한다. 소그룹 분류는 자동으로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한 회의실에 중국학생이 여러 명 포함되거나 전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수동으로 그룹을 나누어야 한다.

활동에 앞서서 수업에 입장하기로 한 학생들과 위챗 단체방을 개설하였고, 그들에게 우리 학습자의 대략적인 수준과 어떤 질문들이 가능한지 등을 설명하고, 한국학생들이 못 알아듣는 경우 채팅창에 문자로 써주는 방식을 활용하도록 요청하였다.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에게도 중국인과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본적인 표현들——천천히 말해주세요, 다시말해주세요, 써주세요 등등——을 알려주고, 사전과 번역기의 사용도 가능하니 최대한 소통을 진행하도록 요구하였다.

첫 번째 활동은 세팅의 문제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는데, 중국학생들과 사전에 줌 회의실에서 만나서 점검을 했음에도 학교에서 마련한 회의실과 세팅이 달라서 소그룹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고, 중국학생들의 인사 등을 통한 청취훈련만이 가능했다.

시스템 적인 문제가 해결 된 후에는 나름대로 계획된 활동이 진행 가능했으며, 각 활동이 종료된 후 한국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그들의 의견을 다음 활동에 반영하여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원어민 튜터를 활용한 교수법의 활용가능성과 효과에 대해 탐색하고자

설계되었기에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그럼에도 양측 학생들 모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설문조사는 4개의 객관식 문항과 5개의 주관식 문항으로 설계하였다.

1. 중국인과의 온라인 회화 체험은 매우 흥미로운 활동이었다
2. 이 활동은 나의 중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3. 나는 본 수업에서 이러한 활동을 다시 한 번 진행하길 원 한다
4. 본 활동에 참여한 튜터(중국인)의 중국어 발음은 표준 발음 이었다
5. 만약 이 활동을 다시 진행한다면 몇 번 정도 더 진행하기를 원하나요?
6. 만약 이 활동을 다시 진행한다면 1회 진행시간은 몇 분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나요?
7. 대화에 참여하는 원어민: 한국인의 적정 비율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원어민: 한국인)
8. 본 활동에서 좋았던 점을 적어주세요
9. 본 활동에서 아쉬웠던 점을 적어주세요

1학년 수업에서의 1차 실습 후 조사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우그렇다	그렇다	그저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번(흥미)	n	6	8	2	2
	%	33.3	44.4	11.1	11.1
2번(도움정도)	n	2	7	6	3
	%	11.1	38.9	33.3	16.7
3번(재참여의지)	n	7	6	2	3
	%	38.9	33.3	11.1	16.7
4번(원어민발음)	n	6	8	2	2
	%	55.6	22.2	22.2	

1차 실습 후 학생들은 원어민과 대화를 한다는 것에 대해 매우 긴장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했으나 실습 결과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초급과정이다 보니 대부분 실력이 부합되지 않아서 원어민과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고, 일부 잘하는 학생들이 대화의 주도권을 갖게 되거나, 일부 학우들이 전혀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에 대한 불편한 상황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어민 친구들도 첫 교류에 다소 긴장하기도 해서 대화가 되는 친구들 위주로 소통을 하는 단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2차 실습 때는 원어민 학생들과 미리 소통하여 수업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며 어떤 방법들이 권장할 만한 방법인지 등에 대해 알려 준 후 2차 실습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만족도는 좀 더 향상되었다.

2차 실습 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우그렇다	그렇다	그저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번(흥미)	n	17	5	1	
	%	73.9	21.7	4.3	

2번(도움정도)	n	12	10	1
	%	52.2	43.5	4.3
3번(재참여의지)	n	12	5	6
	%	52.2	21.7	26.1
4번(원어민발음)	n	21	2	
	%	91.3	8.7	

2차 실습결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는데, 1차 실습 후 원어민 참가자들에게 발음을 보다 정확하고 조금 천천히 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덕에 원어민의 발음에 대한 반응도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디오를 켜고 활동한 조의 반응이 더욱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본 실습에서 교사는 비디오를 켜도록 권장하였으나 줌이 아닌 교내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는 학생들이 비디오를 켜지 않기 때문에 이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줌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에서도 비디오를 잘 켜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학기 초에 비디오를 켜도록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 같은 활동은 또 다른 그룹인 2학년의 어학 수업에서도 진행하였는데, 그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우그렇다	그렇다	그저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번(흥미)	n	12	8	4		
	%	50	33.3	16.7		
2번(도움정도)	n	10	7	5	2	
	%	41.7	29.2	20.8	8.3	
3번(재참여의지)	n	10	7	4	3	
	%	41.7	29.2	16.7	12.5	
4번(원어민발음)	n	15	7	2		
	%	62.5	29.2	8.3		

1차 실습에서 2학년 학생들의 만족도는 1학년 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났는데 언어실력이 높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기본적인 소통을 할 수 있었고, 원어민과의 만남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흥미롭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2학년 그룹의 2차 실습의 만족도는 1차 실습 때 보다 낮았는데, 2학년 학생들의 2차 실습이 중간고사와 가까운 시기에 진행되었고, 원어민 참여자 중 갑작스런 결원이 생기는 등 변수가 있었던 것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또한 원어민 발음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 것을 볼 때 매 회 동일한 학생이 입장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원어민 참여자의 역량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차 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매우그렇다	그렇다	그저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번(흥미)	n	7	10	6		
	%	30.4	43.5	26.1		
2번(도움정도)	n	7	10	6		

	%	30.4	43.5	26.1	
3번(재참여의지)	n	6	4	12	1
	%	26.1	17.4	52.2	4.3
4번(원어민발음)	n	10	10	3	
	%	43.5	43.5	13	

2학년의 실습은 수강생의 수가 많고 수업시간대의 특성상 참여가능한 원어민의 수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학생들 간의 실력 차가 커서 대화의 쏠림현상이 좀 더 크게 나타나는 듯 했다. 때문에 실습환경이 고르지 못하고 팀의 인원 배정도 균등하게 할 수 없었기에 운영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상대적으로 1학년의 활동은 대체로 균등한 환경 속에서 진행 가능하였고 이후 몇 차례 추가적인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마지막 실습이 끝난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학생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만족도 조사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인과의 온라인 회화 체험은 매우 흥미로운 활동이었다
2. 이 활동은 나의 중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3. 나는 이후 다른 어학수업에서도 이러한 활동이 진행되길 원 한다
4. 원어민과 교류하는 활동이 포함된 교과목이 있다면 나는 수강신청을 할 것이다.

		매우그렇다	그렇다	그저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번(흥미)	n	11	7	3		
	%	52.4	33.3	14.3		
2번(도움정도)	n	12	5	4		
	%	57.1	23.8	19		
3번(다른 과목에서 원함)	n	10	8	3		
	%	47.6	38.1	14.3		
4번(수강의지)	n	12	5	4		
	%	57.1	23.8	19		

학생들은 이 같은 활동이 여타 어학 수업에서도 진행되길 원했으며, 해당 교수법을 활용하는 수업을 신청하고 싶다는 의견도 많았다.

본 연구자는 점심시간이나 공강 시간에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서 본 활동에 참여했던 원어민 참여자들의 반응이 더더욱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휴식이 되었건 또 다른 어떤 활동이 되었건 간에 오롯이 자신을 위해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쪼개어 우리의 학습활동에 참여해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학기 총 18명의 학생이 본 연구자가 진행하는 두 개 반의 수업에 참여하였고, 그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문항은 아래 5개 질문과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 건의사항 등을 주관식으로 적도록 하였다.

1. 我觉得这个活动很有趣(이 활동은 매우 흥미로웠다)
2. 有机会的话, 我还愿意参加这个活动(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하고 싶다.)
3. 我觉得这样的活动是浪费时间的(이 활동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4. 这样的活动对我的专业学习有帮助(이 활동의 나의 전공공부에 도움이 된다)⁶⁾
5. 我觉得参与这样的活动对下一年级的学生值得推荐(나는 이런 활동이 후배들에게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매우그렇다	그렇다	그저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번(흥미)	n	12	6		
	%	66.67	33.33		
2번(재참여 의지)	n	13	5		
	%	72.22	27.78		
3번(시간낭비라고 여감)	n			1	7
	%			5.56	38.89
5번(도움정도)	n	6	11	1	
	%	33.33	61.11	5.56	
6번(추천가치)	n	10	8		
	%	55.56	44.44		

원어민 참여자들은 대체로 이 활동에 상당한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 실전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과 한국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매우 흥미롭다는 의견을 주었다. 다만 활동이 우리의 실제 수업시간에 이루어졌기에 그들은 공장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한 것도 있는 것 같았다. 또한 매 회 신청자를 모집해야 하는 부분도 어려움으로 작용하였고, 그들 입장에서는 흥미로운 활동이기는 하나 자신의 시간을 일부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상황들로 인해 신청하지 못했다는 견해도 많았다. 이런 부분이 본 교수법이 제도적 도움과 교과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다.

【참고문헌】

김경선·정유지(2009), 「공학에서 봉사학습 프로그램 운영 전략 모색」, 『한국공학교육학회』 12(2).
 김동희·최성우(2011), 「블렌디드 러닝 기반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교육프로그램 모형 개발을 위한 실태」, 『평생교육·HRD연구』 7(1).
 김은영·유숙영(2008), 「봉사-학습이 대학생의 지역사회참여의식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 『교육학연구』 46(4).
 김은영·유숙영(2009), 「봉사 학습이 여자대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지역사회참여의식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47(3).
 김지영(2017), 「대학의 봉사학습 프로그램 운영 모형 개발 연구」. 『교육문화연구』 제23권 제1호.
 남정권(2011), 「블렌디드 수업 설계 전략」 한국학술정보(주)

6) 참여한 학생들은 한어국제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이었다.

- 박혜자(2020), 「비대면 시대 온라인 수업 현황과 발전 방향」, 『KISO저널』 Vol.40,35-38
- 서상범(2011), 「교실수업에서 온라인 기반 러시아어 교수법」, 『동북아문화연구』 제29권,75-88
- 서울여자대학교 교수·학습연구원(2011), 『대학교육과 Service-Learning』, 서울: 서울여자대학교.
- 서은희(2009), 「봉사-학습이 예비 여교사들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교육심리연구』 23(1).
- 서은희·유숙영(2011), 『Service-Learning 세상과 함께 내가 자라는 학습법』, 서울: 서울여자대학교.
- 서정연(2018), 「프랑스어 전공 교육과 서비스-러닝」, 『인문논총』 32.
- 손성호(2011), 「Blended Learning을 활용한 독일어 수업」, 『독일어문학』, 54.
- 손승현·나경은·문주영·서유진(2011), 「봉사학습을 통한 예비교사의 교육현장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분석」, 『교육방법연구』 23(3).
- 우종정·김보나·이옥형(2009), 「대학에서 비대면 수업 대안으로서의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연구」,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7(2),219-225
- 원미순(2003a), 「대학생의 봉사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원미순, 박혜숙(2008), 「전공연계 봉사-학습의 효과에 관한 실험연구」, 『학교사회복지』15.
- 이수범·장성준·장혜경(2012), 「이러닝(e-Learning) 학습자의 학습성취에 미치는 요인」, 『미디어와 교육』,2(1),1-35
- 이정아(2016), 「대학생지식기부 활동을 위한 서비스러닝 운영 사례」,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6, No.8.
- 이재성(2012), 「의사소통 관련 교과목과 연계한 서비스 러닝 수업 모델 개발 연구」, 『인문논총』 24.
- 이혜정·최경애·김세리·홍성연·홍영일(2010), 「대학 이러닝 운영을 위한 개념체제:구조와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아시아교육연구』 11(2),298-326
- 이혜정·홍영일(2010), 「대학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이러닝 교수법 온라인 콘텐츠 개발」, 『아시아교육연구』 11(1), 67-90
- 이혜진(2013), 「서비스러닝활동에서의 서비스학습 경험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효영(2011), 「Tandem 학습법을 활용한 중국어 교육방안 -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중국언어연구』 35.
- (2018), 「서비스러닝을 활용한 중국어 탄뎀(Tandem) 수업 사례 연구」, 『중국언어연구』 35.
- 임연정(2017), 「대학생의 창의성 및 인성 함양을 위한 중국어교육 방안 시탐」, 『중국학연구』 81.
- 임정훈(2020), 「대학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팀티칭 교수법의 적용 가능성 탐색」, 『교육혁신연구』 Vol.30 No. 3.
- 조용개·김혜경(2019), 「대학에서의 서비스러닝 운영 모델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9 No.11.
- 장경원(2010), 「Service-Learning에 기반한 교육봉사 과목 운영 전략 탐색」, 『한국교원교육연구』 28(3).
- 정기오(2010), 「서비스 활동의 과학·교육·학습 간 상호관계: 서비스사이언스, 서비스교육과정, 서비스 러닝을 중심으로」, 『서비스사이언스』 2010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서비스사이언스학회.
- 정기오·이혜진(2011), 「서비스러닝의 개념, 맥락, 비용-효과」, 『경제교육연구』 18(2),
- 주영주·최성희(2003), 「대학 교육의 질향상을 위한 성공적인 사이버 교육의 운영요소 및 전략」, 『교육과학연구』 33(2), 121-139
- 최윤경(2016), 「중국어-한국어 언어교환 과제의 적용과 평가」, 『언어와 정보사회』 29.
- 하수권(2008), 「Tandem 학습법을 활용한 외국어 교육 방안」,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Vol.23.
- (2017), 「독일어교육에 탄뎀 방식 서비스러닝 적용방법」, 『독어교육』 80.
- 하수권·진광호·이효영·이길연(2017), 「자기주도 외국어학습 시스템 구축 수단으로서의 모바일 탄뎀(Tandem) 소통」,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멀티미디어 언어교육)』 20(2).

【어학분과Ⅱ】 발표 ①

額濟納漢簡의 隸書體 考察

홍영희*

【목 차】

1. 緒論
2. 本論
 - 1) 額濟納漢簡 簡介
 - 2) 漢代簡牘과 額濟納漢簡의 書體
 - 3) 額濟納漢簡의 隸書體
3. 結論

1. 緒論

出土文字는 字書와 같은 文獻文字에 비해, 글자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文字 研究 資料로 쓰이고 있다.

20세기 초부터 現在까지 簡牘의 대량 출토로 인해, 簡牘에 대한 연구는 갈수록 심도 있고 광범위 해졌다.

그중에서도, 이 당시 발굴한 漢 나라 때 簡牘은 居延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굴되었다.

지금까지 居延지역에서 발굴된 簡牘은 발굴 연대에 따라 新,舊簡으로 나누며, 세 차례의 발굴을 거쳤다.

1차 발굴은, 1930년-31년 西北科學 考察團이 발굴한 簡牘등 1만여枚를 居延漢簡이라 하고, 2차 발굴은 1972년-1976년 甘肅省 博物館등을 포함한 居延 考古隊가 발굴한 2만여枚의 簡牘을 居延新簡이라 한다. 3차 발굴은 1999년-2002년 內蒙古 自治區 文物考古研究所와 阿拉善盟博物館 및 額濟納旗 文物所로 조직된 聯合考古學術팀이 額濟納 漢代烽燧유적지에서 조사를 진행하여 발굴해낸 500여枚의 簡牘을 額濟納 漢簡이라 한다.¹⁾

居延漢簡이나 新簡에 비해 21세기 발굴된 額濟納漢簡은 간독의 수가 많지 않고, 발굴장소등도 비슷하지만 書體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本稿의 연구대상은 3차 때 발굴한 額濟納漢簡으로 그중에서도 草書體를 제외한 隸書體

* 강릉원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hyxi@gwnu.ac.kr)

1) 尹在錫, 「額濟納旗 기행과 『額濟納漢簡』簡介」, 『中國古中世史研究』, 第14輯, 2005, p.62.

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전에 발굴한 居延漢簡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本論

1) 額濟納 漢簡의 簡介

1999년에서 2002년까지 內蒙古 自治區 文物考古研究所와 阿拉善盟博物館 및 額濟納旗文物所로 조직된 연합고고학술팀이 발굴한 5百여매의 簡牘을 額濟納 漢簡이라고 칭한다.

이 발굴에서는 簡牘류 외에도 매우 다양한 유물들이 발굴되었고, 그 당시 烽燧에서 활동한 병사들의 방수활동 및 일상생활을 알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발견되었다.

유물의 종류로는 철제 가래를 비롯해서 가래날등의 鐵器로된 農器具와 鐵杆 銅鏃이나 轉射 등, 철제나 목기로 된 兵器 및 곡식을 가공할 때 쓰는 磨棒 磨石과 봉수 점화용의 葦苴 葦刷와 草簾 草繩 草鞋등의 草具의 수량도 많으며, 그 외에 織物 皮革類의 綿衣 麻鞋 皮革鞋등도 발견되었다.

簡牘의 分類方式은 콜론(:)을 주로 쓰고 있는데, 前編號와 後編號로 分類한다. 後編號는 出土品의 고유번호이고, 前編號는 발굴 조사 년대와 봉수명과 발굴조사지점을 의미한다. E는 額濟納旗, S는 烽燧, S앞의 숫자는 봉수 유적번호(예컨대 16S는 제 16燧)를 의미하고 단 CS는 察干川吉烽燧를 의미한다.

또한 발굴 지점을 표시하기 위해, F는 봉수내의 房舍, T는 봉수내의 계단, H는 봉수내의 灰堆, D는 봉수내의 통로를 의미한다. 이들 뒤에 나오는 숫자는 구체적 유적의 단위별 순번으로 제일 뒤쪽 숫자는 출토기물의 순번, 原簡번호 뒤의 A B C는 다면 簡牘의 제 1,2,3면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編號 2002ESCSF1:3A는 2002년 額濟納旗 察干川吉烽燧의 房舍1번 유적지에서 발굴된 제 3면의 木簡의 제 1면이라는 의미가 된다.

額濟納 漢簡에 기재된 연호에 따르면, 이들 簡牘은 宣帝 神爵 3년(BC59년)부터 光武帝(AD26년)까지 제작 사용된 것들로서 기존의 居延漢簡은 漢武帝 太始年間에서 東漢和帝永元年間의 시기보다는 더 짧은 시기에 속하고 차이가 있다.

額濟納 漢簡의 전반적인 내용은 행정 관련 문서와 簿籍류, 律令관련 문서 기타 曆譜 書信 《晏子》 《春秋》와 《蒼頡編》에 대한 殘簡, 醫方殘簡과 數術類簡 人面像簡등이 있다.

이들 내용은 기존의 居延漢簡과 대동소이하지만, 額濟納 漢簡에는 기존 居延漢簡에 나오지 않는 王莽시기의 冊書(26매)와 晏子 春秋 殘簡 및 日迹주등이 포함되어 있고, 기존 居延漢簡에 나오는 烽燧 조직과 律令을 보충하여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다수 포함하고 있고, 군조직 내부의 명령 전달 체계를 입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漢代의 역사나 문자학적인 방면의 매우 중요한 연구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2) 漢代 簡牘과 額濟納 漢簡의 書體

(1) 漢代 簡牘 書體

漢代의 書法은 書法史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隸變을 거친 漢代의 書體중에서도 대량으로 출토된 漢代의 竹木 簡牘은 이 시기의 書法史 변천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자료이므로, 이전부터 좋은 자료로 손꼽히고 있다.

簡牘 書法은 漢代 書法 예술중 하나의 주요한 유형이다. 그러므로 書體, 시대, 사람, 재료, 내용들에 따라서 다른 표현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 서법의 형태는 서사형태와 풍격의 두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서사는 문자 서사의 형태로, 문자의 서사 활동이다. 이러한 서사 형태의 내용은 필기구나 선, 구조, 장법을 포함하고 있다.

風格은 서사 후의 결과로, 서사자와 문화배경과 사회적 지위와도 매우 연관이 깊다. 서사의 풍격 형태는 사람에 따라 매우 다양한 풍격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것은 풍부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어떤 것은 자연적이고 소박하고 실용적이고 고아한 풍격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漢代 簡牘書寫형태와 風格형태 차이의 요소는 주로 재질, 서사자, 서사내용, 서사글자체의 차이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²⁾

簡牘은 한대의 가장 상용되는 서사재료로 간독문자의 변천과정은 특히 예서의 형성 과정을 가장 잘 알 수 있게 해준다.

다른 이 시기의 簡牘書寫재료는 隸書의 출현과 성숙된 과정이 너무나 잘 알려져있다

한대 시기중 특히 고예에서 한예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의 액제납 한간은 居延漢簡과 居延新간과는 달리 21세기 발굴된 한간으로 한간의 수는 적지만 발굴된 뒤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했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성과를 냈다.

(2) 額濟納 漢簡의 書體

額濟納 漢簡의 簡牘시기는 西漢 宣帝 神爵 3년(BC59년)부터 東漢 光武帝(AD26년)까지이므로, 약 80여년간의 문자사용기간이다. 이 시기는 漢代의 隸書가 古隸에서 漢隸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문자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서체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손꼽힌다.

30년대 발굴한 居延漢簡의 간독 년대는 武帝 太始 年間에서 東漢 和帝 永元年間까지이고, 居延漢簡의 年代가 額濟納 漢簡보다 앞서 시작하여 늦게 끝남으로 사용 시기는 훨씬 넓고 광범위하다.

居延漢簡의 書體는 1523자 자형중 隸書가 위주이며 草書는 571개의 글자에 37.49프로를 차지한다. 간혹 楷書의 시작으로 보이는 글자와 더불어 行書체도 자주 출현하고 있다.

額濟納 漢簡의 書體도 草書體가 많지만 隸書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간혹 行書도 나타나지만 많지는 않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額濟納 漢簡의 예서체에 대해서 알아보자.

3) 額濟納 漢簡의 隸書體

許慎은 說文解字 序에서 한자의 발전 맥락을 古文-大篆(史籀)-小篆-隸書로 말한다.

근현대로 오면서 몇몇 학자들마다 약간의 이견은 있지만 隸書 이전에 小篆이 성행했고, 篆書에서

2) 沈利, 『漢代簡牘書法形態研究』, 南京航空航天大學 碩士論文, 2010., 2010.12, p.2.

隸書가 발전되어 왔다는 견해는 모두가 동의한다. 다음에서 몇몇 학자의 의견을 살펴보자.

1. 蔣善國: 大篆-小篆-隸書-漢隸
2. 裘錫圭: 篆書-隸書
草書-行書-眞(行)
3. 王鳳陽: 大篆-草篆-小篆-秦隸-漢隸
4. 潘伯鷹: 小篆-漢隸-楷書
草書
5. 虞世男: 李斯小篆-鄭邕隸書-史游章草-張藝今草-鍾繇眞楷-二王行書

隸書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의견은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隸書가 篆書에서 왔다는 것은 위의 내용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隸書나 혹은 草書등의 글자체는 한번에 생겼다가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글자체가 생기게 되면 그 글자체에는 이전의 새로운 글자체를 자체내에 포함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므로, 글자체가 시작된 시점과 보편적으로 활발하게 성행하여 사용된 시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隸書가 생겨난 시기와 성행하고 쇠퇴되는 시기로 봐서 예서는 일반적으로 初期隸書와 後期 隸書로 나뉜다.

初期隸書를 우리는 古隸라고 칭하며 후기 隸書를 漢隸라고 한다. 額濟納 漢簡은 시기적으로 거의 80여년의 시간에 걸쳐 서북지역의 중하층 관리들이 사용하던 글자로, 早期隸書인 古隸인지 後期隸書인 漢隸인지 혹은 古隸에서 漢隸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문자인지에 대해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시기적으로 西漢末에서 東漢初인 것으로 유추하면 古隸에서 漢隸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문자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므로 다음에서 액제납 한간의 예서의 특징을 살펴보고 거연한간의 예서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額濟納 漢簡의 書體 特徵

1. 筆形의 完城

線과 筆劃은 대표적인 서사 단위이다. 한자가 隸變 시기를 거친 漢代의 문자는 다른 어떤 문자 형태보다 隸變의 흐름을 잘 알 수 있는 글자형태들이 많다. 특히 漢字의 隸變이 篆書에서 隸書로 바뀌면서 線에서 筆劃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선은 篆書의 기본이고 筆劃은 고정적인 형체로 隸書의 기본이다.

裘錫圭는 文字學 概要에서 말하기를 “在從古文字演變爲隸書過程中 字符的寫法發生了更大的變化, 漢字由單純的線條構造變成不同形態的點劃結構.....” 곡선은 직선으로 되어 豎 折 勾등의 筆劃이 되며, 字形은 복잡한데서 간략하게 변하여 篆書의 線의 靜態美에서 隸書의 點 波절등의 筆劃의 動態美를 이루게 된다.

古隸에서 漢隸로 바뀌는 額濟納漢簡 形體의 筆劃은 아래와 같다.

- ① 點: 小篆體의 둥근 선들이 거의 완전히 짧은 筆劃의 點으로 바뀌었다.





母:  (99ES16ST1:1-8) 月:  (99ES16ST1:12) 小:  (99ES16SF2:3-26)

하지만 額濟納 漢簡의 문자중에는 아직도 어떠한 點은 형성이 되지 않았다. 글자에서 豎點은 주로 橫線으로 많이 썼다.





예를 들면 部 言과 같은 글자들이 그 예이다

部:  (99ES16ST1:1-8) 言:  (99ES16ST1:9)

또한 짧은 斜點을 하나의 橫선으로 쓴 예도 있다. 矢와 知와 같은 글자들이 그 예이다.

矢:  (99ES16SF1:3) 矢:  (99ES16ST1:20) 知:  (99ES16ST1:19) 知:  (2000ES7S:4A)

② 撇捺撇(왼쪽 빼침) 捺(오른쪽 빼침)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使, 事, 丈, 又와 같은 글자들이 그 예이다.





使:  (99ES16ST1:14A) 事:  (99ES16ST1:9) 丈:  (2000ES7S:14A) 又:  (2000ES7SF1:88A)

③ 折提: 折提(꺾어서 올리는 筆法)의 筆形도 나타나는데, 必과 外와 完과 같은 글자들이 그 예이다.

必:  (2000ES7S:16B) 外:  (99ES16ST1:1)  (2000ES9SF3:14)

④ 勾: 勾의 筆劃도 이미 完成되었다. 일반적으로 古文字 단계에서는 勾가 없는데, 隸書단계에 와서 생기기 시작한다.

隸書 바로 前段階의 出土文字에도 勾의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行, 奉, 用, 等과 같은 글자들이 그 예이다.

行:  (2000ES7S:16B) 奉:  (2000ES7SH1:18B) 用:  (99ES17SH1:2) 等:  (2000ES9SF3:5)

위의 예로 보아 額濟納漢簡의 문자에서는 대부분의 기본 필획인 橫 豎 點 勾 撇 捺등의 筆劃이 이미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早期 隸書에 속하는 出土文字중 雲夢 睡虎地 文字라든가 長沙 馬王堆의 帛書 문자를 보면 일반적으로 篆書體를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居延漢簡이나 額濟納漢簡의 문자는 隸書의 기본 필형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므로 過渡期 文字이긴 하지만 이미 완벽하게 隸書體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2. 구조적인 특징

① 構件的 混用

기본적으로 소 牛자와 나무 木자는 주로 耂로 사용되었다. 物, 相, 檄과 같은 글자들이 그 예이다.

物:  (2000ES7SF1:79) 相:  (99ES16ST1:12) 相:  (2000ES7SF1:24A)

檄:  (99ES16SF3:1ABC)  (99ES17SH1:2)





② 점획을 橫획으로 길게 사용한 글자들은 酒와 河와 같은 글자들이 이에 속한다.





酒:  (99ES16SF3:2) 河:  (甲99ES17SH1:1)

③ 古文字 舊件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있다.

五:  (99ES16ST1:16) 四:  (2000ES9SF4:13)  (2000ES9SF3:4A)

④ 날 日자 構件을 點劃으로 쓰고 있다.

皆:  (2000ES7S:3A) 皆:  (99ES16ST1:23A) 者:  (2000ES7S:3A) 者:  (2000ES7S:4A)

百:  (2000ES7SF1:3) 百:  (2000ES7SF1:17) 會:  (99ES16ST1:16) 會:  (99ES16ST1:11A)

⑤ 入口자 構件을 點劃으로 쓰고 있다.

名:  (99ES16ST1:9) 名:  (99ES16SD1:3) 君:  (99ES17SH1:23B) 君:  (2000ES7S F2:2B)

⑥ 異體字들이 많지는 않지만 葬 明등의 글자들이 이에 속한다.

葬:  (2000ES7SF1:2A) 明:  (99ES16ST1:14A)

⑦ 몇 개의 筆劃을 連筆인 한 획으로 썼다. 逆, 通, 遷, 追와 같은 글자들이 이에 속한다.

逆:  (2000ES7SF1:25A) 通:  (2000ES7SF1:127) 遷:  (99ES16ST1:15A) 追:  (99ES16S F5:1)

⑧ 構件의 위치가 바뀌었다. 幼자의 실사가 왼쪽에 있지않고 위쪽에 위치한다.

幼:  (2000ES9SF3:1)2 幼:  2(2000ES9SF4:22)200200009SF3:1

3. 書法上的 特徵

許慎은 說文解字 序 말하기를:“是時秦燒滅經書, 滌除舊典, 大發隸卒, 興役戍, 官獄職務繁, 初有隸書以趣簡約, 而古文由此絕矣.” 隸書는 이미 秦나라때 생겨났다.

隸變과정중에는 모두 아직 성숙한 早期 隸書는 아니었다. 동시에 簡牘의 아직 완전한지 않은 글자체를 古隸라고 한다.

古隸는 篆書에서 온 것으로, 篆書의 흘림체이고, 波磔이 명확하지 않지만, 西漢中期的 簡牘이나 帛書의 隸書는 확실히 篆書의 자형이 여전히 매우 많다. 하지만 居延漢簡이나 新簡의 글자에는 전서의 글자체가 매우 제한적이고 매우 적게 나타난다.

西漢 中後期에는 전기의 古隸에서 전형적인 漢隸의 발전으로 성숙단계에 돌입하면서 橫劃의 波勢가 좀 분명해지면서 대다수 글자들이 蟬頭雁尾의 筆法이 나타나면서 波磔筆劃이 규범화되기 시작한다.

蟬頭雁尾는 성숙한 隸書 필획의 확실한 특징이다.

그 전형적인 특징이 바로 波磔이다. 波磔은 글자에 비교적 긴 橫劃이 主筆이 되고, 시작되는 筆劃은 날카로움을 가리고 筆劃의 흔적은 波磔로 나타나고, 마지막에 筆劃은 걷어들이는 一波三折의 느낌을 준다.

居延漢簡의 글자 대부분이 西漢시기에 속하는데, 古隸에서 漢隸로 넘어가는 전 과정을 알수 있는 문자형체이다.

筆劃이 꺾이고 평평하고 직선인 것이 후에는 점차로 세밀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대량의 波磔이 나타나게 되어 자형도 縱으로 긴 것이 橫으로 편평하게 변하며, 글자의 장식미가 더해지며 깊은 질박한 風格을 더해주었다.

다음에서 額濟納 漢簡의 隸書體 字形의 書法上의 特徵을 알아보자.

(1) 額濟納 漢簡의 전형적인 波磔 隸書

額濟納 漢簡의 典型的인 波磔의 字形			
之	 (99ES17SH1:1)	人	 (99ES16SF2:1)
博	 (99ES17SH1:1-1)	奉	 (99ES16SF2:7A)
復	 (2000ESCSF1:7)	故	 (99ES17SH1:10)
尉	 (2000ES7SF1:48)	吏	 (99ES17SH1:1)
道	 (99ES16ST1:11A)	年	 (99ES16SF3:1A)
延	 (2000ES7SF1:48)	乙	 (99ES16SF3:1A)
使	 (99ES16ST1:14A)	死	 (99ES16SH1:33)
走	 (99ES17SH3:1A)	元	 (99ES16ST1:15A)

居延漢簡에는 蟬頭雁尾 형식의 글자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額濟納 漢簡의 隸書는 蟬頭燕尾식으로 된 글자형체가 많지가 않다.

전형적인 예서체의 蟬頭雁尾의 목간이 많지 않다. 草書와 같이 쓰여지거나 혹은 순수하게 隸書만 쓰여진 蟬頭雁尾의 목간도 많지 않지만 전형적인 예서체의 蟬頭雁尾의 목간은 2000ES7S:4A 2000ES9SF3:3 2000ES9SF3:5 2000ES9SF4:17B 등이다.

(2) 額濟納 漢簡의 典型的인 波挑가 아닌 字形

額濟納 漢簡의 典型的인 波挑가 아닌 字形			
祿	 (錄2000ES7SF1:3)	折	 (99ES16ST1:18A)
它	 (99ES16ST1:1-8)	又	 (2000ES7SF1:96)
事	 (99ES16ST1:1-8)	胡	 (99ES16ST1:1-8)
扁	 (99ES16ST1:1-8)	鑿	 (99ES16SF1:3)
虜	 (99ES16ST1:1-8)	言	 (99ES16ST1:9)
令	 (99ES16ST1:1-8)	責	 (99ES16ST1:9)
侯	 (99ES16ST1:9)	自	 (99ES16ST1:9)
錢	 (2000ES7SF1:3)	贛	 (99ES16ST1:9)

額濟納 漢簡의 隸書體는 蟬頭雁尾의 波磔의 字形보다는 위의 표에 예로 제시한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글자의 윤곽이 두꺼운 형태의 글자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簡牘의 대표적인 예가 99ES16ST1:9, 2000ES7SF1:3, 2000ES9SF3:23A, 2000ES9SF4:21 등이다.

(3)居延漢簡과 額濟納 漢簡의 隸書體 字形 比較

	居延漢簡	額濟納漢簡
故	 Z.203, 26	 (99ES17SH1:10)
四	 3.1.B	 (2000ES9SF4:13)
四	 3.1	 (200ES9SF3:4A)
五	 10, 9	 (99ES16ST1:16)
六	 10, 34A	 (99ES17SH1:4A)
七		 (99ES17SH1:38)
八	 125, 1	 (99ES16SF2:7B)
九	 Z.306, 15	 (99ES16SF2:7B)
十	 Z.26, 25	 (200ES7SF1:3)

그렇다면 아래에서 비슷한 시기의 簡牘이 發掘年代가 다른 居延漢簡과 額濟納 漢簡의 隸書體를 살펴보면 많지는 않지만 같거나 비슷한 글자는 위에 열거한 표와 같다.

3. 結論

위에서 額濟納漢簡의 隸書體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발굴 연대에 따라 구분되는 居延漢簡이나 新簡의 글자에 비해 額濟納 漢簡의 隸書體는 전형적인 蟬頭雁尾의 波磔의 字形의 특징보다는 글자 자체의 굵기가 비슷한 예서체이므로 개인의 서사 경향이 짙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額濟納 漢簡의 草書體도 居延漢簡과 비교해본 결과, 전형적인 章草體인 居延漢簡의 草書에 비해서 額濟納 漢簡의 草書體는 자유롭고 정형화가 안된 간략하고 줄여서 쓴 전형적인 草書體인 것을 보면, 隸書體의 특징도 이와 비슷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額濟納 漢簡의 隸書體도 草書와 마찬가지로 蟬頭雁尾의 波磔의 字形보다는 자유롭지만 정형화가 안된 글자의 크기가 비슷한 개인의 성향이 강한 隸書體임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書體의 영향은 書寫者는 물론 發掘地域 및 書寫年代가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중에서도 書寫年代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額濟納 漢簡이 宣帝 神爵 3년(BC59년)부터 光武帝(AD26년)까지 制作 使用되었지만, 居延漢簡은 漢武帝 太始年間에서 東漢和帝永元年間의 시기이므로 額濟納 漢簡이 居延漢簡에 비해서 더 짧은 시기에 속하고 古隸에서 漢隸로 넘어가는 過渡期的 글자의 변천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裘錫圭, 『文字學概要』, 商務印書館, 1988.
2. 洪映熙, 「居延漢簡文字構形系統研究」, 北京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0.
3. 尹在碩, 「額濟納旗紀行과 額濟納漢簡 簡介」, 『中國古中世史研究』, 第14集, 2005.
4. 初山明, 「額濟納漢簡初探」, 『中國古中世史研究』, 第16集, 2006.
5. 沈 利, 『漢代簡牘書形態研究』, 南京航空航天大學 碩士論文, 2010.

【어학분과Ⅱ】 발표 ②

現代漢語新興程度副詞“巨”的認知語義演化機制分析

陳依諾* · 明洋洋**

【目 录】

1. 引言
2. 程度副詞“巨”的原型語義與現語義
 - 1) 程度副詞“巨”的原型語義
 - 2) 程度副詞“巨”的現語義
3. 程度副詞“巨”的語義演化機制
 - 1) 程度副詞“巨”的意象圖式和“巨”的隱喻機制
 - 2) “巨+A/V (P)”的概念合成模式
4. 結語

【摘要】

本文從認知語言學的角度出發，圍繞新興程度副詞“巨”的語義演化機制進行了較為深入的研究。第一，考察了形容詞“巨”與程度副詞“巨”的語義特征，二者分別對應程度副詞“巨”的原型語義與現語義。第二，比較了形容詞“巨”與程度副詞“巨”二者意象圖式的異同點，分析了“巨”的認知域轉換模式並揭示隱喻模型在解釋“巨”語義演化上的缺陷。第三，本文引入了認知語言學中的概念合成空間理論，在語料統計的基礎上選取“巨多”、“巨好”、“巨痛”為例，對“巨+A/V (P)”結構的概念合成空間進行了繪制與分析，並發現“巨”與“A/V (P)”在語義映射過程中的不對稱性，揭示出“比標準量大/大許多”這一區別結果在語義演化過程中的關鍵性，並且通過對不對性的進一步分析，確認了“巨”的[+主觀性]語義特征的生成與後接成分有緊密聯系。

【關鍵詞】新興程度副詞“巨”；意象圖式；標準量；隱喻；概念合成空間。

1. 引言

近十幾年來，隨著時間和語言環境的不斷發展，現代漢語程度副詞的形式與功能也有著新的變化。漢語程度副詞系統中出現了许多新的形式，如“巨”、“爆”、“狂”、“超”等。新興程度副詞“巨”的

* 第一作者。延世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博世課程 (eloise.chenyinuo@gmail.com)。

** 通訊作者。尚志大學校 中國學科 助教授 (yyming21@sangji.ac.kr)。

用法已經固化，類似於“巨喜歡”、“巨可愛”、“巨難過”、“巨搞笑”的表達高頻率地出現在我們的日常對話中，無論是傳播讀度高的新聞媒體，還是傳播度低的個人社交網絡賬號，都能夠見到“巨+A/V(P)”的身影。因此，關注並研究新興程度副詞“巨”是具有現實性和意義的。本文將從認知語言學的角度出發，以程度副詞“巨”¹⁾為中心對其語義演化機制進行考察，從而在語義角度上實現對程度副詞“巨”的深度認知。

首先，新興程度副詞“巨”具有原本的詞性和語義，本文稱之為“源成分”。從語義的角度上看，程度副詞“巨”是從源成分形容詞“巨”發展演變而來的。我們來看下面的例句。²⁾

(1) 樓台正中門楣上高懸著“狀元樓”巨匾，字跡端莊雄勁，是狀元董德元的同科進士朱熹手書。

(人民日報 1998)

(2) 他感到自己的言語蒼白無力，不足以安慰歐陽素心巨大的悲傷，歎口氣心酸地說：“歐陽，哭沒有用！我們是不是能想想什麼辦法解決一下這種不幸呢？……”（王火《戰爭和人》）

(3) 汽笛一聲巨吼，車輪轟隆轟隆地開始轉動，好好瞧著他吧！（皮埃爾·洛蒂《冰島漁夫》）

(4) 跆拳道小朋友超萌比賽，巨可愛啊！（BCC 微博語料）

(5) 巨喜歡周六上班的早晨，因為周末馬路上幾乎沒有什麼人。（BCC 微博語料）

(6) 今天晚上畫色彩巨有感覺呀！（BCC 微博語料）

例句(1)中的“巨”作形容詞，後加名詞，表示牌匾“很大”；例句(2)中的“巨”與同樣表示“大”語義的“大”連用作聯合結構，表示“很大；例句(3)中的“巨”與動詞“吼”連用，表示“巨大的吼聲”。儘管三個例句中“大”後面的成分涵蓋了名詞、形容詞、動詞，但是“巨”始終作形容詞，表示“很大”的語義。而在例句(4)中，“巨可愛”表示“極其可愛”，“巨”作程度副詞，不包含“很大”的語義；例句(5)中，“巨喜歡”表示“極其喜歡”，“巨”作程度副詞，僅表示“喜歡”這個動作的強烈程度，不包含“大”的語義；例句(6)也一樣，“巨有感覺”表示“極其有感覺”，“巨”作程度副詞，表示“有感覺”的程度，不含包“大”的語義。將前三個例句與後三個例句比較，可以發現“巨”的詞性從形容詞轉變為程度副詞，其語義則從“很大”轉變為表示極高量的“極其”。形容詞“巨”與新興程度副詞“巨”之間存在怎樣的語義演化過程，是本文要解決的主要問題。

關於新興程度副詞“巨”的前人研究成果大部分是將“巨”與其他新興程度副詞合起來作比較分析的。周娟(2006)是最早關注新興程度副詞的研究，該文章從多個角度對“暴”類新流行程度副詞進行了考察，認為語義對“暴”類副詞的形成起決定作用。齊春紅、羅耀華(2007)認為最初“超”、“爆”、“巨”本身凸顯的是較高程度的動作、形狀特徵，並且都具有“程度或水準超過一般”的語義特徵，這一特征使該類詞獲得凸顯程度的功能。並且，該文章指出，“爆”、“超”、“巨”詞義虛化的內部誘因和外部誘因分別是隱喻機制和人類的社會心理。趙芳(2006)考察了新興程度副詞“巨”、“惡”、“狂”、“超”、“爆”，指出這類程度副詞具有粘著性、定位性、絕對性、極量性、主觀性等五個語義特點。何可(2007)認為“暴”類新興程度副詞語法化的條件之一是其語義上的相宜性，並指出引起“巨”

1) 本文的研究對象為新興副詞“巨”作程度狀語修飾形容詞或動詞時的“巨+A/V”結構，另外，由於動詞短語（多為述賓結構）作“巨”的中心語（如“巨有感覺”）時，述詞與其實語的語義關係較為緊密，不宜拆分開來，因此本文的研究範圍也包括“巨+VP”結構。也就是說，本文的研究對象是新興副詞“巨”作程度狀語修飾形容詞、動詞、動詞短語時的“巨+A/V(P)”結構。

2) 由於新興程度副詞“巨”的語料出現時間不長又主要用於口語之中，因此本文主要選擇來自北京語言大學語料庫中心(<http://bcc.blcu.edu.cn>)，以下簡稱為“BBC語料庫”及百度新聞(<https://news.baidu.com>)的語料作為研究對象。

虛化的認知心理主要是隱喻。胡麗珍（2008）認為“巨”、“狂”、“奇”的副詞用法是古代漢語語義的激活和繼承，並指出三者有著同樣的虛化路徑：表示名物的性質→表示動作的狀態→表示事物性質的程度。劉莉（2014）指出“巨”是由形容詞義演變為程度副詞的，是由於其自身“巨大的”語義為基礎而發生演變的；並指出“巨”本身既具有[+屬性]的語義特征，因而也就隱含具有[+高程度]的語義特征。聶三苗（2018）認為“巨”的演變路徑屬於“形容詞——程度副詞”，其語義基礎是“大”義，產生的句法結構有兩種，一是“巨+V”式，另一個是“巨+A”式。此外，還有董航（2010），曹春靜（2018），朱磊（2018）等都對新型程度副詞“巨”作了相關研究。總的來說，關於新興程度副詞“巨”的語法功能與演化因素的研究較為詳盡，但從認知語義學的角度對“巨”的語義演化機制進行系統、詳細考察的方面尚有一定的空白。

“認知語言學是以人們對世界的經驗以及感知和概念化世界的方式為基礎來研究語言。……認知語言學研究語言與大腦的關係，尤其強調意義、概念過程和人體經驗在研究語言和大腦之間關係中的作用。”³⁾ 本文將從認知語言學的角度出發，考察“巨”的源成分語義與“巨”作新興程度副詞的現有語義，還原出“巨”的源成分的意象圖式與程度副詞“巨”的意象圖式，對“巨”的語義演化過程進行觀察與分析，並針對其語義變化的機制做進一步的深入研究。本文將結合認知語言學的原型理論（Prototype Theory）、意象圖式（Image Schema）、概念隱喻理論（Conceptual Theory of Metaphor）以及概念合成理論（Conceptual Representation）對程度副詞“巨”的原型語義、現語義以及“巨”的語義演化機制進行深入的考察。

2. 程度副詞“巨”的原型語義與現語義

認知語言學的原型理論（Prototype Theory）之核心如下：人類認識客觀世界的重要能力之一是將事物歸到各種範疇之中，即範疇化（Categorize），而這種能力是自動的、無意識的。人類範疇化的能力使得客觀世界在人腦中不再是原模原樣的客觀世界，從而在人腦中形成各種概念結構或範疇。原型（Prototype）是範疇內最具有代表性的成員，範疇則是以原型為中心而構建起來的，其他事物能否成為某個範疇的成員則以它們是否與原型有相似性為標準⁴⁾。從認知語言學的視角下分析程度副詞“巨”的語義演化機制，就必須先找出“巨”的原型語義，並在此基礎上分析其語義演化的過程與機制。

1) 程度副詞“巨”的原型語義

《說文解字》中對“巨”的釋義是“規巨也”，湯可敬對此進一步解釋為“巨，規矩的矩”，也就是說“巨”的本義是木工用的方尺，該本義與現代漢語中常用的“巨”的語義相去甚遠⁵⁾。《漢語源流字典》認為，從金文上看，“巨”是一個成年人一手持築杵用力夯築之意。成年人力氣大，舉得動杵，故“巨”引申為“大”義。而為了區分“大”義和“規巨”義，使得表示“規巨”的“巨”字變成“矩”

3) 引用孫亞（2008：5）。

4) 參考孫亞（2008：19-44）。

5) “本義”是指從歷史角度對多義詞義位進行分類時，義位可以分出本義和引申義，其中本義是詞的本義，即詞產生以來的最早意義（參考唐超群（1983））。因此，本文此處所指的“本義”與“原型語義”相區別。另外，原型語義是指從認知語言學角度對詞的多義現象進行解析時，該詞所在語義範疇中最具代表意義性的成員就是該詞的原型語義。

字，“巨”則表示“大”義⁶⁾。

程度副詞“巨”的源成分是形容詞“巨”，而非表示“方尺”的名詞“巨”，這一點已有許多前人研究過了。

從古籍辭書上看，《小爾雅》中“巨”的釋義是“大也”，《方言·卷一》中“巨”的釋義也是“巨，大也”。而現代漢語辭書中對形容詞“巨”的釋義也是如此：《現代漢語規範詞典（第三版）》中“巨”的解釋是“大；非常大”；《現代漢語詞典（第七版）》“巨”的釋義也是“大；很大”。而且，現代漢語辭書中“巨”的釋義都包含著一個程度“非常”或“很”。因此，我們可以說，新興程度副詞“巨”的源成分是形容詞“巨”，其原型語義特征為[+大]和[+高量性]。

2) 程度副詞“巨”的現語義

隨著經濟與文化的日益發展，人們在表達上越來越追求“生動”和“有新意”。在日常對話中，誇張的表達令聽話人印象深刻，更能展示說話人的感情與性格，因此“巨討厭”、“巨像”、“巨多”等表達隨處可見。試看以下例句。

- (7) 你是不是也巨討厭在地鐵裏蹺二郎腿的人啊！（BCC 微博語料）
- (8) 過去一直覺得小傑克長得肉嘟嘟的，巨像知味觀的小籠包子……（BCC 微博語料）
- (9) 《德雲社曝光最新節目單，節目巨多，大家準備好5G網了嗎》（百度新聞）
- (10) 《蔡少芬為兒子洗澡，純素顏曝光真顏值，小萌娃肉嘟嘟巨可愛》（百度新聞）

例句（7）中的“巨討厭”表示“討厭”這個心理動作的強烈程度達到一種極限，有“極其討厭”的語義；例句（8）中的“巨像”表示“小傑克”與“小籠包”的相似程度達到一種極限，有“極其相像”的語義；例（9）中的“巨多”與例（10）中的“巨可愛”同理，有“極其多”與“極其可愛”的語義。目前各大詞典還未收錄“巨”的程度副詞用法，但是我們可以根據以上例句的分析推斷出“巨”作程度副詞時，表示一種極限的程度，它的語義是“極其”，其語義特征可以概括為[+極量性]。

根據上述例句，我們可以發現“巨”後面的謂詞部分大部分包含著說話人的主觀判斷和情感。以例句（10）的“可愛”為例——第一，“可愛”沒有一個精確的數值或准線，對於小孩子“可愛”與否，每個人對此都有自己的判斷標準，編寫該新聞標題的作者認為“蔡少芬”的兒子“巨可愛”，可能也有人並不這樣認為；第二，“可愛”的內部沒有一個具體、精確的程度量級劃分，“可愛”的程度從“稍微”、“有點”等低量級到“很”、“巨”、“極其”等高量級之間，沒辦法像刻度尺一樣進行精確的劃分。因此，我們可以認為，由於“巨”後面的謂詞部分大多與“沒有具體衡量標準的程度量級”相關聯，因此它內部的衡量標準具有很大的主觀性，“巨”與之搭配，也呈現出了[+主觀性]的語義特征，可以說“巨”的[+主觀性]語義特征與“巨”後接成分的語義特征有很緊密的關係。

綜上所述，程度副詞“巨”的語義特征可以概括為[+極量性]與[+主觀性]。

6) 參考聶三苗（2018）。

3. 程度副詞“巨”的語義演化機制

通過上文分析，我們發現程度副詞“巨”的語義特征與它的原型語義特征在表量方面有一定的關聯，但與原型相比，程度副詞“巨”並沒有具體的[+大]的語義，而且增加了[+主觀性]的語義。程度副詞“巨”與源成分形容詞“巨”在語義上有什麼演變關係，以及程度副詞“巨”的[+主觀性]與後接謂詞部分有什麼關係，是本節將要解決的兩個問題。本節將運用認知語言學中的意象圖式理論和隱喻理論對“巨”的語義演化展開進一步的分析，還原出“巨”的語義演化過程，找出其語義演化的特點和機制。

1) 程度副詞“巨”的意象圖式和“巨”的隱喻機制

本節將涉及認知語言學中的意象圖式的說明，以及對程度副詞“巨”的源成分——形容詞“巨”展開意象圖式分析，並在此基礎上進一步繪製出程度副詞“巨”的意象圖式。最後，通過對形容詞“巨”的意象圖式與程度副詞“巨”的意象圖式展開比較與分析，找出兩者發生隱喻映射的過程。

(1) 意象圖式與隱喻理論

喬治·萊考夫在認知語言學的著作《女人、火與危險事物》中首次提出了意象圖式（Image Schema）的概念，他對意象圖式的概念概括如下：意象圖式是我們感知的相互作用和運動中產生的反復出現的動態的模式，使我們的經驗有連貫和有結構。人體與物理空間的接觸而產生的經驗是意象圖式產生的基礎，意象圖式來源於人們與客觀世界的相互作用，尤其是人們與客觀世界的空間關係與運動。而且，意象圖式是種較抽象的模式，反映了人們的動作、感知和概念的秩序和結構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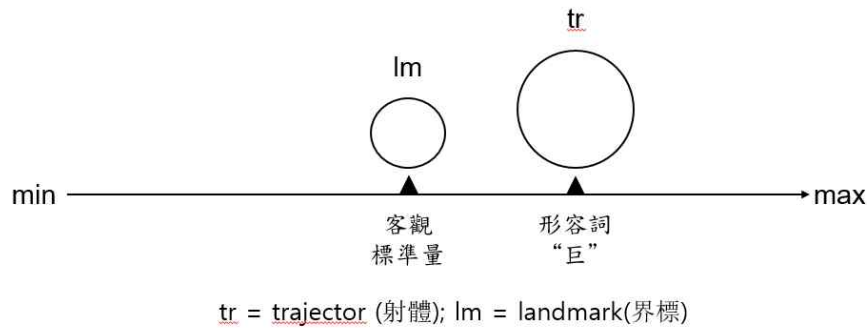
本章涉及的另一個認知語言學理論是概念隱喻。隱喻是我們用來理解抽象概念，進行抽象推理的主要機制。隱喻讓我們用更具體的、有高度組織結構的事物來理解相對抽象的或相對無內部結構的事物。隱喻是跨概念域（Conceptual Domain）的映射，每一種映射都是源域（Source Domain）與目標域（Target Domain）的實體之間一系列固定的本體對應。類似於“這個理論基礎不牢固”的隱喻表達十分常見，概念隱喻的思考方式和表達方式蘊藏在我們的思維方式之中⁸⁾。

(2) 形容詞“巨”的意象圖式

基於上述意象圖式的功能和特性，我們可以通過繪制“巨”的意象圖式來考察“巨”的語義演化過程。形容詞“巨”具有[+大]與[+高量性]的語義特征，[+大]是相對於人們常識中的一個客觀標準量而言的，它的意象圖式則包括一個表量的橫軸、一個客觀標準量、一個表高量的“巨”，如下。

7) 參考孫亞（2008：46-47）。

8) 參考李福印（2008：131-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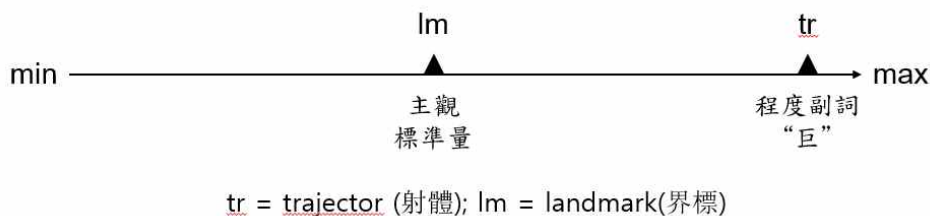


<圖1> 形容詞“巨”的意象圖式

<圖1>中橫軸的左右兩端分別表示量的最小值和最大值，中間的小圓（Landmark）是表示客觀標準量的參照物，右側的大圓（Trajector）則表示形容詞“巨”，也是該意象圖式凸顯的主體。我們可以看到在參照物的參照下，主體的圓比參照物的圓大很多，說明形容詞“巨”帶有實際意義上的[+大]語義特征；同時，主體圓在橫軸上處於參照物圓的右側，說明形容詞“巨”帶有客觀量上的[+高量性]語義特征。

(3) 程度副詞“巨”的意象圖式

正如前文所述，程度副詞“巨”具有[+極量性]和[+主觀性]的語義特征，則它的意象圖式必須包括一個表量的橫軸、一個主觀標準量、一個表極量的“巨”。程度副詞“巨”的意象圖式如下圖所示。



<圖2> 程度副詞“巨”的意象圖式

在程度副詞“巨”的意象圖式中，橫軸的左右兩端分別表示量的最小值和最大值，中間的三角形（Landmark）表示主觀標準量的參照物，右側的三角形（Trajector）則表示程度副詞“巨”，它也是該意象圖式凸顯的主體。我們可以看到在主觀標準量的參照下，主體非常靠近最右的最大值，這說明程度副詞“巨”帶有主觀性和極量性。

將程度副詞“巨”的意象圖式與前文所分析的形容詞“巨”的意象圖式進行比較的話，我們可以發現兩者區別之一在於“圓形”的有無，形容詞“巨”圖式中的“圓形”表示的是具有實際意義的“大”，包括體積、面積、數額等等，而程度副詞“巨”則不具有該語義特征。另外，若比較兩個“巨”在橫軸上的位置，我們可以發現形容詞“巨”的三角形處於“標準量”和“最大值max”之間，且與兩者的距離相似；而程度副詞“巨”的三角形雖處於“標準量”和“最大值max”之間，卻明顯十分接近“最大值max”，可見單從表量的角度看，形容詞“巨”所表示的量級僅為高於標準量的“高量”，而程度副詞

“巨”所表示的量級則是“極量”，這也使它擁有了滿足說話人表達主觀情感需要的能力，這是形容詞“巨”所不具備的，也是它能夠成為新興副詞的原因之一。

在對二者的意象圖式進行比較的基礎之上，我們將形容詞“巨”和程度副詞“巨”的語義特征狀況整理為列表如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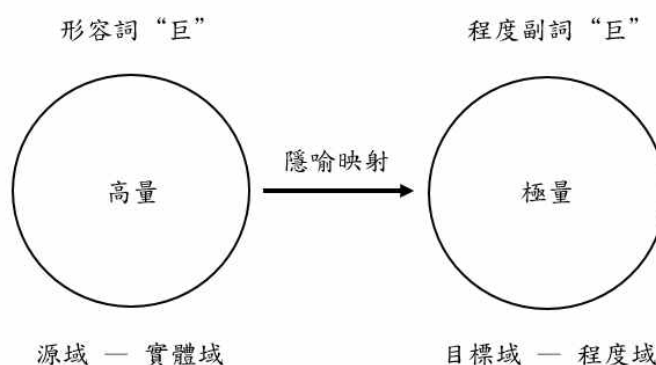
	大	表量性		主觀性
		高量性	極量性	
形容詞“巨”	+	+	-	-
程度副詞“巨”	-	-	+	+

<表1>形容詞“巨”和程度副詞“巨”的語義特征比較

通過該表我們可以發現，形容詞“巨”和程度副詞“巨”的語義雖差別較大，但並不是毫無關聯——二者在“表量性”方面有共同之處，區別在於表量的大小。程度副詞“巨”從原型語義到現語義的發展過程並不是一蹴而就的，它們的語義特征是逐漸脫落又逐漸新增的，呈現出典型的“語義鏈”⁹⁾的模樣。與新興副詞“超”有“詞內成分”作語義鏈的過渡角色¹⁰⁾不同，因為形容詞“巨”和程度副詞“巨”共同擁有“表量性”這一語義特征，在這個語義特殊性的基礎上，二者在語義演化過程中並沒有衍生出一個過渡角色的詞，這可以說是程度副詞“巨”語義演化的特點之一。

(4) 程度副詞“巨”的認知域轉換模型

據上文所述，作源成分的形容詞“巨”與程度副詞“巨”之間存在表量的共同語義特征，在這一基礎之上，“巨”通過隱喻（Metaphor）機制發生了語義演化，該隱喻過程中認知域轉換的具體模型如下圖所示。



<圖3> “巨”的認知域轉換圖式

<圖3>所示的“巨”的隱喻模型中，隱喻發生的認知源域是“巨”的源成分——形容詞“巨”所在的實體域，而隱喻發生的認知目標域則是程度副詞“巨”所在的程度域。

源域中的“高量”與目標域中的“極量”發生隱喻映射，使“巨”的語義從“大”演化為表示程度的

9) Taylor (1989) 提出語義鏈 (Meaning Chains) 的概念，它指的是多義詞的語義連續引申呈現出 A (abc) → B (bcd) → C (cde) → D (def) 的模樣。

10) 參考金鉉哲·陳依諾 (2021)。

“極其”，原先表達實體的“大”演變為表達程度的“大”，這可以看做是一個從“具體”到“抽象的認知域轉換過程”。

然而，〈圖3〉的隱喻過程只顯示了在認知域轉換過程中[+大]、[+高量性]和[+極量性]三個語義特征的演化過程，而程度副詞“巨”的[+主觀性]語義特征是如何生成的、它與其他語義特征之間有什麼關係，這些問題都無法在隱喻模型中得到直觀的解釋。因此本文將在下一節中引入“概念合成理論”對此作進一步的說明。

2) “巨+A/V (P)”的概念合成模式

在BCC語料庫的語料基礎上，本文對“巨+A/V (P)”中的“A”和V (P)”的語義類型做了統計，能夠進入“巨+A/V (P)”結構的“A”和V (P)”中，出現頻率最高的前20個按語料數量從高到低分別為“多(397)、好(215)、痛(185)、好吃(167)、冷(160)、疼(154)、愛(122)、喜歡(102)、討厭(96)、可愛(92)、像(87)、困(84)、劃算(83)、慢(83)、貴(82)、好聽(71)、搞笑(65)、惡心(61)、好看(57)、餓(54)”。正如上一節結尾所述，隱喻模型並不能完整地解釋程度副詞“巨”的語義變化特征，因此本章將在統計結果之上，選擇出現頻率最高的前三位，即“多”、“好”、“痛”進行具體的心理合成模型繪制，以其為示例對程度副詞“巨+A/V (P)”進行考察，並對程度副詞“巨+A/V (P)”的[+主觀性]語義特征進行進一步的說明，以求更完整、全面、直觀地還原程度副詞“巨”的語義演變過程。

(1) 概念合成理論

由Fauconnier與Turner提出的概念合成理論 (Conceptual Blending Theory)，是一個複雜的理論體系，指從兩個輸入空間部分地投射而產生包含突現結構 (Emergent Structure) 的合成空間的認知過程。概念合成模型包括四個心理空間：即兩個輸入空間、一個類屬空間或稱普遍空間、一個合成空間。各空間之間通過跨空間映射¹¹⁾進行對應連接。在概念整合中，類屬空間包含兩個輸入空間共有的抽象結構，形成普遍結構；合成空間除了包含類屬空間中的普遍結構外，還包含兩個輸入空間選擇性投射的特定結構以及合成空間本身通過組合、完善、擴展或稱精細化而建立起來的突現結構¹²⁾。總之，概念合成的過程包括對應聯繫與映射，類屬結構的構建、合成，以及部分投射和突現結構的組合、完善、擴展等幾個部分¹³⁾。概念合成模式的圖式如下文〈圖4〉所示。

(2) “巨+A/V (P)”的概念合成模式——以“巨多”、“巨好”、“巨痛”為例

本小節將以上文所述的概念合成理論為基礎，以“巨多”、“巨好”、“巨痛”為例繪制概念合成模式，並以此對“巨+A/V (P)”的語義演化作一步的分析。首先看到以下例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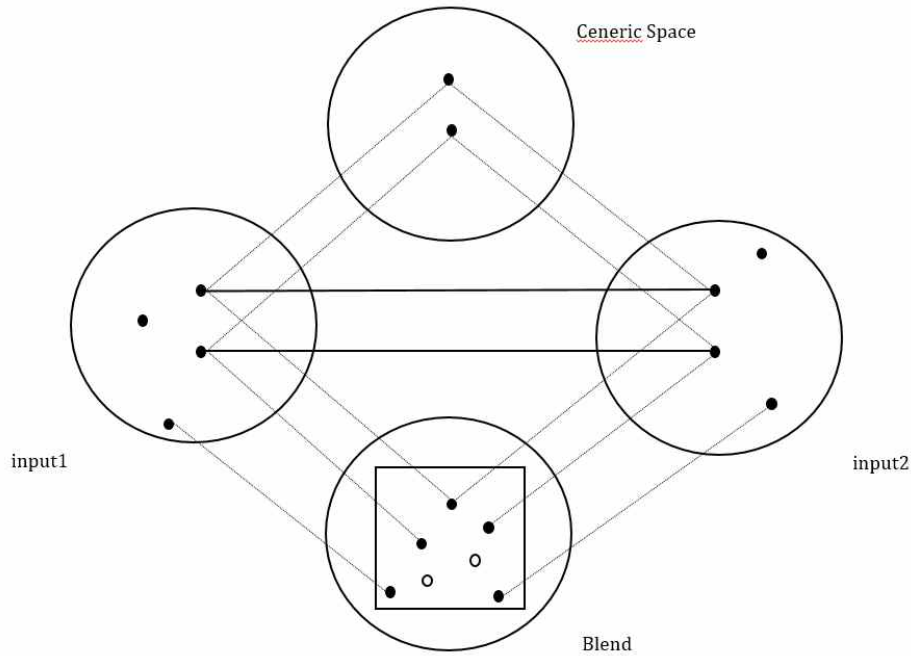
11) 本文認為概念隱喻理論中的映射 (Mapping) 和概念合成理論中的投射 (Projection) 兩者沒有實質的區別，只是術語的使用不同。

12) 引用李福印 (2008: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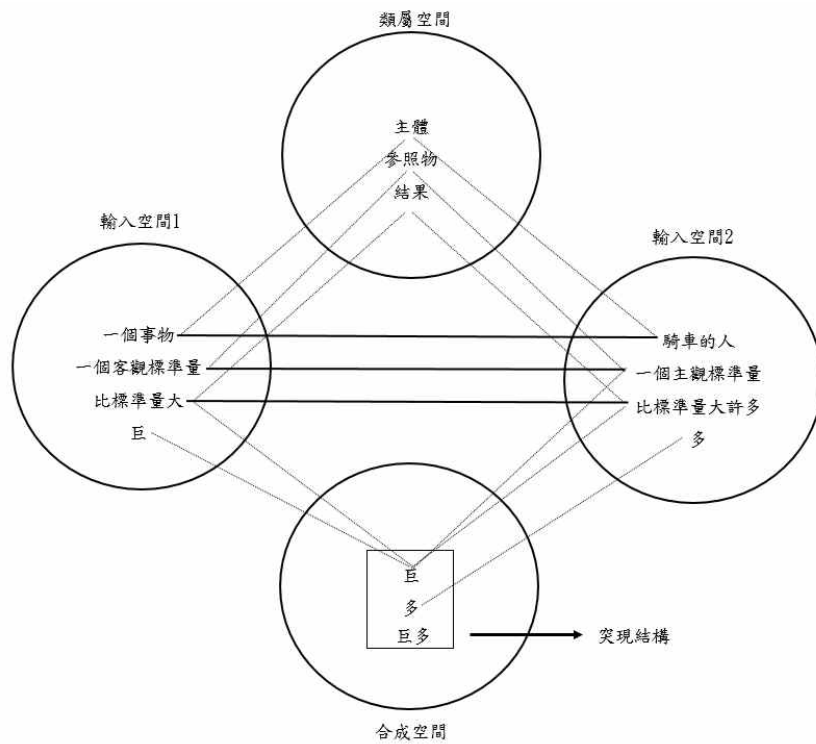
13) 引用孫亞 (2008: 130)。

(11) 我們單位騎車的人也巨多，從三五公裏到六七十公裏都有，單位淋浴衣櫃等一切設施也俱全。(BCC 微博語料)

我們可以利用概念合成理論繪制出“巨多”的概念合成模式，如<圖5>。



<圖4> 概念合成模式¹⁴⁾



<圖5> “巨多”的概念合成模式

14) 引用孫亞 (2008: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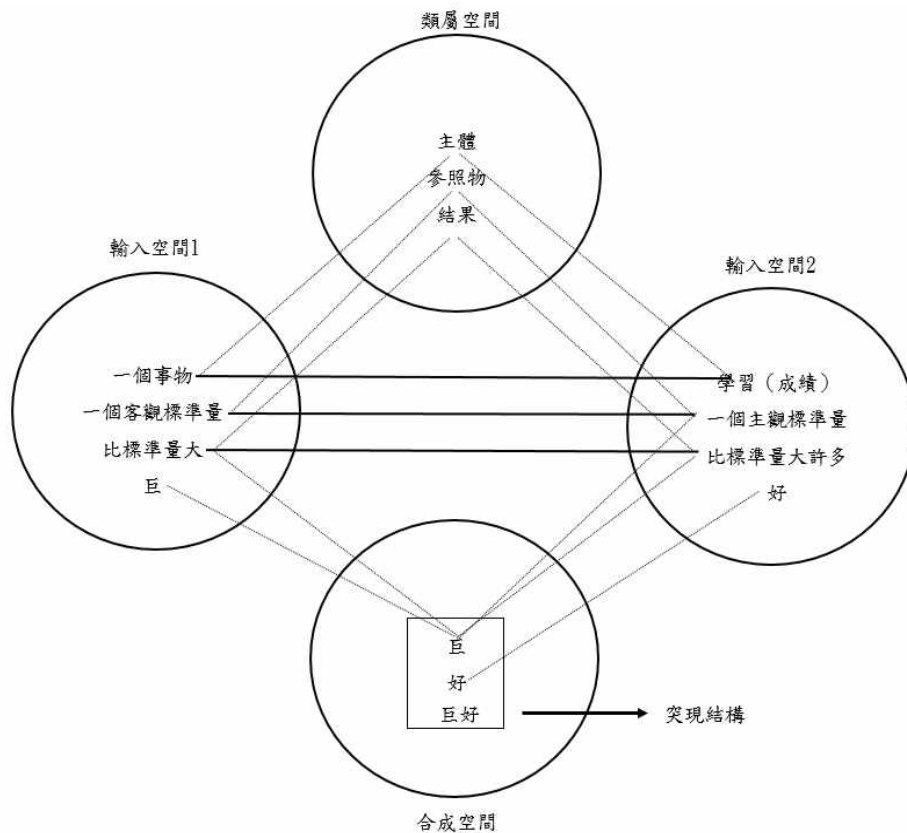
〈圖5〉左側部分是輸入空間1，它表示“巨”的原型語義——“大”的語義空間，它包括了一個事物、一個客觀標準量、比標準量大、還有“巨”本身等若幹語義元素。此處原型語義的語義空間構成反映了本文第二節中對“巨”的原型語義進行的解析——既包含了“大”，又包含了“高量”的語義特征。〈圖5〉右側部分的輸入空間2則表示“多”的語義空間，它包括了以下元素：騎車的人、一個主觀標準量、比標準量大許多、“多”本身等若幹元素。

如圖所示，輸入空間1與輸入空間2形成了跨空間映射，映射的基礎是：一個事物——騎車的人、一個客觀標準量——一個主觀標準量、比標準量大——比標準量大許多。這樣的跨空間映射反映了兩個輸入空間之間的一些共同的抽象結構，即“主體”、“參照物”、“結果”。這些抽象結構共同地存儲在上方的“類屬空間”中。同時，這兩個輸入空間產生部分投射，形成了下方的合成空間。輸入空間1的部分投射是“比標準量大”和“巨”，輸入空間2的部分投射是“一個主觀標準量”、“比標準量大許多”、“多”。在兩個輸入空間的投射作用下，“巨多”這個突現結構就誕生了。再看以下兩個關於“巨好”和“巨痛”的例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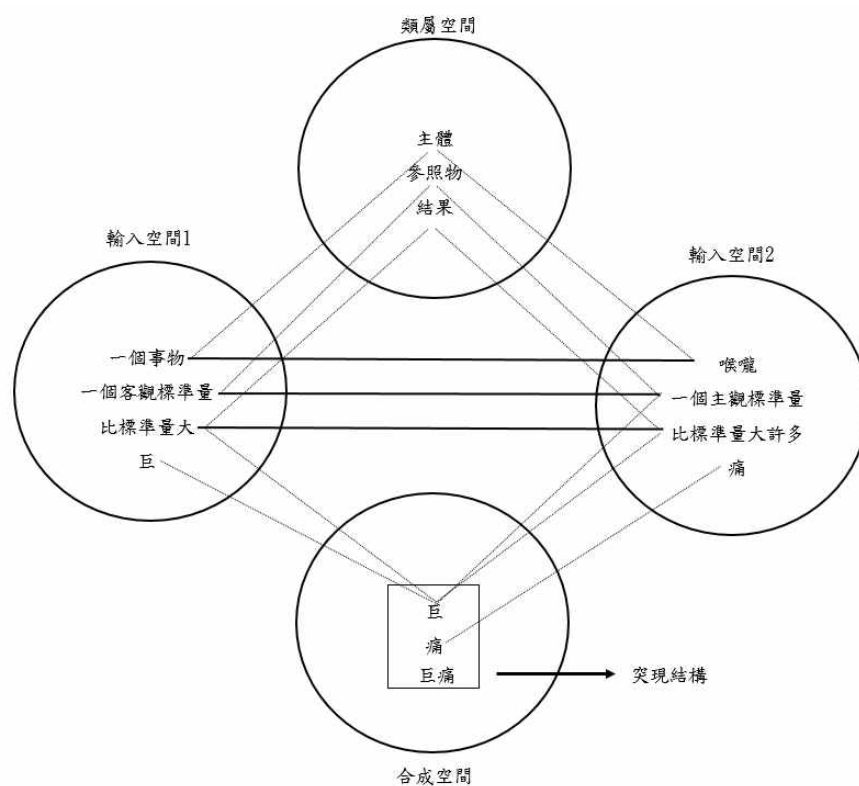
(12) 他是清華機電系的學生，畢業多年，沒有正式工作，閑散於社會中，但天資聰穎，學習巨好，尤以英語見長……（孫睿《草樣年華》）

(13) 昨晚睡覺被子沒蓋好，今早喉嚨巨痛，還有點發燒，悲催了。（BCC微博語料）

將以上兩個例句中的“巨好”和“巨痛”繪制成概念合成空間，則結果如下，如〈圖6〉與〈圖7〉。



〈圖6〉“巨好”的概念合成模式



<圖7> “巨痛”的概念合成模式

<圖6>與<圖7>的輸入空間1與<圖5>中的輸入空間1在內容與結構上一致，此處不作贅述。<圖6>的輸入空間2表示“好”的語義空間，它包括了以下元素：學習（成績）、一個主觀標準量、比標準量大許多、“好”。<圖7>的輸入空間2表示“痛”的語義空間，它包括了以下元素：喉嚨、一個主觀標準量、比標準量大許多、“痛”。

如圖所示，輸入空間1與輸入空間2形成了跨空間映射，<圖6>映射的基礎是：一個事物——學習（成績）、一個客觀標準量——一個主觀標準量、比標準量大——比標準量大許多。<圖7>的映射基礎是：一個事物——喉嚨、一個客觀標準量——一個主觀標準量、比標準量大——比標準量大許多。這樣的跨空間映射反映了兩個輸入空間之間的一些共同的抽象結構，即“主體”、“參照物”、“結果”，這些抽象結構共同地存儲在“類屬空間”。同時，這兩個輸入空間產生部分投射，形成了下方的合成空間。<圖6>與<圖7>中輸入空間1的部分投射是“比標準量大”和“巨”，<圖6>中輸入空間2的部分投射是“一個主觀標準量”、“比標準量大許多”、“好”。<圖7>中輸入空間2的部分投射是“一個主觀標準量”、“比標準量大許多”、“痛”。

觀察“巨多”、“巨好”、“巨痛”三個概念合成空間，我們可以發現“巨+A/V (P)”的概念合成模式呈現出一種不對稱性，該不對稱性主要體現在兩個方面。第一，輸入空間映射關係的不對稱。並不是所有存在於輸入空間內的元素都會發生映射，以“巨多”為例，輸入空間中的“巨”和“多”之間就沒有發生映射。不過，比起其他新興程度副詞（如“爆”、“超”）¹⁵⁾，“巨”的兩個輸入空間映射關係相對來說較為平衡。第二，合成空間內部元素映射的不對稱。以“巨多”為例，合成空間中有“巨”和“好”兩個元素，其中“巨”是輸入空間1與輸入空間2共同映射的結果，而“多”則僅僅得到來自輸入空

15) 參考金鉉哲·陳依諾（2020），（2021）。

間2的映射。並且，“巨”得到的映射在數量上也更多——從輸入空間1中得到兩個元素的映射、從輸入空間2中得到兩個元素的映射，並且其中包含了來自兩個空間的同一抽象元素，即“結果”，這與前文“巨”的隱喻模型中發生隱喻映射的部分驚人地一致。這正是反映了“比標準量大/大許多”這一區別結果在語義演化過程中的關鍵性。而且，在合成空間中，輸入空間1中的“一個客觀標準量”並沒有發生映射，這也反映了“巨”的原型語義特征之一的[+大]的脫落。

另外，上文所解釋的關於隱喻模型無法完全解釋“主觀性”語義變化的問題，在合成空間中得到了直觀的解答——合成空間中的突現結構往往具有隱喻映射過程中所無法體現的主觀語義成分。在合成空間中輸入空間2中的“一個主觀標準量”取代了輸入空間1中的“一個客觀標準量”的地位，對“巨”產生映射，使得“巨”獲得了“主觀性”的語義特征。雖然上文展示的“巨”的隱喻模型中包含了關於“主觀性”的部分，但卻無法體現出“巨”的主觀性語義的來源，也無法體現該主觀性語義與後接成分的關係。而經過〈圖5〉、〈圖6〉、〈圖7〉概念合成模式的分析，我們可以確定“巨+A/V (P)”結構中的“巨”的[+主觀性]語義特征的演化與後接成分的語義有非常緊密的聯繫。

4. 結語

本文以新興程度副詞“巨”的認知語義演化機制為研究對象，從認知語言學的視角展開了一系列的考察與分析。本文的第二章通過溯源，確定“巨”的源成分是形容詞“巨”，其語義為“很大”，語義特征為[+大]與[+高量性]，這也是程度副詞“巨”的原型語義特征。同時，新興程度副詞“巨”的現語義為“極其”，其語義特征為[+極量性]與[+主觀性]。第三章利用意象圖式、隱喻、概念合成空間等認知語言學的理論對“巨”的語義演化過程展開了集中的研究。第一，通過繪制形容詞“巨”與程度副詞“巨”的意象圖式並對二者的異同點進行的比較分析，我們發現形容詞“巨”與程度副詞“巨”的[+大]、[+高量性]、[+極量性]、[+主觀性]語義特征呈現出與語義鏈相似的脫落與新增過程。並且，由於形容詞“巨”與程度副詞“巨”的語義特征中均包含了“超過一個標準量”的部分，因此在語義的脫落與新增過程中，並沒有形成類似於“詞內成分”的過渡階段，而是直接發展為程度副詞，這也是“巨”有別於“爆”、“超”等其他新興程度副詞的特殊之處。第二，我們通過對形容詞“巨”與程度副詞“巨”的認知域轉換過程做了還原與分析，揭示了隱喻映射機制在解釋“巨”的語義演化方面的缺陷。第三，基於隱喻理論存在的不足之處，本文在結合語料統計的基礎之上，以“巨多”、“巨好”、“巨痛”為例，通過引入概念合成空間理論對“巨+A/V (P)”的概念合成模式進行更加深入的分析，發現了“巨”與“A/V (P)”在語義映射過程中的不對稱性，揭示出“比標準量大/大許多”這一區別結果在語義演化過程中的關鍵性，並且通過對不對稱性的進一步分析，確認了“巨”的[+主觀性]語義特征的生成與後接成分有緊密聯繫。

【參考文獻】

- 김동환, 《인지언어학과 의미》, 서울: 학사, 2005.
 金鉉哲 外譯, 《現代漢語虛詞用法辭典》, 서울: 成輔社, 2004.
 임지룡, 《인지의미론》, 서울: 탐출판사, 1997.
 _____ 김동환 역, 《인지문법》, 서울: 한국문화사, 2005.

- 曹春靜,《當代漢語新興程度量級構式演變研究》,上海外國語大學博士學位論文,2018。
- 董航,〈現代漢語中新出現的程度副詞“巨”、“超”(超級)〉,《科技信息》第10期,2010,pp.554-555。
- 馮光武,〈語言的主觀性及其相關研究〉,《山東外語教學》第5期,2006,pp.26-33。
- 高航,《認知語法與漢語轉類問題》,上海:上海交通大學出版社,2009。
- 高遠、李福印,《羅奈爾得·蘭艾克認知語法十講》,北京: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2007。
- (漢)許慎,《說文解字》,中華書局,2013。
- (漢)揚雄,《方言》,中華書局,2016。
- 何可,《“暴”類程度副詞的語法化機制及組合功能》,遼寧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2007。
- 胡麗珍,〈再論三個程度副詞“巨”、“狂”、“奇”〉,《修辭學習》第3期,2008,pp.79-80。
- 黃蓓譯,Langacker著,《認知語法導論(上卷)》,北京:商務印書館,2016。
- _____,《認知語法導論(下卷)》,北京:商務印書館,2016。
- 吉益民,《現代漢語主觀極量圖式構式研究》,揚州大學博士學位論文,2016。
- 金鉉哲、陳依諾,〈現代漢語新興程度副詞“爆”的認知語義演化機制分析〉,《中國語教育與研究》第32期,2020,pp.375-403。
- _____,〈現代漢語新興程度副詞“超”的認知語義演化機制分析〉,《中國語文學論集》第126期,2021,pp.147-170。
- 蘭佳睿,《現代漢語心理動詞的量性特征》,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2008。
- 李福印,〈概念隱喻理論與概念合成理論在意義構建中的優勢和不足〉,《外國語言文學研究》第2期,2005,pp.35-40,60,81。
- _____,《認知語言學概論》,北京:北京大學出版社,2008。
- 李行建主編,《現代漢語規範詞典(第三版)》,北京: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2014。
- 劉莉,《形容詞演變為程度副詞的情況考察》,江西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2014。
- 劉宇紅,〈預設投射研究的Karttunen模式與Fauconnier模式〉,《外語學刊》第2期,2003,pp.62-65。
- _____,〈心理空間與語用解歧策略〉,《當代語言學》第2期,2003,pp.173-182。
- 劉正光,〈Fauconnier的概念合成理論:闡述與質疑〉,《外語與外語教學》第10期,2002,pp.8-12。
- 羅竹風主編,《漢語大詞典》,上海:漢語大詞典出版社出版,1986。
- 呂叔湘,《漢語語法分析問題》,商務印書館,1979。
- 呂文傑,《現代漢語程度範疇表達方式研究》,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2013。
- 聶三苗,《“形容詞——程度副詞”演變的研究》,溫州大學大學碩士學位論文,2018。
- 齊春紅、羅耀華(2007),〈談新程度副詞“爆”“超”“巨”〉,《教研天地》第4期,2007,pp.56-57。
- 沈家煊,〈語言的主觀性與主觀化〉,《外語教學與研究》第4期,2001,pp.268-275。
- 束定芳,〈論隱喻的運作機制〉,《外語教學與研究》第2期,2002,pp.98-106。
- 孫亞,《語用和認知概論》,北京:北京大學出版社,2008。
- (清)胡承珙,《小爾雅義證》,黃山書社,2011。
- 唐超群,〈現代漢語詞典義項序列與“基本義”〉,《辭書研究》第6期,1983,pp.106-112。
- 吳為善,《認知語言學與漢語研究》,復旦大學出版社,2013。
- 邢虹,《現代漢語新興單音節極性程度補語研究》,上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2016。
- 袁毓林,《漢語語法研究的認知視野》,北京:商務印書館,2004。
- 張國憲,《現代漢語形容詞功能與認知研究》,北京:商務印書館,2006。
- 張誼生,〈論與漢語副詞相關的虛化機制——兼論現代漢語副詞的性質、分類與範圍〉,《中國語文》第1期,2000,pp.3-15。
- 趙芳,〈試論當代新興的程度副詞“巨、惡、狂、超、暴”〉,《海外華文教育》第4期,2006,pp.28,64-70。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現代漢語詞典(第七版)》,北京:商務印書館,2016。
- 周娟,〈“爆”類新流行程度副詞的多維考察〉,《修辭學習》第6期,2006,pp.45-48。

朱 磊, 《現代漢語程度副詞的新形式和新功能研究》, 上海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18。

Croft, William and Alan Cruse, *Cognitive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Lakoff, G & M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_____,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李葆嘉等譯, 《女人、火與危險事物》, 北京: 世界圖書出版社, 2017).

Fauconnier, G. Mental spaces, language modalities, and conceptual integration. In Tomaselle (eds.), *The New Psychology of Language: Cognitive and Functional Approaches to Language Structure*, Michael. London/ New Jersey: Lawrence Erlbaum, 1998, pp. 251-279.

_____ and Mark Turner, Metonymy and conceptual integration. In Klaus-Uwe Panther and Günter Radden (eds.), *Metonymy in Language and Thought*,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999, pp. 77-90.

Taylor, J.R., *Linguistic Categorization: Prototypes in Linguistic Theory*, Oxford: Clarendon Press. (조명원 · 나익주 옮김, 『인지언어학이란 무엇인가?: 언어학과 원형 이론』, 한국문화사.), 1997.

【어학분과Ⅱ】 발표 ③

화행분석을 통한 『支那語集成』의 인물 간 권력 차이 고찰

서나진*

【목 차】

1. 서론
2. 화행 이론의 이해
3. 『支那語集成』에서 보이는 인물 간 권력 차이의 반영
1) 화행 유형의 분석
2) 간접화행의 함축의미 분석
4. 결론

1. 서론

본 연구는 1920년대 한국의 중국어 교재인 『支那語集成』의 회화 부분에서 나타나는 인물 간 권력의 차이를 화행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언어는 사회집단의 상호작용 중에서 그 소통 기능(交際功能)이 실현된다. 소통 과정에서 서로 다른 사회집단의 구성원 간의 언어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사회언어학이 관심을 두는 부분이다. 어학 교재는 대화 중 서로 다른 인물(나이, 신분 등)의 언어적 특징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는 언어사회 연구에서도 좋은 자료가 된다. 본 연구는 대화 참여자 간의 권력이나 사회적 거리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언어 표현을 화행 이론에 근거하여 정보전달(信達)의 언어역량을 고찰하고자 한다.

『支那語集成』(1921)은 일제 강점기에 편찬된 교재이다. 당시는 제2차 조선교육령 시기로 이 기간에 정규교육 기관의 외국어 과목에 중국어가 제외된 시기이다. 중국어는 1932년부터 부분적으로 외국어 과목으로 선택되었다. 그러므로 중국어가 외국어 정규과목으로 정해진 3차 조선교육령 이전까지, 즉 1938년 이전의 중국어 학습은 독학이나, 야학 등 비정규교육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반면에 중국어의 실제적인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중국어 교재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고, 교재는 실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했다.¹⁾ 이러한 현실 상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 시기 교재를 통해 대화 속 인물의 언어자료가 현실적인 언어자료를 대변한다고 가정하고, 언어소통(言語交際)이론 중 화행 이론에 근거하여 대화 참여자의 화행의 특징 속에서 인물 간 권력의 차이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 北京师范大学 博士研究生 (jtchinese8@naver.com)

1) 김민경, 「『官話叢集』과 『支那語獨習』 비교를 통한 1920년대 중국어교육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010; 비신연, 「20세기 전반기 한국에서 출판된 중국어 학습서 연구」, 경북대학교, 2019.

『支那语集成』의 화행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언어적 특징, 사회적 특징을 이해하고, 언어요소(语音、词汇、语法、汉字)의 연구와 더불어 화용론 시각의 화행연구가 언어소통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어학 교재의 실용적 목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2. 화행 이론의 이해

(1) 화행 이론

화용론(Pragmatics)은 언어학자들이 사회적 행위에 대한 문제와 이론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화용론은 언어의 사용에 의한 의미에 관한 체계적 연구를 하는 학문이다. Morris(1938)의 기호학에서 기호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화용론이다. 1950년대에 언어분석철학이 등장하며 이상(ideal) 언어철학과 일상(ordinary) 언어철학과의 구분이 생기고 일상 언어철학에서 Austin의 화행이론이 등장하게 된다. 오스틴(Austin, 1962)은 화행(言语行为)의 言语와 소쉬르(Saussure)의 parole(言语)과 구분해서 설명한다. 화행은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이고, 이는 화자가 발화할 때의 의도와 청자에게서 얻는 효과를 대조해야 한다. 1983년 Stephan Levinson 『Pragmatics(화용론)』의 등장으로 화용론은 언어학의 한 분야로 인식되었다.

화용론의 중심 주제들로는 함축(implicature), 전제(presupposition), 화행(speech act), 직시(deixis) 등이 있다. 이 중 화행은 Wittgenstein과 Austin이 기초적 이론 근거를 세웠고, Searle이 체계화하였다. 구조언어학과 변형생성문법에서는 언어체계가 연구의 중심이었던 데 반하여, 화행론에서는 말하기가 곧 행위라는 명제를 통해서 언어사용이 언어 연구의 중심으로 옮겨갔다.²⁾

Austin은 인류의 발화를 언표적 행위(locutionary act), 언표내적 행위(illocutionary act), 언향적 행위(perlocutionary act)로 구분하였다. Austin의 제자인 Searle(1969)는 발화화행(utterance act), 언표내적 화행(illocutionary act), 명제 행위(propositional act) 그리고 언향적 행위(perlocutionary act)로 구분하였다. Austin과 Searle은 공통으로 언표내적 행위에 관심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Searle의 분류를 따라, 언표내적 행위에 대해, 수행문(performative)을 함축하는 언내적 힘(illocutionary force, F)과 명제(proposition, P)의 결합을 언표내적 행위로 본다.

Searle의 화행유형론은 발화수반 포인트, 언어와 세계 간의 관계, 표현된 심리 상태 그리고 명제 내용 이 네 가지 차원에 의해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 다섯 가지 유형은 단언형(representatives, assertives), 지시형(directives), 언약형(commisives), 표현형(expressives) 그리고 선언형(declaratives)으로 각 유형의 설명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Searle의 화행 유형

화행 유형	의사소통 목적	지향성	표현된 심리 상태
단언(assertives)	X가 사실이라고 확인	대상세계 先, 말이 세계를 지향	X가 사실이라고 믿음
지시(directives)	청자로 하여금 X를 하게 함	대상세계가 말을 지향	소망

2) 박용익, 『대화분석론』, 현문사, 201,p.42.

언약(commisives)	X를 하겠다고 확정	대상세계가 말을 지향	의도
표현(expressives)	심리 상태 표현	없음	다양한 심리 상태
선언(declaratives)	명제 내용과 실제상황 일치	상호지향	无

Searle의 언표내적 유형은 문법의 구조를 사용하고 화행의 통사구조를 사용하여 분류하고, 명제 내용이 화자 위주인지 청자 위주인지 구체화하는 구조를 분류수단으로 사용하고, 언어학적 접근방법을 사용했다는 특징이 있다.³⁾

한편, 언어를 소통 도구로 인식하는 관념과 상반적으로 프랑스의 철학자 질 들뢰즈(Gilles Deleuze)는 언어의 본질을 "명령을 강요하는 것, 명령어의 전달"임을 강조하며 언어가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언어 연구의 과학적 시도는 "언제나 말하려는 사람에게 부과하고 명령어를 전달하려는 정치적 시도와 겹쳐져 있다"고 보았다. Deleuze는 언어 활동 속에서 언제나 일종의 명령이 실려 있다고 보았고 언어를 명령과 결부된 것으로 정의하려고 하였다. 그가 언급하는 명령어는 사회적 강제에 의해 언표에 연계되는 모든 행위에 관계된 것이다. 언어의 사회적 강제와 관련하여 또한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언어는 발화자 개인이 의식적으로 선택하여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실천되는 것을 뜻하며, 이런 제도화된 언어가 정상과 비정상(광기)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⁴⁾

김동조(2018)는 화용론을 권력과 연결하여 언어는 언어의 의사소통 기능을 하고, 힘과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언어 자체가 권력이 되기도 한다고 보았다⁵⁾. 사람들은 말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전하고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 행위는 권력을 실행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화행의 언표내적 화행과 언향적 행위로 인하여 화자가 언어 행위에 의해 청자에게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 이는 곧 권력을 행사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화행은 다른 사람에게 의도된 효과 즉 권력을 행사하는 수단이기도 한 것이다⁶⁾. 이것이 언어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효과가 발휘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eleuze의 언어관도 포괄적으로 언어가 소통 도구라는 견해에 포함된다고 본다.

화행론자들은 화행을 통해 소통적 의도(communicative intention)를 주고받고 이러한 소통적 의도가 화자와 청자 간에 표명, 확인과정을 통해 소통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여긴다.

화용론의 중심 주제 중 또 하나인 함축은 H. P. Grice로부터 시작된다. Grice(1975)에 따르면,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소통에 참여자들이 따라야 할 어떤 협조가 필요하다. Grice는 언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호통에 이성적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본 원리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였고 이를 대화격률이라고 하였다. 즉 대화는 질(quality), 양(quantity), 관련성(relation), 태도(manner)에서 협조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화자가 격률과 관련해서 준수하기, 위반하기, 방어책 사용하기, 과시적으로 무시하기 등의 선택을 할 수 있다.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할 경우 청자의 선택으로 화자의 함축의미를 파악하게 된다.⁷⁾ 간접화행의 경우에 청자는 함축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즉, 청자는 화자가 여전히 대화의 협력을 원하고 있다는 판단이 서면 화자가 함축한 의미를 추론해

3) 백용학, 「언표내적 화행 유형의 분류에 관한 연구」, 『언어와 언어교육』, 1991. 06, pp.5-44.

4) 사공일, 「언어와 권력, 그리고 연극적 언어」, 『새한영어영문학』, vol.52, 2010, pp.101-111.

5) 김동조, 「언어와 권력의 관계- 현대 독일의 정치언어를 중심으로」, 『獨語教育』, vol.71, 한국독어독문학회, 2018, p.34.

6) 이효성, 「언어행위론에 관한 일고찰」,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vol.25, 2014, p.41.

7) Yan H 지음, 이해운 옮김, 『화용론』,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2016.

야 한다. 서술문, 명령문, 의문문의 문법구조와 말의 기능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직접화행과 간접화행으로 구분한다.⁸⁾

함축은 추론 중에서 발화자가 특정한 의사소통적 의도를 가지고 일반적인 표현의 원리와는 다른 방식의 표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미로서 단순히 발화의 표면적 의미와는 다른 추가적 혹은 부가적 의미를 수반하게 된다.⁹⁾

(2) 화행 선행 연구

언어는 언어소통(言語交流) 과정 중에 언어의 내부의 문맥과 언어 외부의 사회적 요소의 영향을 받게 된다. 段峰(2002)은 화행을 언어의 사용과 사회문화 관계의 어떠한 복잡한 조정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직접화행과 간접화행의 실시과정 중 화행이 발생하는 시점의 사회문화적 문맥이나 화행 참여자의 사회문화 식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문맥에서 화행이 각종 사회문화 변수의 간섭을 받게 되는 것을 연구하였다.¹⁰⁾ 박찬욱(2017)은 말 공동체(speech community), 말 상황(speech situation), 말 사례(speech event), 말 행위(speech act)를 단위로 하여 중국어 회화교재를 분석하고 교재 속 화행의 유형을 귀납하고 중국어 교재 속 화행의 설계에 대하여 제언하며 화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¹⁾

백용학(1991)은 Searle의 화행론에 대해 일정 정도 Austin의 유형의 과도하게 포괄적인 단점을 극복했고 화행의 논리적 합리성을 부여했지만, Searle의 이론이 과도하게 추상적이고 의미(語義)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¹²⁾. 한귀란(2000) 역시 Austin과 Searle의 화행론에 근거하여 간접 화행이 실제 회화에 적용될 수 있다고 여겼다. 간접 화행에 속달하는 동시에 문법 교육이 진행되는 것은 유창한 영어 회화능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였다¹³⁾.

기존 연구에서 구체적 화행에 대해 실시한 분석 성과는 다음과 같다. 賈雪(2020)는 『汉语口语』, 『发展汉语·口语』이 두 교재의 요청 화행의 편집 상황을 고찰하였다. 요청 화용 전략과 요청 응답 화용 전략의 출현 유형, 출현 빈도, 출현 순서, 다른 전략의 결합 패턴 그리고 맥락의 구성 등 방면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¹⁴⁾. 王胜利(2011)는 체면위협행위론(对面子威胁行为理论), 공손이론(礼貌理论)을 기초로 요청, 거절 화행 및 사람들의 요청 전략과 거절전략에 관한 상관연구와 개선점을 심화 연구하였다. 말뭉치 자료의 조사 결과, 당대 중국어 맥락 아래에서 사람들은 직접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략의 선택은 상대적 권세에 의해서 보다는 사회적 거리에 의해서 결정되었다¹⁵⁾.

강현화(2007)는 지시화행에 중점을 두고 특정 화행의 기능과 습관성 어휘 패턴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발화상황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습관성 어휘 패턴을 사용하였는가에 근거하여 유사한

8) 段峰, 「论言语行为的社会文化特征」, 『西南民族学院学报』, 第3期, 2002, pp.90-91, p.251. Yan H 지음, 이해운 옮김, 『화용론』,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2016.

9) 김혜정, 「대화에서 격률과 함축, 그리고 그 교육적 의미」, 『텍스트언어학』, vol.33, 2012, pp.305-306.

10) 段峰, 「论言语行为的社会文化特征」, 『西南民族学院学报』, 第3期, 2002, pp.90-91, p.251.

11) 박찬욱, 「중국어 회화문에 대한 의사소통 분석단위에 기초한 접근」, 『比較文化研究』, vol.49, 2017, pp.127-150.

12) 백용학, 「언표내적 화행유형의 분류에 관한 연구」, 『언어와 언어교육』, vol.6, 1991, pp.5-44.

13) 한귀란, 「심층적(深層的) 영어회화의 기술(技術) - J. L. Austin과 J. R. Searle의 화용론(話用論)을 중심으로」, 『칼빈論壇』, 2000, pp.89-109.

14) 賈雪, 「对外汉语口语教材中的请求言语行为对比研究」, 郑州大学, 2020.

15) 王胜利, 「基于语料库的当代汉语剧本中作为面子威胁行为的请求拒绝策略研究」, 上海外国语大学, 2011.

화행기능을 관찰하였다. 그녀는 지시화행의 모든 기능(건의, 부탁, 명령, 요구, 권고)을 화자와 청자의 관계, 화자의 권력 및 앞선 발화의 부담 정도 등을 기준으로 표현 형태별로 분류하였다. 또한 화행 기능별로 유형을 분석하고 지시적 화행 중 "명령 전략"에 대해 분류하였다. 사회언어학 변인이 매우 중요하고 적합한 장소에서 적합한 표현형식을 사용해야 효과적인 언어소통을 할 수 있으므로 화행 유형의 고찰은 언어의 사회적 차이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⁶⁾. 노심덕(1998)도 지시화행을 주목하였는데, 지시화행과 정중성 간의 관계를 한국어와 영어를 비교하였는데, Brown & Levinson 의 공손이론의 적용을 고찰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힘(권력), 부담이라는 변수와 정중성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이는 지시화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체면의 문제를 보상하는 전략이 한국어와 영어에서 다를 것이라는 가설이 사실임을 증명하였다¹⁷⁾. 임소정(2015)은 명령법이 쓰인 전형적인 명령형 문장이 아닌 기타 문장 유형으로 요청화행이 수행되고 있는 경우를 연구하기 위해 다른 문장 유형들이 요청 화행으로써 그 화행의 작동 기제와 원리를 요청 시나리오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어 요청 화행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태와 의미/화용의 불일치 현상을 일정 부분 설명할 수 있었는데, 요청 시나리오의 핵심부분은 비록 직접화행의 성격을 지니지만, 간접화행에 해당하는 결과부문이나 이후 부분보다 상위 단계에 속함으로써 오히려 공손성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닌 것으로 드러났다.¹⁸⁾

袁宝杰(2019)는 표현형 화행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과화행을 연구하였는데, 특히 BNC64 语料库 (British National Corpus)의 말뭉치 연구에 근거하여 William Labov(1984)의 변이이론과 Brown & Levinson(1987)의 공손이론을 결합하였다. 양적, 질적 연구방법을 종합하여 연령, 성별, 사회계층의 3개의 큰 변수의 영향을 받은 영어 구어의 사과 화행 변이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변이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연령, 성별, 사회계층 등의 내부요소와 직업, 사회적 거리, 심리요소 등 외부요소가 공통으로 작용한 결과이다¹⁹⁾.

사공일(2010)은 Searle의 다섯 가지 화행 유형의 가운데 선언형을 언어외적 제도에 의해 작동하기 때문에 제도화행 화행이라고 부르는 데 반하여 권력론의 관점에서는 선언형의 언어행위가 제도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언표외행위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권력은 인간의 행동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선언형 화행이 권력을 행사하는 화행이라고 여긴다.²⁰⁾

기존 연구들에서는 사용자의 사회적 변인을 같이 조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회화 교재라는 자료의 특수성으로 화행을 분석하고 역으로 권력의 차이를 유추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에서 화행의 기능과 체면이나 공손 등 협력원칙, 공손원칙의 개념과 전략적 관점에서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힘과 권력이 반영된 화행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6) 강현화, 「한국어 표현문형 담화기능과의 상관성 분석 연구 -지시적 화행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vol.34, 2007, pp.1-26.

17) 노심덕, 「영어와 한국어의 지시 화행에 나타난 언어적 정중성」, 東亞大學校 大學院, 1998.

18) 임소정, 「시나리오 접근법을 통한 중국어 요청 화행의 유형 및 특징 분석」, 『中國研究』, 第64卷,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15, pp.87-105.

19) 袁宝杰, 「英语口语中道歉言语行为使用特征的社会语言学研究」, 大连外国语大学, 2019.

20) 사공일, 「언어와 권력, 그리고 연극적 언어」, 『새한영어영문학』, vol.52, 새한영어영문학회, 2010, p.63.

3. 『支那语集成』에서 보이는 인물 간 권력 차이의 반영

『支那语集成』은 大正十年(1921年) 德兴书林과 林家出版社에서 출판되었고 그 후 1939년에는 衡光书林에서 출판되었다. 본 연구는 德兴书林에서 1921년에 출판한 판본을 저본으로 하였다. 저자인 송헌석(宋宪奭, 1880-1965)은 중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독일어 교재도 편찬하였고 조선총독부에서 통역을 맡았었다. 『支那语集成』외에도 『初等自解日语文法』(1909), 『精选日韩语文自通』(1909), 『增订改版中等日语文法』(1913) 등 교재를 편찬하였고 매우 중요한 이 교재들은 외국어 교재로 평가받는다. 『支那语集成』은 송헌석의 가장 대표적인 교재로 알려져 있고 제5판까지 출판되었다.(비신연, 2019) 교재는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4편과 제6편의 부분이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정한 회화 부분이다.(박재연·김아영, 2009) 제4편 “答问”은 인물의 한두 문장 정도 길이의 짧은 대화가 대부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계속 이어지고 제6편 “谈论”에서는 한 인물이 비교적 긴 호흡의 문장형식으로 주제에 관련하여 서로 논한다. 6편 중에서 대화 참여자인 두 인물 간의 대화 흐름이 진행되는 부분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표2> 『支那语集成』의 회화 제목과 내용

主题	内容
1. 三商对话	중국 상인과 일본 상인의 대화, 일본에 있는 중국 상인들에 관한 질문과 대답
2. 搁下不当	관직을 그만둔 것에 대해
3. 主责坏奴	사전에 얘기 없이 집에 간 하인의 잘못과 그 하인이 피해를 준 마부 하소연을 이야기 나눔.
4. 让他进来	양 씨가 주인어른을 찾아와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대화 내용
5,6. 自己抛费、过愈虚诈	주인어른이 양 씨가 거짓말을 한 것을 하인인 남 씨와 이야기하며 찾아와도 만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함.
7. 送画压惊	마차 접촉사고로 박 씨 어른신의 손주라 놀란 것을 달래기 위해 그림 선물하는 내용
8. 带路进京	천진에서 북경으로 가는 길과 목을 곳을 질문하고 대답하는 내용
9. 新喜	새해 인사하러 와서 잠시 담소를 나누는 내용
10. 拟正	장원으로 관직에 뽑히게 된 것을 축하하는 내용
11. 学话	중국어(만주어)를 배우는 것에 조언을 구하는 내용
12. 怕错	중국어를 배우지만 틀릴 것이 걱정되는 이가 중국어 공부하는 조언을 얻는 내용
13. 用心	중국어를 공부하는 데 뜻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
14. 许考	과거시험을 도전하기 망설이는 이에게 격려하고 응원하는 내용
15. 糊涂	책을 가져오게 심부름을 보내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 화를 내고 이를 진정 시키는 내용
16. 步箭	보전(步箭)을 잘하는 데 필요한 자세를 알려주고 자신의 자세를 점검받는 내용
17. 良言	여비가 부족한 이에게 선뜻 자금을 마련해주는 내용
18. 算命	점을 보는 이가 마을에 와서 같이 점을 보러 가자고 제안하는 내용
19. 责罚	자신이 부탁한 이가 술에 늘 취해 있어 화가 나자 이를 진정시키는 내용
20. 庄稼	시골에서 지인을 만나 작황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내용

1~9가 제4편, 10~20이 제6편에 해당하는 회화이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支那语集成』은 중

국인과 일본인과의 대화, 중국인과 한국인과의 대화, 중국에 있는 한국인의 이야기 등이 등장한다. 인물의 국적이나 대화 배경 등을 고려하여 『支那语集成』에 반영된 사회적 권력 관계는 비교적 보편적인 동아시아의 사회특성이라고 생각한다.

권력이 크고 적은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거나 자신의 의지대로 상대를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화행유형 중에 지시화행과 선언화행이 화자의 영향력이 크고 상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이 유형뿐만 아니라 단언화행이나, 언약화행에서도 권력에 따른 다른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1) 『支那语集成』대화 속 인물의 각 화행유형 분석

인물들의 사회적 권력의 차이가 반영된 화행적 특징을 고찰하기 위해 Searle의 화행유형에 따라 구분하고 단언형, 지시형, 언약형 그리고 선언형 화행을 분석하였다. 화행적응 방향(direction fit)이 없는 표현형은 권력이 반영된 부분을 찾기 어려우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支那语集成』은 총 20개의 회화가 있고 이를 23개의 2인 회화로 정리할 수 있다. 아래 표는 『支那语集成』에 나타난 화행의 수치이다.

<표3> 『支那语集成』에 나타난 화행의 유형별 분포

会话	言语行为类型			
	断言型	指示型	承诺型	宣告型
1. 三商对话	18	2	0	0
2. 搁下不当	37	2	0	0
3. 主责坏奴	51	21	6	1
4. 让他进来	43	9	2	0
5. 自己抛费	48	1	0	0
6. 过愈虚诈	39	7	2	1
7. 送画压惊	56	5	2	0
8. 带路进京	41	6	2	0
9. 新喜	9	7	1	0
10. 拟正	7	1	2	0
11. 学话	2	4	1	0
12. 怕错	4	1	0	0
13. 用心	8	0	0	0
14. 许考	4	3	0	0
15. 糊涂	4	0	1	0
16. 步箭	4	2	0	0
17. 良言	2	3	0	0
18. 算命	3	2	0	0
19. 责罚	4	2	2	0
20. 庄稼	8	1	0	0

단언형 화행이 393으로 가장 많고 지시형(79), 언약형(21), 지시형(2) 순으로 나타난다. 단순질문형은 언표내적 행위를 수행문(performative)을 함축하는 언내적 힘(illocutionary force, F)과 명제(prop

osition, P)의 결합으로 보는 본 연구의 시각에서 화행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화행에서 제외하였다.

화행 유형 중 각 인물이 주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형을 알아보고 이를 서로 비교해본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화행유형의 설명과 예문의 설명이다.

(1) 단언형(representatives 또는 assertives) 화행

단언형 화행은 명제의 참을 화자에게 믿게 함으로써 진리를 갖게 되는 것이 목적이다. 단언하기, 주장하기, 결론짓기, 보고하기, 진술하기 등이 단언형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단언형 화행을 진술형과 주장형으로 분류하였다. 진술형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하거나 보고들은 경험을 진술하고 묘사하는 내용을, 주장형은 주관적인 입장을 내세우거나, 자랑하거나 확신하는 등의 의도를 확장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진술형 단언화행 보다 주장형 단언화행에 더 큰 권력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진술형 단언화행

- (1) a. (摺下的) 您纳骑的不是我们这儿的马么?
b. 乙(买马的) 原是在贵处买的.

예문(1)b의 의미는 "我通知你这匹马原是在贵处买的" 이므로 진술형 단언화행으로 분류한다.

주장형 단언화행

- (2) a. 乙(买马的) 不是, 因为有毛病啊.
b. 甲(摺下的) 一点儿毛病都没有.

예문(2)a,b 모두 주장형이다. (2)a에서 乙(买马的)는 말을 싸게 판 것은 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였고, (2)b는 甲(摺下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역시 주장하고 있다.

(2) 지시형(directives) 화행

지시형 화행은 청자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하는 화자의 희망 또는 기원을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충고하기, 명령하기, 질문하기, 제안하기, 주문하기 등이 지시형 화행에 포함되고 본 연구에서는 지시형 화행을 상향형인지 구분하였다. 즉,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또는 나이가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요구하거나 부탁하는 것을 상향형(自下型), 그렇지 않은 화행을 비상향형(非自下型)으로 구분하였고 상향형 지시화행보다 비상향형 지시화행에 더 큰 권력이 반영되었다고 본다.

상향형(自下型) 지시화행

- (3) 奴 老爷没有什么别的事? 使唤小的.
(4) 车(拉车的) 请老爷补还我的车钱, 我走了.

예(3)은 老爷라는 호칭과 함께 상향형 지시화행을 사용하였고, 예(4)는 “请”祈使句를 통해 상향형 지시화행을 사용하였다.

비상향형(非自下型) 지시화행

- (5) a. 奴 小的可以出去看一看?
- b. 主 不用出去, 放窗户罢.

예(5)b에서 주인어른의 지시화행은 존칭어나 존칭 호칭이 없고, 직접적인 명령문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비상향형 지시화행으로 분류된다.

(3) 언약형(commisives) 지시화행

언약형 지시화행은 무언가를 행하려는 화자의 의도 표현이 목적이다. 약속하기, 거절하기, 위협하기, 의도 표현하기 등이 언약형 지시화행에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언약의 의도가 누가 원하는 것인지 기준으로 自愿/他愿 언약화행으로 구분하고, 自愿 언약화행이 他愿 언약화행 보다 강한 권력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自愿 언약화행

- (6) 甲(要责罚的) 今儿若不把这个该杀的, 痛痛快快的责罚他一顿, 我就起个誓.

예(6)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질물을 무시한 인물에 관해 이야기하며 그를 벌하겠다는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고 있고 이는 자신이 원하는 의도의 표현이므로 自愿 언약화행이다.

他愿 언약화행

- (7) a. 甲(朴爷) 你这个来回的话, 我始终不明白.
- b. 乙(送画的) 等我再告诉你几句话.

예(7)b 乙(送画的)의 말을 보면 지시형 화행과 유사하나, 본 연구에서는 “당신이 줄곧 하는 말을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甲(朴爷)의 말에 내가 더 설명해주겠다는 의도가 나타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언약형 화행으로 분류하였고, 乙(送画的)의 의도는 감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他愿 언약화행으로 분류하였다.

- (8) a. 主 很好, 等我给你打算打算, 请你过来十天前后儿来说.
- b. 杨(拜托人) 实在是大人的提拔, 我过几天再来请安.
- c. 主 咱们过两天见, 请.

예(8)b,c는 모두 언약화행으로, b에서 며칠 뒤 찾아뵙겠다는 것은 예(8)a 주인어른의 제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인어른의 의도에 따른 것이므로 他愿이고 예(8)c는 自愿 언약화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선언형(declaratives) 화행

선언형 화행은 즉각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 목적이다. 전쟁 선포, 제명하기, 해고하기, 후보 지명하기 등 언어외적인 제도가 관건이 되는 화행이다. 『支那语集成』안에서 전쟁 선포와 같은 전형적인 선언형 화행을 찾을 수는 없으나, 당시의 봉건적 사회질서가 아직 남아있기 사회특성으로 인하여 예(9), 예(10)를 선언형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9) 主 没事你去罢.时一!

(10) 主 凭他来多少回, 总不许叫他进来.

예(9), 예(10)을 지시형이 아닌 선언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이 화행이 제도화된 화행으로서, 주인어른이 청자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명령,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이 곧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라는 점이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2) 『支那语集成』에 나타난 간접화행의 함축의미 분석

각 화행의 문법구조와 언어기능을 분석하여 직접/간접 화행을 분류하고 간접화행 위주인 인물의 화행 속 함축된 의미를 분석하였다. 총 7개 회화에서 간접화행이 위주인 인물이 등장하였다. 간접화행의 함축된 의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4> 간접화행 위주 인물의 함축의미

간접화행 위주의 인물		话语	含义
三商对话	甲(中国商人) √	啊, 您贵国是日本国么?	我可推测你是日本人.
	丙(日本商人)	他们没钱, 往东洋去做什么?	我觉得他们不用到日本去.
主责坏奴	主车(拉车的) √	咳, 这个尚得详细, 你可以小心细说.	我要你详细说明.
		你不是才说的挨了打么?	我断言你说过挨打了.
		就是话长, 你也得说了.	我要求你话再长也要说明.
		那你不用管我, 只要我问你什么你说什么.	我命令你回答.
		不要你偏说短处, 他有好处不可说么?	我问你都说他的好坏.
让他进来	主杨(拜托人) √	可恶, 就是令尊的精神因为这个受伤, 是不是?	我推测他的精神肯定因为这个受伤.
		说来说去, 你的意思是要托我给你个事情, 是不是?	我知道你想拜托我个事情.
		就是, 你今几个来意实在是因为这个不是?	我知道你今天因为这件事来找我了.
学话	肯帮助的 学习满洲书的 √	这有什么难呢, 有话请说.	没有什么难的, 我要你跟我说.
		若是我能够做得来的事, 你跟前我还推辞么?	我不会推辞.
		你怎么这么说呢, 你是外人么?	我们是一家人, 你可以拜托我.

		说报恩, 那是什么话呢, 咱们自己人说得么.	我们是一家人, 我不要你报恩.
怕错	鼓励的 学习中国话的 √	那儿的话呢, 人家说的我虽懂得, 我自家要说, 还早呢.	你觉得你说得不对.
		这么样, 可叫我怎么说呢, 我也灰了心咯, 想着就是这么样儿的, 学来学去, 也不过是这么个本事儿, 那儿还能够有长进呢?	我不能算会说中国话, 我主张我的汉语没有大的进步.
步箭	懂步箭的 练步箭的 √	若拉到出类拔萃的好, 能出了名的有几个?	我判断这种人很少.
		你射的步箭有什么说得呢, 早晚儿要仗着大拇指头, 戴翎子咯. 样儿又好, 又很熟, 撒得又干净, 人若都能像你, 还说什么呢?	我觉得你的步箭已经很好了. 我相信别的人都不如你.
		但只是弓还略软些儿, 前手略有一点儿定不住, 把这几处儿手病儿若改了, 不拘到那儿去射, 一定出众. 有谁能压得下你去呢!	我建议你“——”.
算命	想去看算命的 已去过的 √	有这样儿的高明人, 咱们何不也叫他瞧瞧去.	我请求我们一起去看他.
		虽然话是这么说, 咱们那儿花不了这几百钱呢,	我主张我们值得话几百钱.
		与其在家里白坐着, 不如去逛一逛只当解个闷儿, 又有何不可呢?	我建议你还是去看看.

간접화행의 함축을 다음과 같이 추론하며 인물 간의 권력에 관한 해석할 수 있다.

“三商对话”의 甲(중국 상인)

중국 상인인 甲는 처음 만난 丙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들으며 의문문의 형식으로 丙이 일본사람이라고 추측, 확인한다. 또한 일본에 간 중국인들이 장사 규모가 작고 자본금도 없다는 이야기에 甲은 의문문의 형식으로 자기 생각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甲는 예의적이기도 하면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甲의 간접화행에 함축된 의미에는 甲 자신이나 丙의 권력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主责坏奴”, “让他进来”의 主(주인어른)

마부와의 대화와 杨과의 대화에서 간접화행을 주로 사용하였다. 마부와의 대화에서 서술문의 형식으로 명령, 지시기능을 사용하였고 杨과의 대화에서는 의문문의 형식으로 자신의 판단을 표현하는 단언의 기능을 사용하였다. 주인어른은 마부와의 관계에서 권력이 많음이 표현되었고, 초면인 杨과의 관계에서 예의를 지키면서 자신의 확신을 표현하며 杨보다 권한이 위임을 표현하였다.

“”学话”의 肯帮助的(조언해주는 이)

满洲书를 배우려는 이에게 의문문 형식으로 지시(비상향형)를 하거나 주장을 하거나 의도를 표현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했다. 따라서 상대인 学习满洲书的는 함축된 의미를 다양한 각도로 추론해야 한다. 따라서 조언을 해주는 인물의 권력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怕错”의 学习中国话的(중국어 학습자)

자신을 격려해 주는 상대(鼓励的)의 의견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부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学习中国话的의 권력이 더 적은 것으로 표현되었다.

“步箭”의 懂步箭的(步箭에 대해 잘 아는 이)

步箭을 연습 과정인 이에게 步箭의 어려움과, 그에게 조언을 주기에 앞서 먼저 반어법 형식으로 칭찬을 하고 조언을 서술문 형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 자신이 권력이 더 있는 것을 굳이 내세우지 않으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算命”의 想去看算命的(점 보러 가려는 이)

점 보러 가보고 싶은 이가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것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주장하고 제안하였다. 의문문의 형식으로 지시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의 권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으나 그의 주장과 제안이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과 제안이므로 想去看算命的의 권력이 已去过的 보다 더 작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支那语集成』에 나타난 인물들의 화행의 유형별 특징과 간접화행을 위주 여부를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5> 회화 등장인물별 화행 유형 특징

회화	등장 인물	단언형 화행	지시형 화행	언약형 화행	선언형 화행	간접화행
1	三商对话	甲(中国商人)	진술형 단언	비상향식 지시		간접화행 위주
		乙(甲的熟人)	진술형 단언	비상향식 지시		
		甲(中国商人)	진술형 단언			
		丙(日本商人)	진술형 단언			
2	搁下不当	甲(搁下的)	진술형 단언			
		乙(买马的)	진술형 단언	비상향식 지시		
3	主责坏奴	主	주장형 단언	비상향식 지시	선언	간접화행 위주
		奴(1, 2)	진술형 단언	상향식 지시	他愿 언약	
4	让他进来	主	주장형 단언	비상향식 지시	自愿 언약	간접화행 위주
		车(拉车的)	진술형 단언	상향식 지시	自/他愿 언약	
		南(仆人)	진술형 단언	비상향식 지시		
5,6	自己抛费, 过愈虚诈	主	진술형 단언	비상향식 지시	自愿 언약	간접화행 위주
		南(仆人)	진술형 단언	상향식 지시	他愿 언약	
		杨(拜托人)	진술형 단언	상향식 지시	他愿 언약	
7	送画压惊	甲(朴爷)	진술형 단언	비상향식 지시		
		乙(送画的)	진술형 단언	상향식 지시	他愿 언약	
8	带路进京	甲(带路的)	진술형 단언	상향식 지시	他愿 언약	
		乙(老爷)	진술형 단언	비상향식 지시		
9	新喜	来拜年的	주장형 단언	상향식 지시	自愿 언약	
		接客人的	진술형 단언	비상향식 지시		
10	拟正	祝贺的	중립형 단언	상향식 지시		
		章京	진술형 단언		他/自愿 언약	
11	学话	肯帮助的	주장형 단언	비상향식 지시	他愿 언약	간접화행 위주
12	怕错	学习满洲书的	진술형 단언	상향식 지시		간접화행 위주
		学习中国话的	주장형 단언	상향식 지시		
13	用心	强调用心的	주장형 단언			
14	许考	学习汉语的	주장형 단언			
		犹豫考试的	진술형 단언	중립형 지시		
15	糊涂	劝报名的	진술형 단언	비상향식 지시		
		责问的	진술형 단언		自愿 언약	
		派人的	진술형 단언			

16	步箭	懂步箭的 练步箭的	중립형 단언	비상향식 지시 상향식 지시	간접화행 위주
17	良言	想借钱的 借给钱的	진술형 단언	비상향식 지시 비상향식 지시	
18	算命	想去看算命的 已去过的	중립형 단언 진술형 단언	비상향식 지시	간접화행 위주
19	责罚	要责罚的 想理解的	진술형 단언 주장형 단언	비상향식 지시 自願 언약 自願 언약	
20	庄稼	官吏 庄家	주장형 단언 주장형 단언	비상향식 지시	

이상으로 대화 참여 인물의 화행 유형별 특징과 간접화행을 위주로 사용한 인물의 함축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언어사용에 있어 인물 간 권력 차이가 반영된 것을 살펴보았다. 위의 화행유형별 특징과 간접화행의 함축의미의 분석을 토대로 『支那语集成』에서 보이는 대화 인물 간 권력 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6> 화행에 반영된 권력 관계

회화	화행유형 반영된 권력 관계
1. 三商对话	甲(中国商人) = 乙(甲的熟人)
	甲(中国商人) = 丙(日本商人)
2. 搁下不当	甲(搁下的) = 또는 < 乙(买马的)
3. 主责坏奴	主 > 奴(仆人)
	主 > 车(拉车的)
4. 让他进来	主 > 南(仆人)
	主 > 奴
	主 > 杨(拜托人)
5,6. 自己抛费, 过愈虚诈	主 > 南(仆人)
7. 送画压惊	甲(朴爷) > 乙(送画的)
8. 带路进京	甲(带路的) < 乙(老爷)
9. 新喜	来拜年的 = 接客人的
10. 拟正	祝贺的 < 章京
11. 学话	肯帮助的 > 学习满洲书的
12. 怕错	鼓励的 > 学习中国话的
13. 用心	强调用心的 = 学习汉语的
14. 许考	犹豫考试的 < 또는 = 劝报名的
15. 糊涂	责问的 > 派人的
16. 步箭	懂步箭的 > 练步箭的
17. 良言	想借钱的 = 借给钱的
18. 算命	想去看算命的 > 已去过的
19. 责罚	要责罚的 < 想理解的
20. 庄稼	官吏 > 또는 = 庄家

본 연구에서 상대적인 권력의 차이가 회화마다 다른 역할의 인물들 대화에 반영된 모습을 알 수 있었다. 언어사용의 화행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일부는 권력은 대화 상황 내에 드러난 권력이므로

로 상대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화행의 유형별 특징에 따라 두 인물의 상대적인 권력의 차이를 알 수 있다.

간접화행의 사용은 상대방의 의견을 돌려서 부정하고자 하는 화행은 상대방의 권력이 자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나의 의견을 우회적으로 관철하는 화행은 초면인 경우일 때 권력이 더 강한 이가 예의적 태도 말하거나, 이미 아는 관계일 경우 권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가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문형으로 지시하는 경우도 권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가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회화에서 나타난 언어 사용의 특징으로 판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따라서 언어 구조나 언어 의미와 함께 여러모로 연구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본 연구는 중국어 회화교재에서 인물 간 대화에 나타난 화행의 특징과 화행 특징에 권력의 차이가 반영된 것을 살펴보았다. Searle의 화행유형을 근거로 화행을 분류하였고, 이 중 단언형, 지시형, 언약형 그리고 선언형을 분석하였다. 화행의 유형별 주장형 단언화행, 비상향형 지시화행, 自願 언약화행, 선언화행이 권력을 더 많이 반영한다고 보고, 또한 인물의 발화 문법구조와 언어기능의 상호일치 여부를 고찰하여 간접화행을 주로 사용한 인물의 화행에서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여 상대적인 권력의 차이를 파악해보았다.

본 연구가 연구대상으로 삼은 교재는 1920년대의 것으로 당시의 사회적으로 중국어 교재의 실용적 역할이 매우 컸던 사실을 근거로 선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적 특수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통시적 관점에서의 후속연구가 필요하겠다.

【어학분과Ⅱ】 발표 ④

对韩国学生汉语声调的教学初步探索

— 以韩国高中学生为例

徐泽方*

【目 录】

1. 绪论
2. 韩国高中生汉语语音习得调查与统计分析
3. 声学样本分析
4. 声调偏误分析以及教学启示与教学设想
5. 总结

1. 绪论

1) 研究背景

语言是一种交际工具，对于韩国高中学生来说，学习汉语的的学目的也许各不相同，有为了大学专业专攻汉语而准备的，有喜欢中国文化的，有的为了将来的就业竞争想多学一门语言的，等等，但学习汉语刚入门的时，就是为了开口“说话”，无一例外。初级汉语课堂教学的重点无非集中在语音，汉字，语法教学三大模块。

针对韩国零基础学生，对其汉语教学时，由于韩国属于汉字文化圈，在基础阶段所学的汉字比较简单常见，学生在初中阶段已经学习过“汉文”课程（即就是韩国以前使用的汉字），即使大多数汉字属于繁体字，但是通过简单解说字体和构字特征，学生是可以理解汉字，也可以根据汉字特征记住汉字的。

在零基础教学阶段，基本谈不上语法教学，只是简单地告诉学生，汉语不同于韩语，属于主谓宾的语法结构，缺乏动词的变化形态，让学生在意识里有这样一个概念，对日后的进一步汉语教学做铺垫。

在零基础教学阶段，语音教学应该是重中之重，除了对声母，韵母的发音教学，中韩相近声母识别之外，声调教学也是一个不可忽视的作用，在其学习汉语的初级阶段就要让其明白，汉语声调的正确性在日常交流中起着不可忽视的作用。比如林焘先生认为，汉语学习者难以掌握地道的汉语发音，其关键“不在声母和韵母，而在声调和比声调更高的语音层次”。“在学习汉语语音基本结构阶段，声调教学比声母和韵母教学更为重要一些，但是，确实也更难一些。”¹⁾ <林焘. 语音研究和对外汉语教学 [J]. 世界汉

* 연세대학교.

1) 林焘, 语音研究和对外汉语教学 [J]. 世界汉语教学, 1996, (3)

语教学, 1996, (3) >在汉语学习的初级阶段, 零基础学生学习汉语的目的就是张口说话, 语言学习的意义也在于交流, 当然单字和词以及字, 词在句子中的声调受语流音变的影响, 声调可能发生变化, 本文仅以刚刚学习完汉语声母和韵母的零基础韩国高中汉语学习者作为研究和教学对象, 探索对其声调的初步教学, 仅以字和词为基本教学单位, 不涉及声调变化, 也不涉及句子和交际中的声调变化。对此我总结了近几年的初级汉语课堂教学经验, 结合韩国高中学生学习特点, 融合课堂教学情况和学生反馈而提出自己的见解。

2) 研究意义

近年来汉语已经走进韩国各中小学, 作为第二外国语供学生选择。然而由于中韩两国语言在语音方面, 尤其是在语音声调方面差异, 对零基础和初级学习者带来不可理解的困惑, 会造成在初级阶段就放弃汉语的现实情况。随着学习汉语人数的增加, 韩国的汉语教学和汉语学习过程中与汉语相关的问题也越来越多, 尤其突出在语音方面。语音不仅是语言的基础, 更是语言学习和语言教学中不可或缺的部分。语音是语言的物质外壳, 语言学习的目的是用于交际, 语音就是交际的主要媒介。在汉语初级阶段的教学中, 语音教学举足轻重。因此, 语音偏误问题实际上是汉语教学工作者们亟待解决的一个问题。韩国学生学习汉语时, 在声调方面出现的偏误主要有以下几个方面。第一, 同属于儒家文化圈, 汉语和韩语在字词的发音上确实有很多相似的地方, 一方面韩国保留了很多的汉字词, 在使得在完全不懂汉语的情况下, 听到与汉语发音相似的汉字词汇时也能引起共鸣。另一方面, 正是由于这种相似性, 造成了韩国学生的过度泛化。例家如使用韩语给汉语音节注音, 这就导致了韩国学生带有浓厚的韩国腔调。第二, 现在汉语普通话是存在阴平, 阳平, 上声, 去声的, 然而韩语是没有声调的语言, 这就导致了大部分韩国学生在刚开始接触汉语时会产生极大的困惑。目前在韩国中小学从事汉语教学的主要力量来自于中国国家汉办的外派汉语志愿者, 以及韩国本土汉语教师。汉语志愿者教师大多是汉语国际教育专业出身的硕士研究生, 他们在中国国内接受过专业的汉语作为第二语言的大学教育, 有从事海外汉语教学的能力, 但是, 大多数人的韩语水平并不能应付实际教学, 对韩国语言文化有很大的欠缺部分。加之韩国中学课堂的教学气氛比较活泼散漫, 师生之间存在不可逾越的言语沟通障碍, 这就导致了课堂教学效率的低下, 影响教学效果。韩国本土汉语教师拥有很丰富的汉语教学经验和课堂管理经验, 能够很好地运用韩语进行汉语课堂教学以及课堂管理, 但在汉语本体知识和具体发音方面还是不可否认地存在欠缺。(例如许多韩国本土汉语老师汉语发音韩语化。)在第二外语习得过程中, 与词汇和语法相比, 学习者母语音系对学习者的汉语学习所造成的负迁移更为明显。为了更好地研究出对韩国学生适用的汉语教学方法, 我们有必要从学习者角度出发, 立足如何更好地针对理解语音的四声去做研究。

3) 本文主要内容及创新

关于韩国学生汉语学习的语音偏误研究虽然有很多, 但是目前大部分研究都仅仅用汉语的角度做分析, 即是用汉语思维分析解决汉语学习的问题。也有一些研究是立足于汉韩对比分析得出偏误规律, 但大量语言习得研究表明: 通过语言对比得出的难度等级并不能作为语言习得的难度划分依据。也就是说, 我们需要站在学习者的角度去分析偏误产生的原因。于是, 本文拟从韩语语言文化角度结合学生社会心理因素分析偏误产生的原因, 应用计算机语音分析软件结合语音对比分析对韩国学生的语音偏误问题展

开详细分析, 并对汉语语音教学提出相应的教学建议。本文研究的主要内容是: 采集韩国学生朗读汉语词汇的语音样本, 分析样本, 并根据难度等级对分析结果进行统计, 分析学生的偏误; 应用计算机语音分析软件对采集的音进行声学语图分析, 得到韩国学生的语音偏误方式; 结合相关理论通过语言知识文化对比分析偏误的具体原因, 最终根据分析结果并结合韩国汉语教育现状对韩国的汉语语音教学提出相应的建议。

2. 韩国高中生汉语语音习得调查与统计分析

1) 调查方法

几十年来, 已经有很多学者对韩国学生汉语学习过程中的语音偏误做过调查研究, 也有很多学者结合对比分析理论分析了韩汉两种语言的异同, 根据HSK大纲的词汇划分进行语音教学, 但是大量的教学实践表明: 韩国学生的偏误出现频率并不与难度等级划分呈相关关系。关于语言偏误研究的调查方法有很多, 如: 问卷调查、访谈调查、历史分析、比较分析、实证分析和逻辑归纳等。本文在参考大量文献和前人研究成果的基础上, 依据韩国高中汉语词汇大纲主要从声调入手, 分析韩国学生学习汉语声调的偏误, 本文收集了来自于三所学校普通高中的60份语音样本录音作为语音标本进行分析。

2) 调查对象的选择与材料的制定

材料的收集, 是本文探讨研究韩国学生汉语习得偏误一个非常重要的环节, 直接关系到该研究的实用性和价值大小。本文所收集的语音样本来自60名韩国高中学生, 这些韩国学生分别来自京畿道的韩松高中(한솔고등학교)和佛谷高中(불곡고등학교)以及盆塘中央高中(분당중앙고등학교)。这60名学生中男生和女生各有30人, 所有人均有一年的汉语学习的经历。韩松高中有一名中国籍汉语教师和一名韩国本土教师, 使用《高中汉语I》, 佛谷高中的汉语老师为韩国本土教师, 学生使用的汉语教材为《高中汉语I》。盆塘中央高中的汉语老师有一名是汉办派出的cpik志愿者, 还有一名是韩国本土汉语教师, 使用《高中汉语1》, 这些教材均为韩国当地教材。学校每周有2节汉语课, 每节课时长为50分钟。所有学生均来自自纯韩语家庭, 不含华裔或外来裔家庭, 且学生的汉语习得主要来自课堂学习。本文所使用的语音调查表参考了韩国高中汉语词汇等级表, 是韩国教育部依据一定的标准为高中学习者所制定的。根据高中教材情况, 本文选取他tā, 明míng, 你nǐ, 是shì作为采集声音的对象。

3) 统计结果与分析

本文结合汉语教师的听感以及计算机语图分析软件在综合判定韩国学生的语音偏误。为了保证本文偏误分析和统计的科学性, 计算机语图分析软件主要针对听感不太明显的音进行分析。下表中出现次数代表语音片段中声调出现的次数, 总次数为声调出现次数和调查人数的乘积。本文偏误率的计算为: 偏误率=出现偏误次数/出现总次数 \times 100%。

偏误	阴平调	阳平调	上声调	去声调	半上调
该声调出现次数	1200	1080	1140	1020	
偏误次数	310	302	385	243	
总次数	600	450	520	500	
偏误率	51%	67%	74%	48%	

上表显示, 学生四个声调都存在偏误, 其中阳平和上声的偏误最为明显。其次是阴平和去声。阳平调的偏误主要表现在学生不能准确发出上扬的声调, 而上声调的降程和再次的升调又不清晰和明显。阴平调主要表现在起始的声调不够高, 去声声调降程虽然很明显, 但是又不够短促。很多学生的阴平、阳平没有很好地区分开来, 导致听感上的混淆。

4) 小结

本文是在前人关于对韩汉语语音教学的基础上, 参考了大量前人学者关于对韩国学生语音教学的文献和学术成果, 采用统计分析和计算机声学分析的方法, 采集了来自三所普通高中60位学生的真是语音标本作为分析材料, 通过计算机手段分析了样本数据来直观了解韩国学生的声调偏误。为下文的语序学分析以及只针对偏误提出的教学构想提供了基础。

3. 声学样本分析

为了科学地分析韩国学生声调方面的偏误, 本文使用Praat语音学分析软件对语音样本进行分析, 图像化等试验。也利用计算机软件把语音标本生成直观的语图, 呈现到本论文上。本章选取初级汉语教材里的生词作为分析语音材料, 对汉语的阴平、阳平、上声、去声的生词进行语音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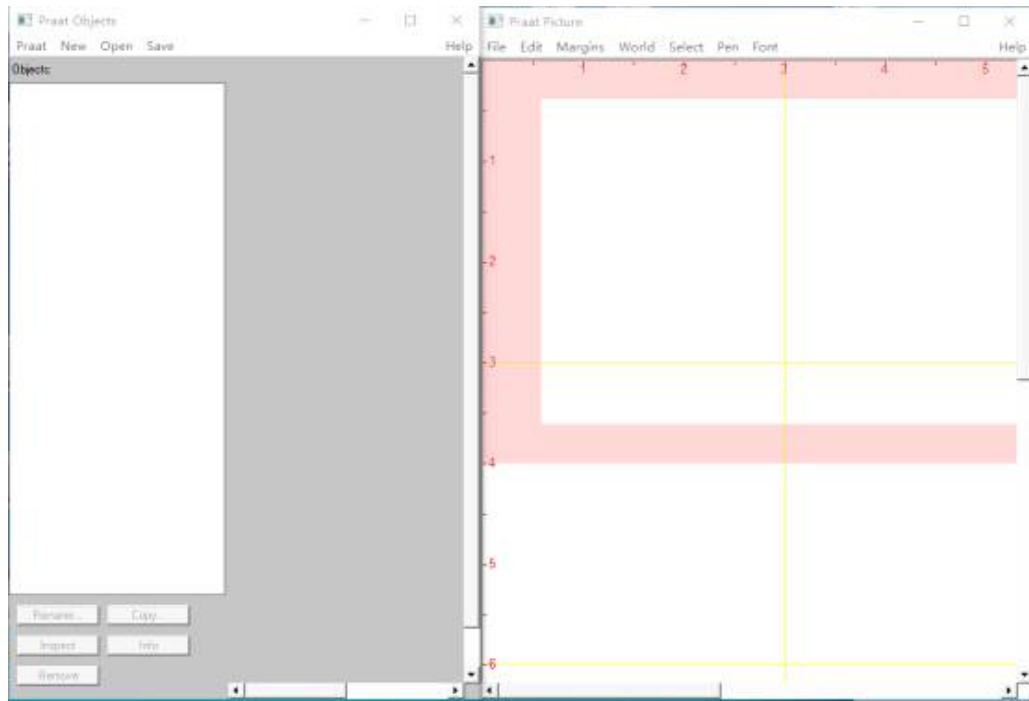
1) 语音学软件介绍

原名Praat: doing phonetics by computer, 通常简称Praat, 是一款跨平台的多功能语音学专业软件, 主要用于对数字化的语音信号进行分析、标注、处理及合成等实验, 同时生成各种语图和文字报表。²⁾ 本文使用Praat语音学软件来分析所采集的语音样本的偏误情况。

(1) Praat语音学软件功能概述

Praat的主要功能是对自然语言的语音信号进行采集、分析和标注, 并执行包括变换和滤波等在内的多种处理任务。作为分析结果的文字报表和语图, 本文只采用该软件的语音分析功能, 语音分析功能的界面如<图3.1>所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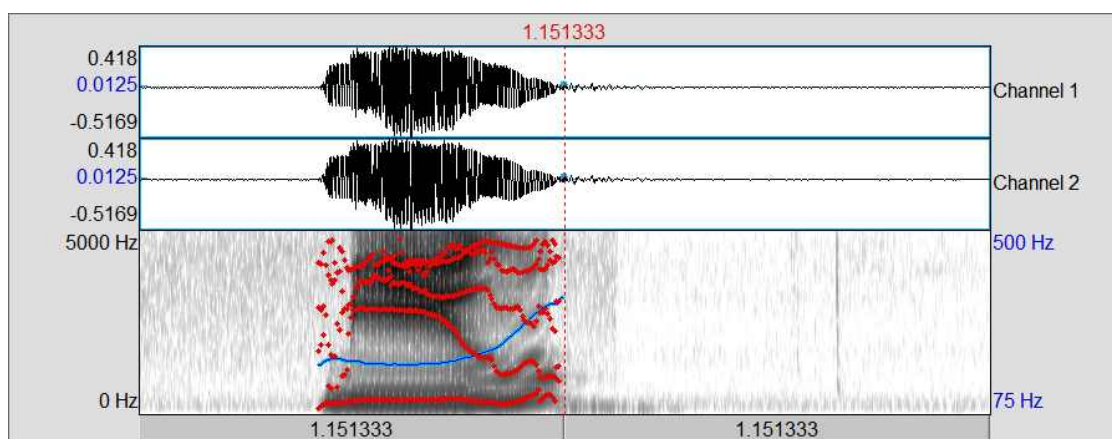
2) Praat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item/praat/7852897?fr=aladdin>



<图3.1> Praat语音学软件对象窗口及图像窗口

(2) Praat语音分析功能

对语音信号的分析与标注是Praat的基本功能。在Praat中录音或读取音频文件后，可以制作多种语图，例如：三维语图（spectrogram），频谱切片（spectral slices），音高（即基频[4]）曲线（pitch contour），共振峰曲线（formant contour），音强曲线（intensity contour）。例如下图，纵轴为振幅，单位是相对的，上部分为波形图。下半部分是宽带语图，纵轴是频率，单位为赫兹（Hz），横轴的单位是时间，单位为秒（s）。其中语图通过颜色的深浅度来表示能量的强弱。



<图3.2> 声波和宽带频谱语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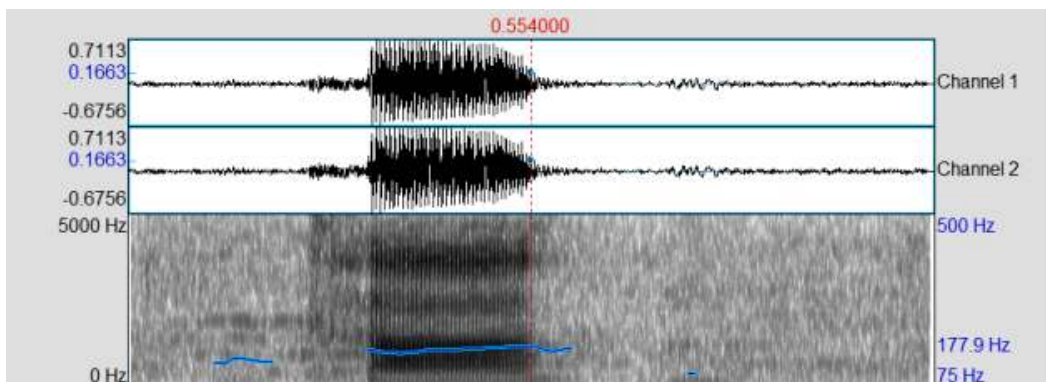
利用计算机软件的分析，语图的细节会受到个体差异的影响，但是语图的总体趋势不会发生变化。

2) Praat语音学软件说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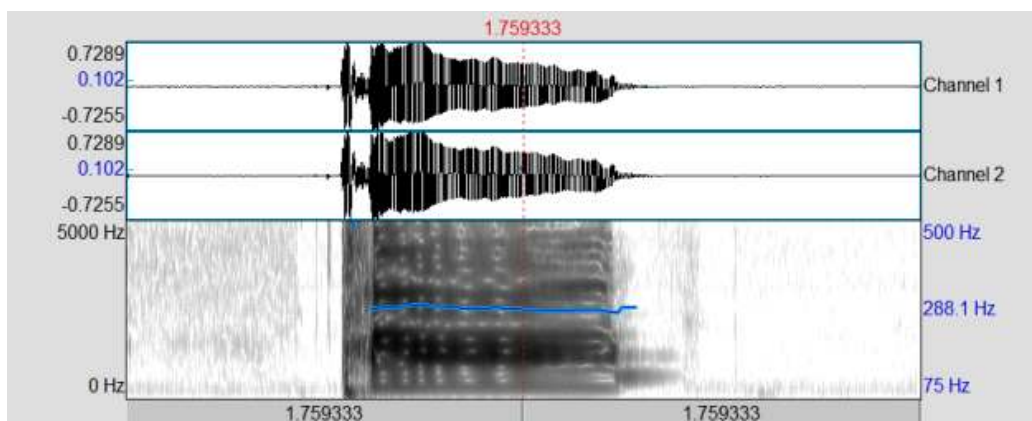
Praat的主要功能是对自然语言的语音信号进行采集、分析和标注,并执行包括变换和滤波等在内的多种处理任务。作为分析结果的文字报表和语图,不但可以输出到个人计算机的磁盘文件中和终端的显示器上,更能够输出为精致的矢量图或位图。此外,Praat还可用于合成语音或声音、统计分析语言学数据、辅助语音教学测试,等等。随着新版本的发布,Praat的功能和用途仍在不断扩展,但实际上多数用户只需要用到一小部分功能。本文仅仅使用其对语音声调方面的语图作分析。

3)Praat声调声学分析

声调主要是由音高来决定的,可以区别意义的声音的高低和升降。音高则决定于发音体在一定时间内颤动次数的多少,次数越多声音越高,反之声音越低。发音时,声带越紧,在一定时间内振动的次数越多,声音越高,声带越松,在一定时间内振动的次数越少,声音就越低。在发音过程中,声带是可以随时调整的,这样就造成种种不同的音高变化,形成了不同的声调。通过对所采集的语音样本的分析,本文对汉语单字音节做声学分析。通过标准普通话和阴平,阳平,上声,去声的语图来对比分析韩国学生的偏误现象。图为分别为韩国学生和中国人说的“他”(〈图3.3a〉、〈图3.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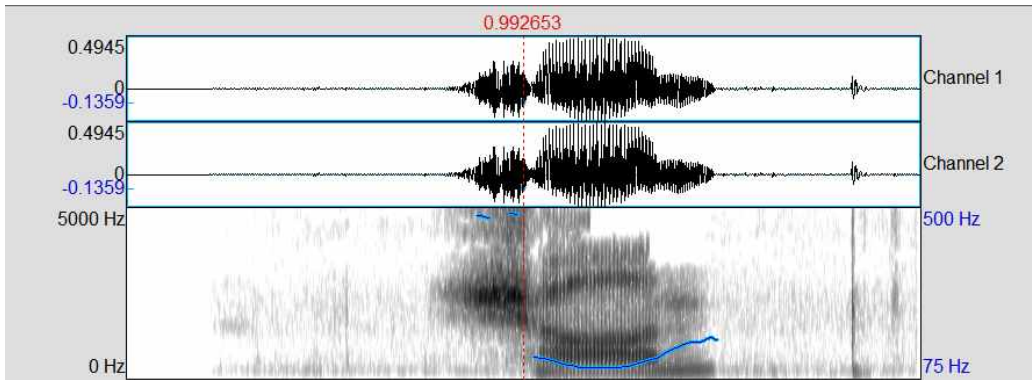


<图3.3.1a> 韩国人“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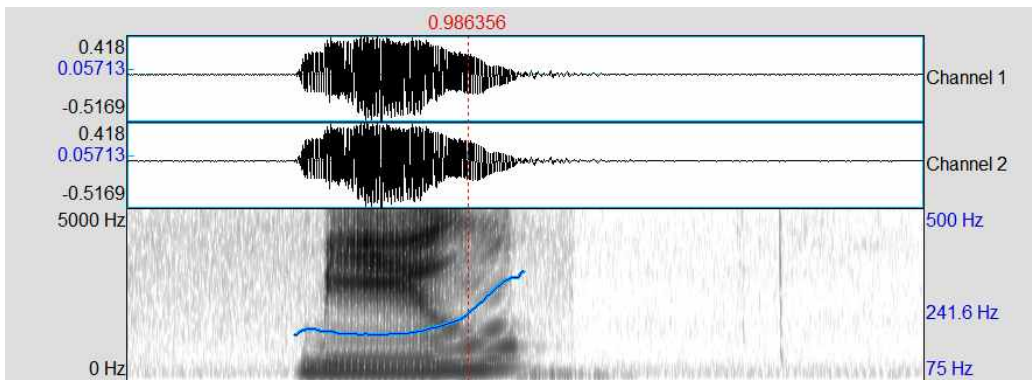


<图3.3.1b> 中国人“他”

蓝色的线代表音高,由上面两图明显可以看出,韩国人一声不够高,不够长,总体偏低。中国人总体平缓并且偏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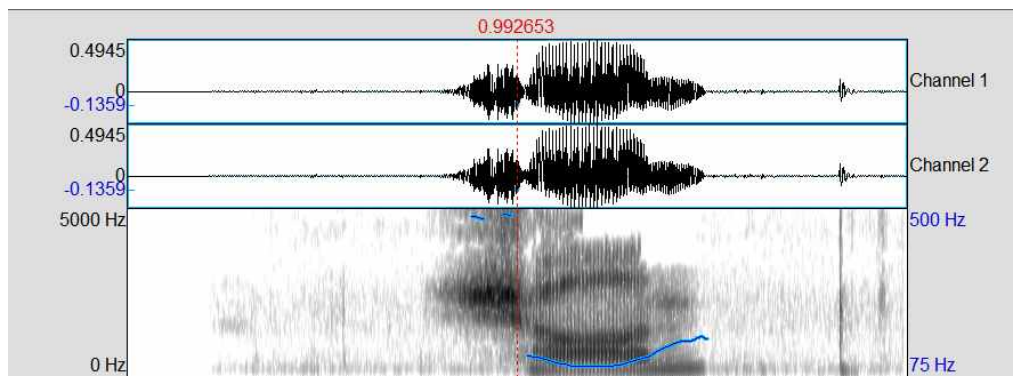


<图3.3.2a> 韩国人“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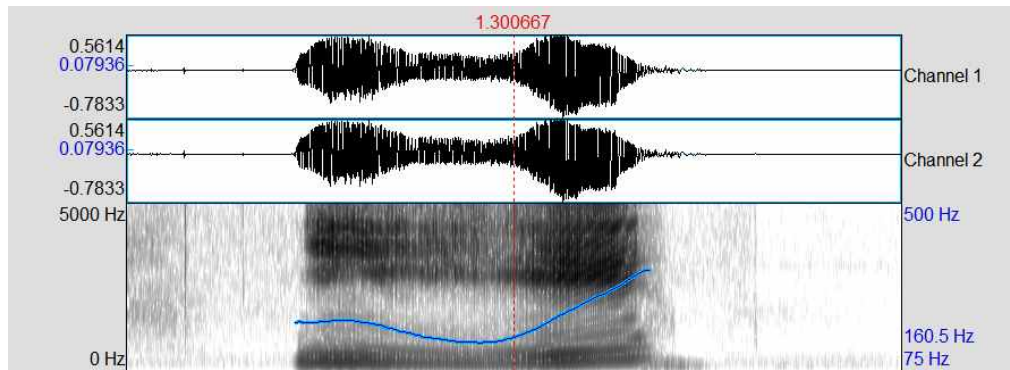


<图3.3.2b> 中国人“明”

上图可见，韩国在阳平调发音时起调偏低，有略微下降的趋势，然而中国人很明显先平缓然后上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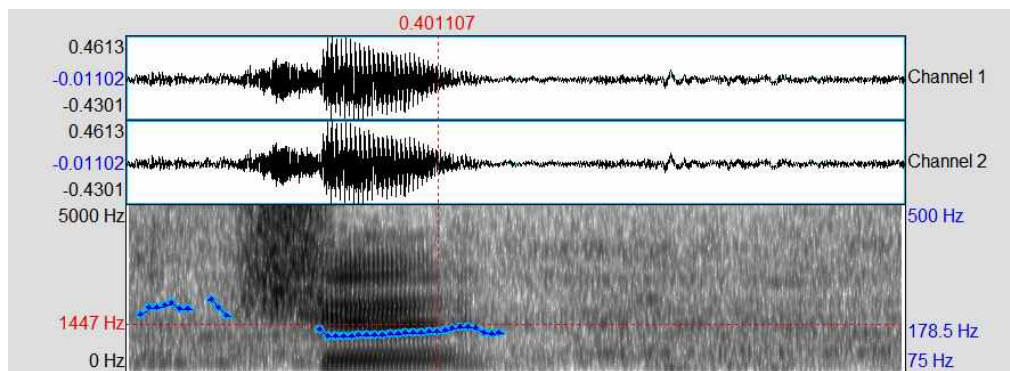


<图3.3.3a> 韩国人“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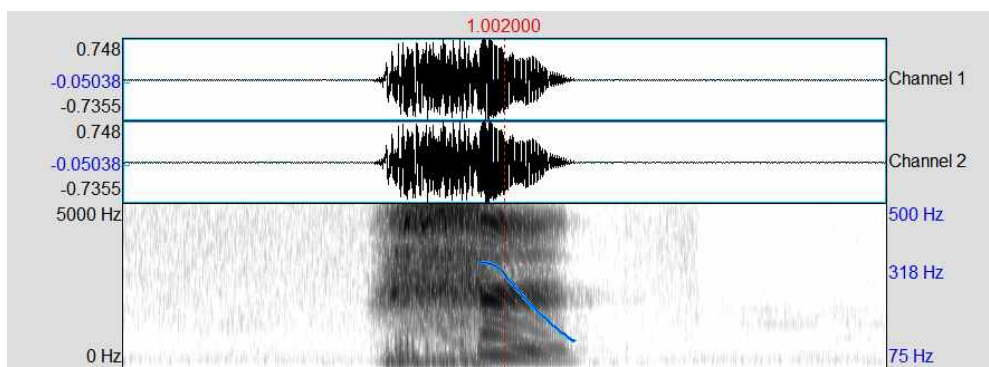


<图3.3.3b> 中国人“你”

都呈下降然后上升的过程，图a较图b总体短促，降程不明显。图b总体语音片段偏长，呈现出明显先下降后上升的过程。



<图3.3.4a> 韩国人“是”



<图3.3.4b> 中国人“是”

<图a>和<图b>很明显可以看出不同。图a成一条平稳的直线没有上升和下降的趋势，<图b>明显下降并且短促。

4) 本章小结

通过对韩国人和中国人阴平、阳平、上声、去声的语图分析可以看出，韩国人阴平调偏低偏短，阳平调上升不明显，上声调太过平稳，去声调降程不明显。

4. 声调偏误分析以及教学启示与教学设想

语音偏误是学习者由于不了解目的语的语音规则而犯的一种有规律性的错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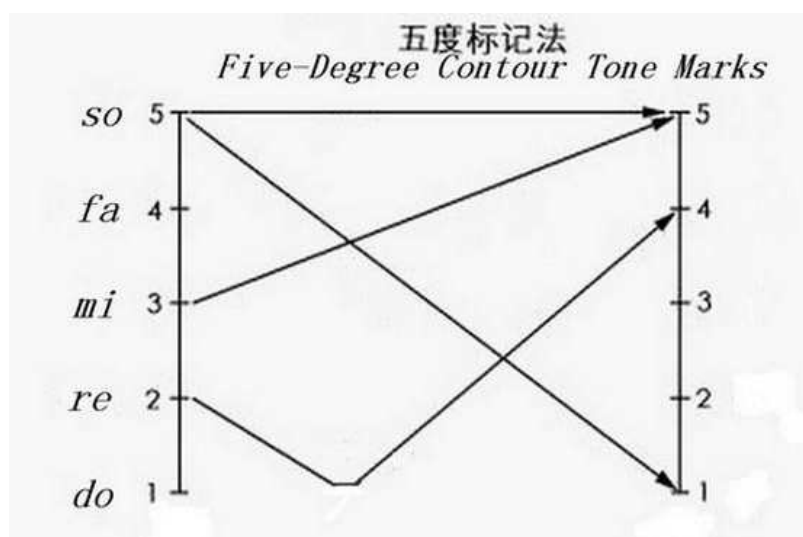
1) 声调角度

(1) 汉语声调的作用

声调是指汉语音节中所固有的，可以区别意义的声音的高低和升降。声调在音节中的作用在于区别意义。比如昌、长、厂、唱四个音节的声母和韵母都相同，但是意义不同，这就是因为声调不同决定的。但要注意声调的音高是相对的，不是绝对；声调的升降变化是滑动的，不像音乐里从一个音阶到另一个音阶那样跳跃式地移动。

(2) 五度标记法

现代汉语采用五度标记法。五度标记法是赵元任为把调值描写得具体、易懂而创造的一种标记调值相对音高的方法。用五度竖标来标记调值相对音高走势的一种方法。画一条竖线为坐标，分作四格五度，表示声调的相对音高，并在竖线的左侧画一条反映音高变化的走势的短线或点，表示音高升降变化的格式。根据音高变化的走势，或平或升或降或弯曲，制成五度标调符号，有时也采用两位或三位数字表示，这叫做调值数码法。



<图4.1> 五度标记法

5. 总结

本文通过 praat 语音软件对初级汉语水平韩国学生在发音时声调出现的语音偏误进行了深入研究, 通过与中国学生的语音数据对比分析找出了韩国留学生的语音偏误. 同时结合数据分析了偏误产生的根本原因。

【参考文献】

- [1] 林焘. 语音研究和对外汉语教学 [J]. 世界汉语教学, 1996, (3)
- [2] 赵金铭. 对外汉语教学概论 [M]. 商务印书馆, 2005
- [3] 刘珣. 对外汉语教学引论 [M]. 北京语言文化大学, 2000
- [4] 应燕平. 浅谈对外汉语教学中的声调教学[J]. 华章, 2008 (3)
- [5] 池杨琴. 对外汉语声调教学研究述评[J]. 解放军外国语学院学报, 2005
- [6] 刘艺. 日韩学生的汉语声调分析 [J]. 世界汉语教学, 1998
- [7] 宋春阳. 谈对韩国学生的语音教学——难音及对 [J]. 南开学报, 1998
- [8] 丁萍. 外国留学生多音字读音情况的调查与研究 [D]. 湖南师范大学, 2012

【어학분과Ⅱ】 발표 ⑤

汉韩“同形同义”成语比较研究

——以新HSK6级真题为核心

李浩彬* · 金正勋**

【目 录】

1. 引言
2. 汉韩“同形同义”成语的使用频率
 - 1) BCC与Trends21语料库的同形同义成语使用频率
 - 2) CCL与Trends21语料库的同形同义成语频率
 - 3) HSK动态作文与Trends21语料库的同形同义成语频率
3. 汉韩“同形同义”成语的用法比较
4. 韩国汉语学习者“同形同义”成语习得顺序
5. 结语

1. 引言

新汉语水平考试(HSK)为测试非汉语母语者的汉语水平而建立的一项韩语汉语能力标准化考试。此考试为衡量非汉语母语者汉语水平的主要标准。新HSK分为1级至6级,其中诸多成语出现于HSK6级词汇中。本文对《新HSK6级词汇大纲》中的成语与两套《新HSK6级真题集》中出现的成语进行分类、分析及研究¹⁾。以新HSK6级真题集中出现的成语为研究对象,还参考了《成语大词典》、《国立国语院标准语韩语大词典》对50个汉韩同形同义成语进行比较研究与分析。

从HSK6级真题集14、18版与HSK6级大纲中出现的200余成语中,筛选出46个汉韩“同形同义”成语,对CCL语料库²⁾、BCC语料库³⁾及HSK动态作文语料库⁴⁾以及Trends21语料库⁵⁾中的“同形同义”成语使用频率作出统计与分析,且对其成语的句法作出比较分析,讨论这些同形同义成语在含同形同义成语的句子中充任主语、谓语、宾语、定语、状语、补语等不同句法功能。汉语同形同义成语所担任的句法成分如下:主语、谓语、宾语、定语、状语、补语,韩语同形同义成语主要作主语、宾语、定语。与韩语同形同义

* 第一作者。李浩彬,北京师范大学汉语文化学院语言学及应用语言学博士研究生(lhbin7777@naver.com)。

** 通信作者。金正勋,釜山外国语大学中国学部助教授(kakuri313@bufs.ac.kr)。

1) HSK6级真题集(2014)、HSK6级真题集(2018)出版

2) CCL语料库(北京大学中国语言学研究语料库)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

3) BCC语料库(北京语言大学语言智能研究院成立) <http://bcc.blcu.edu.cn>

4) HSK动态作文语料库(北京语言大学汉语国际教育研究院) <http://hsk.blcu.edu.cn>

5) Trends21语料库(韩国高丽大学民族文化研究院) <http://corpus.korea.ac.kr>

成语比较, 汉语同形同义成语所担任谓语句法的句法成分较多。

2. 汉韩“同形同义”成语的使用频率

1) BCC与Trends21语料库的同形同义成语使用频率

非汉语母语者学习汉语词汇, 掌握高频率汉语词汇的重要性为毋庸置疑的。本文旨在了解中韩两国同形同义成语使用情况, 对北京语言大学作文(BCC)以及韩国的Trends21语料库进行检索, 从中选取了高频率同形同义成语, 且对其成语进行量化分析研究。首先要看这两国的语料库中成语频率情况, 如<表1>所示:

<表1> BCC与Trends21语料库的同形同义成语使用频率

	HSK6真题与大纲	BCC	HSK6真题与大纲	Trends21
1	实事求是	24084	千差万别	4011
2	不可思议	15757	自由自在	3396
3	小心翼翼	11907	无穷无尽	2882
4	通货膨胀	10532	雪上加霜	2108
5	自力更生	7652	形形色色	1890
6	四面八方	5260	新陈代谢	1826
7	新陈代谢	4270	不计其数	1807
8	形形色色	3938	深思熟虑	1668
9	一目了然	3911	不可思议	1626
10	自由自在	3516	锦上添花	1586
11	络绎不绝	3457	实事求是	1126
12	自强不息	3307	同病相怜	943
13	任重道远	2534	一举两得	541
14	无穷无尽	2247	自力更生	399
15	得意洋洋	2239	共存共荣	281
16	雪上加霜	2199	名不虚传	235
17	深思熟虑	2006	苦尽甘来	170
18	千篇一律	1983	千篇一律	135
19	锦上添花	1934	得意洋洋	79
20	名不虚传	1709	孟母三迁	69
21	患得患失	1684	名胜古迹	39
22	不计其数	1670	自强不息	35
23	千差万别	1628	赤手空拳	30
24	古往今来	1588	任重道远	17
25	名胜古迹	1513	尽善尽美	13

从<表1>可以看出, 中国的BCC语料库中的成语频率按照成语出现次数由高到低依次排列: 实事求是(24084)、不可思议(15757)、小心翼翼(11907)、通货膨胀(10532)、自力更生(7652)、四面八方(5260)、新陈代谢(4270)、形形色色(3938)、一目了然(3911)、自由自在(3516)。韩国Trends21语料库中的成语频率却与中国的BCC截然不同。其成语频率按照成语使用次数从高到低进行排列: 千

差万别(4011)、自由自在(3396)、无穷无尽(2882)、雪上加霜(2108)、形形色色(1890)、新陈代谢(1827)、不计其数(1808)、深思熟虑(1668)、不可思议(1625)、锦上添花(1586)。在中国的BCC语料库中,“实事求是”的使用频率最为高,然而在韩国Trends21语料库中,它却排在第11位,“不可思议”的使用频率仅次于“实事求是”,而在韩国Trends21语料库中,它则排在第9位,它的使用频率高于“实事求是”;在韩国Trends21语料库中,“千差万别”的使用频率最高,但中国的BCC语料库中,排在第9位,在韩国Trends21语料库中,使用频率较高的“同病相怜”,该成语在中国的BCC语料库中,排在第32位。在汉韩语料库的前25个成语中,诸多成语的排序却不同。

此外,在韩国Trends21语料库中,有些成语的使用频率较高;千差万别、自由自在、无穷无尽、雪上加霜、形形色色、新陈代谢、不计其数、不可思议、锦上添花、实事求是等,其成语使用频率高于1000次,也常出现在社会交际中,因而对于韩国汉语学习者而言,较为容易掌握;有些成语在韩国Trends21语料库中使用频率较低;自力更生、千篇一律、名胜古迹、自强不息、赤手空拳等,这些成语的使用频率低于500次,在日常生活当中,颇少出现这些成语,因此韩国学生在学习汉语成语过程中,较难把握这些成语的用法。

韩国汉语学习者首先要把握韩国语料库中的高频成语,尽管诸多汉韩同形同义成语的使用频率排序却不同,然而两者之间仍有许多高频同形同义成语。韩国学生掌握好同形同义成语的使用用法,可会减少避免使用成语的情况。此外,这些同形同义成语不论在韩国教材上还是在社会交际中,都常出现,韩国学生则仍然实际运用起来确实存在颇大的难度,并难以掌握准确的其成语用法。

2) CCL与Trends21语料库的同形同义成语频率

本文对北京语言大学作文(CCL)以及韩国的Trends21语料库进行检索,从中选取了高频率同形同义成语,且对其成语进行量化分析研究,以期了解中韩两国同形同义成语使用情况。这两国的语料库中成语频率情况,如<表2>所示:

<表2> CCL与Trends21语料库的同形同义成语频率

	HSK6真题与大纲	CCL现代	HSK6真题与大纲	Trends21
1	实事求是	8531	千差万别	4011
2	通货膨胀	7420	自由自在	3396
3	不可思议	2861	无穷无尽	2882
4	小心翼翼	2315	雪上加霜	2108
5	四面八方	2285	形形色色	1890
6	自力更生	2157	新陈代谢	1826
7	络绎不绝	1844	不计其数	1807
8	形形色色	1569	深思熟虑	1668
9	自强不息	1315	不可思议	1626
10	任重道远	1250	锦上添花	1586
11	一目了然	1063	实事求是	1126
12	新陈代谢	1004	同病相怜	943
13	雪上加霜	968	一举两得	541
14	名胜古迹	855	自力更生	399
15	自由自在	830	共存共荣	281

16	深思熟虑	819	名不虚传	235
17	锦上添花	714	苦尽甘来	170
18	不计其数	680	千篇一律	135
19	古往今来	653	得意洋洋	79
20	无穷无尽	630	孟母三迁	69
21	千差万别	601	名胜古迹	39
22	千篇一律	504	自强不息	35
23	得意洋洋	472	赤手空拳	30
24	尽善尽美	432	任重道远	17
25	青山绿水	374	尽善尽美	13

从<表2>可以看出,中国的CCL语料库中的成语频率按照成语出现次数由高到低依次排列:实事求是(8531)、通货膨胀(7420)、不可思议(2861)、小心翼翼(2315)、四面八方(2285)、自力更生(2157)、络绎不绝(1844)、形形色色(1569)。韩国Trends21语料库中的成语频率却与中国的BCC不相同。其成语频率按照成语使用次数从高到低进行排列:千差万别(4011)、自由自在(3396)、无穷无尽(2882)、雪上加霜(2108)、形形色色(1890)、不计其数(1807)。在中国的CCL语料库中,“实事求是”的使用频率最高,但它在韩国Trends21语料库中排在第11位,在中国的CCL语料库中,“通货膨胀”的使用频率仅次于“实事求是”,然而它则在韩国Trends21语料库中,不在前25位之列;在韩国Trends21语料库中,“千差万别”的使用频率最高,却在中国的CCL语料库中,排在第21位。在韩国Trends21语料库中,使用频率仅次于“千差万别”的成语为“自由自在”,该成语在中国的CCL语料库中,排在第15位。在汉韩语料库的前25个成语中,大多数的成语排序则不同。

在韩国Trends21语料库中,有些成语的使用频率较高;千差万别、自由自在、无穷无尽、雪上加霜等,其成语使用频率高于2000次,也常出现在社会交际中,韩国汉语学习者较为接触掌握这些成语,因而对于韩国学生而言,十分容易把握并运用这些成语;有些成语在韩国Trends21语料库中出现频率颇低:古往今来(6)、尽善尽美(13)、任重道远(17)、自强不息(35)、名胜古迹(39)等,这些成语的使用频率低于50次,然而在中国CCL语料库中的这些成语使用频率远远高于韩国语料库中的其成语使用频率:古往今来(653)、尽善尽美(432)、任重道远(1250)、自强不息(1315)、名胜古迹(855),这一点是从事汉语教学者与汉语学习者值得关注点。尽管在中国汉语课堂教学当中常出现这些成语,亦是属于高频成语,但韩国学生在社会交际中,很少接触这些成语。这些成语对韩国汉语学习者而言,仍然极其陌生,学习这些成语的确存在一定的难度,十分难以把握于这些同形同义成语。

3) HSK动态作文与Trends21语料库的同形同义成语频率

本研究对北京语言大学HSK动态作文语料库以及韩国的Trends21语料库进行检索,从中选取了高频率同形同义成语,以期了解韩国汉语学习者在写作当中常用的成语。这两国的语料库中成语频率情况,如<表3>所示:

<表3> HSK动态作文与Trends21语料库的同形同义成语频率

	HSK6真题与大纲	HSK动态作文	HSK6真题与大纲	Trends21
1	名胜古迹	12	千差万别	4011
2	一举两得	11	自由自在	3396

3	不可思议	9	无穷无尽	2882
4	自由自在	9	雪上加霜	2108
5	古往今来	6	形形色色	1890
6	雪上加霜	4	新陈代谢	1826
7	锦上添花	3	不计其数	1807
8	苦尽甘来	3	深思熟虑	1668
9	无穷无尽	3	不可思议	1626
10	自力更生	3	锦上添花	1586
11	实事求是	2	实事求是	1126
12	千差万别	2	同病相怜	943
13	四面八方	1	一举两得	541
14	空前绝后	1	自力更生	399
15	一目了然	1	共存共荣	281
16	新陈代谢	1	名不虚传	235
17	不计其数	1	苦尽甘来	170
18	名不虚传	1	千篇一律	135
19	同病相怜	1	得意洋洋	79
20	深思熟虑	1	孟母三迁	69

从<表3>可以看出,中国的北京语言大学HSK动态作文语料库中的成语频率按照成语出现次数由高到低依次排列:名胜古迹(12)、一举两得(11)、不可思议(9)、自由自在(9)、古往今来(6)、雪上加霜(4)。韩国Trends21语料库中的成语频率却与北京语言大学HSK动态作文语料库中的却不相同。其成语频率按照成语使用次数从高到低进行排列:千差万别(4011)、自由自在(3396)、无穷无尽(2882)、雪上加霜(2108)、形形色色(1890)、新陈代谢(1827)、不计其数(1808)。在中国的HSK动态作文语料库中,成语“名胜古迹”的使用频率排在第一位,然而它在韩国Trends21语料库中不在前20位之列,而排在第21位。在韩国Trends21语料库中,成语“千差万别”的使用频率最为高,但在中国的HSK动态作文语料库中,其成语排在第12位,但形形色色、新陈代谢、不计其数的使用频率则仅仅是1次。在汉韩语料库的前20个“同形同义”成语中,大多数的成语排序则迥然不同。

在HSK动态作文语料库中的“同形同义”成语,显示出韩国学生在汉语作文中常用的成语与不常用的成语,且这些成语无论是使用频率高还是使用频率低,都是在汉韩语料库中常出现的成语。韩国汉语学习者在写作中明显少用这些成语的原因:第一,以这些同形同义成语造句难度高于阅读或口语的难度;第二,汉语成语本身有着复杂性和高难度;第三,汉语教学中,汉语教师很多时候专注于成语意思的解释,而不太关注成语的用法;第四,韩国学生基本关注被成语的意思,却不太会深一步了解成语的用法,主动用成语造句情况为数不多。

3. 汉韩“同形同义”成语的用法比较

汉韩成语一般具有词汇功能,它在句中充当多种的句法功能,譬如,主语、谓语、宾语、定语、状语、状语。相关例句如下⁶⁾:

6) CCL语料库(北京大学中国语言学研究语料库) <http://ccl.pku.edu.cn>, 国立国语院标准语韩语大词典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Trends21语料库(韩国高丽大学民族文化研究院) <http://corpus.korea.ac.kr>

- 例1) 同时, 在一个县内, 也不都是千篇一律。(宾语)
- 例2) 否则, 大家千篇一律, 吃亏的还是自己, 我的几个朋友就因此栽过跟头。(谓语)
- 例3) 他不赞成千篇一律的模式。(定语)
- 例4) 这些书籍千篇一律地讲了求职信的结构和常用词语, 还为读者提供了许多求职信的样本。(状语)
- 例5) 到广东从事短期文化交流的人更是不计其数。(宾语)
- 例6) 花费的钱财不计其数。(谓语)
- 例7) 之前, 有不计其数的企业找过她。(定语)
- 例8) 数年前, 记者曾去义乌采访, 这里的小商品多得不计其数, 这些小商品多出自当地的家庭工业。(补语)
- 例9) 그 당시의 소설은 천편일률적 양상을 보인다. (定语)
- 例10) 천편일률적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宾语)
- 例11) 교차로 주변 건물이 삼각형꼴로 세워진 것이 부지기수다. (谓语)
- 例12) 집회에 모인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다. (状语)

从以上的11个例句可以看出, 中国语料库中的成语“千篇一律”一词在例1)至例4)中可充当宾语、谓语、定语、状语; 韩国语料库中的成语“千篇一律”一词在例9)至例10)中可充当定语、宾语。另外, 中国语料库中的成语“不计其数”一词在例5)至例8)中可作宾语、谓语、定语、补语; 韩国语料库中的成语“不计其数”一词在例11)至例12)中可作谓语、状语。此外, 从如上的11个例句中可以看出, 汉语同形同义成语充当的句法成分是根据其成语在句中的位置与语义关系决定的, 而韩语同形同义成语所充任的句法取决于与和其成语配套的助词。这些同形同义成语在韩语句子中均与韩语助词“-적”“- (이)다”“- (를)을”“-로”使用。

汉语教学者或韩国汉语学习者要了解汉韩成语在句中担任的句法成分, 以期更为准确地对汉韩“同形同义”成语的用法进行分析。本文的研究对象为在汉韩语料库中使用频率高于25次的同形同义成语, 对以下20个同形同义成语进行分析: 实事求是、自力更生、千篇一律、自强不息、新陈代谢、雪上加霜、自由自在、不计其数、锦上添花、名胜古迹、一举两得、得意洋洋、不可思议、名不虚传、同病相怜、无穷无尽、络绎不绝、形形色色、千差万别、苦尽甘来。在韩国语料库中的诸多同形同义成语为名词性成分, 因而这些成语在韩国语料库中充任主语、定语、宾语, 也充当谓语、状语及补语。在这些同形同义成语在中国语料库中充当谓语性的句法成分较多; 谓语、状语、补语, 且也充任主语、宾语及定语。在20个同形同义成语中充当谓语的成语为8成以上, 这是汉语成语为谓词性成分及其强的缘故。

由此可见, 这些同形同义成语在汉韩句式, 充任宾语和谓语时, 产生较大的差异, 亦是汉语学习者及汉语教学者值得关注的內容。在汉语中, 成语“实事求是”、“自由自在”、“不计其数”、“锦上添花”、“不可思议”均作补语, 尤其是成语“实事求是”、“自力更生”均可以充任状语、补语。但这些同形同义成语在韩语中, 主要担任的句法成分为主语、宾语、定语, 而不可以作补语使用。在韩语中, 同形同义成语“一举两得”、“同病相怜”、“苦尽甘来”可充任宾语, 然而在汉语中不可充当宾语, 而成语“千篇一律”、“不计其数”、“千差万别”、“雪上加霜”、“无穷无尽”在汉语或韩语中均可充任宾语, 其中“千差万别”、“千篇一律”都可作宾语、定语。本研究发现汉语成语和韩语汉字成语尽管有诸多不同之处, 但仍然两者的共同之处多于不同之处。在汉韩句子中, 同形同义成语充任的句法功能有颇多的相同, 然而存在着其成语句法功能的不同之处, 两者的句法功能足够反映到汉语教学方法、汉语教材上的成语布置、词典上的成语例句等, 同时也会对韩国汉语学习者习得汉语起颇大作用。

4. 韩国汉语学习者“同形同义”成语习得顺序

韩国学生在学习“同形同义”成语时，先考虑到在中韩国料库中同时出现的高频成语，亦要掌握北京语言大学HSK动态作文语料库中使用到的同形同义成语，HSK作文语料库主要反映到韩国汉语学习者的成语使用情况，并了解韩国学生在写作当中常用的成语。基于中韩两国语料库中出现的同形同义成语频率，对其成语进行打分，打分标准如<表4>所示：

<表4> 汉韩同形同义成语的频率分数

BCC语料库的 成语频率	CCL语料库的 成语频率	Trends21语料库的成 语频率	北语动态作文语料库 的成语频率	分数
20000以上	8000以上	4000以上	10以上	10
15000以上	5000以上	3000以上	9	9
10000以上	2500以上	2500-3000	8	8
5000以上	2000-2500	2000-2500	7	7
3000-5000	1500-2000	1500-2000	6	6
2000-3000	1000-1500	1000-1500	5	5
1500-2000	500-1000	500-1000	4	4
1000-1500	100-500	100-500	3	3
500-1000	50-100	50-100	2	2
0-500	0-50	0-50	0-1	1

从<表4>可以看出，在BCC语料库中，“实事求是”（24084）使用频率最为高，得10分；“不可思议”（15757），得9分；“小心翼翼”（11907）、“通货膨胀”（10532），得8分；“自力更生”（7652）、“四面八方”（5260），得7分；“新陈代谢”（4270）、“形形色色”（3938）、“一目了然”（3911）、“自由自在”（3516）、“络绎不绝”（3457）、“自强不息”（3307），得6分，则“苦尽甘来”（463）、“孟母三迁”（56）等成语，得1分。

在CCL语料库中，使用频率最为高的成语“实事求是”（8531），得10分；“通货膨胀”（7420），得9分；“不可思议”（2861），得8分；“小心翼翼”（2315）“四面八方”（2285）、“自力更生”（2157），得7分；“络绎不绝”（1844）、“形形色色”（1569），得6分，却“良药苦口”（40）、“孟母三迁”（13）等成语，得1分。

在Trends21语料库中，使用频率最为高的成语“千差万别”（4011），得10分；“自由自在”（3396），得9分；“无穷无尽”（2882），得8分；雪上加霜（2108），得7分；形形色色（1890）、“新陈代谢”（1826）、“不计其数”（1807）、“深思熟虑”（1668）、“不可思议”（1626）、“锦上添花”（1586），得6分；“空前绝后”（2）、“画蛇添足”（3）、“良药苦口”（3）等成语，得1分。

在北京语言大学HSK动态作文语料库中，出现频率最高的成语“名胜古迹”（12）、“一举两得”（10），得10分；“浑然天成”（9），得9分；“古往今来”（6），得6分，则“一目了然”（1）、“新陈代谢”（1）、“不计其数”（1）等成语，得1分，通过HSK动态作文语料库中的同形同义成语使用频率，笔者不难发现与其他语料库中的成语存在颇大的不同之处。写作中的汉语成语使用频率极其重要，它可以反映到韩国汉语学习者在写作中的低频成语和高频成语，也可以看出他们成语使用结构，因此，韩国汉语学习者要掌握这些高频成语及其用法。本文对如上的4个语料库中的成语所给的分数进行合并计算，其结

果如<表5>所示:

<表5> 汉韩同形同义成语的频率分数

	HSK6真题与大纲	CCL现代	BCC	HSK动态作文	Trends21	分数
1	不可思议	8	9	9	6	32
2	自由自在	4	6	9	9	28
3	实事求是	10	10	2	4	26
4	自力更生	7	7	3	3	20
5	雪上加霜	4	5	4	7	20
6	无穷无尽	4	5	3	8	20
7	千差万别	4	4	2	10	20
8	一举两得	3	3	10	4	20
9	通货膨胀	9	8	1	1	19
10	名胜古迹	4	4	10	1	19
11	得意洋洋	3	5	10	1	19
12	新陈代谢	5	6	1	6	18
13	小心翼翼	7	8	1	1	17
14	锦上添花	4	4	3	6	17
15	四面八方	7	7	1	1	16
16	深思熟虑	4	5	1	6	16
17	名不虚传	3	9	1	3	16
18	不计其数	4	4	1	6	15
19	古往今来	4	4	6	1	15
20	络绎不绝	6	6	1	1	14
21	形形色色	6	6	1	1	14
22	自强不息	5	6	1	1	13
23	一目了然	5	6	1	1	13
24	任重道远	5	5	1	1	12
25	千篇一律	4	4	1	2	11
26	空前绝后	4	4	1	1	10
27	同病相怜	4	1	1	4	10
28	赤手空拳	3	4	1	1	9
29	患得患失	3	4	1	1	9
30	共存共荣	3	2	1	3	9

从<表5>可以看出, 韩国汉语学习者可先学习总分高的“同形同义”成语; 不可思议(32)、一举两得(28)、实事求是(26)、自力更生(20)、雪上加霜(20)、雪上加霜(20)、无穷无尽(20)、千差万别(20)、一举两得(20), 这些高频成语助于韩国学生学习汉语, 使他们更加效率地学习汉语, 也会对汉语教学者汉语教学质量的提升有所帮助。

5. 结语

本文对《新HSK6级词汇大纲》中的成语与两套《新HSK6级真题集》中出现的成语进行统计, 共得50个

汉韩“同形同义”成语。笔者在中韩两国语料库中使用的同形同义成语进行研究并分析，发现这些汉韩“同形同义”成语在这两国语料库中使用频率的排序却不一致。这一点会形成韩国汉语学习者学习汉语的难点。因此韩国汉语学习者在学习成语时首先要考虑在中韩两国语料库中同时出现的高频成语，然后再了解并把握在北京语言大学HSK动态作文语料库中使用的成语。

该文还对汉韩成语所充当的句法成分作出比较与分析，结果表明，中韩两国的同形同义成语在句子中所担任的句法成分基本一致。对中国语料库中的成语例句进行句法分类，考察到其成语主要担任的句法成分如下：谓语、定语、状语、补语，而在韩国语料库中，成语主要充当定语、宾语、状语、补语。在韩国语料库中的诸多同形同义成语为名词性成分，而在中国语料库中的诸多成语为谓语句成分，即是汉韩成语所充任的句法成分不一致的原因。成语在句中充任定语的特点与一般词汇有几点不同：第一，成语不能如形容词般重叠作出定语；第二，成语一般不和程度副词使用；第三，组成成语的语素之间不能更换其中的语素或语素的次序；第四，成语基本不与介词一同充当定语；第五，成语通常不与其他词汇一同担任定语。此外，汉语同形同义成语充当的句法成分是根据其成语在句中的位置与语义关系决定的，而韩语同形同义成语所充任的句法取决于与其成语配套的助词，换言之，韩语同形同义成语充当句法成分基本需要与其成语相关助词的辅助，而其成语却不能单独作出句法成分。另外，一般词汇通语体色彩常分成“口语色彩”、“书面色彩”，然而成语语体色彩基本属于“书面色彩”。韩国汉语学习者与汉语教学者值得关注与注意这些差异。

本文根据韩国语料库和中国语料库中“同形同义”使用频率，且对这些成语进行打分，以期使韩国汉语学习者在学习汉语时先要学习哪些成语，并使汉语教学者针对韩国汉语学习者先教哪些成语。基于中韩语料库中“同形同义”成语使用频率与其状况，可以发现两者之间的不同之处多于共同之处。这些不同之处反映到韩国汉语学习者在写作中的低频成语和高频成语，成语使用结构、汉语教学方法、汉语教材上的成语布置、词典上的成语例句等，同时也会对韩国汉语学习者习得汉语起颇大作用。

该研究提及韩国汉语学习者在学习汉语成语时，要了解哪些成语先要学习并把握。本文，对此提出一些学习“同形同义”成语的4个原则：首先，要学习在中韩两国的语料库中同时出现的同形同义成语；其次，要学习韩国语料库中的高频成语；再次，要学习中国语料库中的高频成语；最后，要学习HSK动态作文语料库中出现的成语。

【参考文献】

- 강병규, 「中·韩四字成语의 사용빈도와 통사적 기능 비교 연구」, 『中国语文论丛』, 第54辑, 2012, pp. 1-17.
- 김진호, 「동소이서 성어 : 병렬식 사자성어를 중심으로」, 『中国学丛』, 第18辑, 2004, pp. 25-78.
- 심지언, 「중국어 말하기 교재 사자성어와 설문조사를 통한 사자성어 선정 기준 제안」, 『中国学』, 第68辑, 2019, pp. 177-194.
- 李美智, 『汉韩同形同义成语对比研究』, 华东师法大学硕士论文, 2013.
- 娄桂玲, 「初探中韩成语形式对比研究」, 『湖北函授大学学报』, 第9辑, 2012, pp. 86-87.
- 朴德英, 「汉韩语同形同义成语对比研究——以新汉语水平考试(HSK)为中心」, 『现代语文』, 第1辑, 2020, p. 90-93.
- 成语大词典 编委会, 『成语大词典』, 商务印书馆, 2008.
- 孔子学院总部, 国家汉办 编制, 『HSK6级真题集(2014版)』, 高等教育出版社, 2014.
- 孔子学院总部, 国家汉办 编制, 『HSK6级真题集(2018版)』, 人民教育出版社, 2018.

【문학분과】 발표 ①

魯迅과 瞿秋白의 共同雜文에 대한 美學적 검토

조현국*

【목 차】

1. 서론	3. 共同雜文의 미학
2. 共同雜文의 배경	4. 결론

1. 서론

국내에서 『루쉰전집』이 완간됨에 따라 雜文 연구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¹⁾ 雜文은 魯迅의 문학세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魯迅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출판된 《魯迅全集》(北京:人民文學出版社, 1981) 전 16권에 수록된 단행본 중 제 9권(『中國小說史略』, 『漢文學史綱要』), 10권(『古籍序跋集』, 『譯文序跋集』), 11~13권(書信集), 14-15권(日記), 16권(附集)을 제외한 8권 중에서 문학작품집은 22集이고, 이 가운데 잡문집이 17集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다.²⁾ 비중 면으로 보더라도 『루쉰전집』에 수록되어 있는 雜文은 魯迅의 문학적 자양분이 풍부하게 담겨있는 곳이어서, 魯迅을 재조명하거나 그의 문학을 더욱 폭넓게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루쉰전집』의 잡문집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魯迅이 瞿秋白과 합작하여 발표한 잡문이다. 『거짓자유서(僞自由書)』의 「왕도시화(王道詩話)」, 「억울함을 호소하다(伸冤)」, 「곡의 해방(曲的解放)」, 「마주보기경(迎頭經)」, 「영혼을 파는 비결(出賣靈魂的秘訣)」, 「가장 예술적인 국가(最藝術的國家)」, 「안과 밖(內外)」, 「바닥까지 드러내기(透底)」, 「대관원의 인재(大觀園的人才)」, 『남강북조집(南腔北調集)』의 「여인에 관하여(關於女人)」, 「진짜 돈키호테와 가짜 돈키호테(真假堂吉訶德)」, 그리고 『풍월이야기(淮風月談)』의 「중국 문장과 중국인(中國文與中國人)」 등이 그것이다. 『루쉰전집』의 주석자에 따르면, 이 “12편은 모두 1933년 취추바이(瞿秋白)가 상하이에 있을 때 쓴 것이다. 이 가운데 몇몇 글은 루쉰의 의견에 근거하거나 루쉰과 의견을 교환한 후에 썼다. 루쉰은 여기에 첨삭을 가하고(제목을 바꾸기도 했다) 누군가에게 베껴 쓰게 하여 자신의 필명으로 《선바오》의 <자유담> 등의 간행물에 발표했다. 후에 그것들을 자신의 잡문집에 각각 나누어 수록했던 것”이다.³⁾

* 충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1) 『루쉰전집』의 마지막 권인 제20권이 2018년 4월 15일자로 그린비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2) 김하림, 「魯迅 後期 雜文의 藝術性과 思想性 研究-雜文 研究를 위한 試論的 接近」, 『中國現代文學』, 제14호, 1998, p.137에서 인용.

그렇다면 魯迅은 무슨 이유로 瞿秋白과 합작한 잡문을 자신의 잡문집에 수록했는가? 이들이 독특한 방식으로 합작한 잡문의 미학과 그것의 근대성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답하려면 魯迅과 瞿秋白이 합작한 14편의 잡문과 『魯迅雜感選集』의 상호 텍스트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들이 14편의 雜文을 합작하던 3월과 6월 사이에 瞿秋白은 上海의 東照里에 머물면서 魯迅의 잡문을 통독하고 선집하는 작업을 했다.⁴⁾ 魯迅의 73편의 잡문을 골라 선집하고 그것에 대한 자기의 장편 서문을 담은 『魯迅雜感選集』을 출판했던 것이다.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보자면, 14편의 공동잡문 가운데 여섯 편은 3월에 집필되었고, 다섯 편은 4월에 썼다. 『선집』의 「서언」을 쓴 날짜가 “1933년 4월”이니, 말하자면 共同雜文 열네 편 가운데 열한 편이 瞿秋白이 『魯迅雜感選集』을 엮고 『서언』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선보였다고 볼 수 있다.⁵⁾

李保高는 이와 같은 瞿秋白과 魯迅의 공동잡문과 『魯迅雜感選集』의 상호 텍스트성에 주목하면서 “瞿秋白의 魯迅에 대한 이해와 魯迅의 瞿秋白에 대한 인정은 문학과 정치의 연대를 만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魯迅雜感選集』이란 텍스트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회포를 가지고 일치된 노선을 실제 작품 창작으로 연계하고 있는 작업이 잡감의 공동집필 작업이었다.”⁶⁾라고 언급한 바 있다. 즉 瞿秋白에 의해 魯迅의 혁명 정신이 발견된 책이 바로 『魯迅雜感選集』이었다고 한다면, 瞿秋白과 魯迅이 합작한 ‘共同雜感’은 그렇게 해서 형성된 혁명에 대한 정신적 연대가 실제의 창작 차원에서 이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이다.⁷⁾

다른 한편으로, 『魯迅雜感選集』이 魯迅과 瞿秋白의 二重 주체성을 지닌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魯迅雜感選集』은 단순히 魯迅의 작품을 골라 모아 놓은 것만이 아니라 瞿秋白의 주체성도 담겨 있다는 것이다. 瞿秋白이 자신의 魯迅관을 찬술한 『魯迅雜感選集·序言』(이하 「序言」)도 이 선집의 주요 부분이거나 『魯迅雜感選集』에 수록된 잡문들도 瞿秋白의 魯迅관과 정치문화적 입장에 기초하여 선별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魯迅雜感選集』에 들어 있는 ‘잡문’의 작가는 魯迅이지만 『魯迅雜感選集』의 ‘작가’는 瞿秋白이라는 것이다.⁸⁾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魯迅雜感選集』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瞿秋白이 선별한 魯迅의 잡문, 다른 하나는 魯迅의 잡문에 근거한 瞿秋白의 「서언」. 따라서 『魯迅雜感選集』의 진정한 의미는 이 두 부분의 상호 작용에서 발견될 수 있다. 말하자면 『魯迅雜感選集』과 그것의 「서언」도 魯迅과 瞿秋白의 공동 잡문의 범주에 있는 것이다.

본고의 출발점도 魯迅 잡문의 최초 ‘독자’로서 瞿秋白이 보아낸 것, 잡문 작가 瞿秋白과 편집자 魯迅의 관계가 빚어낸 문학사적인 광경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상기한 선행 연구 성과를 토대로 魯迅과 瞿秋白이 합작한 14편의 雜文을 씨줄로, 瞿秋白이 선집하고 쓴 『魯迅雜感選集』과 「序言」을

3) 루쉰, 루쉰전집번역위원회(이보경·유세중), 『루쉰전집 7권·거짓자유서/풍월이야기/꽃테문학』, 그린비출판사, 2010, p.82. 실은 魯迅이 瞿秋白과 합작한 잡문은 두 개 더 있다. 「《子夜》和國貨年」, 「“兒時”」. 「“兒時”」는 1940년대 당도가 선집한 『魯迅전집·보유』에 수록되었다가 1953년 『瞿秋白문집』이 편찬되면서 거기로 편입되었다. 丁景唐·王保林, 『魯迅和瞿秋白合作的雜文及其它』, 陝西人民出版社, 1993, p.59.

4) 瞿秋白 부부는 魯迅의 소개로 1933년 3월초 上海의 北四川路의 施高塔路(현재의 山陰路) 동조리12호에서 생활하다가 안전상의 이유로 6월 초에 王家沙 鳴玉坊의 꽃가게 건물로 옮긴다. 周永祥 著, 『瞿秋白年譜新編』, 學林出版社, 1992, pp.351-357.

5) 공동잡문 14편의 발표일을 보면 다음과 같다. 〈王道詩話〉(발표일 1933.03.06.), 〈伸冤〉(1933.03.09.), 〈曲的解放〉(1933.03.12.), 〈迎頭經〉(1933.03.19.), 〈出賣靈魂的秘訣〉(1933.03.26.), 〈最藝術的國家〉(1933.04.02.), 〈《子夜》和國貨年〉(1933.04.03.), 〈內外〉(1933.04.17), 〈透底〉(1933.04.19.), 〈大觀園的人才〉(1933.04.26.), 〈關於女人〉(1933.06.15.), 〈眞假堂吉訶德〉(1933.06.15), 〈中國文與中國人〉(1933.10.28.), 〈“兒時”〉(1933.12.15.)

6) 李保高, 「魯迅과 瞿秋白의 “革命 傳統” 意味 研究-『魯迅雜感選集』을 中心으로」(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160쪽.

7) 李保高, 같은 논문, pp.167-168.

8) 董炳月, 「1933年: 雜文的政治與修辭——論《魯迅雜感選集》及其周邊」, 『文藝研究』, 2018年第9期, p.35.

날줄로 삼아 그들이 합작한 잡문의 미학적 의미와 잡문을 통해 형성된 이들의 문화적 연대의 근대성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2. 共同雜文의 배경

2.1. 『魯迅雜感選集』의 배치 구조가 암시하는 것

『魯迅雜感選集』은 당시 출판되었던 魯迅의 7권의 잡문집에서 뽑은 잡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瞿秋白은 『열풍(熱風)』⁹⁾에서 9편, 『무덤(墳)』¹⁰⁾에서 9편, 『화개집(華蓋集)』¹¹⁾에서 11편, 『화개집속편(華蓋集續編)』¹²⁾에서 10편, 『이이집(而已集)』¹³⁾에서 13편, 『삼한집(三閑集)』¹⁴⁾에서 11편, 『이심집(二心集)』에서 10편을 뽑았다.

그런데 이 같은 『선집』의 구성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瞿秋白이 『魯迅雜感選集』의 첫 번째 편으로 《열풍》에 수록되어 있던 「수감록 25」을 고르고, 마지막 편으로 《이심집》의 ‘서언’을 배치했다는 점이다.

「수감록 25」는 1918년 9월 15일에 발표된 것이다. 魯迅의 잡문 가운데 이 잡문보다 더 일찍 발표된 잡문은 많았다.¹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집』의 시작을 「수감록 25」로 연 것은 魯迅의 잡문에서 읽어내려는 “사상투쟁사”¹⁶⁾의 기점을 5·4기 신문화운동으로 설정하려는 의도라 여겨진다. 실제로 「수감록 25」는 魯迅이 5·4신문화운동을 고취한 잡지 『신청년』의 ‘수감록’이라는 칼럼에 발표한 글이었다. 魯迅은 이 글을 필두로 1919년 11월까지 총 27편을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과학과 민주로 중국의 문화를 혁신할 것을 주장하고 이른바 ‘국수(國粹)’의 보존이라는 명분으로 신문화운동을 반대한 문화 보수주의를 비판했다.¹⁷⁾ 瞿秋白은 魯迅이 ‘수감록’에 발표한 글 가운데 6편을 『선집』에 수록했는데, 이는 그가 魯迅 잡문 읽기의 기점을 5·4 신문화운동기로 설정했음을 방증해준다.

『魯迅雜感選集』의 마지막에 수록된 「이심집·서언」은 1932년 4월 30일에 발표된 글이다. 『이심집』

9) 《열풍》에 수록된 작품은 1918년부터 1924년까지 쓴 잡문 41편이다. 1925년 11월에 베이징 베이신서국에서 초판이 나왔으며, 필자 생전에 10판까지 찍었다.” 『루선전집』 제1권 주석, p.422.

10) 《무덤(墳)》은 지은이가 1907년부터 1925년까지 쓴 에세이 23편을 수록하고 있다. 1927년 3월에 베이징의 웨이밍사(미명사)에서 초판이 나왔고, 1929년 3월 제2차 인쇄 때에는 지은이가 교정을 보았다. 제4차 인쇄 때에는 새로 상하이 베이신서국에서 출판되었다. 『루선전집』 제1권 주석, p.26.

11) 《화개집(華蓋集)》은 魯迅이 1925년에 쓴 잡문 31편을 수록하고 있다. 1926년 6월 베이징 베이신서국(北新書局)에서 처음 출판되었다. 작가 생전에 모두 아홉 차례 출판되었다.” 『루선전집』 제4권 주석, p.22.

12) 《화개집속편》은 魯迅이 1926년에 쓴 잡문 32편과 1927년에 쓴 1편을 수록하고 있다. 1927년 5월 베이징 베이신서국(北新書局)에서 처음 출판되었다. 작가 생전에 모두 여섯 차례 출판되었다.” 『루선전집』 제4권 주석)

13) 《이이집(而已集)》은 루선이 1927년에 쓴 잡문 29편을 수록하고 있으며, 1926년에 쓴 1편을 부록으로 더하고 있다. 1928년 10월에 상하이의 베이신서국에서 초판이 나왔다. 『루선전집』 제5권 주석, p.22)

14) 《삼한집(三閑集)》에는 작가가 1927년에서 1929년에 걸쳐 쓴 잡문 34편이 수록되어 있고 말미에 1932년에 쓴 「루선 저서 및 번역서 목록」 한 편이 첨부되어 있다. 1932년 상하이의 베이신서국에서 초판이 출판되었다. 작가 생전에 모두 네 차례 인쇄되었다.” 『루선전집』 제5권 주석, p.250)

15) 잡문집 《분》에 실린 최초의 글은 1907년 12월에 발표된 「인간의 역사」이다. 瞿秋白은 시간의 순서를 맞출 요량이었는지 瞿秋白은 《분》에 실려 있던 1919년 11월에 발표된 「우리는 아버지 노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글을 선집하지 않았다. 『루선전집』 제1권, p.33, p.281 참고)

16) “지금 魯迅의 잡감을 골라 선집으로 묶는 건 그 속에 사상투쟁사의 보배로운 성취를 담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현재 눈앞에 닥친 전투에도 기여하고자 함이다.”(「서언」, 조현국 옮김, p.181)

17) 루선, 루선전집번역위원회(홍석표·이보경), 『루선전집 1권·무덤/열풍』, 『열풍』에 대하여, 그린비출판사, 2010, p.p.582-583 참고.

에 수록된 글과 그 ‘서언’은 魯迅의 사상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의 시기에 쓰여진 것이다. 주지하듯이 魯迅은 1928년에 프롤레타리아 혁명문학을 창도했던 창조사 및 태양사의 성원들과 혁명문학과 관련된 갖가지 문제를 둘러싸고 한바탕 논쟁을 치렀으며, 그 과정에서 맑스주의 문예이론을 학습하고 수용했다. 바로 『二心集』은 魯迅이 맑스주의 문예이론을 수용한 후인 1930년부터 1931년까지 쓴 잡문 37편을 수록한 것이다.¹⁸⁾ 『二心集』이라는 잡문집 제목은 魯迅의 맑스주의 문예이론의 수용 자체를 혁명문학과에 대한 투항이라 간주하고 심지어 문단의 ‘이신(貳臣)’, 즉 ‘두 임금을 섬긴 불충한 신하’라고 비난한 논적의 말을 비틀어 명명한 것이다. 또한 『이심집』의 ‘서언’에는 “오직 신흥하는 프롤레타리아만이 미래가 있다”는 魯迅의 확신이 들어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말하자면 『이심집』은 魯迅에게 있어서 자신의 계급을 뛰어넘는 글쓰기이며 그 ‘서언’은 ‘지식인(독서인)의 프롤레타리아화’라는 당시 시대적 요구에 대한 창도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이렇게 보자면 편집자 瞿秋白은 1918년부터 1932년까지 펼쳐져 있는 魯迅의 잡문을 편년체 방식으로 배열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그 잡문의 저변에서 ‘저자 魯迅’을 읽어내기를 요청하고 있으며, 독자 瞿秋白은 5·4 이래 문학 사상사·운동사라는 지평에서 魯迅의 잡문이 갖는 가치를 주목했고, 이를 통해 魯迅의 ‘사상 전변’을 개괄했던 것이다.

2.2. 『魯迅雜感選集』과 ‘좌련’

주지하듯이 瞿秋白은 魯迅의 사상 전변을 다음과 같이 개괄했다.

“그는 진화론에서 계급론으로 나아갔으며, 진취적으로 해방을 쟁취하는 개인주의에서 전투적으로 세계를 개조하는 집체주의로 나아갔다.”²⁰⁾

“魯迅은 진화론에서 계급론으로 옮겨 왔다. 신사 계급의 불효자이자 반역자에서 프롤레타리아와 노동 대중의 참된 벗으로, 전사로 이동해 왔다. 신해혁명 이전부터 현재까지 4반세기 전투를 몸소 겪었고, 그 과정에서 경험하고 관찰했던 고귀한 혁명 전통을 새로운 진영으로 가져 왔다.”²¹⁾

瞿秋白의 이 같은 언급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나는 魯迅의 잡문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중국적 근대에 대한 비판과 극복을 지향한 혁명 작가 魯迅상을 제시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정체된 중국의 혁명문학운동을 魯迅의 잡문을 통해 물꼬를 트려고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은 상호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의 좌익작가연맹(이하 좌련)의 상황과 연관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다.

曠新年에 따르면, 좌련의 성립은 1928년부터 시작된 프롤레타리아 혁명문학운동의 필연적인 결과였다. 중국의 프롤레타리아 혁명문학운동은 좌련의 성립으로 새로운 역사적인 단계로 진입했는데, 그 표지는 ‘당’과의 결속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곧 ‘좌련은 당 조직을 결성했고, 문

18) 그 외에도 『이심집(二心集)』권말에 「현대영화와 부르주아」라는 번역문 1편을 덧붙였다. 『이심집』은 1932년 10월에 상하이의 허중서점(合衆書店)에서 초판이 발행되었으며, 1933년 8월 제4판이 출간된 후 국민당 정부에 의해 발행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1934년 10월 허중서점은 국민당의 도서심사기관의 심사를 거친 16편만을 『습영집』으로 묶어 출간했다. 이 문집은 허중서점의 초판과 동일하다.”(『루쉰전집』 제6권 주석, p.22)

19) 루쉰/ 루쉰전집번역위원회(이주노, 공상철), 『루쉰전집 6권·이심집/남강북조집』, 『이심집』에 대하여(그린비출판사, 2014), pp.448-559 참고.

20) 瞿秋白, 『『노신잡감선집』 머리말』, 『부질없는 이야기』, 조현국 옮김, 썬물과밀물, 2018, p.201.

21) 瞿秋白, 『『노신잡감선집』 머리말』, 같은 책, p.208.

학은 당의 지도나 제어를 받는 등 半정당 성격의 문학조직'이었다. 좌련은 '프롤레타리아 문학 투쟁으로 거대한 균중을 영도하는 조직'이어야 했으며, 좌련이 추구하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은 '혁명 투쟁을 완성하는 선전과 선동의 무기'로서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 같은 좌련의 성격은 5·4 시기 문학연구회 등의 문학사단이나 순문학 사단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좌련의 성립으로 중국현대문학은 5·4 시대의 개인주의 문학에서 1930년대 '집단예술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이다. 국민성·개인주의·사람의 문학·백화문·자연주의(사실주의) 같은 5·4 근대기의 명사들이 1928년 프롤레타리아 혁명문학운동이 전개되면서 계급성·정치성·집단주의·대중어·신사실주의 같은 새로운 명사로 치환되었고, 1930년 좌련의 성립은 1928년부터 전개된 '문학의 새로운 정의'에 당파성을 중요한 원칙으로 추가한 것이다.²²⁾

그런데 문체는 좌련의 지식인·작가들이 '문예 투쟁으로 거대한 균중을 이끌고, 문예가 혁명의 선전·선동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공허하거나 극단적인 경향을 띠었다는 점이다. 瞿秋白이 「서언」에서 '魯迅에게서 배워야 하고 그와 함께 전진하자'고 제안한 것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瞿秋白은 당시 좌련 지식인·작가들의 '문예의 정치성'·'예술의 정치화'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과 실천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제로 魯迅의 잡문을 제시했던 것이다. 瞿秋白이 魯迅의 잡문에 근거하여 "빈민 소부르주아와 혁명적 지식 계층은 착취 제도를 반대하는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려면 오직 새로 일어난 사회주의 선진 계급과 같이 전진해야 하고, 위대하고 투쟁적인 집단 안에서 진정한 '개성해방'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²³⁾ "이런 혁명전통은 우리에게 대단히 귀중한 것이며, 특히 집단주의의 강렬한 빛 아래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²⁴⁾라고 언급한 대목이라든가 "잡감이라는 문체는 魯迅으로 인해 예술성을 띤 논설(포이통 - feuilleton)의 대명사로 바뀔 터"²⁵⁾라고 설명한 대목은 모두 魯迅의 잡문을 통해 당시 좌련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도와 연관되어 있다. 그렇다면 瞿秋白이 언급한 '계급론·집단주의', '예술성을 띤 논설'을 둘러싸고 문화적인 연대가 어떻게 이뤄지고 어떤 미학적인 의미를 획득했는가?

3. 共同雜文의 미학

3.1. 혁명적 지식인·작가와 균중 : '집단주의'의 함의

瞿秋白이 '계급론과 집단주의'로 魯迅의 사상 전변을 개괄할 수 있었던 근거로 『魯迅雜感選集』의 65번째 작품인 「좌익작가연맹에 대한 의견」을 거론할 수 있다.

이 글에서 魯迅은 진정한 혁명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첫째는 '실제의 사회투쟁과 접촉하지 않은 채 그저 유리창 안에 갇혀 글을 쓰고 문제를 연구하지 말 것'²⁶⁾, 둘째는 '혁명의 실제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곧 혁명은 고통이고, 그 속에는 어

22) 曠新年, 「文學的重新定義」,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제3기, 2000, pp.104-118 참고. 사실 이 같은 '문학의 새로운 정의'를 세우는 과정은 앞서 언급한 魯迅의 사상 전변의 과정과 맥을 같이 한다. 계급론·집체주의·프롤레타리아 같은 명사가 魯迅의 사상 전변을 설명하는 단어들이었다.

23) 瞿秋白, 「『노신잡감선집』 머리말」, 같은 책, p.202.

24) 瞿秋白, 「『노신잡감선집』 머리말」, 같은 책, p.209.

25) 瞿秋白, 「『노신잡감선집』 머리말」, 같은 책, p.181.

26) 이런 작가들을 魯迅은 'Salon 사회주의자'로 표현했다. 魯迅, 「좌익작가연맹에 대한 의견」, 『루쉰전집』 제6권, p.75.

떨 수 없이 더러움과 피가 섞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혁명은 현실의 일이고, 갖가지 천하고 성가신 일을 요구하며 낭만적인 일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시인이나 문학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지위가 높고 그의 일이 다른 모든 일보다 고귀하다고 여기지 말 것.’ 다시 말해 노동자 대중에 대해 우월감을 갖지도 말고 우대받기 바라지 말고 군중 속에서 새로운 전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⁷⁾

魯迅이 꿈은 진정한 혁명적 지식인·작가의 요건은 5·4기 계몽적 지식인 논리와는 대비되는 것이다. 魯迅의 이 같은 생각은 단순한 이론이나 선형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그 자신의 이른바 ‘잡문의 자각’²⁸⁾ 때부터 체질화 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내가 올해 공교롭게도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을 만난 데다가, 자질구레한 일에 매달리는 버릇이 있으니 말이다. …… 나는 어렸을 적에 하늘을 나는 꿈도 꾸곤 했지만, 지금까지도 땅 위에 있으면서 사소한 상처조차 제때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 …… 마치 물에 젖은 작은 벌처럼 진흙 위에서 이리저리 기어 다닐 뿐이니, 감히 양옥집에 사는 통달한 이와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양옥집에 사는 통달한 이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름의 슬픔과 노여움이 있는 법이다. …… 하지만 내가 얻은 것은 내 자신의 영혼의 황량함과 거칠음뿐이다. 하지만 나는 결코 이것들을 겁내지도, 덮어두고 싶지도 않으며, 게다가 정말이지 조금은 이것들을 아끼고 있다. 이건 내가 모래바람 속에서 옆치락뒤치락 살아온 흔적이기 때문이다.”²⁹⁾

이 같은 魯迅의 ‘잡문의 자각’이 표출된 「화개집·제기」는 1930년대에 발표한 「좌익작가연맹에 대한 의견」의 콘텍스트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잡문의 자각’시기는 魯迅이 경계, 곧 지식인의 세계와 大衆(프롤레타리아)의 세계라는 두 세계의 경계에 있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

瞿秋白이 魯迅을 진정한 혁명 작가의 표본으로 생각한 것도 이런 과정에 대한 통찰에 기인한 것이다. 瞿秋白도 魯迅의 이런 경계에서의 고뇌와 분투를 그의 잡문을 통해서 읽고 있었다. 이는 瞿秋白이 魯迅을 ‘레무스’로 비유한 대목에서 엿볼 수 있다.

“魯迅은 레무스였다. 야수의 젖을 먹고 자란 봉건적 중범사회의 불효자식이며, 신사 계급의 반역자이며, 낭만적 혁명가에게 바른 말을 마다하지 않는 쟁우였다! 그는 혼자의 길에서 늑대의 품으로 돌아왔다.”³⁰⁾

여기서 말한 “늑대의 품”은 ‘계몽’의 세계에서 ‘거대한 군중’(프롤레타리아)의 세계로 진입한 魯迅의 사상 전변에 대한 강렬한 비유라 할 수 있다. 이는 1928년 프롤레타리아 혁명문학 창도자들도

27) 魯迅, 「좌익작가연맹에 대한 의견」, 『루쉰전집』 제6권, pp.75-81 참고

28) 장쉬동(張旭東)은 『화개집』, 『화개집속편』 및 『이이집』 일부가 집필되던 1925년부터 1927년 사이는 루쉰의 잡문이 ‘자각’을 향해 나아간 과도기이며, 루쉰 잡문의 특수한 성격이 점차 완성되었던 시기라고 보았다. 『화개집』부터는 독특하고 규정짓기 어려운 창작양식, 우리가 그저 ‘잡문’이라는 틀 아래서만 고찰할 수 있는 창작양식이 출현하고 있으며, 그것이 또 역으로 루쉰 잡문의 견고한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 때문이다. 장쉬동은 魯迅이 초기 창작의 엄청난 성공 덕분에 ‘예술을 위한 예술’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었고, 방대한 작품을 저술하는 데 전념하여 중국의 괴테 혹은 톨스토이가 될 수도 있었으며, 학자·대사상가·오피니언 리더·청년의 우상·저명인사 등등이 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내팽개치고 ‘잡문가’로 전향한 이유를 묻는다. 魯迅에게 있어 ‘잡문의 자각’이 동반한 것은 자신의 인생 처지에 대한 자각과, 자신과 그 시대의 대립관계에 대한 자각, 그리고 자신의 유향성에 대한 자각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장쉬동, 「잡문의 ‘자각’-루쉰 ‘과도기’ 창작의 현대성과 언어정치(상)」, 김은영 역, 『중국현대문학』 제50호, 2009, pp.332-333.

29) 魯迅, 「제기」, 『루쉰전집 4권 화개집/화개집속편』, 루쉰전집번역위원회(이주노·박자영), 2014, pp.23-26.

30) 瞿秋白, 「『노신잡감선집』 머리말」, 같은 책, p.182.

여전히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유랑’하는 것과 대비된다.

“다른 한편으로, ‘5·4’와 ‘5·30’ 사이 중국 도시에는 각종 ‘보헤미언(Bohemian)’— 유랑하는 소부르주아 지식 청년이 빠르게 모여들었다. 이 지식 계층은 초기 사대부 계급 가운데 ‘불효자, 배신한 신하’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봉건적 중범사회가 붕괴한 결과요, 제국주의 군벌 관료의 희생품이요, 중국의 기형적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케도를 이탈한’ 고아나 다름없었다.”³¹⁾

이렇게 보자면, 魯迅의 ‘개인주의에서 집단주의로’의 사상 전변의 진정한 함의는 탈개성적이고 몰인격화된 집단주의에 함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을 계몽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지식인의 우월성을 버리고 거대한 군중의 세계에서 그들과 함께 혁명(문학)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瞿秋白은 魯迅의 잡문을 통해 그런 사상전변의 가능성을 발견했고, 혁명을 추구하는 지식인·작가들도 ‘魯迅에게서 학습하고 魯迅과 함께’ 거대한 군중(프롤레타리아) 세계로 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瞿秋白의 입장에 魯迅도 공감하고 있었다. 瞿秋白과 이별한 후 발표한 글에서 魯迅은 각성된 지식인들이 우월감을 버리고 ‘대중의 일원’이 될 때 비로소 혁명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역사가 알려주듯이 개혁은 처음에는 늘 각성된 지식인의 임무이곤 했다. 그러나 이들 지식인은 반드시 탐구해야 하며 사고하는 힘이 있고 결단력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또 굳센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도 권위를 사용하지만 사람을 속이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는 자신을 모두의 광대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을 자신의 줄개로 업신여겨서도 안 된다. 그는 다만 대중 속의 일원일 따름이다. 이런 경우야야 대중의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³²⁾

계몽적 지식인의 대중화에 이 두 사람의 공감은 합작한 잡문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현실생활과 군중(민중)을 도외시할 경우, 좌익작가는 아주 쉽사리 우익작가가 된다고 생각한다”³³⁾는 魯迅의 언급은 이 둘이 합작한 잡문에서 “계속해서 왼쪽으로 돌다 보면 결국은 오른쪽으로 도는 친구와 부딪히게 되고, 그럴 경우 피차간에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라도 얼굴은 얼얼해지기 때문이다.”³⁴⁾라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군중의 현실세계를 도외시할 경우 ‘좌익’을 표방해도 ‘우익’과 같아지는 자기기만이라는 것을 풍자하고 있다. 나아가 그런 지식인의 大衆化에 대한 공통된 사유는 ‘생명’의 차원까지 이어지고 있다.

“본래 생명은 하나라서 누구라도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의 생명이 대중 속에 녹아 있고, 만일 그가 날마다 이 세계를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가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의 사업 - 대중 사업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영원한 청년’임을 깨달을 것이다.”³⁵⁾

계몽적 지식인의 대중화는 魯迅과 瞿秋白이 잡문을 합작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력이었던 것이

31) 瞿秋白, 『『노신잡감선집』 머리말』, 같은 책, p.205.

32) 魯迅, 『문밖의 글이야기』, 『루쉰전집 8권 차개정잡문/차개정잡문2/차개정잡문 말판』, 루쉰전집번역위원회(박자영·서광덕·한병곤), 그린비출판사, 2015, p.151.

33) 『루쉰전집』 제6권, p.75.

34) 『루쉰전집』 제7권, p.150.

35) 丁景唐·王保林, 같은 책, pp.179-180.

다. 말하자면 이들의 문화적 연대의 주요한 끈은 ‘개성을 집단(대중)에 녹인’ 주체의 문체와 연관되어 있고, 이에 대한 공감은 함께 잡문을 쓰고 발표하는 ‘집단적 작가’의 탄생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들이 14편의 합작한 잡문을 발표했을 때 사용한 공동 필명도 ‘집단적 작가’의 표징으로 봐도 무방한데, 이는 당시 魯迅과 瞿秋白이 창도하려고 했던 집단 지성의 한 양상이라 봐도 될 것 같다.³⁶⁾

3.2. 혁명적 작가와 문예: 共同 雜文과 예술의 정치화

魯迅의 사상 전변에 등장하는 “봉건 중법사회의 불효자식(‘逆子’), 신사 계급의 반역자(‘貳臣’)”는 ‘지식인(독서인)의 프롤레타리아화’의 다른 표현이다. 이 같은 ‘자기 계급을 배반’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공명한 것은 당시 동시대 진보적인 지식인들의 첨단적인 시대정신으로 보인다. 이는 서구의 발터 벤야민의 ‘무기로서의 글쓰기’ 개념에서도 엿볼 수 있다.

벤야민의 ‘무기로서 글쓰기’란 프롤레타리아혁명에 복무하는 글쓰기를 말한다. 벤야민에게서 혁명의 무기가 되는 글쓰기는 작가 개인의 올바른 정치적 경향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이는 벤야민이 ‘글쓰기의 신체성’을 강조한 데서 비롯되었다. 곧 작가는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인간’이었고, 따라서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의 작가들은 프롤레타리아 편에 선다. 왜냐하면 부르주아 계급은 지식인에게 교양의 형태로 하나의 생산수단을 부여했기 때문이고, 또 이 교양의 특권에 의해서 지식인으로 하여금 부르주아 계급과 연대 의식을 갖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결국 지식인-작가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계급을 배반하는 것, 곧 자기 출신 계급의 이익에 복무하는 작품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가 주체가 되는 혁명에 기여하는 글을 쓰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글쓰기가 바로 ‘무기로서 글쓰기’이다.³⁷⁾

魯迅과 瞿秋白의 ‘공동 잡문’ 글쓰기도 이 같은 벤야민의 ‘무기로서의 글쓰기’와 비슷한 맥락에 놓고 볼 수 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잡감이라는 문체는 魯迅으로 인해 예술성을 띤 논설(포이통-Feuilleton)의 대명사로 바뀐 터이다. 물론 이것이 창작을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의 중대한 일상적 사건에 대해 더 직접적이고 더 신속하게 반응하거나 반영하는 수단으로 이만한 방법은 없다.”³⁸⁾ 라는 「서언」의 한 대목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

瞿秋白이 魯迅 잡문을 ‘예술성을 띤 논설(포이통-Feuilleton)’이라 규정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하나는 魯迅의 잡문 글쓰기가 신문매체 기고로서 글쓰기였다는 것을 통찰했다는 점이다. 사실 瞿秋白이 괄호를 치고 부연한 ‘포이통(Feuilleton)’은, 독일의 경우, 신문매체의 지면을 구성하는 한 섹션을 가리키기도 하며, 또 이 포이통란에 실린 작은 형식의 기사를 일컫는 말이다.³⁹⁾ 이후 포이통은

36) 魯迅과 瞿秋白이 공동으로 집필한 14편의 잡문을 발표할 때 사용한 필명들은 干·何家干·子明·余銘·洛文·樂雯 등이 있다. 이 가운데 洛文은 樂雯과 연관된다. 1930년 중국국민당이 ‘墜落文人 魯迅’을 지명 수배할 때 魯迅이 즉각 상대를 비틀어 만든 필명이 ‘樂雯’이었다. 말하자면 ‘樂雯’이라는 필명은 魯迅이 자신의 사상 전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樂雯’이라는 필명은 魯迅의 제안으로 瞿秋白이 상해에 간행되는 中外 신문 잡지에 있는 관련 글을 모아 편역하여 『상해에 온 버나드쇼』라는 책을 엮어낼 때 瞿秋白의 필명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1933년 4월 2일과 3일에 《신보·자유담》에 이들의 공동 잡문 「《자야》와 국산품의 해」를 발표할 때 사용하기도 했다. 丁景唐, 『瞿秋白筆名·別名集錄』, 『瞿秋白研究文選』, 天津人民出版社, 1984, p.327. 魯迅, <集外集拾遺補編> 참고

37) 권용선 지음, 『발터 벤야민의 공부법 - 사소한 것들에 대한 사유』, 역사비평사, 2015, pp.237-253 참고.

38) “雜感的這種文體, 將要因為魯迅而變成文藝性的論文(阜利通-Feuilleton)的代名詞. 自然, 這不能夠代替創作, 然而他的特點是更直接的更迅速的反應社會的日常事變.” 「《魯迅雜感選集》序言」, 『瞿秋白文集』(文學編)第三卷, 人民文學出版社, 1989, p.96. 瞿秋白, 『『노신잡감선집』 머리말』, 같은 책, p.181.

문학과 저널리즘이 결합한 혼종 장르로서 ‘작은 형식’의 신문 기사를 지칭하는 동시에 신문의 문예란, 또는 문화란 지면을 가리키기도 했다.⁴⁰⁾ 말하자면 瞿秋白은 ‘포이통’이라는 단어로써 魯迅의 잡문이 신문매체 기고를 염두에 둔 글쓰기로서, 일상 사변에 대한 신속한 반응으로 독자들과 즉각적인 소통을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벤야민의 ‘생산자로서의 작가’라는 개념과 연관하여 분석할 때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획득할 있을 것이다. 벤야민은 “아무리 훌륭한 정치적 경향이라도 그것이 사람들이 따라야 할 태도를 예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경향이다. 그리고 작가가 이러한 태도를 보여줄 수 있을 때는 단지 그가 무엇인가를 만들 때, 다시 말해 그가 글을 쓸 때이다.”⁴¹⁾라고 언급한다. “진보적인 내용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진보적 표현방식이 고민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⁴²⁾을 강조한 것이다. 魯迅과 瞿秋白의 공동 잡문 글쓰기도 이 같은 ‘생산자로서의 작가’가 추구하는 “진보적 표현방식”으로 이해된다. 곧 雜文은 魯迅과 瞿秋白이 ‘글’로써 정치적 경향을 드러내는 방식이었고, “지식인으로서 자기 시대의 문제와 대결하는 날카로운 글쓰기,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가장 어울리는 문체를 통해 글쓰기를 발명하고자”⁴³⁾하는 魯迅과 瞿秋白의 욕망이 빚어낸 것이라 추론해 보는 것이다. 요컨대, 잡문은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더 적합한 형식으로 개발”된 것이다.⁴⁴⁾

“예술성을 띤 논설”의 또 다른 의미는 잡문이 매체 기고로서 글쓰기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예술성에서 기인한 시대의 총체성까지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문단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던 예술의 정치화(문예의 정치성)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1928년 프롤레타리아 혁명문학운동은 ‘문학의 새로운 정의’를 세우는 과정이었다. 문학과 정치·문학과 계급의 관계에서 정치성과 계급성이 강조되는 문학이 주창되던 시기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관계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으로 인해 ‘文藝自由論戰’이 벌어지게 되었다.

‘文藝自由論戰’은 胡秋原이 《독서잡지》에 「錢杏村 이론의 청산과 민족문학이론의 비평 - 맑스주의 문예이론의 옹호」라는 장편의 글에서, 錢杏村의 “문예의 목적의식론”을 비판하면서 격화되었다. 호추원이 보기에 진행론의 주장은 “벨린스키 플레하노프의 예술에 관한 첫 번째 기본 명제 - 이른바 ‘예술은 형상을 빌려 사색한다’는 과학적 미학의 제1과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 불과했다.⁴⁵⁾

이 같은 胡秋原의 예술론에 대해 瞿秋白은 「문예의 자유와 문학가의 부자유」라는 글에서 이렇게 비판했다.

“그는 사실상 예술의 적극적인 작용을 부인하고 예술이 충분히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39) 포이통은 우리말로 신문문예란, 또는 일상적 삶과 문화 관련 비평적 글들이 포이통을 구성하므로 “문화비평란”이라고 불리워진다. 포이통 Feuilleton은 원래 1799년 발행된 프랑스 신문 『주르날 데 데바 Journal des Débats』의 주요 면에 끼워진 광고지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以上은 하명해, 「1920년대 독일의 장르적 확장에 따른 문학장 이동-신문문예란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제23호, 2006, p.310.

40) 하명해, 2010, p.347.

41) 발터 벤야민, 「생산자로서 글쓰기」, 반성완 편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1996, p.266.

42) 권용선 지음, 같은 책, p.245.

43) 권용선 지음, 같은 책, p.246.

44) “문학이 중요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오직 실천과 글쓰기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괄적 지식을 자처하는 까다로운 책보다,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더 적합한 형식들, 예컨대 전단, 팸플릿, 잡지 기사, 포스터 등과 같은 형식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신속한 언어만이 순간 포착 능력을 보여준다. 사람들의 견해란 사회생활이라는 거대한 기구에서 유행유와 같다. 우리가 할 일은 엔진에 다가가서 그 위에 유행유를 쏟아 붓는 것이 아니다. 숨겨져 있는, 그러나 반드시 그 자리를 알아내야 할 대갈못과 이음새에 기름을 약간 뿌리는 것이다.” 발터 벤야민 지음, 김영옥·윤미애·최성만 옮김, 『일방통행로 / 사유이미지』, 도서출판 길, 2007, pp.69-70.

45) 曠新年, 같은 논문, p.119.

을 부인했다. 모든 계급의 문예는 생활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 문예 현상은 모든 사회현상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른바 이데올로기(의식형태)의 표현으로 상부 구조에서 가장 높은 층일지라도, 그것은 비록 사회제도의 변형을 결정할 수 없지만, 그(작가-인용자)는 비록 시중 생산력 상태와 계급 관계에 의해 규정되지만, 그러나 예술은 거꾸로 사회생활에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고 상당한 수준으로 계급투쟁의 발전을 촉진시키거나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그런 투쟁의 형세를 미묘하게 변동시킬 수 있으며 어떤 계급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쇠약하게 할 수 있다.”⁴⁶⁾(강조-瞿秋白)

“胡秋原 선생의 이론에 따르면, 예술은 단지 생활의 표현이자 인식이며 비평일 뿐만 아니라 그저 ‘자유인’의 입장에서 인식하고 비평하는 것이다. 이전 錢杏村의 비평은 문학가에게 무조건 정치 논문을 문예작품에 베껴 써넣으라고 요구한 것인데, 이것은 물론 그가 문예의 특수한 임무, ‘형상으로 사색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행론의 착오는 그가 문예의 정치화를 제기했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는 문예를 없애버렸다는 데에 있고 문예의 특수한 도구성을 방기했다는 데에 있다. 현재 胡秋原 선생은 ‘형상으로 사색한다’는 문예의 임무를 발견했으나 다른 극단으로 치우쳤다. 문예는 단지 생활을 표현하려고 하고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한 발 더 들어가 말하면 이전 錢杏村 등은 보그다노프, 미래파 등등의 영향을 받아 예술은 생활을 조직할 수도 있고 심지어 생활을 창조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이는 물론 착오다. 하지만 이런 착오 또한 그가 문예와 생활을 연계시키는 것을 요구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특수한 연결 방식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런 보그다노프주의의 착오는 유심론적 착오다. 그것은 문예가 사회생활을 조직할 수 있고 의식은 실질을 조직할 수 있다고 여겨 최상의 문예가 있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호추원 선생의 이론은 그런 이론에 반대된다. …… 따라서 그는 문예는 단지 소극적으로 생활을 반영하며 생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주장은 ‘문예의 존엄을 모멸하는 것’이라고 여긴다.”⁴⁷⁾

瞿秋白은 호추원의 예술이론이 ‘기실 모양만 바꾼 예술지상론’⁴⁸⁾이라고 지적했다. 瞿秋白이 「서언」에서 胡秋原 등을 비판하면서 魯迅 잡문의 ‘깨어 있는 현실주의’, ‘전형’ 등을 강조한 이유는 바로 당시의 이 같은 문학의 정치성과 계급성을 둘러싼 논쟁과 연관 있다. 예술지상주의에 함몰되어 계급사회의 생활(정치)과의 연관성을 간과하거나 예술성(문예성)이 토대가 되지 않은 혁명문학은 양극단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를 ‘예술성을 떠 논설’이라는 魯迅 잡문을 통해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瞿秋白은 정치(계급)와 변증법적인 통일을 추구하는 문학가로서의 魯迅의 발언을 『魯迅雜感選集』에도 담았는데, 이는 『魯迅雜感選集』 51번째에 수록된 「혁명시대의 문학」, 55번째에 있는 「문예와 혁명」에서 찾아볼 수 있다.⁴⁹⁾ 주지하듯이 瞿秋白은 ‘예술성(문예성)을 떠 논설’인 魯迅의 잡문에서 네 가지 혁명 전통을 뽑아 냈다. ‘늘 깨어 있는 현실주의’, ‘끈질긴 투쟁’, ‘반자유주의’, ‘허위를 반대하는 정신’.

실은 瞿秋白이 魯迅과 공동으로 집필한 14편의 잡문도 魯迅의 이 같은 혁명 전통이 투영된 것이다. 14편 잡문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국민당 정부의 안내양외 정책과 胡適 등에 대한 비판과 풍자는 「서언」에서 설명한 네 가지 魯迅 정신, 특히 ‘반자유주의’와 ‘허위를 반대하는 정신’을 구현한 것이었다.⁵⁰⁾ 瞿秋白은 魯迅의 잡문에 담겨 있는 ‘혁명 전통’을 학습하고 공동 잡문 글쓰기를 통

46) 瞿秋白, 「文學的自由和文學家的不自由」(『瞿秋白文集』(文學篇) 第3卷, 人民出版社, 1989, p.59.

47) 瞿秋白, 「文學的自由和文學家的不自由」(『瞿秋白文集』(文學篇) 第3卷, 人民出版社, 1989, p.59.

48) 瞿秋白, 「文學的自由和文學家的不自由」(『瞿秋白文集』(文學篇) 第3卷, 人民出版社, 1989, p.57.

49) 『魯迅雜感選集』의 55번째에 수록된 「문예와 혁명」에는 문예와 선전에 관한 魯迅의 유명한 언급이 있다. “모든 문예는 물론 선전이지만 모든 선전이 죄다 문예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魯迅전집』 제5권, p.354)

해 무기로서의 잡문을 더욱 예리하게 단련하기도 했다.⁵¹⁾

‘예술성을 띤 논설’이라는 정의는 잡문이 ‘예술의 정치화’가 필요한 혁명문학 시대에 총체성을 구현하는 예술성을 지닌 문체라는 점을 설파하기 위한 비평이었다. 瞿秋白은 중국혁명에 있어서 예술 작품으로서 잡문이 그런 사회의 총체성을 드러내는 무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魯迅의 잡문에서 발견하고 이를 전체 혁명문학 진영에 전파하려고 했던 것이라 여겨진다.

4. 결론

□ 공동잡문, 1928년 중국 무산계급 문학운동의 전개의 심화 단계. 魯迅의 잡문, 魯迅과의 잡문 합작을 통한 ‘예술의 정치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

□ 瞿秋白의 비평에서 주조된 魯迅은 추상화 혹은 이상화된 魯迅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 인간으로서 魯迅. 「서언」에서 魯迅의 사상 전변은 ‘문학가, 사상가, 혁명가 魯迅’의 원형. 이 같은 ‘삼가론’은 후에 모택동에 의해 정치적인 권위를 획득하게 됨.

□ 실제로 잡문과 잡문 비평을 통해 구축된 瞿秋白의 예술의 정치화 논리는 毛澤東의 ‘延安文藝講話’로 계승되었음.

□ 공동 잡문에서 창도된 ‘계몽적 지식인의 대중화’ 논리는 중국 혁명(중국 공산주의 운동)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참고가 될 것.

“중국 공산주의 운동은 전체 세계사에서 무산계급(노동자계급)이 관건적 의미를 지닌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무산계급이야말로 세계사의 청사진을 능히 실현할 혁명적 강고함과 철저함을 지녔다고 여겼다. 따라서 맑스주의를 자신의 신앙으로 삼았던 중국의 지식인들은 노동자계급을 대함에 있어 다른 신문화운동 지식인들이 가졌던 중국사회에 대한 특별한 우월감을 갖고 있지 않았다. 중국사회를 대할 때의 특별한 우월감과 우위감은 바로 신문화운동 당시 계몽자로 자처했던 수많은 지식인들이 보여준 두드러진 특징이었다.”⁵²⁾

□ 공동 잡문과 그에 대한 비평은 동서양 막론하고 자본주의 근대성에 대한 비판과 극복의 방법으로 제기된 것. 21세기 현재, 문예와 사회, 문학과 정치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글쓰기(문체)의 근대성을 사유하는 데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음.

□ 본 연구에서 수행한 瞿秋白의 ‘잡문론’을 중국 근대의 문체의 변모 양상과 연관해서 연구할 필요성. “중국적 상황에서는 풍격이나 문체의 변화는 사유의 전환과 직결되어 있고, 권력의 문제와 바로 연결된다”⁵³⁾는 점에서 문체를 둘러싼 ‘문화권력’(헤게모니)의 문제를 고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는 瞿秋白이 비판한 바 있던 ‘전통 잡문적 글쓰기(장태염 등) - 신체 산문(정론문: 양계초, 시무체, 新聞體)’등을 ‘雜感(魯迅, 공동 잡문)’과의 대비 속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봄.

50) 瞿秋白과 魯迅의 14편의 공동 잡문의 내용에 대한 연구로는 丁景唐·王保林, 李保高, 董炳月, 조현국(2016)의 논문을 참고할 것.

51) 공동 잡문 「가장 예술적인 국가」의 시작 부분은 魯迅의 잡문 「사진 찍기에 대하여」의 한 대목을 빌려왔다. 『魯迅雜感選集』 11번째에 인용한 魯迅의 잡문이 수록되어 있다.

52) 허 자오토텐(賀照田) 지음, 임우경 옮김, 『현대 중국의 사상적 근경』, 창비, 2018, p.151.

53) 김월희, 「신체 산문과 근대적 매체의 상관성」, 『근대어·근대매체·근대문학-근대 매체와 근대 언어질서의 상관성』,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p.262.

【참고문헌】

- 루쉰 글, 취추바이 엮음, 루쉰읽기모임 옮김, 『페어플레이는 아직 이르다』, 케이시아카데미, 2003.
『瞿秋白文集』(文學篇) 第3卷, 人民出版社, 1989.
- 瞿秋白 지음, 조현국 옮김, 『부질없는 이야기』, 썰물과밀물, 2018.
- 丁景唐·王保林, 『魯迅和瞿秋白合作的雜文及其它』, 陝西人民出版社, 1993.
- 루쉰, 루쉰전집번역위원회(홍석표·이보경), 『루쉰전집 1권·무덤/열풍』, 그린비출판사, 2010.
- 루쉰, 루쉰전집번역위원회(이주노·박자영), 『루쉰전집 4권·화개집/화개집속편』, 그린비출판사, 2014.
- 루쉰, 루쉰전집번역위원회(이주노·공상철), 『루쉰전집 6권·이심집/남강북조집』, 그린비출판사, 2014.
- 루쉰, 루쉰전집번역위원회(이보경·유세중), 『루쉰전집 7권·거짓자유서/풍월이야기/꽃태문학』, 그린비출판사, 2010.
- 루쉰, 루쉰전집번역위원회(박자영·서광덕·한병근), 『루쉰전집 8권·차개정잡문/차개정잡문 2집/차개정잡문 말편』, 그린비출판사, 2010.
- 루쉰, 루쉰전집번역위원회(김영문), 『루쉰전집 10권·집외집습유보편』, 그린비출판사, 2017.
- 周永祥 著, 『瞿秋白年譜新編』, 學林出版社, 1992
- 권용선 지음, 『발터 벤야민의 공부법 - 사소한 것들에 대한 사유』, 역사비평사, 2015.
- 발터 벤야민 지음, 김영옥·윤미애·최성만 옮김, 『일방통행로 / 사유이미지』, 도서출판 길, 2007.
- 허 자오펜(賀照田) 지음, 임우경 옮김, 『현대 중국의 사상적 곤경』, 창비, 2018.
- 董炳月, 「1933年: 雜文的政治與修辭-論《魯迅雜感選集》及其周邊」, 『文藝研究』, 2018年第9期.
- 曠新年, 「文學的重新定義」,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제3기, 2000.
- 장위동, 김은영 역, 「잡문의 ‘자각’-루쉰 ‘과도기’ 창작의 현대성과 언어정치(상)」 『중국현대문학』 제50호, 2009.
- 丁景唐, 「瞿秋白筆名·別名集錄」, 『瞿秋白研究文選』, 天津人民出版社, 1984.
- 金河林, 「魯迅 後期 雜文의 藝術性과 思想性 研究 - 雜文 研究를 위한 試論的 接近」, 『中國現代文學』, 제14호, 1998.
- 李保高, 『魯迅과 瞿秋白의 “革命 傳統” 意味 研究-『魯迅雜感選集』을 中心으로』,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2.
- 李保高, 「취추바이(瞿秋白)의 문학, 최후의 3년: 취추바이-루쉰 <공동집필잡감(共同執筆雜感)>(1933)과 『부질없는 이야기 [多餘的話]』(1935)를 중심으로」, 『中國文學』 第103輯, 2020.
- 조현국, 「두 시각의 종합 - 루쉰과 瞿秋白의 ‘共同雜文’에 대한 일고찰」, 『中國學論叢』 第五十二輯, 2016.
- 하명해, 「1920년대 독일의 장르적 확장에 따른 문학장 이동 - 신문문예란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제23호, 2006.
- 김월희, 「신체 산문과 근대적 매체의 상관성」, 『근대어·근대매체·근대문학 - 근대 매체와 근대 언어질서의 상관성』,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문학분과】 발표 ②

루쉰(魯迅)의 『古小說鉤沉』 輯佚과 六朝小說 研究*

— 장빙린(章炳麟)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영섭** · 양영애***

【목 차】

1. 들어가며	4. 장빙린의 「五朝學」과 루쉰의 『鉤沉』
2. 『鉤沉』이라는 標識	1) 六朝에 대한 관점
3. 장빙린(章炳麟)과 루쉰의 師承問題	2) 장빙린과 루쉰의 分岐
	5. 나오며

1. 들어가며

루쉰(魯迅)이 『中國小說史略』(1923, 이하 『史略』으로 약칭)을 펴냈을 때¹⁾, 일부에서는 일본학자 시오노야 온(鹽谷濶)의 支那文學概論講話』(1919)를 표절했다는 시비가 일어났다. 이에 대한 루쉰의 명쾌한 대답인 즉슨, 시오노야 온의 책이 자신의 책 몇 군데에서 많은 참고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양자가 중국문학사를 기술함에 있어 근거로 한 문헌자료가 다르다는 것이었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시오노야 온이 六朝(吳·東晉·宋·齊·梁·陳)小說을 다루면서 『漢魏叢書』를 근거로 했던 것에 반해, 루쉰 자신은 직접 輯佚·校勘 작업을 진행해 완성한 자료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료 중 六朝小說의 기본자료가 바로 『古小說鉤沉』(이하 『鉤沉』으로 약칭)이다. 루쉰의 이러한 주장은 『史略』에 인용된 例文들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본다면 虛言이 아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루쉰의 이러한 輯佚·校勘 작업이 그저 『史略』의 집필을 위한 단순한 자료의 수집·정리 작업이라고 치부되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루쉰은 『史略』에서 분명 唐代小說로부터 의식적인 문학창작이 시작되었다고 여겼는데, 그렇다면 唐代 이전의 이른바 ‘소설’들을 輯佚한 『鉤沉』은 『史略』 집필을 위한 자료수집 정리 이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唐代 이전의 불완전한 ‘소설’들을 집일한 『鉤沉』은 그저 진정한 의미로서의 소설이 등장한 唐代 이전 소설의 단서를 가늠케 해주는 자료로서의 역할뿐인가? 이런 의문에 대한 명료한 설명이 없이

* 이 논문은 건국대학교 KU연구전임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행된 과제임. 이 발표문은 2021년 2월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2(1)에 게재된 「루쉰(魯迅)의 『古小說鉤沉』 輯佚과 六朝小說 研究 - 장빙린(章炳麟)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중 지엽적인 부분들을 刪去한 것임을 밝히며, 보다 상세한 기술은 원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 건국대학교 아시아콘텐츠연구소 조교수 (monstar90@hanmail.net)

***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조교수 (ymyang1680@naver.com)

1) 루쉰의 『史略』은 당초 1920년 베이징(北京)대학에서 중국소설사를 강의하기 위해 만든 油印本 강의교재로, 원래 이름은 『小說史大略』이었다. 1923년에 정식으로 『史略』 上권이, 이듬해인 1924년에 下권이 출간되었다.

는, 魏晉南北朝에 대한 루쉰의 특별한 애착과 『鉤沉』의 정교한 輯佚·校勘 작업이 루쉰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선뜻 이해가 되질 않는다. 본고는 이런 몇 가지 부수적인 듯하지만, 무시할 수도 없는 의문으로부터, 초보적이거나 몇 가지 해답의 단서를 고찰하고 도출함으로써, 차후 루쉰과 그의 『鉤沉』 간에 펼쳐져있는 意味網에 대해 보다 다각적이고도 합리적인 파악에 一助하고자 한다.

2. 『鉤沉』이라는 標識

漢魏六朝小説을 輯録한 『鉤沉』은, 일반적으로 루쉰이 일본에서 귀국한 1909년 6월부터 1911년 말엽(혹은 1912년)까지 2년여에 걸쳐, 周代의 『靑史子』로부터 隋代 『旌異記』에 이르는, 총 36종의 古小説 片鱗을 모아 정리한 것으로, 이후로 줄곧 六朝小説 연구에 유용한 기초문헌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상술한 의문의 답을 찾아가는 데에 가장 확실한 출발점은 당연히게도 『鉤沉』의 서문이다. 먼저 그 全文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小説에 대해 班固는 “稗官으로부터 나왔으며”, “거리의 하찮은 識者들이 다루었던바 또한 기록하여 잊혀지지 않게 했는데, 혹여 한 글자라도 취할 바가 있더라도 그 역시 그저 풀 베고 나무하는 狂夫의 말일 따름이었다.” 이를 보면, 稗官의 직분이란 옛적 “詩를 採集하는 관리를 두어, 왕 노릇하는 자가 그 採集한 詩를 통해 習俗을 살피고 得失을 따졌던 것”과 거의 같다. 그는 諸子百家를 모아다가 10家로 나누며 다시 “불만한 것은 9家뿐”이라면서, 小説家は 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小説家에 기록된 15種의 문헌도 오늘날 모두 消失되었다. 그나마 『大戴禮記』에 인용된 『靑史子』의 기록과 『莊子』에 열거된 宋鉞의 말(즉 『宋子』)뿐인데, 단편적이고 조각난 句節들뿐이라 더더욱 그 宗旨를 살필 수가 없다. 옛적과 이미 멀어졌으며, 小説家를 계승한 記述들은 더더욱 변성하게 되었는데도, 論者들은 여전히 소설을 보잘 것 없다는 옛말만 墨守하니, 이야기로 갓 자라난 싹만 보고는 다 자란 가지와 잎사귀를 가늠해보는 꼴이 아니겠는가! 내 어려서부터 옛 이야기들을 들춰보기 좋아했는데, 혹 訛傳되거나 빠진 부분이 눈에 띄면, 곧바로 類書를 가져다 고증했고, 문득 佚文을 발견하면 이 역시 늘 베껴 놓았다. 비록 殘缺된 것들을 모아서 대부분 차례가 뒤죽박죽이었지만, 그 대체적인 면모는 본래 남아 있었다.……세상의 보잘 것 없는 책들이 원대한 사업을 이루는 데에 장애가 될까 저어되기는 하지만, 진정한 大作들이 이후에 등장하게 된 것도 모두 다 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하물며 저자거리의 말을 기록했다는 것은 나라 백성들의 진솔한 마음이란 것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세상을 걱정하는 선비의 構想이란 것임에랴! 인간의 변덕스런 마음가짐이 만연하자 절로 이런 작품들이 생겨나 文壇에 자리잡게 되니, 이는 마치 화려한 무궁화꽃 마냥, 죽히 文明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고, 홀로 고즈넉이 거하는 데에도 보탬이 되니, 대개 두루 보고 듣는 道具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論者들은 여전히 소설은 보잘 것 없다는 옛말만 墨守하고 있다. 내 이러한 옛 책들이 점점 더 쇠락해져가는 것을 애석히 여기고, 또한 이후로는 이런 작업을 해낼 餘暇가 적을까 염려하여, 다시 이를 輯佚하고, 아울러 옛 사람의 輯佚本을 가지고 校定한 것을 합쳐 數種의 결과물을 얻은 뒤, 이를 『古小説鉤沉』이라 이름 지었다. 이는 옛 책들에 온 마음을 쏟아부어 스스로 즐거움을 구한 것이기에, 大道를 얘기하는 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앞서 말했듯이, 稗官의 직분이란 옛적 “詩를 採集하는 관리를 두어, 왕 노릇하는 자가 그 採集한 詩를 통해 習俗을 살피고 得失을 따졌던 것”과 거의 같으리라.

小説者, 班固以爲“出於稗官”, “閭里小知者之所及, 亦使綴而不忘, 如或一言可采, 此亦芻蕘狂夫之議”是則稗官職志, 將同古“采詩之官, 王者所以觀風俗, 知得失”矣. 顧其條最諸子, 判列十家, 復以爲“可觀者九”, 而小説不與, 所錄十五家, 今又散失. 惟『大戴禮』引有靑史氏之記, 『莊子』舉宋鉞之言, 孤文斷句, 更不能推

見其旨. 去古既遠, 流裔彌繁, 然論者尚墨守故言, 此其持萌芽以度柯葉乎! 余少喜披覽古說, 或見僞敝, 則取證類書, 偶會逸文, 輒亦寫出. 雖叢殘多失次第, 而涯略故在. 大共瑣語支言, 史官末學, 神鬼精物, 數術波流……人間小書, 致遠恐泥, 而洪筆晚起, 此其權輿. 沉乃錄自里巷, 爲國人所白心, 出於造作, 則思士之結想. 心行曼衍, 自生此品, 其在文林, 有如舜華, 足以麗爾文明, 點綴幽獨, 蓋不第爲廣視聽之具而止. 然論者尚墨守故言. 惜此舊籍, 彌益零落, 又慮後此閑暇者尠, 爰更比輯, 並校定昔人集本, 合得如干種名曰『古小說鉤沉』. 歸魂故書, 卽以自求說釋, 而爲談大道者言, 乃曰: 稗官職志, 將同古“采詩之官, 王者所以觀風俗知得失”矣.

이 서문을 근거로, 루쉰 스스로 밝힌 『鉤沉』을 만든 이유나 목적으로 살펴보면, 이 輯佚 작업이 단순히 『史略』 記述을 위한 기초문헌 具備 작업에만 그치지 않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稗官의 직분과 ‘詩를 採集하는 관리’(采詩官)의 직능(function)을 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班固로부터 내려온 기존의 小說觀, 즉 小說이란 小道는 자질구레한 존재로 약간의 볼 만한 구석은 있으나 결국엔 大道에 해가 될까 저어하는 전통적인 입장에 대해, 옛 주장만 墨守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반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특히 小說이 무시되는 이유, 즉 한낱 저잣거리에서 수집되었으며 하릴없는 선비들이 확실한 근거도 없이 날조한 것이라는 기존의 관점에 대해, “저잣거리의 말을 기록했다는 것은 나라 백성들의 진솔한 마음이란 것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세상을 걱정하는 선비의 構想”이란 매우 능동적이고도 긍정적인 해석을 통해, 극적인 가치전복을 시도하는 데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 같은 가치전복을 받아들여야만, “인간의 변덕스런 마음가짐이 만연하자 절로 이런 작품들이 생겨나 文壇에 자리 잡게 되니, 이는 마치 화려한 무궁화꽃 마냥, 죽히 文明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고, 홀로 고즈넉이 거하는 데에도 보탬이 되니, 대개 두루 보고 듣는 道具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이 서문의 결론이 당위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단지 『鉤沉』의 결과물들이 小說史, 혹은 文學史의 범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중국 특유의 ‘문화적 意味網’ 안에서 좀 더 基底的인 위치를 점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이다.²⁾ 그렇다면 이같은 루쉰의 학술적인 성향은 어디서 연원한 것일까?

3. 장빙린(章炳麟)³⁾과 루쉰의 師承問題

한 지식인의 학술사상이란 매우 복잡다단한 淵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더구나 루쉰같이 극심한 內憂外患에 시달리는 祖國의 현실 속에서, 험난하고 질곡 많은 세상살이를 한 인물의 사상적인 淵源을, 본고에서 전방위적으로 고찰해 본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본고에서는 『鉤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魏晉南北朝라는 시기와 그 시기의 學術과 문화 풍조에 대한 루쉰의 관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취향의 현저한 淵源 중 하나를 꼽아, 살펴보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다. 널리 알려졌듯이 루쉰은 魏晉南北朝에 대한 관심이 유별났다. 이에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

2) 루쉰이 『史略』에서 인정한 唐代으로부터의 진정한 창작들, 즉 ‘진정한 大作들’ 역시 모두 “다 이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鉤沉』에 殘缺된 채 실려있는 이른바 ‘이런 작품들’의 文學史 또는 小說史에서의 지위와 가치가 향상된 것은 물론이다.
3) 중국 근대의 國學大師로 著名한 장빙린은 사실 이름 대신 아호를 붙인 장타이엔(章太炎)으로 더 유명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논문에서는 본명 사용을 원칙으로 하기에, 본고에서도 장빙린으로 통일했다.

은, 루쉰이 일본에 유학갔을 때에 당시 일본에 망명해있던 장빙린에게서 수업을 듣고 많은 感化를 받았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본고의 주장에 대해, 루쉰 스스로 장빙린에게 감복한 것이 오로지 그의 혁명성이었을 뿐, 그의 학술은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고 한 말을 들어 반박도 가능하다.

내 생각에, 장빙린 선생은 중국혁명사에 남긴 업적이 중국학술사에 남긴 업적보다 더 크다. 30여 년 전을 떠올려보니 장빙린 선생의 木版本 『瘡書』는 이미 출판되었기에, 난 계속해서 읽어 보았지만 당연히도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마도 당시 청년들은 나 같은 이들이 아주 많았을 것이다. 내가 아는 장빙린 선생은 그의 經學이나 小學 때문이 아니라, 보황파(保皇派) 강유웨이(康有爲)를 痛駁한 글과 쩌우룽(鄒容)의 『革命軍』이란 글에 달아준 序文으로 인해 상하이(上海) 租界地의 감옥에 투옥되었기 때문이었다....(1908년 일본 도쿄(東京)에서)...장빙린 선생의 강의를 들으러 간 것도 바로 이때였다. 그러나 강의를 들은 것은 장빙린 선생이 학자여서가 아니라 학문을 갖춘 혁명가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생의 목소리와 웃는 모습은 아직도 선하지만 그분이 강의했던 『說文解字』는 한 구절도 기억나지 않는다.⁴⁾

하지만 이런 루쉰의 回顧 역시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장빙린에 대한 루쉰의 인식과 입장 중 한 측면을 말해줄 뿐이다. 위의 인용문이 실린 「關於章太炎先生二三事」라는 글을 꼼꼼히 읽어본다면, 사실 이 글 주제가 장빙린 선생이 특히 말년에 學者然하면서, 당초의 전투적인 風度와 거침없이 政敵·論敵들과 치고받았던 글들은 어느새 은폐되거나 망각되었다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자, 喚起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빙린에게서 받은 학술적 영향이 별로 없었다는 듯한 루쉰의 言表는, 지금은 사라진 과거 장빙린의 투쟁적 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설정에 가깝다.⁵⁾ 이 점은 이 글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 보다 확실해진다.

그러나 혁명 이후엔 선생조차 점차 자신이 後世에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다보니, 스스로 자신의 예리한 筆致를 숨기게 되었다. 浙江에서 版刻된 『章氏叢書』는 장빙린 선생이 직접 정리하신 것인데, 아마도 논박하거나 공격하는 글과 분노하는 글들은 옛 儒生의 風度에 어긋나서 죽히 여러 선비들의 비난을 초래할 것이라 생각해서였는지 몰라도, 앞서 여러 잡지들에 실렸던 투쟁적인 문장들은 대부분 빠져버렸다.……1933년 베이핑(北平, 즉 베이징)에서 관각한 『章氏叢書續編』은 수록된 글들이 많지 않고, 더더욱 순수학술 관련 글들뿐, 빠졌던 옛 글들을 채택하지 않았다. 당연히 투쟁적인 글들도 없었다. 선생은 결국 스스로 학술이라는 화려한 곤룡포를 걸치고 순수한 儒家의 泰斗가 되었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매우 많아져서, 급히 『同門錄』을 만들어보니 책 한 권이 될 정도였다. 최근 신문을 보니 版權을 보호하자는 광고와 『章氏叢書三編』을 펴낸다는 기사가 있는 걸 보면, 장차 장빙린 선생의 遺著가 또 출판될 듯하다. 그러나 앞서 지었던 전투적인 글들이 수록될지의 여부는 알 길이 없다. 이런 글들이야 말로 장빙린 선생 一生一代의 가장 크고, 오래도록 지속될 업적이건만, 만약 『章氏叢書三編』에 아직 수록되지 않았다면, 내 생각에 응당 한 편 한 편 모두 수집해 수록하고 교정을 거쳐 인쇄해야만 한다. 이렇게 한다면 장빙린 선생과 후학들의 마음이 서로 共鳴하게 되면서, 이런 글들은 鬪士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 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내 바람이 꼭 이루어진다고는 할 수 없을 듯하다. 어허!⁶⁾

4) 魯迅, 「關於章太炎先生二三事」, 『且介亭雜文末編』, 『魯迅全集』, 第6卷, 人民文學出版社, 2005, p.565.

5) 루쉰이 특히 鬪爭的이고 치미는 분노와 강렬한 諷刺를 담은 글쓰기를 추종하는 反骨分子라는 점은 周知의 사실이다. 『南腔北調集』의 「小品文的危機」나 『且介亭雜文二編』의 「“題未定”草(六)」·「“題未定”草(七)」 등을 보면 기존의 관점이나 해석을 거부하고 저항과 투쟁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루쉰은 애당초 장빙린과 전반적인 정치성향이나 학술취향이 같지 않았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장빙린이 혁명적이고 투쟁적인 글을 쓸 때 서로의 성향이 교차되며 잠시 겹친 것일 뿐, 애당초 同軌에 오를 수가 없는 사이였다. 실제로 장빙린에 대한 루쉰의 불만은 주로 정치성향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으로서의 장빙린은 인정하고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극렬하게 상충하던 정치성향과 달리, 학술성향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긴 했어도, 기본적으로 루쉰의 國學, 특히 小學에 있어서는 장빙린 학술의 영향 하에 있었다는 점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장빙린이 서구학문의 엄습과 위협 속에 새롭게 구축해낸 文字學과 聲韻學, 즉 ‘語言文字之學’은, 루쉰뿐만 아니라 당시 거의 대부분의 청년 지식인들에게 깊은 인상과 폭넓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당초 古文經學을 근간으로 하는 장빙린을 스승으로 따르다가 이후 상극이라 할 수 있는 疑古派로 입장을 바꾼 첸취안통(錢玄同)조차 文字學과 聲韻學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장빙린의 학술을 그대로 계승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⁷⁾ 심지어 新文化運動을 주도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장빙린과 완전히 軌를 달리하며 『新青年』을 창간했던 천두슈(陳獨秀)조차 그가 지은 언어학 관련 저작들만 봐도 기본적으로 장빙린의 설정과 구도를 자못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 聲韻學에서 聲母를 뜻하는 ‘紐’, 혹은 ‘聲紐’라는 개념어를 정착시킨 것도 장빙린이고, 聲韻學에서 아직까지 常用되는 ‘陰陽對轉·旁轉’과 같은 학설 역시 장빙린에 의해 정립된 것이며, 1918년 반포되었던 注音符號도 그가 창안한 字母로부터 나온 것이다.⁹⁾

이런 맥락에서 루쉰이 “강의했던 『說文解字』는 한 구절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표현은 再考를 요한다. 루쉰은 1908년 일본 유학 당시 첸취안통, 주쑹라이(朱宗萊), 쉬서우상(許壽裳), 주시쭈(朱希祖) 등과 함께 장빙린에게 『說文解字』 수업을 듣게 되었다.¹⁰⁾ 이후 루쉰은 곧바로 일본에 함께 와있던 둘째 아우 저우쥘런(周作人)에게 불러 함께 들길 권했고, 셋째 아우 저우젠런(周建人)에게 편지를 써 “『설문해자』는 공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¹¹⁾

하지만 이는 루쉰이 장빙린을 통해 文字學이란 학문에 입문하고 많은 계발을 받았다는 것을 뜻할

6) 魯迅, 앞의 글, p.567.

7) 대표적인 저술로 손꼽을 만한 것으로 1918년 베이징대학 강의원고를 편집해 출간한 『文字學』이 있다. 이 책은 첸취안통(錢玄同)이 「音篇」을, 또 다른 장빙린의 제자인 주쑹라이(朱宗萊)가 「形義篇」을 지어 合編한 것인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책 전체에 장빙린 학술의 영향력이 역력하다. 게다가 이 책이 이후 중국 언어학계에 끼친 영향력 역시 대단했다.

8) 천두슈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정치적으로 장빙린을 혐오했다. 「章太炎與民國」(1923)이란 글을 보면, 아예 장빙린을 ‘탐욕스럽고 무지하며 조국을 배반한 소인배’(貪昏叛國的小人)라고 불렀을 정도였다.(『陳獨秀著作選』, 第2卷 上海人民出版社, 1993, 534면) 그리고 그의 언어학 관련 글들을 모아 엮은 『陳獨秀音韻學論文集』(中華書局, 2001)의 「自序」만 봐도 곧잘 장빙린 학설을 들어 그 그릇됨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이 책은 장빙린 학설의 그릇됨을 지적한 부분이 적지 않은데, 이런 사실 자체가 오히려 그만큼 당시 장빙린 학설이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인 측면의 극렬한 충돌과 비난과는 달리, 실제로 “천두슈는 장빙린과 자주 왕래했으며, 장빙린의 ‘樸學’(즉 고증학)에 대해 매우 탄복했고, 장빙린 역시 천두슈의 ‘小學’연구의 성과를 심분 인정하여 그를 ‘畏友’로 대했”던 것이다. 曾露珠, 앞의 글, p.69.

9) 현재는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반포한 ‘漢語拼音字母’(1956)가 보편화되어, 注音符號는 지역적으로 거의 타이완에서만 쓰일 뿐이지만, 漢語拼音字母가 퍼지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字音 표기 방식이었다. 장빙린이 만든 字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太炎文錄初編』 「別錄」卷2에 실린 「駁中國用萬國新語說」, 『章太炎全集(四)』, 上海人民出版社, 1985을 참고. (여기서 ‘萬國新語’란 ‘에스페란토’(Esperanto)를 가리킨다.)

10) 『說文解字』 수업에 대한 전후사정에 대해서는 장넌츠(章念馳)의 「論章太炎與魯迅的早年交往」, 『中華文史論叢』, 50, 1992, pp.266-267, pp.280-283 참고.

11) 章念馳, 앞의 글, p.281. 하지만 저우젠런(周建人)과 관련된 언급은 정확한 출처가 명시되지 않아, 신빙성이 약간 부족하다.

뿐, 장빙린의 학설에 완전히 동의했거나 추종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장빙린의 『說文解字』 수업 당시 “질문과 논변이 가장 많았던” 첸쉬안통과 달리 루쉰은 “입을 여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는 쉬서우상(許壽裳)의 「亡友魯迅印象記」에 보이는 기억에 근거해 추정해 보자면¹²⁾, 루쉰이 그가 “강의했던 『說文解字』는 한 구절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은 - 앞서 지적했듯이 장빙린의 정치적 변절에 대한 불만을 도드라지게 하기 위한 희석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 궁극적으로 당시에 文字學에 흥미를 느끼고 열심히 배웠으나, 장빙린 학설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았었다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장빙린의 계시로 주목하기 시작한 『說文解字』로부터 시작된, 중국 文字學에 대한 루쉰의 嗜好와 관심은 이후로 변함없이 지속되었다.¹³⁾ 이 점은 「門外文談」이란 글¹⁴⁾뿐만 아니라, 1933년 6월 18일 「차오쥬런에게 보낸 편지(致曹聚仁)」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저는 수년 전부터 『中國字體變遷史』와 『中國文學史』 원고를 편찬할 계획을 가지고, 먼저 자료집 작성에 먼저 착수했습니다. 단지 이 자료집조차 이미 완성하기 어려운 일이라, 관련 자료를 뽑아내려 해도 이 많은 책들이 없고, 도서관에 가서 베끼려 해도 상하이엔 도서관이 없습니다. 설령 도서관이 있다 한들 한 사람의 정력과 시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자료를 찾고 베껴줄 사람을 부리려 해도 봉급이나 제대로 줄까 걱정이 되어, 지금까지도 실행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¹⁵⁾

이를 보면 실제로 루쉰이 말년까지 저술하고 싶어 했던 책 중 하나가 바로 『中國字體變遷史』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文字學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과 몰입은 - 비록 학술성향이 일치하지는 않아서 취사선택의 과정을 거쳤지만 - 필경 장빙린의 啓示와 薰陶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루쉰이 장빙린으로부터 받은 영향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특히 본고의 주제인 『鉤沉』의 輯佚 작업과 魏晉南北朝에 대한 嗜好 사이에서 연결고리로서의 장빙린의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장빙린의 「五朝學」과 루쉰의 『鉤沉』

장빙린은 자타공인 魏晉風骨의 문장을 구사했고,¹⁶⁾ 당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國學大師였다.

12) 章念馳, 앞의 글, p.267에서 재인용.

13) 단적인 예로 자주 인용되는 『說文解字』는 물론이고, 『說文解字』 주석서도 12종이나 언급되어 있다. 魯迅, 「書刊注釋」, 『人物·書刊注釋』, 『魯迅全集』, 第17卷, 人民文學出版社, 2005, pp.387-388.

14) 이 글은 魯迅, 『且介亭雜文』, 『魯迅全集』, 第6卷, 人民文學出版社, 2005에 수록되어 있다.

15) 魯迅, 「致曹聚仁」, 『書信』, 『魯迅全集』, 第12卷, 人民文學出版社, 2005, p.404.

16) 하지만 그의 魏晉文風을 清代부터 유행하던 - 이른바 儀徵派로 대변되던 - 駢文派의 계승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이 점은 중국 근대학자 첸지보(錢基博)가 『現代中國文學史』에서 지적한 명료한 辨別을 참고할 만하다. 우선 그는 장빙린의 문장풍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장빙린은 문장을 평가함에 있어서, 魏晉時期를 숭상하고 唐宋時期를 경시했으며, 古今의 인물들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이는 드물고 배척하는 이는 많았다. 魏晉時期의 문장만을 극력 숭상했기에, 漢代와 唐宋時期의 문장은 모두 배우기에 부족하고 오로지 魏晉時期의 문장이 배울만하지만 가장 배우기 어렵다고 여겼다.”(炳麟論文, 右魏晉而輕唐宋, 於古今人少許多. 顧盛推魏晉之論, 謂漢與唐宋咸不足學, 獨魏晉爲足學而最難學.) 그러면서 그의 이러한 경향을 清代에 유행했던 駢文派 계열의 嫡傳이라 할 수 있는 류스페이(劉師培)와 대비해, 이렇게 명확히 구분했다. “류스페이와 장빙린은 모두 古文經學으로 이름난 학자들이지만 문장풍격은 서로 달랐다. 장빙린은 담박하면서 典雅한 것이 품격을 갖췄지만, 요란한 변죽만 울릴 뿐 실질이 부족했다. 류스페이는 웅장하면서 아름다운 것이 읊조릴 만했지만, 너무 걸치레에 빠지고 말았다. 장빙린은 魏晉時期의 문장을 추종했기에 왕카이윈(王闈運)의 문장과 같은 풍격이었다. 류스페이는 南朝 齊·梁時期의 문

그리고 그의 魏晉時期에 대한 嗜好와 依託은 단순히 文章風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¹⁷⁾ 그가 지은 「五朝學」¹⁸⁾은 바로 後漢 이래로 唐代 이전까지 정치와 문명이 혼란스럽고 문란했다고 배척당하던 당시의 보편적 역사인식에 대해, 魏晉南北朝의 풍속과 학술이 결코 이전이나 이후보다 못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장 뛰어난 시대였음을 論辨한 논문으로, 장빙린의 魏晉南北朝에 대한 애착과 의존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五朝學」은 비록 여러 문헌에서 인용해온 論據들로 가득 차 있긴 하지만, 꼼꼼히 읽어보면 치밀한 고증으로 차분히 자신의 논점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魏晉南北朝를 사치와 퇴폐의 시기로 간주해버리던 당시의 시류에 대해 반발하고 변명하는 글로, 논쟁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오히려 장빙린의 高足인 황칸(黃侃)의 「漢唐玄學論」에 이르러서야, - 비록 시대는 唐代까지 확장되었으나 - 좀 더 학술적인 면에 주목한 구체적인 논증과 차분한 의견개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¹⁹⁾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원래 강연문이었던 루쉰의 「魏晉風度及文章與藥及酒之關係」(1927)²⁰⁾를 꼼꼼히 살펴보면, 이 글도 「五朝學」의 독특한 설정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루쉰은 황칸과는 달리 주로 魏晉時期에 집중했고, 문화적인 측면을 위주로 얘기를 풀어갔다. 이렇게 보자면, 웬지 장빙린의 논쟁적인 魏晉南北朝論이, 황칸과 루쉰에 의해 각기 학술적인 면과 문화적인 면으로 나뉘어, 계승·확장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가정 역시 불가능한 것은 아닐 듯하다.²¹⁾ 물론 루쉰은 장빙린의 의도를 온전히 계승한 것이라고 보다는 비판적 계승이긴 했지만, 이 두 사람의 글을 잘 비교해보면, 결국엔 기본적으로 같은 기초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1) 六朝에 대한 관점

장을 따랐기에 사실 清代 儀徵派 阮元이 지은 「文言說」의 후예였다.”(師培與章炳麟並以古學名家, 而文章不同. 章氏澹雅有度而楞於響. 師培雄麗可誦而浮於豔. 章氏文迫魏晉, 與王闓運文爲同調. 師培步武齊梁, 實阮元文言之嗣乳.) 錢基博, 『現代中國文學史』,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4, p.67면, p.99.

17) 물론 清代부터 魏晉南北朝에 주목하고 이를 추종한 이들은 적지 않았다. 리량(李良)의 고찰에 따르면, 清代 阮元, 李兆洛로부터 왕카이윈(王闓運)을 거쳐 장빙린, 류스페이 등을 거치며 魏晉文章은 清代 末葉에 큰 조류가 되었다.(李良, 「語絲體散文的文體仿擬」, 『江蘇社會科學』 6, 2018, 226면.)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이는 상당히 거칠게 변별한 것으로, 阮元은 儀徵派의 首長으로 열렬한 駢文派였지만, 李兆洛은 常州派의 後身이라 할 수 있는 陽湖派 출신으로 駢文과 古文을 並用하자는 「駢散合一」論을 주장했으며, 이는 중국변(曾國藩), 담헌(譚獻), 주일신(朱一新) 등에게 영향을 끼쳤다. 일찍이 담헌에게 배웠던 장빙린은 오히려 문장에 있어서 만큼은 왕카이윈의 풍격과 유사했으며, 장빙린을 스승으로 섬겼던 류스페이는 駢文正宗을 주장하는 儀徵派였다.(여기에 今古文經學 같은 학술 성향까지 따지면 너무 복잡해지기에 여기서는 却論하겠다.)

18) 이 글은 『太炎文錄初編』卷1(『章太炎全集(四)』, 上海人民出版社, 1985)에 실려있다. 이 글의 정확한 저술연도는 알 수 없지만, 이 글이 실린 『太炎文錄初編』이 民國6-8년(1917-1919)사이 浙江圖書館에서 刊刻한 『章氏叢書』에 수록되었으므로, 최소한 1919년에는 세상에 나왔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앞서 인용했던 「關於章太炎先生二三事」을 보면 루쉰이 “浙江에서 版刻된 『章氏叢書』는 장빙린 선생이 직접 정리하신 것인데,……앞서 여러 잡지들에 실렸던 투쟁적인 문장들은 대부분 빠져버렸다.”云云한 것을 보면 이 책을 본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五朝’는 六朝, 즉 三國時代의 吳나라, 東晉, 南朝의 宋·齊·梁·陳 중에서, 三國時代의 吳나라만 빼는 것이다.

19) 이 글은 『黃侃論學雜著』, 中華書局, 1964에 수록되어 있다.

20) 이 글은 魯迅, 『而已集』, 『魯迅全集』, 第3卷, 人民文學出版社, 2005에 수록되어 있다.

21) 좀 더 따져보자면, 장빙린의 학술을 이어받은 嫡傳은 황칸이었지만, 글쓰기에 있어서 만큼은 오히려 루쉰을 장빙린의 계승자로 꼽을만했다. 차오쥬런은 일찍이 이렇게 말했다. “장빙린은 魏晉시기의 文章을 숭상하고 唐宋시기의 古文을 경시했다. 황칸은 스스로 장빙린 선생의 眞傳을 얻었다고 자부했다. 난 루쉰에게 이렇게 말했다. ‘황칸의 駢文과 散文은 그저 魏晉시기 문장과 그 겉모습만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 동생 저우쥬런의 산문이야말로 魏晉시기 문장의 神妙한 文理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루쉰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결코 일부러 우리 형제를 띄우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후 내가 했던 이 말은 장빙린이 있는 쑤저우(蘇州)까지 전해졌고, 이 말을 들은 장빙린 역시 옳은 말이라 적극 찬동했다고 한다.” 曹聚仁, 「我與魯迅」, 『我與我的世界』, 人民文學出版社, 1983, p.399. (李良, 앞의 글, p.226에서 재인용.)

단편적이거나 루쉰의 여러 輯佚 작업 중 장빙린의 영향으로 촉발되었으리라 짐작되는 것들 역시 적지 않다. 단적인 예를 들어 보자면, 장빙린은 「五朝學」에서 이렇게 말했다.

晉나라가 東下하여 南朝 陳나라가 망할 때까지, 東晉·宋·齊·梁·陳, 이 다섯 王朝 300年 동안 以前의 惡習은 날로 씻겨져 갔으며 순수한 아름다움은 한결같았다. 이 때문에 江左(즉 東晉·宋·齊·梁·陳)가 漢代보다 나았었다. 사람들은 그저 江左는 劣惡하고 柔弱했다고 여기고는, 나라를 다스리는 자라면 반드시 江左의 것을 급히 내쳐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하자, 당시 유행했던 清談을 증거가 될만한 정황으로 보고, 또 곧잘 당시 名士들은 말만 숭상하고 실질을 따지지 않았다고 헐뜯는다.……쑥대머리에 남루한 옷차림, 냉소적인 작태, 經書에 반발하고 聖人을 욕하는 것, 그릇된 바를 따르며 도박하는 것은 漢代부터 진작 그러했었던 것이다.(이런 내용은 『抱朴子·漢過篇』에도 보인다. 이런 현상들은 范曄의 『後漢書』에는 대부분 실려있지 않다. 謝承이나 華嶠의 『後漢書』를 오늘날 볼 수 없는 것이 애석하다.)

粵晉之東, 下訖陳盡, 五朝三百年, 往惡日湔, 而純美不忒. 此爲江左有愈於漢. 徒以江左劣弱, 言治者必暴摧折之. 不得其微, 卽以清言爲狀, 又往往訾以名士, 云尙辭不責實.……及夫蓬髮褻服, 嘲弄蚩妍, 反經詭聖, 順非而博, 在漢已然.(亦見『抱樸子』『漢過篇』. 此類事狀, 范氏『後漢書』多不載. 惜乎謝承·華嶠之書, 今不可見爾.)²²⁾

물론 이 말 한 마디에 루쉰이 시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루쉰은 謝承의 『後漢書』, 謝沈의 『後漢書』, 虞預의 『晉書』 등을 輯佚했다. 그리고 이런 輯佚 작업에 謝承의 『後漢書』 輯佚 작업 후 序文을 달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생각건대, 『隋書』『經籍志』에는 8種의 『後漢書』를 수록하고 있는데. 謝承의 것이 가장 먼저라, 최초로 지은 공로가 있으니, 기억해 둘만 하지만, 오늘날엔 그저 范曄 『後漢書』의 李賢 注, 『三國志』의 裴松之 注, 唐宋時期的 類書들 속에 근근히 남아있을 뿐이다. 『後漢書』나 『三國志』에 주석을 단 李賢이나 裴松之는 本書와 다른 얘기를 찾는 데에 힘써서, 謝承의 『後漢書』에서 本書와 다른 내용들을 갖춰 두었다. 類書에 인용된 謝承의 『後漢書』 경우는 字句에 衍字나 脫字가 많고, 옳거 아니며 訛傳된 경우가 있어서 문맥이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後世의 諸賢들은 謝承 『後漢書』의 인용구가 매끄럽지 않음을 탓하면서 때때로 반박을 가하기까지 했다. 그저 내가 살펴본 자료들 중 간추린 校勘을 모아서 輯佚한 本文 뒤에 붙여둔 것은, 살펴보는 데에 편의를 도모한 것일 뿐이다.

案『隋志』錄『後漢書』八家, 謝書最先, 草創之功, 足以稱紀, 而今日逸文乃僅藉范曄『書』·『三國志』注及唐宋類書以存. 注家務取不同之說, 以備異聞, 而類書所引, 又多損益字句, 或轉寫譌異, 至不可通, 故後賢病其荒率, 時有駁難. 亦就聞見所及, 最其要約, 次之本文之後, 以便省覽云.²³⁾

루쉰이 보기에, 현존하는 『後漢書』나 『三國志』의 주석에 謝承의 『後漢書』가 인용된 경우는, 이 책들에 주석을 다는 학자들이 본문과 같은 사실에 대해 謝承의 『後漢書』에 다른 기술이 있는 경우였다. 즉 異說의 수집 차원에서 인용된 것이다. 이처럼 현존하는 『後漢書』나 『三國志』와는 다른 기술에 대한 주목은, 東晉·宋·齊·梁·陳의 저열한 習俗이라고 비난받던 작태들은 사실은 漢代부터 있어 왔던 것일 뿐인데, 이것이 “范曄의 『後漢書』에는 대부분 실려있지 않”으니 진작에 佚失된 ‘謝承이나 華嶠의 『後漢書』’가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던 장빙린의 바람과 암암리에 연계된다. 그

22) 章太炎, 『太炎文錄初編』卷1 「五朝學」, 『章太炎全集(四)』, 上海人民出版社, 1985, pp.74-75.

23) 魯迅, 『魯迅輯錄古籍叢編』, 第1卷, 人民文學出版社, 2005, pp.3-4.

리고 이러한 인식은 루쉰의 「魏晉風度及文章與藥及酒之關係」에서도 如實하다. 이 글에서 루쉰은, 평온한 시간이 계속된 시대에는 해당 시기의 상세하여 알려진 偉人이 많지만, 짧게 존재했던 왕조는 스스로를 기록할 틈이 없었고, 그 이후의 왕조에서는 이전의 왕조에 대해 각박한 평가를 내리기에, 아무런 偉人도 없게 된다고 여겼다. 그리고 그 단적인 예로 현존하는 기록에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秦나라에 제대로 된 인물이 한 명도 없음을 지적하고, 曹操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를 지적하면서, 이를 단서 삼아 魏晉南北朝를 살펴보자면, 뛰어난 문명이나 인물이 다른 시대에 비해 적거나 유난히 폐단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난리통에 當時의 자료가 파손되었고, 뒤이은 왕조의 폄하로 曲解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러한 결론은 앞서 장빙린이 「五朝學」에서 표출한 불만이나, 루쉰이 謝承 『後漢書』 輯佚 작업 후 붙인 序文의 문제인식과 정확히 호응한다.

물론 이 같은 輯佚 작업의 또 다른 중요 動力 중 하나는 地緣, 즉 자신이 南方 - 越 땅 - 會稽 사람이라는 자각이었다. 루쉰이 輯佚한 중요 저술의 작자들, 즉 謝承, 謝沈, 虞預 등은 모두 루쉰과 同鄉이랄 수 있는 會稽 사람이다.²⁴⁾ 게다가 謝承과 虞預은 각기 『會稽先賢傳』과 『會稽典錄』이란 자기 고향에 대한 책을 편찬한 적도 있는데, 루쉰은 이를 본받아 『會稽郡故書襍集』을 편찬했다.²⁵⁾ 하지만 그가 크게 공을 들인 『嵇康集』 校勘 작업은 會稽라는 地緣으로는 선명하게 포섭되지 않는데, 이는 장빙린이 주목하고 依託하던 六朝(혹은 五朝)라는 틀에서 보다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

2) 장빙린과 루쉰의 分岐

루쉰의 중국 고대소설 연구성과에 대해, 지속적인 고찰을 진행해온 조관희는 루쉰의 魏晉南北朝 小說 記述에 있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그것은 바로 六朝小說에 대한 末年에 지은 글에서의 記述이 『史略』과 자못 달랐기 때문이다.

루쉰은 이상의 자료를 가지고 그 자신의 말마따나 “독단적으로 말한다면”, 총괄해서 “육조인의 소설은 신선 혹은 鬼怪한 것을 기술하지 않았고 쓰여진 것은 거의 대부분 人事에 관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당시 사람들은 “허구를 몹시 배척”했는데 이를테면 “『세설신어』에 따르면 裴啓의 『語林』에 기재된 謝安의 말이 사실과 달랐기 때문에, 謝安이 그것을 말하자 이 책의 평판이 크게 떨어졌다”고 하였다.²⁶⁾

위 인용문은 루쉰이 말년인 1935년에 의뢰를 받아 쓴 글로, 『文學百題』라는 책에 수록된 「六朝小說과 唐代小說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六朝小說和唐代傳奇文有怎樣的區別?)」²⁷⁾(이하 「차이」로 약칭)란 글 중 문제시 되는 부분에 대한 조관희의 발췌요약이다. 확실히 이런 루쉰의 주장은 과거 스스로 『史略』에서 記述했던 설명과 차이가 있다. 조관희가 보기에, 1920년대 초에 나왔던 『史略』에선 분명히 “육조 시기 ‘지괴’와 ‘지인’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면서도 균형잡힌 시각으로 서술”했건만, 말년

24) 좀 더 정확히 하자면, 謝承과 謝沈은 會稽山陰(지금의 浙江省 紹興市)사람이고, 虞預은 會稽 餘姚(지금의 浙江省 餘姚市)사람이다.

25) 루쉰의 輯佚 작업이 地緣 및 개인적 嗜好와 연관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은 그의 동생 周作人(周作人)의 「關於魯迅」, 『瓜豆集』, 北京十月文艺出版社, 2012, pp.171-172 참고.

26) 조관희, 「루쉰의 중국 고대소설 연구 2 - 단편 논문들을 중심으로」, 『中國小說論叢』 58, 2019, p.237. (원문의 중국어 발음표기만 漢字표기로 수정했다.)

27) 이 글은 『且介亭雜文二集』, 『魯迅全集』, 第6卷, 人民文學出版社, 2005에 수록되어 있다. 의뢰를 받고 쓴 글이라 「文學社의 질문에 답함」(答文學社問)이라는 副題가 달려 있지만 편의상 생략했다.

의 글에서 “왜 육조 시기 소설이 ‘신선 혹은 귀괴한 것’을 기술하지 않고 ‘대부분 人事에 관한 것’만을 다루었다고 기술”했는지가 의문이다.²⁸⁾ 이는 志人小說만 강조하고 志怪小說은 의도적으로 배제해버린 것으로, 엄밀한 문학사 記述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史略』의 記述에 비해 분명 일종의 퇴보로써, 과거의 온전한 記述을 스스로 어그러트리는 실수였기 때문이다. 『史略』의 해당 부분과 「차이」, 그리고 조관희 글의 해당 부분을 꼼꼼히 읽어보면, 확실히 조관희의 의문은 정당하다. 여기서 이해의 실마리를 모색해 보자면, 일단 이 「차이」라는 글 자체가, 六朝小說에 대한 鳥瞰을 목적으로 한 글이 아니라, 六朝小說과 唐代小說과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데에 중점을 둔 글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장빙린의 「五朝學」 중 南朝小說과 唐代小說을 비교한 記述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唐代에 이르러 名分과 理致는 공허해져 버리고, 과시하고 사치함이 다시 興起하여 文辭에까지 드러났으니, 그 영향이 小說에까지 과급된 점은, 五朝와 唐代의 小說을 서로 比較해 본다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及唐, 名理蕩蕩, 誇奢復起, 形於文辭, 播於小說者, 參而伍之, 則居可知矣.

그리고 이 구절에 대한 장빙린의 自注 중에 이러한 설명이 보인다.

『太平廣記』에 인용되어 있는 南朝 小說은 奇異하면서도 典雅함에 가까웠고 怪異하면서도 그릇되지 않았으며, 심한 과장도 없었다. 오로지 『拾遺記』만은 다른데, 본래 이 소설은 北朝에서 온 것이다. 『隋書』 「經籍志」 「史部」 「雜史類」의 『拾遺記』 2卷條에는 後秦의 姚萇과 方士 王子年이 지었다고 되어있다. 또 『王子年拾遺志』 10卷條에는 南朝 梁나라의 蕭綺가 지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蕭綺가 단지 그 書籍을 集錄했다는 뜻일뿐, 南朝에는 이 같은 글이 없었다. 唐代小說은 대다수가 妖邪스럽게 사람을 蠱惑하는 것이고, 그 文采는 法도가 없었으며, 富貴榮華를 양모하는 심정과 거드름피우며 과시하려는 작태가 종이와 먹에 넘쳐나고 있었다. 당시의 人心이 얼마나 輕薄했는지, 이를 보면 알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東漢을 南朝보다 어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唐을 존중하고 江左(즉 五朝)를 賤視하는 것은, 오로지 國力の 強弱이라는 기준만으로 당시의 民度を 평가하는 것이니, 是非曲直을 따지는 데에 엉망진창인 것이 이 지경에 이를 수 있단 말인가?

『太平廣記』所引南朝小說, 奇而近雅, 怪不至繆, 又無淫侈之言. 獨『拾遺記』爲不類. 然本亦興於北土. 『隋經籍志』 「雜史」篇, 有『拾遺錄』二卷, 題爲秦姚萇·方士王子年撰. 又『王子年拾遺記』十卷, 題蕭綺撰. 是綺特集錄其書, 竟於南朝無與也. 唐人小說, 半皆妖蠱, 文既無法, 歆羨榮遇之情, 驕淫矜誇之態, 溢於楮墨. 人心險薄, 從是可知. 世人以東漢賢於南朝, 猶失其實. 至乃尊唐而賤江左, 直以國勢盛衰, 論民德, 是非穀亂, 一至是乎?²⁹⁾

장빙린은 南朝小說에도 奇怪한 글쓰기(즉 志怪小說)가 있었음을 인정하지만 ‘심한 과장’(淫侈)은 없었으며, 그나마 있는 과장은 北朝에서 온 것이라 치부해 버린다. 그리고 唐代에 이르러 奇怪한 글쓰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강조한다.

다시 루쉰의 글로 돌아와, 루쉰이 六朝小說에 志怪가 없고 ‘거의가’(幾乎) 志人小說이라는 記述을

28) 조관희, 앞의 글, pp.236-238. 조관희는 이러한 의문에 근거해, 『鉤沉』이 끝내 출판되지 못했던 이유로, “루쉰은 아마도 정식으로 출판되지 못한 자신의 자료집을 갖고 이 시기 소설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꺼렸던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29) 章太炎, 「五朝學」, 『太炎文錄初編』 卷1, 『章太炎全集(四)』, 上海人民出版社, 1985, p.76.

다시 곱씹어 보면, 우선 ‘독단적으로 말한다면’(武斷的說起來)이란 표현으로 아주 자의적이고 제한적인 설정임을 밝히고, 六朝小說과 唐代小說과의 차이를 극명하게 강조하기 위한 설계로 보인다. 즉 정말 六朝에 志怪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唐代에 이르러 志人이 사라지다시피하고 志怪에만 치중하게 된 되다가, 그 수준 역시 六朝처럼 전해 들은 기이한 얘기를 기록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의도적으로 허구를 지어내는 수준이었기에, 이항대립적으로 대립시켜보자면 ‘六朝→志人 vs 唐代→志怪’라는 구도 설정이 가능했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같은 ‘六朝小說과 唐代小說의 비교’라는 제한적 ‘結界’ 안에서 이런 구도 설정이 가능한 이유는 장빙린처럼 南朝의 志怪小說이 비록 괴이한 일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 程度에 있어서 唐代와는 사뭇 달랐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지점에서 다시 장빙린과 루쉰은 같은 관점에 立脚하면서도 서로 다른 결론을 도출한다. 즉 장빙린의 눈에 더 怪誕스러워진 唐代小說은 六朝 志怪의 타락에 불과했지만, 루쉰에게는 앞서 지적했듯이 唐代小說의 ‘의도적인’ 허구 창작이 진정한 소설의 시작으로 간주되었다.³⁰⁾

唐代小說은 크게 두 방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신선·사람·귀신·요물의 얘기를 마음대로 구사한다. 그리고 筆致가 정교하면서 곡절을 갖추었다. 이렇다 보니 간결하고 예스러운 것을 숭상하는 이들에게 비난받기도 한다. 서술하는 사건들 역시 대체로 首尾相應하고 波瀾曲折을 갖추어 단편적인 애깃거리에 머물지 않는다. 그리고 작자는 종종 고의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허구임을 밝혀서, 자신의 상상력에서 나온 것임을 드러냈다.³¹⁾

여기서 “간결하고 예스러운 것을 숭상하는 이들에게 비난받기도 한다.”는 기술에서 장빙린이 연상되는 것이 우연이거나 필자만의 牽強附會는 아닐 것이다. 루쉰은 장빙린의 이러한 입장에 동조하지 않고, 唐代小說을 소설의 완성도라는 기준에서 공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루쉰은 『史略』이나 「차이」 등의 글에서 唐代小說의 의도적 창작의 중요 동기로 당시 유행했던 ‘行卷’(또는 ‘溫卷’) 風潮를 꼽고 있다. 아마도 이는 장빙린의 “富貴榮華를 양모하는 심정이……중이와 먹에 넘쳐나고 있었다. 당시의 人心이 얼마나 輕薄했는지, 이를 보면 알 수 있다.”(歆羨榮遇之情……溢於楮墨. 人心險薄, 從是可知.)라는 唐代小說에 대한 貶下의 평가가, 가치중립적으로 수렴된 것으로 보인다.

5. 나오며

周知의 사실로, 루쉰은 중국소설사 연구가 정립되는데 전반에 걸쳐 先導的으로 큰 업적을 쌓았지만, 그 중에서도 唐代以前 소설 연구에 있어서는 특히나 남다른 성취가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큰 성취는 『鉤沉』의 輯佚 성과가 밑거름이 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 점은 이미 루쉰의 동생 저우 쩌런도 지적했던 바다.

형 루쉰은 古小說의 佚文들을 수집했기에, 이후 『史略』이란 책을 지을 수 있었는데, 그 이유를 애기하자면 자못 흥미롭다. 루쉰은 고소설에 대해 이미 10여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이렇게 했던 동기

30) 루쉰이 唐代小說을 의도적인 소설창작의 시작으로 본 견해는 魯迅, 『中國小說史略』, 『魯迅全集』, 第9卷, 人民文學出版社, 2005, p.73 참고. (본고의 각주 5)의 인용문.)

31) 魯迅, 「六朝小說和唐代傳奇文有怎樣的區別?」, 『且介亭雜文二集』, 『魯迅全集』, 第6卷, 人民文學出版社, 2005, p.335.

는 물론 어렸을 때 읽었던 책들 때문이었다.)……이후 小說史에 대한 연구가 점차 많아져서, 후스(胡適), 마론펜(馬廉), 정진뒤(鄭振鐸), 쑤카이디(孫楷第) 등이 각자 성과를 거두었다. 대체로 뒤에 나온 이의 성과가 먼저 나온 이의 것보다 뛰어난 형국이었지만, 이는 中國小說史의 後半部, 즉 宋代以來 章回小說에만 해당하는 얘기였다. 만약 唐代以前의 흩어진 古小說에 대한 고찰에 대해 얘기하자면, 루선의 것보다 더 상세한 저술은 없었다. 이런 사실은 『鉤沉』의 작업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³²⁾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일련의 논증을 거치면서, 루선의 『鉤沉』 輯佚 작업이 단순히 魏晉南北朝 소설 연구를 위한 기초문헌 작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魏晉南北朝 - 정확히는 六朝 - 라는 시대와 문화에 대한 남다른 관점과 嗜好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중요한 淵源 중 한 갈래가 바로 그가 장빙린의 학술사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고찰하면서, 루선이 장빙린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계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접적인 師弟關係는 비교적 짧았고 제한적이었지만, 장빙린의 학술사상으로부터의 영향력은 훨씬 폭넓고 깊었던 것이다.

이 같은 접근은 본고에서 당초 목적으로 삼았던 『鉤沉』 輯佚 작업이 루선의 학술사상에서 갖는 심층적인 의미와 중요 淵源 중 장빙린이라는 한 갈래를 가늠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한 학자의 성향은 곧잘 한 시대와 그 문화를 자신의 ‘所依經’으로 삼아 발현한다는 필자 주장의 새로운 증거로도 삼을 수 있겠다.³³⁾

32) 周作人, 「關於魯迅」, 『瓜豆集』, 北京十月文艺出版社, 2012, p.173.

33) “전통적인 중국 지식인들은 중국 역사 속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학술적, 혹은 문화적 성향과 맞아떨어지는 시대를 찾아 이를 자신의 사유로써 再構하면서 현실의 바라는 바를 반영하곤 했다. 비유컨대 佛敎에서의 각 宗派마다 서로 다른 所依經이 있는 것처럼, 각자가 자신의 理想을 투영한 시대상을 상징한다는 말이다. 일단 자신의 學術的 사유의 틀 안에 이러한 ‘所依朝代’가 형성되면, 다시 그 朝代를 理想化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이미 과거에 실현된 적이 있음을 論證함으로써 자신의 학술적 정체성을 강화한다.” 이영섭, 「陳寅恪의 中國中古史 研究를 통해 본 近代中國 文化談論의 전환」, 『중국어문학논집』, 84, 2014, p.420.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例證은, 이영섭, 앞의 글 중 제5장 「상상된 歷史, 검증된 未來」, pp.420-424 참고.

【문학분과】 발표 ③

샤오편홍(小粉紅)과 혐오의 네트워크*

김태연**

【목 차】

1. 서론
2. 팡팡(方方)의 『우한일기(武漢日記)』 논란
3. 팡팡 웨이보를 둘러싼 혐오의 정동
4. 결론

1. 서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삶에 미친 영향은 매우 거대하고 광범위해서 일일이 언급하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이지만, 인문학의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매우 큰 관심의 화두로 떠오른 것 중에 혐오의 확산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전염병이란 감염의 위험성으로 인해 늘 이미 감염된 환자에 대한 공포와 회피, 혐오를 수반하지만,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혐오는 사회의 모든 곳에 속속들이 파고들어 물리적, 정서적 층위를 가리지 않고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감염의 공포, 락다운으로 인한 일상의 단절, 감시와 통제의 강화 등으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 맺기가 기본적으로 공포, 위험, 경계 등의 감정에 기반하게 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코로나와 관련한 혐오 표현이 증가하였다. 코로나 초기에는 코로나 대유행이 처음 시작된 우한 및 후베이에 대한 지역 비하, 코로나와 관련하여 중국당국의 대처에 비판적인 의견을 보도하는 해외 언론에 대한 적개심, 해외유입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해외유입자에 대한 차별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갈수록 혐오표현은 다양한 이슈와 맞물려 확산되었다.

이 중 본 논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2020년 봄에 작가 팡팡(方方)이 우한 봉쇄 시기에 웨이보(微博)를 통해 연재한 일기 형식의 게시물을 둘러싸고 벌어진 각종 논란 및 그를 통해 드러난 혐오의 정동(affect)이다. 팡팡이 락다운된 우한의 삶을 공유하고자 웨이보에 매일 연재하기 시작한¹⁾ 게시물들은 웨이보 유저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상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이와 더불어 게시물의 내

* 본고는 줄고 「팡팡(方方)의 『우한일기(武漢日記)』와 혐오의 정동(affect)」(『중국현대문학』 97호, 2020.04)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한 원고임.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1) 팡팡에게 우한 봉쇄 기간의 삶을 웨이보에 기록해볼 것을 제안한 이는 문학잡지 『收穫』의 편집자 程永新이라고 한다. 팡팡 저, 조유리 역, 『우한일기—코로나19로 봉쇄된 도시의 기록』, 서울: 문학동네, 2020, p.25.

용 뿐만 아니라 광광을 둘러싼 여러 이슈들까지 엮히면서 다양한 논란과 사건을 야기하였다. 우한 일기를 연재하는 내내 광광은 자신의 글에 비판을 제기하고 공격하는 이들과 맞서 논쟁을 벌였고, 광광의 게시물은 연재를 거듭할수록 우한의 상황을 기록한다는 처음의 취지가 무색하게 자신에게 적대적인 이들과의 말싸움으로 점철되었다. 광광의 일기를 둘러싼 논쟁은 일기의 연재가 끝난 뒤에도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광광이 이 게시물들을 모아 ‘Wuhan Diary’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욱 큰 반향과 격렬한 논쟁을 야기했다. 광광의 일기를 둘러싸고 들끓은 분노와 혐오의 표현들은 코로나 시기에 웨이보라는 일종의 공론장에서 혐오의 정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매우 잘 보여준 일례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혐오의 정동(affect)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광광의 우한일기 사건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특히 정동이란 여러 신체들 사이를 순환하면서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묶어주며, 이를 바탕으로 혐오와 공포의 정동이 공동체의 자기 결속력을 강화하는 작용을 한다는 사라 아메드(Sara Ahmed)의 논의에 착안해 광광의 우한일기를 둘러싼 혐오 정동의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2. 광광(方方)의 『우한일기(武漢日記)』 논란

광광은 2020년 1월 23일, 코로나19로 인해 우한이 봉쇄에 들어가자 그 직후인 1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2달에 걸쳐 웨이보에 우한의 상황을 일기 형식으로 연재하였고, 그 결과 총 60편의 글이 발표되었다. 내용은 ‘일기’라는 명칭에 걸맞게 비교적 개인적인 기록의 성격을 띤 것들이었다. 하지만 광광은 웨이보라는 중국어 이용자 사이에서 가장 큰 규모의 SNS에 이 일기를 매일매일 ‘공개’하는 형식을 취했기에, 그의 글은 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나 매우 큰 사회적인 관심을 받았다. 사실 SNS가 가지는 “공·사적 중첩성”²⁾이라는 속성으로 인해 광광의 일기는 처음부터 매우 사적인 듯 하면서도 가장 공적인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광광의 일기가 코로나 초기 중국에서 매우 큰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에는 ‘SNS를 통해 공개되는 일기’라는 중첩적 속성에 기인한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이 화제가 되면서 4월에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출판기업인 하퍼콜린스(HarperCollins)에서 이 일기의 판권을 사들였고, 4월 8일에 Wuhan Diary: Dispatches from a Quarantined City라는 제목으로 각각 영문판과 독어판³⁾이 출판된 것을 비롯, 이어 세계 각국어로 번역되었다.

광광의 우한일기는 연재 초반부터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었고, 호응이 큰 만큼 많은 관심 속에 웨이보를 비롯한 온라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쟁과 반응을 낳았다. 특히 우한에서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되는 상황 속에서 우한시와 중앙정부가 보여준 미숙한 대응과 안일한 상황인식에 대해 광광은 우한시민의 한 명으로서 통렬한 비판을 가했는데, 이 점이 바로 광광

2) 류정호·이동훈 (2011). 「소셜미디어로서 마이크로 블로그 공론장의 정치적 의사소통에 대한 탐색적 연구: 네트워크 동질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권 4호, 309~330.315쪽). SNS가 공적 공간인가, 사적 공간인가 하는 논의에 관련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홍남희. (2016). 「법관의 SNS 이용을 둘러싼 담론의 대립과 역할」, 『언론정보연구』, 53(2), pp.305-348.

3) 독어판 제목은 *Wuhan Diary: Tagebuch aus einer gesperrten Stadt*으로 HOFFMANN UND CAMPE VERLAG에서 출판되었다. 흥미롭게도 독일 아마존(www.amazon.de)에서는 이 책을 “중국인물 전기”, “언론인 전기”와 더불어 “독재” 카테고리 분류하고 있다.

의 웨이보 일기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게 된 핵심이었다. 네티즌들은 수많은 이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마당에 자화자찬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정부 관료와 우한시 고위 공직자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처절한 말투로 그들을 비난하는 팡팡의 글에 공감하고, 지지를 보냈으나, 한편으로는 팡팡의 글이 주변에 떠도는 부정확하고 흥흥한 소문에 근거하고 있으며, 오히려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한 시민을 비롯한 중국인들에게 불안감과 정부에 대한 불신만 심어준다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팡팡의 웨이보 일기와 관련하여 비교적 큰 논란이 있었던 사건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2020년 1월 30일.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한 채 우한에 살고 있던 팡팡의 조카가 우한 봉쇄 직후 싱가포르 정부에서 교민 수송을 위해 띄운 전세기를 타고 우한을 빠져나갔는데, 도시가 봉쇄되는 바람에 교통편이 마땅치 않던 차에 마침 팡팡의 팬임을 자처한 경찰의 도움을 받아 팡팡의 조카가 경찰차를 타고 공항까지 이동한 에피소드.

② 2020년 2월 13일. 팡팡이 의사 친구로부터 받았으면서 버려진 핸드폰들이 쌓여 있는 사진을 게시하며, “사진 속의 화장장에는 주인 없는 휴대폰들이 여기저기 버려져 있고, 그들의 주인은 이미 재로 변해 있었다”⁴⁾라고 썼는데, 飞象网项立刚이라는 IT 전문 웨이보 유저가 이 사진 속의 핸드폰들은 하나같이 오래된 것들로,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이라고는 믿을 수 없다며 사진의 진위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가, 팡팡과 논쟁을 벌인 사건.

③ 2020년 3월 23일. 광시 출신으로 우한에 의료지원팀으로 파견된 간호사인 梁小霞가 과로로 쓰러져 의식을 잃은지 한 달 후, 팡팡이 자신의 웨이보 일기에 梁小霞가 사망했다고 알렸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사건.⁵⁾

3월 25일자로 팡팡의 우한일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팡팡을 둘러싼 논쟁은 지속되었다. 明德先生이라는 웨이보 유저는 팡팡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요하게 추궁하였고, 이어 4월 초에는 팡팡일기가 미국에서 출판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팡팡에 대한 비난 여론은 절정에 이르렀다. 흥미로운 것은 처음부터 팡팡에 대한 비난 여론이 대세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팡팡의 일기가 웨이보에서는 연재를 시작한 이래로 수없는 논란과 싸움으로 점철된 데에 반해, 주요 언론에서는 팡팡의 웨이보 일기가 가지는 긍정적인 의의에 주목하는 쪽이었다. 특히 우한 일기가 미국에서 출판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4월 이전까지, 신문과 방송을 비롯한 주요 매체에서 우한 일기를 다룰 때에는 우한 출신의 저명 작가가 락다운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처한 우한 시민의 상황과 감정을 표현해낸, 코로나 시기의 중요한 기록행위라는 논조가 주류였다.

이러하면 2월 22일, 『中国新闻网』은 팡팡과의 단독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면서, “꾸밈 없는 언어, 생동적인 서사, 진실된 감정, 용감하고 직설적인 스타일로 독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네티즌들은 글이 올라올 때마다 빠른 속도로 열람하고 있다”⁶⁾며 팡팡 현상을 개괄하였다. 팡팡 본인 역시 기자와 인터뷰에서 “내가 『우한일기』를 쓴 기조는 시종일관 정부와 절대적으로 일치하며, 절대적으

4) 팡팡 저, 조유리 역, 『우한일기—코로나19로 봉쇄된 도시의 기록』, 서울: 문학동네, 2020, p.126.

5) 특히 팡팡은 자신의 일기에서 우한의 상황에 대한 소식을 알릴 때 주로 “의사 친구”라는 익명의 정보원을 언급했는데, 팡팡의 비판자들은 팡팡이 이런 “의사 친구” 류의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의도적으로 우한의 상황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과장한다고 비난했다.

6) 「独家专访: 作家方方和她的“武汉日记”」, 『中国新闻网』, 2020.02.22. <https://www.chinanews.com/cul/2020/02-22/9100825.shtml>

로 정부의 모든 행동에 협조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도록 돕고, 정부가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⁷⁾라고 자신의 입장을 명시하기도 하였다. 비록 웨이보에서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고, 또 매우 강경한 어조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들을 담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팡팡 일기의 입장은 정부에 협력하는 것이며, 자신의 글쓰기가 공익적인 행위라는 주장이다. 다음 날 후난성 선전부에서 운영하는 뉴스포털인 『紅網』에도 위의 기사에 이어 팡팡 일기의 의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칼럼이 발표되었다.

“포화 없는 전쟁 중에 우리나라의 문예공작자들은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문예작품으로 전 국민들이 고난 앞에 강하고 굳세게 버티고 있음을 기록하고, 사기를 고취시키면서 전염병과 싸워 이기고 있다. 이는 문예공작자와 언론인의 몫이자 소임이다. 문예도 멋지고, 언론도 멋지고, 출판도 멋지다. 그들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펜으로 당과 인민들에게 아주 훌륭한 답안지를 제출하고 있다.”⁸⁾

『中国新闻网』과 『紅網』은 모두 관영언론이기에, 이러한 논조의 기사들은 곧 중국정부와 공산당에서 팡팡의 일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긴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중국의 대표적인 국수주의 성향 논객으로 유명한 『환구시보(环球时报)』의 편집장 胡锡进 역시 초반에는 팡팡의 우한 일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후시진은 3월 19일, 자신의 웨이보에서 팡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팡팡은 민간의 개인적 불행으로부터 이 세계를 감지하는 시각을 대표한다. 이러한 시각은 영원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또한 문학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성하는 원천이기도 하다.”

“우한이 가장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팡팡일기’는 집단심리의 아픈 곳을 찔렀다고 봐야할 것이다... 이전의 개인적 차원의 작은 불안과 대중적 차원의 큰 불안이 ‘팡팡일기’ 속에서 공진을 일으킨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 나라의 이데올로기가 이러한 현상을 조금 더 너그럽게 바라보고 포용해도 된다는 주장이다.”

“내 주장은 ‘팡팡일기 현상’을 받아들여서, 이 시대의 선율을 구성하는 하나의 음표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시진이 이 글을 발표한 3월 19일은 코로나가 발발한 이래 우한시에서 처음으로 신규확진자 수가 0을 기록한 날로, 우한의 상황이 일차적으로 안정 국면에 접어든 시점이다. 팡팡이 웨이보에서 소위 ‘극좌분자’들과 팽팽히 맞서고 있을 때, 중국의 민족주의적 성향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후시진은 오히려 팡팡의 글이야말로 문학이 가지는 순기능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았다. 팡팡의 일기는 우한의 락다운 현실을 기록한 하나의 역사적 기록이며, 또한 문학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논조이다. 후시진의 이 웨이보 글은 바로 같은 날 『환구시보』에도 게재되었다. 적어도 우한 일기의 연재가 끝날 때까지, 팡팡은 관방 언론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웨이보에서의 크고 작은 논란들도 최소한 팡팡과 국가를 적대적인 관계로 배치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팡팡에 대한 여론에서 본격적으로 혐오의 정동이 주류를 이루게 된 것은 팡팡의 일기가

7) 같은 글.

8) 孙建清, 「方方的“武汉日记”何以受追捧?」, 『红网』, 2020.02.23. <https://hlj.rednet.cn/content/2020/02/23/6753930.html>

미국에서 출판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이다. 기존에 광광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던 후시진은 바로 태세를 바꾸어 4월 8일에 자신의 웨이보와 환구시보를 통해 광광을 비난하기 시작한다. 그는 최근 “최근 한 달 여 사이에 방역에 대한 인식이 부단히 변화하고 있다”면서, 광광은 “대중들의 태도가 변하였음을 직면”하고, “각종 비판과 질문을 감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후시진의 주장에 의하면 광광은 여전히 스스로를 “변화의 밖에 있는 소수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데, 더 이상은 그래선 안되고, “영향력이 클수록 책임이 무거운 법”임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다.⁹⁾ 4월 8일은 우한의 락다운이 공식적으로 해제된 날이기도 하다.

후시진의 이 글을 전환점으로 언론과 웨이보를 중심으로 한 여론이 광광에 대한 전면적인 비난 모드로 전환되었다. 광광의 일기가 미국에서 출판 예정이라는 사실이 이 글에 대한 평가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는 다음의 표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1은 중국의 검색사이트인 바이두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바이두지수(百度指數)를 통해 2020년 한 해 동안 ‘方方’과 ‘武汉日记’가 검색된 횟수를 시기별로 표시한 것이다. 두 개의 검색어가 공히 2020년 4월 초에 급격하게 검색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광광이 미국의 하퍼 콜린스와 우한 일기의 출판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4월 8일 무렵이다.



<그림1> 2020년도 바이두에서 ‘方方’과 ‘武汉日记’의 검색량 추이

광광에 대한 비난과 혐오는 점차 큰 과장을 야기했다. 네티즌들은 광광 개인을 향한 공격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광광을 옹호하는 이들까지 덩달아 공격하여 그들에게 끝내 직접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데 이르렀다. 대표적인 것이 소위 梁艳萍 사건이다. 湖北大学 교수 梁艳萍은 3월 22일에 위챗(微信)에 게시한 「直面对冲, 迎头相撞是方方」이라는 글을 통해 광광을 지지하면서 광광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을 비판하였고, 광광은 다음날 본인의 웨이보에 이 글을 공유했다. 그러자 웨이보 유저들이 량옌핑의 과거 웨이보 글 중에서 2012년에 남경대학살의 사망자 숫자에 대해 의문을 표한 글, 2019

9) 胡锡进, 「方方日记在美国出版, 公众对她的态度会变得更快」, 『环球网』, 2020.04.08.

년에 홍콩의 송환법 반대(返送中) 시위를 지지하면서 이를 천안문사태와 연결시킨 내용 등을 찾아 내어 량옌핑이 친일, 홍콩독립 지지자라는 혐의를 들면서 후베이 대학에 그녀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결국 후베이대학은 웨이보를 통해 량옌핑의 당적을 취소하고, 대학원생 지도교수 자격과 각종 교육활동 등을 취소하는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하였다.¹⁰⁾ 팡팡에 대한 네티즌들의 혐오가 팡팡을 지지하는 다른 이에 대한 혐오로 확산되고, 결국 혐오의 대상이 된 인물을 온라인 상으로 공격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가 현실의 생활에서까지 불이익을 받도록 행동했다는 점에서 이는 온라인에서의 혐오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파괴력을 지니는지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팡팡에 대한 혐오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일례로 张伯禮 사건이 있다. 이는 중국공정원 원사이자, 텐진중의약대학 총장인 张伯禮가 5월 12일에 텐진시 교육청에서 텐진시 초, 중등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개최한 사상정치수업(思想政治課) 온라인 특강에서 팡팡의 이름을 거론하며 “왜곡된 가치관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가 팡팡이 사과를 요구한 사건이다. 팡팡에 대한 혐오표현이 온라인을 넘어 국가적인 권위를 가진 이에 의해 공적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팡팡 혐오가 이미 사회적으로 공공연해진 상황에 이르렀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팡팡을 미워하게 된걸까? 왜 팡팡에 대한 혐오가 한 사회를 휩쓰는 정동이 될걸까? 본 논문은 팡팡 일기가 야기한 일련의 논쟁과 사건의 추세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보다, 이처럼 팡팡에 대한 혐오가 사회적으로 끓어오르게 된 맥락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일련의 사건에서 착안할 점은, 논쟁이 일어나고 혐오가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웨이보라는 SNS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팡팡은 웨이보를 통해 글을 발표했고, 독자들과 소통했고, 결국 SNS를 통해 비판과 논쟁이 진행되었으며, SNS를 통해 혐오의 표적이 되었다. 필자는 이 일련의 과정을 팬데믹 시기에 SNS를 통해 혐오의 정동(affect)이 드러나는 방식의 하나로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팡팡 일기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이 어떻게 ‘혐오의 정동’의 생산 및 작동과 관련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3. 팡팡 웨이보를 둘러싼 혐오의 정동

정동이란 개념을 언급할 때에는 대개 스피노자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그는 ‘생성’과 ‘운동(運動)’을 통해 대상을 바라보고, 여기서 생겨나는 감정의 욕동 또한 단일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면서 정동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스피노자의 정동 개념에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신체로서, 정동이란 “신체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고,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신체의 변용인 동시에 그러한 변용의 관념”이다. 따라서 정동에서 중요한 것은 ‘움직임’이다. 오늘날 정동 이론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 들뢰즈와 가타리 역시 정동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능력”이자, “영향을 주는 몸과 영향을 받는 몸 사이의 대면 상태”라고 하였는데, 이 때 ‘사이’, ‘공간’, ‘흐름’이라는 개념이 강조된다. 즉, 이종적이고 다층적이며, 번짐과 엉킴의 새로운 차이성의 공간인 리좀(Rhizome)적 공간이 생겨나며, 이 속에서 정동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나아가 정동정치를 논한 브라이언 마수미(Brian Massumi)의 경우, 정동이란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기에 정동정치는 마주침으로부터

10) 「学校召开党委常委(扩大)会议通报有关工作」, 湖北大学官网, 2020.06.20. <http://www.hubu.edu.cn/info/1246/34005.htm>

터 시작되고 모든 대상은 정동적 마주침으로 능동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마주하면서 관계를 맺고, 마주한 관계는 다시 사건을 생성하고, 사건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정동은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것이기에 ‘전이’(transmission)된다. 이를 가장 잘 설명한 학자로 테레사 브레넌(Teresa Brennan)을 들 수 있는데, 브레넌은 정동의 전이는 주로 논리적 언어보다 감각 작용을 통해 즉각적이고 직감적으로 이루어지며, 물리적, 사회적 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피감응성(suggestibility), 외부 영향을 받아 주기가 변하는 전환(entrainment) 기능, 나와 타자의 간주관적 관계성, 타자의 모방 행위 등이 정동의 전이, 혹은 전염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정동은 네트워크 속에서 부단히 흐르고 마주치는, 일종의 에너지이다.¹¹⁾

이러한 정동의 흐름을 가장 잘 포착할 수 있는 공간 중의 하나가 바로 SNS이다. SNS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 즉 관계이며, 이를 타고 인간과 인간은 서로 마주하기도 하고, 이 마주함을 통해 사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 사건을 통해 또다른 만남과 흐름을 생성해낸다. 이러한 흐름은 어떤 지점에서 서로 강하게 전이되고 전염되면서 일종의 “감성의 연대”¹²⁾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대들이 한편과 다른 편으로 갈려서 극단적인 대립을 이루면서 소위 “혐오의 정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사라 아메드에 의하면 혐오(역겨움, disgust)는 대상의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 ‘역겹다’고 느끼는 반응의 효과로 만들어진다. 말하자면 혐오는 그 대상인 타자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반복과 자기복제를 통해 효과를 발생시키며 확산되어간다. ¹³⁾

팡팡이 웨이보에 연재한 우한 일기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혐오의 정동이 작동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 혐오의 정동은 SNS 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개인적이거나 혹은 집단적으로,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약하게 부유(浮游)하다가, 어떤 이슈나 분위기에 휘말리면 매우 폭발적으로 강화된다. 팡팡에 대한 혐오의 정동도 웨이보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슈의 흐름에 따라 함께 옮겨다니며 팡팡의 글이 독자들에게 수용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고, 궁극적으로는 팡팡의 글쓰기 자체에도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¹⁴⁾

이러한 혐오의 정동이 움직이는 방식에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 더 나아가 주목하는 것은 누가 팡팡의 일기를 둘러싼 혐오의 정동을 수행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SNS에서 혐오의 정동은 단지 공개된 계정에 혐오 발언이 담긴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만을 통하지 않는다. 댓글달기, 해시태그 달기, 이모티콘 달기, ‘좋아요’ 누르기, 퍼나르기 등의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모두 정동에 감응하는 행위이며, 실제로 수많은 SNS 유저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게시물을 작성하는 것보다 위에 열거한 인게이지먼트 행위들이 SNS 활동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팡팡의 일기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과 논쟁들 역시 웨이보를 기반으로 한 게시물의 포스팅과 인게이지먼트가 혐오 정동의 생성과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과정 속에 참여한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들

11) 이 문단의 서술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 그레그·시그워스 편,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역, 『정동 이론—몸과 문화 윤리 정치의 마주침에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연구』, 서울: 갈무리, 2015. 김예란, 「감성공론장」, 『언론과 사회』, 18(3), 2010, pp.146-191.

12) 이광석. 「디지털 세대와 소셜 미디어 문화정치」, 『동향과 전망』, 84, 2012, pp.102-129.

13) Sara Ahmed,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Routledge, 2012, pp.83-85.

14) 팡팡의 우한 일기를 보면 우한의 락다운 상황을 기록하여 사람들과 공유한다는 처음의 취지에 무색하게 마지막 부분으로 갈수록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의 공격에 맞서 논쟁을 벌이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창작-발표-피드백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SNS의 글쓰기 방식이 결국 작가의 창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팡팡이 우한 일기의 연재를 끝낸 뒤에도 팡팡의 웨이보는 그녀가 소위 ‘극좌분자’라고 부르는 이들과의 논쟁, 비방, 반박 등으로 점철되었다.

은 어떠한 방식으로 혐오의 정동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감응하고, 또 그것을 확산시켰는가? 팡팡은 본인이 연재한 우한 일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특히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 빈도가 잦아지면서) 공개적으로 자신에게 비판을 제기한 인물과 매체의 실명을 적시하는 한편, 이들을 통칭하여 ‘극좌분자(極左分子)’라고 지칭하였다. 대개 팡팡이 말한 ‘극좌분자’¹⁵⁾는 보통 중국의 극단적인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네티즌들로, 대개 편청(憤靑), 샤오펜홍(小粉紅) 으로 호칭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누구인지, 어떠한 배경과 특징을 가진 군체(群體)로 특정할 수 있는가. 사실 이는 애초에 간단히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출하는 유저들의 성향을 한 두 가지의 정체성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팡팡이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극좌분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 바로 제기된 반론 - 팡팡에 반대한다고 해서 모두 극좌분자라고 할수 있는가¹⁶⁾ - 이야말로 바로 그 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팡팡을 싫어하는 이들을 모두 하나의 정체성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팡팡에 대한 혐오의 정동을 수행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큰 영향력을 가지는 이들이 분명 존재한다. 본 논문은 팡팡일기와 관련해 웨이보에서 혐오 발언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네트워크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소위 국내에서 대개 “민족주의적 성향의 네티즌”으로 통칭되는 이들이 어떤 이들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팡팡의 우한일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가장 높았던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웨이보에서 팡팡 우한일기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반응을 얻었던 웨이보 게시글들의 작성자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웨이보에서 ‘方方封城日記’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작성된 글 중 해당 기간에 ‘熱門’으로 분류된 게시물을 검색했는데, ‘熱門’이란 일정 기간 동안에 게시된 글 중 열람횟수, ‘좋아요’ 횟수, 퍼나르기 횟수 등이 높은 인기글에 붙여지는 표식이다. ‘熱門’으로 분류된 게시물은 웨이보의 첫 페이지에 노출되며, 특정 검색어로 검색했을 때 결과를 표시하는 페이지에서도 가장 상단에 표시된다.

이 시기 ‘方方封城日記’에 대해 의견을 표시한 ‘熱門’ 게시물을 검색한 결과, 눈에 띄는 것은 팡팡일기 관련한 이슈에 대해 웨이보 내에서 적극적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유저들 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이들은 서로의 계정을 팔로우하기, 서로의 게시물을 퍼나르기, 같은 해시태그 달기 등의 인게이지먼트를 통해 소통하면서 팡팡에 대한 혐오의 정동이 강화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음의 표는 ‘方方封城日記’ 혹은 “方方日記”로 검색했을 때 ‘熱門’으로 분류된 게시물이 2개 이상인 유저들이 팔로우한 계정을 정리한 결과, 이들 유저들간의 상호 팔로우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세로축의 유저명과 가로축의 유저명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 ○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 유저들은 상호 팔로우 관계이다.

15) 팡팡이 이 ‘극좌분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과연 팡팡에 비판을 제기하는 이들을 일괄하여 ‘극좌분자’로 통칭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이다.

16) 孙锡良：方方，您不应把反对者封为“极左”，视为“文革重来”，红歌会网，2020.04.11., <http://m.szhgh.com/show.php?classid=49&id=230144>

	作者 海菱	观察 者网	弓先声	风的 节奏吹	地瓜熊 老六	帝吧 官微	无为 李爷	司马 3忌	司马南	上帝之 鹰_5zn
观察者网	○		○	○	○	○	○	○	○	○
地瓜熊老六	○	○	○	○		○	○	○	○	○
帝吧官微	○		○	○	○		○	○	○	○
无为李爷	○	○	○	○	○	○		○	○	○
司马南	○	○	○	○	○	○	○	○		
司马3忌	○		○	○	○	○	○		○	
上帝之鹰_5zn		○		○	○	○	○	○		
明德先生	○		○	○	○	○	○	○	○	
胡锡进		○	○			○	○	○	○	
孤烟暮蝉		○	○	○	○	○	○	○	○	○
张颐武	○	○	○	○	○	○	○	○	○	
弓先声				○		○	○	○		
师伟微博			○	○	○	○	○	○	○	○
风的节奏吹			○		○	○	○	○	○	
作者海菱				○		○	○	○	○	

표에 정리된 유저들은 거의 대부분 상호팔로우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팡팡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가지는 네티즌 간에 상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개인 유저들인 가운데, 두 개의 기관/단체 계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곧 팡팡에 대한 혐오 네트워크 속에서 이 두 기관/단체가 유저들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텐데, 이 구심점에 해당하는 것이 ‘观察者网’의 웨이보 계정과 ‘帝吧官微’ 계정이다. ‘观察者网’(https://www.guancha.cn)은 상하이에서 창립된 시사평론 포털로서, 주로 웨이보 등 SNS를 기반으로 한 청년층의 여론을 중시하며, “글로벌한 시야, 중국의 관심(全球视野 中国关怀)”이라는 슬로건 하에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는 사이트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벌어진 티베트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미국 CNN의 보도 태도에 불만을 가진 중국 네티즌들을 규합하여 만든 Anti-CNN 사이트의 후신인 민족주의적 성향의 사이트 ‘四月网(http://www.m4.cn)’과 친연관계를 가지고 있다.¹⁷⁾ ‘帝吧官微’는 바이두의 커뮤니티 서비스인 테바(贴吧) 중에서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로 꼽히는 리이 바(李毅吧, 일명 帝吧)¹⁸⁾의 웨이보 공식계정이다. 리이 바는 처음에는 축구 선수 리이(李毅)의 팬 커뮤니티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리이와는 무관하게 유머 게시물이 많은 곳으로 유명해졌고, 중국에서 ‘루저’를 뜻하는 ‘다오쓰(屌丝)’라는 신조어가 여기에서 탄생하면서 다오쓰 문화의 중심지가 된 곳이다. 한국의 금수저에 해당하는 ‘高富帅(키 크고, 부유하고, 잘생긴 남자)’의 반대인 ‘다오쓰’로 자처하는 이들은 애초에 이 커뮤니티

17) 四月网과 观察者网이 같은 자본으로부터 투자받아 운영되고 있다.

18) 리이(李毅)는 중국의 전직 국가대표 축구선수이다. 2005년 아시아챔피언스리그(AFC) 토너먼트에서 당시 리이가 소속되어 있던 선전 젠리바오 FC가 한국의 수원 삼성을 꺾은 뒤, “나의 볼키퍼 실력은 앙리와 비슷하다”면서 당시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꼽히던 티에리 앙리에 자신을 견주었는데, 이 발언이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 큰 조롱거리가 되었고, 이후 리이는 중국 인터넷에서 허세의 상징이 되었다. 네티즌들은 앙리의 별명인 ‘킹 앙리(King Henry)’를 본따 리이를 ‘King(大帝)’라고 불렀으며, 이와 더불어 바이두 테바 중에서 리이와 관련한 게시물을 공유하던 리이 바(李毅吧) 역시 ‘킹바(帝吧)’로 불리는 동시에 각종 허세 게시물을 공유하는 게시판으로 바뀌었다.

가 축구선수의 팬 커뮤니티로 출발했기에 젊은 남성들이 많고, 스스로가 사회적으로 소외층에 속한다고 여기는데, 또한 이러한 정서를 다소 자학적인 유머 코드로 표출해내면서 많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帝吧가 중국 민족주의 네티즌 조직의 본거지로 유명해진 것은 2016년에 있었던 소위 ‘디바출정(帝吧出征)’ 사건 이후부터이다. 디바출정이란 2016년 1월에 거행된 타이완 총통선거에서 민진당의 차이잉원이 당선되자, 디바를 중심으로 한 대륙 네티즌들이 차이잉원의 페이스북을 비롯, 타이완 주요 매체들의 페이스북에 일제히 몰려가 각종 댓글폭탄과 이모티콘으로 도배를 한 일종의 사이버 테러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족주의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년 네티즌들을 지칭하는 ‘샤오파홍(小粉红)’이라는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되었다.

즉 광광에 대한 혐오 네트워크에서 디바와 관찰자망의 계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디바와 관찰자망의 유저들이 광광에 대한 비판여론의 생산 과정에 개입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민족주의적/극좌파적 성향의 논객으로 잘 알려져 있는 司马南과 환구시보 편집장 胡锡进 및 张颐武 베이징대학 교수 등이 이 네트워크 속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광광의 일기를 둘러싸고 혐오의 정동을 작동시키는 양상은 사라 아메드가 행복이라는 정동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연상시킨다. 아메드에 의하면 행복이라는 정동은 행복이 좋은 것이어야 하며, 행복은 우리의 목표여야 한다는 일종의 지향성(orientation)을 포함한다.¹⁹⁾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행복이어야 하고 어떤 것이 행복이 아닌지에 대한 구분이 생겨나고, 특정한 공동체와 특정한 정체성이 행복이라는 정동을 일으키는 데 더욱 가까운 것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타자들은 불행의 원인이 되며, 정동 소외자(affect alien)²⁰⁾가 된다. 이를테면 사람들은 대개 행복이란 정상적인 가정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공유하지만, 이는 곧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지 않는 동성애자는 불행과 가까이 있다는 인식과 맞닿는다. 또한 지역이나 민족 공동체를 통해 소속감과 동질성을 느끼는 반면에는 낯선 이주자나 타인종에 대한 배척을 수반하게 된다. 이는 이들의 어떤 속성이 불행이나 나쁜 감정을 내포하기 있기 때문이 아니다. 정동은 대상의 속성이 아니라, 대상을 향하는 방향성 속에서 움직인다.

광광과 그의 일기에 대해 비난을 가하는 이들이 광광에 대한 혐오의 정동에 참여하는 것은 광광 일기에서 잘못된 사실을 적시했거나, 광광이 민심이나 공익을 거스르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다. 광광이 저지른 몇 가지 잘못들은 광광에 대한 혐오의 정동을 일으키고 증폭시키는 역할만을 할 뿐, 애초에 해명되거나 시정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혐오의 방향을 광광 쪽으로 정향(定向)하면서 그 반대편에 위치한 ‘우리들’을 부단히 하나로 묶는다. 사라 아메드의 말처럼 “함께 혐오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²¹⁾

웨이보에서 광광을 대상으로 한 혐오의 정동을 확산하는 과정에서는 해시태그의 공유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광광의 연재가 시작된 2020년 1월 23일부터 연재가 끝난 3월 25일까지 웨이보에서 “광광일기”로 검색했을 때, 검색된 게시물들은 사안에 따라 몇 개의 해시태그를 공유하면서 광광과 관련된 논란을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 중 가장 많이 공유된 해시태그들은 다음과 같았다.

19) 사라 아메드, 『행복한 대상』, 그레그·시그워스 편,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역, 『정동 이론 - 몸과 문화 윤리 정치의 마주침에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연구』, 서울: 갈무리, 2015, p.64.

20) 같은 글, p.58.

21) Sara Ahmed, Affective Economies, *Social Text* 79, Vol.22, No.2, 2004, pp.117-139.

- ① #팡팡일기에서 조카가 우한을 빠져나간 것을 묘사#(#方方日记描写侄女出武汉#)
- ② #팡팡일기에서 량 간호사가 사망했다고 날조#(#方方日记造谣梁护士去世#)
- ③ #팡팡은 카이선물류가 재난을 이용해 돈을 번다고 크게 비난#(#方方大骂凯申物流发灾难财#)
- ④ #팡팡이 소산권 별장을 이용해 천만위안 이득#(#方方小产权别墅转正获利千万#)
- ⑤ #밍더선생은 팡팡의 부동산 6건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함에 문제 제기#(#明德先生举报方方6套房产来源不明#)
- ⑥ #후베이대학이 량연핑에 대해 조사#(#湖北大学调查梁艳萍#)
- ⑦ #팡팡의 친구목록#(#方方的朋友圈#)

정동은 신체와 신체 사이로 흐르면서 이들이 함께 동요하고 생기를 띠게 하는데, 온라인에서의 해시태그는 서로 정동하고 정동되는 네트워크 사이에서 방향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상술했듯이 혐오 정동이 특정 대상을 향하고 있을 때, 이는 그 대상이 맞서 설명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혐오는 그 대상 안에 원인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혐오 정동의 움직임 그 자체 안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위에 인용한 해시태그들의 목록을 보면 ①과 ②에서 보듯 초기에는 팡팡 일기에 서술된 내용 중에서 팡팡이 잘못 행동했거나 잘못 서술한 내용을 적시하고 있지만, ④와 ⑤는 팡팡 일기의 내용에서 벗어나 팡팡 개인의 비리 혐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⑥과 ⑦에 이르면 팡팡 개인에 대한 공격이 팡팡의 주변인 및 팡팡을 옹호하는 이들에 대한 공격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시태그들은 팡팡을 비난하는 내용의 게시물들을 통해 공유되면서 혐오의 정동이 계속 지속되고 확산되게 만든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③의 해시태그인데, 팡팡의 웨이보 계정에 “凱申物流總經理”라는 아이디의 유저가 계속 등장하여 팡팡을 공격하자, 팡팡은 이 사람의 아이디만 보고 그가 실제로 “凱申物流”라는 택배회사의 사장이라고 착각하여 “택배회사야 말로 코로나로 인해 큰 돈을 벌지 않았느냐”²²⁾며 맞받아쳤는데, 사실 “凱申物流總經理”은 이전부터 인터넷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던 일종의 밈(meme)이었다.²³⁾ 결국 이 해프닝은 팡팡이 디바로 대표되는 인터넷 서브컬처에 친숙하지 않다는 점을 크게 부각시키면서 웨이보를 중심으로 끓어오르는 혐오의 정동에서 팡팡은 철저한 타자이며, 정동 소외자임을 확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팡팡과 같은 정동 소외자에 대한 배제와 혐오를 통해 이들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일까? 혐오와 배제가 무언가 긍정적인 정동을 가져야만 한다는 강박의 또다른 표현이고, 어떤 ‘안전한’ 공동체에 대한 상상과 맞물려 있다면, 이들에게 있어 팡팡에 대한 혐오는 단순히 애국심이나 민족주의의 발로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이는 우한이라는 거대 도시를 봉쇄에 이르게 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 앞에서 재난을 타자화(othering)함으로써 나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고 싶은 심리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셸던 웅가는 서구사회의 미디어가 전염병을 표상하는 패턴을 고찰하면서, 기본적으로 외부와 내부의 경계짓기를 통해 전염병을 타자화하는 논리가 내재됨을 지적한 바 있다.²⁴⁾ 즉 전염병은 늘 ‘우리’라는 공동체의 바깥, 이를테면 타국(특히 제3세계)이나 한 국가 내에서의 타 지역 혹은 소수자 커뮤니티(동성애자 혹은 이주민)의 문제이며,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표상화된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보았을 때, 팡팡의 우한 일기에 대한 혐오는 팡팡이 그

22) 方方微博, 2020.03.25.

23) 凱申物流總經理는 네티즌 사이의 유머로, 장제스(蔣介石)를 지칭한다.

24) Ungar, Sheldon. 1998, “Hot Crises and Media Reassurance: A Comparison of Emerging Diseases and Ebola Zaire”,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9(1), pp.36-56.

속에서 쏟아내고 있는 우한의 끔찍한 실상에 대한 두려움의 또다른 표현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은 바로 우한의 시민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관영 언론을 중심으로 쏟아지는 ‘극복 가능하다’는 호언장담과 막연한 희망 서사에 저도 모르게 기대고 싶은 심리로 이어진다. 결국 희망과 안전함이 있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정동적 감응이 곧 상처와 공포로 얼룩진 광광의 서사를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밀어내고 마는 것이다.

4. 결론

본 논문은 코로나 19의 창궐로 인해 우한이 봉쇄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광광이 웨이보를 통해 연재한 일기가 중국의 네티즌들 사이에서 어떻게 혐오의 대상이 되었는지, 이를 ‘정동(affect)’ 개념을 이용해 고찰해보았다. 이를 위해 광광 일기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출한 웨이보 유저 중에 비교적 영향력이 큰 유저들의 계정을 중심으로 이들간의 네트워크 관계, 해시태그 활용 양상 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본 논문은 사라 아메드의 정동 이론을 빌어 혐오 정동이 기존 공동체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논지 위에 광광에 대한 혐오가 재난 상황에서 모종의 안전한 공동체에 대한 상상의 일환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광광 혐오를 주도한 이들을 단순히 “민족주의적 성향의 중국 네티즌”으로 귀결짓지 않고, 이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바라보고자 하였다. 최근 중국에서 민족주의적 이슈와 관련하여 네티즌들의 집단 행동이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들을 단지 공산당에 고용된 댓글부대, 혹은 중국 정부에 무비판적인 청년 세대로 규정짓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소위 ‘샤오편홍’으로 불리는 이들 네티즌들에 대해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광광 저, 조유리 역, 『우한일기—코로나19로 봉쇄된 도시의 기록』, 서울: 문학동네, 2020.
- 그레그· 시그워스 편,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역, 『정동 이론—몸과 문화 윤리 정치의 마주침에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연구』, 서울: 갈무리, 2015
- 김예란, 「감성공론장」, 『언론과 사회』, 18(3), 2010, pp.146-191.
- 류정호·이동훈 (2011). 소셜미디어로서 마이크로 블로그 공론장의 정치적 의사소통에 대한 탐색적 연구: 네트워크 동질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권 4호, 309~330.315쪽).
- 손희정, 「혐오와 절합하고 경합하는 정동들—정동의 인클로저를 넘어서 혐오에 대해 사유하기」, 『여성문학연구』, 36, 2015, pp.117-141
- 이광석, 「디지털 세대와 소셜 미디어 문화정치」, 『동향과 전망』, 84, 2012, pp.102-129.
- 장민지, 「디지털 네이티브 여/성주체(Digital Native Fe/male Subject)의 운동 전략」, 『미디어, 젠더 & 문화』 3 1.3, 2016, pp.219-255.
- 조영한, 「미디어, 셀러브리티 그리고 온라인 민족주의」, 『커뮤니케이션 이론』, 10(2), 2014, pp.197-241.

- 황예진, 『모바일 미디어가 매개하는 정동』,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2018.
- 홍남희. (2016). 법관의 SNS 이용을 둘러싼 담론의 대립과 역할. *언론정보연구*, 53(2), 305-348.
- 홍주현·윤혜진, 「중국 웨이보를 통한 인터넷 민족주의의 확산 연구: 메시지의 확산 추이와 메시지에 대한 정서 분석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연구』 22(4), 2014, pp.77-97.
- 윤경우, 「중국 사이버민족주의의 성격과 특징」, 『中國學論叢』 34, 2011, pp.329-353.
- 윤경우,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과 사이버민족주의」, 『人文社會科學研究』 34, 2012, pp.153-178.
- 이민자, 「중국식 인터넷 문화: 민족주의 담론 분석」, 『現代中國研究』 20(2), 2018, pp.55-90.
- Sara Ahmed, Affective Economies, *Social Text* 79, Vol.22, No.2, 2004, 117-139
- Sara Ahmed,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4.
- Zhang, Y., Liu, J., & Wen, J., “Nationalism on Weibo: Towards a Multifaceted Understanding of Chinese Nationalism”. *The China Quarterly*, 235, 2018, pp.758-783.
- Jiang Ying, *Cyber-Nationalism in China: Challenging Western Media Portrayals of Internet Censorship in China*, Adelaide: University of Adelaide Press, 2012
- Zhang, Dechun, “Digital Nationalism on Weibo on the 70th Chinese National Day”, *The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Media Studies*, 6(1), 2020, pp.1-19
- Liu Hailong(edt). *From Cyber-Nationalism to Fandom Nationalism—The Case of Diba Expedition In China*, Routledge, 2020
- Ungar, Sheldon. 1998, “Hot Crises and Media Reassurance: A Comparison of Emerging Diseases and Ebola in Zaire”,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9(1), pp. 36-56.
- 李云云. 网络民族主义视域中的小粉红群体研究, 辽宁大学碩士論文.

【文學分科】 발표 ④

集體記憶·文化創傷*

— 從‘返校’系列談台灣的白色恐怖敘事

李淑娟**

【目 录】

1. 研究緣起
2. 被阻擋的記憶：台灣白色恐怖的前世今生
 - 1) 集體記憶.文化創傷.社會認同
 - 2) 白色恐怖文學的多元論述
3. ‘過去’向你走來：‘返校’系列的白色恐怖敘事特質
4. 結論

1. 研究緣起

2017年初，一款台灣出品的恐怖電子遊戲‘返校：detention’在全球遊戲平臺Steam上綫，當月即拿下全球銷售量第三名¹⁾。此遊戲以台灣60年代戒嚴時期，某中學校園讀書會成員遭構陷入罪的情節為主綫，呈現當時白色恐怖肅殺氣氛中人們彼此出賣，甚至為求免禍而捏造謊言致他人入罪的故事。玩家必須在歧路中不斷（代替人物）做選擇，在闖關過程中一步步挖掘出被埋藏的過去，拼湊出故事的真相，但也隨玩家的選擇，產生不同的結局。特別的是，這個遊戲的敘事內容與台灣特定時空的事件緊密關聯，在畫面和音效上也融入大量的台灣文化符號（防諜標語、黑名單、魍魎、鬼差、擲筊、符咒、望春風等歌謠），呈現濃厚的在地風格，卻無礙外國玩家的理解，並引發各國玩家對台灣歷史的關注²⁾。這提醒我們注意，電游‘互動’特質和內容上的‘現實指涉’性相結合所能引發的效應。就台灣來說，白色恐怖歷史的傷痕其實還未成為‘過去’，特別是在政治上幾回政權交替等複雜因素的錯綜交織下，白色恐怖的真相有待釐清與挖掘，對該歷史的認知也一直被延遲，也因此它被視為是台灣內部成員之間政治意識矛盾的癥結。如何擴大社會對白色恐怖歷史的認知，形成同情與理解，尋求通往社會團結的途徑，是台灣社會的關

* 이 논문은 2021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전북대학교 중국·아시아연구소 연구원 (lsj@chonbuk.ac.kr)

1) 參考維基百科<https://zh.wikipedia.org/wiki/%E8%BF%94%E6%A0%A1>

這款遊戲同時推出中英文版，當時銷售市場的狀況為：台灣56%，中國23%，英文市場21%。

(<https://paper.udn.com/udnpaper/POD0002/308670/web/>)

2) ‘返校’的設計團隊接受BBC訪問時表示，西方玩家使用的雖是英文版，卻能瞭解台灣傳統文化，沒有文化衝突，也不需要任何其他附加的提示就能闖關。而中國大陸的玩家則在接觸到此遊戲後，給出很多的專業分析和建議，並積極地查閱台灣過去的歷史，想瞭解台灣白色恐怖的歷史創傷。BBC報導，〈一款暢銷恐怖遊戲重現當年國共肅殺對立〉，2017.02.09。 <https://www.bbc.com/zhongwen/simp/chinese-news-38923440> [2021.04.10.]

鍵課題。而‘返校’以遊戲形態介入白色恐怖歷史，堪為史上首見，且其引發的回響之巨、之廣前所未見。特別是對台灣新一代青少年而言，因世代交替之故對白色恐怖歷史基本上很疏離，而‘返校’引發了台灣年輕一代對該階段歷史的高度關注。挾此氣勢，電影版的‘返校’于2019年上映，不到兩周票房即破台幣兩億，創下台灣電影又一新記錄³⁾。同年12月，Netflix推出了8集的影劇版‘返校’，該影劇在電影版‘返校’的架構上，加上了90年代另外一組‘鏡像’情節相互牽引，讓白色恐怖的觸角更往前展進，‘過去’似乎復活，來到當下。

事實上，近年來台灣民間和政府合手推動‘轉型正義’工程，試圖將這一段長期被壓抑、掩藏的白色恐怖歷史進行再現、表徵化，然而卻遲遲未獲具體進展。而‘返校’系列的效應卻一舉超越‘轉型正義’工程，達致後者望塵莫及的成果。大眾流行文化在轉型正義普世價值的普及化上所具有的巨大滲透力，已在韓國經驗-電影‘計程車司機’、‘1987’所引發的大眾熱潮中獲得證明。而此次，台灣的‘返校’系列從電游跨域到電影、電視劇的例子更提醒我們應對此現象展開更細緻的觀察。Netflix的國際化經營模式，讓各國籍觀眾得以在一個‘共時’的網絡空間中分享、交流。這些跨國界的觀賞及討論，擴大了這個故事的指涉能力。也就是說，類似的政治暴力，不僅可能發生在台灣，在許多國家的特定階段也曾存在（或正在進行），因此‘返校’系列可以讓更多人反視、反思自身所屬國家社會的歷史記憶。‘返校’的遊戲、電影、影劇等不同領域的‘白色恐怖敘事’正透過彼此對照、投射，逐漸形成一個巨大的話語網，就目前來看，這一系列現象還在繼續發酵、擴散中。筆者關注此現象，試圖觀察台灣白色恐怖歷史在此前的台灣語境中如何被建構、呈現，而‘返校’系列又以何種新的形態呈現，賦予它何種意義？

2. 被阻擋的記憶：台灣白色恐怖的前世今生

1) 集體記憶·文化創傷·社會認同

“戰後台灣的白色恐怖，系指國民黨政府當局對共產黨、左傾分子與臺獨人士等政治異己的鎮壓。其中，僅少數案件真正符合當局法律上規範的‘叛亂’或‘匪諜’之構成要件，多數概屬冤、錯、假案。”
（景美人權園區2010年‘歷史的百合’展覽文宣）

作為一個象徵性詞彙，‘白色恐怖’（white Terror）既含有抽象的思想性質，也有實際行動之含義，但將之適用於具體的歷史語境，卻總常存有‘歧義’，如同上文所見。先撇開這個問題，一般來說，‘白色恐怖’指執政者運用國家機器的直接暴力手段，對反抗現有體制的革命或革新勢力所進行的超越正常制度的摧毀行爲。而這個詞在近代中國的使用，始於20年代國民黨為反制共產黨而在上海、廣州、重慶（白區）等都市展開肅清活動，這被稱為‘白色恐怖’。40年代末，國民黨政權遷臺，為鞏固政權而以國家公權力侵犯人權展開高壓統治，‘白色恐怖’一詞於是被沿用。須注意的是，在台灣，白色恐怖常與二二八事件相提並論。此乃因1947年二二八事件爆發後隨即展開的軍事鎮壓、‘清鄉’及肅清活動持續經年，這與1949年開始的體制化的思想鉗制、恐怖統治時期相去不遠，因而在八十年代以後的‘台灣民族主義’歷史論述脈絡中，二二八事件就成為白色恐怖的起點⁴⁾。目前台灣的白色恐怖有廣、狹兩義。廣義的

3) 該電影還在韓國的釜山國際電影節上映引發韓國觀眾的持續關注。

4) 陳水扁在2001年228紀念儀式上的致辭：“廣義的二二八代表的是一個權威政權對人民人權的大規模侵犯和剝奪，也就是所謂的‘白色恐怖’，... 二二八及白色恐怖帶給國家社會巨大的創傷。”

‘白色恐怖’指1949年四六學生事件到1987年戒嚴令解除，長達38年間的國家結構性暴力。狹義則指1947年的二二八事件到1950年代末期，又以1948年底為界分為兩個階段：前一階段是國民黨政府為鎮壓島內動亂，指令軍隊對領導抗爭或試圖協商的本地菁英階層展開的武力鎮壓；後一階段是國民黨政府透過特務機關對潛伏島內的共黨分子或臺獨分子的肅清⁵⁾。

從事件本身來看，二二八事件和‘白色恐怖’性質不同。二二八事件是私煙事件引爆了當時社會內部鬱積的族群矛盾，國民黨對之展開鎮壓，執行者是軍隊，有具體事件、時間，牽連範圍相對具體明確，但其‘族群面向’所引發的餘波擴散、滲入台灣政治、社會、文化各層面，為台灣當代最大核心議題-族群分裂問題的起點⁶⁾。而‘白色恐怖’則是情報機關主導的高壓政治鉗制，牽連更廣，時間也更長。雖至今尚無一各方接受的統計，但有一種看法認為：白色恐怖期間共計有兩萬九千多件政治案，受難者計有十四萬人，遭處決者達三四千人，牽涉人數之多前所未見⁷⁾，因而在近四十年歲月中，白色恐怖幾乎是台灣人生存的常態。許多資料顯示，白色恐怖的壓抑和恐怖感，深深嵌入台灣人的感覺結構中。若將兩者混而為一，則真相將更難顯現，責任歸屬將難以追究，更遑論創傷的平復。⁸⁾

不管是二二八或是‘白色恐怖’，一直到1987年解嚴之前，都是台灣最嚴格的禁忌，它們無法被描述，真相也無從尋訪，受害者的苦難無法被理解，正義也當然無法伸張。1987年解嚴後，二二八歷史資料相繼出土，受害者自述、研究論述等如雨後春筍，二二八進入公開政治論述範疇。雖然這些被建構的歷史記憶仍然呈現分歧⁹⁾，但對受害者與加害者兩者概念的確認已有共識，經由賠償、名譽平反、紀念碑或空間的設置、國家紀念日指定等的推動，可說‘歷史重構’的第一階段任務-恢復遭掩埋的記憶、療愈歷史傷痛已經大致達成。相對於此，白色恐怖歷史的‘再現’起步較晚，情境也更複雜。首先，人員成分複雜-紅帽子（共產分子）、白帽子（臺獨分子），還有‘冤錯假案’，真相隱晦難明。其次，台灣戰後至今，‘反共立場’一以貫之，白色恐怖與‘恐共’互為表裡，當時複雜多元的思想傾向都被誣陷為‘通共’、‘左傾’而遭到壓制圍剿。在‘恐共’主導的意識形態下，即使是真正傾心共產主義的政治犯在出獄後也只能緘口沉默，隱匿記憶。在這樣的多重因素下，這些政治案件的當事人和其家屬，不平、恐懼、孤立的情感漸轉化成羞愧自卑，時日一久，更擴散成更大層面的不安全感、不信任感、乃至倖存者萌生了羞愧感，論者將之視為‘台灣社會精神結構缺乏凝聚力的根源’¹⁰⁾。

近年來，發生于二十世紀世界各地的許多重大‘創傷歷史’越來越受到關注，許多相關概念及理論被

<https://www.president.gov.tw/NEWS/2919> [2021.04.16.]

5) 侯坤宏，〈戰後台灣白色恐怖論析〉，《國史館學術集刊》，12期，p. 142。

6) 族群問題呈現在各種層面，從政治權力的分配來看，原本在日本統治下，在地方政治權力中佔據重要地位的台灣本土政治菁英卻在二二八事件後面臨了最大的斷層，參見吳乃德、陳明通，〈政權移轉和菁英流動：台灣地方政治菁英的歷史形成〉，賴澤涵編，《台灣光復初期歷史》，中央研究院中山人文社會科學研究所，1993，pp. 303-334。

7) 侯坤宏，〈戰後台灣白色恐怖論析〉，《國史館學術集刊》12期，143頁。另外，維基百科相關詞條顯示，在台灣法務部向立法院所提之報告上顯示，戒嚴時期，軍事法庭受理的政治案件29407件，官方最保守估計的無辜受害者約14萬人。根據司法院透露，政治案件約6、7萬件，如以每案平均3人計算，受軍事審判的政治受難人，應當在20萬人以上。（2021.03.15）

8) ‘對二二八與白色恐怖的混為一談並不罕見，在早已成為民族創傷的二二八事件上，官方曾先後發發佈過兩本報告，詳述事件始末與責任歸屬；但比這事件綿延更久、國家暴力行使性質更為複雜、社會影響也更為深遠的白色恐怖，政府卻始終沒有進行任何類似的檔案清理與研究、訪調記錄各方當事人證詞等工作，好對這段艱難的過去(difficultpast)，做出總結性的說明。……以致一般民眾根本難以區分二二八與白色恐怖，或僅能將白色恐怖等同於美麗島案，高度化約了紛雜的歷史結構。……國家暴力的複雜性，卻常被再現地扁平與單一。’葉虹靈，《台灣集體記憶中一篇模糊的拼圖-從馬場町秋祭談起》，天下雜誌‘獨立評論’網站，2013.11.21。

<https://web.archive.org/web/20140220031711/http://opinion.cw.com.tw/blog/profile/205/article/771> [2021.3.12.]

9) 參閱吳乃德，〈書寫民族創傷：二二八事件的歷史記憶〉，《思想月刊》第8期，39-70頁。本文提示，國民黨闡釋二二八事件的一貫論點是‘共產黨在內戰中的鼓動和叛亂’，而台灣認同者則以‘反抗外來政權’為論述主軸。

10) 李連魁，〈詩人童年中的二二八經驗〉，《中外文學》，25-7，1996.12，p. 108。

提出，如集體記憶（莫里斯·哈布瓦赫）、文化記憶（揚·阿曼斯夫婦）及文化創傷（杰弗里·C. 亞歷山大）等，這些概念有助於明晰台灣白色恐怖歷史創傷的建構過程與其意義。杰弗里·C. 亞歷山大指稱：“個人和群體覺得他們發生了可怕的事件，在群體意識上留下難以磨滅的痕跡，成為永久的記憶，根本且無可逆轉地改變了他們的未來，文化創傷就發生了。”¹¹⁾而建構文化創傷，能讓各種社會群體、國族社會得以認知到苦難的存在和創傷的緣由，並因此而擔負起一些重大責任。他更指出，集體的成員辨認出創傷的緣由並擔負了道德責任，就意味著這些成員可以分擔他人的痛苦，於是‘我們’的範圍就擴大了，也就是有了團結的關係。反之，當集體成員拒絕承認他人苦難的存在，等於就是推卸了自身對該苦難的責任，這個群體的團結範疇便受到了局限。這些觀點是本文切入台灣白色恐怖敘事的一個基本視角。

和個人記憶不同，群體並沒有一個供儲存記憶的大腦，因此集體記憶需要在談論、記錄或儀式等過程中不斷被喚起、被賦予意義才能固定下來。時間流逝，台灣白色恐怖的經歷者逐漸消逝，在個人記憶已幾乎要跨越代際，不再被個人記憶的現在，群體如何去記憶之，以及為何要記憶這‘傷痛’？很多跡象顯示，它其實並未成為‘過去’。當作為國民黨政權象徵的‘中正紀念堂’改名事件引發政治爭議之時；當當年羈押白色恐怖政治犯的歷史性地點‘景美軍人監獄’在陳水扁時期改名為‘景美人權園區’，後來卻在馬英九執政期間被改為‘景美文化園區’而引發了一次又一次的爭議時；還有國民黨大老在選舉時主張“沒有過去的戒嚴就沒有今天的民主”、“說是白色恐怖，是醜化國民黨了！且受到牽連的，多是大陸來臺的將領，根本就沒有什麼本省人！”¹²⁾等言論而引發輿論熱議時，我們看到，這些‘過去’一直在介入台灣的‘現在’。也就是說，若事件未能被合理地‘再建構’，就不能被集體的其他成員理解，也無法成為個人對世界的認識基礎，那麼這個巨大事件就無法被賦予意義，其所留下的集體創傷必然會對這個集體成員的共同身份認同造成傷害。要讓個人的創傷經歷產生意義有多種途徑，除了法律上的真相究明和名譽明反等之外，集團成員的共享記憶是更重要的關鍵，但這並非自然形成的。一般來說，創傷發生在特定的時空，惟有直接受害者才知覺到，為了被理解（這關係到與其他人保持交往關係）並得到安慰，事件必須在集體當中被傳述談論，由之產生‘交流型記憶’¹³⁾，如此就會引發有意識的行動。但交流性記憶以口頭形式存在，不穩定且無秩序，更將隨時間消逝，因此必須將之轉換成‘文化記憶’，其組成部分是一個社會專用以刻畫自我形象、可一再使用的文本、圖像、典禮儀式的集合。也就是說，文化記憶透過文本、圖像、儀式的塑造，是客體化的文化，如此則集體歷史中的重大事件得以被重現、保留下來。文化記憶又可區分為潛在文化記憶和現實文化記憶，前者指在博物館、檔案室中保留的記錄，後者則形成於過去事件在新的社會、歷史語境中所獲之新含義。也就是說，在新的語境中將‘過去’激活，它就成為與當下有關的現實文化記憶。這裏提到的‘文本’，一般來說，過去多關注歷史論述、文學文本，而筆者認為，電游‘返校’的現象，提醒我們必須關注電游形態的‘文本’，因為它正展現其能以一種全新的方式介入對歷史的建構與認知。再者，白色恐怖與台灣人的族群身份有複雜的糾葛，認同問題一直是台灣的關鍵議題，白色恐怖的‘集體記憶’在集體認同的形構上有重要意義。如何‘再現’白色恐怖這一度被禁錮的記憶，對之賦予何種意義，因而富有高度政治意義與倫理意涵。

2016年，台灣在兩次政黨輪替後民進黨再次執政，‘轉型正義’再次被提為首要課題，白色恐怖時期歷史真相之究明、平反與補償，乃至‘歷史重述’全面展開。‘轉型正義’（Transitional justice）是

11) 杰弗里·C. 亞歷山大，王志弘譯，〈邁向文化創傷理論〉，《文化研究》，11輯，p. 11。

12) 張英哲，〈郝柏村、二二八、白色恐怖〉，Newtalk新聞，2012. 02. 23。
<https://newtalk.tw/citizen/view/5081> [2021. 04. 16.]

13) 在揚·阿曼斯的論述中，交流型記憶是一種短時段的、隨時可以逝去的、流動性的存在。而文化記憶是長時段的、人類逐漸累積的固化記憶。參閱揚·阿曼斯著，甄飛譯，〈文化記憶〉，阿斯特莉特·埃爾等編，《文化記憶理論讀本》，北京出版社，pp. 3-1頁。

所有從權威獨裁政權轉型成的民主國家都必須面臨的政治、道德難題。如何究明責任歸屬？對發號施令者、主、被動促成加害措舉的關係人，應施以何種法律制裁？還有，一些依附權威政權的獲益者應承擔何種道德責任？這些都是轉型正義工程要究明的目標。台灣白色恐怖之起點距今已近七十年，社會記憶無法抗拒生物學意義上世代更替的‘記憶消逝’危機，如何在這關鍵時刻讓真相浮現以形成集體記憶並沉澱出文化創傷的倫理意義，與台灣‘當下’的社會群體關係發展密切相關。然而，我們卻看到，台灣轉型正義政策的實踐，呈現悖論：至今關於白色恐怖政治案件的敘述與釋義，乃至平反案的意義還是眾說紛紜莫衷一是。上面已提到，50年代白色恐怖受難者中有參與中共地下黨者、臺獨傾向者¹⁴⁾，還有遭羅織陷構入罪的。但90年代以降，由口述史、回憶錄構成的白色恐怖主流敘事是‘冤錯假案’，‘求仁得仁’的左翼分子身影至今仍未得顯影，對台灣一般人來說，對複雜的內情是相當陌生的。2014年林傳凱經由新舊訪談資料的對比，指出了白色恐怖敘事的複雜面相¹⁵⁾。他從政治案件補償制度設計、政治受難者的意識形態框架和政治犯的社會互動等角度切入，指出之前的訪談中，有共產黨背景的政治犯爲了獲取補償而避談地下黨參與內容，對抗爭史避重就輕以符合官方補償的‘冤錯假案’標準，因而‘無辜受害者’敘事成爲主流。他總結：在較早版本的敘事中，“大多數的當事者選擇以‘冤錯假案’詮釋自身經歷，換言之，案件爲虛構，案情爲羅織。當事者對「自我」的描述，又常聲稱在年齡、智識、理想、能力都不夠水準，哪可能成爲一個「參與抗爭、顛覆政體」的政治行動者？”¹⁶⁾論者概括這類‘冤錯假案’口述史的共同特徵爲：

“起先，一定是從1945年以降，談起光復後對祖國的滿心期待轉爲失望的過程。緊接著228的血腥鎮壓與社會亂象，以及後228的不滿與噤聲。至此，時間突然跳躍至1950年代，情節發展急轉急下。在某日某事某地點，‘莫名其妙’地被叫去問話，在保安司令部、保密局遭嚴刑逼供逼問是否參加共產黨，因被強迫按了手印認罪，或是經由他人的口供定了罪。...經過漫長的牢獄生活重回社會後，被戴上紅帽子。”¹⁷⁾

也就是說，這些口述共同呈現了無法理解、斷裂、重複、類似夢魘，並相互互文、重複的特質。

2) 白色恐怖文學的多元論述

不同于歷史、政治層面上的對重大創傷事件建構的重點放在真相究明及責任追究，文學裏的白色恐怖敘事，其鉤沉創傷事件與其說是呈現真相，更應在探索如何看待歷史、身份定位等問題。那麼，台灣文學敘事如何呈現白色恐怖呢？在葉石濤的小說〈紅鞋子〉中，我們可以看到白色恐怖受害人被捕的瞬間：

“夜寒料峭，隨著吉普車的疾駛，一陣冷風從跪著的他的雙膝間吹到臉上來。往昔快樂的生活情景如一齣齣的電影鏡頭在眼前閃過去。簡阿淘禁不住眼淚滂沱的滴下來。只是他還搞不懂他爲什麼被捕。”¹⁸⁾

14) 這可以從1987年成立的兩個組織看出來，‘台灣地區政治受難人員互助會’爲統派立場鮮明的政治犯所組成的團體，‘台灣政治受難者聯誼總會’則爲主張台灣獨立的政治犯所組成。葉虹靈，〈台灣白色恐怖創傷記憶的體制化過程-歷史制度論觀點〉，《台灣社會學》29期，2015.06，p. 15。

15) 林傳凱，〈「大眾傷痕」的「實」與「幻」-探索「1950年代白色恐怖『見證』的版本歧異〉，《歷史台灣》8期，國立台灣歷史博物館刊，pp. 35-83。

16) 見林傳凱上文，p. 43。然而在林傳凱直接進行的訪談中（2014年），許多當事者改變了說法，承認自己參與了地下組織，並積極投入抗爭。

17) 林邑軒，〈沒有抵抗者的平安：初探228與50年代白色恐怖平反運動〉，《2012年政治學年會研討會》，臺灣國立師範大學。

18) 葉石濤，〈紅鞋子〉，《台灣男子簡阿淘》，臺北：草根出版社，1994，p. 59。

葉石濤是台灣文學主體性的奠基人，他以親身經歷寫就的這個文本¹⁹⁾，在白色恐怖文學中具有代表性意義。文本中的簡阿淘成長於日本殖民政權治下，不熟悉中文，對大陸政治也一無所知。台灣回歸祖國，讓他興起了當一個真正中國人的志氣，於是到處找祖國來的漢書來學習，苦讀之下終於把孫中山的《三民主義》讀懂了，然而他的被捕起因於‘誤讀’：他記得《三民主義》裏有一句話：“「民生主義就是共產主義」，所以借來毛澤東的《新民主主義》時誤以為這就是《三民主義》的解說。”²⁰⁾很明顯的，〈紅鞋子〉和白色恐怖口述史有相似的敘事特質，即它同樣呈現‘虛構案件、羅織罪名、無法理解、涉案人在智識能力上皆不足以擔任政治犯’等特徵，因而白色恐怖成爲一團迷霧。

值得關注的是，‘不明所以’的，不僅限于涉案者，在李渝的〈夜琴〉裏，敘事者對涉案人完全置之不顧，只呈現少婦不知何以終的等待。少婦在少女時期父親就不明所以地沒有再回來過，婚後，再次面對丈夫‘又不見了’的事實。作者不僅對涉案人形象置之不顧，對事情原委也不置一詞，只淡然地描述少婦沉默地接受事實，不追究而只緘默地、永無止境地等待下去。在這裏，白色恐怖同樣是一團迷霧。類似如此，要麼避開事件的本質，要麼無法敘述一個完整的故事，是白色恐怖文學的共同特質，有論者將之稱爲‘迷態敘事’：

“這些故事之所以屬於蔣後文本，不但因爲它們帶出了與官方版本相互抵觸的論述，也是因爲它們使人開始注意這種長期制約的沉默，還有這種慢性的記憶宰制，而導致作家無能作證。其結果就是，這些證詞使得讀者陷入一團神秘的迷霧，因其中的多重敘述從不相互吻合，所以他們的偵探故事也從來不能水落石出。”²¹⁾

也就是說，白色恐怖文學敘事和口述史一樣具有斷裂、不明所以、在關鍵處閃爍其詞等特征。

白色恐怖敘事還有另一重要角色—‘告密者’。告密者不握有權力，卻是協助國家暴力的行動者，並且告密者多與受害者關係密切，其選擇告密的情境，行動的動因，以及案件之後的心態，關係到其道義責任，以及與受害者（包括親屬）的關係重建，因此在白色恐怖文學敘事中，如何呈現此角色對‘後白色恐怖’的社會和解具有關鍵意義。郭松棻的小說〈月印〉²²⁾是一個頗具代表性的‘告密者’敘事文本。文本中，鐵敏是白色恐怖涉案人，文本的焦點是他的妻子文惠。小城鎮裏的小家閨秀文惠是一個單純、癡情、守舊的傳統女性，沒受過多少教育的她傾心於鎮上讀書人鐵敏，鐵敏體弱多病，二戰時被征赴南洋，她苦苦等回了鐵敏，結了婚過上她期盼多年的平穩生活。小說最後情節急轉，文惠發現丈夫瞞自己參與一個讀書會，文惠嫉意大發，於是想藉舉發鐵敏擁有一個秘密箱子的事來讓丈夫脫離那個聚會，結果卻造成了鐵敏及其友人遭槍決的悲劇。事件後，派出所所長大大表揚文惠的‘大義滅親’，這和文惠天真的想法對比，反諷意味濃厚。而那箱子到底裝了什麼，作者留下空白，猶如潘多拉的盒子。整體上說，作者透過文惠的無知-嫉妒-好奇心理，演繹出一場人性考驗的悲劇，帶著濃厚的虛無感。純情無知的文惠成爲無辜的加害者，無意中造成了多人的悲劇，遭受巨大震驚的她拒絕回想，一輩子逃避面對自己曾告密的事實。

真實情境中，台灣有‘抓耙仔’（台語）一詞，在50年代開始用來指稱遍佈各階層的‘告密者’，長久以來已成爲撕裂台灣社會人與人之間之信任的象徵詞匯，深具政治意涵。50年代，為有效監控民衆，黨國系統在社會佈下監視、通風報信的人，因其遍佈社會各個層面，加重了人人戒慎恐懼的氣氛²³⁾。台灣

19) 葉石濤在《台灣男子簡阿淘》的述中表示，這本小說是：“五〇年代抗議分子的思想傾向和心理深層的恐懼、願望，以及悲歡離合帶來的真實哀傷”，也就是他遭受中國國民黨政權白色恐怖迫害「比較完整的全程紀實」。

20) 同上，p. 65。

21) 柏右銘，〈台灣認同與記憶的危機-蔣後的迷態敘述〉，《書寫台灣：文學史、後殖民與後現代》，p. 235。

22) 郭松棻，〈月印〉，《奔跑的母親》，台北：麥田，2002，pp. 29-38。

著名作家李喬就以〈告密者〉²⁴為題，對深植台灣社會的‘告密者檢舉’現象進行了濃縮顯影。文本裡的湯汝組成長於白色恐怖風聲鶴唳的50年代，從小就知道用‘打小報告’來獲得師長器重，終於在大專時被收編為專職檢舉匪諜的地下人員，並取得編號‘3874’。後來他在夜市擺攤賣錄音帶維生，為了競爭，他檢舉對手攤販賣中共歌曲，結果競爭者被警方搜索而銷聲匿跡。在這些事件的背面，作者不動聲色地呈現湯汝組走上‘抓耙仔’這條路的心理狀態和複雜處境：從小因身材矮小及魯鈍的天性，他反復經歷挫敗，缺乏成就感導致他深陷負面情緒，並深恐遭輕視而患得患失。成長後的他表面上奉公守法，內心極端怯懦且缺乏安全感。後來他終於首次萌生了愛意，對象小梅是個獨立聰敏的記者。他明知小梅涉及‘分歧分子’案卻選擇知情不報並因此受上級問責，小梅也離他而去。這導致湯汝組分裂成二：3874和湯汝組。最後上級決定撤回其特殊身份，此時，湯汝組以3874的身份寄出檢舉‘湯汝組’的信，當聽到信封投入專櫃所發出的‘撲’聲響時，他為自己大義滅親的悲壯而淚流滿面。作者讓‘抓耙仔’的成長過程和每一次‘選擇’的錯綜因素與心理糾葛得以呈現，於是‘抓耙仔’不再是一個片面刻板地形象，其人性的複雜面獲得立體呈現。‘抓耙仔’的背叛歷史，動搖了台灣社會中人與人的信任，但將之刻板化成陰狠奸詐的形象，將錯漏更多複雜的人性面與歷史情境，如何客觀地、從人性角度來看待‘抓耙仔’，進一步將‘抓耙仔’所引發的，因不信而來的傷痛升華成文化創傷是台灣社會獲得和解、重建信任的關鍵。

3. ‘過去’向你走來：‘返校’系列的白色恐怖敘事特質

“只有當每一段創傷歷史都能被講述並且得到耐心傾聽的機會時，那些通過論據不斷激起的仇恨和暴力旋渦才能長時間中止。”阿萊達·阿斯曼²⁵

從第三節可看到，台灣的白色恐怖歷史多年來不乏文學敘事的呈現，而民間帶動、政府加持的‘轉型正義’政策也已實行多年，然而很明顯的，這些都未能在社會上激起較全面的漣漪。台灣大眾對待白色恐怖歷史一直處於‘低溫稀薄’狀態，而2017年‘返校’電游出臺後，一連串後續發展中出現了某種明顯的變化，甚至連長久以來一直主張要用‘遺忘’來處理白色恐怖悲情歷史的國民黨人士²⁶，都出現正反兩種反應：持負面態度的立委批評‘返校’“的台灣價值就是在宣揚、確立共產黨武力統一台灣的理由與正當性”²⁷；持肯定態度的立委則贊許‘返校’，表示“我們除了願意真誠面對以往的歷史錯誤，更應該要有走出悲情傷痛的能力”²⁸。事實上，白色恐怖為國民黨權威政權的產物，是事實上的‘加害者’，而‘返校’系列讓國民黨繼承者做出了反思，更在大眾層引發了對白色恐怖歷史的莫大關注，這可以說是

23) 50年代的白色恐怖在執行方式上有三種，一為在各地普遍設置通信員，以對各社區進行全面掌握；二為重點佈置，對特殊團體或政治組織布建秘密人員；三為專案布建，在已鎖定的犯罪組織內佈下眼線。見侯坤宏，〈戰後台灣白色恐怖論析〉，《國史館學術集刊》，12期，p. 147。

24) 李喬，《李喬短篇小說全集》第9冊，苗栗：苗栗縣立文化中心出版，2000年，pp. 114-134。

25) 阿萊達·阿斯曼，〈德國受害者敘述〉，收錄於阿斯特莉特·埃爾等 (Astrid Erll) 編，《文化記憶理論讀本》，北京，北京大學出版社，2012，p. 180。

26) 2015年，國民黨主席朱立倫還表示：“台灣要走向和平，不管過去曾經產生過多少的歷史，都已經經過半個世紀，希望大家用和平紀念日的精神來面對228，一起面對未來。”參考普麟等，〈淺談轉型正義在台灣：實踐與反思〉，菜市場政治學。<https://whogovernstw.org/2016/03/18/linpu/> [2021. 04. 10.]

27) 〈神解讀？蔡正元評《返校》的台灣價值是...〉，《自由時報》政治版，2019. 10. 28。

<https://news.ltn.com.tw/news/politics/breakingnews/2959938> [2021. 04. 01.]

28) 林彥臣，〈許毓仁看《返校》po心得〉，ETtoday新聞雲，2019. 09. 24。

<https://www.ettoday.net/news/20190924/1542514.htm> [2021. 04. 01.]

轉型正義工程及文學敘事所望塵莫及的。為什麼在多年來文學敘事的經營和近年來民間與政府聯手努力都無法引發的效應會在此遊戲的觸動下，在如此短時間內引發如此強烈而長效的回響呢？本文將從電游敘事的‘互動式敘事’和‘沉浸式娛樂’兩個面向來論析。

要談‘互動式敘事’，必須先對電游‘返校’的敘事內容進行概括。‘返校’由許多時序錯亂、片段零散的情節串組而成，重整其敘事框架則為一樁高中校園師生戀所引發的白色恐怖大掃蕩事件。翠華中學高二學生方芮欣與輔導老師張明輝相戀，張明輝原與女老師殷翠涵一起組織學生讀書會，殷翠涵擔心此事曝光會牽連無辜，勸張明輝疏遠芮欣，芮欣誤以為殷翠涵是情敵，便通過學弟魏仲廷取得讀書會書單，以此為證舉發了讀書會，結果造成張明輝及學生多人或遭處死，或入獄服刑。芮欣震驚之餘選擇跳樓自殺，然而她的靈魂遺忘了此事，導致靈魂困於校園，無法進入輪迴。敘事內容是如此，但電遊與其他敘事（如文學或自傳敘事）的最大差異為，遊戲架構在互動的特性上，具‘互動式敘事’(interactive narrative)特性，也就是說玩家必須介入遊戲，與之互動才能完成敘事。首先，玩家要成功闖關，除了要掌握遊戲中的提示之外，還要用自身知識及生命經驗來對遊戲內情節的斷裂或空白處進行串聯填補。在這遊戲來說，零散片斷的畫面交替出現，還有貫穿整個過程的許多沉澱了時代與本土文化印記的物件（防匪宣傳標語、教官形象、輔導日記、刑求、驗傷單、特赦單、黑白無常鬼差、孟婆、城隍廟、擲筊等等），玩家在半領悟半猜想下，做出選擇，操作女主人公的行動。本論文關注的即為此特性。遊戲的展開分序章和主遊戲一～四章。序章始於颱風夜的校園，魏仲廷在教室中醒來，玩家必須操作仲廷，收集闖關所必須的工具物件和許多記載了背景訊息的文件。第一到三章，主要人物轉換成芮欣，她立於詭譎恐怖、非真實的校園，牆上寫滿‘抓耙仔’字眼，並有許多眼睛閃現，彷彿在監視一切，此外還不斷出現各種符咒、紙錢、戲偶、神桌腳尾飯、魑魅魍魎和孟婆等民間信仰符號。芮欣不斷往返在家中客廳、社團樓、廟宇、監獄等各種空間，還穿插著一些師生對話、教官勸引、父母吵架的零碎片段。玩家要操作芮欣避開鬼差，同時也對斷裂的情節進行編排解謎。第四章為整個敘事的關鍵：芮欣分裂為二，即芮欣和其分身，玩家必須替代分身對問題做出選項²⁹⁾。四題都答對的話，就會有一中年男子出現在廢棄的校園，他應是服完刑的仲廷，這暗示芮欣終於走出輪迴，她和仲廷達成了自我和解，即為TRUE END。否則，芮欣會拿到一根繩子，用以上吊，意味著她的靈魂走不出輪迴，為BAD END。

在遊戲互動的推進中，玩家逐漸領悟到那女學生是被困於輪迴的芮欣靈魂，並對芮欣的心理困境有所理解：她學業優秀受全校師生矚目，後來父親外遇問題曝光而遭受異樣眼光，導致她變得敏感退縮，張老師對她進行心理輔導即緣于此。她知道母親曾因氣憤丈夫變心而檢舉丈夫貪污，這導致她在擔心失去愛情時，學母親的做法，檢舉了讀書會。芮欣因嫉妒、無知而犯下無以彌補的遺憾，自殺後她的靈魂不願面對這錯誤，因而無法走出輪迴。第四章的‘問答’集中體現了遊戲的互動因素。在玩家選擇答案時，玩家必須把自己當成芮欣，誠實不虛偽地回答才能答對，如此則芮欣能拿到張老師留下的字條：‘白鹿予水仙，今生無緣，來世再會，致自由’，最終與自己達成和解。而若玩家不誠實，那麼芮欣將陷在輪迴中無法超脫。此悲劇的另外一個無辜的‘告密協助者’是魏仲廷。仲廷並不知道書單會成為檢舉的證據，在受調查時還供出讀書會內情，因而只被判15年，這讓他懷著深深的愧疚。在TRUE END中，他服完刑回到荒廢的校園，終於能面對芮欣，象徵著兩人都能正視過去承認錯誤而獲得了解脫。一個嚴峻時代下的微小自我，在個人處境及時代環境之下，因著一些私心與無知，導致錯誤抉擇的全貌獲得呈現。遊戲最後的連續提問，讓玩家與芮欣合而為一，玩家‘擬真’地體驗‘告密者’的處境，瞭解‘告密者’的種種困境。

29) 問題一) ‘你最恐懼的事情是什麼?’ ①失去自我②失去生命③失去至親。問題二) ‘家裏出事你會’ ①平心而對②視而不見③逃避躲藏。問題三) ‘在張老師身邊的你抱著什麼想法’ ①聽天由命②順勢生存③事在人為。問題四 ‘面對失去依靠的現實，你會’ ①欣然以對②搶奪挽回③默默接受。

再談‘沉浸式娛樂’。‘返校’在電游販售平臺上被歸為‘冒險遊戲’類，設計者通常會巧妙地暗藏一些線索讓玩家發掘，過程中產生驚險、恐怖、文化體驗等經驗。‘返校’沒有采用最尖端的科技，而是采用2D橫向卷軸設計，加上設計團隊精心設計出許多擬真的圖像、音樂，讓玩家似乎進入真正的台灣五十、六十年代時空。更特別的是，設計者有效動用了台灣民間信仰的種種符號，營造出恐怖卻又熟悉的情境，如此在視覺、聽覺的全面效果下，玩家沉浸到虛擬的情境，不僅能享受到恐怖的快感，更體驗到共同創作的喜悅。筆者檢閱各國玩家的心得分享，都對此遊戲中濃厚的在地文化風格，擬真又抽象的畫面設計及呼應內容的音樂評價甚高，特別是多位韓國玩家對這個部分更是盛贊不已，進一步引發對韓國民主化過程中相似問題的思索。³⁰⁾

Dovey和Kennedy在《遊戲文化》(game cultures: Computer Games as New Media) (2006) 曾提示，不同於傳統敘事文本的讀者為被動的，在遊戲中，玩家為積極的閱聽者，他們能主動詮釋、參與創作，同時經歷一種仿真的體驗——‘沉浸其中’。就目前的科技發展趨勢來看，未來新形態的敘述大方向是，發展成高度的沉浸感和擬真環境讓人們進入體驗敘事。也就是說，作為多媒體綜合體的電子遊戲，因涵括了文字、音樂、聲音、圖片、影像，能提供綜合的敘事元素，可讓玩家主動選擇，敘事於是成為雙向，而非傳統的單向敘事。遊戲設計者提供各種元素，為敘事提供內容，但最終的意義生產取決於玩家，雙方合作互動才能完成文本的建構。就此而言，‘返校’是一個成功的例子，它充分發揮了‘互動式敘事’和‘沉浸式娛樂’的特質，最重要的是在讓玩家得到娛樂和成就感之外，更有效地引發玩家對歷史的興趣，展開後續的探索。這樣的效果不僅出現在台灣玩家，筆者還查閱到許多海外玩家的經驗分享和感想，如一位馬來西亞的玩家就留言表示，這遊戲讓自己想起馬來西亞過去也有過類似台灣白色恐怖的經驗，進而對該歷史的責任分屬進行反思³¹⁾。在如此跨界、跨域的熱烈反應下，引發了連續效應：以電游‘返校’為基礎所發展出的電影‘返校’及影劇‘返校’相繼出臺上映。作為台灣第一部從電游改編成的電影，‘返校’電影忠於原電游的精神，但基於媒界不同，表現手法也必然有差異。導演徐漢強表示“電玩最終處理的是歷史背景，希望我們記得現在的自由是怎麼來的。所以電影版掌握這個方向，淡化電玩的民俗、道教元素，故事才能收束產生力道。”³²⁾簡單的說，電游重點在人物心理的呈現，而電影更著力在社會真實的鋪陳，電游中許多一閃即逝的片段，都在電影中獲得了具體的展現。在展開架構上，電影改成是芮欣在校園裏睡醒，在走廊上遇見仲廷。在人物設定上，電影做了某種程度的修改，並新增了人物。如電游中是仲廷直接把書單交給芮欣，電影裏則是因為他喜歡芮欣。再如芮欣的父親從一般公務員變成了軍官，並和白教官以同窗相稱。芮欣父母不和的原因是外遇而發展成家庭暴力，如此改變，讓家暴和國家暴力相互呼應。而電影中加入了沉迷于布袋戲的阿聖，他被別人誤指為是告密者，布袋戲是台灣本土文化

30) 레이븐666: 수작, 압도적인 연출과 스토리텔링. (2019. 11. 09.)

하리뽀(●●?), : 너무 무서워요. 그래픽도 그래픽인데 소리가 사람 환장하게 만드네요 오밤중에 하다가 깬어요 너무 무서워서. (2020. 07. 05.)

h. jellybo: 게임에 관한 메이저국가에서도 만들수없는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공포 추리 퍼즐게임을 좋아하지 않는지도 3시간정도 플레이하였고 이 플레이 엔딩 크레딧에는 수작 영화라고 생각될 뿐입니다. (2020. 08. 31.)

여린 심장: 오랜만에 너무 좋은 게임을 했습니다... 대만과 한국의 역사가 비슷한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마음 아프기도 했습니다. (2020. 08. 22.)

31) grapes lim在玩家介紹的視頻下留言：

“講真的，馬來西亞在馬共猖獗的時代也有發生過類似台灣白色恐怖的一段歷史... (中略)... 我母親說她在中學時期就經歷過說話要小心不能隨意說出任何和共產黨有關的事物，直接宣揚共產思想更是大忌，否則被潛伏在學生裡的學生警察聽到就準備被請去喝kopi吃咖哩飯或直接被消失，(中略)而當時和台灣的懲治叛亂條例相似的法令就是我們馬來西亞人耳熟能詳且惡名昭彰的國內安全法令。btw我還是反對共產黨的，但是馬來西亞政府真的必須為那段時間造成的各種無辜的不幸負責。(https://www.youtube.com/watch?v=7VzcEj4a7Eo) (2021. 04. 01.)

32) 項貽斐, 〈電影精準轉化電玩語言-返校重現驚悚奇幻IP〉(《鏡Mirror Media》2019. 09. 21報導)

https://www.mirrormedia.mg/story/20190911insight011/

的象徵，這樣的設定讓白色恐怖中複雜的族群因素得以被呈現。還有工友老高，電游中對這個角色並無鋪陳，電影中的老高則是一個隨黨征戰多年，立下了汗馬功勞的外省老兵，他無辜地扯入白色恐怖中，這更立體呈現了當時複雜的族群背景。

此電影上映三天即成為2019年台灣票房冠軍。挾此熱潮，2020年12月，影集‘返校’在大眾期待中開播。影集將時空定在原始劇情時空的三十年後，新時空中加入了新主角-劉芸香，於是生成一個跨世代的驚悚故事。劉芸香在1999年轉學到翠華中學。轉學後她誤闖禁地，在廢棄的涵翠樓中遇見了成為怨靈的學姊方芮欣。30多年前自殺的方芮欣已成為學校鬼故事裡的主角，而她的怨靈不斷緊隨劉芸香並幾次出手展現靈異力量，讓芸香成為異類而備受師生懷疑。另一方面，芸香父親長期在中國發展而導致夫妻失和，母親期待女兒的優秀能挽回丈夫的心，這造成芸香沉重的壓力，心理障礙讓她無法融入校園生活。在接受老師沈華的輔導過程中，師生戀重演。影集裏新增的芸香，非常巧妙地創造了兩個時代人的連結：芸香和芮欣的隔代卻有類似的情感遭遇，兩人於是成為跨越陰陽界的好友，產生彼此依賴及利用的關係。依集體記憶、文化創傷的脈絡，可以說，方芮欣的怨靈穿越30年，走進‘現在’來利用芸香展開‘復仇’的情節是一個隱喻：30年前的方芮欣未能面對自己的錯誤，正是未能被‘認識’的‘過去的白色恐怖’；方芮欣的靈魂寄身芸香來到‘現在’，對校園裏專制霸道的勢力展開報復，則是白色恐怖冤屈受難者的復仇。這呼應著記憶理論所主張的：‘過去’未曾離開，它就在‘現在’。而唯一能知解‘過去’，拯救‘現在’的是另一個新增角色程文亮，他與芸香同班，是當地隍廟的第五代傳人，對靈異世界有敏異的知覺能力。他發現芸香不尋常的行為，跟蹤觀察之後他依稀瞭解了事情的來龍去脈，因而能適時引導、保護芸香。這一‘過去’與‘現在’的兩重架構，直接與‘白色恐怖遺忘論’產生對話。它提醒我們，白色恐怖情境可以不同的形態，在不同的時空重現：（校園、政治）思想自由的鉗制、自由價值的貶抑、體制對獨立個體（學生、政治上的個人）的侵犯等等。‘返校’影集裏，停留在‘過去’的歷史走到當代，對現在產生影響，這激發出更多面向，深具思考性的議題。

4. 結論

凡是從專制政權轉向民主政治的國家都有被壓抑、掩藏的歷史，如何再現這些歷史，關係著內部成員如何自我定位與達成認同。但這不是為了政治清算或復仇，而是借瞭解事件運作的機制，促進成員之間的討論以達成共識，並促成成員之間的理解、寬容。一般認為，集體記憶的形成過程可區分為三個階段：一）挖掘真相，恢復記憶；二）對歷史展開闡述，會有闡述競爭出現，為該歷史的政治意義和責任尋求行定位；三）經由文學藝術創作超越僵化的政治歷史詮釋，讓當代與未來世代透過文學來貼近記憶現場，在閱讀中持續對話，達致對歷史、人性更寬廣、更普世的認知。台灣白色恐怖歷史記憶的建構開展多年，雖有建樹卻尚未能在大眾層面引發全面的關注與討論。而2017年，電子遊戲‘返校’橫空介入白色恐怖敘事，引發了青少年群體關注歷史的熱潮，其後再跨越到電影、連續劇領域，提醒我們必須將‘文本’的範疇再擴大，並關注不同‘文本’形態的特性，以能更寬廣的視域來掌握、分析特定現象。本文從遊戲的‘互動性敘事’和‘沉浸式娛樂’特性出發，對‘返校’電游的社會效應進行了描述與闡述，並以之與電影及影集‘返校’在敘事上的特點進行了分析對比，詮釋後兩者建構、展現歷史記憶的創新及效果。簡要地說，‘返校’系列的發展並非自我複製，而是各有進展，不同媒介的文本之間的相互發明、相互激發，特別是影集‘返校’在原來的‘過去故事’之上，架構了‘現在’的故事，這樣的編排，是在新的社會、

歷史語境中激活了白色恐怖記憶，讓它在新的語境中獲得了新的含義。

‘返校’的例子是否是孤例呢？顯然不會是的。韓國今年4月3號的一則新聞顯示，韓國的電遊設計者 김희민 以濟州島4·3事件為背景，設計了一款名為 ‘언폴디드: 동백이야기’ 的遊戲，該遊戲以詳實的事實考證為基礎，對該事件作出了很好的呈現。設計者在訪談中表示：“只在高中教科書看過短短幾行的記載，覺得自己同年代的年輕人應該也對這歷史不甚了解。這麼重大的屠殺事件，大多數人對之並不清楚，自己受到很大的衝擊。因聽過‘若不記住歷史，歷史必然重演’的說法，覺得非常害怕，因而想通過遊戲來讓此歷史讓更多人知道。遊戲無法承載全部的內容，還有遊戲必須有樂趣才能大眾化，但結果是比較偏向藝術的方向，大眾性比較弱，原本的讓大眾更了解歷史的目的沒有達成，很遺憾。但會持續以歷史為題材，兼顧商業性大眾性。”³³⁾ 雖然無法證明韓國設計者受到台灣‘返校’遊戲的啓發，但可以知道，台、韓在歷史記憶、文化創傷的建構上的相似性。這正提醒我們，台、韓之間若能更積極的相互藉鑒與交流，當能為相關議題的研究開拓出新的方向，也能為東亞地區研究拓展出新的對話空間。

33) SBS 뉴스: ‘4월 3일 제주도서 있었던 일을 ‘게임’ 으로 만든 이유’ (2021.04.03.)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85235?lfrom=kakao>

【문학분과】 발표 ⑤

협의와 증여 서사*

유미경**

【목 차】

1. 들어가면서
2. 『사기』의 협의 고사의 증여 서사
3. 당 전기 '호협' 고사의 증여 서사
4. 『수호전』의 증여 서사
5. 나가면서

1. 들어가면서

‘협(俠)’ 혹은 ‘협의(俠義)’의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 ‘협’의 신분에 대해서도 유가 혹은 묵가에서 나왔다는 설, 사(士) 집단에서 나왔다는 설, 사회계층이나 집단이 아니라 일종의 정신과 기질이라는 등 아직 규정된 정론은 없다. 확실한 것은 ‘협’의 존재는 춘추전국 시기부터 있었고, 법가의 한비자는 ‘협은 무력으로 금지된 것을 범한다(俠以武犯禁)’하여 부정적으로 바라봤고,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된 현대에는 협의 존재를 억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의 「자객열전(刺客列傳)」과 「유협열전(游俠列傳)」에서 협의를 긍정적으로 기록한 이래 ‘협’의 서사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서 특히 당 이후의 문학에서 즐겨 서사되었다. 당 전기(傳奇)가 협의를 본격적으로 소설화하면서 신비롭고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였고, 이후 송원의 화본(話本)을 거쳐 『수호전(水滸傳)』에 와서는 수많은 의협들이 등장하여 개인의 협의 행위뿐 아니라 ‘하늘을 대신해 정의를 행한다(替天行道)’는 집단적 저항 행위까지 폭넓게 형상화되었다. 그리고 청대에 『삼협오의(三俠五義)』, 『아녀영웅전(兒女英雄傳)』 등 전형적인 협의소설들이 지속적으로 창작되었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무협소설이라는 장르로서 널리 유행하고 있다.¹⁾

이처럼 ‘협’은 매우 인기 있는 소재라서 수많은 작품이 창작되었고, 또 이에 대한 연구논문과 저서들은 매우 많다. 대체로 크게 나누면, 문학사적 맥락에서 협의 및 무협 문학의 산생과 그 발전과정을 탐색했고,²⁾ 작품 속의 유협(游俠)·호협(豪俠)·관협(官俠)·여협(女俠)의 신분과 특징을 분석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89100)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chinamky@daum.net)

1) ‘무협’은 1903년 양계초(梁啓超)가 처음으로 일본에서 들여온 개념이다.

2) 중국어권 논문은 너무 많아서 학위 논문 일부만 소개하고, 한국어권의 관련 논문들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宋巍, 『中國古典武俠小說史論』, 陝西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06. 王瑞, 『漢代復仇文學書寫研究』, 阜陽師範學院碩士學位論文, 2017. 최재용, 「의/협의 변천사-최근 중국 인터넷 ‘선협소설’에서의 의/협 개념」, 『중국소설논총』, 제44집, 2

하거나 ‘협’의 형상의 변천과정을 탐구했다.³⁾ 나아가 중국인의 정신과 국민성을 탐색하는 방법론⁴⁾의 하나로서 ‘협’의 정신과 문화에 천착하거나 통시적 흐름에서 유협에서 무협에 이르는 ‘협’ 문화의 변천을 규명하였다.⁵⁾

이 연구는 텍스트 속에서 협의 행위를 단서로 삼아서 협의 행위가 발생하는 배경, 협의를 이행하는 과정과 그 이후의 결과에 이르기까지 협의 행위가 서사 논리에 미치는 과정에 관심을 둔다. 법치가 공평무사하지 않아 공권력[官府]이 개인의 안위를 돌보지 못하는 사회에서 개인은 언제나 공권력의 자장 안팎에서 심한 피해를 입기 마련이다. 그런 상황에서 ‘강포한 자를 제거하여 약자를 돕는다[除强扶弱]’ 협의의 영웅이 출현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 아니라 그러한 갈구는 문학이라는 상상의 공간에 수용되어서 ‘포악한 자를 제거하여 백성들을 위로하는[除暴安良]’ 정의로움이 실현되고 저마다 협의의 수혜자가 되길 희구하는 서사들로 텍스트 곳곳을 가득 채우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편의상 협의의 개념을 ‘의(義)를 중시하여 무력(武力)이나 돈을 써서 곤경에 처한 이를 도와주는 사람이나 그 행위’로 정의하고, 협의의 제공자가 되는 의협과 그 협의의 수요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환체계에 주목하고자 한다.⁶⁾ 이때 협의 서사는 ‘주고-받고-답례하기’라는 증여 행위가 발생하는데, 증여 또한 단순하지 않아서 무상증여라는 ‘순수증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답례가 예상되는 ‘조건부증여’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협의 행위를 단서로 삼아서 증여의 시각에서 분석하여 협의 서사에 내재하는 다양한 의미를 드러내고, 또한 통시적으로 살펴서 협의 서사가 어떠한 경향으로 흐르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증여론에 대한 이론 정리가 필요한데,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뿐만 아니라 이를 비판하고 수정한 모리스 고들리에와 나카자와 신이치의 증여이론도 함께 검토하여 협의 행위 분석에 적용하고자 한다.⁷⁾ 모스는 등가물이 오고 가는 교환체계와 구별되는 비균형적 교환체계를 주목하여 화폐가 존재하여 자본의 지배를 받기 이전의 거래 양식을 증여를 기반으로 하는 급부체계로 파악했다. 그리고 증여는 ‘주고-받고-답례하기’라는 삼중 의무를 지닌다고 했고 특히 답례를 중시했다. 나아가 신이치는 대가의 개념 없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무상증여를 주목하여 절대적 증여 및 순수증여라는 개념을 제기했다. 본 연구는 답례가 중시되는 증여를 ‘조건부 증여’라 하고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무상증여를 ‘순수 증여’라 정의하고, 이들 개념을 활용해서 중국 서사물의 협

014. 최봉원, 「중국협소설의 산생에 관하여」, 『중국문학연구』, 제2권, 1984

3) 董立婕, 『遊俠與武俠發生期內涵比較研究』, 西南大學碩士學位論文, 2016. 劉希欣, 「遊俠、豪俠、官俠—中國古代文學俠特徵的異變及原因」, 『荷澤師專學報』, 2002(08). 聞婧男, 『史記遊俠形象研究』, 東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1. 정민경, 「당대협소설 속의 여협」, 『중국어문학지』, 제12권, 2002. 김명신, 「俠義의 개념과 『兒女英雄傳』의 特徵」, 『중국소설논총』, 제5집, 1996. 우강식, 「『西陽雜俎』 <盜俠篇>의 武俠敘事に 관한 고찰」, 『중국소설논총』, 제37집, 한국중국소설학회, 2012. 우강식, 「女俠敘事の 産生과 중국 무협소설사적 의의에 대한 고찰」, 『중국소설논총』, 제38집, 한국중국소설학회, 2012.

4) 聞一多是 “대부분 중국인의 영혼은 유가, 도가, 토비가 다 두고 있다(在大部分中國人的靈魂裏, 鬪爭着一個儒家, 一個道家, 一個土匪)”는 영국 사회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중국인의 정신의식을 언급했다. 이 ‘토구’를 협의 정신으로 이해하면서 근대 이후에 ‘협’ 문화에 대한 학술적 담론이 본격화된다.

5) 殷慧茹, 『略論明清章回小說“俠”文化的嬗變』, 湖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6. 陳建平, 『水滸戲與中國俠義文化』, 中國藝術研究院博士學位論文, 2006. 汪聚應, 『唐代俠風與文學』, 陝西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02. 유병갑, 「唐代俠義小說의 時代意識 研究」, 『중국학논총』, 제9호, 2000. 우강식, 「詠俠詩歌의 창작을 통해 본 俠文化의 문인사회 수용 양상 고찰 - 魏晉南北朝와 隋唐 시기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36(1), 인문과학연구소, 2009. 정현선, 「친사회적 행위로서의 俠과 義」, 『중국인문화학』, 제54집, 2013. 우강식, 「무협영화를 통해 표현된 중화민족주의의 흔적 고찰 - <精武門>, <黃飛鴻>, <英雄>을 중심으로」, 『중국학』, 제37집, 대한중국학회, 2010.

6) 협의의 교환은 증여의 대립항으로 자본주의를 특징하는 매매와 교환 경제를 의미하지만 광의의 ‘교환’은 증여와 교환을 아우르는 인간의 주고받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7) 마르셀 모스 지음, 이상률 옮김, 『증여론』, 한길사, 2002. 나카자와 신이치 지음, 김옥희 옮김,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 동아아시아, 2004. 모리스 고들리에 지음, 오창현 역, 『증여의 수수께끼』, 문학동네, 2011.

의 서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연구할 것이다.

그리고 애당초 ‘협’은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대체로 동란의 시대에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이어서 본질적으로 ‘탈중심적’이고 ‘반사회적’인 성향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협’의 서사가 ‘탈중심’적이고 ‘반사회’적 성질을 보유하고 있는 『사기』의 「자객열전」과 「유협열전」, 당 전기의 호협류 소설, 『水滸傳』에 한정하고,⁸⁾ ‘협’의 왕권 수호 및 국가권력 유지에 기여하는 행위 양식으로 변해 버린 『삼협오의』 이후 청대의 협의소설은 제외한다.⁹⁾

서사 텍스트는 인물 행동의 상호작용으로 사건이 전개되면서 유의미한 서사가 형성된다. 『사기』, 당 전기, 『수호전』 속의 협의 행위에 위의 이론들을 적용하여 인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행동의 연쇄를 살펴보면, 혹은 ‘(조건 걸기) - 주고 - 받고 - 답례하기’라는 조건부 증여가 서사를 끌어가고 혹은 ‘주고-받기’라는 순수 증여가 서사를 추동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기한 서사 텍스트들을 ‘답례’의 발생 유무에 주의하여 ‘주고 - 받기’의 과정을 천착해 들어가서 조건부 증여와 순수 증여가 어떻게 달리 서사되고 맥락을 이어나가는지를, 또한 그러한 서사의 논리가 협의 서사에 어떠한 의미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사기』의 협의 고사의 증여 서사

1) 「刺客列傳」의 증여 서사

「자객열전」은 춘추전국시대를 대표하는 자객 조말(曹沫)·전제(專諸)·예양(豫讓)·섭정(聶政)·형가(荊軻) 등의 행적을 다루고 있다. 사마천은 「자객열전」을 기술하면서 달리 ‘자객’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았지만, ‘자(刺)’의 자의와 의뢰자의 청탁을 받은 다섯 명의 인물들이 의뢰자의 원수를 같이나 비수를 사용해서 시해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마천은 그들의 그 행위를 ‘義’로 보았고, 의거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그 뜻을 매우 분명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서 후대에 이름이 전해졌으니 결코 허망한 삶은 아니라고 했다. 즉, 사마천은 승자의 역사가 외면했을 법한 이들의 삶을 옳다고 생각한 바를 목숨을 내놓고 실천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했다.¹⁰⁾

증여 서사의 각도에서 보면, 이들은 모두 ‘사는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죽는다(士爲知己者死)’는 신념을 금과옥조로 여기고 시은자(施恩者)를 대신해 복수함으로써 지우지은(知遇之恩)에 답례하였다. 이른바 ‘시은-보은’의 서사 구조를 가지는데 특히 전제와 섭정, 형가에 관한 서사는 다분히 ‘조건부 증여’의 성질을 가진다. 가령, 전제의 예를 들어보자.

오자서(伍子胥)가 오(吳)나라 공자 광(光)이 왕위 찬탈의 뜻이 있음을 눈치채고 전제를 추천하니 광은 전제를 빈객으로 지극히 예우한다. 시군(弑君)의 기회가 찾아오자 광은 전제에게 “내 몸이 당신의 몸이요(光之身, 子之身也)”라면서 전제의 가족을 자기 몸처럼 챙기겠다고 약속하니 이로써 ‘거

8) 사서 『史記』는 소설적 요소가 풍부하고 중국고전소설 창작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므로 연구대상에 포함한다.

9) 그래서 중국에서는 청대 협의소설의 의협들을 ‘官俠’이라 명명하고 이전 시기의 ‘游俠’, ‘豪俠’의 개념과 차별화했다. 참고 劉希欣, 「遊俠、豪俠、官俠——中國古代文學俠特徵的異變及原因」, 『萍澤師專學報』, 2002(08). 魏思妮, 「俠義公案小說中官、俠的結合及其原因——以《三俠五義》為例」, 『學術探索』, 2012(01).

10) 太史公曰：世言荊軻，其稱太子丹之命，「天雨粟，馬生角」也，太過。又言荊軻傷秦王，皆非也。始公孫季功、董生與夏無且游，具知其事，為余道之如是。自曹沫至荊軻五人，此其義或成或不成，然其立意較然，不欺其志，名垂後世，豈妄也哉！

래'가 성사된다. 전제는 자신을 희생하여 오나라 왕 요(僚)를 시해하여 '답례'하고, 마침내 왕이 된 합려(闔閭)는 전제의 아들을 상경으로 봉하면서 '답례'를 완성한다.

위의 서사에서 오자서, 전제, 광 세 사람은 저마다의 '이익'을 위해 협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자서는 아버지와 형을 죽인 초(楚)나라에게 복수하기 위해 오나라의 군대가 필요했고, 광은 자신이 오나라의 정당한 계승자라 믿으며 군주 시해에 쓰일 자객이 필요했고, 전제는 봉지도 작위도 없는 평범한 무사의 신분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 사서 지우(知遇)해 주는 귀인을 만나 집안의 안녕과 영달을 이루고 싶어 했다. 즉, 이들의 사익 추구가 동인이 되어서 각자가 희구하는 대로 상호 연대가 형성되었고, 이어서 '주기 - 받기 - 답례하기'의 증여 행위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서로가 호혜성(互惠性: reciprocity)을 획득할 수 있었으니, 여기에서 '호혜 거래' 및 '증여 경제'의 풍경을 읽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거래에서 불편한 진실도 드러난다. 귀인(貴人)과 한사(寒士)는 권력에서 상하의 비대칭 관계에 놓여있으므로 한사에 대한 귀인의 예우[증여]는 상당한 희소성을 가진다. 증여는 희소성의 무게만큼 상응하는 '부채' 의식을 남겨 놓는다. 증여를 수락한 자는 증여받은 이상을 언젠가는 되돌려줘야 하므로 정신적으로 증여자에 대한 의존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자객이 된 한사들이 희소성을 수용하면서 심리적으로 상하의 권력 관계에서 수평의 연대로 내면화되어 그 답례로 자신의 죽음을 기꺼이 내놓는다. 그뿐 아니라 증여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답례로 되돌아와야 한다. 이때 답례는 '시간이 지연된' 교환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답례가 될 선물은 "증여·물/행위'의 가치 + 感恩의 무게 + 답례 전까지 지연된 시간의 양" 등이 이자처럼 차곡차곡 쌓여서 더 큰 가치를 가진 것으로 되돌려줘야 한다. 그래서 결국 위의 자객들은 모두 자신의 죽음을 답례의 선물로 내놓는다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증여 행위는 '호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반면에 제3자에게는 '배타적'속성을 가지므로 제3자를 도외시하고 파괴하는 비극마저 초래한다. 예를 들어, 전제와 예양, 섭정의 거사는 개인의 보은 심리와 의뢰자의 사익 충족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전제는 오나라 백성으로서 결국 자국의 군주를 시해했다는 문제가 있고, 예양은 지백(智伯)을 위해 조양자(趙襄子)를 척살하려 했다지만 그전에 지백이 먼저 조양자를 공격한 결과 조양자의 반격에 당해 패배한 것이다. 엄중자(嚴仲子)는 협루(俠累)와의 경쟁에서 도태된 개인적 원한 때문에 복수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들의 거사와 거사를 위해 오고 갔던 증여 행위들은 명분이 부족하고 공익과 무관하며 오히려 상당히 '사적'이고 '배타성'이 강하다.

2) 「游俠列傳」의 증여 서사

사마천은 「游俠列傳」을 지으면서 “유가는 문으로 법을 어지럽혔고 협객은 무로써 금령을 범했다”라는 한비자의 부정적인 평에서 글을 시작했지만, 사마천 본인은 유협(遊俠)의 장점을 거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유협은 행한 바가 비록 정의(국가법령)에 부합되지 않아도”“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행하면 반드시 성과를 낸다. 기왕 한 번 약속한 일은 반드시 실행하여, 제 몸을 아끼지 않고 남의 어려움에 뛰어든다. 위기에 처한 이를 살려 내고 강포한 이를 죽이는데도 자기 재주를 자랑하지 않고 그 덕을 내세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니, 이에 그들 또한 훌륭한 점이 있을 것이다.” 또한 “포의의 신분으로 은혜를 입으면 필히 갚고, 승낙한 일은 반드시 실천하고, 천리 먼 곳

에 가서도 의리를 기치로 내걸어 목숨을 던지며 세평을 아랑곳하지 않으니 이 또한 그들의 훌륭한 점이고 구차하지 않은 점이다. 그래서 선비들이 곤궁하고 긴박하게 되면 그들에게 목숨을 의지했으니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현인과 호걸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서 유협의 장점으로 꼽았다. “일한 공로와 말의 신용을 가지고 논하고 신의의 뜻으로 논한다면 또한 어찌 협객의 의로운 행동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그저 자신의 행실을 갈고 닦으며 절개를 지키어 천하에 명성을 떨쳤으니 그들을 현자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이야말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고 칭송하였다.¹¹⁾ 그런데 협객에 대해 무관심한 세평에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본인이 들은 바가 있는 한나라의 협객 주가(朱家)·전중(田仲)·왕공(王公)·극맹(劇孟)·곽해(郭解) 등의 유협을 거론하여 “때로 당대의 법률에 저촉되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의롭고 청렴하고 겸손하다고 죽히 일컬을 만했다. 그들의 명성이 결코 헛되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선비들이 그들에게 까닭 없이 추종한 것이 아니었다. 협객들은 패를 짓고 세력을 결정하며 축재하고 가난한 사람을 부리며 폭력으로 약한 자를 억누르고 마음껏 즐기는 것을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겼다.

‘유협’에 대한 사마천의 정의와 평가로 보면, 사마천이 「자객열전」에 편입한 인물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주고-받기’의 서사구조로 분석하면 자객과 유협은 행동방식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주가는 “평생 자기 재능을 자랑하지 않고 어떠한 보답도 바라지 않았고, 오히려 전에 자신이 은혜를 베푼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까 두려워했다. 남의 어려움을 도울 때 먼저 가난하고 신분이 천한 사람부터 했다. 베풀고 또 베풀어서 집안에 남아 있는 재산이 없었고, 성한 의복도 없었고, 끼니때도 반찬을 두 가지 이상 먹는 법이 없었다. 타고 다니는 것은 소달구지가 고작이었다. 남의 위급한 상황에는 온 마음 온 힘으로 도와주고, 남의 어려운 일을 자신의 일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가 일찍이 계포(季布) 장군을 위기에서 구해준 적 있었는데 계포가 존귀한 신분이 된 뒤에 그를 찾았지만 주가는 끝내 만나지 않았다.”¹²⁾ 극맹은 “그가 죽은 후 집에는 십 금의 재산도 남아 있지 않았고”¹³⁾ 곽해 또한 “자신을 누르고 겸손하게 살았고 자기에게 불만을 품은 사람에게는 덕으로 갚고, 남에게 후하게 베풀면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 더욱 열심히 의협심을 발휘하였고, 남의 목숨을 살리고도 그 공을 자랑하는 법이 없었다.”¹⁴⁾ 심지어 곽해는 자신의 조카가 살해당했는데 전후 맥락을 알고서는 조카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인을 돌려보낼 정도로 시시비비를 철저하게 가렸다.¹⁵⁾

요컨대 이들이 의협심을 발휘하여 증여를 베푼 것은 「자객열전」 속의 인물들과 다르지 않지만, 그 시은의 대상은 배타적이거나 제한적이지 않다. 본인은 오로지 증여자(贈與者)로 자처할 뿐 수증자(受贈者)의 답례를 극구 거부하는 등 극단적 증여를 실천한다. 이렇게 증여와 답례의 고리를 끊어 내니 이는 거의 ‘순수 증여’에 가깝다. 사실상 답례를 절대 거부하거나 기대하지 않는 순수 증여는 신만이 가능한 영역일 것이고, (물론 인간이 제물을 올리긴 하지만) 인간이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큰 희생이 따른다. 그래서 「유협열전」 속의 협의 행위는 그 결과 경제적 파탄이 발생하거나 그들의 결말은 항상 비극적 색채를 드리운다.

11) 今遊俠，其行雖不軌於正義，然其言必信，其行必果，已諾必誠，不愛其軀，赴士之厄困，既已存亡死生矣，而不矜其能。羞伐其德。蓋亦有足多者焉。… 而布衣之徒，設取予然諾，千里誦義，為死不顧世。此亦有所長，非苟而已也。… 至如閭巷之俠，修行砥名，聲施於天下，莫不稱賢，是為難耳！

12) … 然終不伐其能、歆其德，諸所嘗施，唯恐見之。振人不贍，先從貧賤始。家無餘財，衣不完采，食不重味，乘不過輶牛。專趨人之急，甚己之私。既陰脫季布將軍之厄，及布尊貴，終身不見也。

13) … 及劇孟死，家無餘十金之財。

14) 及解年長，更折節為儉，以德報怨，厚施而薄望。然其自喜為俠益甚。既已振人之命，不矜其功，其陰賊著於心，卒發於睚眦如故云。

15) … 賊窘自歸，具以實告解。解曰：“公殺之固當，吾兒不直。”遂去其賊，罪其姊子，乃收而葬之。

3. 당 전기 ‘호협’고사의 증여 서사

당 전기에 와서는 협의 서사가 본격적으로 소설화된다. 「홍선(紅線)」·「곤륜노(昆侖奴)」·「섭은낭(聶隱娘)」·「형십삼낭(荊十三娘)」 등 전기소설의 ‘호협’ 서사는 홍불(紅拂)·홍선·섭은낭이라는 협녀(俠女)가 출현하고, ‘협’을 행하는 자가 자신의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낮은 신분이라는 특이점이 있다. 이들은 대체로 자신의 고용주에게 의탁 생활을 하다가 고용주의 절실한 소원을 이루게 한 후 떠난다. 따라서 이들의 고용주가 궁극적인 수혜자가 된다.

특히 이들은 저마다 神異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손쉽게 처리하여 자기 주인이 원하는 바를 성취해 준다. 이들 역시 ‘주기’만 하고 종적을 감춤으로써 증여와 답례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는데 그러한 점에서 위의 游俠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순수 증여’에 가깝다. 상기한 유희와 다른 점은 이들은 호협(豪俠)일 뿐 아니라 異人[재주가神通하고 비범한 사람]으로서의 신비한 능력을 갖춘지라 목숨을 잃는 일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는 中唐 이후 각축전에 들어간 여러 번진(藩鎮)들이 자각을 양성했던 풍조, 신선술과 도교사상의 유행 등을 그 배경으로 밝히고 있다. 아무튼 당 전기의 ‘호협’류 소설은 소원하는 바를 들어준다는 알라딘의 램프처럼, 신이한 능력을 가진 호협의 ‘순수 증여’ 행위로 인해서 ‘탈경제’적이면서도 환상적인 서사 내용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 상황과 탈현실적 성향이 강한 도교 사상이 어떻게 작용해서 ‘순수 증여’를 실천하는 협의 서사를 창출해 내었는지 궁구할 것이다.

4. 『水滸傳』의 증여 서사

『사기』와 당 전기 속의 증여 환경과 달리, 『수호전』은 위로는 황제와 고관대작부터 시작해서 아래로는 양산박(梁山泊) 집단과 유배지와 감옥의 죄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예물과 ‘人情[예물을 의미함]’을 주고받는 증여 행위들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이 순수증여이든 조건부증여이든 주고받는 ‘증여’물들은 다수의 인물에게 경제 원천이 되거나 사회생활을 영위케 하는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작동하고 있고, 증여 서사는 이전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 번째 주목할 것은 『수호전』 속의 好漢들은 협의를 중시하여 상호 간 증여와 답례를 지속한 결과로 양산박(梁山泊)에 모여 규합했다는 것이다. 이전의 협의 서사는 순수증여이든 조건부증여이든 개인의 난관을 구제해 주는 사적 차원의 증여에 머물러 있었다. 반면, 수호 호한들의 협의는 처음에 개인 차원의 증여 행위에서 출발했지만, 상호 연대와 우위 관계를 결성하고 증여와 답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결국은 양산박에 규합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公共의 목적을 함께하는 협의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작품 속에서 ‘하늘을 대신하여 정의를 실현한다(替天行道)’는 구호로 표방되고 있는데, 이는 타락한 정치에 대항하고 天理와 民意를 실현한다는 공공을 위한 협의 행위 즉 공적 차원의 증여를 실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수호전』에는 강탈과 납치, 죽고 죽이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생신강(生辰綱) 같은 거대한 재물에 대한 갈망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人情[예물]’에 대한 욕심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증여’를 미끼 삼은 범죄 때문에 살인이 발생하기도 한다. 가령, 장문신(蔣文身)을 위해 무송(武松)에게

대리 복수하는 장도감(張都監)은 본인이 무송에게 준 ‘증여물’을 도둑질의 증거로 제시하면서 무송을 곤경에 처하게 만든다. 그 외에 임충(林冲), 이응(李應), 시진(柴进)의 경우에서 보듯이 타인에게 씌운 과도한 증여의 부채로 인해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범죄가 난무하는 집단의 인물들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삼고, 또 그 시대에 수호 고사가 매우 유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절 내내 그 사회가 부패했고 ‘官逼民反’의 결과로 공권력을 거스르는 다양한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요컨대 수호 고사의 감상자들은 양산박 집단의 범죄 행위에 매우 공감하면서 전복적 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공권력[官府]에 대적하지 못하는 현실의 불만을 소설의 상상적 공간에 뛰어들어서 양산박 집단의 폭력과 범죄를 통해 대리만족하고 그로써 공권력에 반항하는 욕망을 투사했다는 것이다.

그다음, 양산박 집단은 끊임없이 의리를 외치면서 증여[선물]를 과시한다. 선물하는 사회에서는 자신이 타인에게 베푸는 재화의 양으로 부를 과시한다. 준다는 것은 자신이 보다 우월하다는 것, 자신이 더 높은 주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주는 사람의 위상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도움을 받았으면 반드시 답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증여와 재증여[답례]가 지속되거나 순환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증여에 대한 답례는 굴러가는 ‘이자’처럼 증식한다. 한 차례의 증여와 재증여[답례]로 ‘교환’처럼 깔끔히 매듭이 지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한 ‘교환’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신처럼 답례를 바라지 않을 것 같은 ‘순수 증여’일 경우는 더욱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오가는 ‘증여’는 증여할 때도 또 재증여[답례]할 때에도 오고 가는 과정에 매번 그에 대한 기대치가 쌓이기 마련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증여가 굴러가면 결국 곤혹스럽게도 파국과 비극의 결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양산박 집단이 결성 이후로 증여 관계에 질적 전환이 발생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宋의 황제가 새로운 수증(授贈)의 주체가 된 것이다. 황제로부터 조정에 귀순하라는 ‘招撫’의 증여를 받은 후, 양산박 집단은 요(遼)나라와 방랍(方臘) 등을 토벌해야 할 속죄의 길을 가야 했고,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재증여[답례]를 완수했다. 살아남은 27명의 호걸은 황제로부터 다시 그에 대한 재증여[답례]로 관작과 상금을 수여 받았으나 그 이후에 모두 흩어지게 되고, 중국에 송강(宋江)·이규(李逵)·노준의(盧俊義)는 죽고 오용(吳用)·화영(花榮) 등은 자결하는 등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忠情’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답례를 실행한 것이었다.

죽음을 앞둔 각 인물의 대화 속에서 그들의 뜻의 증명할 수 있다. 송강 왈, “나는 한평생 충의 두 글자만을 주장했을 뿐 양심에 거리낄 일은 조금도 없는데 조정에서는 죄 없는 나에게 죽음을 주었다. 조정은 나를 버려도 나는 결코 조정을 배반하지 못하겠네. 그런데 내가 죽은 뒤 동생이 행여 반역해서 하늘을 대신하여 도를 행한 우리 양산박의 충의지명을 어지럽힐까봐 동생을 청한 거네.” 이규 왈, “살아서 형님을 섬겼으니 죽어서도 형님의 귀신이 되겠수!” 오용과 화영의 꿈에 나타나니 이들은 사실을 알고서 송강을 따라서 함께 죽기로 한다. 오용이 화영을 말리니 화영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양산박에 있을 때 벌써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으나 다행히도 죽음을 면했습니다. 천차께서 죄를 사하고 초무한 덕에 남정북벌하고 공훈을 세워 지금은 명성을 날린지라 천하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조정에서 의심하는 이상 필시 사소한 죄마저 따지고 들 것입니다. ... 지금 형님을 따라 황천으로 간다면 그래도 세상에 깨끗한 이름을 남길 것이고 주검도 무덤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수호전』 속의 수많은 증여 행위들을 모아서 분류하고 분석하면 상기한 추론 외에 더욱 풍성한 의미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문학분과】 발표 ⑥

论高丽、朝鲜文人对“以诗为词”技法的受容

康慧振*

【目 录】

1. 绪论
2. “以诗为词”的东传
3. “以诗为词”与齐言体词牌
4. “以诗为词”与题序
5. 韩国文集中的词收录情况与韩国文人对词的认识
6. 结论

1. 绪论

中韩两国地理位置相邻，一衣带水，同属于汉字文化圈，两国间历史与文明的交往，十分悠久而频繁，这样特殊的历史文化关系，使得韩国文化与文明在自身发展的进程中，受到了来自中国的孳乳与浸润。其中“词”就是文化层面的一个代表。应该说“中国词”的强大魅力对“韩国词”的蓬勃发展提供了丰富而充足的营养，使其也得到了长足的发展。“韩国词”指古代高丽（918-1392）和朝鲜（1392-1897）时期文人们所创作的词。“词”第一次传入韩国时，因为其具有“艳情”的特征，被当时高丽、朝鲜的士大夫所排斥，因而没能形成一定的气候。直到后来宋代文豪苏轼通过“以诗为词”这一创作手法创作的大量优秀作品流入到高丽、朝鲜，致使高丽、朝鲜文人士大夫们开始对“词”这一体裁的作品有了新的认识，他们从“排斥”进而转为“受容”。可以看出，这一过程中，古代韩国词越过了“词为艳科”这一发展阶段，而是直接进入“以诗为词”这样一种创作阶段。由此开始，对当时高丽文坛、继而对朝鲜时代，乃至整个韩国词坛产生了广泛而深远的影响。

其实“以诗为词”最初是被赋予了贬义的内涵。宋代陈师道曾批评子瞻以诗为词“要非本色”，¹⁾但是结果苏轼“以诗为词”对词坛产生了积极影响，在中国词学史上颇具成就。他将诗的题材、风格、表现手法引入到词的创作中，扩展词的领域，因而使词这一文学体裁得到不断发展。叶嘉莹也曾说过：“一直到了苏氏的出现，才开始用这种合乐而歌的形式来正式抒写自己的怀抱志意，使词之诗化，达到了一种高峰的成就。”²⁾

历史上，中韩两国音律不同，两国人民在韵律文学的创造上具有明显差异，所以高丽、朝鲜在词的创

* 北京师范大学中文系博士研究生 (kh_j8646@naver.com)。

1) 陈师道《后山诗话》，见何文焕辑《历代诗话》本，中华书局，1981，p. 309。

2) 叶嘉莹《唐宋词名家论考》，河北教育出版社，1997，p. 119。

作上遇到了很大困难。除了当时在中国留学的学生以外，其他韩国词人不懂中国的音律。对遇到困难的高丽、朝鲜词人来说，“以诗为词”的出现是值得欢迎的事情。随着词的传播范围和影响的扩大，很多文人以赋诗的方法来填词便成了他们创作的一个捷径。当时，在他们的潜意识里词也是一种特殊的诗，自然而然地就将诗的题材、风格、创作手法引入到词。其中，形式上的特征在当时高丽、朝鲜文坛有着极大影响，成了整个古代韩国词的特点之一。本文将以历史上韩国词人对“以诗为词”的接受，尤其是在形式方面的接受及其特征为研究对象进行学术探讨。

2. “以诗为词”的东传

众所周知，历代韩国文人与韩国古典文学都深受到中国文人以及中国古典文学的影响。这对韩国文人创作及韩国国语文学之产生起了催化的作用。宋词进入高丽以后，韩国的词人开始填词时多参考中国词人的著作。高丽、朝鲜文人一直以来愿意接受来自中国的新文学体裁，但是高丽时代，词作不是甚受欢迎，只有一些高丽君王和文人如宣宗、睿宗、林春、李奎报、李齐贤填过词。高丽、朝鲜文人学习填词的成绩一直逊于诗和散文，不能取代近体诗而兴盛。直到苏轼“以诗为词”创作方法传到高丽之后，词的传播才逐渐有了新的局面。

就高丽、朝鲜文人接受“以诗为词”的原因主要有三点：

第一、宋、丽外交关系的发展

宋、丽两国曾在一段时期内实行互相排斥的政治政策。因辽国的压迫，北宋政府不肯与高丽往来，高丽也实行“和辽疏松政策”，³⁾导致两国之间的外交关系一度断绝。后来因高丽文宗“慕华思想”⁴⁾和宋神宗主张“联丽反辽策”⁵⁾才修复邦交。不久，北宋南迁之际又再次断交，南宋时再开始与高丽往来，但时间也不长。就这样，两国关系长期处于建交与断交的往往复复中，这对宋、丽两国的关系产生了强大的负面影响。复杂的东亚形势还引发了另一个问题。古代中韩两国通常由陆路行走，但因为东亚出现宋辽对峙的复杂局面，高丽和宋朝使臣仅能通过陆路往来。因为辽金在北方，陆路走不通，只能以海路交流。古代造船技术薄弱，通过海陆交往伴随着很多危险，因此也被称为“死路”。于是两国的交流举步维艰。⁶⁾

不仅如此，宋朝在文学方面坚持闭关锁国政策，宋朝严禁与外国人士私人交流。⁷⁾陆游《家世旧闻》载：“(张)中为明州象山县长官，坐私与高丽人朴寅亮和倡诗，停官，终身沉滞。虽一时不幸坐法，亦器宇非远大也。”⁸⁾由此可见，其严禁私人交流多深。于是在文学交流方面看，唱和诗文等与高丽人的非官方性质的直接交流过程当中产生的作品极为罕见，两国文士的唱和作品通常可见咏物诗或受到官方认可的送别诗、宴会诗等。虽然宋代文人与高丽文人诗文互赠作品共有六十篇，⁹⁾但这是官方允许的场合合作的。因此高丽文人只能通过书籍接触词作，但亦存在局限。据《高丽史·乐志》记载，在十一世纪教坊乐传入高丽，之后从北宋传入三十首曲词与小令慢曲四十四首，其中有柳永词作八首，还包括苏轼、欧阳修、晏

3) 申采湜, 《宋代对外关系史研究》, 韩国学术信息, 2008, p. 140.

4) 同上.

5) 同上.

6) 同上。(宋丽通交, 根据时期可分三个时期: 第一期, 从962年(宋太祖建隆三年, 高丽光宗十三年)到999年(宋真宗咸平二年, 高丽穆宗二年)因辽侵略高丽而断交之前, 约37年间; 第二期, 1071年(宋神宗熙宁四年, 高丽文宗二十五年)到1126年(宋徽宗靖康二年, 高丽仁宗四年)的55年间; 第三期, 1127(南宋高宗建炎元年, 高丽仁宗五年)到1164(南宋孝宗隆兴二年, 高丽毅宗十八年)的37年间。)

7) 张东翼, 《宋代丽史资料集录》, 首尔大学出版社, 2000, p. 182.

8) 陆游, 《家世旧闻》卷下, 见朱易安、傅璇琮主编, 《全宋笔记》第五编八, 大象出版社, 2012, p. 243.

9) 张东翼, 《宋代丽史资料集录》, 首尔大学出版社, 2000, p. 182.

殊、李甲、阮逸女、赵企、晁端礼等文人的词作各一首。¹⁰⁾但这些书籍只收录一些作品，无法了解语言和音律。此外，相关词的记载非常罕见，可知词方面的交流不多。

由于两国有时禁止互相与外国使臣进行私人交流，高丽文人对词这一文学体裁还是缺乏认识，他们不愿意作词，于是在当时未能流行。韩国词人作词较多的时期就是高丽中后期，即相当于宋金对峙时期。到了元代，丽、元往来频繁，他们增进了文学方面的交流，从而高丽词也受到了元词的影响。但实际上，元人是北方的游牧民族，他们进行词的创作还是依宋人的词律填词。当时的高丽词人并不知晓这一词的变迁过程，只是直接接受一些词谱，求其句读、平仄的“以诗为词”的创作手法。换言之，有些高丽文士是通过与元文人的交流，习得作词方法而作词。之后其他的高丽文人模仿他们的作品，作词的文人群体才逐渐增多。虽然高丽人士所采用的词牌有限，但总体还是能作词的。

后来到了朝鲜时期，朝廷严禁私自与外国文人交游唱和，只有朝廷允许的场合才可以交流。据《朝鲜王朝实录》记载，郑士龙出使明朝时，因与明朝龚用卿、吴希孟等人士互相诗文交流，而获罪的事情。¹¹⁾《朝鲜王朝实录·中宗实录》载：“领议政尹般辅议：‘赴京使臣，前后相望，二品之少，此时尤甚。郑士龙虽龚、吴应接未久，而音信相通，谢思使差遣，似为无妨。’左议政洪彦弼、右议政金克成议：‘郑士龙与天使龚、吴，文字相知，寄诗通简，今犹未绝。若为使入京，则龚、吴必数往来，作诗与之，士龙虽欲不和，不得已应之。然则于朝廷所见，似为境外之交，恐有议之者。’传于政院曰：‘郑士龙赴京，则龚、吴必数来唱和也。此意予初未及料之耳。左右相之意至当。’”¹²⁾另，朝鲜文人李晬光《芝峰类说》亦云：“至于皇明，赴京使臣门禁甚密，不得与中朝文人相接。……接《说郭》曰‘知明州张中坐私与丽人朴寅亮唱和诗，废锢终身’云，是知禁制之严自宋如此。”¹³⁾以上这些史料都是时人不可以自由进行词创作的佐证。

第二，社会氛围问题。朝鲜前期与明朝处于同一时代，这是也是明文人词创作的低潮时期。与此同样的情况在弥漫在整个朝鲜文坛。当时在韩国，儒家思想和性理学蔓延，受“文以载道”文学观的支配，词的发展受到了抑制。当明人的词作流入朝鲜时，通常仅有士大夫阶层才能创造文学作品。但是因为词具有以描写艳情的特征，他们以为“词”很低俗，而创作这种低俗的东西有伤大雅，所以朝鲜士大夫们不愿意创作传统词。例如，李滉曾说过：“高丽睿宗九年，宋微赐新乐及大晟乐；十一年荐于太庙。说者谓：瑞鹧鸪水龙吟之类，即其词曲也。…乐志所载许多，如醉蓬莱雨淋铃等篇，即柳耆卿所作。醉蓬莱则宋仁宗时虽进献而罢不用者也。其说见《弇州》集。意者此类皆俗乐：…岂宜之奏广庭以蛊惑君心之荒乱哉。”¹⁴⁾从中可见，他认为词皆是“俗乐”，不适合在宫廷场所使用。又南有容说“词曲终近艳语，壮夫不为可也。欧苏诸公平生喜为之，为之诗余，又何也。东人不解调律，又其辞多见春词稗语，被之妓乐媚歌，则其浅且陋已甚矣。废而不为可也。夫人以文章自好，固求其美，则其流渐入与轻佻浮薄。文章之中，惟诗益荡人，诗之中词又甚，此秦少游之见罪于伊川者也。然则虽辨其调律，弃而不为可也。”¹⁵⁾在他看来，词中所写的全是艳语，因此不适合士大夫创作。洪醇浩《满庭芳》序：“凡词之作，自温李而下，其语淫艳鄙褻，殆非丈夫所为。然亦律家之一助云。”洪醇浩批评词中的语言“淫艳鄙褻”。¹⁶⁾通过以上的资料可知，韩国文人对艳情词所表现的否定的态度是很坚决的。

10) 杨焄，《域外汉籍传播与中韩词学交流》，上海古籍出版社，2017，p. 11。

11) 吴伊琮，《明朝与朝鲜王朝诗文酬唱外交活动考论——以朝鲜王朝实录为中心》，复旦大学博士论文，2013，p. 85。

12) 《朝鲜王朝实录·中宗实录》（影印本）卷八九，三十四年三月己卯条，韩国国史编纂委员会，2013。

13) 李晬光，《芝峰类说》卷四，使臣条，乙酉文化社，2001，www.krpia.co.kr。

14) 李滉，《星湖僊说》卷十三《人事门·大晟乐》（影印本），韩国古典翻译院，1977，p. 40。

15) 南有容，《雷渊集》卷纸十五《答吴伯玉》（影印本），韩国古典翻译院，2001，p. 327。

16) 柳己洙主编，《历代韩国词总集》，韩信大学出版社，2007，p. 267。

后来“以诗为词”的创作手法在高丽末期传入韩国，虽然韩国士大夫文人对艳情词坚持否定态度，但是对于这种没“以诗为词”的手法创作的，没有艳情色彩的士大夫之词并不反感反感。高丽时代李齐贤创作的大部分词作都是风格豪放，语言不俗。自从李齐贤开始，作词的人士逐渐增多。从高丽末期到朝鲜前期艳情词极少，当时创作的大部分词作并无带有艳情色彩。韩国词越过“词为艳科”的阶段，直接接受“以诗为词”。因而韩国词围绕着“以诗为词”这一创作手法。

第三，音律因素问题。高丽、朝鲜文人难以了解当时中国的音律，只能参考前人的作品或者词谱来填词。朝鲜前期文人徐居正曾说：“乐府，句句字字皆协音律，古之能诗者，尚难之。陈后山，杨诚斋皆以谓：苏子瞻乐词虽工，要非本色语，况不及东坡者乎？吾东方语晋与中国不同，李相国，李大谏，猊山，牧隐皆以雄文大手未尝措手，唯益斋备述众体，法度森严，先生北学中原，师友渊源必有所得者。近世学者，不学音律先作乐府，欲为东坡所不能。其写诚斋，后山之罪人，明矣。”¹⁷⁾这就是说，因为中国的音律与朝鲜不同，善于赋诗作文的人也难以填词，只有在中国读书的李齐贤等人才能填词。李宗准也说：“吾东方既与中国语音殊异，于其所谓乐府者，不知引声唱曲，只分字之平侧，句之长短，以协之以韵，皆所谓以诗为词者。捧心以颦，其里祇见其丑陋矣，是以文章巨公，皆不敢强作，非才之不逮也。亦如使中国人若作《郑瓜亭》，《小唐鸡》之解，则必且使人抚掌绝缨矣”（《遗山乐府跋》）这说明韩国词人以诗文句法入词的理由。朝鲜文人因为与中国“语音殊异”、“不知引声唱曲”，¹⁸⁾所以只能“分字之平侧，句之长短，以协之以韵。”¹⁹⁾这就是所谓的“以诗为词”。

韩国接受词比较晚，高丽人与元朝人士交流，按他们的“分字之平侧，句之长短，以协之以韵。”²⁰⁾的方式来作词。与元人交流中的杰出代表就是李齐贤。李齐贤曾在中国生活，在此期间，经常与元文人谈论文学，接触了许多中国文学。诸多中国文学家当中他非常推崇苏轼，效仿苏词。他还受到元好问、赵孟頫等元人士的影响。夏承焘先生说过：“李齐贤，字益斋。其一生行历当我国元代之始终。两宋之际，苏学北行，金人词多学苏，元好问在金末上承苏轼其成就尤为突出，益斋翘企苏轼，其词虽动荡开阖，尚有不足，然《念奴娇》之《过华阴》，《水调歌头》之《过大散关》、《望华山》，小命如《鹧鸪天》之《饮麦酒》，《蝶恋花》之《汉武帝茂陵》，《巫山一段云》之《北山烟雨》《长湍石壁》等，皆有澧山风格。在朝鲜词人中，应推巨擘矣。”²¹⁾元好问继承苏轼，翘企苏轼的李齐贤受到他的影响。之后李词广泛地影响韩国词坛，这也算是苏轼的间接影响。

李齐贤在接受了苏轼等人的影响之后，创作了很多词。而这些词也称为高丽词作中的“始祖”，不仅为时人、而且为整个高丽的词人，甚至朝鲜时代的词人提供了很好的创作范本。奠定了整个韩国词创作的良好基础。

3. “以诗为词”与齐言体词牌

初期词源于歌唱，因此音乐也是一个构成词作的要素。后来音乐这一部分内容在词作中逐渐消失，“以诗为词”的创作手法又促使文人们只需要按照一些规则来填词。这就对因音律因素而遇到创作困难的高丽、朝鲜文人来说是好事。那么，在古代韩国大地上词作就主演风靡起来，笔者对这些作品作了如下统

17) 李钟殷、郑珉编，《韩国历代诗话类编》徐居正《东人诗话》卷上，亚细亚文化社，1992，pp. 364-383。

18) 李宗准，《慵斋遗稿》《杂著》《遗山乐府诗跋》（影印本），韩国古典翻译院，1988，p. 641。

19) 同上。

20) 同上。

21) 夏承焘选校，《域外词选·前言》，书目文献出版社，1981，p. 1。

计:

宋词常用的63个词牌当中, 接近齐言体的词牌如下:

序号	常用词牌顺序	词牌名	作品数	词牌结构
1	1	浣溪沙	658	双调四十二字
2	3	鹧鸪天	479	双调五十五字
3	6	菩萨蛮	446	双调四十四字
4	7	西江月	324	双调五十字
5	11	蝶恋花	307	双调六十字
6	13	虞美人	239	双调五十六字
7	15	减字木兰花	323	双调四十四字
8	18	卜算子	185	双调四十四字
9	26	渔家傲	186	双调六十二字
10	31	生查子	149	双调四十字
11	40	阮郎归	95	双调四十七字
12	41	玉楼春	162	双调五十六字
13	56	木兰花	69	双调五十五字
14	61	望江南	74	双调五十四字

所有高丽、朝鲜词中的以齐言为主的词牌统计。详细情况如下:

序号	词牌	词牌结构	数量
1	巫山一段云	双调四十四字 (5575 , 5575)	253 (20.24%)
2	临江仙	双调六十字 (76755 , 76755)	47
3	浣溪沙	双调四十二字 (777 , 777)	39
4	望江南	单调二十七字 (35775) 双调五十四字(35775 , 35775)	38
5	菩萨蛮	双调四十四字(7755 , 5555)	33
6	长相思	双调三十八字(3375 , 3375)	32
7	西江月	双调五十字(6676 , 6676)	29
8	鹧鸪天	双调五十五字(7777 , 33777)	27
9	虞美人	双调五十六字(75745 , 75745)	21
10	法驾导引	单调三十一字(75775)	20
11	蝶恋花	双调六十字(74577 , 74577)	20
12	减字木兰花	双调四十四字(7474 , 7474)	13
13	玉楼春	双调五十六字(7777 , 7777)	12
14	渔家傲	双调六十二字(77737 , 77737)	10
15	南乡子	双调五十六字(57727 , 57727)	10
16	忆王孙	单调三十一字(77737)	10
17	武陵春	双调四十八字(7575 , 7575)	9
18	阮郎归	双调四十七字(7575 , 33575)	8
19	捣练子	单调二十七字(33777)	4
20	瑞鹧鸪	双调五十六字(7777 , 7777)	4

杜肇昆先生以《宋词全集》所收录的14932首词作为对象，统计宋词常用词牌。按照他的统计，宋词总共有1170个词牌，其中宋词常用词牌有63个。宋代词人最常用的词牌为《浣溪沙》（双调四十二字），依照数量的顺序，接下来是水调歌头（双调九十五字）、鹧鸪天（双调五十五字）、临江仙（双调五十八字）、念奴娇（双调一百字）、菩萨蛮（双调四十四字）、西江月（双调五十字）、满江红（双调九十三字）、点绛唇（双调四十一字）、清平乐（双调四十六字）。²²⁾词在宋代进入了黄金时期，出现了多样的词牌与词体。宋词中的词牌大约有1170个，而且一个词牌有多体。唐五代词有很多齐言，常用篇幅短的单调词牌，但是到了宋代词很少用齐言体，长短句占优。宋代词为音乐文学，词与诗显然不同，词中的每一个句子应该参差不齐。于是宋人将齐言体词改造为参差和谐的词牌、词体，因而一调多体情况普遍出现。²³⁾还有，词的句式变化也越来越复杂，宋代普遍出现一调多体的现象，一个词调至少有2-3个词体，最多至十几个词体。

而韩国词，因通过间接的渠道接受消失音律成分之后的“以诗为词”作法，长期不得摆脱诗的形式。韩国文人对句式参差不齐的词牌生疏，还是采用与齐言诗相似的、变化不多的词牌。以《历代韩国词总集》中的韩国词为对象统计韩国词所采用的词牌及韩国词常用的词牌，韩国词总共有156个词牌，与宋词中的1170个词牌²⁴⁾比起，数量很少。比如，《巫山一段云》、《浣溪沙》、《玉楼春》、《菩萨蛮》、《法驾导引》、《武陵春》、《渔父》等词牌。此外，还有些词牌不是全都由五、七言组成的，有三个字的句子连续出现，包括中间的逗号，看上去是七个字。例如，《鹧鸪天》双调五十五字体，句式为7777，33777，后阙前两句均为三个字，²⁵⁾包括符号看似七个字的句子。除了《鹧鸪天》以外，《天仙子》、《长相思》、《捣练子》、《阮郎归》、《醉桃源》、《蝴蝶儿》等词牌是其例子。还有《渔家傲》、《临江仙》、《虞美人》、《望江南》、《忆王孙》等词牌，这些词牌虽然中间有由三个、四个、六个字组成的句子，但只有一两句，其他的句子都是由五个或七个字组成的句子。例如，《渔家傲》双调六十二字，句式为77737，77737，前后阙第四句是三个字的句子，除此之外，皆是七个字的句子。其中《巫山一段云》、《法驾导引》等词牌只有在韩国词里面常见，宋人不常用。

除了词牌采用方面以外，值得注意的是词体的选择。同一个词牌也有正体、变体等有所区分，一个词牌并不只有一个格式，一般会有几种格式。于是同样属于一个词牌，但字数、平仄等格律会有不同。韩国文人采用同一个词牌与词体。从宋人常用的词牌与高丽、朝鲜人常用的词牌可见，他们皆常用《浣溪沙》、《临江仙》、《菩萨蛮》等词牌，但他们采用的词体不同，高丽、朝鲜词人还是采用变化不多的词牌词体。例如，宋、明词人常用《临江仙》词牌，但是它们常用的词题为五十八字。与此不同，丽、鲜词人采用每句字数变化较为少的双调六十字体。《浣溪沙》除了双调四十二字体，还有双调四十四字、四十六字体。而韩国词人皆用四十二字体。可见，高丽到朝鲜中期的词人所采用的词牌及其格式确实有限。

虽然高丽文人推崇来自宋朝的文学，希望得到宋文人的指导。但辽国阻碍宋、丽两国之间的交流，而且宋朝严禁与外国文人私人交流，在文学方面高丽文人无法与宋人出于隔绝状态。至少少见文献中有关两者就词作或书籍交流的记录，这就影响到了高丽人对词的认识。直到高丽后期，相当于中国南宋与辽金对峙时期，文人们开始填词。此时高丽和元朝频繁来往，元代词人也因为“以诗为词”的影响，依前人的词律填词，²⁶⁾高丽文人也受到了他们的影响。

22) 杜肇昆，《大数据观察下的宋词与元曲》，山西人民出版社，2018，pp. 5-12。

23) 金志仁，〈论唐宋词体式的发展〉，《东北师大学报》第6期，1988，pp. 69-76。

24) 杜肇昆，《大数据观察下的宋词与元曲》，山西人民出版社，2018，pp. 5-12。

25) 车柱环，〈韩国词文学研究（一）〉，《亚洲研究》，第3期，1964，p. 112。

26) 陶然，《金元词通论》，上海古籍出版社，2010，pp. 190-196；杨焄著，《域外汉籍传播与中韩词学交流》，上海古籍出版社，2017，p. 292。

李齐贤等高丽初期的词人受到宋金元词的影响，用“以诗为词”手法写了不少词作品。此时，词的题材范围已逐步扩大，音律成分脱落，当时文人士大夫对词也就没有太大的反感情绪。于是，高丽末期到朝鲜前期的人士经常参照他人的词作来填词，韩国词中次韵作特别多。值得注意的是，在此时期他们参考的并不是来自宋元的作品，而大部分是高丽本土人士的创作。但是，由于地域封闭，无法和外界的文人词作沟通交流的话，本土文人只能用几种同样的词牌及格式进行创作，范围狭窄，显得很单调。因此，当时文人经常用《巫山一段云》、《临江仙》、《鹧鸪天》等等接近齐言诗体的几个词牌。据笔者统计，高丽到朝鲜前中期500多年间文人只采用了51个词牌来作词。

当然，也有人用多样的词牌填词，例如李齐贤、申光汉、赵冕镐等人。这些词人对词比较熟悉，留下的词作数量比较多，成就突出。他们均有与元、明、清代人士或使臣交流的经历，于是对词很熟悉。例如，在元代，李齐贤得到忠宣王的招待，有在燕京万卷堂生活的经历，当时李齐贤与赵孟頫、姚燧、元明善等元代人士频繁交流。苏世让擅长诗文被选为远接使，屡次作为远接使与明使臣交流，申光汉同苏世让招待明使臣，以词唱和。赵冕镐的父亲赵基谦曾作为燕行使的书壮观去清朝，此时赵冕镐也作为子弟军官随从父亲一起出访燕京。他们与元人交流的机会比较多，能够习得中国的语言及音律。

到了朝鲜中后期，朝鲜文人采用的词牌多样化，朝鲜中后期文人采用的词牌数量为149种。此时，明朝与朝鲜关系良好，往来更加频繁，明人的文集大量流入，可考的资料增多。由许筠《鹤山樵谈》等书籍中的记载可见，16世纪后期朝鲜已有《诗馀图谱》，当时人依照词谱填词。朝鲜文人通过《诗馀图谱》等词谱及相关的书籍，知晓词牌的多样，不需执着前人之词作，采用更多种词牌来填词。但整体来看，高丽、朝鲜时代的1200余首词中，采用以五七言一句为主或者字数变化不多的29个词牌的作品数量还是占总数量的一半。

4. “以诗为词”与题序

宋词中的“题序”始于张先，实际上是直到苏轼才成了气候。张先创作词179首，其中一半有词题，但有序的仅两篇；苏轼词作360篇，有题者220余首，有序者则近40首。“以诗为词”手法是苏词的主要特点。苏轼以作诗的态度来填词。其在词的创作过程中，把诗的题序移植到词中。继苏轼之后，辛弃疾、姜夔等词人也受其影响，词的创作中也存在大量题序现象。如，辛弃疾的629首词，其中467首有题，而70余首有序，为有宋一代词人作品中，题序数量之最；姜夔词作84篇，其中有题者37，有序者44首。无题无序者只有3首。²⁷⁾

而韩国词，早在高丽时代已经出现了题序现象。在韩国词学史上，现存最早的词作是高丽宣宗王运（1049-1094）的一首词《添声杨柳花·贺圣朝词》，此作就有词题。²⁸⁾此后，大部分高丽、朝鲜词人的作品中都存有词题或词序。例如，李奎报（1164-1241）留下的词作中三首有小序，无序者皆有词题。之后像金宗直、金驪孙，李延贵、李殷相父子等文人的词作中均有词序现象。而这些有题序的词人之间也呈现了较明显的血缘关系或师承关系。

韩国词中的题序情况如下：

27) 赵晓岚，〈论宋词小序〉，《文学遗产》，第6期，2002，p. 38。

28) 柳己洙主编，《历代韩国词总集》，韩信大学出版社，2007，p. 17。

朝代	分类	数量	备注
高丽	有题有序	1	
	有题无序	95	仅有词题
	无题有序	6	仅有小序
	无题无序	11	
	总数量	113	
朝鲜	有题有序	25	
	有题无序	936	仅有词题
	无题有序	51	仅有小序
	无题无序	112	
	总数量	1124	

《历代韩国词总集》收录高丽、朝鲜时代170人的1237首词，其中有题者1057首，（占百分之八十五），有序者83首占（百分之七），无题无序者仅有123首，（占百分之十）。有题或有序者超过以百分之九十。因此可以看出，韩国词作中有词题及序者所占比重是比较大的。

从苏轼开始，诗的题序才算是真正融入到词中。丽、鲜词便是受其影响，通常在词牌下面注出词题或者词序，有时在词作后面写后序。通过词的题序，作者不仅注明作词的地点、时间等背景，所赠送对象和作词缘由，还表现出作词时的情感。像这样，丽、鲜的词序同样体现了作者及作品的许多重要信息，如注明创作的日期地点；表明次韵、寄赠对象；详述词作缘由；抒发自身的感情；反映文人对词的认知等信息。因而，词的“题序”在人们研究和学词作中具有重要的文献价值。

高丽、朝鲜时期，170人的1237首词当中有题者1057首，有序者83首，无题无序者仅有123首。可以看出，韩国词中有词题、小序者占很大的比重。宋词创作的初期，并没有题序，只有词牌，苏轼之后逐渐开始书写题序。高丽文人们接受“以诗为词”的创作理念之后，甚至有些文人把词与诗归为了同一类，于是高丽文人非常重视题序，诗人，乃至后来朝鲜文人词创作中不可或缺的元素。考察丽、鲜文人的文集，会发现他们通常用大字写词题，词作后面用小字标示词牌名。又有些唱和作品在词题或词序中表示词牌名，没有把他分别注明。还有些文集无标记词牌名。一般词题字数5字以内，唱和词词题通常在6字到15字之间，词序没有字数限制，短则15多字，长则500字。

朝鲜文人词的词序篇幅比较长。这是由于题序的诗化而引发的特点。早在宋代，苏轼词题序就有了诗化现象，苏轼的有些词词序引出词的写作缘由，写的很详细，对后来较长词序的影响很大。²⁹⁾姜夔词序篇幅也比较长，他的词当中，有序者44首，其中24首是50字以上的长序，一百字以上者10首。³⁰⁾而韩国的文献中，词作有序者仅58首，其中50字以上的长序占一半，甚至有的字数接近500字。50字以下的词序中，大都是20字以上，10字以下的极少。例如，金宗直《巫山一段云》词序258字，金驹孙《满江红》词序字数接近500字，这是宋词中也没有过的现象。姜希孟《巫山一段云》词序171字，申光汉《夏初临》后序121字，宋寅词并序181字，李廷龟词并序251字，李殷相词序中最长者123字，李衡祥词后序154字，李瀼《水调歌头》词序230字，南有容《临江仙》词序105字，李裕元《感恩多》后序112字，姜玮《水调歌头》词序104字等等，此外，还有许多50字以上的长序。

29) 赵晓岚,〈论宋词小序〉,《文学遗产》,第6期,2001,p.38。

30) 吴平一,〈姜夔词题序研究〉,《吉首大学学报》,第34卷,2013,p.114。

5. 韩国文集中的词收录情况与韩国文人对词的认识

词是由唐乐发展起来的音乐文学。因此宋代词已经成为独立的体裁。从而，词一直被认为是与诗不同的文学体裁，自然和诗分开收录。与此相反，韩国词人却没有把词单独分类。词刚流入韩国时，丽、鲜文人对词的看法与宋、明文人有分歧。通过高丽道朝鲜中期文人文集中的分类情况，可以知道他们的词多半是和诗一起收录。而由于他们没把词单独分类，后世文人也无疑认为词也是诗。

高丽、朝鲜时期文集集中的分类情况：

分类	高丽到朝鲜中期	朝鲜后期
诗	66	27
词(小词、词令)	7	11
诗余	2	8
长短句	2	1
歌词	2	1
乐府(乐府词)	1	5
其他	2	4

高丽到朝鲜中期文集集中的收录特征，将词与诗一起收录的文集占大多数。83个人的文集当中把词单独分类而收录的文集很少。由此可见，他们没把词看做是独立的体裁。其他也只是收录在文学评论类书、文集的附录里面。但实际上也与诗混在一起。这种现象和作者留下的词作数量并没有关系。比如，金驹孙只作了一首词，但受到对词体熟悉的金宗直与亲友们的影响，还是把它单独分类了。

直到朝鲜后期，单独分类词的比重比以前增加了。这证明朝鲜后期文人对词的认识有了很大进步。朝鲜后期相当于中国清代，当时两国频繁交流，朝鲜商人把中国的书籍带进来。朝鲜中期文人许筠《鹤山樵谈》云：“姊氏尝自称作词则合律，喜为小令。余意其诨人，及见《诗余图谱》，则句句之傍尽圈点。以某字则全清至浊，某字则半清半浊，逐字注音。试取所作符之。则或有五字之误，或有三字之误，其大相舛谬者则无一焉。乃知天才俊迈俯而就之故，其功约而成就如此。其《渔家傲》一篇，总合音律而一字不合……。”³¹⁾由此可见，16世纪后期朝鲜已有《诗余图谱》，当时人按照词谱填词。因这些关于词的书籍的流入，韩国文人比之前了解词。但与诗一起收录者还是占一半。

看韩国文人文集所收录的词作，他们不仅将词录入在诗集中，有些文集没有标示词牌名。有些文集里面，在词作前边写词题或词序，在词作后边用小字注明词牌名。例如，李承召词题“次益齐潇湘八景诗韵。”³²⁾李衡祥“六有诗，效《益齐杂咏》。”³³⁾等等。李衡祥对词比较熟悉，留下了很多词作。他的诗集中，将大部分词作单独分类，但几首词被录入于诗部。有些文人次韵别人的诗作。例如，朝鲜前期文人崔演采用齐言体词牌次韵苏世让的诗。再考察朝鲜时代文集中所收入的词，符合词牌的平仄规律，韵脚亦相同，但看断句情况，不符合词牌的句式。例如，朝鲜中期文人金寿恒《柳梢青》：“柳岸芦洲，龙堂古渡石老云愁。别酒三杯，劳歌一曲，人倚兰舟。斜阳匹马沙头，客去后残灯小楼。庭畔高梧，帘前新月，佳句谁酬？”³⁴⁾他采用的《柳梢青》是正体，双调，四十九字。前段六句，三平韵；后段五句，三

31) 许筠，《国译惺所覆瓿稿》第五卷、附录一《鹤山樵谈》，韩国民族文化促进会，2006，p. 144。

32) 柳己洙主编，《历代韩国词总集》，韩信大学出版社，2007，p. 66。

33) 柳己洙主编，《历代韩国词总集》，韩信大学出版社，2007，p. 204。

平韵。但前后端第二、第三句没有断句。除了他以外，不少文人的文集中出现这样的现象。他们认为是杂体诗或乐府诗。与此相反，也可以看作是诗收录在词的情况。如，金驹孙《濯缨续集》《词》部分共收录4首作品，但其中除了《满江红》一首没有注明词牌名，词谱中找不到相应的词牌，其他三首不是词，而是乐府诗的一种。如此，亦有把乐府诗认为是词的现象存在。因此上说明当时高丽、朝鲜文人缺乏对词的理解。

高丽文人的诗集中，没有把诗和词分类，其原因就在于前文所叙述的“以诗为词”的创作手法的传入。高丽文人无法与宋人私人交流。但到了元代，却与元朝往来频繁，文学交流活跃，并受到不少影响。而此时词乐已失传，词人只依前人或词谱上的词律，句读、平仄等填词。罗宗信《中国音韵序》谓：“学宋词者，止依其字数而填之耳。”近体诗也按照诗律所规定的平仄来创造。在创造方法上，填词和近体诗没有很大的不同。³⁵⁾韩国词人并不知晓词的变迁过程，直接接受依据前人的作品及词谱，求其句读、平仄的“以诗为词”，他们不知变化过程，只知道其结果。于是在韩国文人眼里的诗与依据前人的词律作的词没有明显的差异。

此外，接近齐言体的词对词收录于诗集的现象也有影响。对词不熟悉的时人会将齐言体词认为是诗作。其实，在中国同样有词见于诗集的情况。刘石在《试说词见于诗集的原因》探讨李白、苏轼、黄庭坚等中国文人的词作收录在诗集的原因。论文中说，“并非所有的齐言体作品都会混入，但因为通常混入于诗集里面的词作都是齐言体，于是可以说齐言体词作是混入诗集的前提。宋代词属于配音乐的音乐文学，自元明清以来失掉词乐，变成语言文学。失掉音乐的齐言体词作，事实上与诗相去无几。”³⁶⁾

在中国早有关于诗与齐言体词作区别的争论，清人李渔《窥词管见》云：“词之关键，首在有别于诗固已。但有名则为词，而考其体段，按其声律(按此指格律一笔者注)，则又俨然一诗，觅相去之垠而不得者。如《生查子》前后二段，与两首五言绝句何异?《竹枝》第二体，《柳枝》第一体，《小秦王》、《清平调》、《八拍蛮》、《阿那曲》，与一首七言绝句何异?《玉楼春》、《采莲子》与两首七言绝句何异?《字字双》亦与七言绝句同，只有每句叠一字之别。《瑞鹧鸪》即七言律一人问以上诸调明明是诗，必欲强命为词者何故?予曰：此中根据，未尝深考。然以意逆志，当有不出范围者。昔日诗变为词，定由此数调始，取诗之协律便歌者，被诸管弦，得此数首，国其可词而词之，则今日之词名，仍是昔日之诗题耳。”³⁷⁾就是说，失传词乐之后，齐言体词作与诗没有区别。陈廷焯在《白雨斋词话》中，亦表示与李渔相同的观点。然后主张“余于《大雅集》中，近五七言绝句者概不入选”。³⁸⁾

因为词失掉音乐而变成语言文学，会被认为是诗。高丽、朝鲜文人非常喜欢中国文学，许多人看到中国文人的文集。以为其中收录的词是诗的从属体裁，于是将词当做诗进行模仿，还将其录入于诗集里面。或者已知是词，但词与近体诗没有太大的不同，没意识到将其单独分类。这对后世人也产生影响，同样把词认为一种诗。

34) 柳己洙主编，《历代韩国词总集》，韩信大学出版社，2007，p. 192。

35) 陶然，《金元词通论》，上海古籍出版社，2010，pp. 190-196；杨焄，《域外汉籍传播与中韩词学交流》，上海古籍出版社，2017，p. 200。

36) 刘石，《试说词见于诗集的原因》，《文献》，第3期，1996，pp. 71-77。

37) 李渔，《窥词管见》，见唐圭璋《词话丛编》，中华书局，1986，p. 549。

38) 陈廷焯，《白雨斋词话》卷八《诗词体裁易混》《诗词源流》，人民文学出版社，1983，p. 211。

6. 结论

古代高丽、朝鲜文学的发展与中国文学有密切的关系，可以说古代韩国的文学发展倾向总是与古代中国同步，但词作的发展却有着明显的差异。因为宋朝与高丽所的政策原因，两国文人士大夫之间的文学交流并不顺利，当时文人缺乏对作为音乐文学的词的理解，再加上带有艳情色彩的词不合士大夫思想，他们不愿意接受新的文学体裁。“以诗为词”从根源上解决了古代韩国文人不愿接受词的问题，于是高丽文人逐渐开始创作词。由此可见，古代韩国越过“词为艳科”的阶段，直接接受“以诗为词”手法，于是整个古代韩国词围绕着“以诗为词”这一创作手法，在许多方面均受到“以诗为词”的影响。其中，本文主要考察高丽、朝鲜词在接受“以诗为词”的过程中，在形式上呈现出来的特征。

第一，本文以高丽、朝鲜文人词作的词牌和词体为中心，探讨了他们对词这一“新的文学体裁”的认识与创作倾向。宋词在格式上，文句参差不齐，变化多样，并且宋人使用的词牌也丰富多样。与此相反，大部分高丽、朝鲜词的创作中所采用的文章句式比较固定，词牌数量也不多。丽、鲜文人词使用的词牌种类虽不多，但采用接近齐言体词牌的词占全部高丽朝鲜词的一半，这就是其一大特征。

第二，丽、鲜文人作词常用题序。本文通过分析当时文人词中的题序的使用情况，探讨了“以诗为词”与文人采用题序的关系。初期写男女之情的传统艳情词，词牌与内容互有联系，但苏轼将词的领域扩大之后，许多词的词牌与内容没有很大的关系，因此，将诗的题序用在词作中，表示主题或作词目的。这也就促使丽、鲜文人不仅对“以诗为词”这一创作技法有了进一步地接受，而且对词这一体裁的文学作品有了新的认识。

第三，从丽、鲜文人文集中词的收录情可见的他们对词的认识仅是以固定的格式进行文字创作。作者对韩国文集中收录的词作了分析，考察了“以诗为词”的特征对丽、鲜文人的影响。高丽文人接受词时，词的音乐因素已消失，相关的资料不全，缺乏对已变成纯文学的词的了解，像诗一样按照格式来作词，并导致收录在诗集里面的现象。

古代韩国词的创作跳过“词为艳科”这一阶段，直接成为已士大夫化的文学创作，这是古代韩国词作史上的一大特点。高丽、朝鲜词虽然深受中国宋、元、明“以诗为词”的影响，但是两者在本质上是有所不同的。高丽、朝鲜的“以诗为词”和本土的社会文化气息特色有着密切的联系，在自己的过度的土壤和文化氛围的酝酿下必定形成具有自身价值的一大作品体裁。

【사회과학분과】 발표 ①

벌링게임사절단과 이와쿠라사절단이 경험한 유럽 각국의 해양문명

조세현*

【목 차】

1. 들어가는 말	3. 유럽의 소국들
2. 유럽의 대국들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청국은 양무운동을 전개하면서 서구 열강과 불평등 조약의 개정을 위해 공식적인 해외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에 청국주재 미국공사를 역임하고 귀국 준비 중이던 앤슨 벌링게임(Anson Burlingame, 중국 명 蒲安臣)에게 사절단 단장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해 동의를 얻은 후 미국을 비롯해 유럽 각국을 순회하는 외교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일본 역시 도쿠가와 막부를 붕괴시키고 새롭게 등장한 메이지 신정부가 조약개정 예비교섭과 서양문명 견학을 위해 권력 실세인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고위급 사절단을 조직하였다. 벌링게임사절단(1868-1870)과 이와쿠라사절단(1871-1873)은 모두 1870년을 전후로 외형상 유사한 임무를 띠고 미국과 영국을 건너 유럽 각국을 방문한 전례 없는 세계여행이었다. 이들이야말로 “동양의 동쪽이 서양의 서쪽”이라는 사실과 “태양의 반대방향으로 여행하면 하루가 더 길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람들이었다.

벌링게임사절단은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다시 대서양을 건너 영국을 방문한 후 또 다시 유럽대륙으로 건너가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프로이센, 러시아,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탐방한 후 귀국길에 올랐다. 비록 1870년 2월 러시아를 여행하던 중 벌링게임이 폐렴으로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을 겪었지만 청국인일행의 외교일정은 계속되었다. 얼마 후 이와쿠라사절단 역시 비슷한 코스로 미국과 영국을 방문한 후 도버해협을 건너 프랑스 파리에 도착하였다. 일본 요코하마를 출발한 지 만 1년이 지나는 시점이었다. 그리고 일본인일행은 유럽대륙의 대국과 소국을 고루 관찰한 후 귀국길에 올랐다. 대체로 두 사절단의 경로는 유사했지만 벌링게임일행은 스페인을 포함한 11개국을, 이와쿠라일행은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를 포함한 12개국을 방문한 점에서 약간 달랐다.

벌링게임사절단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와 달리 일본학계의 경우, 이와쿠라사절단에 대

*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shcho@pknu.ac.kr)

한 연구가 무척 풍부한 편이다.¹⁾ 일반적으로 이와쿠라사절단의 세계 일주는 메이지정부가 추진하던 근대국가 건설사업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그 역사의의를 높이 평가한다. 특히 사절단의 공식 보고서를 담당한 구메 구니타케(久米邦武)의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特命全權大使 美歐回覽實記)』는 훌륭한 여행기록으로 알려져 있다.²⁾ 청국사절단과 일본사절단을 비교하는 일부 글에서는 대체로 이와쿠라일행의 성과에 비해 벌링게임일행의 한계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이 발표는 벌링게임사절단과 이와쿠라사절단이 경험한 미국과 영국의 해양문명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유럽대륙의 해양문명을 검토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발표문에서는 유럽대륙의 국가들을 대국과 소국으로 나누어 해양문명의 대강을 소개할 예정인데,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류기간이 짧고 대륙성격이 강해서인지 해양문명의 특색이 두드러지지 않는 않다. 하지만 기록의 단편들을 종합해보면 프랑스, 프로이센, 러시아 및 북유럽 국가들은 미·영처럼 해양강국을 추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유럽의 해양문명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기존연구로는 다나카 아키라(田中彰)의 해석이 있다. 보통 나카에 조민(中江兆民) 등 자유민권파가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등 소국을 모델로 한 ‘소국주의’를 주장한 데 반해, 메이지정부 지도자들은 프러시아 등을 모델로 한 ‘대국주의’를 취해 대외팽창적인 근대국가를 건설했다고 본다. 그런데 다나카 아키라는 『미구회람실기』에 보이는 소국관련 기록에 주목해, 메이지정부가 지향할 방향으로 소국주의의 길이 존재했다고 주장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런 흥미로운 해석이 적절한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유럽의 대국들

1) 프랑스

벌링게임사절단은 1869년 1월 2일 영국에서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에 도착한 후 나폴레옹 3세를 알현하였다. 청국사절단은 프랑스에 오랫동안 체류했지만 프랑스정부가 미국보다는 영국정책에 동의했기에 뚜렷한 외교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당시 프로이센과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과도 관련이 있었다.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장덕이 여행기에서 파리는 낭만적인 도시라는 좋은 이미지로 가득하였다. 벌링게임일행은 8개월 가까이 프랑스에 체류하다가 1869년 9월 말 스웨덴으로 이동하였다.

이와쿠라사절단은 1872년 12월 16일에 런던 빅토리아역을 출발해 도버해협을 건너 프랑스의 칼레항에 상륙한 뒤 파리로 향하였다. 요코하마를 출발한 지 이제 만 1년이 지나는 시점이었다. 일본사절단은 파리의 개선문, 샹젤리제 거리, 콩코르드 광장 등을 돌아보고 파리시내와 근교를 관람했으며, 곧이어 티에르 대통령을 알현하였다. 그 후 국회 의사당이 있는 베르사유 궁전과 노트르담 대성당, 콩세르바투아르 기계전시장, 룩셈부르크 궁전 등을 고루 견학하였다.³⁾ 이와쿠라일행의 판단에 따르면, 미국은 광대한 대륙을 배경으로 외국의 침략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산업발전에 매진했고, 영국은

1) 두 사절단의 연구현황은 조세현, 「벌링게임사절단과 이와쿠라사절단이 경험한 미국과 영국의 해양문명」, 『중국근현대사연구』, 88, 2020을 참고할 것.

2) 미야지마 히로시, 「‘화혼양재’와 ‘중체서용’ 재고: 일본·중국과 구미와의 만남」, 백영서 외, 『동아시아 근대이행의 세 갈래』, 창비, 2009, p.160.

3) 『미구회람실기』제3권의 내용 중 유럽대륙의 전통적 대국인 프랑스가 제일 많은 8장을 차지했고, 프로이센이 6장,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각 3장을 차지하였다. 사절단은 유럽대륙의 대국과 소국을 고루 관찰하였다. 구메 구니타케 지음, 박삼헌 옮김,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제3권 유럽대륙(상)), 소명출판, 2011, 해제, p.34.

섬나라였기 때문에 산업혁명의 생산력을 바탕으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세계를 압도했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프랑스는 유럽대륙의 중앙에 위치해 비옥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바탕으로 재부를 축적하고, 문화적 우월성을 창출해서 주변국의 추적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⁴⁾ 특히 파리는 유럽문명의 중심으로 전 세계 공산품의 전시장이었다. 보통 영국공업이 기계에 의존한다면 프랑스는 수공과 기술을 병용해 정교하고 화려한 물건을 만든다고 평가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프랑스가 세계적인 조선강국이지만 두 사절단 모두 대부분의 시간을 파리주변에 머물러서인지 프랑스의 해군시설이나 조선업에 대해서는 직접 관찰할 기회가 없었던 듯하다. 왜냐하면 뿔롱과 같은 대표적인 해군·조선도시가 남방의 지중해 연안에 있어 방문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⁵⁾ 하지만 막말 일본사절단인 이케다(池田筑後守)견불사절단(1864년)의 경우 마르세이유 체류 기간에 주변 조선소를 참관하면서 특히 군함 건조를 세심하게 살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뿔롱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몇 년 후 도쿠가와(徳川)견불사절단(1867년)의 경우도 뿔롱을 방문해 군함, 기계창, 조선창 등을 참관하였다. 당시 사절단 일행은 프랑스인 잠수부가 잠수복을 입고 잠수하는 연습을 관람하면서, 잠수부란 해저로 들어가 암초나 해저의 다른 물건들을 살피는 사람들 이라고 소개하였다.⁶⁾

사실 프랑스는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북쪽으로는 북해와 영프해협이 있고, 남쪽으로는 지중해, 서쪽으로는 대서양이 펼쳐져 있다. 기본적으로 유럽대륙을 기반으로 하지만 역사적으로 경쟁자인 영국에 대항하기 위해 해군력을 발전시킨 나라이다. 프랑스는 해양산업 가운데 조선업 분야에서 최고 수준이었다. 군함 건조에서 철강으로 목재를 대체하고 대형 포탑을 장착한 전함을 만드는데 앞장섰다. 1857년 세계 최초의 중장갑함 ‘라 글루아르’도 만들었는데, 프랑스 기술자의 공로였다. 그 이전까지 나무에 철판을 붙여 덧댄 철갑선의 건조기술은 영국이 앞서 있었다. 하지만 ‘라 글루아르’는 증기기관을 동력으로 사용하고 스크루를 부착한 최첨단 기술로 만든 중장갑함으로 영국의 조선술을 압도하였다.⁷⁾

청말 중국과 프랑스의 합작사업 가운데 공장과 조선소설립이 있었다. 이를 위해 1867년 복주선정학당(福州船政學堂)을 만들었으며, 여기서 조선기술은 프랑스 시스템을 표준으로 삼았다. 일본의 경우도 1869년 해군조련소(海軍操鍊所)를 만들었는데, 초기에 네덜란드의 도움을 받았으나 점차 프랑스의 영향력이 높아졌다. 1860년대 유럽해군에서 통용된 상식은 프랑스가 군함 건조 분야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사실이었다. “조선은 프랑스가 가장 뛰어나므로 선박제조 유학생은 프랑스 조선기술을 배운다.”는 원칙아래 1870년대에는 양국의 해군유학생들도 다수가 프랑스의 해군군항이나 조선소로 파견되어 학습하였다.⁸⁾ 한편 해군인재 양성은 영국이 가장 뛰어나므로 항해사 유학생은 영국으로 건너가서 해군학교에서 해군전술을 배우는 경우가 많았다.

벌링게임사절단과 이와쿠라사절단 모두 귀국 길에 들린 마르세이유 항구에 대한 감상은 비교적

4) 泉三郎, 『岩倉使節團』, 祥傳社黃金文庫, 2012, p.499.

5) 이와쿠라사절단은 원래 미국과 영국에 비해 프랑스나 독일에는 특별한 관심이 없었다. 당시 일본유학생이 미국과 영국 두 나라에 편중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메는 이 두 나라에 지면을 많이 할여하였다. 메이지3-4년(1870-1871) 기준 해외유학생 수는 미국이 152명, 영국이 124명, 독일이 61명, 프랑스가 41명 순이었다. 이에 근거한다면,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독일과 프랑스에 관심이 많았다고 볼 수도 있다.

6) 郭麗, 『近代日本の對外認識-以幕末遣歐美使節爲中心』, 北京大學出版社, 2011, p.116, p.129.

7) 1860년대 중반 프랑스는 세계최초의 중장갑함대를 갖추어 400여 척의 군함 가운데 중장갑함이 34척이나 되어, 영국을 이어 세계 2위의 해군력을 자랑하였다. 이창훈, 「프랑스의 해양 인식과 동아시아 해군 정책」, 최덕규 편, 『제국주의 열강의 해군과 동아시아』, 동북아역사재단, 2018, pp.146-147.

8) 조세현, 「청말 해군유학생이 경험한 유럽의 해군문명」, 『해항도시문화고섭학』 제21호, 2019, pp.4-8.

풍부하게 남겨 놓았다. 지강이 이끄는 청국사절단은 프랑스에서 천진교안을 협의하려 했으나, 프로이센-프랑스전쟁의 발발로 성과가 없자 파리를 떠나 마르세이유로 내려와 귀국선에 올랐다. 대체로 마르세이유 항구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항구가 넓고, 대형선박이 무수하며, 포대의 경비가 삼엄하다 등의 이미지였다. 이와쿠라이행 역시 귀국할 때 마르세이유 항구를 이용했는데,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고층건물들, 파리와 리옹에서처럼 견고하게 돌과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 해안정비를 위해 규칙적으로 쌓아올린 돌담, 항구의 선창과 화물창고, 등대와 포대 등 근대도시의 시설기반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⁹⁾

2) 프로이센(독일)

별링게임사절단은 1869년 11월 말 프로이센의 수도 베를린으로 향하였다. 사절단은 영국과 프랑스에서 미국에 비해 냉정한 대접을 받았는데, 이와 달리 프로이센에선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두 달 가까이 프로이센에서 체류하면서 별링게임은 여러 교류와 행사에 참여하고 성공적인 회담을 열었다. 12월 2일 베를린에서 프로이센 국왕 빌헬름 1세를 만났고, 1870년 1월 3일 프로이센 재상이자 외교부장인 비스마르크를 만났다. 다음 날 비스마르크는 청국에게 우호적인 성명을 발표하였다. 사실 비스마르크와 별링게임 간 회담은 1870년 1월 1일 새롭게 성립한 연방외교부의 첫 번째 대외활동이었다. 비스마르크가 영국과 달리 별링게임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부분은 청국의 국가통일과 중앙권위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다. 별링게임은 프로이센에서 얻은 외교성과에 고무되어 무척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였다.¹⁰⁾

청국사절단은 물론 외국사절단이 프로이센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방문하는 대표적인 군수기업은 에센지방에 있던 크루프(Krupp)공사였다. 이 공사는 1811년 프리드리히 크루프(Friedrich Krupp)가 라인공업지대의 중심도시인 에센에 소규모 주철공장 크루프사를 창설한 뒤, 뒤를 이어 2대 알프레드 크루프(Alfried Krupp)가 1842년에 새로운 강철제조법을 발명하고 이를 기초로 대포제작을 추진하면서 급성장하였다. 1843년 크루프는 거대한 대포를 만드는 계획에 착수해 1851년 런던에서 열린 제1회 만국박람회에 출품했는데 커다란 호평을 얻었다. 프로이센군부는 처음에는 크루프대포에 냉담했으나, 그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외국의 주문이 쇄도하고 크루프가 황태자(후일의 빌헬름 2세)와 비스마르크의 신뢰를 받아 프로이센군의 공식대포로 대량 주문을 하였다. 1859년 프로이센정부가 크루프에게 300문의 대포를 발주하면서부터 크루프는 ‘대포 왕’이라고 불렸다.¹¹⁾ 이 대포로 말미암아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1866)과 프로이센-프랑스전쟁(1870-1871)에서 프로이센군이 압승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1860년대부터 프로이센은 공업혁명 시기에 접어들어 빠른 발전을 하였다. 청국사절단이 프로이센을 방문한 1870년은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 프로이센 측이 나폴레옹 3세가 이끄는 프랑스군을 크게 물리치고, 황제를 포로를 잡는 등 승승장구하며 파리에 입성한 해이다. 뿐만 아니라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후들이 추대하는 형식으로 빌헬름 1세가 독일제국 황제로 즉위함으로써 1871년부터 독일제국이 성립하였다.

9) 구메 구니타케 지음, 정선태 옮김,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제5권 유럽대륙(하)), p.144, p.149, pp.152-153, p.155-156.

10) 閔銳武, 『蒲安臣使團研究』, 中國文史出版社, 2002, 제4장 1-2절 참고.

11) 미야자키 마사카츠 지음, 박현아 옮김, 『물건으로 읽는 세계사』, 현대지성, 2018, p.173.

청국과 일본사절단이 프로이센(독일)을 방문할 때는 유럽대륙에서 압도적인 육군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지만 해군력에서 영국, 프랑스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덴마크에 비해서도 열세에 놓여 있었다. 프로이센의 해군정책은 상대적으로 낙후해 연근해 방어가 주요 내용을 차지했는데, 1871년 통일 이후 식민지 개척과 안정적인 무역로 확보를 위한 대양해군의 필요성을 점차 자각하였다. 독일 상선이 외국해군의 보호를 받는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해 해군력을 증강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신형 기업이 불칸(Vulcan)조선소였다. 이 조선소는 독일정부와 협력해 결국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청국에 동아시아의 전설적인 철갑선 정원(定遠)과 진원(鎮遠)을 제조 판매하는데 성공하였다.¹²⁾ 물론 이 군함에도 크루프포가 탑재되었다.

막말 일본사절단부터 일본인들이 프로이센을 방문할 경우 주로 군사 분야를 고찰하였다. 이와쿠라사절단은 1873년 3월 초 네덜란드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독일의 수도 베를린으로 향하였다. 일본사절단은 베를린에 가기 전에 청국사절단과 마찬가지로 세계 최대 규모의 크루프공사를 견학하였다. 독일에 들어간 첫 날 당시 인구 5만 1천여 명의 에센지방에 간 일행은 제철제강업과 무기산업의 대표주자인 크루프가 세운 공장을 견학하였다.¹³⁾ 구메의 말에 따르면, 크루프공사는 이 지역에서 채굴되는 석탄과 철을 사용해 소규모 철포를 생산한 이래 해마다 규모가 확대되어 당시 종업원이 2만 명에 다다랐다. 공장에서는 소총, 대포와 같은 무기뿐만 아니라 기계, 철도차량, 레일 등과 같은 철강제품을 생산했는데, 제철소 안의 철로가 10마일에 이르는 규모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으며, “철이 곧 국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¹⁴⁾

이와쿠라사절단은 빌헬름 1세와 알현하고 여러 공장, 병원, 박물관 등을 방문하였다. 일본사절단의 평가에 따르면, 독일이 해를 거듭하며 무공을 빛내는 것은 프리드리히 2세의 정략을 계승하고 비스마르크가 명장 몰트케를 등용하는 등 군신이 일치협력하고 뛰어난 전략을 구사한 결과라고 보았다. 주지하듯이, 메이지정부는 이와쿠라사절단의 경험을 통해 독일의 성공사례를 모델로 삼아 정치적 보수주의와 군사적 군국주의의 길을 걸었다. 그들은 독일의 군사제도를 찬양하며 군사경험을 배우려 했다. 이런 방향설정은 청국의 경우 청말 오대신(五大臣)출양(1905)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독일은 해군관련 기사보다는 어업관련 기사가 종종 눈에 띄어 흥미롭다. 이와쿠라일행이 방문한 한 전람회장에는 생선과 건어(乾魚) 등이 진열되어 있었다. 어선·어구(漁具)·어장의 모형·다른 나라의 어구 등도 함께 전시되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동양의 어업과 관련된 것들도 진열되었는데 일본의 범선, 어선모형, 어촌, 민가, 해안가 선술집 모형까지 진열되어서 매우 놀랐다. 구메의 또 다른 기록에는, 지하에 돌로 창고를 만들어서 생선을 냉장 보관하는 광경을 묘사하였다. 바다에서 해산물을 잡아 베를린으로 운반하기까지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신선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었다.¹⁵⁾

당시 독일은 어류양식에 신경을 써서 농학 중에 양식어류에 관한 과목을 설치하였다. 구메는 어류양식이란 인간의 기술력으로 물고기를 증식시키려는 것으로, 자원보호를 위한 공공기관도 설치한다고 소개했다. 이는 중국 고대의 산림보호에 해당하는 우형(虞衡)이라는 관직과 비슷한 것이다. 물

12) 조세현, 「청말 주독공사의 군함구매와 해군건설」, 『중국사연구』, 제115호, 2018년, pp.144-157 참고.

13) 크루프공사에 대해서는 구메 구니타케 지음, 박삼현 옮김,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제3권 유럽대륙(상)), p.334-339에 자세하다.

14) 熊田忠雄, 『世界は球の如し』, 新潮社, 2013, p.125.

15) 유럽에서는 어업에 관한 법률과 양식업 기술 등이 점차 발전하였다. 북해나 발트해로 출어를 나가는 어선들에는 이런저런 제한을 만들어 어획량 감소를 방지하였다. 구메 구니타케 지음, 박삼현 옮김,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제3권 유럽대륙(상)), pp.396-397.

고기를 양식하는 일은 나무를 기르는 일과 유사하다. 토질을 확인해 양식어장을 만들고 기온이나 햇빛을 조절하고 바람을 막으며 비를 담아서 물풀을 늘리고 주위에 나무를 무성하게 심은 후, 건강한 자웅의 성어(成魚)를 여기에 풀어서 교미시키고 알을 낳게 한다. 부화한 치어는 다른 양식장에 넣어서 성장시킨다. 그 모습은 마치 나무 묘목을 키우는 것과 비슷하다. 다른 물고기, 동물, 물새 등에 잡혀 먹히지 않도록 해 3년간 기른 뒤 연못에 푼다. 이것이 양식어업의 개략적인 내용이었다.¹⁶⁾ 독일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에서도 하천어를 양식했는데, 이런 나라에는 생선 알을 맑은 물에 풀어 수정시켜 부화하는 설비가 있었다.

3) 러시아

벌링게임사절단은 1870년 2월 1일 프로이센에서 러시아로 들어갔으며, 2월 16일 짜르 알렉산더 2세를 접견하였다. 당시 러시아는 영국과 다투었고 미국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짜르는 회담 중 양국 간 최대 외교현안인 청·러 영토분쟁 문제를 회피하는 태도를 취해 벌링게임을 상심시켰다. 또 다른 안건 가운데 하나는 흑룡강에서 일본을 경유해 동중해로 해저전선을 가설하는 문제도 있었다. 러시아는 해저전선을 설치할 때 중국 해상에 있는 땅 일부를 빌리고자 협상했는데, 약간 이견이 있었다.¹⁷⁾ 회담 후 벌링게임은 피로가 누적된 데다가 러시아의 추위로 말미암아 급성폐렴에 걸려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결국 1870년 2월 23일 벌링게임은 50세의 나이로 러시아에서 사망하였다.

청국과 일본사절단의 여행기에서 독일의 경우 크루프공사가 단골메뉴라면, 러시아의 경우는 크론슈타트(Kronstadt) 군항이 빠지지 않는 내용이었다. 발틱해에 있는 크론슈타트 항구는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들어갈 경우 군함이든 상선이든 모든 선박이 반드시 정박해야하는 요지였다. 이 항구는 중국 천진의 대고구(大沽口)와 같은 전략적인 요충지여서 포대의 방비가 무척 삼엄하였다. 벌링게임사절단은 크론슈타트포대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했는데, 일행은 항구 주변의 다섯 곳의 높은 요새에 세운 백석포대를 발견하였다. 포대의 하얀 돌담 너머로 수 백문의 대포를 배치했으며, 항구 주변에는 큰 화륜병선이 여러 척 떠 있다고 기술했다.¹⁸⁾ 섬 안에는 해관, 해군국, 조선창 등 주요 시설이 있었다. 과거 빈춘(斌椿)일행도 발틱해에서 들어올 때 이곳 해안포대를 구경했는데, 10년 전 영프함대가 포대를 공격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해 결국 화의를 맺었다고 썼다.¹⁹⁾

그밖에 벌링게임일행의 러시아 해양문명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다. 단지 러시아의 지독한 추위에 관한 기사가 엿보인다. 러시아는 겨울이 되면 강과 호수는 물론 바다의 일부도 결빙이 되어 선박들이 얼음에 갇힌다. 두꺼운 얼음이 얼면 마차나 차들이 그 위를 다니고, 어부들은 얼음을 뚫고 불을 지펴 온기로 물고기를 유인해 잡는다고 썼다.²⁰⁾ 1870년 4월 21일 러시아를 떠난 사절단은 벌링게임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강을 책임자로 삼아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은 일정을 이어나갔다.

3년 후인 1873년 3월 28일 베를린을 출발한 이와쿠라사절단은 러시아에 도착해 4월 3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알렉산드르 2세를 접견하였다. 이들 역시 크론슈타트 항구와 포대에 대한 강한 인상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약 18마일 정도 떨어진 바닷가에 크론슈타트라는 섬

16) 구메 구니타케 지음, 박삼헌 옮김,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제3권 유럽대륙(상)), pp.302-303.

17) 志剛, 『初使泰西記』, p.338.

18) 志剛, 『初使泰西記』, p.343. 張德彝, 『航海述奇』, p.551.

19) 斌椿, 『海國勝游草』(『走向世界叢書』第1輯 第1冊), 岳麓書社, 1985, p.176.

20) 泉三郎, 『岩倉使節團』, 祥傳社黃金文庫, 2012, p.525.

이 있는데, 이 섬의 암석 위에 대규모 포대를 설치해 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요새를 만들었다. 그 곳은 웅장한 규모로 널리 알려진 곳인데, 지난 크림전쟁 때에도 영프함대는 이 요새의 엄중함을 두려워해 감히 침입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항구는 추위 때문에 여름 몇 개월을 제외하고는 선박의 출입이 어렵다고 썼다.²¹⁾

구메의 기록에는 해양강국을 추구했던 표트르 대제에 대한 소개가 자세하다. 근대적 군대를 만들려는 표트르 1세의 노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당시 러시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해군창설이었다. 가깝게는 스웨덴과 벌이던 북방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그리고 더욱 근본적으로는 해상 무역로의 확보와 해양을 통한 대외진출을 위해 러시아에게 해군건설은 필수적인 과제였다. 이런 필요에 따라 표트르 1세는 1704년 11월 5일 해군을 육성하는 중심본부이자 군함을 건조하는 공장역할을 겸하는 용도로 해군성 건물을 수축하기 시작했다.²²⁾ 표트르대제의 노력으로 스웨덴과 독일이 방기한 토지와 발트해 연안의 일부를 겨우 손에 넣어 얼어붙은 바닷가를 바라보는 상트페테르부르크시를 건설했고, 크론슈타트 포대를 만들면서 해군을 창설하였다. 그러나 이곳은 1년 중 6-7개월은 얼음이 얼어 무역을 위한 교통이 가능한 때는 기껏해야 5개월에 불과하였다.²³⁾

표트르대제는 해군을 창설하기 위해 몸소 네덜란드에 유학해 조선공으로 조선을 배웠다. 귀국 후 발트해에 해군을 만들 때에는 네덜란드 방식을 채용했는데, 대체로 영국과 유사한 제도였다. 해군인사는 프랑스식을 따르면서 일부 개량하였다. 러시아정부가 해군에 힘을 써 전함제조에 고심하는 것은 표트르대제의 유지를 잇는 전통 때문이다. 유럽에서도 영국과 프랑스만이 러시아해군을 앞서 있다. 19세기 후반 러시아 제철업의 발달은 군대, 그 중에서도 해군력 증강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 무렵 러시아해군은 당시 최강의 해상국가였던 대영제국이 경계할 정도의 전력을 소유하였다.

구메에 따르면, 당시 러시아해군은 25척의 장갑함을 포함해서 총 262척의 군함, 3,791명의 사관과 6만 명의 수병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발트해와 흑해에 각각 한 개씩의 함대를 두고, 그 아래 소함대를 카스피해, 아랄해, 시베리아연안에서 운용하였다. 또한 러시아 해군력은 질적인 면에서도 서유럽 국가들과 견줄 수 있는 수준이었다. 당시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 흑해방면으로 진출했는데 영국의 견제를 받았다. 러시아는 일본으로도 진출해 이미 도쿠가와 막부시기에 여러 차례 통상을 시도한 바 있었다. 하지만 이와쿠라일행은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근대화가 덜 된 국가로 인식하였다. 이 점은 오스트리아의 경우 더욱 심하였다.

4)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벌링게임사절단이 방문하지 않은 나라이다. 이와쿠라사절단이 오스트리아를 방문했을 때는 수도 빈에서 만국박람회(1873년 5월 1일-11월 1일)가 개최되고 있었다. 1851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시작한 제1회 만국박람회와 이를 뒤이은 프랑스 파리의 제2회 만국박람회에서는 대회장에 거대한 건축물을 세워 국력을 과시하였다. 오스트리아 역시 이에 뒤질세라 웅장한 회관을 만들었다. 세계 35개국이 참가하고 약 726만 명이 관람한 빈 만국박람회는 일본정부가 처음 공식적으로 참가한 만국박람회였다.²⁴⁾ 이와쿠라사절단은 1873년 6월 6일쯤 박람회를 참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구

21) 구메 구니타케 지음, 서민교 옮김,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제4권 유럽대륙(중)), 소명출판, 2011, p.76.

22) 양승조, 「1873년 일본사절단이 바라 본 근대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아우라’와 전근대적 과거의 유산」, 『역사·사회·문화도시연구』, 12호, 2014, p.163.

23) 구메 구니타케 지음, 서민교 옮김,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제4권 유럽대륙(중)), p.57.

24) 방광석, 「메이지 관료의 ‘유럽 지식순례」, 김유철 외 지음, 『동아시아 역사 속의 여행』1, 산치림, 2008, p.165.

회람실기』에는 빈 박람회를 여행기 전체 100권 중 2권 분량으로 따로 기록해 지대한 관심을 드러내었다.

오스트리아는 내륙국가여서 그런지 해양문명이나 해군건설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쿠라일행의 오스트리아군대에 대한 평가는 프랑스, 러시아, 프로이센군의 용맹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들이 보기에 오스트리아군은 전통적인 화려함에 머물러 제식총은 열강의 소총에 비해 성능이 많이 뒤쳐져 있었다. 지금까지 보았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및 러시아제 총들은 모두 조작이 간단하고 빠른 발사를 자랑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들의 대포는 잘 연마된 강철로 포를 제조했는데, 특히 영국의 올리치, 독일의 크루프,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지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놀랄 정도로 견고하고 우수하였다. 그래서 청동이나 주철포의 시대는 끝난 줄 알았는데, 오스트리아에서는 여전히 구식대포들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²⁵⁾ 근대해양의 시대에 뒤쳐진 대표적인 전통대국이 오스트리아였던 것이다.

3. 유럽의 소국들

1) 중부유럽: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영프해협을 동쪽은 북해이다. 이곳은 벨기에의 안트베르펜 항이 유명한데, 유럽 각국으로 통하는 요충지로 나폴레옹 1세가 구축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항구이다. 그 동쪽에는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 내해(內海)인 조이테르해에 면한 암스테르담 항이 있는데, 둘 다 네덜란드의 대외 무역항이다. 그 동쪽의 함부르크와 브레멘은 독일 서부의 주요 항구이다.²⁶⁾ 벌링게임사절단이 벨기에를 방문했을 때 안트베르펜 포대를 보았는데,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가까이 접근해서야 드러났다. 포대 내부는 벽돌로 만들어졌고 정상과 연결되었으며 언덕 면에는 대포가 겹겹이 배치되어 있었다. 정상과 바깥층은 좁은 도랑으로 이루어져 아래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청국사절단은 포대가 무척 신기했는지 비교적 자세히 포대의 운영방식을 설명하였다.²⁷⁾

이와쿠라사절단은 파리 역에서 특별열차를 타고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도착한 다음날 국왕을 알현하고, 안트베르펜 포대와 항구는 물론 햄프턴 면방직 공장, 워털루 전쟁터, 리에주에 있는 제철소 등을 시찰하는 등 일주일간 바쁘게 보냈다. 이런 짧은 일정을 마치고 네덜란드로 넘어가면서 관련기사가 많지 않다. 하지만 구메는 벨기에와 같은 유럽의 소국들이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생존했는가를 궁금하게 여겼다.

벌링게임사절단은 1869년 11월 네덜란드 방문에서 열렬한 환영과 정성스런 접대를 받았다. 하지만 외교문제에서는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어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네덜란드는 도쿠가와 막부시절에 일본과 유일하게 통상한 유럽국가라는 인연 때문에 이와쿠라사절단의 기록은 자세한 편이다. 도쿠가와 막부가 처음 군함을 발주한 것도 이 나라였다. 일행은 네덜란드에서 윌리엄 3세를 알현하고 헤이그, 로테르담, 라이덴의 곳곳을 시찰하였다. 이 나라 제 1의 도시이자 유럽의 주요 무역항이었던 암스테르담을 돌아보고, 수정궁과 다이아몬드 연마장을 견학하였다.

25) 구메 구니타케 지음, 서민교 옮김,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제4권 유럽대륙(중)), pp.421-422.

26) 구메 구니타케 지음, 정선태 옮김,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제5권 유럽대륙(하)), pp.214-215.

27) 志剛, 『初使泰西記』, pp.349-350.

네덜란드의 역사는 물과의 투쟁이었으며 치수를 통해 국가를 건립하였다. 이 나라는 국토의 4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은 저습지로 천연자원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이 자연조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이 많고 근면하여 국토를 개발해 목초지와 농경지로 바꾸어 놓았다. 네덜란드인들은 바다의 백성이라는 자각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었다. 세계 굴지의 해운국으로 성장해 부국이 되었는데, 이는 우월한 조선술에 바탕을 둔 것이다. 조선업이 발달한 배경에는 거친 바다에 도전하는 어부의 힘이 있었다. 그들은 오랜 전부터 북방의 포경업을 독점했고, 특히 청어를 대량 포획해 네덜란드를 유타하게 만들었다.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인도회사를 만들어 아시아로 진출한 역사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²⁸⁾ 사실 대서양에 먼저 진출한 것은 영국보다 네덜란드였으며, 한 때 영국해군을 능가하는 해군력을 자랑하였다.

1873년 2월 27일 구메일행은 네덜란드의 수도 헤이그에서 해군성을 방문하였다. 네덜란드해군은 한때 유럽에서 가장 강력해 종종 스페인과 영국을 위협하였다. 이 나라는 게르만의 서북부에 해당하고 북해에 접해 해상무역을 주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군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당시 소유한 군함 67척 중에서 16척이 철갑함이었다. 네덜란드의 조선업은 재료를 모두 외국에서 가져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한 선박이 많고 해외항로도 많아서 미국과 영국의 뒤를 잇는다. 구메는 무역과 해운의 발전은 천연자원의 우열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오직 사람들이 근면한지 나태한지에 좌우될 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²⁹⁾

네덜란드 해안선에는 거대한 제방을 만들었고 가지런하게 운하를 만들었으며 배수를 위해 곳곳에 풍차를 설치하였다. 현지에서 본 방파제는 블록으로 쌓았는데, 해안으로부터 대문처럼 두 군데가 돌출되어 있었다. 당시 태풍으로 이 방파제의 여러 곳이 파손되자 한층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수리중이었다. 이곳에서 운하로 얼마 들어간 곳에 운하를 가로질러 돌을 쌓은 둑이 있었다. 그 중앙에 돌로 쌓은 도크(dock)에는 큰 선박 한 척 정도를 넣을 수 있다. 그 도크의 앞뒤에는 물을 막을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이것은 거대한 경첩이 좌우에 달려 있어서 부채꼴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도크의 좌우에도 동일하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수문이 설치되어 있다. 북해의 조위(潮位)는 조이테르의 조위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조석(潮汐)의 상태를 보고 왕래하는 선박을 이 도크에 넣고 앞뒤의 수문을 닫고 바닷물을 채워서 간조 시에도 만조의 수위로 만들기 위한 장치였다. 이 논리는 수리학(水理學)을 응용한 것으로, 이른바 배를 산으로 보내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이와쿠라사절단은 그 설비의 거대함과 견고함에 놀랐다.³⁰⁾

네덜란드는 일찍부터 어업으로 이익을 도모한 유럽의 수산강국이다. 네덜란드 어업이 발달한 북해 해안은 주로 정어리가 유명하다. 이 나라의 어민은 소형선박을 타고 벨기에, 영국, 프랑스를 오가며 신선한 생선을 판다. 1872년에는 1년간 어업생산액이 230만 달러에 달하였다. 암스테르담 항구에 정박하는 선박이 600척 이하가 되는 날은 거의 없다. 어업관련 공공기관이 생선양식도 운영하고 있었다.³¹⁾ 이곳의 바다에서는 굴이 잘 잡힌다. 유럽에서 맛있기로 유명하고 값도 비싸다. 유럽인은 굴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굴로 이익을 올리고 있다. 일찍이 네덜란드인이 나가사키에 왔을 때 히젠의 굴을 매입해 수송했던 것도 굴로 이익을 얻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이다.³²⁾

한편 스위스는 이와쿠라사절단이 귀국하기 위해 마르세이유로 이동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방문한

28) 熊田忠雄, 『世界は球の如し』, p.124. 마야자키 마사카쓰 지음, 박연정 옮김, 『패권 쟁탈의 세계사』, pp.143-145.

29) 구메 구니타케 지음, 박삼헌 옮김,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제3권 유럽대륙(상)), pp.279-280, p.275.

30) 구메 구니타케 지음, 박삼헌 옮김,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제3권 유럽대륙(상)), pp.300-301.

31) 구메 구니타케 지음, 박삼헌 옮김,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제3권 유럽대륙(상)), pp.263-264.

32) 구메 구니타케 지음, 박삼헌 옮김,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제3권 유럽대륙(상)), p.291.

국가로 산악지역에 위치해 자연풍광이 아름답지만 해양문명과는 무관한 나라였다. 사절단 일행은 스위스에서 한 달 가까이 체재하며, 취리히시의 대학교와 베른시의 소학교 및 박물관, 도서관 등을 견학하고, 수도 베른의 거리와 풍경을 구경하였다. 이 나라를 벌링게임사절단은 방문하지 않았다.

2) 북유럽: 덴마크, 스웨덴

옛날에 덴마크의 연해지역 사람들은 고기잡이로 식량을 삼았고 점차 해적으로 바뀌었다. 한 때 영국의 도시들을 습격하기도 해서 여러 나라가 그들을 해적으로 보았다. 하지만 점차 국가의 기틀을 잡고 외국과 교류하였다. 청국사절단의 지강에 따르면 덴마크는 항구가 군대와 식량의 근본이어서 포대로 북쪽 항구의 통로를 보호하였다. 대서양 여러 나라가 이곳으로 들어오고 러시아,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이곳에서 나가니 덴마크는 통과세를 징수한다. 각국이 투자해 그 항구를 사서 면세를 받으려 했지만 덴마크는 항구의 이권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를 막았다. 지강은 덴마크포대에 대해서도 간단히 묘사하였다.³³⁾

이와쿠라사절단은 덴마크가 소국이고 주변에 강대국이 많지만 국민성이 강건하고 애국심이 충만하다고 보았다. 특히 조선술과 항해술이 뛰어나다고 했다. 기록에 따르면, 덴마크의 해군은 예로부터 명성이 높다. 과거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해전으로 프로이센을 크게 괴롭혀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덴마크해군이 갖추고 있는 가장 견고한 장갑함은 미국에서 발명한 모니터함 모델로 주력함으로 쓰고 있다. 일본사절단은 이 군함을 관람했는데, 장갑을 두른 원형의 포탑을 장착하고 증기압으로 포와 포탑이 회전시켜 발사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진 함선이었다. 장갑의 두께는 6인치이고, 그 안에 목재를 겹쳐 모든 두께는 30센티미터 이상이나 되며, 암스트롱포 3문을 갖추었다. 같은 날 조선소를 구경했는데, 크리스찬 4세가 손수 만든 작은 배의 모형이 있었다. 국왕이 술선했어 이같이 조선의 뜻을 두고 있으니 국민이 해양기술에 밝은 것도 당연하였다. 이와쿠라일행은 서양의 기술진보가 우연한 결과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³⁴⁾

이와쿠라사절단이 덴마크에서 해저전신회사를 방문한 사실은 이채롭다. 이 회사는 나가사키와 상해를 잇는 해저선을 설치하는 회사였다.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대국이 아닌 북유럽의 소국의 전신회사가 건설을 담당하는 사실이 놀랍다고 기록했다.³⁵⁾ 이 점은 소국도 해양강국이 될 수 있다는 한 사례로 인식한 듯하다.

스웨덴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덴마크와 비슷하다. 스웨덴의 동남쪽은 발틱해와 접하고, 서북쪽은 대서양과 접하며, 북쪽은 북빙양에 가깝다. 유럽의 북부에 있어 1년 중 반년은 새벽과 같은 땅이다. 스웨덴은 주로 근해를 항해하는 소형선박을 구비했고, 대양을 항해하는 큰 증기선도 보유하여 미국을 늘 왕복하고 있었다. 이와쿠라사절단은 스웨덴의 해군시설이 집중해 있는 이른바 ‘해군의 섬’을 방문해 이런저런 군사시설을 살펴보았다. 이 나라는 발트해에 인접해 있어 덴마크처럼 해군육성에 주력하였다.

청국과 일본사절단 가운데 노르웨이를 방문해서 오래 체류한 사절단은 없으나 여행기 중에는 덴마크, 스웨덴과 함께 노르웨이 관련기사들이 엮보인다. 벌링게임사절단이 노르웨이를 지나친 것으로 보이는데, 별다른 내용은 없고 항해술과 어업에 대한 단편기사가 있다. 실제로 유럽에서 어업이 가

33) 志剛, 『初使泰西記』, p.328.

34) 구메 구니타케 지음, 서민교 옮김,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제4권 유럽대륙(중)), pp.179-181.

35) 泉三郎, 『岩倉使節團』, p.554.

장 번성한 나라는 노르웨이를 꼽는다. 이와쿠라사절단의 기록에도 스칸디나비아인들은 항해술에 뛰어나 선박수송업에서는 뛰어나다고 했다. 덴마크와 스웨덴이 많은 상선을 보유하고 있지만, 노르웨이 역시 소유한 선박이 많고 인구비율로 보면 유럽 제일이었다. 노르웨이인의 조선기술은 특히 우수해 다수가 이 분야에 종사했으나 국내생산만으로는 부족해 해마다 외국으로부터 구입하는 선박이 적지 않다고 썼다.³⁶⁾

3) 남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별령게임사절단은 이와쿠라사절단과 달리 스페인을 직접 방문하였다.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은 한 때 해양제국이었으나 이미 과거의 영광일 뿐이었다. 대형함포도 별로 없었고 스스로 뛰어난 증기선을 제조할 능력이 없어서 주로 영국에서 구매하였다. 지강의 여행기에는 스페인이 쿠바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쿠바의 화공문제에 간단히 언급했는데, 미국정부는 비교적 관대하지만 스페인정부는 가혹하다면서 양자를 비교하였다.³⁷⁾ 별령게임이 사망한 상태에서 남유럽을 방문한 청국사절단은 비록 방문국의 환영을 받았으나 별다른 외교성과는 없었고, 해양문화와 관련한 기억할만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한편 이와쿠라일행은 스위스에서 프랑스 리옹에 도착한 후 본래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갈 예정이었지만 시간에 쫓겨 방문이 취소되었다. 원래 계획은 10개월 동안 14개국을 방문하는 것이었으나 미국에서 조약수정 문제, 영국에서 여왕접견 문제 등 일정에 차질을 빚어 예정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다. 그래도 『미구회람실기』(제88권)에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역사, 교육, 산업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이와쿠라사절단의 『미구회람실기』에는 이탈리아에서 생선요리 대접을 받은 경험을 이채롭게 기록하였다. 나폴리 어부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데, 싱싱하고 훌륭한 물고기였다. 일행의 만찬 중 도미가 식탁에 올랐는데, 일본을 떠나 처음으로 도미를 먹었다. 유럽의 식습관은 육식이 일반적이어서 가축을 식재료로 하고 오히려 생선은 귀해 값이 두 배였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대체로 광어, 대구, 연어를 주로 먹고 그나마 없으면 염장한 청어를 먹는 정도여서 도미는 먹을 일 없었다. 일본사절단을 접대한 이탈리아 백작은 일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알아서 도미요리를 준비한 것이다. 유럽 각국은 모두 이 생선을 요리에 쓰지 않는 귀한 생선이었다.³⁸⁾ 귀국 길에서는 지중해를 항행하면서 이탈리아는 기름에 튀긴 정어리를 통조림에 밀봉해 판매한다고 썼다.³⁹⁾ 도중에 나폴리 항에 잠시 정박했는데, 유럽의 항구에 상륙하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별령게임사절단은 프랑스, 프로이센, 러시아 등과 같은 유럽대륙의 대국에 관심이 많았으며, 이와쿠라사절단도 대체로 국력의 크기와 거류기간에 비례해 기사를 남겼다. 그런데 한 연구자에 따르면, 『미구회람실기』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국가는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과 같은 유럽의 소국들이었다고 한다. 특히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국토가 작고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에 영향력이 있는 것은 국민들이 근면하고 화합하기 때문이라며 일본 근대화 본보기로 삼았다. 오히려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과 같은 4대 강대국에 대해선 많은 분량의 서술에도 불구하고 중간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나머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러시아, 스페인에 대한 평

36) 구메 구니타케 지음, 서민교 옮김,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제4권 유럽대륙(중)), p.195.

37) 志剛, 『初使泰西記』, p.367.

38) 구메 구니타케 지음, 서민교 옮김,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제4권 유럽대륙(중)), p.350.

39) 구메 구니타케 지음, 정선태 옮김,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제5권 유럽대륙(하)), p.301.

가는 높지 않았다고 한다.⁴⁰⁾

4. 나오는 말

동아시아 지식인들에게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과 같은 대양이라는 지리적 공간의 경험은 시·공간 개념의 전환을 가져온 새로운 문명사적 발견이었다. 그런데 벌링게임사절단과 이와쿠라사절단처럼 비슷한 시기에 세계일주한 초기 해외사절단을 서로 비교해 보면, 증기선이나 기차와 같은 교통수단은 물론 등대, 해저케이블, 수에즈운하 등과 같은 해양문명에 대한 이해능력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청국사절단은 일본사절단에 비해 위기의식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귀국 후 이와쿠라일행의 경험은 국가개혁에 상당부분 반영된 반면, 벌링게임일행의 보고는 청국의 개혁정책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⁴¹⁾

양국사절단의 여행기를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에 비해 유럽 국가들의 해양문명에 대한 기사가 풍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서양과 발트해 연해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양강국을 추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여행기에는 해군건설과 조선업, 해군장교와 사병의 선발과 대우, 해군의 군비, 각국 선박의 항구 내 정박과 관리, 해관과 보세창고, 항구의 운영과 선박수리, 수산업과 양식업 등 다양한 내용들이 실려 있다. 유럽대륙 가운데 프랑스는 유럽대륙에서 가장 강대국으로 인식했으며, 프로이센은 흥기하는 등장한 경쟁자로 보았다.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근대화가 덜 된 제국으로, 오스트리아는 이미 노쇠한 제국으로 생각하였다. 다나카 아키라의 ‘소국주의’에 따르면, 『미구회람실기』가 들고 있는 대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도 미국, 영국, 프랑스를 3대국이라고 했다. 소국으로는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등이다. 그는 『미구회람실기』에서 소국에 대한 공감을 보여 주는 기술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전혀 주목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⁴²⁾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대국보다 소국에 주목한 사실의 주요 근거로 군사 분야에 대한 무관심을 제시하는데 과연 맞을까? 근대적 해군건설을 중심으로 한 군함, 대포, 소총 등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관심은 이미 막말 여러 해외사절단에서 충분히 반복적으로 강조한 사실이다. 이와쿠라일행이 대양항해를 할 때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실을 다시 기술할 필요가 없었듯이, 굳이 군사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을 여행기에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미구회람실기』에는 해군 분야에 제한해 보더라도 기술 분량이 여전히 적지 않다. 따라서 그의 소국주의에 대한 주장은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듯싶다.

40) 毛利敏彦, 「岩倉使節團の文明論-「特命全權大東歐回覽實記」を読む」, *Journal of Japanese History*, 274, 1985, pp. 81-83, p.85.

41) 조세현, 「벌링게임사절단과 이와쿠라사절단의 세계일주 항로」 『동양사학연구』, 153, 2020 참고.

42) 다나카 아키라(田中彰), 현명철 옮김, 『메이지 유신과 서양 문명 - 이와쿠라 사절단은 무엇을 보았는가』, 小花, 2006, p.79.

【사회과학분과】 발표 ②

The effects of community urbanization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leisure time physical activity in Chinese adults: a multilevel study

Chen Nan*

【목 차】

1. Introduction
2. Materials and Methods
 - 1) Data
 - 2) Measures
 - 3) Statistical Methods
3. Results

1. Introduction

Leisure time inactivity may cause increased risks of cardiovascular disease, cancer, chronic respiratory disease, diabetes, and mental health (Lee et al., 2012). Many studies have documented that leisure time physical activity (LTPA) is an important contributor to total physical activity and can provide various health benefits (Saint-Maurice et al., 2019; Liu et al., 2018). However, rapid urbanization has been witnessing some lifestyle changes in residents' health related behaviors, including the changing of the physical exercise (Wang et al., 2020). Previous studies have documented mixed findings in LTPA among different geographic areas in the world and within a single country across different levels of urbanization. Some studies found that adults were more sedentary in urbanized areas (Miao & Wu, 2016; Li, et al., 2016). On the contrary, some studies found that citizens who resided in higher urbanized area were more active and had a higher level of physical activities during their leisure time compared with their counterparts (Liu & Walker, 2015; Van Tuyckom, 2011; Barr et al., 2020). Other studies have reported the prevalence of physical inactivity varies by combined effects of degree of urbanization, geographic regions and genders (Reis et al., 2004; Aristides et al., 2014). Thus, the effect of urbanization on LTPA still re

* 고신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부 중국학전공 조교수 (chennan@koisn.ac.kr)

mains unclear, and further research needs to be performed.

Notably, previous study reported that LTPA was associated with sense of community and neighborhood environment (Ross & Searle., 2019). Various dimensions of exogenous community urbanization include greater availability of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housing infrastructure, sanitation improvements and the economic wellbeing (Ng et al., 2009), which may influence LTPA through context rooted in neighborhood-level substandard organizational entities, such as sport and recreation facilities (Galster, 2012; Wang & Wang, 2020). Therefore, exploring the direct effect of community-level urbanization on LTPA may provide a new avenue to targeting the leisure time physically inactive group within communities.

Although prior research has provided great insights into the relationships between urbanization and LTPA, the current study aims to extend the previous results as follows. First, the classification of places as either urban or rural is typically based on the population density(Liu & Walker, 2015). However, urbanization encompasses dimensions beyond solely population size (Champion & Hugo, 2004). Multiple contextual characteristics beyond population size have been designed and utilized for capture the effect of urbanization on adults health behaviors from the physical,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dimensions (Mendez & Popkin, 2005; Monda et al., 2007; Jones-Smith & Popkin, 2010). Hence, research examining the effect of urbanization on LTPA using multiple urbanization scale is warranted.

Second, some literature have explored both rural-urban settings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together to impact participation in LTPA (Chen & Tsai, 2020; Ding et al., 2018; Wilcox et al., 2000). However, studies examined the individuals' health behaviors without taking the group contexts into account. Individuals who were nested in organizations within particular social environments may share certain traditions, attitudes, and lifestyles (Heck et al., 2012). Thus, the multi-level modeling that combines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effects of multilevel variation as well as the contribution of multilevel variables to these variations has been suggested (Duncan et al., 1996). This study aims to combine the micro-scale of people and the macro-scale of contextual settings together in understanding the participation of LTPA.

Third, previous studies have found a relative effects of urbanization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LTPA (Chen et al., 2015; Boone-Heinonen et al., 2011). However, few literature examined the extent to which community-level urbanization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LTPA, despite some evidence that community-level effects may be diversified across different individual characteristics (Attard et al., 2015; Ma, 2010). Double jeopardy hypothesis and relative deprivation hypothesis may associate with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urbanization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LTPA. The first one refers to the harmful influences of individual disadvantaged social status could be intensified for those who live in less urbanized communities. The second one refers to individual with disadvantaged social status living in highly urbanized communities may suffer from relative deprivation. Thus, Further research would yield more comprehensive findings and identify the most vulnerable group who are being influenced by urbanization.

China, as the biggest developing country in the world, has been experiencing a rapid urbanization over the past decades. The urbanization rate dramatically increased from 17.9% in 1978 to 60.6% in 2019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0). As such, it is increasingly important to improve the health and well-being of Chinese adults through exploring the micro and macro factors pertaining to LTPA.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ll the gaps of previous research by examining the relative and interactive effects of community urbanization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LTPA using the Data from China Health and Nutrition Survey (CHNS) in 2015. The findings could provide essential information for the design of intervention strategies to promote LTPA in China. Depending on the previous literature,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developed:

Q1: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participation probability in LTPA after adjusting for within community variation?

Q2: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level urbanization and participation probability in LTPA after adjusting for within community variation in individual characteristics?

Q3: Do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participation probability in LTPA differ with community-level urbanization?

2. Materials and Methods

1) Data

This study used data collected from the China Health and Nutrition Survey (CHNS). This survey program started in 1989 by the collaboration between the Carolina Population Center at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nd the National Institute for Nutrition and Health at the Chines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is study utilized the cross-sectional data from CHNS in 2015. 7,319 households, 20,914 individuals within twelve provinces were pooled. These twelve provinces contain approximately 45% of the Chinese popula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by a multistage, random cluster process (Popkin et al., 2010; Zhang et al., 2014). After removing incomplete responses, 8,430 samples were selected for statistical analyses.

2) Measures

Leisure time physical activity was measured with the question, "Do you participate in these activities?", with responses ranging from "0=no" to "1=yes". Seven types of physical activities were included in this question. They are martial arts (Kung Fu, etc.); gymnastics, dancing, acrobatics; track and field (running, etc.), swimming; walking; soccer, basketball, tennis; badminton, volleyball.

eyball; other (ping pong, Tai Chi, etc.). If the participants answered "yes" to any of those activities, their responses would be coded as 1, otherwise 0.

Individual-level factors were measured in three variables: educational attainment, employment status and gender. Educational attainment was measured by asking respondents, "What is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you have attained?" with responses ranging from "graduated from primary school" to "master's degree or higher". The six categories were recoded as "1=below college" and "0=college". Employment status was measured by asking participants, "What is your primary occupation?". Employment status was recoded from a number of options and grouped into four categories: employed in white collar work (managerial, professional, and clerical jobs), employed in service work (housekeeper, cook, waiter, etc.), employed in blue collar work (skilled worker & non-skilled worker), and employed in agricultural work (farmer, fisherman, hunter, etc.). Given the differential impact of sex in the association with LTPA(Xu et al., 2017), the statistical results are reported by each gender. Age, marital status, and health condition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as control variables. These variables were chosen because they could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pendent variable and independent variables of primary interest in this study (Lee, 2020; Chen & Tsai, 2020). Age is a continuous variable, ranging from 21-65years old. Marital status was recorded as "1=never married", "2=married", and "3=other (divorced, widowed, separated)". Health condition was a self-reported scale, ranging from "1=very good" to "5=very bad".

Community-level urbanization was measured by urbanicity scale which has been suggested and utilized to examine community-level urbanization on health behaviors in China (Jones-Smith & Popkin, 2010; Ng et al., 2014). This scale comprised 12 dimensions including community-level population density, economic activity, traditional markets, modern markets,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sanitation, communications, housing, education, diversity, health infrastructure, and social services. However, survey result of dimension in communications in 2015 was not provided in CHNS dataset. Thus, as contributors of community-level urbanization, only 11 dimensions were utilized in the final statistical analysis. These indicators were standardized using the z-score technique and were summed to provide an overall urbanization score for each community. For the 288 communities in the study areas, the median score was 2.752 (standard deviation=.419). The level of community urbanization was then converted into four categories ranging from 1(least urbanized < -5.134) to 4 (most urbanized > 7.691). Table 1 shows the descriptions for each component dimension.

<Table 1> Dimensions, indicators and descriptions of community-level urbanization score

Dimensions	Descriptions	Range of Values
Population density	• Total population of the community divided by community area, from official record.	0-10
Economic	• Typical daily wage for ordinary male worker and percent of the	0-10

activity	population engaged in nonagricultural work.	
Traditional marke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Distance to the market <ol style="list-style-type: none">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community; within the city but not in this community; not within the city/village/town. 	0-10
Modern marke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Number of supermarkets, cafes, internet cafes, indoor restaurants, bakeries, ice cream parlors, fast food restaurants etc. 	0-10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Most common type of road, distance to bus stop, and distance to train stop. <ol style="list-style-type: none"> within community; <= 1km from community; >= 1km from community. 	0-10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Average education level among adults >21 years old. 	0.48-9.52
Health infrastruc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Number and type of the health facilities in or nearby (12km) the community and number of pharmacies in community. 	0-10
Social Servi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ovision of preschool for children under 3 years old, availability of commercial medical insurance, free medical insurance, and insurance for women and Children. 	0-10
Sani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oportion of households with treated water and prevalence of households without excreta present outside the home. 	0-10
Divers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Variation in community education level and variation in community income level. 	1-9.5
Hous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Average number of days a week that electricity is an available to the community, percent of community with indoor tap water, percent of community with flush toilets, and percent of community that cooks with gas. 	0-10

*Source: Jones-Smith & Popkin, 2010, p.5.

3) Statistical Method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multi-level predictors and LTPA in China.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stimate the relative and interactive effect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gender, education, and employment status) and community-level urbanization on individual LTPA. The multi-level data structure considered in the present analysis was comprised of 8,430 individuals (at level 1) nested within 288 communities (at level 2). According to the research questions, the current study tested three sets of multi-level logistic models, respectively (random intercept models). These models can provide estimates of the compositional effect (individual) and contextual effect (community) on the participation probability of LTPA. To test this,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dividual-level fixed parameters) and community-level urbanization (community-level fixed parameters) were fitted. The intercept was assumed to be random at level 2 in all models. The 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ing (GLMM) was suggested to conduct the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model (Heck et al., 2012) and all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the statistical package SPSS 21.

3. Results

The ICC describes the proportion of variance that lies between communities relative to the total variance. The variance of a logistic distribution with scale factor 1.0 is $\pi^2/3$, or approximately 3.29 (Hox, 2002; Hedeker, 2007). For this current study, the ICC of model 1 for females can be calculated as 0.16 [$0.618/(0.618+3.29)$], suggesting that about 16% of the variability in participation in LTPA lies between 288 communities.

Table 1 and table 2 provide the fixed-effect output for three models, respectively. The estimates for the two individual-level predictors in the model 1 were given in terms of the group coded 1 (i.e., below college, white collar work, service work, and blue collar work). For males, the odds ratio suggests that the odds in participating LTPA for adults with below college degree reduced by about 34.7% compared with their college peers adjusted for age, marital status, and health condition. In addition, the odds in participating LTPA were about 3times, 2.2times, and 1.4times higher for males who worked in white collar jobs, service jobs, and blue collar jobs, compared with their agricultural work peers holding age, marital status, and health condition constant. Similarly, the odds in participating LTPA were about 4times, 2.3times, and 1.6times higher for females who worked in white collar jobs, service jobs, and blue collar jobs, compared with their agricultural work peers holding age, marital status, and health condition constant.

The estimates for the community-level urbanization in the model 2 are given in terms of the group coded 1 (i.e., Quartile 4=Least urbanized, Quartile 3, and Quartile 2). For both males and females, community-level urbanization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probability in participating LTPA, adjusted for other predictors in the model. These suggest that decreased one standard deviation (SD) in terms of urbanization, the odds of participating in LTPA reduced by 60.3% for males and 53.6% for females in least urbanized areas, respectively. For the community-level urbanization*education interaction in model 3, the effect of education on probability of participation in LTPA was different across levels of urbanization in each community for males. The significance of the interaction indicated that decreases in urbanization reduced the positive effect of male with below college degree on the probability of participation in LTPA. In other words, for males with below college degree who resided in least urbanized communities, the odds of participating in LTPA reduced by 94.5% compared to their peers in most urbanized communities, adjusted for other predictors in the model.

<Table 2> Associations between individual-level characteristics, community-level urbanization, and LTPA(odds ratios), results for the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models for male respondents, restricted to ages 21-65, CHNS, 2015

	Model 1	Model 2	Model 3
Constant	-1.358	-.875	-1.049
Individual-level predictors			
Education (below college=1)	.653** (0.479 0.858)	.732* (0.554 0.968)	1.065 (0.7 1.621)
Employment status			
White collar work	2.984*** (2.087 4.267)	2.207*** (1.482 3.287)	2.075*** (1.39 3.098)
Service work	2.237*** (1.59 3.146)	1.66* (1.137 2.424)	1.59* (1.084 2.33)
Blue collar work	1.434* (1.048 1.963)	1.109 (0.794 1.548)	1.066 (0.764 1.487)
Control variables			
Age	1.004 (0.996 1.012)	1.004 (0.996 1.012)	1.004 (0.996 1.012)
Marital status			
Married	1.506* (1.052 2.154)	1.535* (1.072 2.197)	1.531* (1.063 2.207)
Others	1.474 (0.79 2.75)	1.464 (0.786 2.728)	1.444 (0.771 2.702)
Health condition			
Bad & very bad	1.011 (0.605 1.687)	.984 (0.59 1.64)	1.003 (0.604 1.667)
Fair	0.807 (0.609 1.069)	0.796 (0.599 1.058)	0.799 (0.6 1.064)
Good	1.028 (0.784 1.347)	1.032 (0.785 1.358)	1.043 (0.792 1.372)
Community-level urbanization			
Quartile 4(Least urbanized)		.397*** (0.263 0.601)	5.75 (0.766 43.147)
Quartile 3		.586** (0.399 0.862)	.853 (0.413 1.76)
Quartile 2		.573 (0.648 1.271)	1.351 (0.801 2.276)
Cross-level interaction			
Below college * Least urbanized			.055** (0.008 0.397)
Below college * Quartile 3			.164 (0.265 1.254)
Below college * Quartile 2			.55* (0.306 0.987)
Random parameters			
Between communities	4.971***	4.968***	4.942***
Intraclass correlation (ICC)	13.6%	13.4%	13.5%

*Notes: *p< 0.05; **p< 0.01; ***p< 0.001; 95% confidence interval was presented in the parenthesis. Education (reference=college); Employment status (reference=agricultural work), Marital status(reference=never married); Health condition (reference=very good); Community urbanization (reference=Quartile 1 most urbanized)

<Table 3> Associations between individual-level characteristics, community-level urbanization, and LTPA(odds ratios), results for the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models for female respondents, restricted to ages 21-65, CHNS, 2015

	Model 1	Model 2	Model 3
Constant	-1.496	-.919	-.977
Individual-level predictors			
Education (below college=1)	0.9 (0.663 1.221)	.995 (0.732 1.352)	1.094 (0.726 1.648)
Employment status			
White collar work	4.024*** (2.655 6.101)	2.944*** (1.846 4.695)	2.893*** (1.815 4.612)
Service work	2.34*** (1.607 3.406)	1.803** (1.189 2.733)	1.775** (1.173 2.686)
Blue collar work	1.616* (1.065 2.452)	1.285 (0.817 2.02)	1.263 (0.803 1.986)
Control variables			
Age	1.001 (0.993 1.01)	1.002 (0.994 1.011)	1.002 (0.994 1.011)
Marital status			
Married	1.274 (0.676 2.4)	1.225 (0.642 2.336)	1.246 (0.656 2.369)
Others	1.197 (0.788 1.817)	1.133 (0.742 1.73)	1.143 (0.747 1.748)
Health condition			
Bad & very bad	0.709 (0.379 1.324)	0.708 (0.376 1.333)	0.711 (0.377 1.341)
Fair	1.011 (0.719 1.423)	0.991 (0.705 1.391)	0.995 (0.708 1.398)
Good	1.213 (0.901 1.633)	1.207 (0.895 1.628)	1.21 (0.897 1.631)
Community-level urbanization			
Quartile 4(Least urbanized)		.464** (0.287 0.749)	.712 (0.173 2.926)
Quartile 3		.418*** (0.271 0.645)	.417** (0.214 0.813)
Quartile 2		.82 (0.575 1.17)	.932 (0.549 1.583)
Cross-level interaction			
Below college * Least urbanized			.609 (0.142 2.604)
Below college * Quartile 3			.968 (0.479 1.958)
Below college * Quartile 2			.818 (0.441 1.519)
Random parameters			
Between communities	4.825***	4.855***	4.873***
Intraclass correlation (ICC)	16%	15.8%	15.9%

*Notes: *p< 0.05; **p< 0.01; ***p< 0.001; 95% confidence interval was presented in the parenthesis. Education (reference=college); Employment status (reference=agricultural work), Marital status(reference=never married); Health condition (reference=very good); Community urbanization (reference=Quartile 1 most urbanized)

【References】

-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Statistical Yearbook of China 2020. Available at: <http://www.stats.gov.cn/tjsj/ndsj/2020/indexch.htm>. Accessed on 17 Mar 2021.
- Ng SW, Howard AG, Wang HJ, Su C, Zhang B. The physical activity transition among adults in China: 1991–2011. *Obes Rev.* 2014;15(S1):2736.
- Lee, IM., Shiroma, EJ., Lobelo, F., Puska, P., Blair, SN., & Katzmarzyk, PT. (2012). Effect of physical inactivity on major non-communicable diseases worldwide: An analysis of burden of disease and life expectancy. *The Lancet*, 380(9838), 219 - 229.
- Miao, J., & Wu, X. (2016). Urbanization,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 disparity in China. *Health & Place*, 42, 87–95.
- Wang, Z., Qin, Z., He, J. et al. The association between residential density and physical activity among urban adults in regional China. *BMC Public Health* 19, 1279 2019. <https://doi.org/10.1186/s12889-019-7593-4>
- Liu, H., Walker, G. The Effects of Urbanization, Motivation, and Constraint on Chinese People's Leisure-Time Physical Activity, *Leisure Sciences*, 2015, 37(5), 458–478.
- Monda KL, Gordon-Larsen P, Stevens J, Popkin BM. China's transition: the effect of rapid urbanization on adult occupational physical activity. *Soc Sci Med.* 2007;64(4):858–870. doi:10.1016/j.socscimed.2006.10.019
- Mendez MA, Popkin BM. Globalization, urbanization, and nutritional change in the developing world. *Electronic Journal of Agricultural and Development Economics* 2005;1:220241.
- Jones-Smith JC, Popkin BM. Understanding community context and adult health changes in China: development of an urbanicity scale. *Soc Sci Med.* 2010;71(8):1436–1446.
- Barr, A.L., Partap, U., Young, E.H. et al. Sociodemographic inequities associated with participation in leisure-time physical activity in sub-Saharan Africa: an individual participant data meta-analysis. *BMC Public Health* 20, 927 (2020). <https://doi.org/10.1186/s12889-020-08987-w>
- Reis JP, Bowles HR, Ainsworth BE, Dubose KD, Smith S, Laditka JN. Nonoccupational physical activity by degree of urbanization and U.S. geographic region. *Med Sci Sports Exerc.* 2004, 36(12):2093–8. doi: 10.1249/01.mss.0000147589.98744.85. PMID: 15570145.
- Champion, A., Hugo, G. *New forms of urbanization: Beyond the urban-rural dichotomy.* Aldershot, England: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04.
- Duncan MJ, Mummery WK, Steele RM, Caperchione C, Schofield G. Geographic location, physical activity and perceptions of the environment in Queensland adults. *Health Place.* 2009 Mar;15(1):204–9.
- Ding, C., Song, C., Yuan, F., Zhang, Y., Feng, G., Chen, Z., & Liu, A. (2018). The physical activity patterns among rural Chinese adults: Data from China national nutrition and health survey in 2010–2012.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5(5),941. <https://doi.org/10.3390/ijerph15050941>
- Chen, N., Tsai, CT.L. Rural-Urban Divide and the Social Stratification in Leisure Participation in China: Application of Multiple Hierarchy Stratification Perspective. *Applied Research Quality Life* 15, 1535 - 1548 (2020). <https://doi.org/10.1007/s11482-019-09750-z>
- Wilcox S, Castro C, King AC, et al. Determinants of leisure time physical activity in rural compared with urban older and ethnically diverse wome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Epidemiology & Community Health* 2000;54:667–672.
- Saint-Maurice, P., Coughlan, D., Kelly, S., et al. (2019). Association of leisure-time physical activity across the adult life course with all-cause and cause-specific mortality. *JAMA Netw Open.*2(3):e190355. doi:10.1001/jamanetworkopen.2019.0355
- Liu, Y., Shu, X., Wen, W., Saito, Eiko., Rahman, S., Tsugane, S, ..., Zheng, W. (2018). Association of leisure-time physical activity with total and cause-specific mortality: a pooled analysis of nearly a half million adults in the Asia Cohort Consortium,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47(3), 771 - 779.
- Ng, SW., Norton, EC., & Popkin, BM. (2009). Why have physical activity levels declined among Chinese adults? findings from the 1991–2006 China Health and Nutrition Surveys. *Soc Sci Med*, 68(7),

- 1305-1314.
- Ross A, Searle M. A Conceptual Model of Leisure Time Physical Activity,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Sense of Community. *Environment and Behavior*. 2019;51(6):749-781.
doi:10.1177/0013916517751582
- Galster, GC., 2012. The mechanism(s) of neighbourhood effects: Theory, evidence, and policy implications. In: van Ham M., Manley, D., Bailey, N., Simpson, L., Maclennan, D. (Eds.). *Neighbourhood effects research: New perspectives SE2*. Springer Netherlands, pp.23-56.
- Chen, M., Wu, Y., Narimatsu, H., Li, X., Wang, C., Luo, J., et al. (2015) Socioeconomic status and physical activity in Chinese adults: A report from a community-based survey in Jiaxing, China. *PLoS ONE* 10(7): e0132918. doi:10.1371/journal.pone.0132918
- Boone-Heinonen et al. (2011). Neighborhood socioeconomic status predictors of physical activity through young to middle adulthood: The CARDIA study. *Social Science & Medicine*, 72(5), 641-649.
- Van Tuyckom, C. (2011). Macro-environmental factors associated with leisure-time physical activity: A cross-national analysis of EU countries.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39(4), 419-426.
- Li, X., Song, J., Lin, T. et al. Urbanization and health in China, thinking at the national, local and individual levels. *Environ Health* 15, S32 (2016). <https://doi.org/10.1186/s12940-016-0104-5>
- Wang, K., & Wang, X. (2020). Providing Sports Venues on Mainland China: Implications for Promoting Leisure-Time Physical Activity and National Fitness Policies.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17(14):E5136. doi:10.3390/ijerph17145136
- Aristides, M, et al., Urban - rural contrasts in fitness, physical activity, and sedentary behaviour in adolescents,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29(1), 2014, 118 - 129, <https://doi.org/10.1093/heapro/das054>
- Wang, R, et al., Is lifestyle a bridge between urbanization and overweight in China?, *Cities*, 99, 2020, <https://doi.org/10.1016/j.cities.2020.102616>
- Barry, Popkin, B. 1999. Urbanization, Lifestyle Changes and the Nutrition Transition. *World Development*, 27(11), 1905-1916, [https://doi.org/10.1016/S0305-750X\(99\)00094-7](https://doi.org/10.1016/S0305-750X(99)00094-7)
- Zhang, B., Zhai, F., Du, S., & Popkin, B. (2014). The China health and nutrition survey, 1989-2011. *Obesity Review*, 15(S1), 2-7.
- Popkin, BM., Du, S., Zhai, F., & Zhang., B. (2010). Cohort profile: The China health and nutrition survey monitoring and understanding socio-economic and health change in China, 1989-2011. *Int J Epidemiol*, 39(6), 1435-1440.
- Attard SM, Howard AG, Herring AH, Zhang B, Du S, Aiello AE, Popkin BM, Gordon-Larsen P. Differential associations of urbanicity and income with physical activity in adults in urbanizing China: findings from the population-based China Health and Nutrition Survey 1991-2009. *Int J Behav Nutr Phys Act*. 2015 Dec 12;12:152. doi: 10.1186/s12966-015-0321-2.
- Xu CX, Zhu HH, Fang L, Hu RY, Wang H, Liang MB, Zhang J, Lu F, He QF, Wang LX, Chen XY, Du XF, Yu M, Zhong JM. Gender disparity in the associations of overweight/obesity with occupational activity, transport to/from work, leisure-time physical activity, and leisure-time spent sitting in working adults: A cross-sectional study. *J Epidemiol*. 2017 Sep;27(9):401-407. doi: 10.1016/j.je.2016.08.019.
- Heck, R., Thomas, S., Tabata, L., 2012. *Multilevel modeling of categorical outcomes using IBM SPSS*. New York: Routledge.
- Ma, H. (2010). Zhongguo nongmingong xianxia shenghuo zhuangkuang diaocha [Survey on the leisure life conditions of Chinese migrant workers]. In Song. R (Eds.), *Annual Report on China's Leisure Development* (pp.198-216). Beijing: Social Sciences Academic Press.
- Lee, N. The Benefits of Exercise Effect on Cancer: A Review. *Exerc Sci*. 2020;29(1):4-9.
- Hox, J. (2002). *Quantitative methodology series. Multilevel analysis techniques and application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Hedeker, D. (2007). Multilevel models for ordinal and nominal variables. In J. de Leeuw & E. Meijers (Eds.), *Hanbook of multilevel analysis* (pp.341-376). New York, NY: Springer.

【사회과학분과】 발표 ③

鲁西南地区彩礼价格影响因素分析

王彦迪* · 李丹**

【目录】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绪论 2. 当地彩礼现状与“一头沉”式婚姻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当地人眼中的彩礼 2) “一头沉”式婚姻 3) “媒礼”与中介费 4) “天价彩礼”的支付过程 |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天价彩礼”背后的社会心理原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盲目攀比心理 2) 跟风从众心理 3) 重男轻女心理 4) 父代强责任心理 5) “以礼争气”心理 4. 结论 |
|--|---|

1. 绪论

近年来,关于中国农村“天价彩礼”的各种新闻报道层出不穷,“天价彩礼”以其高昂的彩礼价格导致很多适龄农村男性无法成婚,进而引发了各种各样的社会问题。由此“天价彩礼”引发了中国社会各界的广泛关注,同时也遭到了猛烈的批判,社会学者们也以不同的角度对“天价彩礼”现象进行了深入的探究。

彩礼是中国古代的婚嫁习俗之一,作为婚姻的缔结,有在婚姻约定初步达成时互相赠送聘金、聘礼的习俗,这种聘金、聘礼俗称“彩礼”¹⁾。现在彩礼更多的是指作为“干礼”的现金。最近若干年农村彩礼价格一直在飙升,由2000年左右的几千元涨到现在的十几万元,有的地方已突破20万元,被媒体称为“天价彩礼”²⁾。目前中国学界普遍认为是北方农村“天价彩礼”出现的频率高于南方农村,落后地区的“天价彩礼”出现频率高于发达地区。作者同时发现,位于苏鲁豫皖四省交界的鲁西南地区,“天价彩礼”现象频发,其中又以郓城县³⁾农村的彩礼价格独占鳌头,在进入2020年代之后郓城县农村地区公认的彩礼数额已经达到了40万元,出现了一种名为“一头沉”式婚姻。

从目前现存的关于研究彩礼的文献中来看,主要分为两个研究学派。一类是从社会学的角度出发,以

* 第一作者。부경대학교 중국학과 석박사통합과정 (tobyooqn@qq.com)。

** 通讯作者。부경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lidan5344@naver.com)。

1) 百度百科:“彩礼”的定义 [2021.04.20.] <https://baike.baidu.com/item/%E5%BD%A9%E7%A4%BC/81908?fr=aladdin>

2) 杨华,〈代际责任、通婚圈“天价彩礼”——对农村彩礼机制的理解〉,北京社会科学,2019。

3) 郓城县位于鲁西南地区,隶属山东省菏泽市,截至2018年,郓城县辖16个镇、2个乡、4个街道。全县户籍总人口1282554人,其中女性人口608813人,约占总人口比重的47.5%,男性人口673741人,约占总人口比重的52.5%。同年,郓城县实现地区生产总值(GDP)407.50亿元,人均生产总值36597元。

调查研究为主, 主要探究的是“天价彩礼”形成的机制和原因, 以及其中存在的社会现象与所产生的问题。杨华(2019), 从“代际责任”的分析框架和“婚姻挤压”研究进路两个方面分析了农村彩礼的机制以及“天价彩礼”现象形成的原因, 并提出因男女比例不均衡、“通婚圈”小、人们相互之间的攀比心理等多种原因, 共同造成了“天价彩礼”的出现。有些学者分别前往山东、河南、江苏、安徽等“天价彩礼”高发地区的农村进行了实地调查研究, 并且将自己的观察发现以文献的方式整理出来, 同时也进行了许多分析与研究, 提出了其宝贵的意见。

另一类是从法律学的角度出发, 主要探究的是彩礼在法律层面上的规范性、合法性, 以及当婚约完成、彩礼由男方家庭转入女方家庭之后, 在其中一方提出“悔婚”的情况下, 彩礼应当如何由女方家庭返还给男方家庭的问题。金眉(2019)提出, 应当在彩礼不同于其他普通的金钱和财物的文化意义的基础上, 按照民间习惯, 确立彩礼返还的基本规则。

本次研究选取鲁西南地区的意义主要是因为鲁西南地区独特的区位因素, 地处四省交界的位置, 相对于其他地区而言更加具有代表性。其次因鲁西南地区虽然经济上相对落后, 但彩礼价格却如此昂贵, 背后的原因值得探究。又由于目前郓城县农村的彩礼价格位于鲁西南地区的前列, 所以本文将鲁西南地区郓城县内出现的“天价彩礼”现象作为研究对象, 进行分析。

本文将基于社会心理的角度展开研究, 以文献研究为基础, 通过对于郓城县农村地区“天价彩礼”现象的观察, 解释分析当地居民对于彩礼现象所持的社会心理。

2. 当地彩礼现状与“一头沉”式婚姻

1) 当地人眼中的彩礼

彩礼在中国被视为婚姻缔结中的“六礼”之一, 是男方家庭流向女方家庭的财物, 包括现金和物质。⁴⁾在当地居民眼中, 彩礼既为“财”也为“礼”。“财”指代男方可以一次性凑齐数额巨大的现金, 具有组建家庭的经济能力; “礼”指礼仪、礼数。“想结婚的话男方就一定要准备彩礼”、“如果没有彩礼则是不懂礼数的表现”等思想已经成为了当地农村居民的共识。同时彩礼在婚姻过程中, 相应地承担了男方对于女方家庭的“经济补偿功能”、二者婚姻的“证约功能”、以及组成家庭之后的“生活保障功能”。其中“经济补偿功能”以“婚姻偿付理论”为基础, 在父系家族体系和从夫居形式及男尊女卑的价值观下, 女性在娘家没有地位, 她的准确地位是另一个家庭的媳妇, 即为另一个家庭传宗接代和为公婆养老送终的角色。然而, 亲身父母的养育如何报答? 女方家庭向男方索要一定的彩礼, 以补偿养育女儿所付出的辛劳和费用似乎是最佳方式。⁵⁾

根据当地的婚姻风俗习惯, 彩礼主要由“见面礼”、“订婚礼”、“三金钱”、“改口费”等组合而成。2010年代初期主要流行的一种说法是“万紫千红一片绿”, “万紫”指一万张五元人民币, 一千张百元人民币, 以及不计数量的五十元人民币, 一般总计20万元。2010年代中后期流行的是“三个九万九”, 意指男方在结婚之前, 分3次给与女方家庭彩礼, 每次9.9万。进入2020年代之后, 可能是受到新冠疫情的影响, 人们消费观念发生了改变, 彩礼也由“三个九万九”变为了“四个九万九”。除此以外, 还有“一

4) 刁统菊, <嫁妆与聘礼: 一个学术史的简单回顾>, 《山东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7。

5) 熊风水、慕良泽, <婚姻偿付·婚姻资助·姻亲互惠——对农村婚姻支付实践的尝试性解读>, 《新疆社会科学》, 2009。

动不动”的说法，“一动”意指可以开动的汽车，“不动”意指不能移动的房子。有些学者将车房看作是隐性彩礼，但本文中的研究对象主要指作为“干礼”的礼金，所以车和房不计入本文的研究范围内。

2) “一头沉”式婚姻

目前郓城县人民普遍地将彩礼为“四个九万九”式的婚姻，统称为“一头沉”式婚姻，原因主要为：目前当地农村地区，适龄男女双方在结婚之前的任何花费，都由男方独自承担，包括女方应该进行的“回礼”、“嫁妆”、“陪嫁”等，都只是名义上为女方送给男方的物品，实则由男方来买单。因对于男方而言压力太过于沉重，所以称其为“一头沉”。由于当地经济的落后，大多数的农村家庭以自己的家庭经济状况，负担不起如此沉重的彩礼，但是父代为了能够让子代尽早成婚，不惜通过借贷的方式来凑齐“天价彩礼”。随着这种现象表现出来的，是北方农村的“父代强责任”以及“代际剥削”。

“父代强责任”意指父代对子代成婚的强责任，“为子女结婚”成为父母必须完成的人生任务。能否完成这个人生任务，决定父母在村庄中能否获得面子和尊严，是其人生是否圆满的重要标志。⁶⁾因为北方农村父代对于子代成婚的强责任，父母为儿子准备彩礼就成为了父母对于孩子应尽的义务。在“父代强责任”的思想下，“代际剥削”的现象也就变得不可避免。关于彩礼的代际剥削是指子代在彩礼的支付过程中，无论父母是否自愿，为了组建新婚家庭而对父母索取财富的现象。在女方要价的环境下男方父母被动地满足彩礼和婚房的要求，这种花费已经远远超出了男方父母的承受能力。⁷⁾

3) “媒礼”与中介费

在当地人眼中，男女若要谈婚论嫁，一定要有传统婚姻之中的“父母之命、媒妁之言”，这样才能够显得名正言顺，即使是在男女双方自由恋爱的情况下，也必须由男方找到一个“媒人”，去女方家中提亲，并且商议彩礼的价格以及支付彩礼的过程。媒人会自提亲起，到订婚、促成结婚都会起着中间人的作用，在男女双方间作跑腿、联络、协调、细节调解、搞气氛、说吉祥说话，直至婚礼结束。⁸⁾每当媒人说成了一桩亲事，就会向男方索取所谓的“媒礼”（中介费），平均价格为一万元，如果男方为第二次结婚的话，就涨价为二万元。由此在郓城县农村地区也相应地出现了一群以说媒为生的“媒婆”。

4) “天价彩礼”的支付过程

在适龄男女通过一段时间的了解及交往之后，双方则会征求自己家人的同意，经过双方家人的同意后，由男方家庭委托一位媒人到女方家中提亲，并商定见面事宜。选定日期之后即是第一次双方家庭间正式见面，由女方家庭邀请男方到女方家吃饭，与此同时男方需要带着“见面礼”，当地农村的“见面礼”一般为十箱礼品，如香烟、白酒、牛奶、糖等十种不同种类的礼品。第二次家庭间正式见面为男方家庭邀请女方到男方家吃饭，此时对于女方所带礼品数量没有要求，但是不能空手去，这样就是不懂礼节的表现。

在经过前两次的家庭间正式见面之后，如果男方有想要结婚的意图，即会委托媒人到女方家商量彩礼

6) 杨华，〈代际责任、通婚圈“天价彩礼”——对农村彩礼机制的理解〉，《北京社会科学》，2019。

7) 韦艳、姜全保，〈代内剥削与代际剥削？——基于九省百村调查的中国农村彩礼研究〉，《人口与经济》，2017。

8) 百度百科：媒人 [2021.04.24.] <https://baike.baidu.com/item/%E5%AA%92%E4%BA%BA/606622?fr=aladdin>

的价格, 然后媒人再回男方家传话。在这个过程中往往媒人会把彩礼的价格抬高很多, 因为他们认为男方给与女方彩礼的数额越高, 女方同意嫁给男方的几率也就越高, 这样媒人就可以收取“媒礼”了。

在彩礼价格商定之后, 此时男方会支付“第一个九万九”, 男方在支付完成后一般会认为是“吃了定心丸”, “第一个九万九”起到了一个“订金”的作用。在中国政府没有批判“天价彩礼”之前, 彩礼一直是将现金装在一个大盘子里, 摆成一个扇形, 由男方端着盘子去女方家, 现如今是以存折的方式转交给女方父母。

“第二个九万九”是在订婚时由男方以存折的方式转交给女方父母, 在订婚时有一项活动被称为“认家”, 意指女方家人去男方家里看一看, 以及双方亲人互相认识的过程, 此时会产生一个“改口费”大概6000元, “改口”意指男女双方开始改口称对方的父母为爸、妈。

“第三个九万九”为双方正式商订结婚日期时, 男方带着烟、酒、菜, 去女方家里吃饭, 把第三个九万九的存折, 转交给女方父母。

“第四个九万九”即是在举行婚礼时, 男方将存有九万九的存折, 转交给女方父母。

除此之外, 还有“三金”, 即金手镯、金项链、金戒指, 综合价格一般在2万元上下。

3. “天价彩礼”背后的社会心理原因

“天价彩礼”并非是凭空形成的, 其产生与一定的社会结构和文化因素有关。总体上, 社会结构因素为天价彩礼的形成准备了整体环境, 而社会文化因素则为“天价彩礼”的形成与运转提供了社会心理基础。⁹⁾ 本文将基于社会心理的角度去分析, 阐述由价值观念的变化而导致的盲目攀比心理、跟风从众心理; 受传统封建思想影响而产生的重男轻女心理, 代际关系中父代强责任心理; 以及女方父母期望女儿出嫁之后不受到婆家欺负的“以礼争气”心理。

1) 盲目攀比心理

农村富裕家庭和儿子自身条件不足的家庭率先推出婚姻支付的“体面标准”, 是婚姻支付暴涨的源头。¹⁰⁾ 当地农村居民由于受到这种“体面标准”的影响, 为了维护或抬高自己的面子, 不断地进行攀比, 从而推动当地彩礼价格越来越高, 成为“天价彩礼”。一方面, 有的家庭因为自己的儿子娶媳妇时付出了“天价彩礼”, 所以也希望在嫁女儿时捞回点成本, 获得一种心理平衡, 为了保存自己的脸面而不得不要“天价彩礼”。另一方面, 很多村民往往是为了讲面子而讲面子, 认为彩礼要得越多, 自己的女儿就越值钱, 自己也就越有面子。这种爱慕虚荣、讲排场、摆阔气的面子竞争, 导致“天价彩礼”现象越来越多。¹¹⁾

2) 跟风从众心理

“天价彩礼”的形成, 与乡民缺乏自主性, 容易跟风从众有关。¹²⁾ 在当地社会文化中, 有句话叫做

9) 何绍辉, <货币下乡与价值错乱——兼论天价彩礼的形成及其社会基础>, 《理论探索》, 2017。

10) 邓会敏, <农村“天价娶妻”现象解读——基于冀南H村的田野调查>, 《中华女子学院学报》, 2014。

11) 何绍辉, <货币下乡与价值错乱——兼论天价彩礼的形成及其社会基础>, 《理论探索》, 2017。

“枪打出头鸟”，意指做人不要太过显露，否则易招来横祸，比喻出面带头的人容易遭受打击。¹³⁾同时也被曲解为，“不管做什么，不能表现的比别人强，但也不能比别人弱。”以及“随大流¹⁴⁾一定出不了差错”等这些观念共同导致了当地人的跟风从众心理。关于彩礼的从众心理是指当一个地区因攀比心理而导致“天价彩礼”现象频发之后，即使是没有能力进行经济条件攀比的 家庭，也会因为这种跟风从众心理，想尽一切办法来凑齐“天价彩礼”。盲目攀比心理与跟风从众心理，从根本上讲其实都是当地独特的“面子文化”所带来的产物。

3) 重男轻女心理

重男轻女心理在当地农村主要表现为：如果一个家庭的后代里没有男孩，那就会被同村其他家庭看不起，甚至被欺负。反之一个家庭的后代里男孩越多，这个家庭在村子里就越强大，说话底气也越足，也就是所谓的“人多势众”。另一方面是因为“养儿防老”，意指在父母年迈之后，儿子就要担负起照顾父母的责任，因为女儿往往被称为“嫁出去的姑娘泼出去的水”，所以既然父母由儿子来照顾，那么财产的继承权也在儿子身上。也是在这种心理的影响下，很多家庭第一胎如果是女孩的话，就会继续生二胎，三胎，直至生出一个男孩为止，同时如果第一胎是个男孩的话，可能就不再继续生育了。

由于当地村民重男轻女的心理严重，农村女孩外出务工的现象时有发生，这导致了当地农村一部分适龄女性人口外流。截至2018年，郓城县男女比重为52.5:47.5%，性别比例的不均衡使女方在婚姻市场中占据优势，同时也掌握了婚姻的主动权和话语权。¹⁵⁾所以彩礼价格在由女方主导的情况下，逐渐演变成了“天价彩礼”。

4) 父代强责任心理

在学者将中国北方农村与南方农村的彩礼价格进行对比分析后发现，父代责任的强弱是决定当地彩礼价格高低的重要因素。¹⁶⁾因为这种父代强责任心理，子代在婚嫁上往往没有独立自主的选择权。只要子代到了应该婚嫁的年龄，一般都是由父代直接挑选合适的对象，安排双方见面相亲。北方农村父代深度参与子代的婚姻竞争，使得当地适婚男性的婚姻支付能力较强。¹⁷⁾从父代对子代的婚姻责任感较强的角度来看，父代已经把让子代结婚当作自己的人生任务，所以父代会想尽一切办法来为子代准备好为了结婚而需要的彩礼。

与父代强责任心理相呼应的是一种排外心理，在婚姻方面主要表现为排斥外地婚。父代出于对子代婚姻负责的心理，本地婚往往更受其青睐，因为婚姻的夫妻双方以及双方的家庭都在同一个地区生活的时间很久，双方的家庭背景、家庭条件以及社会上的口碑、名气等都可以通过多方打听到足够的了解，双方彼此知根知底，父代可以由“彩礼”的名义放心地将财产过渡给子代，帮助子代完成婚姻的资本积累，从而完成父代对子代的婚姻责任。

12) 何绍辉，〈货币下乡与价值错乱——兼论天价彩礼的形成及其社会基础〉，理论探索，2017。

13) 百度百科：枪打出头鸟。[2021.04.25.] <https://baike.baidu.com/item/%E6%9E%AA%E6%89%93%E5%87%BA%E5%A4%B4%E9%B8%9F/31530?fr=aladdin>

14) “随大流”指顺着多数人说话或办事。

15) 桂华、于练，〈婚姻市场要价：理解农村婚姻交换现象的一个框架〉，《青年研究》，2010。

16) 杨华，〈代际责任、通婚圈“天价彩礼”——对农村彩礼机制的理解〉，《北京社会科学》，2019。

17) 杨华，〈农村婚姻挤压的类型及其生成机制〉，《华中农业大学学报》（社会科学版），2019。

5) “以礼争气”心理

“以礼争气”心理是学者在对于某地区彩礼议价过程进行调查时所提出的，意指婚姻双方的家庭通过对彩礼价格高低的商定情况，来达到为自己“争口气”的目的，主要是为了维护自身的面子。同时是为了表现出对男方道德感受力的质疑和对自身地位的坚守，其根本目的在于以此塑造平等的姻亲关系，并影响即将结成的小家庭的秩序，为女儿“撑腰”。¹⁸⁾有的女方父母为了避免自己的女儿在结婚以后受到男方家庭的“欺负”，或是“瞧不起”，会通过以抬高彩礼价格的方式，让男方家庭认为自己不是“软柿子”。也有的女方父母希望通过索取“天价彩礼”来表明女儿的身价，让自己的女儿在婚后的生活中可以得到男方及其家庭足够的珍惜以及善待。

4. 结论

“盲目攀比”、“跟风从众”、“重男轻女”、“父代强责任”、“以礼争气”等心理，从不同的角度出发，共同为“天价彩礼”的形成与运转提供了社会心理基础，从而导致了当地“天价彩礼”现象的产生。

“盲目攀比心理”是推动彩礼价格越来越高的主要心理原因。主要由当地农村居民的虚荣心而产生，其根本原因归结于当地“要面子”、“好面子”的“面子文化”。

“跟风从众心理”产生的原因与当地农村居民缺乏自主性有关，同时也受到当地“面子文化”的影响。在某些家庭因相互之间的攀比导致彩礼价格升高之后，从众心理是将其价格固定于高位的主要因素。

“重男轻女心理”自古以来一直存在于当地居民心中，这种心理是导致当地男女比例不均的主要因素之一。当地男女比例不均导致了婚姻性别挤压的产生，婚姻性别挤压使女方成为当地婚姻市场中的卖方市场，女方有资本索要高额彩礼，男方也会主动创造条件来吸引女方，男女双方共同推高彩礼价格。¹⁹⁾

“父代强责任心理”是“重男轻女心理”之下的产物，父代出于对子代“传宗接代”、“养儿防老”的期望，使得帮助子代成婚成为了自己的人生任务之一，

同时也是因为父代的帮助，才使得子代有足够的去支付“天价彩礼”。在当地人结婚普遍比较早的大环境中，如果没有父代的帮助，子代凭借自己的能力大部分都无法凑足“天价彩礼”。换句话讲，在婚姻市场中如果只有卖方市场而没有买方市场的话，女方肯定也会因此而降低彩礼的价格，所以说“父代强责任心理”为“天价彩礼”的出现提供了源源不断的动力。同时出现的“排外心理”使得当地农村居民更偏向于本地婚，本地婚的安全性让父代可以放心地支付“天价彩礼”。

“以礼争气心理”与“盲目攀比心理”不同的地方主要为两者的出发点不同。“以礼争气心理”的根本目的是为了塑造平等的姻亲关系，而“盲目攀比心理”强调的是面子问题。“以礼争气心理”产生于男女双方议定彩礼价格的过程之中，从侧面抬高了彩礼的价格进而推动了“天价彩礼”的产生。

18) 王思凝、贾宇婧、田耕，〈“议彩礼”：论农村彩礼形成机制中的道德嵌入性——基于甘肃L县的案例分析〉，《社会》，2020。

19) 杨华，〈代际责任、通婚圈“天价彩礼”——对农村彩礼机制的理解〉，《北京社会科学》，2019。

【参考文献】

- 邓会敏,〈农村“天价娶妻”现象解读——基于冀南H村的田野调查〉,《中华女子学院学报》,2014.
- 刁统菊,〈嫁妆与聘礼:一个学术史的简单回顾〉,《山东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2007.
- 何绍辉,〈货币下乡与价值错乱——兼论天价彩礼的形成及其社会基础〉,《理论探索》,2017.
- 桂华、于练,〈婚姻市场要价:理解农村婚姻交换现象的一个框架〉,《青年研究》,2010.
- 金眉,〈论彩礼返还的请求权基础重建〉,《政法论坛》,2019.
- 康娜,〈婚约彩礼习惯与制定法的冲突与协调——以山东省为例〉,《民俗研究》,2013.
- 田丰,陈振汴〈农村青年结婚高额彩礼问题探析——以福建省大田县为例〉,《中国青年社会科学》,2016.
- 王思凝、贾宇婧、田耕,〈“议彩礼”:论农村彩礼形成机制中的道德嵌入性——基于甘肃L县的案例分析〉,《社会》,2020.
- 韦艳、姜全保,〈代内剥削与代际剥削?——基于九省百村调查的中国农村彩礼研究〉,《人口与经济》,2017.
- 熊风水、慕良泽,〈婚姻偿付·婚姻资助·姻亲互惠——对农村婚姻支付实践的尝试性解读〉,《新疆社会科学》,2009.
- 闫红果,〈农村适婚男青年“妻荒”问题及其动力机制——基于鲁西南G村调查〉,《知与行》,2020.
- 杨华,〈代际责任、通婚圈“天价彩礼”——对农村彩礼机制的理解〉,《北京社会科学》,2019.
- 杨华,〈农村婚姻挤压的类型及其生成机制〉,《华中农业大学学报》(社会科学版),2019.
- 张川川、陶美娟,〈性别比失衡、婚姻支付与代际支持〉,《经济科学》,2020.
- <https://baike.baidu.com/item/%E5%BD%A9%E7%A4%BC/81908?fr=aladdin> [2021.04.20.]
- <https://baike.baidu.com/item/%E9%83%93%E5%9F%8E%E5%8E%BF/2462475?fr=aladdin#7> [2021.04.24.]
- <https://baike.baidu.com/item/%E5%AA%92%E4%BA%BA/606622?fr=aladdin> [2021.04.24.]
- <https://baike.baidu.com/item/%E6%9E%AA%E6%89%93%E5%87%BA%E5%A4%B4%E9%B8%9F/31530?fr=aladdin> [2021.04.25.]

